이 책의 내용은 200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KRF-2007-362-B00013)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제 4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일시 |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장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회의실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한국슬라브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주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후원 | 한국연구재단

세션별 주제 및 진행

10:00-10:20 개회식

• 개회사
- 염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환영사
- 배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축사
- 고상두(한국 슬라브학회 회장), 이재철(중앙아시아경제학회 회장)

10:20-12:20 I 세션 (KIEP 세션) 중앙아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과 특징 분석

사회 : 이상준(국민대)

발표 :
윤성학(KIEP) – 중앙아시아 한국기업의 CSR 성과와 과제
오명열(포스코 경영연구소) – 중앙아시아 플랜산업 진출의 분석
조명환(KIEP)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비교 연구

토론 : 강명구(산업은행), 채성훈(KIEP), 김재환(산업연구원)

II 세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 중앙아시아의 역사, 도시 그리고 영화

사회 : 최건영(인제대)

발표 :
지제형(한양대) –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정세진(한양대) – 타지크와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소고 : 독립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박영은(한양대) –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반영된 사이니즘 영상의 부활

토론 : 양승조(고려대), 송준서(한국외대), 김영미(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무국장)

III 세션 (슬라브학회 세션)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발전과 전망

사회 : 고상두(연세대)

발표 :
범일권(한국외대) – 중앙아시아 5개국의 러시아인 문제연구 : 동질성 변화, 전망
남혜현(고려대) –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와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문준일(중앙대) –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 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토론 : 황영삼(한국외대), 정정래(경성대), 오원교(한양대)

12:20-13:40 오 찬

13:40-15:40 **IV 세션 (KIEP 세션II)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이해**

사회 : 이재영(KIEP)

발표 : 김원희(한국외대) –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Taboo)의 형성 전략
김상철(한국외대) –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사회 변화 :
제3의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를 중심으로
성동기(인하대) – 우즈베키스탄 도덕세대의 종교와 분석

토론 : 김민수(한국외대), 김원경(강남대), 채성훈(KIEP)

V 세션 (중앙아시아경제학회 세션I) 한국과 몽골 : 인식과 협력의 새로운 지평

사회 : 정형두(경운대)

발표 : 김홍점(순천향대) –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박지원(한국외대) –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최재희(고려대) –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통한 한-몽골 교류 확대 방안

토론 : 박광순(전임연구원), 이상호(세종대), 이명휘(한국외대)

VI 세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II) 중앙아시아 정치-경제 발전과 전망

사회 : 임구호(한양대)

발표 : 강봉구(한양대) – 체르기나 지역의 국경 분쟁
김영준(한양대) –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송금 :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류승수(한양대) –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연구

토론 : 김정훈(세종대), 김상원(국민대), 김신규(한국외대)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VII 세션 (중앙아시아 경제학회 세션II)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구조와 전략**

사회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발표 : 이영형(한양대) – 중앙아시아 공간의 정체 연구: 한문지리학 변수를 중심으로
이지은(한국외대) – 탑(탑) 방전 후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Connect Central Asia Policy)" : 안보,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채문(경북대) – 이슬람의 고임과 사회정치적 영향

토론 : 한종만(세계대), 백준기(한신대), 김천래(한국외대)

VIII 세션 (슬라브학회 세션II) 유라시아 경제와 정치 전망

사회 : 박영준(고려대)

발표 : 이상준(국민대) – 중앙아시아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과 CAREC
송병구(단국대) – 민주화 이후 동유럽지역의 변화와 전망 :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

토론 : 김영시(강릉원주대), 김선호(부산외대)

18:00-20:00 **만 찬**

목 차

▪ 세션 I (KIEP 세션 I) : 중앙아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과 특징 분석

윤성학 |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들의 사회적공헌활동의 전략과 특징에 관한 연구 7

오영일 |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경쟁력 분석 29

조영관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비교 연구 43

▪ 세션 II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 I) : 중앙아시아의 역사, 도시 그리고 영화

기계형 | 19세기 말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67

정세진 |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89

박영은 |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반영된 샤머니즘 영성의 부활 105

▪ 세션 III (슬라브학회 세션 I) :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발전과 전망

방일권 |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연구 125

남혜현 |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159

문준일 |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183

▪ 세션 IV (KIEP 세션 II) :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이해

김원회 |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Taboo)와 협상 전략 203

김상철 |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223

성동기 |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249

▪ 세션 V (중앙아시아경제학회 세션 I) : 한국과 몽골: 인식과 협력의 새로운 지평

김홍진 |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69

박지원 |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283

최재희 |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한·몽골 교류 지평 확대 301

▪ **세션Ⅵ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Ⅱ) : 중앙아시아 정치·경제 발전과 전망**

강봉구 |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 분쟁 315

김영진 |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331

현승수 | 엘리트의 이반: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엘리트의 사례 355

▪ **세션Ⅶ (중앙아시아 경제학회 세션Ⅱ) :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구조와 전략**

이영형 | 중앙아시아 공간의 성격 연구: 인문지리학 변수를 중심으로 369

이지은 | 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389

이채문 |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 409

▪ **세션Ⅷ (슬라브학회 세션Ⅱ) : 유라시아 경제와 정치 전망**

이상준 | 중앙아시아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과 CAREC 437

송병구 |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61

세션 I (KIEP 세션 I)
: 중앙아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과 특징 분석

■ 사회 : 이상준(KIEP)

■ 발표 :

윤성학 -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들의 사회적공헌활동의 전략과 특징에 관한 연구
오영일 -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경쟁력 분석
조영관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비교 연구

■ 토론 : 강명구(산업은행), 제성훈(KIEP), 김계환(산업연구원)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들의 사회적공헌활동의 전략과 특징에 관한 연구

윤성학(KIEP)

차 례

I. 서론
II. 중앙아시아 기업의 특징과 CSR
1. 체제전환기의 중앙아시아 기업의 특징과 CSR
2. 개발도상국가에서 CSR 단계
III.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CSR 전략과 특징
1. 카자흐스탄
2. 우즈베키스탄
IV.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SR 전략과 특징
1. 카자흐스탄
2. 우즈베키스탄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중앙아시아[1]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말 러시아와 영국이 '거대한 게임(Great Game)'을 전개한 지역이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한편, 카스피해 연안과 키질쿰 사막 등 내륙 지역의 원유·가스 등 전략광물 자원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들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장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고통스러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

1) 이 논문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의 자료 부족으로 중앙아시아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정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을 알렉산드 홈볼트(Alexander Humboldt)의 정의에 따르면, 남북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알타이 산맥과 동서로는 카스피해와 만주 사이로 규정한다. 여기에다 투르크와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으로 분류할 때, 현재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중앙아시아(Soviet Central Asia) 5개국과 카스피해의 자원대국 아제르바이잔,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으로 볼 수 있다. 보다 폭 넓게는 위구르족이 다수 거주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환과정을 거쳤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들어섰다. 2002년~2007년 기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8.8%,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14.5%의 높은 복합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켜 2009년과 2010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2011년부터 중앙아시아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경기위축을 극복하고 과거 고도성장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카자흐스탄의 성장률이 6.5%, 우즈베키스탄은 7.1%, 투르크메니스탄은 무려 9.9%로 고도 성장하였다. 중앙아시아 경제의 재부상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2]도 한몫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등 자원의존적 경제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경기가 좌우되어 경제가 불안정하므로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도로, 철도,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소비시장의 확대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 지역 진출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한국과 터키 등 특정한 연고를 가진 국가들만 이 지역에 진출하였지만 2000년대에는 EU, 미국, 중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였으며 러시아도 자원, 통신,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다시 강력하게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자금력, 그리고 강력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외국기업들은 초기에는 독점적 위치를 누렸지만 다른 외국기업의 진출과 성장하는 로컬기업과의 경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새로운 전략으로 적극 추구하고 있다.[3]
중앙아시아 정부들도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무조건 환영하였지만 2000년 이후 환경, 교육, 지속적인 일자리 등 복지와 사회정책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단순한 수익 추구 사업만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주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CSR를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중앙아시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국기업들(한국기업 포함)의 CSR 전략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지역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카자흐스탄과 개발원조가 아직도 절실한 우즈베키스탄을 비교할 예정이며, 외국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CSR 전략과 특징을 고찰 할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인 비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현지의 CSR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카자흐스탄은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 발전전략 2020'을 바탕으로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위기극복 프로그램(2009~2012)', 투르크메니스탄도 '경제발전전략 2020'을 추진하고 있다.

3) 기업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CSR 활동은 최근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 비즈니스 서밋의 4대 의제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CSR은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기업 협의회인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CSR을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아르누 드 마이어, 『글로벌 기업의 조건』(서울 : 교보문고, 2008). 476쪽.

Ⅱ. 중앙아시아 기업의 특징과 CSR

1. 체제전환기의 중앙아시아 기업의 특징과 CSR

중앙아시아의 로컬기업과 기업문화는 CSR를 기업경영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2년 이후 체제전환을 통해 형성된 로컬기업들은 아직도 시장에 적극 반응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에 더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선호한다.[4] 자본주의가 훨씬 성숙한 카자흐스탄조차도 정부 규제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대형 은행들의 운명이 뒤바뀌기도 한다.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점유율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어진 국가 배급 및 유통 시스템에 안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정부들도 로컬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혁신이나 CSR보다는 납세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위해 기업들의 자금을 은행을 통해 통제하거나 초과과세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법은 구사회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천적인 과잉징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과세[5]의 경우 보통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잡하고 자의적인 조세 규정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탈세와 뇌물수수를 통해 조세 문제를 회피하였으며 부패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되었다.

기업들의 만성적인 탈세 문제에 직면한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기업의 납세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기업의 단순한 사회 봉사 활동조차도 다른 목적(종교적 전도, 민족주의 감정 선동 등)으로 오해하며, 그러한 사회적 활동보다는 기업은 고용을 많이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환경, 교육, 복지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납세, 세금과 고용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해주며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면 반대급부로서 토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6]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초기에는 복지, 교육, 환경 문제는 현지 정부에 맡기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CSR 활동을 단

---

4) 체제전환 국가에서 사유화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유화된 기업의 시장지향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사유화 경우, 기업의 운영은 과거 국영기업과 거의 다를바 없다. Maxim Boycko, and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Privatizing Russi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3), pp. 139-181.

5) 1990년대 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부과세는 30%까지 육박하였지만 최근 조세개혁으로 10%대까지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세무당국의 권한제한, 명확한 납세자 권리 규정, 세율인하, 세관업무 효율화 및 관세정책 투명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세금 문제를 가장 큰 불만으로 간주하고 있다.

6)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998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외국인 투자자 보증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1990년대 이미 '외국인 투자법'(Laws on Foreign Investments),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관한 법'(Laws on State Support of Direct Investments) 등을 통폐합하여 '투자법(Law on Investments)'을 만들었으며, 투자인센티브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자원의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인권 존중과 원활한 노사 관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CSR 활동은 현지국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 시장 개발 및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현지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인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폐유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투자, 오염지역의 해소 등 관련 투자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지위국을 인정받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CSR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카자흐스탄 의회는 대다수의 기업의 책임급을 포함한 CSR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96.6%)들은 CSR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7] 기업들의 절대적 우선과제는 종업원들에게 제때 급여를 주고 세금을 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질 좋은 제품 생산을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적 자원 개발, 자선활동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프로그램보다는 기업 차원의 자선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집착하지 않고, CSR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이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에 기여한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책무를 의미한다.

2. CSR 발전 단계론

중앙아시아 CSR 현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립 머비스(Philip Mirvis)의 CSR 이행 단계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머비스는 총 5단계로 CSR 발전을 구분한다. 즉 시민권 개념, 전략적 의도, 리더십, 구조, 이슈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투명성 및 각 단계별 도전 과제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8] 1단계는 기본단계로 법과 산업표준의 준수에 중점을 두며 신뢰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관여단계로 기업이 공동체, 환경,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단계는 혁신단계로 기업은 포괄적인 시민권 개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영향력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4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CSR 활동이 조율에서 협력으로 나간다. 마지막 5단계는 변혁의 단계로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고 시장창조 혹은 사회적 변화를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와 전략의 통합과 이를 위한 실천을 심화하는 것을 도전적 과제로 설정한다.

---

7) http://www.kazembassy.in/news.php (검색일 : 2012.7.26).

8) Mirvis, Philip & Bradley K. Googins, "Stages of Corporate Citizenship: A Developmental Framework," *A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at Boston College,* (May 2006), p.17.

〈표 1〉 Mirvis의 CSR 이행단계

이행 단계 구분	단계별 특성
1단계: 기본(elementary)	협의의 기업시민권, 현 법률 준수, 신뢰성 확보 과제
2단계: 관여(engaged)	사회적인가(license to operate), 법적 기준 초과 요구, 이해관계자 인식, 고위 간부의 관여 시작
3단계: 혁신(innovation)	포괄적 시민권 개념 수용, 보다 전략적 세부프로그램 발동, 국제기준과의 합치 과제
4단계: 통합(integrated)	조율에서 협력으로 이행, 성과지표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핵심적 기업 가치에 집중, 파트너십 중요성 증가, 실천의 심화 과제
5단계: 변혁 (transforming)	세계 시민기업 비전, 광범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용, 다부문 지속가능 파트너십 발전 과제

자료 : Mirvis (2006), pp. 3~13.

머비스의 CSR 단계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인텔, 브리지스톤, 펩시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4~5단계의 CSR 활동을 개도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CSR 기업들은 단순히 중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자사의 강점 및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분야에 CSR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기업들은 국제기구·현지 정부·지자체·NGO 등과 연계함으로써, 홍보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 무역회사인 이토추사는 CSR 활동을 실제 제품판매로 연결시키는 마케팅전략을 구사한다. CSR을 새로운 시장기회나 마케팅전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영업실적 증가 등 유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CSR 전략과 특징

1. 카자흐스탄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은 급진개혁을 통해 체제전환를 시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를 위해 급격한 사유화, 가격자유화, 외국 자본의 적극적 유입 등을 실시하였다. 체제전환의 결과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혼란을 겪지 않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시장경제의 수준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갖게 되었다.

체제전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안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외국기업과 국내 사업가들을 위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취된 2008년, 국제노동자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는 지금 이 시대는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과 고용 등을 포함한 사회개발 부문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환원을 실천해야 하는 시대임을 주장하였다.[9] '2013~1015년 산업 혁신 개발전략'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농업, 식품 공업, 기계 공업, 금속 공업, 중화학 공업, 건축재료 생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분야로 정하였다. 이 분야들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9) http://www.udp-rk.kz/en/news/2009/06/page12.html?cl=200911 (검색일 : 2012.7.28).

카자흐스탄은 기업의 CSR 업무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제 1회 CSR 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는 "우리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CSR의 공통 규칙을 만드는 것에 힘쓰고 CS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하였다.[10] 2008년 제스카스간(Zhezkazgan)에서 열린 제 1회 CSR 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는 Paryz(카작어로 duty를 의미함) 상을 매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상자들은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세 영역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2009년 크질오르다(Kyzylorda)에서 제 2회 CSR 포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CSR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적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 포럼에서는 1,500만 텐게(tenge) 프로젝트와 총 100억 텐게 규모의 프로젝트 4개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카자흐스탄 로컬기업들은 CSR을 단발성 자선 캠페인 혹은 자선 활동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CSR의 의미를 적극 받아들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국에서나 다른 투자 지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나 여론과의 트러블을 많이 겪은 외국계 석유기업들이 CSR 정책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다국적기업들이 CSR 활동을 전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지의 물적/인적 자원(콘텐츠)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요청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노동력과 공급망을 사용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인력과 제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관심을 보여야 하며, 그리고 지역의 환경 및 복지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기업은 정부의 인허가 및 환경 규제로 사업권이 박탈당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다.

석유개발 분야에 있어 CSR 활동은 필수적이다. 2010년 '심토와 심토 사용 관련법' 제 79조항은 '첨단 기술의 개발과 사용, 신흥 산업 및 가공업, 파이프라인, 건축, 인프라 및 시설의 공동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석유개발자들의 의무 수행은 심토 사용을 위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3월,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부(Ministry of Oil and Gas)는 2011년에 국내 콘텐츠 사용요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0개의 석유 가스 기업들에게 4억 텐게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벌금만으로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도 되풀이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CSR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통령 행정실,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산업 신기술부,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국가경제회 경제인연합(Atameken) 조합 등이 있다. 여기에서 국가 경제회 경제인연합 조합은 특별히 CSR 관련 정책의 제안과 이행을 담당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석유 연합(KPA)이 세운 외국 투자가 자문 위원회(FIC)가 국내외 기업 활동과 투자 보호를 담당한다. FIC는 국제기구, 금융기관, 다국적기업의 21명의 고위간부로 구성된 독자적 그룹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선발 국가공무원과 함께 6개월에 한 번씩 회담을 가진다.

카자흐스탄의 유럽기업협회(EUROBAK)는 EU 대표단과 카자흐스탄의 유럽 기업들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카자흐스탄 경제개발무역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EUROBAK은 다국적기업, 유럽기업, 카자흐스탄 기업, 외교공관 등 12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유럽기업협회와 함께 카자흐스탄 주재 미상공회의소는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36개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미상공회의소와 연계되어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투자가의 목소리(Investor's Voice)'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한다.

10) http://www.ilo.org/public/english/region/eurpro/moscow/news/2008/0124.htm (검색일 : 2012.7.28.).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비에트 시기부터 진행된 광산업, 핵실험, 관개농업, 도시화 등으로 전 국토에 걸쳐 심각한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서부의 내륙지방과 카스피해 북부의 해상과 육상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대형 유가스전이 대대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환경 오염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유전지대에는 석유의 황화수소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인하여 원유 생산과정에서 황이 대량 축적되고 있는데, 황의 안전 관리 문제가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 이슈로 부상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비에트 해체 이후 바로 국제적인 환경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체제에 가입하였으나 2007년 경까지 국내의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해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투자 기업들이 환경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가 2007년경부터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11)]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환경 위기를 국영 에너지 기업인 KazMunaiGas(KMG)의 프로젝트 지분 확보 및 운영권 획득, 세수 증대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주요 메이저와 외국계 석유개발사들은 불만은 있지만 환경 문제를 기업의 CSR 프로그램으로 흡수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현지의 심각한 기후 및 환경 위기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에너지 광구에는 카자흐스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KMG를 제외하고 서구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자는 쉐브론(Chevron)이다. Chevron은 카자흐스탄에서 BP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Chevron을 2008년이래 CSR 부문의 모범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12)]

Chevron이 최대 주주인 Tengiszshevroil(TCO)은 카자흐스탄의 원유, 가스, 유황을 탐사, 개발, 생산하는 합작기업이다. TCO는 GHG(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를 위하여 2009년에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연소량을 99% 감소시켰으며, 2009년 높은 황화수소 함유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우어 가스(sour gas)의 안전한 처리방안만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위반을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받기도 하였다.

TCO는 사규에서 자신의 기업의 미션을 '주주, 카자흐스탄, Atyrau(아티라우)주, 직원들을 위한 우수가치 창조'로 규정하여 CSR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CSR을 지역사회 또는 직원들에 대한 공헌뿐만이 아닌 기업윤리실천, 환경보호, 직원,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한 공헌을 포괄하고 있다. TCO는 아티라우주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Igilik(이길리키, 카작어로 축복이라는 뜻)는 지역 사회 투자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TCO는 병원과 공공 의료 센터, 배전 시설, 정수 및 상수도 시설의 건축과 재건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이길리키와 아티라우 보너스 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1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년 1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집행되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과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11)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자국의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제도들을 위반한 것을 묵과하였다가 2007년부터 이러한 기업들에 환경 규정 위반을 통고하고 단기간 사업 정지, 배상금 징수 등의 처벌을 가하고 카샤간 광구의 운영자인 Eni에게는 운영권 박탈을 위협하였다.

12) Chevron은 2008년 카자흐스탄 교육 및 과학부로부터 교육 지원 금메달, 장기적인 안전 투자와 카자흐스탄 투자 이미지제고에 대하여 최고 투자자 상(Award for Best Investor), 카자흐스탄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황금 심장상 등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경완, 「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외국 에너지 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CSR 전략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2011), 27쪽.

토탈(Total)은 북카스피해 생산공유협정(NCSPSA)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에 버금가는 초대형 유전인 카샤간(Kashagan)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토탈은 대주주로서 아티라우주와 망구스투(Mangustau) 지역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토탈은 병원, 학교, 유치원, 전염병방지 센터, 헌혈센터, 스포츠 복합단지, 상수도 시설, 송전선 등과 같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헌신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장애인 및 아동생활 개선에 중점을 둔 연간 후원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To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은 직원교육훈련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되는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대학교, 카작-브리티쉬 기술대학교, 카자흐스탄 국립 기술 대학교 졸업생들의 자격요건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카자흐스탄 국립경영스쿨과 협력하여 주 경영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연합 프랑스-카작어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To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은 카자흐스탄 교육과학기술부와 카라간다(Karaganda)주 폴리테크닉 대학교와 협력하여 카자흐스탄 용접학교를 설립하였는데, 2011년 국제 승인을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국제용접학교의 55번째 회원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용접학교는 첨단용접기술을 개발하는 선구적 전문가들을 보유한 공식 연결 기관으로서 첨단용접기술을 이양하는 것을 돕고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국영에너지기업인 CNPC는 2007년 이후 매년 해외자원진출 사업에 대한 CSR 전략을 소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CNPC의 현지 CSR 전략은 기업의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동식물 등을 포함한 생태중심적인 접근법을 추진하였다.[13] 중국은 켄키야크(Kenkiyak) 유전 개발과 다양한 송유관, 가스관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발 수익의 상호 공유, 책임 있는 사업활동, 기업 시민의식 고취 등을 내세웠다. CNPC는 건강, 안전, 환경을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HSE(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의 구축 및 시행, 환경 보호, 생산 안보, 인적 자원 계발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CNPC의 CSR 전략은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전 및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물자, 인적자원을 도외시하고 모든 자원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머비스 이론으로 보았을 때 서구 메이저의 카자흐스탄에서 CSR 활동은 3-4단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서구 메이저들은 선진시장에서 배운 CSR 활동을 체제전환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선도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메이저들의 CSR 활동은 주로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스전에 관련된 기업의 라이센스를 방어하고자 성격이 강하다. 즉 서구 메이저들은 CSR 활동을 인권존중, 노무관리, 환경보호 등 리스크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면 공익마케팅, 진출지역 대상 사회공헌, 임직원 자원봉사, 진출 지역 정부와의 좋은 관계 구축,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 등 기회활동에는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메이저 기업 유치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서구 메이저 기업의 CSR 활동은 만족스러울만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13) 이경완 (2011), 28쪽.

2.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우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진척도가 낮고 독립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까지도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하에 놓여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가운데 급진적 정책 지향성을 가진 IMF 안정화프로그램에 가장 나중에 동의하였으며, 1996년 경제 실적이 나빠지자 개혁을 정치,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시장에서 밀가루판매 제한, 무역통제 강화, 복수 환율체제 등과 같은 폐쇄적이며 통제 위주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반개방적인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1998년 러시아 모라트리엄의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였으며 이후 수출의 증가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개방화하기보다 국가가 자원과 통제를 독점하면서 80년대 중남미식 수입대체산업화정책(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을 전략적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ISI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ISI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에는 우즈베키스탄은 4% 수준으로 저성장하였지만 2004년 이후 주요 원자재의 수출 증가 및 가격 상승 등으로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도 겪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패러독스(The Uzbek Paradox)'는 IMF식 자유시장 경제처방을 따르지 않았지만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지 않고 정부 주도의 ISI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특징을 의미한다.[14)]

우즈베키스탄의 낮은 체제전환 진척도와 강력한 정부 규제의 결과는 World Bank가 매년 전 세계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영업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국가의 전반적 순위와 세부항목별 순위를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전반적인 기업 영업환경은 183개 국가 중 150위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기업 영업여건의 국별 순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크스탄	베트남	한국	중국
기업환경종합	150	59	44	139	78	16	79
기업창업	106	47	14	136	100	60	151
건축허가	145	147	43	178	62	22	181
기업등록	135	28	17	87	43	74	38
자금대출	138	72	15	168	15	15	65
투자자보호	132	44	12	59	173	74	93
조세부담	154	39	150	165	124	49	114
무역여건	169	181	156	178	63	8	50
계약이행	44	36	54	40	31	5	15
기업청산	112	48	138	64	124	13	68

자료: World Bank(2010c), *Doing Business Report 2011.*

14) Spechler, M., Bektemirov, K., Chepel, S. and Survankulor, F., "The Uzbek paradox: progress without neoliberal reform," in G. Ofer and R.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Cheltenham : Edward Elgar, 2004), pp. 22-25.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 영업여건은 주변 CIS 국가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세부항목별로도 계약이행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무역여건, 조세부담, 건축허가 등에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국경간 교역(Trading Across Borders)은 169위로 다른 지수들보다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낮은 경제개방은 외국인투자의 위축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 카자흐스탄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것과 비교하여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터키, 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특정한 연고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며, 소매시장에서는 이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즈베키스탄은 강한 이슬람 전통을 지닌 국가로서, 주민들은 외부의 법과 제도보다는 일종의 이슬람 마을공동체인 마할라(Mahalla)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에서는 토지세(zakyat), 자선금 조성(vakf), 빈곤층을 위한 자선(saadaka), 무이자 대출(kardal hasan)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따라 은행은 무조건적인 이자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파트너십의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대출자들과 위험을 분담한다.[15]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이슬람적 색채는 마할라가 부여하는 CSR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UN Global Compact의 원칙[16]과 유사하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닌 우즈베키스탄 시민포럼(Forum of Socially Responsible Citizens of Uzbekistan)' 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 시민, 소기업, 보조금 대상자, 지역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17] 이들은 대중으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특정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법적인 이슈나 또 다른 이슈 관련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주선해주고 참고사항이나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 센터는 콜 센터로 통하는 단독 포털 사이트와 통합된 특별 웹사이트,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 상호작용한다. 공공 모니터링과 소비자 네트워크는 우즈베키스탄의 CSR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CSR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주로 수출 및 소비자 제품 기업들이 많은데 환경에 치중하는 카자흐스탄과 달리 주로 교육, 훈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수출기업인 General Motors, 소매기업인 UzCarlsberg, 네슬레 등 외국기업들이 CSR를 주도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eneral Motors(GM)는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키르기스스탄 오쉬에서 이주한 난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원조, 정수(water purification) 기술, GM 경영진과 지역생산자들의 안전 기준 준수, 능력중심고용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 노동력시장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

15)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율법 혹은 샤리아(Shariah)에 맞추어 행해지는 금융을 의미하는데, 금융활동에 이자의 지급을 금하고, 대신 서비스 제공이나 실물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서 수익을 창출·분배하는 구조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크게 차별화 된다.

16) UN Global Compact(UNGC)는 2000년에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으로 전세계적인 조직으로 100여개국 4,800여 기업 및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UNGC의 가입기관은 지속가능경영,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선언적 내용의 10대 원칙 이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연말에 진전사항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참조 http://www.unglobalcompact.org/. (검색일 : 2012.7.28).

17) http://gulnara.uz/en/pages/organizations-ngo-forum-of-socially-responsible-citizens-of-uzbekistan/ (검색일 : 2012.7.28).

GM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SR 프로젝트는 타쉬켄트의 'Turin 폴리테크닉 대학 분교'이다. Turin 대학 분교 설립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 자동차협회(Uzautosanoat), GM, Turin 폴리테크닉 대학의 협력으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동차 및 기계 산업, 에너지기업, 산업공학(기계 공학, 에너지 공학, 건축공학, 컴퓨터 공학)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공 실습 수업은 자동화이론, 수리학, 역학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신식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별 실험실에서 개설된다. 학생들에게는 디자인과 입체 표현에서 활용할 수 있는 CATIA, 3D MAX, Auto CAD, ARHICAK 등과 같은 최신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또한 3차원 프린터로 세부적인 입체 표현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실습수업을 하고 구조적 건축과 건축 재료들을 검사하며, 냉각 금속가공 등과 같은 기술공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유럽의 맥주업체인 Carlsberg는 현지에 합작회사 UzCarlsberg를 설립하고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UzCarlsberg의 CSR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후원 및 자선 등이다. UzCarlsberg는 놀이터를 만들고 타쉬켄트 화학 기술 연구소의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 연구소와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 강령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1년, UzCarlsberg는 'Honest seller'라고 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맥주 및 '무알코올 음료 생산자 협회'와 청소년 운동을 주도하는 카몰롯(Kamolo), 소글롬 압로드 우천(Soglom avlod uchun) 재단과 함께 45개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알코올 판매 실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스위스 다국적기업인 네슬레도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수와 분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생수시장의 60%, 분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이전에 이미 3년간 분야별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투자법률, 세금 및 관세제도, 국민의식, 소비자 선호도, 원료 확보와 운송비용 등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목축농가를 방문 조사하여 양질의 우유를 확보하고 깨끗한 수맥 발견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환경 보호 및 정수 분야에 대한 강력한 CSR 활동을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국기업의 CSR 활동은 미진한 대신 정부와 외부의 인도적 원조를 바탕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타쉬켄트 남부 유노사바드(Yunusabad)구의 직업대학은 그 중요한 사례이다. 유노사바드구 고용지원센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유노사바드구에는 2010~2011년 동안 2,5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6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들 중 1,18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11~2012년 사이에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2,681명까지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취업 보장을 위해 직업대학의 다양한 기업들과 2,300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타쉬켄트 라디오 기술 직업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현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대학은 1)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라디오 방송 운용, 2) 직선 연결 유지, 3)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운용 및 소프트웨어 관리, 4) 회계 및 회계 감사 등 4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높은 질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타쉬켄트 라디오 기술 직업대학의 학생들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견습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고, 기업은 가장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많은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Foton, Zenith Electoronic, Uzbektelecom과 같은 큰 회사들과 삼자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현장 훈련을 추가적으로 받고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0~2011년, 300명의 졸업생들 중 26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14명의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을 준비하고 있다. 타쉬켄트 라디오 기술 직업대학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인턴십을 했던 58%의 학생들은 그들이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Marap[18]은 EU 국가와 미국에 유통할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지속적인 상품 조달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를 추진하는 PPP 활동을 벌이고 있다. Marap은 오스트리아 개발 기관(ADA)과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DP 실크로드 유기농 식품(DP)을 세우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아래 공급망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산간지방, 특히 남쪽에 위치한 사마르칸드주의 아마쿠타 계곡(Amankutan Valley)의 황폐화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것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 지역의 빈곤을 감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우즈베키스탄 산림청(SFA)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SFA는 1년까지의 단기 임대만을 허가하고 수입의 70%를 정부에 낼 것을 요구했었다. 즉 임차인은 고작 수입의 30%만 가져가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작농들이 이러한 임대 계약을 회피하고, 대신 비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목재업이나 농업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UNDP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산림의 회복과 적절한 토지 관리를 위해 2001년에 독립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이 시범 사업의 영향으로 SFA와 농부들 사이에 임대 계약 기간이 5년 연장의 선택사항과 함께 1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임차인은 체리와 호두에 대해 각각 85%와 90%의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UNDP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임차인들이 심기, 가지치기, 원예 기술 등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이 축척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물류였다. 농부들이 그들의 생산품을 DP에 수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DP는 과일과 견과류를 직접 농부들로부터 직접 수거하였다. DP는 운송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을과 과수원 사이의 비포장도로를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트럭이나 운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6년 Marap과 ADA는 우즈베키스탄 파트너들과 현지에서 수확한 유기농 과일과 견과류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Marap이 55%, ADA가 45%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DP는 과일과 견과류를 가공하고 수출하며 농업 전문지식은 중요하다. 그들은 농부들에게 수확 기술을 가르쳤고, 훈련을 받은 농부들은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Marap과 ADA는 농부들이 EU 유기농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기농 수확 작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였다. 지역 파트너인 쉐레드(Shredder) 우즈베키스탄 과학 원예기관 등은 먼저 핵심적인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다시 이들은 150명의 농부들을 훈련시켰다. 핵심 인재들은 30~40명의 농부들을 감독하고 3개월마다 농지를 점검하는 일을 담당한다. 유기농법 준수에 대한 검사는 오스트리아 국립 유기농 검증 기관인 Austria Bio Garantie(ABG)에서 시행된다. ABG 스텝은 일 년에 한 번 농지를 검사한다. 2012년 현재 DP는 30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90%는 여성이며, 가공 및 포장을 위해 150명을 추가 고용하였다. DP는 또한 가공공장에 에어컨 설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 의복 제공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근무 환경을 보장한다. 건조된 과일과 견과류는 바로 포장되어 오스트리아에 있는 Marap 가공시설로 배송된다. 배송은 보통 14일 정도 걸린다.

---

18) Marap은 1999년 설립 이후 주요 생산품인 과일과 견과류 공급자를 물색했는데, 적정 기후 및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원예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 중의 하나였다. Marap의 우즈베키스탄 활동에 대해서는 http://cases.growinginclusivemarkets.org/documents/21 (검색일 : 2012.8.28).

2006년 ADA와 Marap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3년짜리 PPP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 ADA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기농에 초점을 맞춘 농업교육, 환경복구, 장기 계약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임대 강화 등을 돕기 위해 2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공적인 PPP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관리 및 지역기반 관광업 분야에서 PPP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지작(Djizak)지역의 자민(Zamin)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역량개발 프로젝트는 UNDP의 프로젝트인 '지역 거버넌스 지원 프로젝트: 참여와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시작되었다. LGSP(Local Governance Support Project) 프로젝트는 지역 관광 운영자, 관광 리조트 소유주, 관광산업과 지역으로의 투자 유입 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광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의 지역사회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관광업 촉진 이외에도 LGSP 프로젝트는 지작과 나만강(Namagan) 지방 정부의 행정개편과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지원, 홍보와 전자정부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의 역량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즈베키스탄 장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조정된다.[19]

지방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의 참여, 공공기관의 역량, 책무성, 민감성의 개선이 결국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개선을 돕고 자원을 늘리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와 같이 LGSP 프로젝트는 지작 지역에서 UNDP가 거둔 성공에 대한 논리적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UNDP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포괄적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특징상 서구 메이저 기업들의 CSR 활동이 거의 없는 대신, 활발한 ODA 활동이 PPP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 농업, 관광 분야의 PPP 활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된 외국 기업이 많이 부족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섬유, 기계, IT, 서비스, 농업 분야 등의 활동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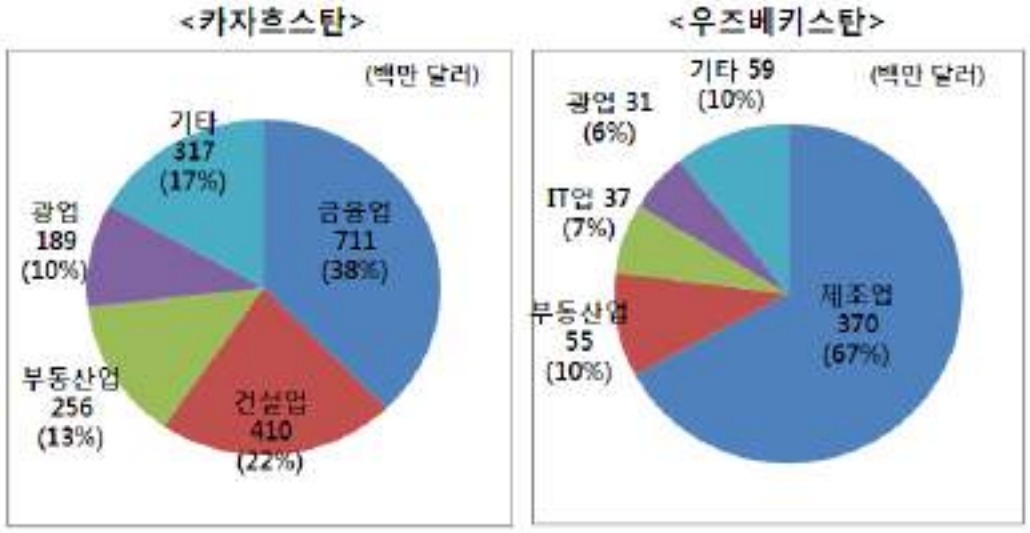
IV.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SR 전략과 특징

일찍부터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한 한국은 1991년 독립 이후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진출의 선두에는 정부보다 대기업의 종합상사가 앞장섰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대우그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동차, 전자, 면방, 통신 등을, 삼성은 카자흐스탄에서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인 대규모 동 제련공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밖에도 한국의 갑을방적,

19)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란 국가적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지작과 나망간 지역의 근교 및 도시에 6개의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20만 달러이며, 이 자금은 UNDP의 Democratic Governance Thematic Trust Fund에서 추가적으로 거둔 것이다. 게다가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는 특히 서비스 조달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공공기관과 지역 활동가들 간에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역 개발 또한 이끌어낸다. 이러한 일은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One-stop-shops(OSS)의 설치 이후에 가능해질 것이다. LGSP 프로젝트에서는 OSS 설치와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http://www.lgsp.uz/news.html (검색일 : 2012.7.28).

신동, 대상 등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였으며 LG전자, 털보네식품 등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플랜트 제조, I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주목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발하쉬 화력발전 플팬트, 아티라우 석유화학 플랜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수르길 GTI 가스플랜트의 합작사로 한국을 일찍부터 선정하였다.

그림 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분야



주: 1991~2010년까지의 누적투자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은 과거 제조업, 자원개발에서 점차 IT, 은행 등 서비스 산업과 ODA, KSP 등 한국의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외정책도 이러한 환경에서 서서히 변해가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유·무상 원조의 비중을 과거 GDP의 0.2%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으며 KOICA, KSP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은 이러한 유·무상 원조의 중점국가로 선정되어 중점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무상원조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해외에 이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KSP 사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머비스의 CSR 단계론을 중앙아시아 기업에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이제 1단계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보다는 로컬 기업들은 CSR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로컬 기업의 CEO들은 사회적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CSR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CSR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 CSR를 추진하고 있는데, 쉐브론과 토탈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쉐브론과 토탈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다면적 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KPO, BG가 뒤쫓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소규모 유전을 갖고 있는 중국의 CNPC도 2단계 관여 차원에서 CSR에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GM과 KT, 산업은행 등이 2단계 관여 차원에서 CSR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몽골의 기업들은 아직 1단계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3〉 중앙아시아 기업들의 CSR 현황에 대한 평가

이행 단계 구분	해당 기업
1단계: 기본(elementary)	- 카자흐스탄 한국 기업,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 - 몽골 한국 기업, 몽골 외국계 기업 - 우즈베키스탄 국내 기업
2단계: 관여(engaged)	- 우즈베키스탄 GM/Carlsberg, 우즈베키스탄 한국 기업 - 카자흐스탄의 중국 기업 CNPC
3단계: 혁신(innovation)	- 카자흐스탄 KPO, BG
4단계: 통합(integrated)	- 카자흐스탄 Chevron, Total
5단계: 변혁 (transforming)	해당 없음

자료 : Mirvis and Googins(2006) 자료에 입각하여 저자가 재구성.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CSR 단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이 커다란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재능과 능력을 기부한다면 중앙아시아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현지화와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한국 기업들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인 CSR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기업들은 한 단계 발전된 CSR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카자흐스탄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약 30억 달러로서 한국은 주로 건설, 금융,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였다.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은행 인수,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출범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기업들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아티라우 석탄화학플랜트 건설' 등 플랜트 분야와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알마티 지역에 총 55개, 아스타나시에 1개 등 56개 기업이며 진출의 형태는 현지법인, 연락사무소, 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진출한 한국기업은 삼성물산,(주)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주)에코비스 로지스틱스, 동일하이빌, 우림 카자흐스탄, 실로 에너지, 현대종합상사, 국민은행, 영진 Global Logistics, (주)CAM, LG상사 등 기업들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머비스 기준 2단계 수준의 CSR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 현재 11개 광구를 갖고 있으며 이중 악토베 등지에서 4개 광구에서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향후 한국석유공사는 카스피해 연안 잠빌광구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지만 현재 생산 수준으로는 글로벌 메이저나 중국기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부금 납부 등을 통해 CSR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보수, 장애인 지원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건널목 개선사업 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낙후된 지역에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현

재 CSR 추진 전담인력은 없으며 본사와 협의하여 CSR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회사 수익이 아직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현지 소매금융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은행(BCC)은 최근 매출과 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대내외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투자한 BCC는 현지 직원만 해도 총 4천5백 명에 이르며 계속해서 지점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국민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적자원 관리 문제로 과거 연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매년 직원에 대한 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공채 중심의 채용관행을 수립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 한국으로 매년 50명씩 현지 직원을 연수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국민은행의 정신, 업무추진 방법 등을 배우고 돌아와 현지업무 추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CSR 활동은 주로 KIMEP 대학[20]에 장학금 등 학교발전기금 제공, 인턴십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의 글로벌 차원의 CSR 활동인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히 문화 사업인 'KB한글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CSR 할동도 미비스 기준으로 본다면 겨우 2단계에 진입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민은행이 CSR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계의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진출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등을 통해 이 분야 현지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PPP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성그룹은 전기와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카자흐스탄의 오지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기와 식수를 자체 생산하는 CSR 활동을 추진하였다. 대성에너지는 2011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리블락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식수를 공급하는 녹색 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성에너지는 KOICA가 시행한 글로벌 CSR 프로그램의 카자흐스탄 사업자로 선정돼 2010년부터 사리블락 마을에 52kWp급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배전선로를 설치해 각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지하 130m 관정을 개발해 태양광으로부터 얻은 전력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한다. 사리블락 마을은 구 소련시절 병원과 학교가 있을 만큼 번성했었으나 독립이후 전기와 식수공급이 끊어지자 상당수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20가구 70여명만이 남아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곳이다.

이밖에도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자선 및 기부 활동에 머무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CSR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PPP 전략을 통해 새로운 CSR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수교 이후 2011년 기준으로 총 170건에 약 6억 달러이며 주로 제조업과 건설, 광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에는 대우그룹이 중심이 되어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가스공사,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건국 이후 우즈베키스탄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수르길 가스전 및 플랜트가 본격 가동하면 한국의 대

20)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방찬영 박사가 설립한 키멥 대학(카자흐스탄 경제경영 대학)은 우수한 교수진과 프로그램으로 카자흐스탄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 소재 한국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SR를 추진하는 기업은 UzKDB(우즈베키스탄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2006년에 인수한 UzKDB는 한국 금융권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UzKDB는 인수 당시 6,9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자산은 2011년 이미 약 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467만 달러이던 당기순이익도 2010년 64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UzKDB의 성공 요인은 1997년 대우은행에서 시작되었던 현지화 덕분이다. UzKDB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풍부한 현지 네트워크와 잘 훈련된 직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우량 기업고객을 갖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관치 금융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UzKDB는 기업 평판과 사회적 공헌을 위해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지 고려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 121명 고국 방문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고려인 노인양노원(아리랑 양노원)에 매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우수학생 20명(고려인 15명, 우즈베키스탄인 5명)을 선발하여 "산은(KDB)나눔재단"이 제공하는 2만 달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학생대상으로 한국유학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990년대 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면서 현지의 저렴한 원료와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결합한 면방산업에 투자하였다.[21] 1996년 페르가나주에 방적 7만추, 직기 179대 규모의 DTC 면방공장을 건설하고 이후 우즈베키스탄 최고 품질의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여 100% 수출에 성공하였다. 이후 2006년 같은 페르가나주에 DTF, 2008년에는 부하라시에다 DTB 면방공장을 건설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효자기업으로 부상하였다. DTF만 하더라도 매년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에 4천 만 달러의 매출과 3백만 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2004년까지 누적된 본사 기여 이익이 이미 투자한 자본금을 상회하였다. 2008년에는 누계 3억 달러를 수출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외화 확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우면방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100% 수출기업인데다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발전전략에 가장 맞는 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우는 현지에서 면방공장 운영 자체가 수출과 고용 창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CSR 활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지의 양로원과 고아원 지원 등 자발적인 CSR 활동과 지방정부가 수시로 요구되는 지역사업을 챙겨주는 정도이다. 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제 단순한 원면 수출을 넘어 일관 섬유산업으로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향후 편직, 염색, 봉제산업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섬유의 고부가가치화 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과 투자가 추진되면 한국은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럴 경우 직업개발 양성을 위한 PPP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KT가 무선 인터넷 분야에 투자한 EVO는 정보산업 자체가 갖는 특징을 잘 활용하여 CSR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KT는 타쉬켄트에 정보화사업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초급 수준의 컴퓨터 교육에 가정주부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월 정도 기다려야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KT 현지 직원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무료로 자국민에게 유용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현

21) 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면방공장을 추진하였다. 세계 5위의 원면 수출국으로 풍부한 현지의 원면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15쪽.

재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이 사업을 기업홍보로 연계하여 기업 이미지 제공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현지 한국기업인 토우는 한국산 건설 중장비 수리 및 운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 센터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중장비 수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ODA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KOICA에 요청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한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부품부족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수백 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업성이 포함되어 있어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PPP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즉 건설중장비 수리센터가 아닌 건설중장비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기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체득을 위한 실습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설중장비를 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22]

이밖에도 타쉬켄트주에 첨단 온실 비닐하우스 영농 프로젝트, 나보이지역에서는 대한항공 물류허브단지에 필요한 방풍림을 겸한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등이 PPP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PPP를 시행할 때 어려움은 법적 부재, 제도적 제약,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 간 협력 경험 부족, PPP 계약 체결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간 투자, 유능한 인력,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에 맞는 PPP 법률의 부족 또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Ⅳ. 결론

CSR이 효과적 기업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고유의 목표와 리스크, 기회, 능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수익성 기반이 되는 경쟁력과 사회적 기여 방법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SR 초기 단계는 대부분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강제되거나 CEO의 일시적 결정에 따른 임시방편적으로 행해지며 기업 내 다른 부서와의 통합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넘어 CSR이 기업 경영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되면 CSR을 회사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명백한 이득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터와 크레이머(Porter and Kramer)[23]는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크게는 지속가능한 사회, 작게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다.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전략적 가치가 큰 CSR 활동을 찾아내어 활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기업은 환경보호 활동이 가장 중요한 CSR이 될 수밖에 없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UzKDB의 사회봉사활동이나 KT의 정보화 교육은 지역주민의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CSR 활동이 된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활발한 CSR 참여는 지역 사회에 유능한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다른 외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

CSR은 해외진출 외국기업들의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22)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첫째, 우즈베키스탄에 부족한 건설중장비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게 공급하고 둘째, 현재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건설 중장비 수리를 실습장비와 실습시간을 이용하여 보수하자는 것이고 셋째, 건설중장비 수리로 인한 이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운영비용으로 회수하는 방식 고려할 수 있다.

23) Michael E. Porter, Mark R. Kramer Source,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17* (2006), pp. 5-6.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CSR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CSR 활동을 수행할 네트워크 및 자금 부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업 단독보다는 국제기구·현지 정부·지자체·NGO 등과 연계해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교육지원, 현지 정부와의 공익사업연결, 국제원조기구 등의 글로벌 CSR 프로젝트를 자사 CSR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CSR 전략을 높은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이슬람 등 종교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원조가 보이지 않게 제도화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업의 CSR은 PPP와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여국의 정부개발기구 및 대외원조사업의 개혁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지 정부의 인허가 지원, 본국의 재정,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자들의 충원 등 ODA를 통해 CSR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 창의성을 ODA 사업과 연결시키는 논의가 적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구소련의 독립 국가들에게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현대화가 중요하다. 혁신은 이들 국가들이 단순한 자원 부국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현대화의 기반은 결국 지식과 새로운 시스템인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적인 모델을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찾고 있다.

교육분야의 한국의 강점은 중앙아시아 진출 사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CSR, PPP와는 상관없지만 방찬영 박사가 추진한 키멥 대학은 한국인 특유의 추진력과 서구식 프로그램으로 카자흐스탄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KSP 사업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도 교육 분야의 한국의 선진성을 잘 보여준다. 카자흐스탄 현지 학생의 자본주의 마인드 고취와 함께 금융, 재무, 회계 등의 분야에서 실무수행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상업계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의 설립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한 국민은행, 투자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PP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정윤.「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민관협력(PPP)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윤성학 외.『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윤성학 외. 2010.『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아르누 드 마이어.『글로벌 기업의 조건』. 서울: 교보문고, 2007.
이경완.「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외국 에너지 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CSR 전략을 중심으로」.『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2011).
조영관 외.『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Agyeman, Julian et al. "Introduction" in Julian Agyeman and Yelena Ogneva-Himmelberger Agyeman (eds.), *Environmental Justice and Sustainabili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Cambridge: MIT, 2009), pp. 3-9.
Aladin, N. and Plotnikov, I. 2004. "The Caspian Sea." *Lake Basin Management Initiative, Thematic Paper*.
Altaliyeva, A. "Viewpoint Global Responsibility-vision from Central Asia/ vision of Central Asia." *Corporate Governance.* 2003.
BP. 2006b. *B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6*.
Campaner, N. and Yenikeyeff, S. 2008. *The Kashagan Field: A Test Case for Kazakhstan's Governance of Its Oil and Gas Sector*.IFRI.
Chevron. *Developing Partnerships 2008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008.
De Melo, M, Denizer, C and Gelb, A. 1997.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in Ble´jer, M and Skreb, M (ed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Chapter 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nison, M. 2009."The EU and Central Asia: Commercialising the Energy Relationship." *EUCAM Working Paper* No. 2.
E. S. Sava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ew jersey: Chathan House, 1987):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서울: 한마음사, 1994.
KPO. *Karashaganak Sustainability Report 2010: The Enduring Benefits of Karachaganak.* 2010.
Michael E. Porter, Mark R. Kramer Source."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17,* 2006.
Maxim Boycko, and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Privatizing Russi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3.
Mirvis, Philip & Bradley K. Googins. 2006. "Stages of Corporate Citizenship: A Developmental Framework." A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at Boston College. Monograph, May 17.

Sachs, J., Woo, W., 1997.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Performance,” Working Paper no. 593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Spechler, M., Bektemirov, K., Chepel, S. and Survankulor, F.“The Uzbek paradox: progress without neoliberal reform.” in G. Ofer and R.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Cheltenham : Edward Elgar, 2004.
TC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CO Tradition*. 2010.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1.*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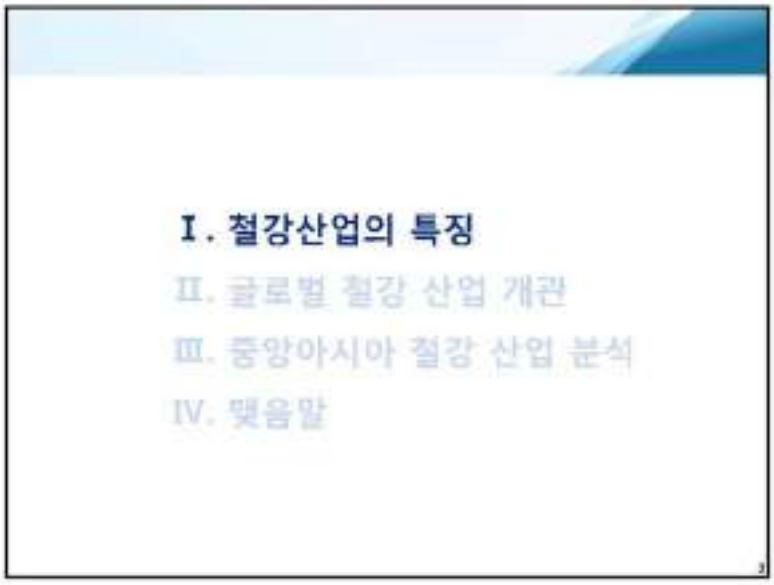
오영일(포스코 경영연구소)

2012-11-30





2012-11-30


Ⅰ. 철강산업의 특징
Ⅱ. 글로벌 철강 산업 개관
Ⅲ. 중앙아시아 철강 산업 분석
Ⅳ. 맺음말


Ⅰ-1. 철강 산업의 특징(1)
1.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1) 막대한 초기 투자비 소요
2) 타 산업 대비 자본 집약도가 매우 커서 진입이 어려운 산업
<철강산업 자본 집약도>
구분
제조업 평균
철강
자동차
조선
컴퓨터
일반 기계
3) 자본 투자 규모에 비해서 투자 리스크는 큰 산업
국가
정부지원내용
결과
비고

2012-11-30

I-2. 철강 산업의 특징(2)

2. 경기 순환적 산업

1) 철강산업은 소재산업의 특성상 **세계 경제 및 수요산업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따라서 철강산업은 수요산업 생산활동과 같은 철강재 수급 변화 등 경제변수의 동락에 따라서 경기가 상승과 하락하는 **경기순환적 특징**이 있음.

2) **국제 철강재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는**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들어 사이클이 짧아지고 등락 폭은 커지고 있음.

3) 세계 철강시장은 **초기의 제품 간의 차별이 크고, 상승기 보다는 하락기가 상대적으로 긴 특징**
- 70년대 이후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능력 지속에 따른 과잉생산 가능성이 높고,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폐쇄적인 장벽으로 높은 기동률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4) **철강시황과 철강산업의 수익성장의 상관 관계가 높은 산업임**
- 특히 성숙단계에 접어든 선진국들의 경우 철강시황의 변동에 따라 철강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해옴

< 국제 열연수출가격과 주 철강사의 세전 이익률 변화 >



I-3. 철강 산업의 특징(3)

3. 산업 흐름의 최상위 산업

1) 철강산업은 거의 소재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및 가전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
- 자동차 원가 중 철강재 비중 : 약 7%
- 조선 원가 중 철강재 비중 : 약 12%

2)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과 원료 ·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산업
- 전후방산업 연관효과 : 3.82 (전방 1.42, 후방 2.40)
  * 산업평균 2.0 : 음식 2.01, 화학 3.32, 기계 2.15, 건설 1.88

3) **철강산업과 철강수요 산업은 동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
- 국내 철강산업 및 수요산업의 성장은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철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중국의 철강산업 발전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

중 국	1973	1985	성장	1993	성장	2003	성장
경제규모(억$)	2,721	5,335	2.2배	34,634	5.9배	113,036	3.3배
자동차생산(만대)	12	24	2.0배	130	5.4배	444	3.4배
조강생산(천톤)	25,219	40,021	1.6배	89,539	2.2배	220,115	2.5배

2012-11-30

Ⅰ. 철강산업의 특징

Ⅱ. 글로벌 철강 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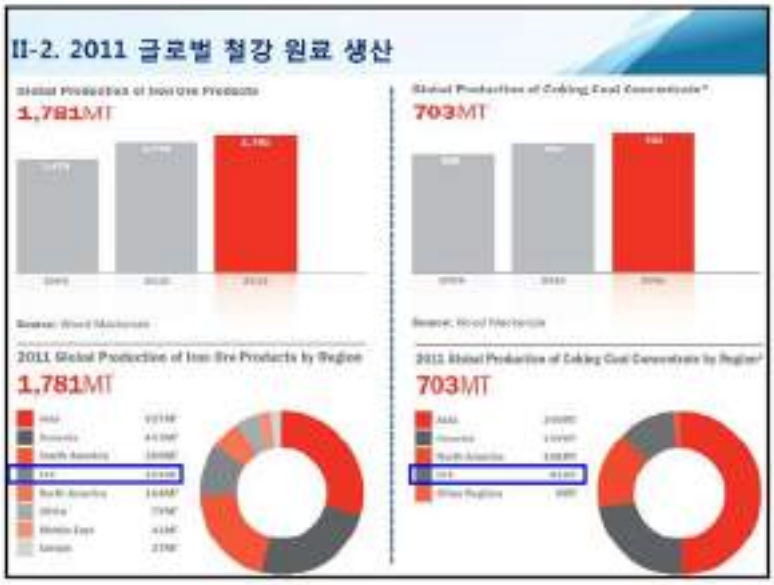
Ⅲ. 중앙아시아 철강 산업 분석

Ⅳ. 맺음말



4

2012-11-30


II-2. 2011 글로벌 철강 원료 생산
1,781MT
703MT
2011 Global Production of Iron Ore Products by Region
1,781MT
2011 Global Production of Coking Coal Concentrate by Region
703MT


II-3. 2011 국별 조강생산량
Rank Country Production(MT)
1 China 683.3
2 Japan 107.6
3 USA 86.2
4 India 72.2
5 Russia 68.7
6 Korea 68.5
7 Germany 44.3
8 Ukraine 35.3
9 Brazil 35.2
10 Turkey 34.1
. Kazakhstan 4.7
. Uzbekistan 0.73
1,490MT
2011 Global Production of Crude Steel by Region
1,490MT

2012-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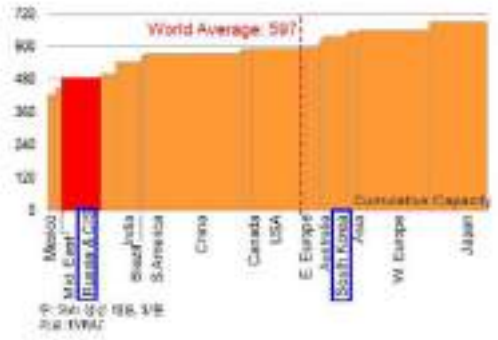
II-4. 글로벌 철강 산업의 Big Issues

❑ 최근 글로벌 철강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설비 증가로 원료가격은 급등했으나 공급 과잉으로 철강 제품 가격은 하락하여 철강사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 2000년 초중반 급격히 늘어난 중국 철강 설비로 인한 공급 과잉 고착화 (약 30%)
- 설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료 공급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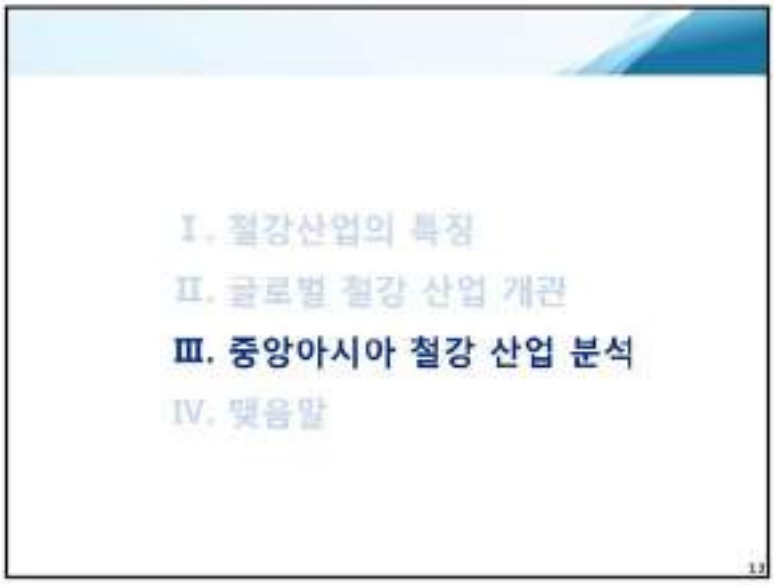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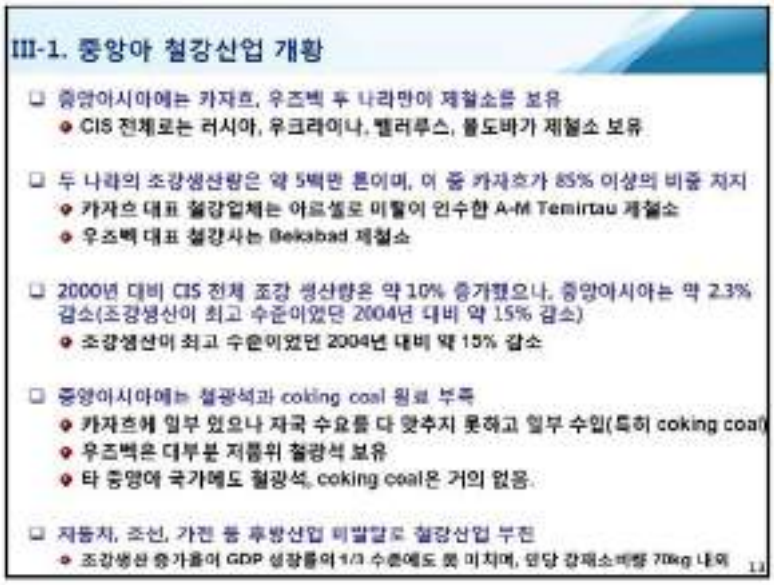
II-5. 글로벌 철강 Cash cost 비교

❑ 철강 산업은 원료의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 원료가 경쟁력을 좌지우지
-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원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수준
- 원료가 풍부한 러시아는 세계최고 수준의 철가 경쟁력 보유
- 중앙아시아는 자체 원료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2012-11-30


Ⅰ. 철강산업의 특징
Ⅱ. 글로벌 철강 산업 개관
Ⅲ. 중앙아시아 철강 산업 분석
Ⅳ. 맺음말
13


Ⅲ-1. 중앙아 철강산업 개황
❑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 우즈벡 두 나라만이 제철소를 보유
● CIS 전체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가 제철소 보유
❑ 두 나라의 조강생산량은 약 5백만 톤이며, 이 중 카자흐가 85% 이상의 비중 차지
● 카자흐 대표 철강업체는 아르셀로 미탈이 인수한 A-M Temirtau 제철소
● 우즈벡 대표 철강사는 Bekabad 제철소
❑ 2000년 대비 CIS 전체 조강 생산량은 약 10% 증가했으나, 중앙아시아는 약 2.3% 감소(조강생산이 최고 수준이었던 2004년 대비 약 15% 감소)
● 조강생산이 최고 수준이었던 2004년 대비 약 15% 감소
❑ 중앙아시아에는 철광석과 coking coal 원료 부족
● 카자흐에 일부 있으나 자국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하고 일부 수입(특히 coking coal)
● 우즈벡은 대부분 저품위 철광석 보유
● 타 중앙아 국가에도 철광석, coking coal은 거의 없음.
❑ 자동차, 조선, 가전 등 후방산업 비발달로 철강산업 부진
● 조강생산 증가율이 GDP 성장률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며, 인당 강재소비량 70kg 내외
13

2012-11-30

III-2. 중앙아 조강생산 및 CIS 국별 조강생산 비중



III-3. 중앙아 철강 후방산업 분석

❑ 건설 수요 전망은 매우 밝으나, 조선, 자동차, 가전 수요 전망은 다소 어두운 편
- 자동차, 가전은 대부분 수입이며 현지 생산기지 미비(일부 조립 공장 가동)
- 우즈벡, 자동차 관련 냉연강판 수요 있으나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

후방 산업	As - Is	To - Be	전 망
자 동 차	· 생산공장은 우즈벡 GM이 유일 (년 22만대, 과거 대우자동차) · 카자흐 조립 공장(연 2천대)	· 우, GM 년 35만대 증산(15) · 러 VAZ/Sollers사, 카 진출 계획	
조 선	· 기본적으로 내륙국가 · 카스피해 소형 조선소	· 카스피해 유조선 수요 소량 예상	
가 전	· LG전자 조립공장(TV, 세탁기)	· 삼성전자 조립공장 관련 검토 중 · 가전 생산기지 건설 난망	
건 설	· 건설, 인프라 수요 급증 · 자원개발에 따른 파이프 수요	· 건설, 인프라 사업 지속적 확장 ·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수요 확대	

2012-11-30

III-4. 카자흐 철강 산업 - 주요 수출입 품목 비중

- 2011년 철강재 수출은 286만톤으로 반제품(29%), 냉연(24%), 열연(20%) 위주
  - 주요 수출국은 이란(37.6%), 터키(22.2%), 러시아(12.9%)
- 2011년 철강재 수입은 108만톤으로 조강류 수입 의존도 높음
  - 유가스관 및 건설 관련 수요로 무계목 강관(18.7%), 철근(15.9%) 수입 비중 높음
  -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61.7%), 중국(28.7%)



16

III-5. 카자흐 철강 산업 - 수출입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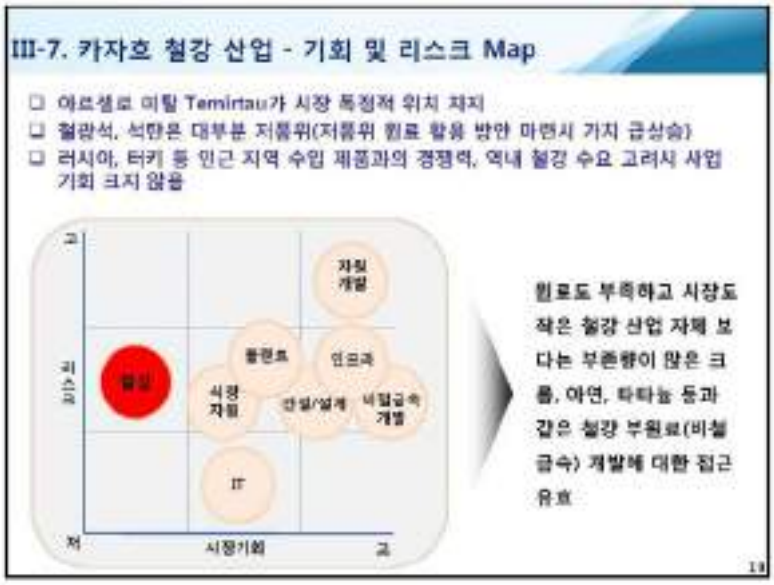
- 2010년 카지흐 철강재 수입은 108만톤으로 조강류 수입 의존도 높음
  - 유가스전 파이프 및 건설 관련 수요로 무계목 강관(17%), 철근(16%), 용접강관(14%) 수입 비중 높음.
  - 러시아 수입 물량이 60% 이상이며, 중국산도 21% 차지



17

2012-11-30


III-6. 카자흐 철강 산업 - 카자흐 철강 수출입도
러시아
12.8만톤
36.9만톤
66.7만톤
터키
카자흐스탄
1.2만톤
63.4만톤
72.4만톤
Mongolia
이란
187.4만톤
22.8만톤
중국
18


III-7. 카자흐 철강 산업 - 기회 및 리스크 Map
❑ 아르셀로 미탈 Temirtau가 시장 독점적 위치 차지
❑ 철광석, 석탄은 대부분 저품위(저품위 원료 활용 방안 마련시 가치 급상승)
❑ 러시아, 터키 등 인근 지역 수입 제품과의 경쟁력, 역내 철강 수요 고려시 사업 기회 크지 않음
고
리스크
저
시장기회
고
철강
플랜트
인프라
시장 자원
건설/설계
비철금속 개발
자원 개발
IT
원료도 부족하고 시장도 작은 철강 산업 자체 보다는 부존량이 많은 크롬, 아연, 타타늄 등과 같은 철강 부원료(비철금속) 개발에 대한 접근 유효
18

2012-11-30

III-8. 우즈벡 철강 산업 - 개황

❑ 구소련 산업 정책에 따라 우즈벡에는 철강산업 기반이 없었고,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수요산업 미발달로 철강 산업은 여전히 미발달

- 국영 전기로 업체 Uzmetkombinat(Bekabad 제철소)에서 연 70만 톤 조강 생산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건설용 철강재 생산)
- 민간 TPF(Tashkent Pipe Factory)에서 연 20만 톤 파이프 생산

조강생산량과 강재 소비량 추이



- 수요 산업
  - 자동차: 연산 23만대(GM, 향후 35만대)
  - 조선, 기존 생산 시설 전무
  - 플랜트/건설 분야는 점진적 성장
- 원료 조달
  - 철광석: 자급위해 시설 구축
  - coking coal: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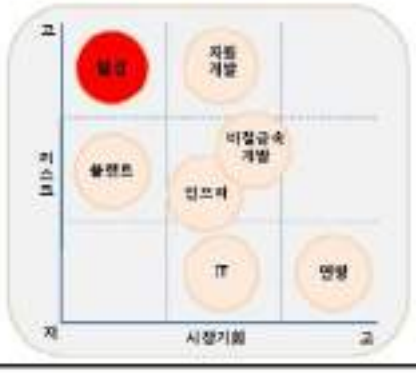
23

III-9. 우즈벡 철강 산업 - 기회 및 리스크 Map

❑ GM 자동차 수요가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작아 철강 시장기회는 매우 적은 편

- 카자흐스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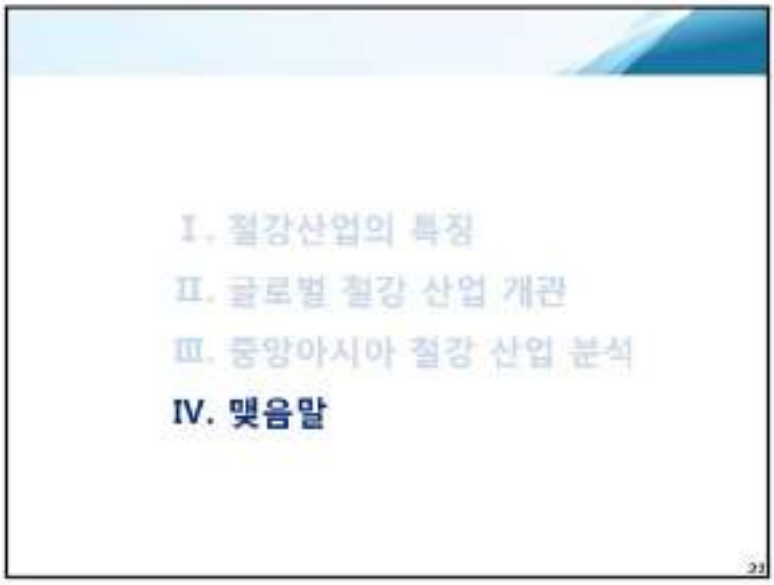
❑ 외화 환전,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 철강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BIZ 환경 최하 수준으로 리스크 매우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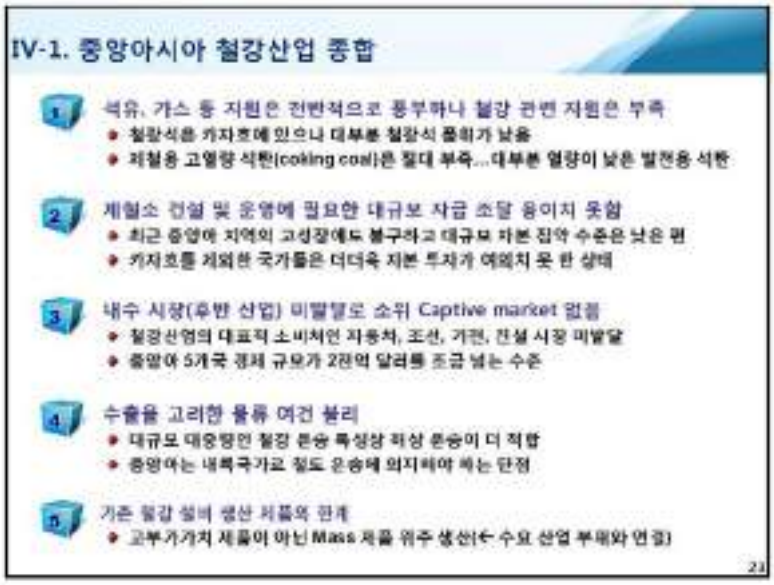


시장 규모, 원료 수급 등 고려시 신규 시장 기회 기대하기 어려움

21

2012-11-30


Ⅰ. 철강산업의 특징
Ⅱ. 글로벌 철강 산업 개관
Ⅲ. 중앙아시아 철강 산업 분석
Ⅳ. 맺음말
23


Ⅳ-1.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종합
1
석유, 가스 등 자원은 전반적으로 풍부하나 철강 관련 자원은 부족
철광석은 카자흐에 있으나 대부분 철광석 품위가 낮음
제철용 고열량 석탄(coking coal)은 절대 부족...대부분 열량이 낮은 발전용 석탄
2
제철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용이치 못함
최근 중앙아 지역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 집약 수준은 낮은 편
카자흐를 제외한 국가들은 더더욱 자본 투자가 예외치 못 한 상태
3
내수 시장(후판 산업) 미발달로 소위 Captive market 없음
철강산업의 대표적 소비처인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시장 미발달
중앙아 5개국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
4
수출을 고려한 물류 여건 불리
대규모 대중량인 철강 운송 특성상 해상 운송이 더 적합
중앙아는 내륙국가로 철도 운송에 의지해야 하는 단점
5
기존 철강 설비 생산 제품의 한계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Mass 제품 위주 생산(← 수요 산업 부재와 연결)
23

2012-11-30

IV-2.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경쟁력, 발전 및 협력 가능성

☞ 원료, 시장, 기술, 투자여력, 물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중앙아시아의 철강산업 경쟁력은 매우 낮음.

☞ 중앙아시아 철강시장 발전 전망은 가전, 조선, 자동차, 건설 등과 같은 철강 수요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할 수 밖에 없으나, 건설을 제외한 타분야의 급격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발전 역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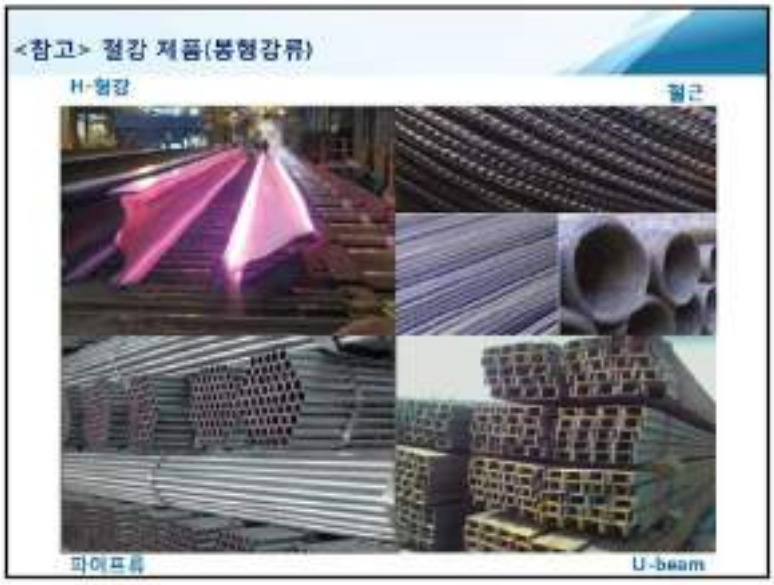
☞ 한국 입장에서 보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철강 협력은 철강제품 생산 등의 Up-stream 보다는, 특수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니켈, 크롬, 아연, 티타늄 등) 분야 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28

<참고> 철강 제품(판재류)



2012-11-30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비교 연구

조영관(KIEP)

제 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국부펀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기 국부펀드는 중동의 자원부국들에서 에너지 수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노르웨이, 러시아 등 다른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가들에서도 국부펀드가 설립되었다. 에너지 수출국 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국부펀드들이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도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2005년 7월 1일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투자공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주식에 투자하고, 주요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1)]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국부펀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2)] 이 국가들의 경제는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과 GDP 중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아제르바이잔의 수출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60%이르고 있는데, 이 비중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의 개발과 다른 산업의 부진에 따라 오히려 증대되어 왔다.[3)]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가격, 생산량, 수출량 등의 변동은 이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은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되었고, 국부펀드는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이며, 이미 각국 정부는 에너지 이외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특구를 운영하여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자금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보유 국가들에서 국부펀드는 이러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부펀드는 다양한 부문에 여러가지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다.[4)] 해외 금융부분에 투자되기도 하고,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기도 하며,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10여년 이상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국부펀드 설립과 운영은 다른

---

1) www.kic.kr 한국투자공사.
2)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에너지 수출국과 에너지 비수출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수출국에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있으며, 에너지 비수출국에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 있다.
3) IMF(2010).
4) 체제 전환기 중앙아시아 에너지 중심 국가들의 경제적 특징과 에너지 자원 운영에 대해서는 Richard Pomfret(2011)의 연구를 참고.

에너지 수출국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수출품인 석유나 가스가 영구적인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은 65년,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생산은 19년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5)]

이런 점에서 국부펀드의 운영은 향후 양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너지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을 통해 축적한 부를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하는 것과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 변화와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부펀드가 자원의존적인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네덜란드병' 또는 '자원의 저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가하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국부펀드 연구는 중요성을 가진다.

더구나 최근에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의 자금이 한국에 투자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정부가 자국의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금융, 산업 부문의 협력 증대를 위해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국부펀드의 설립과 운영이 국가의 산업 발전 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연구결과물들이 발간되고 있다. IMF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부펀드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트루만(Edwin M. Truman)은 수년간 국부펀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여러 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간했다. 트루만은 그의 저서(2011)에서 국부펀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문제점,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그는 2007년 이후 국부펀드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거너번스 구조와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Luecke(2011)와 Kalyuzhnova(2006, 2010, 2011)의 논문들이 있으며, 특히 Kalyuzhnova는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uecke(2011)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를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비교하고 있다. 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세계의 국부펀드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도 노르웨이의 경우와 같이 운영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경우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alyuzhnova는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트루만과 더불어 국부펀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학자이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국부펀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alyuzhnova(2006)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구소련의 체제전환국가들은 에너지 수출 소득을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Kalyuzhnova(2011)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를 비

5) Luecke(2011). p. 37.

교하며 경제발전에서 국부펀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조사와 한국과 현지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국부펀드에서 발간된 1차 자료와 관련 국제기구들의 자료와 최근 발간된 주요 연구결과물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투자를 삼룩카지나 펀드에서 주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를 동시에 다루어 볼 것이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 발전과정을 다루며, 국부펀드가 각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를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를 분석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운영 방식은 무엇이며,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양국 국부펀드의 특징을 비교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제 2장 국부펀드의 발전과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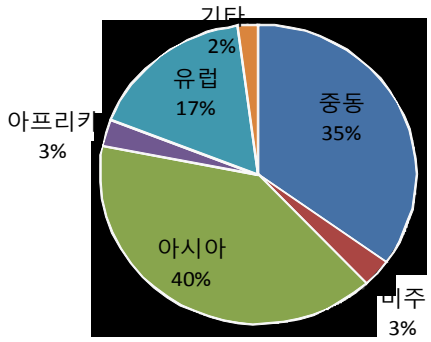
1. 설립 및 발전과정과 분류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조성해 인프라 건설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직접 운용하는 투자기구이다. 재원의 성격에 따라 원유나 가스 등 원자재 수출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기반으로 만든 상품펀드와 대규모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한 펀드인 비상품펀드로 나뉘어진다. 상품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있으며, 비상품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중국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영부문의 비중이 높은 체제전환국가들에서는 사유화 수입을 통한 재원이 국부펀드 운영 자금이 되기도 한다.

국부펀드는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증대된 중동국가들에서 먼저 설립되었는데, 1953년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투자청(KIA)이 설립되었으며, 1976년에는 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부펀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국부펀드의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426개에 이른다. 최근에도 국부펀드의 규모와 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부펀드 연구소(SWF Institute)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국부펀드 운용자산은 2010년 대비 9% 증가한 4.8조 달러로 2012년 말까지는 5.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여전히 전체 지역별로는 이러한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에 국부펀드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지역별 국부펀드 분포



자료: 국제 국부펀드포럼 연구소 (2010년 11월)

세계 국부펀드를 규모 순으로 정리할 때, 카자흐스탄은 582억 달러로 17위, 아제르바이잔은 302억 달러로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자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국부펀드는 예산 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금융시장과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한다. 투자 대상에 있어서 상품형 국부펀드의 경우 해외 주식투자를 선호하여,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약 80%가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비상품형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6] 금융 상품 중에서는 국부펀드는 과거에는 주로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채권이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였지만,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같은 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도 점차 투자를 넓혀가고 있다.[7]

국부펀드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운영(사우디아라비아 통화기구), 안정화 기금(러시아 국가복지기금), 공적연금펀드(노르웨이 정부 연금 펀드), 정부투자회사(아부다비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회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8]

이러한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른 운영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안정화 기금은 정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부 투자회사는 국영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금 자산의 운용, 국부의 미래세대로의 이전, 외환보유고의 독자적인 목적으로의 운용 등의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국부펀드의 투자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적 투자자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국부펀드의 운용 주체는 본질적으로 정부이므로 사적인 투자자들의 목적이 명백하게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임에 반해 국부펀드는 기술 이전, 원자재 확보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된 기구인 국부펀드는 정보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사적인 주체들과의 경쟁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국부펀드가 투자를 받는 대상국내의 증권법규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국부펀드의

6) 자본시장연구원(2012). p. 3.
7) 주강원(2010), pp. 409-410.
8) 주강원(2010), p. 409.

운용 주체가 타국의 정부 또는 정부와 관련된 기구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강제나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9)]

또한 정부 관료에 의해 운용되는 국부펀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국부펀드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부펀드가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운용과 국제적 논의

국부펀드의 발전과 자산규모, 투자규모의 증가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국부펀드의 운영과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EU는 2008년 “국부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유럽적 접근(A common approach to Sovereign Wealth Fund)”을 통해 국부펀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통해 EU는 국부펀드가 자율적으로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했다.[10)]

이러한 관심 가운데는 국부펀드의 투자 내용와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부펀드가 투자를 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아닌 여러 가지 정치적, 비경제적 고려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부펀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펀드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세계 주요국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 중 전략적 투자의 경우 민감한 문제가 국부펀드 보유국과 투자 대상국 사이에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국부펀드를 통하여 선진 기술을 이전해 가거나,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여 ‘유럽적 접근’과 같은 국부펀드의 운영과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주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투자자로서의 국부펀드의 대우에 관한 원칙, 지배구조, 투명성이 주요한 부분이다.

IMF도 2000년대 중반부터 국부펀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IMF는 2007년 10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 국부펀드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국부펀드 실무위원회가 최초의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26개의 IMF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는 2008년 2008년 10월 11일 산티아고에서 “국부펀드에 관한 일반원칙”(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practices: GAPP)[11)]을 제정했으며, 2009년 4월 6일에는 국제 국부펀드포럼(IFSWF)의 설립에 합의 하였다.[12)]

국제 국부펀드포럼은 각 국가들의 국부펀드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룹이며, 공동의 이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산티아고 원칙과 국부펀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2009년 10월 8-9일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국부펀드가 조직한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1년 5월 10-12일에는 중국의 북경에서 제 3회 연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9) 주강원(2010), p. 411.
10) 주강원(2010), p. 415.
11)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통해 일명 ‘산티아고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12) 26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보츠와나, 캐나다, 칠레, 중국, 적도 기니, 이란, 아일랜드, 한국, 쿠웨이트, 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카타르 러시아, 싱가포르, 레소토,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미국,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이다. Баян Шапагатова(2011). p. 17.

중국의 국부펀드가 주도하였으며, 세계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자산의 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3]

한편, 2008년 제정된 산티아고 원칙은 모두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법적체계, 목적, 거시경제정책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부터 17장까지는 제도적 체계와 지배구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18장부터 24장까지는 투자와 위험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표 2-3. 산티아고 원칙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법체계, 목적, 거시경제정책과의 관계	- 법적 성립 근거 및 형태 - 목적 및 거시경제 정책과 연계 - 자금조달 및 회수
제도적 체계 및 지배구조	- 지배구조 체계 - 책임성 - 운영의 무결성
투자 정책 및 위험관리 체계	- 투자정책 - 위험관리 및 성과 측정

www.kic.kr 한국투자공사.

이 원칙은 국제 국부펀드포럼을 구성하는 25개국의 국부펀드와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도출되었고,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주요 투자대상국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이 산티아고 원칙의 작성에는 여러 국가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정보 공개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하여 자산배분, 수익률에 관한 정보 공개는 합의했으나 운용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는 중동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반대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중국 등의 요구에 따라 신생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협의되었다. 국부펀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큰 의견차이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고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되었다.

산티아고 원칙은 자발적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행여부가 각국 정부와 국부펀드의 자율적 방식에 따라 점검된다. 이 때문에 실행체계의 구축은 향후 국제국부펀드포럼의 주요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14]

국부펀드 운영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투명한 운영이며,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인 조직과 기준들은 운영상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다.

이러한 국부펀드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체 구성이후, 국부펀드들의 투자와 운용에 대한 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다. 2010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1976년 설립 이후 최초로 운용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15] 이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투자대상 자산 구성, 지역 비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부다비투자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6.5%, 지난 30년간 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운용 자산의 80%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 Annual report 2011, p. 66.
14) 이승호(2012) 외, pp. 41-42.
15) 2008년 5월까지 아부다비 투자청의 공식홈페이지에는 공식 명칭, 주소, 전화번호만 개시되었고, 설립 이후 경영진의 외부 공식 인터뷰는 4번에 불과했으며 외부인의 본사출입도 고위 경영진의 입사면접시에만 허락되는 등 매우 폐쇄적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2010).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14호.

한 2009년 전체 운용 자산의 47% 이상을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주식 투자 중 10%는 신흥시장국가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차대조표와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부펀드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은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공적연금으로 알려져 있다.[16] 노르웨이 공적연금은 운용자산 규모, 수익률, 투자형태 등을 공개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국부펀드들의 운영에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의 규정에 따라 점차로 다른 국부펀드들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차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부펀드의 투자 증대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 국부펀드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들이 생겨난 것이다. 비록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참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국제 기구들의 가입과 활동여부는 국부펀드의 투자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1. 국부펀드(National Fund)

가. 설립과 발전과정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부문은 GDP의 1/4, 수출의 60%, 전체 예산 수입의 40%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7] 이처럼 국가 경제에 절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통한 외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석유생산은 2016-2017년 카스피해의 카샤간 유전이 최대한 가동되기 시작할 때 연 생산량 1억 2000만 톤, 일일 생산량 250만 배럴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생산량은 2040년까지 정체되고, 2040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매년 1%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

이에 따라 영구적이지 않은 석유 부문의 소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를 설립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저축의 목적이다. 둘째는 대외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변동으로부터 국가 경제의 위기 예방을 위한 안정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의 설립 목적은 결국 국부펀드가 에너지 중심의 경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대외 경제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 현재의 에너지 수입 중의 일부분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형태로 볼때,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독립된 법적인 기관이 아니며, 운영은 중앙은행이

16) 한국금융연구원(2010).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14호 참조.
17) IMF(2010). p. 21.
18) IMF(2010). p. 22.

담당하고, 운영위원회는 중앙은행의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며, 대통령, 총리, 재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 상원의장, 하원의장, 중앙은행장, 국가 예산 집행 감독위원회 의장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정책과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전략은 매년 수정되고 결정된다. 중앙은행의 자문을 받은 운영위원회가 투자 기준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중앙은행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10여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라 모든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부펀드 운영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발전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국부펀드가 설립되고 기초가 확립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이다. 1단계에서는 국부펀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설립의 법적 근거는 2000년 8월 23일 대통령령 402호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와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543호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두 개의 대통령령에 의해서이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부펀드의 설립은 199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1998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수출을 통한 외환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설립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었었다. 이후 국제 시장의 석유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19]

2단계는 국부펀드의 중기 발전 단계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2단계는 초기 국부펀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국부펀드 재원의 중요한 부문인 석유 부문으로부터의 납입액이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그것은 국부펀드로 자금을 납입하는 석유 기업들의 수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5년 9월 1일 대통령령 1641호를 통해 "국부펀드 자금 형성과 이용에 관한 중기 기본 구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중기 구상에서는 석유 부문 기업에 대한 정의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법인으로 정해졌다.

2005년 대통령령에 따라 국부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석유 부문의 기업이 이전에는 6개 기업이었으나, 이후에는 55개 기업으로 확대되었다.[20] 결국에는 2005년 대통령령을 통해 국부펀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200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국부펀드 자산규모가 2005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3단계는 2010년 4월 2일의 대통령령 962호인 '국부펀드 형성과 이용의 새로운 개념'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2010년 대통령령으로 국부펀드는 운영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지었다. 먼저 정부는 2010년부터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부펀드에서 예산으로의 납입 금액을 80억 달러로 정하였고, 이 자금은 '2020 전략'에서 언급된 산업화 프로그램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제한하였다. 2010년 대통령령과 '2020 전략'은 2020년의 국부펀드 발전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부펀드 자산이 2020년에는 GDP의 30% 정도인 약 900억 달러를 초과하고, 특히 저축 계정이 GDP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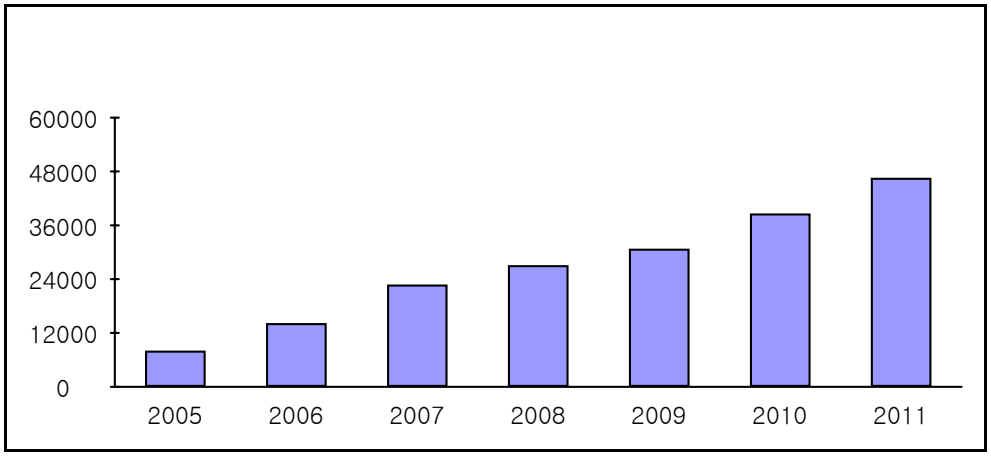
19) Баян Шапагатова(2011). p. 6.

20) Баян Шапагатова(2011). pp. 9-10.

21) О Концеп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т 2 апреля 2010 года No 962.(2010년 4월 2일 대통령령 962호 **국부펀드 형성과 이용의 새로운 개념**) http://e.gov.kz/wps/portal/!ut/p/b0/04_Sj9CPykssy0xPLMnMz0vMAfIjc7PyChKtUvKTS3NT80r0w_Wj9KN

아래 그림 3-1은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자산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부펀드 자산 규모는 2008년 말 275억 달러였으나, 금융위기 시기에 국내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2009년 1/4분기에 약 20%가 감소하여 220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11년 4월 36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국부펀드 규모는 2012년 7월 기준은 582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지출로 자산 규모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국부펀드 자산 규모(2001-201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avid Kemme(2012), p. 57: Annual Report of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year 2011. p. 46.

대통령이 국부펀드 운영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투명도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부펀드의 운영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현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투자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국부펀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간단한 몇몇 정보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부펀드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합의기구인 산티아고 원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50억 달러 이상 대규모의 국부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산티아고 원칙에 참여하지 않는 7개 펀드 중의 하나이며, 7개의 펀드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알제리,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2개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22]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명한 경영 부문에서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자산 규모가 전세계 국부펀드 중 17위에 위치할 정도로 발전했으나, 국제적으로 국부펀드의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되는 투명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자금 운영과 투자의 특징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형성과 운용에 대한 원칙은 2001년 대통령령 543호 대통령령 '카자흐

gPM8U_chQQwMQsDQzigdJ5STmpZcmpqfqRxaV6hfk5lqUOyoqAgDlLXQH/ (검색일자: 2012년 11월 24일)

22) Sarah Bagnall and Edwin M. Truman(2011), p. 5.

스탄 국부펀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 대통령령에서는 국부펀드를 안정화 계정과 저축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해졌다. 이것은 앞의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부펀드의 목적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 형성과 국제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저축과 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 계정은 펀드의 운용 자금과 예산으로부터의 전용 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중에는 사유화로 인한 수입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안정화 계정은 에너지 기업이 납입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생산물 분배협정에 따른 지분 소득 등으로 구성된다.[23] 당연히 국부펀드의 자금은 에너지 수출 부문의 수입을 축적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부펀드 수입 항목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기업 소득세, 수출 렌트세, 자원채굴세, 석유 수출세, 초과소득세, 로얄티 등의 세금과 펀드 운영에 따른 투자 소득, 에너지 기업의 사유화 소득 등 운영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된다.

표 3-1. 국부펀드 저축 계정과 안정화 계정의 수입

저축 계정			안정화 계정	
예산으로부터의 전용	펀드 운용 자금	사유화 수입	에너지 기업의 세금	생산물 분배 협정에 따른 지분 소득

자료: 저자 작성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국부펀드 자금은 에너지 기업의 손실 충당, 예산 납입, 펀드 운영과 투자에 사용된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예산에 대한 지원은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그 금액도 2002년의 21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8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해 왔다. 예산으로의 납입 금액은 매년 예산관련 법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며, 2010년 이전에는 국부펀드 자산 규모의 1/3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후부터는 최대 80억 달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24]

그러나 2012년 3월 대통령령 289호는 2010년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80억 달러에서 15%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 납입 규모는 최대 92억 달러에서 최저 68억 달러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25] 이것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 재정 규모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3-2. 국부펀드 자산 지출(단위: 백만 텡게)

지출 항목	2007	2008	2009	2010
예산	258000	464921.4	843100	1200000
목적성 이전	-	607500	261500	-

23) Баян Шапагатова(2011). pp. 7-8.
24) IMF(2011). p. 34: Kalyuzhnova(2010), p. 6653.
25)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т 2 апреля 2010 года No 962. 'Концеп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http://e.gov.kz/wps/portal/!ut/p/b0/04_Sj9CPykssy0xPLMnMz0vMAfIjc7PyChKtUvKTS3NT80r0w_Wj9KNgPM8U_chQQyMDEDCysARJ5STmpZcmpqfqRxaV6hfk5lqUOyoqAgBQjTfu/ (검색일: 2012년 12월 1일).

펀드 관리 지출	1317.4	2674	2898	3982.2
전체	259317.4	1075095.4	1107498	1203982.2

* 1달러=약 120텡게(2009년 2월 이전), 1달러=약 150텡게(2009년 2월 이후)
자료: 국부펀드; Шапагатова(2011), p. 52에서 재인용.

2001년 국부펀드가 설립되었던 초기 국부펀드 자산은 12월 31일을 기준은 12억 4037만 2900달러였다. 이 중에서 저축 계정은 약 9억 달러로 전체의 75%였으며, 안정화 계정은 약 3억 달러로 25%였다.[26]

2009년의 경우,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2009년의 국부펀드 규모는 약 240억 달러였으며, 이 중에서 안정화 계정이 56억 달러로 전체 국부펀드의 23%, 저축 계정이 약 183억 달러인 77%로 2001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안정화 계정 중에는 현금이 8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저축계정 중에서는 채권이 7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의 화폐구성 항목은 2010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56%가 미국 달러화, 26%가 유로화이며, 영국 파운드화가 7%, 일본 엔화가 7%, 오스트레일리아 달러화가 4%이다.[27]

표 3-3. 국부펀드 계정별 자산 포트폴리오(2009년)

계정	시장가격(단위: 달러)	시장가격(단위: %)
안정화 계정	5,623,927,090	100
채권	1,045,242,422	18.6
현금	4,578,684,668	81.4
저축 계정	18,339,340,132	100
채권	14,235,344,668	77.6
주식	3,343,896,092	18.2
현금	760,099,372	4.1
전체	23,963,267,222	100

자료: 국부펀드 자료: Сихимбаева(2011), p. 26에서 재인용.

국부펀드 자금은 대부분 해외로 투자되고 있는데, 주로 G3 국가들의 국채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부펀드의 수익률은 61.86%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4.65%에 이른다.[28]

아래 표 3-5와 같이 국부펀드가 기존의 해외 채권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실물부문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대한 투자 보다는 해외 투자가 대부분이며,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삼룩 카지나 펀드가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 발표된 소로스 재단의 보고서는 국내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예산에 납입하는 자금도 비에너지 부문과 중소기업, 사회발전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인사들도 동의하고 있는데, 우라즈 즈한도소프(Uraz Dzhandosov) 전 부총리는 실물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부펀드는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카즈무나이가즈의 카샤간 유전 사업에 2013~2015년 기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29]

26) David Kemme(2012). p. 21.
27) IMF(2010). p. 20.
28) www.banker.kz 2012년 5월 11일; Annual Report of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year 2011. p. 46.

표 3-4. 국부펀드 발전 방안(소로스 재단)

자산	현재 체제	향후 제안
저축 계정	1. 75%- 채권 투자 2. 25%- 외국 기업의 주식 투자	1. 외국 기업 주식-15% 2. 국내 기업 주식-35% 3. 해외 채권-2% 4. 국내 채권-35% 5. 부동산-10%
안정화 계정	정부 예산 납입(80억 달러 미만)	예산 납입 - 지방 예산 - 비에너지 부문 발전 - 중소기업 지원 - 사회부문 발전

자료: 국부펀드; Сихимбаева(2011), p. 25.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카자흐스탄의 경제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은행들도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국민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큰 침체를 겪게 되었다.

한편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인 2008년에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중동과 구소련 지역에서 중요한 국부펀드로 성장해 있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던 초기에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금융부문은 대외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었으나, 금융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은 미흡했다. 그러나 위기가 지속되자 정부는 국부펀드를 통해 GDP의 9.5%에 달하는 100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했다.[30]

지원방법은 또 다른 국부펀드인 삼룩카지나 펀드를 통한 것이었다. 전체 100억 달러 중에서 90억 달러가 삼룩카지나에 대출이나 자본 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0억 달러는 농업 부문의 기업인 카즈아그로 국가 지주회사에 지원되었다. 이 자금으로 삼룩카지나는 금융안정화, 주택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발전, 산업 혁신 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삼룩카지나는 금융안정화를 위해 자산 순위 상위 3개 은행의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BTA 은행의 지분 75%, Halyk 은행의 지분 21%, KKB 은행의 지분 20%를 매입했다. 이 자금이 22억 달러에 달하며, 40억 달러는 금융부문에 예금 형태로 지원되었다. 10억 달러는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 지원되으며, 10억 달러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금융부문에 지원되었다. 은행들은 평균 이자율 12.5%로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에 대출하였다. 또한 10억 달러는 농업 부문에 지원되었고, 10억 달러는 산업 혁신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31]

앞에서 언급한 '2020 전략'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 규모가 점차로 증가되어 2020년에는 GDP의 30%에 달하는 약 9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29) Trend. 2012년 3월 16일.
30) Kalyuzhnova(2011), p. 112.
31) IMF(2009). p. 8.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부펀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외의 투자를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삼룩카지나 펀드

가. 설립 및 조직 운영과 발전과정

에너지 산업 중심의 카자흐스탄 경제의 주요한 목적은 에너지를 제외한 IT, 건설, 섬유 등의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른 산업 부문을 관리할 수 있는 삼룩카지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복지 펀드인 삼룩카지나(Samruk-Kazyna)는 2008년 10월 13일 대통령령 669호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몇 가지 방법”과 10월 18일에 발표된 정부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삼룩 펀드(Samruk, 산업 부문)와 카지나 펀드(Kazyna capital management, 금융 지주회사)를 결합하여 설립되었다.[32]

삼룩카지나 국부펀드의 이사회는 단일 주주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며, 이사회 의장은 펀드의 발전 계획 승인, 발전 계획의 집행 감독과 분석 및 평가, 연간 예산의 승인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령의 권한이 강한 카자흐스탄에서 삼룩카지나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룩 카지나 펀드의 설립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삼룩카지나 펀드가 보유한 개별 국영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삼룩카지나는 투자 확대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는 카자흐스탄 국내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사회경제 각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삼룩카지나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발전 전략, 산업 발전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삼룩카지나의 첫 번째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룩카지나는 카자흐스탄의 주요한 산업에서 국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룩카지나의 주요 기업으로는 석유와 가스 부문의 카즈무나이가스(KMG), 전력과 에너지 부문의 KEGOC와 삼룩에네르고, 인프라부문의 카자흐스탄 Temir Zholy(철도), 우라늄 광산인 카즈아톰프롬, 통신부문인 카자흐텔레콤, 화학과 의약제조부문인 United Chemical Company와 SK-Pharma 등이 있다. 또한 삼룩 카지나 펀드는 몇몇 주요 금융기관들도 운영하고 있다.[33]

전체적으로 삼룩카지나 펀드은 2011년 기준으로 589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34] 삼룩카지나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는 869억 달러로 카자흐스탄 GDP의 약 40%에 달한다.[35]

이처럼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삼룩카지나는 사회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설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문은 금융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문이다.

정부는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의 부족한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32) http://www.sk.kz/page/kratko-o-fonde

33) www.sk.kz

34) Подробный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АО Самрук-Казына(**삼룩카지나 2011년 재정 보고서**), **2012년 6월, p. 4.**

35) Trend. 2012년 2월 16일.

을 하고 있다.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는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4월에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대출, 담보 등 금융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9월에는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산업무역부에 경영이 위탁되었고, 11월에는 삼룩카지나가 정부의 금융에이전트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11월에는 펀드내에 전문가와 기업대표로 구성된 사회-컨설팅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36]

2010년에는 3개년 주택 건설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에는 640만 평방미터의 주택이 건설되어 당초 계획 규모의 103% 목표가 달성되었다.

현재는 2011-2014년 주택 건설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2020” 프로그램으로 아스타나, 알마티, 아티라우, 악타우 등 주요 도시들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 펀드 외에도 삼룩카지나 펀드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1-2014년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4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37] 정부가 이처럼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위기 이전에는 87%를 차지했던 민간 부문의 부동산 부문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건설을 통해 인접한 건설 자재, 전력, 철강, 화학 등의 산업 부문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룩카지나는 정부의 다양한 경제 발전 전략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룩카지나는 2020 카자흐스탄 발전전략, 2010-2014년 산업-혁신 발전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철도와 에너지, 석유가스 부문 발전 프로그램 등이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 전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자금 운영과 투자의 특징

삼룩카지나의 수입항목은 운영하는 자기업들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소속 기업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로열티, 보너스,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른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에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초 계획안에 따르면, 자회사들을 통해 220여개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계획된 투자 규모는 160조 5000억 텡게에 이른다.[38]

2015년까지의 투자 계획안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원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삼룩카지나의 2015년까지 투자계획

프로젝트 형태	수	%	금액(단위: 조 텡게)	%
전략	107	49	5.1	31
현대화	82	37	10.9	66
대규모 공사	31	14	0.5	3
총 규모	220		16.5	

자료: Подробный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АО Самрук-Казына(삼룩카지나 2011년 재정보고서), 2012년 6월, p. 6.

아래 표에서와 같이 삼룩카지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재정은 펀드 자체 자금이 50%, 국내외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이 32%, 국부펀드 자금이 12%, 정부 예산이 7%를 차지하고 있다.

36) www.sk.kz
37) www.sk.kz
38) Подробный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АО Самрук-Казына(삼룩카지나 2011년 재정 보고서), 2012년 6월, p. 5.

표 3-7. 삼룩카지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원천

재정원천	금액(단위: 조 텡게)	비중(단위: %)
삼룩카지나 펀드 자금	6.1	50
정부예산 전용	0.8	7
국부펀드 자금	1.5	12
국내외 자본 시장으로부터의 차입	3.9	32

자료: Подробный анализ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АО Самрук-Казына(삼룩카지나 2011년 재정 보고서), 2012년 6월, p. 6.

한편, 삼룩카지나는 2012년부터 국민 IPO를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IPO의 목적은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참여, 투자 문화 창조, 국민의 저축 분산과 수익 증대, 국내 채권 시장 발전, 대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등이다.[39] 대부분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상기업을 결정할 때 세계 자원 시장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KEGOC, 카즈트란스오일, 삼룩에네르고, 카즈트란스가스, 카자흐스탄 철도, 에어 아스타나, 카즈테미르트란스, 카즈모르트란스플롯 등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주회사 형태로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룩카지나 펀드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테마섹은 지주회사로서 산업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40] 향후에는 삼룩카지나 펀드도 테마섹의 발전 사례를 검토하고 유사한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1. 설립과 발전과정

아제르바이잔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사회발전을 위해 석유 부문의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를 설립하였다. 국부펀드를 통해 석유 부문의 수입을 다른 부문에 투자하고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지출하려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SOFAZ(State Oil FUnd of Azerbaijan))는 1999년 12월 29일 대통령령 240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부펀드법은 200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434호에 의해 승인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2001년 6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부펀드의 외국통화 표시 자산 관리 규정”과 매년 대통령령으로 승인되는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투자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국부펀드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이며, 국부펀드의 활동은 감사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SOFAZ의 활동은 감사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데, 감사위원회는 SOFAZ의 예산 초안, 연간 리포트, 재정상태 등을 조사한다. 감사위원회는 2008년 11월 27일 대통령 포고(ordinance) 73호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리, 의

39)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АО фонд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аяния Самрук-Казына(**삼룩카지나 발전전략), 2012. p. 21.**

40) IFSWF(2011),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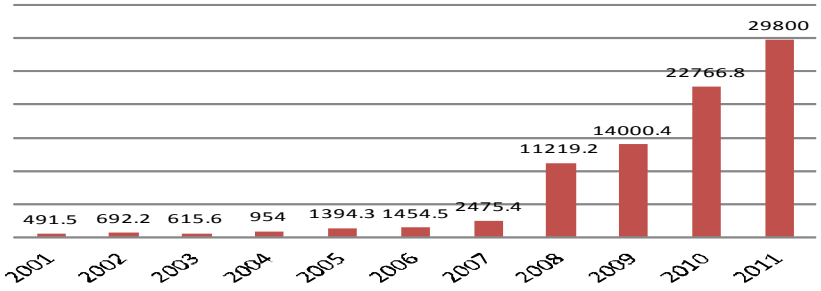
회 부의장, 대통령 경제자문, 재무부 장관, 경제발전부 장관, 중앙은행 의장, 과학아카데미 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설립목적은 "석유와 가스 수입의 장기 관리 전략"이라는 제목의 2004년 10월 27일(No. 128) 대통령령에 잘 나타나 있다. 대통령령에 나타난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재정 충원, 석유수입에 대한 의존도 축소, 비석유 부문의 발전 등 거시경제안정과 산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석유와 가스가 비영구적인 자원임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석유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사회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설립된 국부펀드의 자산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며, 특히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4-1.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2001-2011년 자산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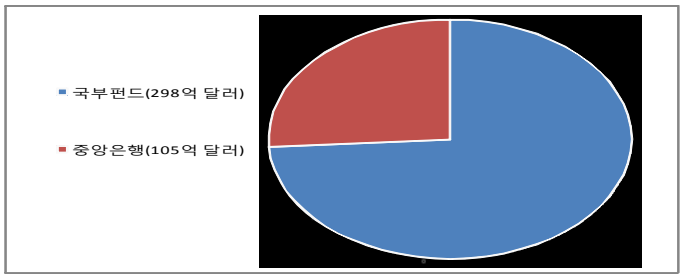


자료: Annual report 2011, p. 12.

국부펀드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샤마르 모브수모프 국부펀드 위원장은 2012년 5월 2025년까지 현재의 5배 규모인 17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41]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아래 그림에서처럼,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를 정도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가진다. 이처럼 국부펀드의 규모 증가는 에너지 생산과 수출 증대로 인한 외화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 아제르바이잔의 외환보유고(2011년 12월 31일)



자료: Annual report 2011, p. 10.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외국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IFC(국제금융공사), 국

41) Trend. 2012년 5월 7일.

제 국부펀드포럼(IFSWF, International Forum of Sovereign Wealth Funds)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국부펀드 워킹그룹(IWG)은 2009년 4월 5~6일 쿠웨이트의 수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국부펀드 포럼의 설립을 선언했다.

국제국부펀드는 국부펀드들의 자발적인 기구이며, 국부펀드간의 회의, 주요 이해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산티아고 원칙에 대한 이해 촉진, 국부펀드의 활동을 위한 기구이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국제국부펀드 포럼에 참여하여 2009년 10월의 제 1회 회의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개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산티아고 원칙 24조를 준수하고 국부펀드 가운데 처음으로 연례 평가리포트를 작성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2. 자금 운영과 투자의 특징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국부펀드의 주요 수입원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판매액이 대부분으로 이 항목이 전체 국부펀드 수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펀드 운영 수입이 1.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 국부펀드 수입구조, 2011년 (단위: 백만 달러)

항목	금액(%)
석유와 가스 매각 수입	19,329.5(97.6%)
펀드 자산 운영 수입	222.8(1.1%)
샤데니즈1단계가격 조정수입	128.1(0.65%)
BTC 송유관 배당금	84.5(0.42%)
보너스	20.0(0.1%)
통과 사례 수입	9.5(0.05%
기타 수입	1.8(0.009%)
토지 이용 수입	1.7(0.008%)

자료: Annual report 2011, p. 14.

이러한 국부펀드 자금으로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 경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왔다.

아래 표의 9개 프로젝트가 그동안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가 추진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들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사회인프라, 교육, 난민(사회 부문) 지원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 SOFAZ 주요 투자 프로젝트(2011년까지)

	프로젝트명	투자 금액 (단위: 마나트)	부문
1	BTC 송유관(2006년 투자 완료)	2억 979만	에너지
2	국내 난민 정착	8억 578만	사회
3	오구즈-카바카-바쿠(Oguz-Qabaka-Baku) 수자원 공급시설	7억 796만	사회 인프라

4	사무르-앱쉐론 (Samur-Absheron) 관개시설	6억 955만	인프라
5	예산 보충	251억 800만	재정
6	국가 투자 기업(State investment company)의 법정 자본금 지급(2006년 집행)	9000만	산업
7	바쿠-트빌리쉬-카스(Kars) 철도 건설	2억 224만	운송 인프라
8	2007-2015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은 해외 교육 지원 프로그램	3480만	교육 인프라
9	아제리, 치라크, 구네슬리(Azeri, Chirag, Guneshli) 유전 탐사와 개발 합작 프로젝트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기업 몫 지불	8760만	에너지

출처: www.oilfund.az

구체적으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부문은 BTC 송유관 건설과 유전탐사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BTC 송유관의 경우, 국부펀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보유한 지분 25% 매입액을 지불했으며, 지분 배당액은 국부펀드로 납입되었다.

국내 난민에 대한 지원도 국부펀드의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42]과 이로 인한 문제들은 1990년 독립이후,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부펀드는 2001년 설립된 이후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주택 건설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 항목으로 8억 5780만 마나트가 지원되었는데, 2011년에는 1억 4000만 마나트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주택이 건설되고, 에너지, 가스, 물을 비롯한 난민들의 주거에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59개의 지역에 1만 8,313가구의 8만 1,800명에게 주택이 공급되었다.[43]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취약한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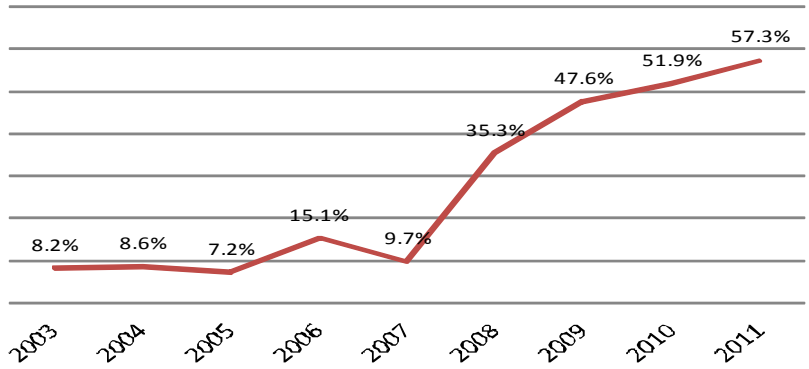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외국대학으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4월 16일 대통령 포고령 No. 2090으로 '2007-2015년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의 해외 교육 국가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된 것으로, 국부펀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국부펀드의 예산납입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57.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에 비교하면 7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부펀드는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07년 석유 생산규모가 증가된 이후 국부펀드의 예산 납입 금액도 크게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42)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시기부터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으로 소련이 해체될 무렵인 1991년 12월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치를 선언하였고, 양국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1994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상태 중이며, 현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독자적인 자치영토로 점거하고 있다. 이 지역 분쟁으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난민들의 정착 문제가 아제르바이잔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43) Annual report 2011, p. 19.

그림 4-4. 국부펀드 자금의 예산 비중(2003-2010년)



자료: Annual report 2011, p. 13.

국부펀드의 예산에 관한 원칙은 “국부펀드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 원칙”이라는 2001년 10월 1일의 No. 579 대통령령에 잘 나타난다. 이 대통령령은 2003년 No. 849 대통령령과 2005년 3월 1일 No. 202 대통령령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국부펀드 예산은 매년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최근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투자는 기존의 투자와는 다른 다음의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점차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들이다.

국부펀드는 점차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6월 샤마르 모브수모프 국부펀드 이사장은 런던, 파리, 로마, 모스크바, 이스탄불 등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 부문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4] 이처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국내의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점차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를 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제 5장 결론

세계적으로 국부펀드는 규모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환경의 변화로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부펀드는 기존에는 주로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왔으나, 점차로 대체 자산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부펀드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 주요한 투자 펀드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부펀드 가운데 에너지 수출 소득을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과 에너지 산업 부문이 발전하였으나, 다른 산업 부문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44) Trend. 2012년 6월 23일.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은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에너지 가격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문제를 갖는다. 에너지 가격이 높을때는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며, 환율이 안정되고, 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 개인 소득이 증대되고 개인 소비 지출이 확대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정부 지출은 축소되어야 하며, 투자, 소비 감소가 뒤따른다.

둘째, 에너지 자원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자원은 생산과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자원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생산이 지속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의 의존은 결국 경제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국부펀드이다. 국부펀드를 통해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에너지 수출 자금을 축적하여,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이 소비되어 없어짐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에너지 수출국들은 국부펀드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부펀드는 에너지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이 지역 국가들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에너지 보유국인 러시아에도 설립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설립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도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국부펀드의 역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화폐 및 금융 부문의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된다. 구소련 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 왔다. 그러나 경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좌우되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외환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산업 발전 전략을 위한 자금으로 국부펀드의 자금이 투자된다.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두 국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들은 각각 삼룩카지나 펀드와 아제르바이잔 투자기업을 운영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셋째, 해외에 금융부문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다. 에너지 수출을 통한 외환 수입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로 선진국들의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점차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국부펀드의 성장,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설립과 발전과정, 운영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부펀드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국부펀드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수출국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지,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불안정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부펀드가 외국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국내 실물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펀드 운영이 향후 국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1.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비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설립 연도	2000년	1999년
자산규모 (2012년 7월 기준)	582억 달러	326억 달러
향후 자산 증대 전망	1012억 달러 (2017년, IMF)	900억 달러 (2020년, 소로스 재단)
거버넌스	대통령의 절대적 역할 (10명의 운영위원회, 대통령의 운영위원회 참여)	대통령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
운영기관	중앙은행(40%)	독자적 국부펀드 (독립 청사 신축 중)
지출 및 투자 특징	- 부동산 부문 투자 - 삼룩카지나 펀드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 투자	- 국내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발전 부문 지원 - 일정금액 외부운용사를 통한 투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0%	약 57%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60%	약 75%
투명성	매우 낮음 (국제기구 미참여, 홈페이지 미운영, 운영 정보 미공개)	비교적 높음 (국제기구 참여(EITI, 산티아고 원칙), 홈페이지 운영, 운영 정보 공개)
향후 투자 및 발전 전망	- 신흥시장 투자 - 국내 산업 투자 - 국내 사회발전 투자 - 부동산 부문 투자	- 신흥시장 투자 -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 체계적 운영 시스템 - 부동산 부문 투자

자료: 저자 작성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향후에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자산 규모의 증대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으로 양국의 국부펀드는 투명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국부펀드 운영에서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티아고 원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둘째, 투자 정책에서의 차이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단일한 펀드 운영을 통해 외국에 투자하고 동시에 국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는 삼룩카지나 펀드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삼룩카지나 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다각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두 펀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출 부문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민 IPO를 추진하며,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국부펀드 경영의 문제해결과 함께 중산층의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르메니아와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지원과 교육 사업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넷째, 운영에서의 차이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독자적인 정부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삼룩 카지나 펀드 설립의 구체적인 목적은 펀드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여 국영기업의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의 설립과 같이 국내 사회경제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부펀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부펀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국부펀드 자금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국부펀드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산업 다각화와 인프라 건설, 사회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각 582억 달러와 302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보유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 점차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세계 각국 국부펀드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앙아시아 두 개국의 국부펀드의 경우, 국부펀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투자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국부펀드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부문은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금융부문에서의 협력 부문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미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금융위기이후 투자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없었으나, 2011년 한해에 2조 2,032억 원의 채권을 매수하였으며, 2012년에도 2월 말까지 2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한국의 몇몇 금융기관에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진국 이외의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점차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한국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45]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부펀드 투자 전략에 포함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투자 포럼 개최와 금융 부문간의 교류증대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포럼

45) 2012년 7월 13일 잘랄 바기쇼프 SOFAZ 연구부 리스크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

개최나 금융 기관간의 교류는 아직도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교류가 조금씩 증대되고 있다. 2012년 7월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한국-중앙아시아 금융포럼이 개최되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포럼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금융정책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에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포럼 개최를 통해 국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와 산업부문에서의 협력도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와의 산업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의 삼룩카지나 펀드는 한국과 에너지 개발, 금융, 화학, 원자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삼룩에네르고가 한국의 한전, 삼성 등과 발하쉬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가장 대규모의 협력 사업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발하쉬 화력발전소에 한국전력, 삼성물산이 전체 지분의 각각 35%를 보유하고, 카자흐스탄 기업인 삼룩에너지와 카작무스가 각각 25%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화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전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해외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이다. 중동의 국부펀드들과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 서부도로 사업과 인도네시아 석탄 터미널 사업에 대해 카타르 국부펀드와 한국건설기업(삼성물산, 현대건설)이 공동투자하는 것에 대해 카타르 투자청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의 국부펀드와도 이러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중앙아시아 국부펀드의 자금이 결합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션 II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 I)
: 중앙아시아의 역사, 도시 그리고 영화

■ 사회 : 최건영(연세대)

■ 발표 :

기계형 - 19세기 말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정세진 -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박영은 -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반영된 샤머니즘 영성의 부활

■ 토론 : 양승조(고려대), 송준서(한국외대), 김영미(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무국)

19세기 말 타슈켄트 도시공간에서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기계형(한양대)

1. 들어가는 글

1991년 소련해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출현한 새로운 국민국가들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과 함께 카리모프정부는 무슨 이유로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러시아(또는 소비에트) 내러티브'를 탈각하고자 했던 것일까? 정부는 무엇 때문에 수도(Capital City) 타슈켄트와 도시들 곳곳에 새로운 '공적 기억'과 새로운 '기념비'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가? 정부는 무엇 때문에 거리의 이름에서 러시아어 지명들을 뜯어냈으며, 티무르와 같은 역사적 영웅들을 불러내면서 우즈베크(Узбек) 민족의 기념비들을 건립했는가? 이러한 일련의 경향을 '민족주의'의 부활로 해석하곤 하지만,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투영해 본다면, 도시가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제국의 공적 기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한 의식적인 행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정부가 들어서는 수도는 한 국가의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느 도시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기호학의 개념을 빌린다면, 일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수도는 한낱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 국가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도시의 건축물들, 도시의 의식들(rituals), 거리의 이름들 등 수천가지 과거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과거 역사의 텍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기호학적 프로그램으로 등장한다.[1] 그런 맥락에서 소련해체 이후, 카리모프정부에 의해 특히 수도에서 새롭게 우즈베크 민족의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한층 고조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1990년대에 타슈켄트 공간에서 러시아(소비에트) 내러티브를 탈각하려고 시도한 카리모프정부의 조치는 1865년 타슈켄트를 병합한 후 제국 공간을 재구성하려 했던 러시아 짜르정부의 정책과 오버랩되면서 공간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떤 해석의 여지를 보여준다. 즉,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다르지만 수도(도시)가 권력의 재현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무엇보다도 근대 이후 유럽 각국이 식민지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에 도시 공간은 적극적인 식민화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어떤 집단(보통의 경우, 국가)이 정치적, 군사적 통제와 지배력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농업적 잉여를 끌어내고 봉사를 제공하게 하는 경제적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도시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두었던 유럽의 해양 제국들에서 보듯이 인종적 지배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제국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예컨대, 타슈켄트는 '투르케스탄(Туркестан), "투르크인들의 땅"으로서, 19세기 중엽에 러시아인들이 중앙아시아를 지칭함)'의 중심도시로서, 1865년에 러시아제국에 병합된 이후에 매우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1) Лотман Ю. "Символика Петербурга и проблемы семиотики города".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XVIII).* с. 30-44.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열린책들, 1996), 44-111쪽; 로트만, 우스펜스키, 리하초프. 『러시아기호학의 이해』(민음사, 1993).

타슈켄트는 면화 대체생산지로서의 잠재성, 아시아에 인도식민지를 지니고 있던 영국과의 '거대게임(great game)'으로 말미암아, 전략적 ·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식민기지'여야 했다. 둘째, 타슈켄트는 1867년 이후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면서, 식민지에서 '문명화의 사명'을 강조했던 다른 유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러시아제국을 구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가장 '유럽적인' 근대성을 보여주는 식민도시가 되어야 했다. 셋째,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러시아제국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그리스문명, 페르시아문명, 아랍문명, 몽골문명 등이 교차하며 발전한 '문명의 집산지'였으며, 러시아제국에 군사적으로 병합된 이후에는 이슬람이 우세한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문명적 대안(정교회)으로서 '러시아'의 근대성을 시험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했다. 넷째, 타슈켄트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있는 러시아제국에게 제국을 떠받치는 '중추'여야 했다. 오랫동안 러시아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제국 동쪽의 주변지역, 즉 중앙아시아(그리고 아시아의 시베리아)는 후진적인 지역으로서 러시아가 짊어져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보였으나, 통치자들은 러시아제국의 정통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투르케스탄이 없이 러시아제국이 유라시아제국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전략적, 경제적 의미의 식민기지, 유럽적 근대성을 이식해야 하는 식민도시,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접점으로서 러시아적 근대성의 지렛대, 유라시아제국을 떠받치는 중추로서 타슈켄트가 러시아제국에 대해 지니는 도구적 또는 모순적 관계는 처음부터 양자 관계를 규정하였다.[2)]

본 논문은 권력의 재현으로서 도시공간(특히 수도)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식민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경관의 변형, 토착민들의 전통적 도시경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도시공간을 둘러싼 권력사이의 알력과 갈등, 식민지 정책의 공고화(교회, 군대, 행정, 교육 등)와 도시경관에 권력이 내재하는 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가 권력의 재현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80년대까지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연구에서는 제국 중심(core)과 식민지 변두리(periphery) 사이의 엄격한 분리, 식민지인의 토착민에 대한 배제 등이 강조됨으로써, 둘 사이의 저항과 갈등, 협력과 수용 등의 복잡한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3)] 최근 영미의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연구, '신제국사(New Imperial History)' 연구의 결과, 식민지 본국이 일방적으로 토착민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역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며, 양자 관계에서 배제와 분리의 기제뿐만 아니라, 협력과 수용의 측면, 또한 식민인과 토착민의 관계가 아니라 토착민들 간의 관계들 등 다양한 모습을 해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도 잡지 『Ab Imperio』를 중심으로 '신제국사'의 기치를 내건 연구자들의 작업을 통해,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면모가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에 따라, 러시아제국이 소수민족들과 맺었던 관계들, 러시아제국의 이념적, 문화적, 제도적 유산, 소수민족들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태도 등 많은 연구 주제들이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4)]

타슈켄트의 도시공간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그 동안 역사적 행위의 무대 또는 배경으로 존재해 온 공간(space)에게 말을 건네는 작업이자, "역사가 없는 작은 사람들"이라고 대상화되었던 중앙아시아 토착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작업의 일환이다.[5)] 이러

2)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3) Stephen Howe, ed., *The New Imperial Histories Readers*, Routledge, 2010, Introduction; Anthony G. Hopkins, "Back to the Future: From National History to Imperial History," *Past and Present*, 164 (1999), 203-204.

4) Герасимов, С. Глебов, А. Каплуновский М. Могилнер, А. Семёнов (Ред). *Новая имперская истори 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азан, 2004).

한 문제의식을 지닌 본 연구는 타슈켄트 공간 그 자체의 성격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시 공간이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위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경관의 변형과 그에 대한 인식, 도시공간을 둘러싼 권력 간 갈등, 도시경관에 권력이 내재하는 방식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도시공간의 변화, 근대도시로서의 외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도시경관을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경관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정책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러시아에 병합된 식민지로서 타슈켄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민 권력을 실질적으로 구조화한 규정들과 행위들 및 그 관행들, 나아가 식민지 본국의 정치・형벌・제도・사법의 역사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식민지 사회가 발전한 정도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식민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과 연관해 내용설명을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러시아 식민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우즈베크와 타슈켄트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즈베크 사회의 구조와 국가 구성의 특징, 러시아의 식민 지배에 대한 투르케스탄인들의 저항과 협력, 러시아 식민 지배가 독립 이후 투르케스탄에 남긴 유산 등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쟁점들은 이 글의 직접적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장.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침략과 타슈켄트

1) 투르케스탄으로의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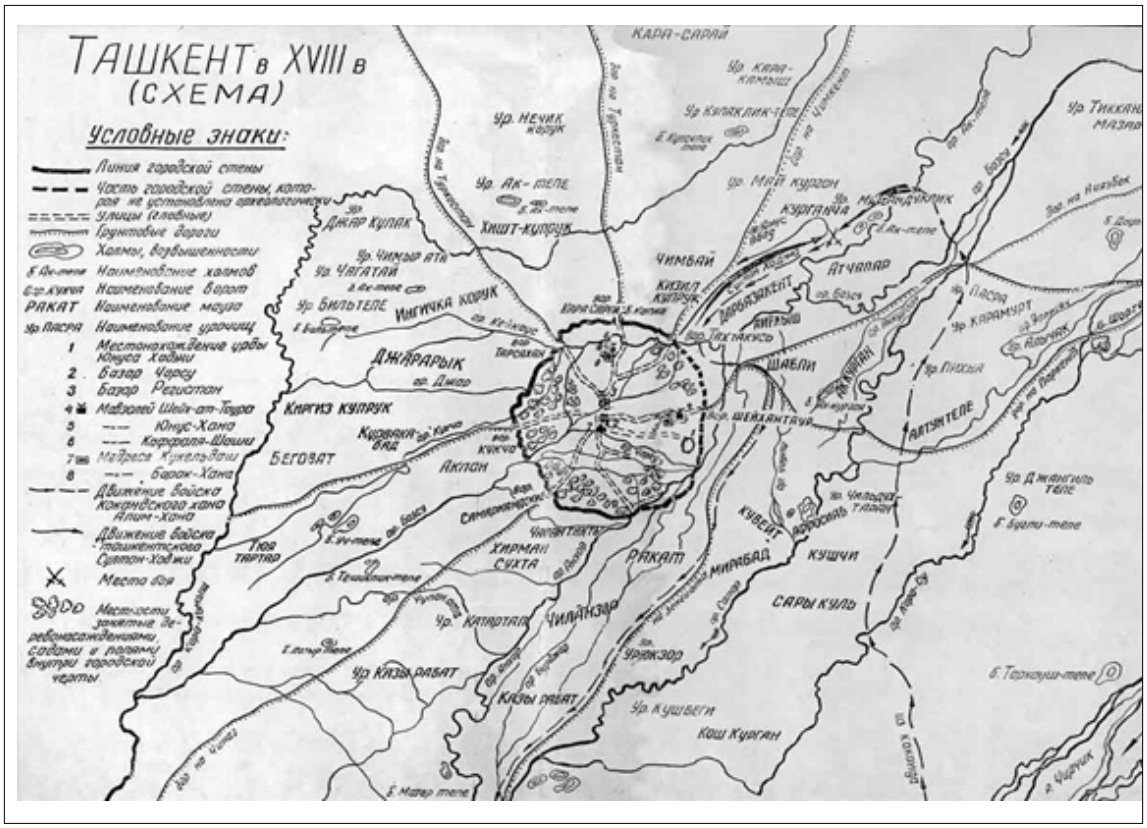
투르케스탄의 초원지대는 오랫동안 다양한 부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명들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부침이 컸다. '투르케스탄' 지역은 일찍이 BC8세기에 박트리아, 호레즘, 파르티야, 소그드 등의 고대국가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BC4세기에 이르러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제국에 속했다. 8세기에는 아랍의 칼리파에 의해 병합되기도 했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에 들어갔다가 14세기에는 티무르제국(Монгольской империи Тамерлана)에 속했으며, 16세기에는 그 자리에서 부하라 에미라트(Бухарский эмират)와 히바 칸국(Хивинское ханства)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코칸드 칸국(Кокандское ханства)이 일어났다. 이로써, 19세기 중엽에 투르케스탄에는 크게 부하라 에미라트,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타슈켄트는 투르케스탄의 복잡한 성격을 지닌 전형적인 상업중심지였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의 하나로서, 부하라 에미라트, 히바 칸국과 같은 인근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무역을 수행하였다. 타슈켄트는 오랫동안 '실크로드'로 알려진 동서무역로를 잇는 견고한 정기 기착지였으며, 비록 17-18세기에 약간의 정체를 보이기도 했지만, 19세기 내내 카자흐의 스텝을 경유해 러시아로 가는 북서쪽의 카라반 대상들을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의 역할을 하였다(<그림1>참조). 도시의 면적은 30평방 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km)에 이르렀고, 12개의 성문이 포함된 두께 2m의 성벽은 도시 주변을 에워싸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대략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 주민들은 보즈수

5) 그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저작을 지적하자면,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서울: 교보문고, 2009); 그 외에 사이드 사망1주년을 기념하는 박홍규의 추도문 참조.「에드워드 사이드와 역사학」,『역사비평』, 347~359쪽 (2003); *Orientalism and Empire in Russia*, edit. Michael David Fox, Peter Holquist, Alexander Martin (Bollmington, Indiana: Slavica, 2006); 조앤샤프 지음, 이영민 박경환 옮김,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11).

프(Bozsuv) 운하의 물을 사용하였다. 도시의 최고책임자에는 코칸드 칸의 임명을 받았던 시장(bek)이 있는데, 그는 코칸드 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리자(mingbashi)로서 쿡차 다하, 베쇼고흐 다하, 샤이혼토후르 다하, 세브조르 다하를 관리했다. 각각의 다하 밑에는 많은 수의 마할라가 포함되었는데, 각 마할라는 촌장(yuzboshi)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19세기의 문헌정보에 따르면, 각각의 마할라에는 50~150개 가족이 거주하였다. 타슈켄트에서도 상업의 중심은 단연 시장(bozor)이었다. 지역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영위했던 시장으로서 에스키 주바(Eski Juva), 초르수(Chorsu), 레기스톤(Registon), 카폰(Kappon) 시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레기스톤 시장은 토착민들의 주거지에 위치하였는데, 타슈켄트 토착민들의 주거지는 성문이 있는 거리들과 연결되어, 국내외로 무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주는 구조였다.[6] 다시 말해, 토착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타슈켄트의 거리는 그저 골목이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좁고 답답한 그런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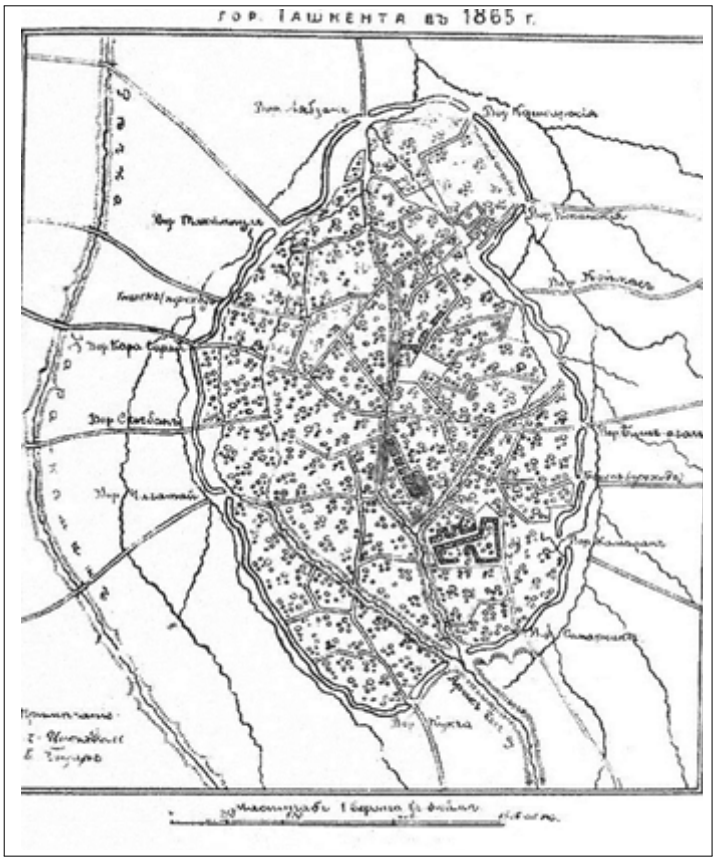
<그림1> 18세기 타슈켄트[7]



러시아제국은 표트르대제가 일찌기 1717년에 히바 원정에 실패한 이래로 아스트라한에서 오렌부르그까지 스텝남부로 팽창했으나, 투르케스탄 정복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으로의 정복과 팽창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1847년-1864년), 2단계(1865-1868), 3단계(1873-1879), 4단계(1880-1885)가 그것이다. 좀 더 부가설명을 해보자면, 1847년에 러시아제국의 군대는 시르다리아 강의 하구에 '라임스코예(Раимское, 또는 다른

6) 괄호 안의 표기는 모두 우즈베크어임. *Тошкент 2200*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2009).
7) http://www.orient-tracking.com/Hystory/Tashkent.htm

이름으로 Аральское)' 보루를 세웠다. 러시아는 처음에 코칸드 칸국을 공략한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요새를 세웠으나, 더 진전이 되지는 않았다. 그 후, 1853년에는 코칸드의 '아크 메체티(Ак-Мечеть)' 요새를 점령하였고, 이 작전을 지휘한 오렌부르그 총독의 이름을 딴 '포르트 페롭스키(Форт Перовский)' 요새를 세웠다. 러시아군대가 크림전쟁에 주력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팽창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859년 알렉산드르 2세는 코칸트 칸국 점령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1853년에 점령한 바 있는 코칸드 칸국의 아크 메체티 요새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다. 토착민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대는 악수프(Аксув), 피슈테바(Пиштепа), 찰레보르(Чаллево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864년에는 피슈펙(Пишпек), 토크막(Токмак)을 점령하였으며, 결국 10월에는 체르냐에프(Черняев)의 지휘 하에 타슈켄트 점령이 시도되었다.[8)]



<지도2> 1865년 타슈켄트[9)]

위의 그림(<지도2>)에서 나타나듯이, 1865년 당시의 타슈켄트는 12개의 성문, 두껍고 견고한 성곽, 코칸드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타슈켄트를 지키는 자연 방어물의 역할을 해주었던 치르칙 강, 마치 벌집처럼 견고하고 응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시는 체르냐예프의 거침없는 공략에 무너지고 말았다. 1865년 러시아제국의 타슈켄트 점령은 중앙아시아로의 대대적인 확장을 알리는 전조였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인가? 이 시기에 중

8) Г. А.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инкомцентр, 2003), с. 35.
9)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 *Ташкент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ашкент: Электро-паровая типолитография О. А. Порцева, 1912. с. 51.

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제국에 주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유럽의 해외 팽창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킨 환상, 즉 "동방의 부"에 대한 신화는 이미 19세기 초에 러시아제국의 외무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다. 아시아에 대한 환상은 "가난"과 "후진성"이라는 수사로 대체되었으며,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정체된" "변화하지 않는" 동방의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10]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앞서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공세를 통해 "투르케스탄"이라 불러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크림전쟁(1854-56년)의 패배에 뒤이어 농노제 폐지(1861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러시아 국내정치의 복잡한 갈등상황은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서부와 남부 지역으로의 팽창은 좌절되었지만, 이 지역은 크림전쟁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보상이 되었다.

중앙아시아 역사가 아바쉰(СергейН. Абашин)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인들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포상받고 싶은 욕구,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의 출구를 투르케스탄에서 찾았다고 지적한다.[11] 처음에는 신문의 한 면에 이 지역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면, 곧이어 공식적인 출판물들이 동방(Восток) 팽창의 정당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다시 말해, 투르케스탄 정복은 제국의 남쪽 경계를 방어하는 수단이며, 동방에서 영국의 팽창에 맞서는 대응이라는 견해, 아울러 훨씬 더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의 정복이 "토착민들에게 재앙(бедствие)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종족들에게 구원(спасение)의 유일한 길을 열어준다"는 관념이 식자층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12] 잇달에 출간되는 여러 다양한 서적의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와 같은 러시아제국의 중심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후진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선진적 유럽국가(즉, 러시아제국)에 의한 정복은 이러한 지역에 이익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크림전쟁에서의 참패는 이러한 여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 반러정책을 거부하게 만들어줄 공격적인 무기가 필요했으며, 영국에 있어서 인도가 바로 그러한 수단이었고, 그와 같은 길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나 있었다.[13] 한편,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로의 팽창의 원인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자주 지적되듯이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의 발발로 인해 유럽으로의 면화유입이 줄면서, 그 결과 섬유산업의 위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제국에게는 새로운 원료시장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19세기 중엽에, 러시아제국에게 중앙아시아는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을 지녔고, 그것의 병합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했다.[14]

2) 타슈켄트점령

1864년 10월,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오렌부르그총독부에 포함되어 명목상으로 투르케스탄 오

10) Alexander Morrison, "Russian Rule in Turkestan and the Example of British India," *Slavonic & East European Review* 84/4 (October 2006), p. 702.

11)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С. 321~322.

12) Г. Лежан, "Русск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Записки для чтения,* СПб., 1867, No 10/11, С. 198;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С. 319 재인용.

13)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 ской империи,*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4장.

14) Alexander Morrison, Russian, *Rule in Samarkand, 1868-1910: A Comparison with British India*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 versity Press, 2008). 특히, 면화수입을 다룬 장.

블라스치로 불리웠던 투르케스탄으로 휘하에 3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진군을 시작했다. 이미 6월에 도시 투르케스탄을 점령하였는데, 도시수비대의 반격을 받으며 러시아군대는 18명을 잃고 침켄트(Чимкент)로 밀려났다. 1864년 10월 5일, 러시아군은 침켄트를 점령한 후, 타슈켄트 점령 준비를 시작하였다. 즉, 라임스코예 보루에서부터 페롭스키 요새에 이르는 군사 요새로 시르다리아 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러시아군은 남시베리아에서부터 공격을 가했다. 아울러, 알마타의 베르노예 요새를 점령한 후에, 시베리아 전선을 형성하였다.

당시에 타슈켄트는 5-7미터 높이와 2미터 두께의 요새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타슈켄트 수비군은 12개의 성문이 있는 견고한 성벽을 계속 수비하였는데, 타슈켄트에는 명성이 높은 요새-코칸드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가 있었는데, 그 요새 안에 도시를 지키는 군 부대가 있었다. 또한 치르칙 강의 좌안에도 요새가 있어 도시 안으로의 접근을 막았다.



<지도3> 1873년 중앙아시아 지도15)

한편, 타슈켄트 주민의 도움을 받는 코칸드 군은 1864년 12월 19일에, 도시 투르케스탄의 한 부분에 진입해 이틀 동안 접전을 벌였다. 코칸트군을 지휘한 알림쿨(Алимкул)은 짜르 군에 항복과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제안했으나 러시아군은 응하지 않았고, 식량이 없는 채로 포위되어 결국 57명 사망, 23명 치명적 부상, 나머지는 패주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러시아제국 군대가 중앙아시아로 팽창하던 시기에 일어난 전투 전체로 볼 때, 이것은 토착민들의 최초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토착민들은 군사기술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15) Г. А.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инкомцентр, 2003), с. 159.

1865년 5월, 체르냐예프는 다른 군사작전을 폈다. 5월 10일, 그는 타슈켄트에서 25km 위치에 있는 니야즈벡 요새쪽으로 다가갔는데, 4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격전이 있던 곳이었다. 짜르군대는 포병이 특히 강했는데, 몇시간 동안 요새의 벽을 향해 대포를 쏘자, 타슈켄트의 수문이라 부를 수 있는 요새가 무너졌다. 그 후,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도시 안으로 유입되는 식수를 차단하기 위해 치르칙 강둑을 붕괴시켰으며, 타슈켄트 주민들은 10일 동안 식수가 없는 채로 남겨졌다. 10일이 지나,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를 타슈켄트로 보냈는데, 이 때 알림쿨이 이끄는 코칸드군이 도우려고 진군하여 1865년 5월 22일, 양 쪽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코칸드 군의 병력과 무기는 후진적인 상태였고, 몇 번의 전투끝에 괴멸되었는데, 알림쿨 자신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타슈켄트 점령계획을 준비했는데, 부하라 에미리트에서 새로운 증원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타슈켄트에는 10만의 주민이 살았고, 그들이 순순히 도시를 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도시의 12개 성문의 상태를 알고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인 카말론스크와 코칸드 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1865년 6월 26일 밤에, 부대의 일부가 카말스크 문으로 다가가 27일 이른 아침에 대포로 공격하고 도시로 들어갔다. 결국 이틀간의 접전을 마치고 29일에 체르냐예프는 타슈켄트를 점령하였다. 1865년 9월에, 타슈켄트가 러시아에 병합되었음이 공표되었다.[16]

앞서 보았듯이, 1864년 코칸드 칸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코칸드 칸국의 한 부분에 속했던 타슈켄트가 점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단계에 이루어진 점령과정은 특히 타슈켄트 점령으로 인해 훨씬 수월했다. 즉, 러시아제국은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러시아군대는 1866년 5월에는 호젠트(Ходжент), 10월에는 유라-튜베(Ура-Тюбе), 쥐작(Джизак), 그리고 1868년에는 사마르칸트와 카타쿠르간(Каттакурган)을 점령하였다. 1873년 2월부터 1879년 8월까지는 정복의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다. 러시아군대는 히바를 점령하였고, 1876년 2월 나만간(Наманган)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은 게옥-테페(Геок-Тепе, 다른 이름으로 Ашгабат) 습격에서 잠시 패배를 겪기도 했으나 1880년 말부터 1885년까지 정복의 4번째 단계에 결국 이 요새를 점령했다(1881년). 이처럼 1865년부터 1885년까지 러시아는 투르케스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으며, 그 전쟁은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전의 성격을 지녔다. 전제정은 군사권력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었고, 사실상 무방비상태의 주민들을 공격하는데 그 힘을 이용하도록 보장해 주었다.

3장. 두 도시 이야기 - 타슈켄트의 구 도시와 신 도시

1) 토착민들의 타슈켄트 - 구 도시

러시아제국은 타슈켄트 정복에 뒤이어 식민지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1867년에 이곳에 투르케스탄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초대 총독으로 카우프만(К. П. фон Кауфман, 1867-1882년 봉직)을 임명하였으며 그의 지휘 하에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투르케스탄 정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앞서 보았듯이 1876년 코칸드 칸국이 붕괴되었고,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 칸국은 보호국의 형태로 러시아에 예속되었다.[17]

16)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 *Ташкент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ашкент: Электро-паровая типолитография О. А. Порцева, 1912. с. 3-50.

17) *История Ташкент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победы февральской буржуаз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식민지 총독부의 수도라는 상황은 타슈켄트를 매우 다르게 변모시켰다. 전통적으로 타슈켄트의 토착민들은 단층 또는 2층의 점토 주택에서 거주했으며, 길은 구불구불했고, 도시에는 크지 않은 운하들로 구성되는 관개식 거리의 망들이 펼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관개수로를 통해 식용수를 얻었고 일상적 필요를 위해 그 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타슈켄트는 전체적으로 4구역(даха)으로 나뉘었는데, 각 구역에는 그 우두머리(хаким)가 있었다. 전통도시의 중심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건축계획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을 하였다. 도시의 중심은 중앙시장 주위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고대도시의 광장처럼 시장들(Ходра, Иски-Джува и Чорсу)이 삼각형으로 흩어져 있었다. 타슈켄트에는 건축상으로 흥미를 끄는 고층건물은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또는 그 밖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국가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 칸국 같은 곳은 비록 러시아제국의 보호령의 형태로 예속상태에 있었으나 아직은 토착민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데 반해, 투르케스탄 지역은 급속도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로 전환되고 있었다. 우선, 식민지 권력관계가 반영된 도시경관을 주목해야 한다. 제국의 군대와 함께 들어온 러시아인 정착민들과 투르케스탄을 오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토착민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식민자로서 '유럽인'인 러시아인과 피식민자로서 '토착민'(туземцы)' 사이의 구별은 1865년 타슈켄트 구 도시의 바로 옆에, 안호르(Анхо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인 식민자들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그림4>참조).



<그림4>1890년 타슈켄트 지도[18]

왜 공간이 분리되었는가? 건설된 식민지의 환경에서 우리는 식민지배자들이 식민지 토착민들과 그들의 경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자들에게 토착민들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경이로움,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토착민들의 거주지는 좁았으며, 거리는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마치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작렬하는 태양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토양들은 도시의 색채를 매우 이국적으로 만들어주었으나, 조밀하게 모여 있는 주택의 형태는 위생상태가 열악해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19세기 중엽에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여행가들, 선교사들, 군인들, 관리들, 그의 가족들이 타슈켄트로 몰려

революции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тво 'фан' УзССР, 1988), с. 122-124, с. 138-140.

18) *Тошкент 2200*, Узбекистон, 2009.

들었고, 그들이 작성한 기록들 가운데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표현은 “질척하고 더러운 골목길”,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들”, “작렬하는 태양과 화려한 색채” 등이었다.[19] 동시에 토착민들의 도시는 무질서와 무계획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배자들에게 걱정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실크로드의 고대 상업도시로서, 토착민들의 골목 상권과 시장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적 형성물로서 자연스런 것이었으나, 식민지배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스템은 피식민지인에 대한 지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해졌는데, 당시 토착민구역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러시아인에게 적잖은 위협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것은 타슈켄트 정복 이후에 새로운 요새 건설과 신도시 설계안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 러시아 식민자들의 신 도시

제정러시아 시대의 우즈베키스탄 역사가 도브로스미슬로프(А.И.Добросмыслов)는 신도시의 형성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20] 타슈켄트를 침공한 후에, 러시아군대는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우르다(Урда) 지역의 코이마스문 쪽으로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존의 요새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안호르(Анхор) 운하의 좌안에 이미 존재하는 구도시의 요새 성벽과 연결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요새건설 계획은 군지형 전문가 피사렙스키 대위에 의해 기안되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그의 계획안에서는 방사형의 환형고리 모양의 도시구조가 전제되었다. 즉,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는 5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도록 배치되었고, 3개의 환형고리 모양의 거리로 이루어졌다. 둘째, 신도시는 남쪽에 세우는 것이 전제되었고,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북쪽으로는 추가적인 성벽을 쌓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즉, 도시 자체는 하나의 단일한 방어체계를 지니는 큰 요새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피사렙스키의 계획안은 거부되었다. 만약에 그의 계획안이 실현되었더라면, 러시아 식민자들과 토착민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21]

로마놉스키(Д. И. Романовский) 사령관은 구도시의 동쪽 지역을 신도시의 부지로 선택했는데, 즉 구 코간트와 신축한 요새의 중간에 위치하며, 안호르 운하와 차울리 관개수로(арык Чаули) 사이에 있는 땅을 선택했다. 새로운 도시 설계를 위해, 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특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군사 엔지니어, 군지형 전문가, 측량기사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 코칸드에 있던 낡은 건물들은 헐렸으며 이제 군주둔지가 건설되었다. 즉, 군 사령관, 오렌부르그 제2보병대대, 75명 카자키, 시베리아 포병중대가 머무는 건물들과 전 병사의 퍼레이드를 위한 연병장 등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구 우르다의 나머지 지역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도시가 나뉘었고, 신도시는 요새, 부대의 막사, 민간주택 건물로 블록이 나뉘어졌다. 중앙의 도로는 직선의 대로였음은 물론이다. 이제 새로운 유럽식 도시가 생겨났다. 신도시는 이미 설계가 착수되었던 시점부터 신분과 재산원칙에 기초하여 구역이 정해졌다. 조직위원회는, 건축설계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면적을 30루블, 20루블, 10루블 등 3등급으로 분할했던 것이다.

아래의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타슈켄트 도시공간은 서쪽의 전통적인 토착민의 주거지(<그림5>)와 동쪽의 러시아인 신거주지(<그림6>)로 확연히 나뉘었다.

---

19)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 예컨대, 화가 베레샤긴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술. 아시아에 대한 진술부분.

20)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 Ташкент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ашкент, 1912, с. 51-55.

21) В. А. Нильсен, В. Н. Манакова Архитектурный декор памятник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здательство: Строй издат, 1974), 1장.



<그림5> 1890년 타슈켄트 지도(토착민들의 구도시)[22]

1890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 지도는 타슈켄트 정복이후 그동안 도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토착민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 쪽은 전통적인 아시아의 도시인데 비해, 다른 한 쪽은 큰 대로와 가로수길이 넓게 펼쳐진 공간 옆으로 유럽식 건물들이 줄지어 건설되어 상트페테르부르그를 연상시킨다. 신도시는 정부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의 대로가 펼쳐져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서관, 우체국, 정부관사 등을 포함한 거대한 공공건물들, 갖가지 꽃들과 나무로 이루어진 넓은 정원들이 조성되었다. 또한 신분과 재산자격에 기초해 건설된 신도시의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단층집 또는 드물게 진흙 벽돌의 이층집으로 건설되었는데, 더운 계절에도 편안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높은 천장(최대 3.5미터)과 두꺼운 벽(두께가 최대 1.5미터)을 기본으로 하였다. 거의 모든 주택은 가정용으로, 식물재배용으로 충분히 넓은 마당을 두었으며, 1874년부터 수도와 하수관 망이 건설되었다. 다시 말해, 대영제국의 인도식민지, 그리고 프랑스제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처럼, 러시아제국의 식민지인과 피식민지인 사이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인 통치자들은 안호르 운하를 사이에 두고 구도시 바로 옆에 유럽적인 타운을 건설하였고, 넓은 가로수길, 흰색 방갈로,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규모의 관

22) Тошкент 2200 Узбекистон 2009.

공서 건물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신도시 건설은 구도시의 더러운 골목길(<그림5> 참조)과 완전히 비교되는 유럽적 근대성의 우월한 합리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 실체는 이러한 이미지와 거리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림6> 1890년 타슈켄트 지도(러시아인들의 신도시)[23]

1867년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타슈켄트에 온 카우프만은 투르케스탄의 식민지체제의 행정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교육적 토대를 공고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타슈켄트의 거리 및 건물 조성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래에서는 실상이 다소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잇단 정복전쟁으로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행정적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영토적 공간이 늘어났던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은 처음에 3개의 오블라스치(주, область) 즉 시르 다리아, 세미레치예, 제라브샨 (관구, округ; 나중에 사마르칸트 오블라스치가 되었음)로 나뉘었는데, 1873년에는 히바 칸국 병합에 의해 아무 다리야 부(отдел)가, 그리고 1876년에 페르가나 오블라스치(1875년 봉기에 의해 해체된 코칸드 칸국의 나머지 지역)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881~1885년에 미하일 스코벨레프와 미하일 아넨코프(Generals Mikhail Skobelev and Mikhail Annenkov)가 정복한 트란스 카스피해지역이 1894년에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영토의 최종

23) Тошкент 2200 Узбекистон 2009.

경계가 확정되었다.

식민주의 체제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려는 권력자의 의지는 도시경관에 변형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식민주의 지식권력이 알려진 것들을 분류함으로써 세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했듯이, 엔지니어들은 식민지 경관을 만들고 식민지를 알 수 있는 패턴으로 정리하려고 애썼다. 카우프만 자신이 바로 그러한 엔지니어였다. 100여 년 전에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오스트리아계 혈통의 후손이었다. 그는 공병을 육성하는 니콜라예프 엔지니어 학교(현재의 군사공학-기술대학)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공병으로 군대에 들어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는 카프카스 원정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훈장을 수훈하였고 49세에 투르케스탄 총독에 임명되었다. 공병 출신답게 그는 식민지경관을 정리하고, 위생처리하고, 규제가 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24]

그는 타슈켄트 도시공간을 형성하는데 놀라운 에너지를 기울였다.[25] 그는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그를 타슈켄트에 건설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도시경관을 통해 재현되는 유럽적 근대성이 종국에는 아시아 토착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더욱 철저히 유럽적 문명의 구현물로서 도시공간을 근대화하는데 주력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원정을 떠날 때 수많은 학자들, 탐험대, 예술가들을 데려갔듯이, 카우프만도 타슈켄트로 떠날 때 민속학자, 과학자들, 탐사대, 건축가, 엔지니어, 예술가들을 신병으로 차출했으며, 그 집단 속에 화가 베레샤긴도 포함되어 있었다.[26] 그는 수려한 나무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제국의 정원을 타슈켄트에 만들어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출간된 투르케스탄 관련 서적들을 집대성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1867년부터 1888년까지 모은 투르케스탄 콜렉션(*Туркестанский сборник*) 416권이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타슈켄트로 운반되었다. 아울러, 또한 투르케스탄에 관한 정보를 모은 공식적인 주간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Туркестнская ведомость*). 더구나 영국의 인도 사진콜렉션과 똑같은 형태로 투르케스탄 사진콜렉션을 출간했다.[27] 더군다나 그는 화가 베레샤긴이 3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투르케스탄 시리즈를 완성하고 전시회를 열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었다.[28]

그런데, 도시공간 개조에 들인 그의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체제를 공공히 할 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유럽 열강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식민지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 통치자의 땅을 빼앗아 토착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토착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고 상징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상징성을 띠는 주요지점을 강탈한 사례는 정복자의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토착민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권력의 상징이자 구질서를 제압하는 권력으로서 새로운 식민지 수도를 세우는 행위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곤 했다. 영국이 인

---

24) Кауфман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В 86 томах (82 т. и 4 доп.). — СПб., 1890—1907; Евгений Глущенко "Герои Империи" (Москва) 2001.

25) Сетлана Горшенина, "Крупней шие проекты колониальных архивов России утопичность тоталь ной Туркестаники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Константина Петровича фон Кауфмана," *Ab Imperio,* 3/2007, c. 291-354.

26)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Vasilij V. Vereshchagin''s Canvases of Central Asian Conquest, *Cahiers d'Asie centrale,* 17/18 (2009), pp. 179-209 아울러 그의 *Russian Oriental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p. 76-91.

27) Jeff Sahadeo,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Indiana Univ. Press: Bloomington & Indianapolis, 2007), pp. 38~44.

28) В. Верещагин, *Повести. Очерк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ст., вступит.ст. и примеч. В. А. Кошелева и А. В. Чернова.- М.:Сов. Россия, 1990(원본은 1899년에 출간). 투르케스탄 회화와 관련해 본문에서언급되는 베레샤긴의 글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져옴.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

도에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반복했던 것이 토착권력의 무력화였다. 또한 일단 정복이 끝난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식민지권력은 확고한 식민지 통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전통적 권력의 일부 요소들을 지원한다. 예컨대, 술탄의 궁전을 재건축하고, 그 옆에 총독의 저택을 설치함으로써, 양자간 연합이라는 상징적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도시경관은 단지 식민주의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기술로서 사용되는 수단이었다. 한편으로, 문명의 상징인 근대적 건물들은 러시아 식민지인들뿐만 아니라 토착민(일부)들도 편입시키고 범주화하고 훈육, 조정, 개조해가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형태 그 자체와 근대적 건물은 식민지 토착민들의 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의도되기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29]

그렇다면 실제로 타슈켄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포스트식민주의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경관에 내재된 그러한 식민지 권력구조의 구성요소들에는 교회(특히 에스파니아 식민지에서 일반적), 회사(영국동인도회사, 네덜란드동인도 회사 등), 군대(쉽게 통제하기 위해 질서있고 가시적인 경관을 원함), 그리고 식민지 국가 자체(복합적인 권력을 행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활동을 통해, 식민지 공간에 대한 식민지정책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 타슈켄트에서도 그러한 식민지 권력구조가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선, 기본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카우프만 총독시절에 이 지역의 행정은 군사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지역은 오랫동안 변두리로 남아있었으므로 총독은 적어도 자신의 임기동안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계몽관료이자 개혁적인 인물인 니콜라이 카로포비치 기에르스(Nikolay Karlovich Giers) 외무부장관의 동생인 표도르 카를로비치 기에르가 활약한 한 위원회는 투르케스탄 지역을 둘러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작성한 바 있지만, 개혁은 1886년 이후에나 실행되었다. 또한 신-트랜스카스피해 철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변두리였다. 즉, 1877년에는 카스피해 해안에 위치하는 우준 아다(Uzun-Ada)에서 출발하는 트랜스카스피해 철도가 전부였는데, 1888년에는 그 노선이 사마르칸트까지 달리는 신트랜스카스피해철도가 부설되면서 타슈켄트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투르케스탄은 콰디스법정(Qadis' courts), 그리고 연장자나 가장인 '악사칼((аксакал)'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토착민 행정을 포함해 예전의 이슬람체제의 양상을 많이 보존한 고립된 식민변두리로 남아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러시아지역과 양상이 상당히 달랐다. 카우프만 총독시절의 영향은 매우 커서, 시간이 결과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1908년 팔렌(Konstantin Konstantinovich Palen) 백작은 투르케스탄에서 다른 개혁위원회를 이끌었는데, 1909-1910년에 행정상의 부패와 비효율을 알리는 기념비적 보고서를 만들었을 정도였다.[30]

사실, 카우프만이 총독으로 있던 1867년부터 1886년까지 투르케스탄의 행정은 매우 임시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는 처음에, 총독부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협상, 예산비용 책정 및 감독, 세금 책정, 러시아신민의 특권 수립하도록 허락받았다; 그에게는 또한 사형확정 및 취소권, 사형을 군법에 넘길 권리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러시아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런 종류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투르케스탄을 제국에 통합하려고 할 때 이 지역의 잠재성에 대한 비관주의가 가장 많이 퍼져있었다. 유럽러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고, 건너는데 2달이 걸리는 광할한 스텝이라는 것 말고도 이곳은 이슬람문화에 의해 짜르의 관리들의 마음 속에서 훨씬 더 결정적으로 고립된 곳이었다. 카우프만 통치 초기에, 투르케스탄은 따

29) 조앤샤프 지음, 이영민 박경환 옮김,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11).
30) Jeff Sahadeo,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p. 111, 151, 158, 188.

라서 행정적으로 군 관료제 안에서 많은 기관들을 지니며 고립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국의 행정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토착민 행정 위에서 느슨하게 중첩되어 있었다고 설명해야 하며, 카우프만이 그토록 기를 쓰고 투르케스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매우 역설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31]

왜냐하면, 점령 직후에 러시아제국은 현지 토착민들의 기본 생활, 규범, 종교 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토착민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1865년 8월 6일, 알렉산드르 2세는 "투르케스탄 주의 행정에 관한 임시법(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 управле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ью)"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군민(軍民) 합동행정시스템으로서 중앙에서 군사령관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며, 그의 손에 군민 권력 전체가 집중되는 일종의 군정체제였다. 각 행정부서의 자리에는 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권을 지니고 토착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인 감시를 하였다. 지방행정은 토착민들에게 맡겨졌는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악사칼이 토착민들을 통치했다. 도시의 모든 구마다 악사칼들이 있었는데, 악사칼은 가옥소유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라이시(раисы)는 경찰기능을 담당하며, 바자르 시장에 대한 감독과 공공질서를 감독하였다. 자캬치(закячи)의 직무는 세금징수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토착민에게 카지예프(казиев)법. 특히 유목의 토착민들에게 비예프биев법이 보존되었다. 재판관은 3년마다 선출되었다. 그와 달리, 러시아 식민자들은 러시아제국 법을 토대로 적용받았다. 이처럼 처음부터 지방행정이 토착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토착민들에 대한 짜르행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예컨대, 1866년에는 마흐카마(махкама)라고 부르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흐카마에는 토착민 대표들에 의해 선출된 카지(казий)와 7명의 아글랴(аглям)이 포함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의 가장 부유한 영향력있는 토착민들이 200명 이상 행정으로 초대되었고, 그들이 마흐카마의 의원을 뽑았다. 그리고 마흐카마의 활동은 군사령관의 통제에 들어갔다.[32]

1867년 7월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закон о созда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го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а)'을 채택하면서,[33] 러시아정부는 식민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권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제국의 목적은 투르케스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내부의 다른 왕국들에서 수행되었던 그러한 행정 및 정치제도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 정치 · 경제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통제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지닌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투르케스탄, 부하라, 히바, 코칸드를 서로 완전 격리하는 것으로서, 그들 지역 사이에 자율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차단시켰으며, 그것은 러시아제국이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확정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종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방법이었다.[34] 러시

31) Jeff Sahadeo,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pp. 32-33.

32) *История Ташкент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победы февральской буржуаз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тво 'фан' УзССР, 1988), с. 150-158; Г. А.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с. 46.

33)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 베르노예(오늘의 Алматы)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레첸스크 오블라스치가 포함되었다.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를 병합하면서 새로운 행정-영토단위가 만들어졌는데, 1868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라프샨스크 관구(округ), 1874년 페트로알렉산드롭스크(오늘 날, Туркуль)를 중심으로 하는 아무다린스크 부(отдел), 1876년에는 코칸드 칸국을 없애는 대신에, 노비 마르길란(페르가나)을 중심으로 하는 페르간 오블라스치가 만들어짐.

34) 1869-1872년에 영국과의 협정은 파미르고원의 편잡지역을 따라 경계를 나누었는데, 그에 다라 타지크인의 지역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1881년 스코벨레프 사령관이 투르크메니야를 점령한 후에는 이란과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그 해에 일리스키 크라이에서 짜르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된 후에, 러시아군주와 청국황제가 협정을 맺었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 청국 사이에 현재의 국경이 만들어짐. 최종적으로는 1885-1887년, 1891년에 영국과 국경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투르케스탄에 광범위하게 섞여 살았던 중앙아

아 식민제도의 또 다른 특성은 러시아의 가난한 무토지 농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일부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러시아 도시주민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었다.

1886년 7월 12일, 알렉산드르3세는 투르케스탄에 관한 새로운 법(новое Положение о Туркестанском крае)을 승인했는데, 그것은 1917년 혁명전까지 큰 변화없이 수행되었다. 그것은 행정조직, 법률기구, 토지기구, 세금 등의 4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은 총독부라는 단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향후 제국 행정제도와 통일을 전제한 것이었다.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전체면적은 170만 평방km에 달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와 독일 면적을 합한 것보다 두배 정도 컸고, 당시의 인구는 총 520만 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우즈베크인과 다른 토착민족들은 1897년에 총 5백 만 명 정도, 1911년에는 거의 6백 만 명이 되었다. 러시아인의 숫자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을 포함해 1897년에 197,000명, 1911년에는 400,000명을 넘었다. 그리하여, 14년 동안(1897~1911년) 이 지역의 토착민의 인구는 20% 증가했고, 러시아인의 숫자는 2배 증가했다.[35] 이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인을 식민(planting)한 정책의 실제적인 결과였다. 짜르군대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의 지배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었다. 1886년 법에 따라, 투르케스탄총독부는 '투르케스탄 총독부 평의회'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덧붙이게 되었다. 이 평의회의 의장은 총독이었는데, 각 오블라스치의 군지사, 총독부 사무국 주임, 투르케스탄군 참모장이 포함되었다. 이 조직은 이 지역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적 이니셔티브를 가졌다. 한편, 1877년에 타슈켄트에서 도시 두마법이 도입되었는데, 그와 함께 두마에서 도시를 관리하게 되었고 도시의 경제도 두마에 달려 있었다. 도시 두마의원의 1/3은 토착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2/3은 러시아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 두마에서 8만명의 토착민은 21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고, 3900명의 러시아인은 48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다. 도시두마의 상위 기관은 시장인데, 총독 자신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전쟁장관을 승인한다.[36]

식민지질서는 군사적 힘과 광범위하게 퍼진 경찰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1878년까지 무엇보다도 군대는 식민지체제를 지키는 무기였다. 철도건설은 러시아의 경제에 실제로 막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나, 군사-전략적 목적은 처음부터 중요했다. 철로의 첫 구간은 군대 수송을 위해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크질 아르바트까지, 군사장비 수송을 위해 카프카즈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건설되었다. 1888년, 이렇게 건설된 철도를 통해 첫 기차가 사마르칸드에 들어왔고, 1899년에 철도는 타슈켄트를 지나 안디잔까지 통과했다.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이러한 철로건설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제국 군대의 주요 기지는 카프카스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배로 카스피해를 빠르게 통과하고, 이제 철도를 타고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부터 사마르칸드, 타슈켄트, 안디잔까지 통과한다. 다시 말해,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안디잔까지 3천km도 더 멀리 떨어진 장소로 쉽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력과 경찰력이 식민지체제의 강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사법제도는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영국의 경우, 식민지의 인도인들은 영국식 법률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지식인들은 식민지 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양상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투르케스탄의 경우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1867년의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은 투르케스탄에서 다양한 관습적인 법(카

시아인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1917년 혁명 이후,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은 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Г. А.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инкомцентр, 2003), с. 47.

35) Г. А.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с. 49.

36) 위의 책, 같은 곳.

지예프 법, 우예즈드 법, 임시군사법위원회, 오블라스치 행정 법, 사무국 법)의 존재를 용인해주었다. 또한 짜르 전제정은 무슬만 법(фикха), 가족법(адата), 민사법(шариат)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무슬만 국가들의 전통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은 짜르의 행정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투르케스탄 토착인구의 거의 95%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토착민관리들, 즉 '카지예프'와 '비예프'의 원조를 호소하였다.[37] 한편, 종교와 교육은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이슬람은 투르케스탄의 정신생활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계몽, 예술, 법, 철학, 문학 등 이 모든 것에 무슬만종교의 영향이 스며들어있다. 토착민들의 가족관계, 일상생활, 사회생활 또한 종교에 의해 정해졌으며, 샤리아트 법은 무슬만의 모든 삶을 규정했다. 이처럼, 투르케스탄의 토착민에게 무슬만 종교는 국가권력의 보루였다. 이슬람은 투르케스탄 주민의 이데올로기였으며, 러시아정부도 그 점을 수용하였다. 다른 한편, 투르케스탄 정복이후에, 러시아권력에 제기된 과제는 러시아인들 자녀를 위한 교육제도를 설립하고, 지방의 토착민들 가운데서 러시아문화를 확대하는 문제였다. 그 외에, 짜르권력은 식민지 행정과 러시아기업에서 봉직할 수 있는 지방관리를 준비시키려고 애썼다. 토착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시설 조직이 예상되었다. 1886년부터 투르케스탄에서 '러시아-토착민 학교'라고 부르는 82개의 학교시설이 만들어지지 시작했고, 여기에서 상업 및 공업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준비시켰다.

결론적으로, 식민지체제 안에서 러시아제국은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경찰력 등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행정적, 법적, 교육, 종교적 영향력은 미진한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식민자들은 인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해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타슈켄트에서 러시아인구의 빠른 증가가 눈에 띈다. 주로 군인, 국가기구의 고위관리, 짜르군대의 장교들이 그들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주로 신도시 지역에서 거주했다. 한편, 안호르 강을 사이에 두고, 지방의 토착민들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살아왔던 구도시에서 거주했다. 그들은 각각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으며, 서로 접촉이 적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구가 적은 도시가 — 투르케스탄 지역인구 중 14%가 여러 도시에서 거주했음 — 농촌마을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러시아인을 식민한다는 것은 전체 사무행정이 러시아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모든 포고문, 명령, 규칙들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지방의 관리들이 지방민들에게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했다. 토착민들에게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토착민들의 식자율을 낮추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높여 놓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지역의 토착민들은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일만 할 수 있었고, 러시아인 출신은 기술지식인도 공장노동자도 모두 가능했다.

4장. 나가는 글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졌다. 그러나 타슈켄트의 공간적 분리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타슈켄트의 동쪽은 신도시, 서쪽은 구도시가 존재했으며, 동쪽에는 인종적으로 유럽인들인 러시아인들이, 서쪽에는 아시아인 토착민들이 정착하였다. 러시아 정착민들은 음식과 다른 생활용품을 토착민인 '사르트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끌어오는 운하의 물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흘러오는 것이었다. 러시아인 정착민들은 그 지방언어에 무지했으며, 계

37) Adeeb Khalid,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서문, 1장.

산이 서툴렀고,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렸을 때 치료법을 알지 못했고, 더욱이 경작방식도 몰랐다. 또한 토착민들에 대한 러시아인의 군사적 우위도 매우 허약해 보여, 요인들 면전에서 군사 퍼레이드나 경축의식을 거행하는 전략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와 반대로, 토착민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1917년 현재, 타슈켄트 인구의 20%는 유럽인종이었다), 또한 자신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타르 한 압둘가파로프(Sattar Khan Abdulghafarov)와 무히딘 호야 이샨(Muhidin Khoja Ishan) 같은 중개인들은 무슬림 재판관(Qazis)으로서 식민지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분리해서 거주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찰을 빚지 않는 방법이 고안되었다.[38]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 다양한 계급적 배경을 가진 러시아인 들이 타슈켄트로 몰려들면서, 러시아정착민들의 사이에서 계층적, 계급적 구분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1880년대에 새로운 식민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들어온 퇴역군인들, 1897년 타슈켄트가 트랜스카스피해 철도의 종착역이 되면서 유입된 철도노동자들 등 시간이 갈수록 정착민들 가운데 분화가 일어났고, 기존의 정착민들과 나중에 유입된 정착민들 사이에 긴장관계도 생겨났다. 또한 지식층도 다양한 노선으로 갈라졌는데, 투르케스탄의 전임총독인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폰 카우프만과 같은 계몽적 자유주의자, 저 멀리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타슈켄트의 식민자 러시아인들의 탐욕, 군사적 모험주의, 부도덕성, 그리고 악덕을 비난하는 살티코프-시체드린과 같은 진보주의자, 그리고 사회혁명당 좌파 등으로 나뉘었다. 마침 이러한 상황에서 토착민들과 하층민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은 그 동안 숨어있던 양쪽의 불만을 일시에 터뜨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이것은 타슈켄트에서 분열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운하를 통해 물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토착민이나 러시아인이나 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마련이었다. 1892년 콜레라 예방조치를 둘러싼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토착민들은 통용되는 관습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평화시위를 벌였는데, 하층민 러시아인들이 폭력으로 대응하여 적어도 80명의 '사르트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태로 나아갔다. 어느 누구도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막을 수 없었다.

토착민사회와 러시아인 식민자들 사이의 갈등과 알력은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증폭되었다. 1917년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는 한편으로 자디드 개혁가들을 이용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려 시도했으나, 식민지 복속, 거주공간의 분리에서 비롯된 양측의 분란은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대영제국의 인도식민지, 그리고 프랑스제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처럼, 러시아제국의 식민지인과 피식민지인 사이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 러시아인 통치자들은 안호르 운하를 사이에 두고 구도시 바로 옆에 유럽적인 타운을 건설하였고, 넓은 가로수길, 흰색 방갈로,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규모의 관공서 건물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의 건설은 구도시의 더러운 골목길과 완전히 비교되는 유럽적 근대성의 우월한 합리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

38) Jeff Sahadeo,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사하데오의 연구는 양쪽 사회를 드나들었던 토착민사회에 대해 간략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주제는 20세기 초 자디드(Jadids)의 활동과 관련해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차 사료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аго просвѣщения, Руссиа.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роднаго просвѣщенія, В Тип.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іи наук, СПб. 1873.

Записки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кескаго Обсцества по овской, Т. 1,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кеское Обсцество, СПб. 1867.

Очеркъ развитія народнаго образованія въ Туркестанскомъ краѣ. С Граменицкій Типо-Литографія торг. дома "Ф. и Г. Бр. Каменскіе", СПб. 1896.

Межов, Владимир Измайлович. Туркестанский сборник сочиненій и статей, относящихся до средней Азіи вообще и Туркестанскаго края в особенности: систематическій и азбучные указатели сочиненій и статей на русском и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ах, Т. 1. СПб. 1878.

*연구서

Азадаев, Ф. Ташкент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очерк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Тарих ва археология институти (Ŭзбекистон ССР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Изд-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Узбекской ССР, 1959.

Архангельский, Валентин Акимович. Ташкент - город братства. Изд. ЦК КП Узбекистана, 1969.

Булатов, Мичать С. Ташкент. Аврора Нашриети, 1977.

Вахабов, Мавлян Гафарович. Ташкент в период трех революций, ос. изд-во Узбекской ССР, 1957.

Древний Ташкент,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Ŭзбекистон ССР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Фан,", 1973

Зиядуллаев, Саид-Карим. Ташкент: энциклопедия,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Узбекской Совет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1983.

Зияев, Хамид Зияевич. Буряков, Юрий Федорович. История Ташкента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победы Февральской буржуаз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Тарих институти (Ŭзбекистон ССР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Изд-во "Фан" УзССР, 1988.

Ивановна, Маргарита Филанович. Ташкент: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и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Фан, 1983.

Мукминова, Розия Галиевна. Ивановна, Маргарита Филанович. Ташкент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истории, ФАН, 2001.

Мухамеджанов, Абдуллахад Рахимджанович. Канг-древний Ташкент и ташкенцы: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ой акционерной компании "Sharq", 2009.

Неверов, Александр. Ташкент - город хлебный: повести, рассказы и пьесы, 1922-1923 гг. Земля и Фабрика, 1928.

Пулатов, Гулям Пулатович. Рашидов, Г. Р. Ташкент в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оябрь 1917-1920 гг.), Узбекистан, 1972.

Скобеле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иеевич. Ташкент: город хлебный, Земля и фабрика, 1929.

Соколов, ЮрийАлександрович, Ташкент, ташкентцы и Россия. Узбекистан, 1965.

Чалмаев,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Ташкент--город хлебный ; Гуси-лебеди: рассказы, повести, роман, Изд-во "Правда", 1989.
Успенская, Галина Николаевна. Ташкент: прекрасная эпоха, Новый мир искусства, 2008.
Юсупов, Э. Ю. Ташкент в период развитого социализма, Тарих институти (Ўзбекистон ССР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Фан, 1983.
Allworth, Edward. Central Asia, 130 years of Russian dominance: a historical overview, Duke University Press, 1994.
Alexander, Catherine. Buchli, Victor, Humphrey, Caroline. Urban life in post-Soviet Asia, Routledge, 2007.
Becker, Seymour. Russia's protectorates in Central Asia: Bukhara and Khiva, 1865-1924, Routledge Curzon, 2004.
Brower, Daniel R. Turkestan and the fate of the Russian Empire, Routledge, 2003.
Brower, Daniel R. Lazzerini, Edward J. Russia's Orient: imperial borderlands and peoples, 1700-1917,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Crews, Robert D. For prophet and tsar: Islam and empire in Russia and Central 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Geraci, Robert P. Window on the East: national and imperial identities in late tsarist Russi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Geraci, Robert P. Khodarkovsky, Michael. Of religion and empire: missions, conversion, and tolerance in Tsarist Russi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Graham, Stephen. Through Russian Central Asia, Asian Educational Services, 2004.
Holdsworth, Mary. Turkestan in the nineteenth century: a brief history of the Khanates of Bukhara, Kokand and Khiva, the Central Asian Research Centre in association with St. Antony's College (Oxford) Soviet Affairs Study Group, 1959.
Kappeler, Andreas. The Russian empire: a multiethnic history, Longman, 2001
Weeks, Theodore R. Nation and State in Late Imperial Russia,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8.
Keller, Shoshana. To Moscow, not Mecca: the Soviet campaign against Islam in Central Asia, 1917-1941,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Khalid, Adeeb. Islam after commu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Khalid, Adeeb.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dism in Central A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Morrison, Alexander. Russian rule in Samarkand, 1868-1910: a comparison with British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ierce, Richard A. Russian Central Asia, 1867-1917: a study in colonial ru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Ro'i, Yaacov. Islam in the Soviet Union: from the Second World War to Gorbachev, C. Hurst & Co. Publishers, 2000.
Sahadeo, Jeff.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Steeves, Paul 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eligions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88.
Stronski, Paul. Tashkent: Forging a Soviet City, 1930-1966,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0.
Евгений Глущенко "Герои Империи" (Москва) 2001.
Архитектурно-планировоч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ашкента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ов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정세진(한양대)

I. 서론

1991년 중앙아시아는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 민족건설 작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가 통치하던 역사적 시절은 지나갔다. 새로운 국가건설은 오직 각 민족들의 비전과 국가 경영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전승,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해왔다. 글로벌 시기에 새로운 국가의 비전이 부각되어야 한다. 국가의 힘은 강력해져야 하며, 그러한 바탕 하에서 강력한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건설의 와중에서 중앙아시아 각 국은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또 새롭게 재평가하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민족들은 과거의 역사를 지나치게 미화하기도 했다. 역사적 사료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각 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을 과장된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다.

중앙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의 틀은 투르크문화와 페르시아문화로 나누어진다. 페르시아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왔다. 페르시아 문화권의 연장선상에서 타지크 민족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문화권으로서의 타지크 민족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대다수의 민족 그룹은 투르크문화권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광범위한 투르크문화권에 속하고 있다. 페르시아문화권으로서의 타지키스탄은 국가적 분열의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했는데, 1997년 내전 종결 이후 타지키스탄은 민족 정체성 강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족건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타지크 민족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국가건설에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민족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타지크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세계사적 위치를 타지키스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개념을 매우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타지키스탄이 내전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투르크계 민족의 형님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유산을 부정하고 투르크 문화유산을 강조하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 그룹은 투르크 문화 유산과 페르시아 문화를 결합함으로써 통합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반되는 역사적 해석은 두 민족 간의 일종의 문화 전쟁으로 인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논쟁이 가장 심각하면, 두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기원을 둘러싼 담론을 제각각 전개하였던 것이다. 본 논고는 2장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민족기원에 관한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아리안 문화의 기원을 둘러싼 역사 논쟁, 4장에서는 타지키스탄의 중세 국가인 사만왕조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 등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II. 민족 기원에 관한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

1. 독립 이후 역사학자들의 민족 기원 논쟁

독립 이후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민족주의적 논쟁을 가열화 시켰다. 그 배경은 1991년부터 시작된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촉발되었다. 내전에 우즈베키스탄이 친 타지키스탄 정부군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였던 것이다. 타지키스탄 국내에서 벌어진 전쟁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이 타지키스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타지크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게 촉발하였다. 특이하게도 타지키스탄의 민족주의는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민족적 갈등이 더 심화함으로써 발전된 측면이 있었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타지크 민족들의 특별한 특성들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타지크인들이 평화애호주의 민족이었다고 강조한다. 타지크는 어떤 민족과도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야만성으로 타민족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우즈베크 민족은 타지크 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단지 차용하였을 뿐이며 타지크 민족이 중앙아시아의 원래의 거주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19세기에 등장한 타지크라는 용어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규정할 때에 사용된 용어라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소비에트시기,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은 중앙아시아의 기원에 관해 어떤 해석을 내렸을까? 이 당시의 해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인종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대와 중세시기에 타지크와 우즈베크 등 2개 민족은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특성이 있다. 리트빈스키와 무흐타로프는 타지크 민족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인종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간에는 일종의 역사적 논쟁이 진행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타지크 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는 '아리안-타지크' 개념을 주장하고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투르크-우즈베크' 라는 민족적 개념을 강조한다. 그런데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은 자신들이 투르크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타지크 민족은 기본적으로 유럽계(Europid)이며, 이것은 '아리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1)]

민족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간에는 '나'와 '타자'라는 관점으로 서로의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티무르(1336-1405)에 대한 해석도 두 민족 사이에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소연방 시기 소련역사책에는 티무르는 티무르 왕조의 창건자로 기술되었다. 티무르는 골든 호르드의 마지막 황제인 토흐타무에 대적하여 어떻게 투쟁했고 어떻게 그를 패배시켰는지에 관한 내용이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인도에서 헝가리와 지중해까지 정복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티무르를 민족의 영웅으로 내세웠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대 타지키스탄 역사 교과서에서는 티무르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역사책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티무르 통치시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타지크 민족이 9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타지크 민족은 우즈베크 민족이 자랑하는 선조인 티무르에 저항한 역사가 있는 민족,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묘사된다. 대신 타지키스탄의 역사책에서는 1929년의 강제적 국경 구획 설정으로 인해 타지크 민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피

1) Helge Blakkisrud, "History writing and nation building in post-independence Tajik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38, No. 2, March 2010, p. 179.

해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서술되었다.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민족적 트라우마로서 역사책에는 기술되어 있다.[2)]

1929년은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이탈하여 독립공화국이 된 해이다. 즉 두 국가 사이에 역사적 논쟁이 촉발되는 역사적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소연방에 의한 국경 획정 사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불공정한 일로 받아들여졌다.[3)] 2개 국가로 나누어지기 이전, 우즈베크와 타지크라는 용어는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동일한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르트라고 명명되는 민족 명칭 때문이다. 이 용어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르트는 타지크 민족을 지칭하거나 우즈베크 민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용어였다.[4)]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타지키스탄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출범했던 당시에는 사르트 용어는 정치적으로 삭제될 필요성이 있었다. 타지크, 우즈베크로 민족을 한정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얼기설기 이루어진 혼성체로는 새로운 행정 단위를 위한 명확한 국경 분류가 어려웠다.

우즈베크와 타지크의 민족적 기원에 관한 담론은 이미 소비에트시기에 제기되었다. 타지크 역사학자인 보보존 가푸로프(Bobodzhon Gafurov)은 1972년 출간된 그의 생애 마지막 저술인 “타지크 민족: 고대와 중세의 역사” (The Tajiks: Antique and Medieval History)에서 과거에 그가 출간한 책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우즈베크 민족기원 논쟁’이란 장에서 우즈베크 민족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한 당시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의 바탕 하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즈베크 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늦게 정착했을 뿐 아니라 원래 정착민이던 페르시아 민족그룹의 바탕 하에 형성되기 시작했다”[5)]는 것이다. 그는 투르크계의 문화적 기여도 면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투르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을 저평가했다. 즉 타시켄트에서 알-비루니(Al-Biruni) 같은 우즈베크 지도자들은 호레즘어를 사용했고, 호레즘어는 고대 동방 페르시아어계통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즈베크의 문헌어도 단지 14세기-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방언의 절반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푸로프는 대다수 학식 있는 엘리트들은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기 이전에 파르시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그 예로 들었다.[6)]

우즈베크 역사가들은 가푸로프의 민족 기원의 담론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우즈베크 엘리트들은 1930년대 국경선이 구획된 이후에 타지크 역사는 분명히 타지키스탄공화국 영토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웃나라의 국경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1972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는 알-코레즈미(Al-Khorezmi), 알-파라비(Al-Farabi), 알-비루니(Al-Biruni) 등 우즈베크 인들로 간주된 사람들이 타지크 민족 기원을 다룬 책에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소비에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7)] 가푸로프는 투르크 민족은 16세기에 들어서야 민족적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하고 역사적 전

2) Helge Blakkisrud, Ibid., pp. 179-180.
3)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 61.
4) Slavomir Horak, "In Search of the History of Tajikistan,"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48, no. 5, September-October 2010, p. 71.
5) Laruelle Marlene, "The Return of the Aryan Mtyh: Tajikistan in Search of a Secularized National Ideology," Nationalities Papers, Vol. 35, No. 1, March 2007, p. 57.
6) Ibid., p. 57.
7) 우즈베크 학자들은 리트빈스키(B.A. Litvinski)가 이 책의 편집자인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레닌그라드의 동방학자들로 하여금 그 책에 대한 비판적 개정판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통성이 깊은 타지크 민족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민족의 기원을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991년 타지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정부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의 지역을 타지키스탄의 영토로 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타지키스탄은 범-투르크주의 엘리트들이 타지크 민중들에 내린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였다. 특히 타지키스탄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라힘 마소프(Rakhim Masov)는 타지크 민중들이 결국은 문화적 중심지대에서 변경인 산악 지역으로 내몰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즈베크 민족이 타지크 민족 내로 포함되는 것이 역사적 순리라고 대담한 주장을 하였으며, 그는 그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이라고 강변했다.[8)]

우즈베키스탄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들은 19세기의 러시아 역사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전통적인 타지크 민족의 거주지를 파미르 산악 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우즈베크 학자들은 "아리안 신화"를 타지크와 전혀 관계없는 문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즈베크의 역사학자, 아흐마달리 아스카로프(A. Аскаров)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아리안 인들은 BC 2000 년 경, 중앙아시아로 유입된 외국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리안 사람들은 노마드 문화에 적응된 투르크 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투르크/아리아인 부족들의 거주 지역은 다뉴브에서 시베리아까지, 그리고 우랄에서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뻗쳐있다. 아카메니드(Achaemenids) 제국은 투르크/아리아 부족들의 남쪽 이주민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의 선조들은 7세기 말이나 8세기에서 이란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것으로 주장한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지크 민족은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중세가 되어서야 중앙아시아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아랍의 군사원정대가 정복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아랍인들의 임무의 일부분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던 소그드 민족을 통치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즉 페르시아어 사용 그룹이던 중앙아시아 토착 민족들과 이주 민족들 사이의 관계는 부정되었고, 타지크 인들은 제 2차 그룹에 포함되었다.[9)]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타지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소장인 라힘 마소프는 우즈베키스탄과 강력한 역사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매우 급진적인 역사 해석을 시도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역사 논쟁에서 타지키스탄의 대표주자의 역할을 했다. 즉 두 민족의 문화 전쟁의 선두주자가 그였다. 마소프는 타지크 정체성 관점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자로서 급진파에 속해있었고,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에 관한 부정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타지크의 일부 역사가들도 그의 급진적 관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기원의 논증에 있어서 아스카로프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는 아리안 인이 이란, 타지크, 그리고 인도-이란계의 조상이었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강조했다.[10)] 그는 아리안 문화와 투르크 문화의 변별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투르크 문화는 아리안 문화와 비교하여 더 낮은 문화 수준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문화에 대한 인종적 해석이며,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를 구별하는 관점이었다.[11)]

---

8) Slavomir Horak, op. cit., p. 71.

9) Slavomir Horak, op. cit., pp. 66-67.

10) 인도-이란계로서 아리안인은 타림 분지 전체에 과거에 거주하던 그룹으로 북방과 서방에서 온 이란-인도계(아리안계) 언어 사용자들이 거주했다.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번역, 2005년, 서울: 소나무, p. 136. 그리고 르네 그루쎄는 아리안주의(Arianism)는 타림분지의 인도-유럽계 오아시스 중에서 인도-유럽적인 면모가 가장 드러나는 문화로 쿠차 사회를 예로 드는데, 쿠차 사회가 불교 문명과 접촉하고 이란과의 대상무역을 통해 놀라운 문화적 성취를 이룩했는데, 이를 아리안 문화의 꽃으로 설명하고 있다. 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외 번역, 서울: 사계절, 2005, pp. 160-161.

11) Slavomir Horak, op. cit., p. 67.

라힘 마소프는 타지크 민족과 러시아 민족 간의 인종적, 언어적 접근성을 언급하는데, 매우 급진적으로 러시아 인이 아리안 민족에 속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마소프는 자기 자신이 언제나 역사적 비판의 책임자임을 자부했고 특히 타지키스탄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1924-1929년의 국경 획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소비에트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국경 획정으로 타지키스탄은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라는 역사적 도시를 상실했다. 그는 현재의 국경선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그는 타지크계와 투르크계는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화(융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리안 민족의 서유럽적 특성을 지닌 타지크 민족은 투르크-몽골 유목민들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12] 그는 소비에트 학자들이 주장해 온 우즈베크 민족과 타지크 민족이 공동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인종적 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마소프는 두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 그룹으로 어떠한 종류의 민족 공동체와 공동의 역사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다른 민족 그룹에서 유래했다고 강조했다.

마소프의 역사적 관점의 첫 번째 목표는 단호하였다. 그것은 투르크문화와의 연관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 확장하면 타지크와 우즈베크 사이의 어떠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르크 민족의 역사는 (AD 1000~1991년 독립 때까지) 복종과 굴욕, 타지크 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전부라고 보았다. 그는 우즈베크 인들이 문화적으로 타지크 인들보다 열등하며, 역사도 매우 짧으며, 우즈베크 인들은 타지크 인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루어 온 고결한 문화 가치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마소프는 19세기 서구과학이 동양을 응시해 온 오래된 고정관념들은 중앙아시아 민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3] 그는 우즈베크인이 문화적으로 타지키스탄에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즈베크 민족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즈베크 인들은 타지크 인들이 이룩한 문화 가치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마소프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는 '이브라임 우마르조다'인데, 그는 "아리안 문명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현대 타지크인은 아리안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는 아리아인들은 유럽문화의 건설자로 유럽은 아리안 부족들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다. 우마르조다는 과거에 고대 페르시아 인들은 핀란드어에 대해 민족-언어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기술했다.[14] 아리아인들은 유럽 건설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바빌론제국을 건설했고, 조로아스터주의의 창시자이며, 다른 민족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이다.[15]

2.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영토 논쟁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영토에 관한 논쟁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자신들 고유의 공화국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타지키스탄은 강제적인 국경 획정 설정이후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등의 역사적 도시를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줌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왔다. 수십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내의 타지크 인들은 투르크화 되었다. 오늘날 타지크 엘리트들은 타지키스탄의 땅과 타지크 민족의 문화유산을 비난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타지크 민

12) Marlene Laruelle, op. cit., p. 61.
13) Marlene Laruelle, op. cit., p. 61.
14) Ибрагим Умарзода, *История цивилизации Арий цев,* Душанбе, 2006, с. 78.
15) Ибрагим Умарзода, op. cit., с. 53.

족은 20세기에 들어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자신들의 역사적 고향이라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통치자들은 국가 방어선을 타지키스탄 국경선 바깥 경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까지 연장하여 보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도 타지크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바신에 따르면, 페르가나 계곡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타지크 거주민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것이 타지키스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16] 타지크 민족주의는 매우 강력한 반 우즈베크 정서이다. 타지키스탄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 이는 "역사적인 타지키스탄" 이라는 개념이다. 누그몬 네그마토프는 "역사적 타지키스탄"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네그마토의 개념에 따르면, 타지크 인들이 거주한 전체 지역은 현재의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이란, 그리고 중국을 관통하는 페르시아 호라산과 북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17] 이 개념은 일부 타지키스탄 저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2500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던 아카메니드 왕조에 의해 창조되었다. 세르게이 아바신은 중립적인 단어로 타지크 학자와 우즈베크 학자의 역사적 논증에 대한 언급에서 "大(Greater) 타지키스탄" 개념을 내세운다.[18]

마소프는 우즈베크 인들이 타지크 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식하고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투르크주의자들의 공격적 성향을 대변하는 태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범-투르크주의자들은 타지크 민족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타지크 민족을 "이란화된 투르크의 분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9] 마소프와 동료 학자들은 타지크인이면서 자신의 여권에 '우즈베크'로 민족명을 기입한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하였다. 1924년 이후 우즈베크화된 타지크인들, 범투르크주의 지지자들, 범-우즈베크주의자들 때문에 타지키스탄이 과거의 땅과 문화의 중심지를 상실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소프는 동시에 타지크화된 우즈베크인들은 타지크 언어의 유용성에 해를 끼치는 이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0]

더 광대한 역사적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리아니'(Ariani) 라고 일컫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아리안 문명이다. 이것은 약 8천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유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기간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문명 중에서도 가장 긴 고대로 일컬어질 수 있다.[21] 투르크멘 민족들도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최장 6천년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 8천년의 시기가 우즈베크와 타지크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역사적으로도 타지키스탄은 과거 6세기에서 4세기까지 존속한 페르시아의 아카메니드 왕조에 속하였다는 것이 정

16) Сергей Абашин, *Национализ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 в поисках идентичности* (Сакнт-Петербург, 2007), с. 148.

17) Нугмон Негматов, *Таджики. Исторический Таджикистан. Современный Таджикистан.* Гиссар, 1992, с. 23; А. Сагдеев, Е. Ртвеладже, Современные мифи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ашкент, 2006. 참고.

18) Сергей Абашин, "Национализм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 исток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Свободная мысль, no. 2, 2007, pp. 138-49.

19) Slavomir Horak, op. cit., p. 71-72.

20)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건한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국경 문제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더 작아진 영토 할당이 긍정적인 관점을 주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부분이 타지크 인들을 동화시키고자 하는 투르크-몽골계의 시도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타지크 인들을 정치적 행위로 이끌었으며, 종교로부터 정치가 분리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즉 구체적으로 지역의 경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만 제국의 완전한 이데올로기보다 국가 건설에 더 큰 공헌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Slavomir Horak, op. cit., p. 72.

21)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년까지 당시 전 세계 인구는 약 1천만 명이며, 중앙아시아-시베리아 거주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Peter B. Golden, *Central Asia. World history.* Oxrord: Oxford University, 2011, p. 9.

설이다.[22]

이에 대해 우즈베크 역사가들은 타지크 사회는 대부분 파미르 산악지역과 힌두 쿠쉬 지역에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즈베크 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타지크 민족이 중세 페르시아 제국인 사산조 페르시아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타지크 인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한다.[23] 키도이아토프(Khidoiatov) 교수는 저서 '사산조의 멸망' (The Downfall of Samanid) 에서 현대 쿠쉬 지역에 자신들을 아리안 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24] 대부분의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우즈베크 민족 그룹과 별도로 페르시아어 사용 민족 그룹이나 페르시아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아스카로프는 우즈베크의 민족 기원은 투르크-페르시아어 사용그룹의 혼성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민족그룹은 투르크계로부터 언어를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우즈베크 역사학자인 아흐메도프는 과거 유물 속에서 우즈베크 민족의 첫 번째 흔적을 찾았다. 즉 기원후 7세기와 8세기를 우즈베크 민족의 기원으로 규정하였다. 즉 카라칸 왕조와 셀주크 왕조 시대에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투르크 그룹과 비 투르크 그룹인 소그드 인, 호레즘 인들의 혼성이 최초의 우즈베크 민족 공동체로 규정되었다.[25]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투르크 민족의 기원을 아리안 부족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타지크 역사학자인 마소프는 우즈베크를 투르크-몽골 부족과 정착 오아시스의 토착 원주민들과의 혼성체로 간주하였다.[26]

III. 아리안 문화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

1. 아리안의 역사적 개념과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민족적 기원의 논증에서 아리안 문화를 놓고 가장 치열한 역사적 논쟁을 펼치고 있다.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간의 역사 논쟁의 핵심은 아리안 문화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벌어졌다. 아리안 문화, 혹은 아리안계에 대한 두 민족의 입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 타지크 학자들은 간단히 말해서, 아리안이 타지크 민족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주장한다. 우즈베크 학자들은 투르크계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 아리안계가 들어와 민족적 혼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원래의 거주민은 우즈베크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즉 투르크 문화에 아리안 문화가 합쳐져서 투르크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리안 문화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국가는 이웃 국가들의 토착주의[27](autochthononism)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즉 우리가 아닌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중에 정착했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자국의 토착주의가 강력히 확립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22) Kazak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country studies.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ed. Glenn E. Curtis. 1996. p. 207.
23) Slavomir Horak, op. cit., p. 68.
24) Slavomir Horak, op. cit., p. 68.
25) Slavomir Horak, op. cit., p. 68.
26) Slavomir Horak, op. cit., pp. 68-69.
27) 그 민족이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됨

서 우즈베크 민족과 타지크 민족 기원의 논쟁은 아리안주의와 관련이 깊다.[28] 아리안 민족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투르크계 민족과 타지크 민족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우즈베크와 타지크 학자들의 역사 해석이 아주 판이하게 나타남으로써 발생하였다. 소비에트의 전통적 역사 해석에 따르면, 원초적으로 이미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부족에 투르크계 부족이 이주하여 혼합되어 아리안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 촉발된 아리안 문화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큰 범주로 본다면, 아리안 인종을 자신의 선조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리안계를 자신들의 민족 기원의 핵심 전략으로 도출하고 있다. 아리안을 민족의 선조로 주장하고 이를 자국 민족의 유산으로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경향이다. 즉 이 경우 아리안은 민족정체성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된다. 아리안민족은 정복자가 아니다. 순수한 민족의 선조일 뿐이다. 타지크 민족에게 아리안은 일종의 헤게모니이다. 아리안의 역사적 모델은 민중의 삶에 스며들어간다.[29]

타지크 지식인들은 '타지크' 라는 용어를 고대 언어인 'Aryan'의 동의어로 정의하고 있다. 퍈코프(И.В. Пянков)는 아리안의 영토를 의미하는 아리아나(Ariana)는 중세기 시작 무렵 타지크 민족이 형성한 영토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리아나'는 타지크 인들의 선사시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30] 정치적,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매우 발달한 고대 아리아 민족들은 이미 예수 이전 몇 세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아리안 문화는 타지키스탄 정치체제의 역사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 일부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해석을 내리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아리안의 문명적 유산은 거부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선조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콘텍스트 속에는 아리안은 문명적 역할을 이루는 주체적 선조가 아니라 그저 제국주의적 신화로 남는다. 이 경우 아리안의 역사적 정당성은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저 순수하게 자신들의 민족 고유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만 민족의 모든 노력이 집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리안 문화를 둘러싼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 그룹의 역사적 논쟁은 어떤 범주로 설정될 수 있을까? 크게 3개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31]

첫째, 아리안을 민족의 기원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투르크 민족 그룹은 침입자로 설정된다. 즉 아리안의 언어적 요소가 매우 강조되는데, 아리안계를 고급문화의 보유자와 전수자로, 투르크 민족을 "이방의 야만인", 혹은 위대한 문명의 파괴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따르고자 하는 민족은 자민족을 정착 민족으로 여기며, 뛰어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내세운다. 자신들을 '야만인'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자 애쓰는 민족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리안의 역사적 기원으로 투르크어 사용 민족그룹으로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투르크계는 언어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생략하고서라도 우즈베크 등 투르크계는 "아리안의 영광"을 자신들의 뛰어난 역사적 전통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투르크 민족을 아리안 문화에 대적하는 야만인으로 주장하는 타지크의 입장에 대치되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속한다. 즉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이미 청동기 시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어 사용 노마드 민족들은 그 이후에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 민족 그룹을 자국 사회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다.

---

28) Marlene Laruelle, op. cit., p. 57.
29) Victor Shnirelman, op. cit., p. 61.
30) И.В. Пянков, "Ариана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античнукх авторов," Восток, No. 1, 1995, c. 39.
31) Victor Shnirelman, op. cit., pp. 58-59.

셋째, 예외적으로 아리안을 투르크 민족에 대칭적인 그룹으로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리안 민족의 공격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투르크 민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에 아리안은 매우 잔인한 침입자요, 식민주의자로 묘사된다. 즉 외부 이민족은 식민주의자요, 이들에 대항하는 민족은 반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학자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현재 아리안 민족을 자신들의 선조로 수용하는 경우(타지키스탄), 아니면 투르크 민족 그룹과 혼성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우즈베키스탄)로 분류된다. 투르크 민족 그룹에서도 아리안 문화는 매우 중요한 민족의 전통이거나 아리안 민족은 자신들의 선조로까지 수용되는 상황이다. 양국의 학자들이 아리안 문화를 둘러싸고 벌이는 역사적 논쟁은 문화 충돌이다. 타지키스탄은 2006년을 "아리안 문명의 해"로 지정하고 국가 부흥의 시기로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다. 우즈베키스탄보다도 타지크 민족이 문화의 우위자라는 점을 국가적으로 천명하였다.

여기에서 이 두 민족 그룹의 역사 논쟁에서는 역사적인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역사 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즈베크 및 타지크 학자들의 논쟁에는 아리안성(Iryanity)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국가적 자존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리안 문화를 강조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32] 이것은 역사적 이데올로기로서 독립 이후 민족건설 및 국가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양 국가의 민족주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식인들의 역사 논쟁은 국가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정치적, 국가적 담론이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33]

우즈베크와 타지크 학자들이 아리안 문화를 민족의 기원적 입장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리안이 주는 역사적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현대 서양 세계와 결부되어 해석되고 있다. 자신들의 조상이 서구 세계의 문화를 향유하였으며, 아시아적 이미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사실상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시대 이후로 아시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졌다. 아리안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국가 내부적인 목적에 이용된다. 아리안은 "문명화"라는 추상적인 이상에 호소한다. 아리안 문화를 통해 일종의 실용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다. 서유럽과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신들의 파트너로부터 호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는 목적으로 "공통의 역사적 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혹은 외교적 수사로 활용될 수 있다.[34]

---

32) 2004년 12월 29일자 민족주의 신문인 Zavtra의 마리나 스투르코바가 쓴 "동방으로부터 온 빛" (The Light Comes from the East)라는 글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는 라흐마노프 대통령에게 "민족적, 인종적 인식의 각성"에 대해 축하하면서, 러시아가 이런 본을 따라야 한다며 다른 러시아 연합국 국민들과 대비되는 러시아의 아리안성을 강조하고 "모든 나라들의 아리안 인이여, 모이라!"며 정치적인 반박을 일으킬만한 후렴구와 함께 글을 결론지었다. 심지어 러시아 내의 학자 중에서도 타지키스탄의 아리안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국가 대통령인 라흐마노프를 칭송하는 입장이었다. Marlene Laruelle, op. cit., pp. 64-65.

33) 여기에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아리안문화가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슬라브-아리안 문명"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극단주의자들은 고대 '인도-유럽인' 들을 아리안과 슬라브 인들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통치할 정당성을 합법화하는 데 사용한다. 러시아는 고대의 진정한 고향으로 유라시아를 포함하는 이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Victor Shnirelman, op. cit., p. 58.

2. 타지크 민족과 아리안 전통 담론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상기에 언급하듯, 2006년 '아리안문명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은 아리안의 역사적 기원을 국가건설과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이에 따라 아리안 문화의 역사적 우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타지크 학자들은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이 '아리안 정신'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타지크 학자들도 아리안 문화가 과거 독일 파시즘의 정신과 연관될 수 있어, 아리안 문화의 부정적인 의미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35]

마소프는 2006년 '아리안문명의 해' 가 선포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아리안 문화와 상징을 회복시키고, 아리안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지크 민족을 중앙아시아의 아리안 문명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계승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자세는 타지키스탄이 2006년을 아리안 문명의 해로 지정하여 기념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타지크 인들은 우즈베크 민족을 후진적인 노마드 문화로 규정한 반면에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의 고급문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간주하였다.[36] 2006년 가을, 타지키스탄은 독립 15주년 기념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마소프가 저술한 아리안 관련 책을 발행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인도-유럽 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는 타지크 민족이라는 관점이다. 이전에는 호라산, 박트리아, 소그드 왕조 등 투르크 민족 이전에 이 지역을 지배한 페르시아 민족이 타지크 민족의 기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 해석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이다. 아리안 문화는 인문적, 문화적 본성의 의미를 지녔다. 마소프는 역사적이고 실재적 진실로서 아리안 문화를 수용했다. 아리안의 의미가 독일의 나치즘과 인종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과학원 소장인 마마초일로로프는 아리안 문화가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끔찍하게 악용되었으며, 원래의 아리안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방어하였다.[37] 그는 나치의 아리안 주제의 신비화를 매우 경계했다. 일로로프는 무엇보다도 아리안 문화는 민주주의, 평화, 번영에 비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리안 문화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아리안 유산의 재건이 사람들의 증오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는 "우리는 우리 선조의 풍부한 유산의 재건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증오심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고 언급했다.[38]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아리안 기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타지크 민족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서유럽의 인종과 유사하며, 이러한 개념이 강조된다면, 타지키스탄의 문화 자체가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가 정체성 세우기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독립 이후 내전을 치른 타지키스탄의 경우,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의 경우보다 더욱 더 타지키스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39] 이런 방식으로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민족 정체성을

35) 아리안문제와 관련된 학술서에서, 게르만의 아리안 신화가 부정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리안 논쟁과 관련하여 타지크 학자 사회에서 게르만의 아리안 신화와의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리안 기념제의 공식적 선언이 있었던 이후였다.

36) Slavomir Horak, op. cit., pp. 68-69.

37) М. Иллов, "Наследие наших предков. 2006-ой год арий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CentrAsia, 26 June 2005.

38) М. Иллов, Ibid.

고양하는 문화적 요소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정치권으로부터 학문적 정당성을 획득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40]

2. 우즈베크 민족과 아리안 전통 담론

타지크 역사학자들이 아리안의 역사적 기원과 역할을 고양시키고 타지크 민족의 기원이요, 선조로 간주하는 부분은 투르크계의 역사적 해석과 매우 상이하다. 타지크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원적으로 이란이 중앙아시아의 원주민으로 간주되던 학설과도 배치되는 역사적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타지키스탄이 '아리안 문명의 해'를 선포하기 일 년 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인류학자인 아스카로프(А.Аскаров)는 2005년에 "아리안 이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사고"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41] 그는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아스카로프 교수는 소비에트시기에 성행했던 범-페르시아주의도 비판하면서, 아리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우즈베크 민족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아리안 인들은 인종적으로 인도-유럽인과 구분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서로 혼합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스카로프는 아리안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남부 시베리아 스텝지역에서 다뉴브에 이르기까지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안의 발상지는 알타이가 아니라 고대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지방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키메디드 왕조를 투르크 기원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이후에서야 페르시아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타시켄트 동방학 연구소의 아흐메도프(A.Akhmedov) 교수는 아스카로프의 관점을 지지하였다. 그는 "타지크 지식인들이 1972년도에 출판된 가푸로프의 저서 이후로 열광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신 속에서 살아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타지크 민족의 정체성을 확대 해석한 타지키스탄의 역사학계를 공박했다. 그리고 타지크 학자들이 심지어 나치의 아리안 전통을 거론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더 나아가 아흐메도프는 타지크 민족이 아리안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마소프는 니체주의 원칙의 옹호자라며 강력히 비난했다.[42] 아흐메도프는 아리안은 타지크계가 아니라 투르크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 강조했다. 철기 시기부터 투르크계가 아리안 문화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소프는 아리안계가 투르크계로 혼성되어 흡수되었다는 우즈베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매우 강렬히 반발하였다. 마소프는 2006년, 아스카로프를 공격하는 일련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아스카로프의 주장은 단순히 중앙아시아 최초 정착민의 유산을 우즈베크 민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못하고 단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소프는 투르크인들의 아리안 기원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마소프는 우즈베크 학자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아리안과 투르크계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예를 든 것은 신체적 특징이었다. 그는 금발과 파란 눈, 큰 키의 아리안 인종과 넓은 얼굴, 작은 눈, 넓은 코, 적은 수염 등 몽골인의 신

39)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4 2009, pp 487-489.

40) 그러나 상당한 부분 정부의 정치적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학문 연구의 제약이 따른다.

41)그는 우즈베크 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과거 시기부터 거주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아리안 역사를 연구해왔다. 그는 인류학의 새로운 이념화를 주장하는 학자였다. А. Аскаров, "Арииская проблема : новые подходы и взгляды,"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писименнах источках,* Академия Наук Узс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2005. с. 88-91.

42) А.Ахмедов, "Возвращая к истории арий цев," CentrAsia, 20, Janauary 2006(www.centrasia.ㄱ/newsA.php?st=1137746820/).

체적 특징을 지닌 투르크인은 아리아인의 신체적 특성과는 전혀 닮지 않았으며, 우즈베크 인들이 아리안의 후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지키스탄 학계는 마소프의 관점을 지지했다.[43]

우즈베크 학자들이 투르크계가 아리안 문화와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원래의 거주민은 투르크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우즈베크 민족이 중앙아시아를 '고대의 고향' 으로 정당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즈베크 민족의 기원으로 '아리안 뿌리', 즉 아리안 문화가 부각되어야 한다. 투르크계 민족이 유럽인과 동등한 역사적 위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으로 투르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투르크 민족과 아리안계는 공동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투르크인들이 아리안 인들에게 문화적 영향력을 끼친 것이지,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강조하였다. 심지어 투르크인들은 2만 년 전과 3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투르크계는 다양한 이름으로 유라시아 등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존해 왔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투르크계는 인도-유럽 계통의 민족들에게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을 강력히 끼쳐왔다는 것이다.[44]

투르크계 학자들도 아리안 정신의 특성은 투쟁심과 용맹심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가 투르크계 후손들에게도 전승되며,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민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아리안 문화의 가치를 투르크계의 역사와 연관 짓는다고 해석된다. 아리안의 도덕적인 이상들, 정신적인 순수함은 투르크계 민족의 입장에서는 문화의 자산이다. 아리안 문화를 자국의 역사적 전통과 결부시키려는 이러한 국가전략은 지역주의 및 부족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르크계의 공통의 이미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45]

그리고 우즈베크 민족 이외에 카자흐, 키르기스 민족도 투르크계이며, 특히 노마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 민족에게도 아리안 문화의 전통은 국가자산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원래의 정착민족 보다도 더 늦게 민족 형성이 이루어졌던 노마드 민족 그룹은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소비에트 시대에도 노마드 민족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노마드 민족은 수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주 생활을 영위해왔다. 즉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민족의 근거를 이론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족 기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고대의 거주인인 선조들의 분명한 민족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인도-유럽 문화와 동등시되는 '아리안' 개념은 카자흐 민족에게도 매우 중요하다.[46] 초기 중세시대부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던 노마드 민족그룹은 넓은 범주로 투르크화 되어갔다. 이전의 중앙아시아 이란계 대다수 거주민들은 투르크 세계로 혼합되어 갔다.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투르크 민족 그룹이 고대 이란어 사용 선조인 아리안들이었다고 확언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43) Marlene Laruelle, op. cit., p. 64.
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А.К. Нарумбаева, Аркаим- Очаг мировой цивилизации, создание прототюрками Алматы, 2007 참고.
45) Victor Shnirelman, op. cit., p. 48.
46) Victor Shnirelman, op. cit., p. 57.

IV. 중세기 사만왕조를 둘러싼 역사 논쟁

사만왕조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사만왕조는 타지크 민족 황금기의 정점에 속해 매우 위대하게 평가되고 있다. 21세를 앞둔 1999년에 사만 왕조의 1100 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사실은 현대 타지키스탄의 바로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사만 왕조의 우수성을 전파하였다. 사만 왕조는 타지크 민족 형성의 결정체로 그 중요성을 가졌다. 이 왕조는 사산조 시대에 시작된 타지크 민족 부흥의 연속선에 위치해 있다. 바르톨도에 의하면, 사만 왕조 시대에 타지크 인들은 소그드 언어를 추방시켰다.[47] 소비에트 시기 말엽에 무하마존 수쿠로프는 "대 호라산" 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는데, 바로 북동 이란에서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영토까지의 단일한 공간을 지칭했다. 이 공간이 사만 왕조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호라산 정체성은 이란으로부터 타지크가 분리되었다는 의미이다.[48] 타지크 역사가들에 의해 사만 왕조는 이슬람 문화의 최고의 정점으로 해석되었다. 사만 제국은 근대 초기 유럽의 문화적 성취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 왕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현대 타지키스탄 역사가들은 사만왕조를 거버넌스 모델, 즉 매우 효과적이고, 잘 조직된 아주 단순한 국가 구조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점에서 투르크-몽골계가 사만왕조를 붕괴시킨 것은 아리안 문명의 가장 진보적인 문화가 파괴된 것으로 타지크 역사가들에 의해 해석되었다.[49]

사만왕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오래전에 시도되었다. 중앙아시아에 관한 저명한 역사가인 바실리 바르톨도(Vassili Barthold) (1869-1930)는 타지크 문화를 페르시아 문화와 비교했다. 타지키스탄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보보잔 가푸로프(Bobodzhan Gafurov:1909-1977)는 타지크는 페르시아만큼이나 고대 문명에 속하며, 페르시아 문명의 입구라고 해석했다. 그는 각각의 민족은 다른 이웃 민족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역사는 민족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지키스탄의 중세 시대의 공식 국가는 사만왕조(Samanids Dynasty:875-999)로 간주되었다.

가포로프는 이러한 개념을 부인하고, 사만왕조를 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기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만 왕조가 시작된 9세기 이후를 역사적 기원으로 삼기에는 시기상 너무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푸로프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B.C. 10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중앙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는 페르시아어 사용 민족이므로 범 페르시아 세계의 가장 바깥 경계에 위치한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영토에 해당한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가푸로프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주민들은 아리아계(Japhetic)이다.[50] 가푸로프는 기본적으로 인도-유럽계 인종의 우수성을 믿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가푸로프는 많은 서양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고대인들의 거대 이주'라는 견해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가푸로프는 최초 이란인들의 아리안성와 토착민성을 동시에 주장했다. 가푸로프는 이란계 민족들은 '순수한 민족' 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수한 혈통을 가진 아리아인들이 아니었다. 이란계를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승리자로 묘사하는 것은 서유럽의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순수한 혈통 인종"은 진실이 아닌 허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그것은 일종의

47) В.В.Вартольд, "История Туркестан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я, vol. 2, pt. 1, p. 121, Slavomir Horak, op. cit., 69에서 재인용.
48) Slavomir Horak, op. cit., 69.
49) Ибрагим Умарзода, *История цивилизации Арий цев,* Душанбе, 2006, с. 130.
50) В.Г.Гафуров,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в кратком изложении. Москва, 1949, с. 23.

신화라고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동이란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유입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위에 형성된 거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51] 가푸로프는 타지크 인들의 민족적 기원이 사만왕조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만왕조와 더불어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사만 왕조는 타지크의 시초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들어온 일련의 정착민들이 혼합되어 사만왕조 때에 타지크 민족이 완성된 것으로 결론짓는다.

타지키스탄이 사만 왕조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자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즈베크 학자들은 타지키스탄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키도야토프(G. Khidoyatov)는 2004년에 모스크바와 타슈켄트에서 자신의 저서인 '사만 왕조의 퇴락' (The Fall of the Samanids) 을 출판, 이 책에서 사만왕조의 정치 문화적 역할을 평가절하 하였다. 사만 왕조가 단순히 바그다드 칼리프의 총독이었다는 것이다. 즉 사만 왕조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학자들이 있는데, 아스카로프는 타지크 민족이 사만 왕조 시기에 실제적으로 민족 공동체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타지크 인들은 6세기와 7세기에 투르크와 이란의 혼성 시기에 등장한 투르크 민족의 이란화된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V. 결론

중앙아시아에서 독립 이후 진행된 국가 건설을 통해 민족의 문화 요소는 매우 중요한 국가 발전의 변인 요인이었다. 즉 민족 신화의 급작스러운 창조가 각 개별 국가마다 시도되었다. 민족 신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위대한 선조들, 위대한 과거 역사에 관한 담론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담론에는 일반적인 식민주의 모델이 수반되는데, 영웅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과거의 역사가 미화되었다. 즉 러시아 민족이 떠나간 자리에 명목 민족들은 새로운 국가 경영의 요소를 다각도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선조들은 위대한 향연을 베풀도록 운명되어져있으며, 뛰어난 문화적 업적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어야만 했다. 본 논고는 독립 이후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의 역사학자 들 사이에 나타난 역사 논쟁을 다루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역사적 논쟁은 민족의 창조와 기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아리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럽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서유럽 정체성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서유럽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 논쟁에서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지크 민족에게 아리안 신화는 학문적인 연구의 주제로써 뿐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각 국은 1991년 독립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국가건설에 매진해야만 했고, 국경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민족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타지크 학자들도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맞추는 역할을 하고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타지크 민족은 아리안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관점이었다. 아리안 신화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타지키스탄에 부여할 뿐 아니라 타직인과 유럽인의 기원적 유사성을 상기시킴으로써 보다 유럽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타직인에게 부여하였다. 아리아 신화로 민

51) В.Г.Гафуров, Ibid., С. 26.

족정체성을 부여할 경우, 세속적인 공통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종교적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슬람에서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내 우즈베크 인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은 아리안 신화로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정부가 처음 의도했던 결속은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아리안 신화로 인한 정체성 확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본 논고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논증되어야할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은 역사적 사실로써 고증해야 되는바, 여전히 우즈베크와 타지크 역사학자들의 역사적 주장과 논쟁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국가적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국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역사적 정체성으로서 문화적 요소는 민족 정체성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번역, 2005년, 서울:소나무,
르네 그루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외 번역, 서울: 사계절, 2005.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4, 2009.

Helge Blakkisrud, "History writing and nation building in post-independence Tajik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38, No. 2, March 2010, p. 179.
Kazak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country studies.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ed. Glenn E. Curtis. 1996.
Laruelle Marlene, "The Return of the Aryan Mtyh: Tajikistan in Search of a Secularized National Ideology," Nationalities Papers, Vol. 35, No. 1, March 2007, p. 57. 61. 64-65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 61.
Peter B. Golden, Central Asia. World history. Oxrord: Oxford University, 2011
Slavomir Horak, "In Search of the History of Tajikistan,"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48, no. 5, September-October 2010, pp. 66-72.

А.Ахмедов, "Возвращая к истории арийцев," CentrAsia, 20, Janauary 2006(www.centrasia.겨/newsA.php?st=1137746820/).
А. Аскаров, "Арииская проблема : новые подходы и взгляды,"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 тана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писименнах источках, Академия Наук Узс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2005.
А.К. Нарумбаева, Аркаим- Очаг мировой цивилизации, создание прототюрками Алматы, 2007.
В.Г.Гафуров,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в кратком изложении. Москва, 1949
Ибрагим Умарзода, История цивилизации Арийцев, Душанбе, 2006, с. 78.
И.В. Пянков, "Ариана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античнукх авторов," Восток, No. 1, 1995, с. 39.
М. Иллов, "Наследие наших предков. 2006-ойгод ариискоӣ цвилизации," CentrAsia, 26 June 2005.
Нугмон Негматов, Таджики. Исторический Таджикистан. Современный Таджик истан. Гиссар, 1992,
Сергей Абашин, "Национализм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 исток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Сво бодная мысль*, no. 2, 2007, pp. 138-49.
Сергей Абашин, Национализ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 в поисках идентичности (Сакн т-Петербург, 2007).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반영된 샤머니즘 영성의 부활*

박영은(한양대)

I. 서론

구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사회의 변화 양상과 정체성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 · 경제적 프레임으로 그것을 분석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 국가 상황에서 주로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지향점이 카자흐스탄의 정책 기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체성을 균형감 있게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상층부뿐만 아니라 그 기층부의 목소리와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지역문화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국가 정체성을 규명하면서 제 민족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정체성 담론에 대한 동향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오늘날 영화는 정치·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한 사회의 지배담론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확산된 장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지니며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1] 뿐만 아니라 소연방 해체 이후 영화제작과 배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카자흐스탄은 그 위기를 딛고 영화산업을 국가의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포스트소비에트시대 카자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동향 파악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구소련 해체 이후 방향성을 상실했던 카자흐스탄의 문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기조의 한 축을 이해하고, 사회 기층부에서 면면히 흘러나오는 의식을 담아내려는 영화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그들 지성인들이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반성과 지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오늘날 카자흐스탄 영화에 반영된 '샤머니즘 영성의 부활'에 주목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샤머니즘(Shamanism)'은 샤먼이 엑스터시를 통해 우주의 신성한 존재와 접촉하며 세계를 인식하는 신앙 체계이다.[2]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에도 샤먼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수렵생활과 관련을 지닌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된 종교라는

---

* 본 발표문에서 주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영화는 제3회 중앙아시아학술대회발표문("21세기 카자흐스탄 영화산업 부흥과 민족정체성 구축의 알레고리" 2011년 12월 3일)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표문은 동일한 형태의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며, 본 발표문에서는 당시 제시한 10여 편의 영화 가운데 <켈린>,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 <샤먼>만을 선택 · 확장하여 글을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1) 박종성, 『정치와 영화: 영상의 지배 전략과 권력의 계산』, 고양: 인간사랑, 1999, 17쪽.

2) 루마니아 학자인 엘리아데에 의하면, 샤머니즘은 엑스타시의 가장 오래된 접신술 가운데 하나이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신비나 마법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소비에트의 민속학자이자 종교학자인 토카레프는 저서 <종교의 초기 형태(Ранние формы религии)>에서 샤머니즘을 "영(靈)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샤먼들이 형성하는 종교의 특별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М. Элиаде, *Шаманизм архаические техники экстаза*, К., 2000, с. 14. 20. // С. А. Токарев, *Ранние формы религии*, Москва, 1990. с. 271.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특히 유목생활을 하던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인자는 이 지역에 샤머니즘이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에는 중앙아시아가 이슬람권이며, 이곳 주민인 튀르크 족들이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는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지역 민족들의 믿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샤머니즘'이었다.[3] 카자흐 민족의 형성시기부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로의 합병이 완성된 시기까지 이슬람이 확산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인들의 민족의식에서는 유목민의 삶에 상응하는 종교적 관념의 초기 형태, 즉 샤머니즘적 믿음이 우세하였던 것이다.[4]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종교적 관념과 믿음을 깊이 연구하였던 블라지미르 바실로브(В.Н. Басилов)는 카자흐인들에게 샤머니즘적 믿음은 이 지역에 이슬람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보존되어 오던 종교 전통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5] 그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확산된 이후에 입지가 좁아진 샤먼들은 동족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계속했으며, 이에 따라 수백년에 걸쳐 샤머니즘적 행위들이 이슬람의 교의학과 신화학, 의례에 적응되어 나갔다. 그는 이 현상을 '이슬람화된 샤머니즘적 행위(Исламизированное шаманство)'로 정의하고 있는데,[6] 이슬람의 규범과 분명하게 대립되는 샤머니즘의 특징들이 사라지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이 걸쳐 이슬람과 샤머니즘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소비에트 체제가 정착된 후,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영적 흐름은 공식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샤먼을 엉터리 의료시술자, 혹은 새로운 과학과 논리의 시대에 떨어진 종교적 믿음의 고수자로 치부하며 박해하고 비난했다. 샤머니즘 자체가 가짜 치료사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봉건적 미신'이라고 간주되었다. 샤먼들이 중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 지닌 그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토착민들의 삶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박멸하기 위해 소비에트 권력은 샤먼을 그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다.[7]

하지만 소연방 해체 이후 변화된 정치 사회 분위기로 러시아에서는 샤먼 전통에 대해 다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는 샤머니즘을 초기적인 종교 형태이자 하나의 미신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샤머니즘 운동이 일어난 세계적인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8] 이 운동은 샤머니즘이 제도화된 종교들과는 차별화되며, 모든 사람의

---

3)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된 계기 중 하나는 8세기 '탈라스 전투'를 통한 이슬람의 중앙아시아 침투이며, 또 하나는 몽골제국 이후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이곳에서 발흥한 튀르크족 국가들, 즉 카라한 조(祖), 셀주크, 가즈나 조(祖) 등의 지도층들의 이슬람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튀르크 족이 대대적으로 이슬람화된 사건이다. 탈라스 전투로 인해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지역들에 널리 분포되어 살았던 서돌궐은 그들의 종교였던 샤머니즘을 버리고, 일시에 살아 있는 유일신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되었다.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펴내기, 2003, 366-367쪽. //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지역 여러 민족들의 믿음에서 '샤머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В. Н Басилов, *Культ святых в исламе*. Москва: Книга по Требован, 2012. с. 40.

4)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кой философии http://kazbook.narod.ru/knigi/21/11.htm

5) 1992년에 В.Н. Басилов의 <Исламизированное шаманство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1998년에 사망한 대학자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바실로프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샤머니즘적 숭배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를 분석하였다. В.Н. Басилов, *Избранники духов,* М., 1984, с. 7.

6) В.Н. Басилов, *Исламизированное шаманство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Автореф. докт. дис. М., 1991.

7) Jesse Russell, Ronald Cohn. *Neoshamanism,* pp. 19-20. // 피어스 비텝스키, 『샤먼』, 136쪽.

8) Jesse Russell, Ronald Cohn. *Neoshamanism,* p. 15.

의식 속에는 샤먼처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 무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는 샤머니즘의 민주화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9] 학문적으로는 '네오샤머니즘(Neoshamanism)'으로 규정되는[10] 이것은 고대의 지식과 그 힘이 현대적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옛 형태의 샤머니즘의 부활, 혹은 새로운 형태의 샤머니즘을 규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영적인 세계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범위를 포괄하는 체계이다.[11] 사실 네오샤머니즘에 대한 여러 다층적 현상들과 맞물리며 복잡하지만,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소비에트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관찰되는 전통문화부활과 같은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샤머니즘이 다시 관심을 끌고 민중들 속으로 다가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체제 해체 이후, 과거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향수와 복원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 생성과 전개,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동향을 염두에 두며, 최근에 제작된 카자흐스탄의 영화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발전 과정의 통시적 흐름을 고려하여 영화를 통해 카자흐인들의 정체성 확립 노력을 읽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 예로서 원시신앙으로서의 샤머니즘을 제시하는 에르멕 투르수노프(Ermek Tursynov)의 <켈린(Kelin)>(2009), 이슬람화된 샤머니즘을 드러내는 루스템 압드레쉐프(Rustem Abdrashev)의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Подарок Сталину)>(2008), 사회적 시각과 연결되는 네오샤머니즘적 문제를 다루는 구카 오마로바(Гука Омарова)의 <샤먼(Баксы)>(2008)을 선별하여, 이 세 작품에 투사된 샤머니즘의 아우라와 그 문화사적 의미망을 조명해 볼 것이다.

II. <켈린>: 텡그리 신앙과 결합된 원시 샤머니즘 재현

카자흐스탄 감독 에르멕 투르수노프의 영화 <켈린>은 고대 튀르크 역사와 전통 재현을 통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영화이다.[12] 영화의 서사는 아직 카자흐스탄에 이슬람이 정착되기 이전, 고대 튀르크족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튀르크족의 풍습과 그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스텝의 설원과 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에서 관객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튀르크인들의 혼례, 출산, 매장 풍습에 대한 재현 역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영화는 젊고 아름다운 켈린이 결혼을 앞두고 몸단장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두 사내를 앉혀놓고 누가 켈린을 더 비싼 값에 사갈 것인지 흥정을 붙이고 있다. 켈린은 자신의 몸값을 받아 챙기는 아버지 때문에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고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

9) 새로운 샤머니즘 운동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느끼고, 잃어버린 전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중시하였다. 네오샤머니스트들은 샤먼의 '의식의 변이상태'를 우주적인 인간의 잠재력으로 해석했다. 보다 상세한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 바람. 피어스 비텝스키, 샤먼, 150-151쪽. // Шай мухаметова Диана Римовна, "Неошаманизм - путь в мир духов,"
http://psyagenc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2011-06-05-20-00-15&catid=54:psychologycalarticles&Itemid=179 // http://shamanism.narod.ru // http://www.neoshamanism.ru

10) 네오샤머니즘에 대한 정의는 다음을 참조 바람. Jesse Russell, Ronald Cohn. *Neoshamanism,* p. 5.

11) Шай мухаметова Диана Римовна, "Неошаманизм - путь в мир духов,"
http://psyagenc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2011-06-05-20-00-15&catid=54:psychologycalarticles&Itemid=179

12) 본 논문에서 삽입된 <켈린>의 분석은 다음의 글을 인용하였음. 박영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무성영화 <켈린>에 재현된 고대 튀르크 전통과 텡그리 신앙," 『영화연구』, 제53호, 2012. 89-113쪽.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결혼은 했지만 그녀를 사이에 둔 쟁탈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사내들의 갈망의 덫에 걸려 한 남자의 손에서 다른 남자의 손으로 옮겨진다. 비록 돈에 팔려 만난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결혼 후 성(性)에 눈뜨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녀 곁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남편이 그녀의 전(前) 애인에게 살해되고, 급기야 새 남편이 된 시동생까지 그의 손에 살해된다. 그리고 옛 애인은 두 아들을 잃은 샤먼 시어머니의 주술로 죽음을 맞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배신과 불륜과 살인으로 얼룩진다.

감독이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고대 튀르크족의 전통 가운데 확연히 부각되는 것이 그들 고유의 원시신앙이다. 일반적으로 튀르크족의 원시적 믿음으로는 조상숭배와 자연신숭배, 텡그리 신앙을 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텡그리 신앙이 가장 대표적 신앙 형태라 일컬어진다. '텡그리(Tengri)'란 튀르크족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유라시아 초원 유목 민족의 절대신이었다. 또한 튀르크족 고유의 하늘의 신이라는 의미에서 '천신(天神)'이라 불리기도 했다. 유라시아 유목 민족에게 '텡그리'는 튀르크족과 몽골족이 분화되기 이전부터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유일한 창조신으로 묘사되는 텡그리는 훈, 타브가치, 돌궐, 우리구르 등 유라시아의 여러 종족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으뜸이 되는 존재이다.[13] 텡그리 개념은 지금까지 유라시아 튀르크족 가운데 샤머니즘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14]

자연에 대한 유목민들의 완전한 종속은 자연력과 그 현상들의 구현화를 결정한다. 카자흐인들은 하늘(텡그리)를 상위의, 가장 강력한 신성으로 간주하였다. 하늘을 숭배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며, 고대의 유목민들이 매 순간 하늘과 교응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모든 슬픔과 불행과 상실은 카자흐-유목민들의 의식 속에서 하늘의 힘과 결합하도록 하는 연상이 생기도록 하였다.[15] 튀르크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해 감독 역시 영화에서 텡그리, 즉 천신에 대한 그들의 숭배감을 곳곳에서 표출한다. 또한 <켈린>에서는 영화 전반에 걸쳐 텡그리 신앙의 아우라를 감지할 수 있는 '푸른 하늘빛'이 분위기를 지배한다. 감독은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노파의 시선을 통해 '푸른 하늘'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노파가 푸른 하늘에서 우주의 기운을 읽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다. 여기서 샤먼은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앞으로 주변에 닥쳐오게 될 일들을 예견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늘의 기운을 통해 땅의 이치를 읽어내는 모습은 하늘과 땅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튀르크족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연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영화 속 노파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샤먼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있다. 감독은 그녀에게 샤먼의 형상을 부여해 텡그리의 심부름꾼으로 그녀를 묘사하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샤먼의 능력이듯이, 그녀는 항상 곁을 지키는 올빼미의 울음 속에서 일하러 나간 아들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하기도 한다. 여기서 올빼미는 샤먼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녀에게 일종의 보조영신(helping spirits)의 역할을 한다.

---

13) 김효정,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Tengri)'의 의미," 390-391쪽.

14) 김효정은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절대신인 텡그리가 튀르크족의 역사 기록과 구비문학에서 묘사되는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텡그리'의 의미는 튀르크족이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인 돌궐문자로 쓴 돌궐족의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튀르크어 기록에서 나타난 텡그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의 의미이다. 그 맥락에서 텡그리는 인간과 동물을 말을 들으며, 인간에게 은총을 내리고 능력을 주고 명령하는 인격체이다. 돌궐비문에 묘사된 텡그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늘'이다. 퀼티긴 비문에서는 '쾩 텡그리'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돌궐어에서 '쾩'은 '하늘' 혹은 '푸른빛'의 의미이다. 돌궐족은 자신을 '쾩 튀르크'로 지칭하며 '푸른(빛)'을 형용사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텡그리'를 연상시키는 푸른빛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할 수 있다. 위의 글.

15)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азахской философии http://kazbook.narod.ru/knigi/21/11.htm



<장면1. 보조영신으로 등장하는 올빼미>

일반적으로 보조영신은 샤먼의 입문 의례나 접신 체험에서 나름의 몫을 하는 존재이다. 민속학 문헌에서는 샤먼과 친교관계를 맺는 영신들이 '친교영신(familiar spirits)', '보조영신', '보좌영신', '보호영신(guardian spirits)'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부분의 친교영신이나 보조영신들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베리아인이나 알타이인의 경우에는 곰, 이리, 수사슴, 토끼나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와 같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6] <켈린>에서도 등장하듯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샤머니즘과 관련된 영화에서는 그 보조영신으로서 '올빼미'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올빼미가 어두운 주위 상황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샤먼에게 악령의 접근을 알려준다는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17]

보호령이나 보조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간 집단과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샤먼은 '동물의 언어'로 일컬어지는 비밀언어로 신들이나 동물영신들과 소통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새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샤먼이 저승이나 천상계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샤먼은 세 우주권, 즉 지하계와 지상계와 천상계를 자유자재로 오고가는 능력의 소유자로 일컬어져,[18] 산자의 악귀는 지하세계로 보내고 죽은 자는 저승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었다. <켈린>에서도 노파는 튀르크족의 샤머니즘적 제의를 재현하는 중심축에 서 있다. 특히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가 옛 연인과 정분이 나자 그녀는 며느리에게 붙은 악귀를 몰아내는 일종의 정화의식을 거행한다. 부정한 며느리의 옷을 벗겨 세워두고, 땅에 둥근 원의 모양으로 불을 지펴 그 곳에 며느리를 가두고 악귀를 몰아낸다. 이는 샤먼이 다른 세계의 신격들이나 정령들과 직접 접촉하는 '엑스터시(ecstasy)' 경험을 통해 초자연적 세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16)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마니즘. 고대의 접신술』, 이윤기 옮김, 까치, 1992. 99-101쪽.
17)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샤먼: 2011년 국제 샤머니즘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2011, 48쪽.
18)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마니즘. 고대의 접신술』, 105-108쪽



<장면 2. 아들의 시신에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샤먼>



<장면 3. 독수리에 의한 조장 풍습>

주술사이자 점술가인 샤먼에게 가장 중요한 의례 행위는 죽은 이들을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의식이다.[19] 영화 <켈린>에서도 샤먼으로서의 노파의 역할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 의식에서 보다 강력히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장남의 시신을 작은 아들이 끌고 집에 들어오자 샤먼-어머니는 그 시신을 붙잡고 절규한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샤먼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녀는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아들의 몸에 그림을 그린다.(장면 2) 그리고 일정기간 그 시신을 집 앞 장대에 매달아 두었다가, 다시 높은 산으로 끌고 가 제단 위에 시신을 올려둔다.

고대 튀르크족들은 죽은 자들을 땅에 바치지 않고 텡그리, 즉 천신이 계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에게 바쳤다. 영화에서는 독수리가 시신을 쪼아 먹게 한 후 그것을 수습하는, 이른바 시체 처리를 조류에게 맡기는 조장(鳥葬)이 리얼하게 묘사된다.(장면3) 독수리로 하여금 시체를 먹게 하는 '조장'은 독수리를 조류의 왕으로 여기고 신성하게 숭배하는 믿음에 기인한 장례의식이다.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튀르크계 민족들 가운데 독수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독수리 숭배사상'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독수리가 인육을 먹고 하늘 높이 날아가면 사람의 영혼도 그를 따라 승천하게 된다고 믿었다. 감독은 튀르크족이 지녔던 독특한 영혼관과 사후관을 <켈린>에서 자신만의 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감독은 설원 위를 달리는 늑대와 하늘을 비상(飛翔)하는 독수리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의 구도를 카메라 하이앵글(highangle)로 제시하기도 한다.



<장면4. 늑대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장면>



<장면5. 독수리의 비상 장면>

19) 라리사 파블린스카야,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역할, 기능 그리고 현재 상황,"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샤먼』, 국립민속박물관, 2011, 297쪽.

<켈린>은 '늑대'가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모두 아우르며 튀르크족의 토테미즘 흔적을 강하게 발산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튀르크족은 고대로부터 그들의 시조 설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늑대를 민족의 상징 혹은 토템으로 일컬어 왔다.[20] <장면 6>은 아버지가 받은 몸값에 팔린 켈린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는 장면을 늑대가 산 위에서 지켜보는 시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면 7>은 켈린의 남편과 시동생이 천막 근처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장면을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마치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이 촬영하는 조안각(鳥眼角)의 카메라 기법은 샤머니즘 영화의 대표적인 관습으로 알려져 있는데,[21] 에르멕 투르수노프는 <켈린>에서 유사한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감기법을 염두에 둔 촬영법은 영화의 조형적인 측면이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아우라 재현이라는 주제적 측면으로 전환된 예라 할 수 있다.



<장면6. 켈린이 시집가는 모습>



<장면7. 설원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모습>

사실 영화 곳곳에 스며있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만물에 깃든 애니미즘의 분위기는 고대 튀르크족의 생명관을 표출하기 위한 감독의 제작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노파의 두 아들이 모두 며느리의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후, 격분한 노파는 며느리가 사내와 도주할 때 눈보라를 일으켜서 그 사내를 죽인다. 그리고 이제 삶에 더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그녀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던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며느리의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느끼고 결심을 바꾼다. 그 태아가 자신의 손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며느리를 되살리고 출산을 도와주며, 갓난아이가 죽지 않도록 늑대의 젖을 구해온다. 이 모든 것은 노파가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종족과 생명을 지속시켜야 하는 샤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샤머니즘 전문가 라리사 파블린스카야는 다음과 같이 샤먼의 의무를 규정한다.

전통 사회에서 씨족의 전승에 관한 문제는 이미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미래의 씨족 구성원들과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의미한다. 삶의 영원한 전승이야말로 우주 질서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앙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바로 그 때문에 아이들은 가정과 씨족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가정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삶의 끈인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족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샤먼의 의무이다.[22]

20)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374쪽.
21) 이종승, 『영화와 샤머니즘, 한국적 환상과 리얼리티를 찾아서』, 살림출판사, 2005, 66쪽.

생명의 지속성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표출되는 <켈린>에서 '여성' 혹은 '어머니'의 힘은 서사의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인을 얻을 때 사내들이 지불하는 몸값이나 여인을 둘러싼 그들의 결투는 당시 한 가족의 핏줄을 잇는 수단으로서 여자가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자 값나가는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감독은 영화에서 제시되는, 즉 종족을 낳아 지상에 생명을 지속시키는 여성의 힘을 '어머니의 찬가'[23]라는 주제의식으로 표현한다.



<장면8. 샤먼이 늑대를 부르는 장면>



<장면9. 샤먼의 부름에 반응하는 늑대>

부족의 생명력을 존속시키기 위해 암늑대의 젖을 짜오는 샤먼 노파의 힘은 그녀가 동물의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의 힘을 상징하는 늑대의 젖을 어린아이에게 먹인다는 것은 태초의 어머니인 암늑대의 젖으로 카자흐인이 양육되었다는 신화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늑대가 튀르크인들의 조상일 수 있다는 우화를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이기도 하다.[24]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늑대의 젖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늑대와 교감할 수 있다는 소재는 물질문명 개발로 단절된 생명관의 회복을 위한 감독의 갈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영화는 며느리가 샤먼으로 재탄생하며 시어머니의 업을 잇는 것으로 종결된다. 어린아이를 늑대의 젖으로 살린 후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인식한 시어머니-샤먼은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론가 자신의 길을 떠나려 한다. 이제 아기와 홀로 남겨지게 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것이 이미 예정된 일이라 직감한 후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리고 영화는 켈린이 샤먼의 의무를 상징하는 시어머니의 '지팡이'를 받아드는 비장함을 묘사하며 막을 내린다. 끝에 방울이 달린 지팡이는 샤먼들에 대한 또 다른 징표로,[25] 이것을 받아드는 것은 며느리가 샤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라리사 파블린스카야,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역할, 기능 그리고 현재 상황," 296쪽.
23) 감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 영화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찬가이다. 터키, 이스라엘, 미국, 그리스, 캐나다, 아이슬란드의 관객들과 비평가들은 나의 메시지를 금새 읽어내었다. 그들에게 주인공들의 민족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의 모든 관점을 관통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전 인류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Тимур Нусимбеков, "Ермек Турсунов: 'Возноси молитву своим врагам,'" там же
24) Ермек Турсунов, "Я так думаю" в: Источник: www.spik.kz 15 января 2010, там же
25) В.Н. Басилов, *Шаманство у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Москва, 1992, с. 76-77.



<장면10. 자신의 길을 떠나는 시어머니-샤먼>



<장면11. 샤먼으로 재탄생하는 며느리>

영화 속 '샤먼-며느리'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비전을 얻고 소명감과 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실로 되돌아오는 샤먼의 입문 과정과 유사하다.[26] 감독은 켈린이 시어머니의 무업(巫業)을 이어받아 샤먼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치 깃발을 넘겨주듯이 자신의 지팡이를 넘겨주었다. 우리에게 그런 자기희생적인 어머니들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27]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한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종족의 보존을 의미하는 아이의 출생과 새로운 어머니-샤먼의 출연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원초적 생명력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영화의 주인공을 젊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주인공은 늙은 시어머니라고 강조했던 감독의 언급과도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늙은 시어머니는 그 옛날 젊은 며느리로 이 집안에 시집왔을 것이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삶을 통해 얻은 모든 경험과 힘과 지식을 며느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28] 감독의 의도에 비추어 보자면 영화 제목인 '켈린'은 단순히 젊은 여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 젊은 여인이었을 시어머니-샤먼까지 포함하는, 카자흐 여인을 위한 보통명사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감독은 모든 어머니는 성스러운 존재이며, 바로 그 여성이 세계 창조의 중심이라는 신화 재현을 통해 카자흐인들,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류 보편의 믿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감독은 현재의 카자흐인들은 과거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던 고대 튀르크족으로부터 단절되어 더 이상 인류 시원(始原)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지 못하게 된 자신들의 자화상을 질책하고 있다.[29] 감독은 과거의 영광과 신화를 회복하기 위해 카자흐인들이 지향해야 할 의식의 원천을 영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게 고대 튀르크족의 신화에 상응하는 삶은 그 어떤

26) 범문화적으로 샤먼이 되는 경로는 전격적인 해체와 분열을 하는 첫 단계를 요한다. 샤먼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고된 시련과 여행, 영혼의 시달림으로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샤먼은 일종의 소명으로서 원시 종족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고통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치유자의 원형(wounded healer)인 샤먼을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한 치유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학지사, 2010, 209쪽.

27) Тимур Нусимбеков, "Ермек Турсунов: 'Возноси молитву своим врагам,'" там же

28) Известия-Казахстан, "Ермек Турсунов: Мы можем!," там же

29)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튀르크족의 의식을 깨우고 그 속에 내재된 지혜와 미(美)의 가치를 찾아 그 기억의 복원을 강조했던 감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장 광대한 대륙을 소유했던 인류의 요람인 튀르크족의 문명은 그 적절한 의미가 부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즉 알타이 산맥에서,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인류 사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곳에서, 문화와 세계이해와 세계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там же

철학적 실체나 이성적 인간의 도덕률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인간적 열정과 욕망으로 충만해 있었던 시대, '윤리'라는 필터로 걸러지기 이전의 거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시대이다. 감독은 바로 그 원초적 삶의 뿌리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양육되었다는 것을 오늘날의 카자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III.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 이슬람화된 샤머니즘의 믿음 재현

루스템 압드라셰프의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2008)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이슬람에 샤머니즘이 결합된 모습이 재현된다. 이 작품은 소비에트의 강제 이주정책과 유형으로 사샤라는 어린 소년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게 된 장면에서 시작된다. 할아버지와 함께 강제이주 열차를 탔지만, 도중에 할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린 소년은 고아가 되어 타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린 사샤를 친손자처럼 돌보아주는 카심의 사랑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영화는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억압을 견뎌내야 했던 카자흐스탄의 비극적인 역사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진정한 휴머니즘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감독은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당시의 아픈 기억을 극복해나가며 공존과 상생의 다민족공동체의 이념 지향을 영화로 재현하고 있다. 감독은 카자흐스탄이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는 다민족국가라는 점을 여러 기도 형태가 한 지역에 공존하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방에 걸어 두는 성화나 기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폴란드인 의사 예지는 카톨릭교도이고, 러시아인 베라는 러시아정교도이며, 그들과 바로 이웃해서 사는 주인공 카심은 철저한 이슬람교도이다. 하지만 카심은 어린 소년 사샤를 샤먼의 의식을 통해 살린다. 카심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게 알라에게 기도하는 무슬림이지만 사샤를 살리기 위해 카자흐 전통 샤먼 의식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장면12. 사샤에게 의식을 하는 샤먼의 모습>

이 의식에서 나타나는 '트랜스(Trans)' 혹은 '엑스터시(Ecstasy)'를 통해 샤먼은 일종의 탈혼 상태에서 다른 세계의 영(靈)과 대화하며 소년 사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치료를 위해 어린 아이에게 병을 불러일으킨 사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 시도한다. 이 영화에서도 카자흐족 샤먼들이 의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악기 '돔브라'를 이용해 탈혼 상태에 빠지면

서 다른 세계로 침잠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샤먼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악령을 속이려면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예언하고, 이에 카심은 “아멘, 그리 되게 하옵소서”라며 응답한다. 감독은 샤먼과 무슬림 교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양상, 종교를 초월한 마음의 감화가 어린 소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카자흐인들이 수용하는 샤머니즘적 특징은 중앙아시아 다른 민족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이슬람화 되어있으며, 심지어 무슬림 성자들을 자신의 신당에 모시기도 했다는 점에 있다. 많은 샤먼들이 알라에 대한 기도로 주문을 시작하고 외우기도 했듯이,[30] 영화에서 카심은 샤먼 의식 이후에 알라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특히 영화에서도 카심은 카자흐 전통 무속인을 통해 유태계 소년이 ‘사븨르 Сабыр’라는 카자흐 이름을 갖게 되면서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믿는다. 소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을 행했던 샤먼이 그에게 지어준 새 이름인 ‘사븨르(Сабыр)’는 카자흐식으로 ‘참을성 있는(терпеливый)’이나 ‘온화한(смиренный)’으로 번역될 수 있다.[31] 앞서 살펴본 영화 <켈린>에서도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샤먼 역을 맡은 동일한 배우 투라한 시듸코바(Турахан Сыдыкова)가 등장한다. 두 영화 모두에서 올빼미가 등장하는 것은 예로부터 올빼미가 어둠과 밤을 밝히는 지혜의 동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서는 조류들이 클로즈업되는 특징이 있는데,[32] 이는 일반적으로 날개달린 존재들이 인간 영혼의 세계를 반영하고 정신적 승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영화에 많은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33] <장면 13>에서와 같이 제비 둥지를 보여주는 사진은 베라, 예지, 어린 사샤가 한데 모여 하나의 가족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장면과 연결된다. 단란한 가족의 이미지가 제비 둥지의 모습으로 대치된 것이다.[34] 자신의 몸으로 사샤를 구하고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베라는 이미 사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사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폴란드인 의사 예지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준다. 감독은 혈연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또 다른 성가정의 모습을 암시하는 부분에서 제비집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은 샤머니즘은 본래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를 강조한다는 점과 특히 유목민의 시각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에 도달하는 인식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

30) О.Б. Наумова, "Казахский Баксы: История одной фотографии Публикация материалов Ф.А. Фи ельструпа по казахскому шаманству)", *Журнал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6, No 6.

31) http://project.insysltd.ru/pls/www/movies.htm?action=1&value=7&p_value2=24599

32) 영화는 다양한 동물이나 조류가 클로즈 업으로 촬영된 것 역시 흥미롭다. 카메라에 찍히는 피사체가 스크린의 가득 채우는 ‘클로즈 업 샷(close up shot)’은 주로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상징적인 의미 작용을 유발한다.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무의식을 포함한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나 사고 과정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이 숏들은 영화의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를 내러티브의 중심에 놓는다. 클로즈업 숏들이 어디서 어떻게 반복되느냐에 따라 내러티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중요성뿐 아니라 내러티브의 방향과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이일범, 『영상예술의 이해』, 신아사, 1999, 379쪽. // 이형관 엮음, 『우리 시대의 문화코드, 영상예술』, 도서출판 신서원, 2003, 267쪽// 수잔 헤이워드,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 이영기 역, 한나래, 1997, 172-173쪽.

33) 융에 의하면 새는 정신 혹은 천사, 초자연적 도움, 사고, 환상적 비상을 나타내는 이로운 짐승이다. 힌두 전통에 따르면 새는 존재의 높은 비상을 재현한다. 새를 영혼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런 전통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여러 민담에 두루 나타난다.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278-282쪽.

34) 영화는 러시아정교,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카자흐스탄의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종교를 조화롭게 융합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의지할 데 없는 고아 소년을 위해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준다. 특히 악명높은 여자수용소인 알지르(АЛЖИР: 조국에 대한 반역자들의 아내들을 감금하는 아크몰린스크 수용소)에서 온 베라는 사샤에게 따뜻한 엄마의 역할을 해 준다. 베라는 실제로 오갈 데 없는 어린 고아 소년인 사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폴란드인 의사 예지는 아빠의 역할을 해 준다.





<장면13. 제비 가족이 둥지를 이룬 장면> **<장면14. 사샤를 중심으로 유사가족을 형성한 모습>**

영화는 1949년, 지금의 카자흐스탄 세메이(Семей)의 한 마을에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부각시킨다. 반역자 남편을 둔 아내들의 수용소인 알지르의 죄수였던 러시아 여인 베라, 유형당해 온 폴란드인 의사 예지, 둔간족 노인인 카심과 파틔 등이 우연히 이곳에 정착하게 된 유태인 소년의 친구가 된다. 마을 사람들은 폭압적인 경찰과 군인들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서로를 아껴준다. 이곳은 사랑과 기쁨, 여러 민족의 영혼과 성격이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민족성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사븨르'로 새롭게 태어난 소년 '사샤'이다. 유태인이지만 카자흐어를 말하며 카자흐인으로 살아가는 그는 다민족 공동체성을 체현하는 인물이 된다. 여기서 카자흐스탄의 민족 정체성을 대변하는 다민족 공동체성은 새로운 가족 형성의 모태를 형성하며, 일종의 카자흐스탄 판 가족의 탄생 구도로 환치되어 '민족들의 우호'[35]를 지향하는 카자흐스탄의 정책 기조를 부각시키는 영화의 메시지와 연결된다.





<장면15. 유목민 카심과 소년 사샤의 모습>

이슬람화된 샤머니즘, 혹은 무속화된 이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자가 카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카심은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후에 철로 순찰인으로 일하며 항상 침묵과 미소로 일관하는 인물이다. 타인의 눈에는 바보처럼 우직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는 권력의 부조리와 잔인한 환경을 넘어 고아 사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위

35) Ярослав Разумов, Фильм "Подарок Сталину" уже вызвал споры http://art.gazeta.kz/news/?id=577 (16 Сентября 2008г.) (검색일: 2012.1.16)

대한 사랑의 전령이다. 거의 눈을 감은 듯한 지긋한 시선에 주름살이 역경을 이겨낸 삶의 훈장처럼 보이는 카심의 얼굴 이미지 자체가 인간 유적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 영화에서 그는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인내력을 갖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카자흐 민족정신의 또 다른 구현자인 셈이다.

카심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자주 카자흐의 위대한 민족시인 아바이 쿠난바예프 Абай Кунанбаев(1845-1904)의 시 <젤스즈 툰데 자륵 아이(Желсіз түнде жарық ай)>가 울려 퍼진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 휘영청 밝은 달만이 / 호수에 비쳐 반짝이고 / 우리 마을의 영혼은 / 그 깊이를 알 수 없네 / 울부짖는 호수처럼....”이라는 노래가 철길을 따라 걷는 카심 할아버지와 그의 등에 업힌 사샤의 모습과 함께 제시된다. 카자흐인들이 항상 지혜와 깨달음을 배우는 아바이 쿠난바예프의 시와 여기에 음조를 붙인 이 지역 민요가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며 영화에 카자흐스탄의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테마를 구체화한다.

사실 아바이 쿠난바예프가 태어나 창작활동을 전개하던 시기는 제정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식민화하는데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하던 때였다.[36] 유목민의 생활양식은 차츰 정착생활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전통적 생활양식은 바야흐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여러 가치관의 혼란도 병행되고 있었다. 아바이는 그런 변혁의 시기에 시대의 불의와 싸워 나갔던 인물이다.[37] 러시아 제국이 카자흐인들을 식민화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 그들을 정착생활로 이끈 것이라면, 영화에서 베라가 말을 타고 있는 카심을 두고 ‘진정한 유목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를 아바이 쿠난바예프 정신을 구현하는 화신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감독은 카심이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나 세상 만물 속에서 애니미즘의 기운을 읽는 모습을 자주 제시하며, 그가 샤머니즘 정신을 응축한 유목민이자 카자흐민족정신을 대변하는 무슬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은 다민족 혼재성, 즉 카자흐를 중심에 두면서도 여러 다양한 민족의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IV. <샤먼>: 네오샤머니즘의 정신 구현

구카 오마로바의 <샤먼>(2008)은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사회를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는 작품이다. 카자흐스탄의 스텝이 배경이 되는 이 영화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첫 장면에 카자흐스탄에서 실제 유명한 샤먼 비-파티마(Би-Фатима)가 의례를 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감독은 비-파티마에게 영화의 샤먼 역으로 출연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가 이를 거부하면서 영화 첫 장면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영화에서는 연극배우 네십쿨 오마르베코프(Несипкуль Омарбеков)가 샤먼 역을 맡았고, 그녀는 비-파티마를 찾아가 그녀의 여러 면모를 관찰하고 이를 자료로 삼아 연기하였다.

---

36) 아바이 쿠난바예프는 청년시절이던 1858-1876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약 18년 동안 가문(종족)간의 알력과 권력투쟁이 벌어지던 초원의 사회,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제정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식민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 질서에 편입된 카자흐 상류층의 불의와 일반 서민의 고통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바이는 카자흐인들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장래에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하게 된다. 김병학, “카자흐스탄 초원에 솟아오른 거대한 시문학의 산: 아바이의 사상과 시세계 그리고 생애,” 『카자흐스킨 초원시인 아바이 시선집. 황금천막에서 부르는 노래』, 김병학 옮김, 인터북스, 2010, 267-268쪽.

37) 앞의 글, 261-262쪽.

구카 오마로바가 샤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촬영한 이유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작업을 해왔던 스승 세르게이 보드로프 1세(Сергей Бодров-старший)의 역할이 컸다. 원래 샤머니즘에 관심이 컸던 그는 카자흐스탄에 실존하는 대샤먼의 형상은 흥미로운 영화 소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카 오마로바를 설득했으며 시나리오 집필 과정부터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38] 또한 샤먼을 다루는 이 작품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카자흐스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는 네오샤머니즘 지지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먼저, 이 영화에 재현된 샤먼의 주된 역할은 카자흐스탄 민중의 치유자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샤먼의 역할은 카자흐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샤먼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샤먼들은 영(靈)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예언을 한다. 영화에서 '아파슈카(Апашка)'라 불리는 샤먼 아이단(Айдан)은 실종된 사람이나 가축을 찾아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악귀를 쫓기도 한다.[39] 이러한 치유 능력으로 그녀는 이 지역에서 큰 어른과 같은 존재로 대접받는다.



<장면16. 영화 속 샤먼의 치유행위>

이른바, 신(神)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인 샤먼은 '인간의 공간'과 '초자연적 신격의 공간'을 오고가며 성(聖)과 속(俗)의 공간을 매개한다. 그리고 이 세계를 투시하는 엑스터시를 통해 현세의 쇠사슬에 갇힌 이들의 육체적 · 영적 요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영화 <샤먼>에 등장하는 샤먼 역시 실존인물인 대샤먼의 의례를 모방하여 여러 치유행위를 재현한다. 양의 목을 잘라 그 피를 환자의 몸에 바르거나 진흙을 몸에 발라 사악한 기운을 소멸시켜 치료하는 모습은 유목문화를 기저로 하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인자가 샤먼이 행위에도 용해되었음을 드러낸다. 영화에서 재현된 샤먼의 행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이다.[40] 오늘

38) 세르게이 보드로프는 한 인터뷰에서 <몽골> 촬영 전에 촬영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카 오마로바와 몽골의 큰 샤먼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film.ru/afisha/movie.asp?code=BAKSY // Баксы (Гука Омарова)
http://forum.p2p.kz/viewtopic.php?t=21497

39) Юрий Гладильщиков, Стенгазета, "не баксы, а баксы," Ведомости, №188, (06.10.2008), http://www.stengazeta.net/article.html?article=5374

40) 하너(Harner, 1980)는 <샤먼의 행로>라는 책의 서문에서 환자들이 병과 죽음과 투쟁할 때 홀로 있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의 에너지를 기꺼이 제공하는 샤먼의 자기희생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치유과정에서 샤먼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정신, 신체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샤머니즘과 예술

날 샤먼은 кь 역할이 점을 치는 사람으로 축소된 경향이 없지 않으나, 원래 샤먼의 존재는 산업사회에서 의사, 심리치료사, 점술사, 사제, 정치가 등으로 분화된 모든 역할을 포괄하는데,[41] 영화에서는 이런 광의로서의 샤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면17. 영화의 배경이 된 우르군타스 산>



<장면18. 샤먼 아이단의 모습>

영화 <샤먼>이 내포하고 있는 네오샤머니즘적 경향은 카자흐스탄 사회의 내부 갈등이나 생태문제 등의 이슈를 부각시키는 단초 역할을 한다. 카자흐스탄의 민중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샤먼 아이단은 성스러운 산으로 알려진 우르군타스(Ургунтас)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영화에 나타난 조상들의 터전에서 이곳의 산신(山神)을 숭배하는 아이단의 모습은 이 땅을 수호하는 것은 카자흐인들의 생명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부합한다. 그런데 소비에트 시대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 출신 투기꾼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석유사업을 하는 올리가르히들은 이 땅을 개발하여 주유소와 레스토랑, 게임장, 기타 유흥시설들을 지어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서 아이단은 이 선조들의 땅을 떠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땅에서만이 그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샤먼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땅의 일부는 땅을 지키는데 있어 그다지 완고하지는 않은 비즈니스맨 바틔르(Батыр)의 소유였고, 그는 외부 투기꾼들의 요구에 이 땅을 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오래전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샤먼이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된 일을 떠올리고 망설인다. 하지만 샤먼이 그녀를 몰아내려고 몰아붙이는 투기 세력들을 저주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결국 그들과 갈등과 투쟁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42]

<샤먼>은 개발지상주의가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해 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는 서구적인 자본주의 물결과 카자흐스탄의 전통, 자본의 논리와 민족적 색채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드러낸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모방한 유흥시설이 선조들의 땅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샤먼은 대항한다. 마을 내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샤먼은 성산의 자연을 지키려 발버둥 치며 자본주의 논리에 맞서 싸운다. 하지만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샤먼이 실제적인 물리력에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샤먼은 자신의 지략으로 이들 세력에 복수를 시도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저항하다 갑자기 숨이 멎는 상태로 죽은 시늉을 한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 그녀는 몰래 일어나 그 땅에 건립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며 복수하고 홀연히 사라진다.

치료>, 248쪽.

41) 피어스 비텝스키, 『샤먼』, 96쪽.

42) Фильм "Баксы" RUSKINO.RU http://ruskino.ru/mov/11544

영화에서 뿌리 깊은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을 극화시키는 샤먼은 '복수의 메커니즘'을 무속과 결부시킨다. 복수란 누군가에게 손해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만큼의 손해나 피해를 되돌려주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이다. 세상의 불화와 알력에 대해 대등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해 행위에 대해 응당의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샤머니즘이 개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샤머니즘의 방식은 개인과 개인에 대한 원망이나 개인과 집단에 대한 한(恨)을 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마이너리티를 대변하고 결집하는 무속의 사회적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기 <샤먼>서 무속은 단지 과거의 가치관으로 회귀하자는 의미의 행위가 아니다. 이는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고 부조화로 신음하는 카자흐스탄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추악한 인간의 욕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무속의 모티프는 일상적인 구조와 질서를 해체 및 전복하는 기능, 즉 부조리한 권력 구조와 이념구조를 해체하는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무속의 이미지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카자흐스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해부하는 것이다.

영화 <샤먼>에서 샤먼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땅은 개발논리에 잠식당한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샤먼 아이단의 분신, 즉 그녀의 육체와 정신세계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공간이다. 때문에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린 무속을 위한 감독의 뜨거운 애정이 담긴 작품이다. 영화는 단순히 무당을 소재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영화는 근대화의 물결에 억압당한 샤먼의 한(限)을 새로이 승화시키려고 시도한다. 감독의 시선은 무당의 화려한 기교보다는 무당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애환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 상황에 대해 샤먼이 드러내는 슬픔과 애환에 관객이 주목하도록 한다.

과거의 정신을 상실한 땅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 샤먼은 사라져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투기세력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지키려 했던 바틔르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그의 아이를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화 전면에 재등장한다. 바틔르는 어딘가에 샤먼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 샤먼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볼 수 있는 샤먼은 아이가 감금당해 있는 장소를 투시하여 그 위치를 알려준다. 샤먼이 가르쳐 준 곳은 그들 범죄 조직단의 거처였고, 아이는 차 트렁크에 갇혀 있다. 여기서 영화는 액션 영화처럼 바틔르 측과 범죄 세력간의 총격전으로 이어지고, 이 난동으로 바틔르를 사망한다. 이제 아버지 없이 남겨진 소년은 그가 머물렀던 성산으로 되돌아오고 샤먼 역시 아이를 위해 이곳으로 귀환한다.

샤먼이 다시 돌아왔지만 오랫동안 주인이 부재했던 이 공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아 소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여기서 사회적 충돌로 확대되었던 이 공간의 문제는 생태적이며 환경적인 문제로 확대된다. 사실 네오샤머니즘운동은 전통보존운동과 함께 생태학적 차원의 고려와 연결되기도 한다.[43] 샤먼의 행동은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관과 대립되는 것이 사실이며, 샤먼적 사고는 이성적이라거나 주류 과학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모델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샤머니즘 학자 바실로브(В.Н. Басилов)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특징을 영(靈)적 세계에 대한 인정, 자연에 있어서의 만물의 상호관련성, 인간과 우주의 긴밀한 관계, 인간이 영적인 특성을 획득할 가능성으로 간주하고 있는데,[44] 개발로 상처를 입은 이 땅이 상실한 이런 기능을 통해 감독은 생태학적 문제의식

43) 여러 전통 믿음체계들은 사실 생태적 고려를 지니고 있으며(예를 들어 많은 에스키모 민족들), 투카노족(Tukano people)들 사이에서 샤먼은 사실 자원보호 역을 맡기도 한다. Jesse Russell, Ronald Cohn. *Neoshamanism,* p.16.

44) В.Н. Басилов, Что такое шаманство?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М. 1997, No.5, с. 13.

을 제기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이 사회적이며 생태학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상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들 각자의 샤먼 의식이 현재의 무분별한 개발의 논리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합일에 기초하고 있는 샤머니즘은 세상 만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유래하여 그 근원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이다.[45] 이렇게 영화는 구원의 공간으로서의 샤머니즘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결국 구원의 공간인 이 성산에서 어린아이는 다시 살아난다. 근대성에 의해 주변부로 내몰린 이 지역의 정체성 문제와 환경문제가 샤머니즘의 정신세계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치하게 영화 안을 들여다보면 샤머니즘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는 샤머니즘을 통해 '문명과 자연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 한다.



<장면19. 영화에서 재현되는 무당의 춤과 아이를 살리는 의식 재현>

그리고 감독은 영화 마지막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 아이단을 통해 영적 가치를 복원시킨다. 이는 영화에서 죽은 줄 알았던 샤먼이 살아 돌아와 '이 땅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체화된다. 감독은 '생명을 되찾는 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생명력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샤먼은 아이의 등에 피로 새 그림을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아이를 눕히는데, 이 장면은 앞서 범죄인 집단에 납치당했던 소년이 트렁크 속에 웅크리고 갇혀 있던 모습과 대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샤먼은 자신의 의례를 통해 아이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을 돌려준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불임의 부부에게 오랜 기도를 통해 아이를 갖게 해 준 샤먼의 행위는 소비에트 시대에 자신의 가치관을 계승하는 자식을 얻지 못했던 카자흐스탄이 그 생명체를 얻었다는 의미로, 그리고 개발 논리속에서 그 소중한 아이가 납치당했다는 것은 또 다시 정체성을 상실한 카자흐스탄을,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아이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소생과정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감독의 염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 네오샤머니즘은 개발 논리에 파괴된 카자흐스탄을 치유하는 행위인 것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면서 애써 우리의 곁에서 지우려고 했으나 무속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으며 그 영향력이 축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속을 통해 개발 논리에 잠식당한 카자흐스탄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카자흐

45) Шай мухаметова Диана Римовна, "Неошаманизм - путь в мир духов," http://psyagenc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2011-06-05-20-00-15&catid=54:psychologycalarticles&Itemid=179

스탄의 건강한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중의 정신적 기반으로서 샤먼의 존재는 결코 전근대적인 유물이나 퇴행의 징후가 아니다. 오히려 무속의 모티프는 '전근대와 근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대화가 소외시킨 무속을 영화의 소재로 다시 등장시키는 <샤먼>은 카자흐스탄 영화에 작동되고 있는 '무속의 에너지'를 영화에 부활시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카자흐스탄 영화계가 자신들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드러내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에트 시기에 공식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샤머니즘이 그 소재로 부활하고 있는 양상을 주요 영화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새로운 영성에 대한 일종의 노스탤지어를 내포하는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서 발현되는 샤머니즘적 모티프와 주제를 다르며 이를 카자흐스탄의 정체성 탐색과 연결해 보려는 시도였다. 먼저, 에르멕 투르수노프의 <켈린>에서는 고대 튀르크족의 원시적 믿음과 텡그리 신앙이 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켈린>에서 감독은 시어머니-샤먼을 모든 사건의 관찰자이자 심판자, 튀르크족의 원시신앙에 대한 믿음의 대변자이자 생명의 수호자로 내세우며, 그 정신세계를 유라시아 시대 카자흐스탄이 취해야 할 자세와 연결짓고 있다. 또한 감독이 튀르크족의 텡그리 신앙을 영화의 미장센의 구조에 투사하고 있다는 점, 즉 조감기법을 통한 만물에 깃든 애니미즘 분위기 창출이나 튀르크족의 토템인 늑대와 독수리의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는 샤머니즘의 아우라를 부여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루스텝 압드라쉐프의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정착된 이슬람화된 샤머니즘의 영화적 재현을 살펴보았다. 감독은 이를 소수민족의 강제이주로 우연히 카자흐스탄의 한 마을에 오게 된 고아 소년 사샤의 재탄생이 카자흐 정신을 대변하는 무슬림 카심과 샤먼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유태인 소년 사샤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사븨르'라는 이름과 새 새명을 얻는다. 영화 속 샤먼이 엑스터시 상태에서 그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겸손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역사를 증언하도록 한 감독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은 '무슬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지역 '샤먼'의 의례를 통해 되살아나고, 이후 '유대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샤의 행보를 통해 다민족 공존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는 카자흐스탄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구카 오마로바의 <샤먼>은 영화 속 샤먼이 주인공의 보조인물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서는 작품이다. 영화는 그 샤먼을 중심에 두고 현대문명과 자연과의 갈등, 근대성과 원시성의 충돌, 자연파괴와 환경보존의 대립, 물질문명과 배치되는 샤머니즘의 정신세계, 그리고 오늘날 카자흐스탄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을 노출시킨다. 이는 네오샤머니즘운동에서 전통적 샤머니즘에 내재된 통합적 세계관을 현대의 환경문제와 연결짓는 동향과도 맞물리는 것이다.[46] 이 영화에서 샤먼은 카자흐스탄 민중을 위한 치유자 역할, 사회적 복수자 역할, 예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공동체의 강력한 권위자로서 신령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봉사하는 영혼의 인도자 역할과 함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 불의와 맞서 싸우

46) 피어스 비텝스키, 『샤먼』, 152쪽.

는 복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속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샤먼의 예지적 면모로 확대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세 편의 영화는 카자흐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인식의 문'을 전달하기 위해 샤머니즘의 영성을 활용하고 있다. 감독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무속을 미신으로 보고 배척했지만 오히려 민중들 사이에서 이런 샤머니즘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무속은 과학적 합리성과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세되었으며, 민중의 결집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오늘날 네오샤머니즘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감독들은 대다수 카자흐인들의 무의식에 녹아 있는 침전물이자 문화 결정체였던 샤머니즘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과거 유목민의 삶이 배태한 카자흐인들의 정체성 확인과 샤먼의 의례를 통한 그들의 내적 치유, 그리고 아이의 생명력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건강한 미래를 염원하는 지향속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등장하는 샤먼의 캐릭터는 또 하나의 영화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세션Ⅲ(슬라브학회 세션Ⅰ)
: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발전과 전망

■ 사회 : 고상두(연세대)

■ 발표 :

방일권 -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연구
남혜현 -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문준일 -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 토론 : 황영삼(한국외대), 정경택(경상대), 오원교(한양대)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연구

방일권(한국외대)

목 차

I. 머리말
II.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사회 형성: 독립 이전까지
III. 중앙아시아 각국 독립 이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형성
1. 중앙아시아 독립 이후 러시아인 인구의 유출 및 이주 원인
2. 이주의 동기
3. 위축되는 러시아 디아스포라
가. 명목민족 우대 정책
나. 언어정책과 교육
다. 이중국적 허용 및 러시아인 협회 활동
라. 러시아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접근 가능성
4.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현재 상황
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모국인식
나. 2000년대 후반 각국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경제·사회적 상황
IV. 맺음말

I. 머리말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함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공화국간의 경계는 곧 국내 경계에서 국제적 경계로 바뀌었다. 그간 소련을 모국으로 간주하며 살았던 현지의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잇단 독립 선언은 스스로에게는 달갑지 않으나 역사적으로는 독특한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러시아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근외지역(ближное зарубежье)으로 구분되는 광범위한 영토에 존재하는 약 2,500만 명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얻게' 되었다.[1)]

18세기 이래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식민화라는 용어가 의미하는바 일방적인 틀 속에서 규정되었고, 이민의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2세기가 넘도록 러시아인은 이민을 통해 승자의 자리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 정치와 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불어 닥친 현지의 명목(titular)민족 우대 정책의 바람은 18세기 이래 역사에 묘사되었던 지배와 피지배의 일방적 흐름과 그 결과들을 역전시키는 파괴력으로 느껴질 여지가 충분했다. '러시아인 문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주요 외교 현안으로서 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했으며 경제, 문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국가 만들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긴요한 핵심적 해결 요망 과제로서 부각되었다.

1) 슬라브계 민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인 등을 지칭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글에서 '러시아인'은 슬라브계 민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500만 명의 근외지역 러시아인은 전체 러시아 인구의 18%에 해당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인접성 뿐 아니라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문제는 다차원적 연구 주제이다.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을 디아스포라로 부를 수 있는가[2]에서부터 독립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배적 민족 중심 정책, 새로운 국가의 민족 만들기, 체제 전환의 기관차격인 엘리트 연구, 독립 이후의 정치, 경제적 변화 등을 다루는 서구의 연구들[3]에서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주제다. 갑작스레 극적 반전을 보이는 현실 드라마는 그 자체로도 관심을 끌만 하지만 연구자들은 러시아인 문제가 중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영하는 창이자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민족정책과 관련되어 향후 국가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주목하였다.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도 적지만 개별 국가나 현상을 다루고 있어 중앙아시아 5개국을 아우르는 비교적 관점을 제공하는 글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4] 국내 연구 중에서는 손영훈의 연구가 카자흐스탄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같은 카자흐스탄의 정치 엘리트 통제 방안에 주목하는 현승수의 글이 있지만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를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구소련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러시아인 이주 문제를 다루는 김인성과 러시아 연방의 재외동포 정책을 다루는 우평균의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인 통계 등을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인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러시아인의 중앙아시아 이주사로부터 현재 중앙아시아 신생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러시아인 문제가 사회, 문화, 안보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성격의 문제로 부각되는지, 국가별로는 차이는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조명하는 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외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의 언어, 민족 정책과 러시아인 문제를 연결하는 시도를 해 왔으나 민족적 갈등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 러시아인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그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발전의 전망에 도움을 얻으려는 목적을 갖는다. '러시아인 문제'는 3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체성 강화 및 민족 정책과 연결해 가며 러시아인 문제가 갖는 파급 효과를 살피는 방식이다. 신생국들의 언어, 엘리트 충원 정책 등과 러시아인 문제를 연결하는 서구 측의 많은 연구가 대체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둘째는 러시아의 시각에서 근외지역에 대한 슬라브인 정책 및 대외정책(영향력 확대)을 살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사회의 변화와 반응을 살피는 방법이 있다. 즉 독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형성된 러시아인 사회가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기초로, 각국의 독립 후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이들의 대응과 변화 및 그 같은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로 마지막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자료를 기본으로 한 역사적 연구 방식을 따른다. 우선 독립 시기를 전후한 시기의 중앙아시아 각국 러시아인 사회에 관한 기본 통계 자료와 연구사에 기초해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제정러시아 시기 이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민을 통해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는 바, 이민의 방식과 이주를 추동한 요인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및 개별 국가의 독립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2) Neil Melvin과 Charles King은 국경 너머의 모든 민족 그룹을 디아스포라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러시아인의 이민은 자발적이었고 짜리 정부와 소비에트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등 국가로부터 후원이 있었다는 점, 게다가 근외지역의 러시아인은 국경이 결과로 자신들의 조국과 분리된 이들이라는 점에서 고전적인 '디아스포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King and Melvin(1999/2000), p. 113.

3) Melvin(1995); King and Melvin eds.(1998); Luong(2002); Laruelle and Peyrouse(2004) Космарская(2002); Космарская(2003); Космарская(2004); Kaiser and Chinn(1995); Khazanov(1995) 등이 있다.

4) 손영훈(2006); 현승수(2011); 김인성(2007); 우평균(2004); 우평균(2009).

이를 상호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서구 연구들에서 조명된 신생국의 주요 국내정책들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인의 반응과 그 후속 영향, 현지 사회의 반응 등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각국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러시아인 '문제'라는 말에서 풍기는 독립 이후 각국의 명목민족 중심정책과의 이항대립적 관점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II.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사회 형성: 독립 이전까지

광대한 열린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교류와 이민의 비공식적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역사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까지로 한정하자면 러시아인은 중앙아시아로의 대규모 이민사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이다. 러시아인들이 집단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첫 시기는 18세기 중반이다. 제정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확장함에 따라 코삭, 농민병사 등 짜르의 군대에 포함된 러시아 이민자들이 '새로운' 영토에서 식민 세력을 구성하였다. 농민과 구신도로 대표되는 일단의 종교적 피억압자들도 들어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경계 지역에 정착했다.[5] 18세기에 슬라브인들이 대규모로 투르케스탄 영토로 이동한 것은 군사적 점령과 병행된 현상이었다.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진행된 식민화의 시작인 셈이다.

슬라브인 이민의 다음 단계는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혁명(1917)기까지로, 이 시기의 이주는 제정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 문제들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러시아인의 중앙아시아 이민을 촉진한 주요 사건들로 농노제의 폐지(1861), 1880년대의 토지 고갈, 대기근(1891-92),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 그리고 П.스톨릐핀(Столыпин) 총리의 농업정책(1906-11)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르케스탄에 건설된 철도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한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건설된 철도를 이용한 농민 이주를 결과했을 뿐 아니라, 1900년대 초의 심각한 국내 농촌문제 해결과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한 농업정착화라는 스톨릐핀 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데 결정적 도구가 되어 주었다.[6] 1897년 전러시아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러시아(슬라브계)인은 4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스톨릐핀의 개혁 이후 급증하여 1914년 무렵에는 그 수가 150만 명에 육박했다.[7]

러시아혁명과 내전으로 이민자의 발걸음은 잠시 주춤했지만[8] 이후 몇 단계에 걸쳐 1950년대까지 이민의 높은 파도들이 밀어 닥친다. 수형자의 이탈 억제, 국경 및 전장지역 주민(독일, 코카서스인, 한인, 투르크인 등)의 강제이주 혹은 민족재배치, 전쟁기 동안의 산업계나 학계, 문화계 종사자 등 민간인의 대규모적인 소개(疏開) 등이 그것이었다. 러시아인의 중앙아시아 이민의 제 3기를 성격지우는 그 주요 물결들은 우선 1930-40년대의 집단화, 산업화, 스탈린 탄압 그리고 전쟁으로 추동된 것이었다.

가령 집단화와 '계급으로서의 쿨라크'(富農) 추방 운동이 주요인이 된 1926-39년 시기의 이

5) 우랄 강 연안, 알타이 산맥 지역, 이쉼과 토볼 및 상 이르트이쉬 강 연안 등의 지역에 해당한다.
6) 스톨릐핀은 러시아의 농촌문제와 카자흐스탄의 농업 개발을 위해 카자흐 초원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19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유목지를 몰수하고 4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농민을 대거 이주시킴으로써 러시아인 인구의 급증을 불러왔다. 손영훈(2006), p.122.
7) 인구 비중 면에서 현지민이 65%, 러시아인이 20%, 우크라이나인이 10% 가량을 차지하였다. Алексеенко (1981), с. 85; Золотухин (2009), с. 512 등.
8) 1926년까지 러시아인 이민자는 130만 명 정도로 인구의 21%에 해당했다. Масанов, Абылхожин, Ерофеева и др.(2001), с. 396.

주는 약 170만 명의 러시아인을 유럽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심이 우랄과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 제 2차 세계대전기를 거치며 더욱 늘어난 러시아인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산업화 및 러시아화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었다.[9] 스탈린 사후에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처녀지 개간'(1954-56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자원자'들이 서시베리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농장으로 달려가게 한 거대한 사업이었고 대규모 러시아 인구의 유입[10]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구 추이만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문화, 사회와 정치 각 영역에 중대한 변화를 추동하였다.

〈표 1〉 중앙아시아 거주 러시아인의 수, 1959-1989(천명, [ ]는 전체 인구 대비율)

	1959	1970	1979	1989
카자흐스탄	3,974[42.7%]	5,521[42.4%]	5,991[40.8%]	6,227[37%]
키르기스탄	623.5[30.2%]	856[29.2%]	911.7[25.9%]	916.5[21.5%]
우즈베키스탄	1,100[13.5%]	1,473[12.5%]	1,665[10.8%]	1,653[8.3%]
타지키스탄	262.6[13.3%]	344[11.8%]	395[10.4%]	388.5[7.6%]
투르크메니스탄	262.7[17.3%]	313[14.5%]	349[12.6%]	334[9.5%]

자료 출처: Peyrouse(2008), p.4; 손영훈(2006) 등.

혁명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러시아인의 중앙아시아 이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혁명 전의 이주는 병사와 일부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주의 주류를 이루는 이들은 농민층이었던데 비해, 소비에트 시기에는 북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이식쿨 지역의 집단농장들에 배치되어 농촌 지역으로 들어간 일부를 제외하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의 인구 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1939-59년 사이에 러시아인들이 몰린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산업 및 서비스업의 중심이 되는 거점 도시들이거나 주요 도시가 되어갔고, 러시아인들은 이들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가령 러시아인 이민이 정점에 달했던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중에 카자흐스탄은 슬라브계 민족이 약 400만 명으로 공화국 전체 인구의 반(52%)을 넘어 러시아인 이민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었는데,(〈표 2〉 참조)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중 약 80%는 페트로파블롭스크와 우스트-카멘노고르스크 등과 같은 북부 카자흐스탄의 공업 도시에 밀집해 거주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39년에 러시아인은 72만 7,000명으로 공화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11]했고, 특히 공화국 수도인 타쉬켄트의 집중율이 높아 시민의 42%가 러시아인이었다.[12] 1939년 투르크메니스탄 인구의 18.6%를 차지했던 러시아인은 1959년 인구조사시 그 비중이 17.3%로 떨어지는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1948년에 발생하여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수도 아쉬하바드 지진 참사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

9) 1941년에만 중공업을 중심으로 1500개의 공장이 이동하였는데 그중 1/5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만 100개 이상의 공장이 자리를 잡았다. Рыбаковский (1997), cc. 89-95.

10) 1959년 소련 인구 통계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622만 3,000명에 육박하여 지역의 전체 인구(약 2283만 명)의 27.3%를 차지했다.

11) 우즈베키스탄 거주 러시아인의 도시 거주율은 1970년에 98.1%, 1979년에 93.4%, 1989년에 94.8%로 계속 높아졌다. Nikolaev(1994), p. 112.

12) Лебедева(1997), c. 54. 1989년까지 타쉬켄트의 러시아인은 도시인구(230만 명)의 37%(85만 명)이나 되었다. 1935년에 만들어진 타쉬켄트 인근의 치르칙(Чирчик)은 소련 시절에 건설된 수력발전 시설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도시 인구(15만 명)의 대부분이 파견된 러시아인들이었다.

에 집중하여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다수 희생당한 것이다.

〈표 2〉 카자흐스탄 인구의 민족구성비(%)

	1926년	1936년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9년
카자흐인	58.5	38	30	32.6	36	40.1	53.4
러시아인	20.6	40.2	42.7	42.4	40.8	37.4	29.9
우크라이나인	13.9	10.8	8.2	7.2	6.1	5.4	3.7
벨로루시인	0.4	0.5	1.2	1.5	1.2	1.1	0.8
슬라브계 민족	34.9	51.5	52.1	51.1	47.9	43.9	34.4

자료출처: 손영훈(2006), p. 127 〈표 1〉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주요 도시에 집중된 인력들은 엔지니어, 의사, 교사, 기능인 등의 전문가들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의 발전 프로그램이 젊고 교육받은 러시아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불러들였고, 이주자들에게 정치, 행정, 경제적 결정권을 갖는 자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단계까지의 러시아인 이주는 밀물과 같이 중앙아시아로 향했고, 때에 따라서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추동이 된 파도를 동반하였다. 1989년까지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아시아 거주 러시아인의 수는 꾸준히 늘어남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러시아인들은 정부 정책의 직접적 영향 아래 이주했고, 산업을 중심의 도시들에 주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러시아인들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경제 및 산업 뿐만 아니라 언어나 교육, 문화적으로도 러시아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현지 토착 민족들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환경 속에 러시아인들은 생활해 갔던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중앙아시아 러시아인의 점진적인 수적 증가와 별개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은 1959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썰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흔히 다수의 러시아인이 중앙아시아를 떠나는 것은 소련 붕괴의 결과로 알려고 있지만 통계에서 러시아인 이민의 역전이 1991년보다 한 세대나 앞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이 드러난다.

1960년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선 현지 주민의 높은 출산율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인 비중이 가장 높았던 카자흐스탄의 경우를 보면 안정을 찾은 카자흐인의 출산율이 1959년에 상당히 올라간 결과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70년까지 -0.3%에 불과한 러시아인 인구 감소율이 이후 9년 만에 1.6%나 떨어진 것은 출산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첫째로 1960년대 이후 소비에트 정부가 조성한 중앙아시아 개발의 붐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그간 최고의 안전과 발전이 약속된 지역이었지만 처녀지 개척 운동이 포기된 이후로 발전의 기운은 꺾였다. 브레즈네프가 현지인 우선 채용정책을 채택한 시기도 이 때였다.[13] 게다가 1975년부터 본격화된 바이칼-아무르 철도(БАМ)[14]의 건설이 소

13)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정책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1964년 말에 카자흐인인 Д.А. 쿠나에프(Кунаев)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서기장으로 재임명된 것이다. 현지인이 대거 행정과 정치 분야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인이 행정, 문화, 정치 분야의 주요한 자리를 독점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현지 공화국 엘리트의 부상은 현지에 거주하던 러시아인에게 민족주의적 성향의 강화, 러시아인의 활동 무대 축소로 여겨질 수 있었다.

14) БАМ은 Бай кало-Амурской магистрали의 약자다. 1984년에 건설된 3,200km 길이의 철도로 제 2의 시베

련의 여러 공화국들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였는데, 인근인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이에 부응함으로써 러시아로의 인구 이동 요인이 발생했다.

둘째로 1970년대에 중앙아시아의 빠른 도시화로 현지 주민의 도시 거주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15] 도시화는 이전 시기에 추진된 산업화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은 결과였다. 산업 시설들의 유지를 위한 도시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인력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러시아인들 경우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 러시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귀환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현지로 이주하는 이는 줄어든 반면 귀환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러시아인은 1971년의 경우 11만 7,000명이었으나 1977년에는 8만 명, 1980년에 7만 6,000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16]

III. 중앙아시아 각국 독립 이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형성

소련의 붕괴와 옛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잇단 독립은 러시아 공화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던 슬라브계인에게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러시아인의 귀환을 추적한 한 연구는 소련 붕괴 후 10년 동안 러시아로 귀환한 러시아인이 100명이라면 출발 지역별로 우크라이나로부터가 20명, 카프카즈로부터가 17명, 발틱 국가로부터가 3명인데 비해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부터 이주한 이는 50명을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17] 구소련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게 더 큰 염려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독립 이후 현지의 러시아-슬라브인들의 이주 및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형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해당 지역의 러시아인 사회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형성과정, 주요 국내 정책에 대한 러시아인 사회의 반응과 고민 등을 살펴보면서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중앙아시아 독립 이후 러시아인 인구의 유출 및 이주 원인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를 살피는 일은 먼저 공식적인 인구 통계를 기초로 러시아인 사회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리아 철도로 불리기도 한다.

15) 농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1970-79년 사이에 도시거주 인구 비중이 70%에 이르렀다. 영토가 넓은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그 비율이 떨어지나 50%를 상회하였다. Рыбаковский (1996), c. 70.

16) 가령 카자흐스탄의 경우 1970년대에만 약 5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 대부분이 슬라브계 인구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러시아인의 이주는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어 카자흐스탄에서 매년 약 6만에서 8만 5,000명에 달하는 급격한 귀환이라는 형태를 띠었다. 1980년대에 카자흐스탄은 78만 4,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그 대부분은 러시아인의 귀환에 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러시아인의 감소 비율은 말하자면 거주인구 1천 명 당 1,256명이 귀환한 셈인데,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은 요인은 카자흐인의 높은 출산율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Тишиков(1992); Рыбаковский (1996), c. 69; Сужиков, Татимов, Ахмеджанов и др.(1993), c. 139.

17) Боробьева(2001), c. 25. 1991년에서 98년 사이에 러시아로 들어온 210만 명의 러시아인 중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이들이었다. Smith(1999), p. 502.

〈표 3〉 중앙아시아 거주 러시아인의 수, 1989-2010 ([ ]는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연도	1989	1999-2000	2010
카자흐스탄	6,227,000[37%]	4,479,000[30%]	3,793,800[23.7%]
키르기스탄	916,500[21.5%]	603,000[12.5%]	394,680[7.2%]
우즈베키스탄	1,653,000[8.3%]	약 900,000[3%]	약 500,000[1.78%]
타지키스탄	388,500[7.6%]	68,200[1.1%]	50,000이하[2%미만]
투르크메니스탄	334,000[9.5%]	약 120,000[2%]	150,000이하[2%미만]

자료 출처: Peyrouse(2008), p.4; The results of the national population census in 2009 (http://www.eng.stat.kz/news/Pages/n1_12_11_10.aspx);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09) 및 (2011); Доклад(2010);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 2011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 귀환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다. 1989년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은 600만 명 이상이었으나 2000년에 약 450만 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30%로 급감했다. 이는 매년 15만 명이 카자흐스탄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마치 썰물과 같았던 러시아인 이민의 흐름이 절정을 이룬 시점은 1990년대 초였다. 독립 선언 이후 불투명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던 1992년 4월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2005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발전전략'의 영향이 특히 심대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선언은 사실상 '카자흐 국민의 나라' 건설의 천명과 그 수단으로서 카자흐화 정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17만 129명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을 떠난 이래, 1999년까지 약 100만 명이 이주했다.[18] 탈출하는 이민자의 수가 정점에 이른 해는 1994년이었는데 한 해 동안 짐을 싼 50만 명 중에서 러시아인이 약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9-2011초 사이 키르기스탄 러시아인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89-99년간에 그 규모가 1/3이상 줄어들었고, 이후 2011년 초 현재 394,680명으로 다시 50%까지 줄어들었다[19]. 2011년에 러시아인은 전체 키르기스탄 인구(5,477,620명)의 7.2%(슬라브인 포함시 비중은 7.6%)를 차지한다.[20]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인 이민 흐름을 살펴보면, 1989-91년 사이에 약 15만 명을 기록한 후 1993년에 정점(10만 명)에 이르렀다가 이후 2000년 무렵까지 매년 9,000명에서 1만 명이 떠나는 선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매년 15,000명꼴로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1] 특히 남부의 오쉬 주에서 러시아인들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1989년에 68,300명이던 러시아인은 10년 뒤 14,000명 선으로 줄었고, 다시 10년 후인 2011년 현재는 5,930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했다.[22]

18) 1993-99년 시기 러시아인 이민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94년-283,154명, 1995년-160,883명, 1996년-120,427명, 1997년-174,614명, 1998년-186,397명, 1999년-89,998명. Oka(2002), p. 4.

19) 우크라이나인 18433명, 벨로루시인 1186명 합하면 414,299명이었다.

20)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1), c. 101: 표 1-13.

21) 이는 2005년에 있었던 튤립 혁명과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키르기스탄 러시아인의 러시아 이민을 확대 허용한 정책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5년에 러시아 정부는 그간 1만 명 선이었던 키르기스탄의 러시아 이민을 2만 5,000명까지로 확대했고 국내의 복잡한 사정을 이유로 2006년에는 약 6만 명에 달하는 이민 희망자들의 서류를 처리했다고 알려져 있다.(Peyrouse(2008), p. 4). 물론 이중에는 키르기즈인 이민 희망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러시아인이었다.

22)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1), c. 101. 대부분의 러시아인

20여 년간의 러시아인 관련 인구 통계에서 변하지 않는 점도 있다. 그 하나는 비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인이 우즈벡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민족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3] 다른 하나는 츄주(Чуйская область)[24]에 집중된 거주이다.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인들은 나라의 7개 주(지역) 중에서도 카자흐스탄과의 경계이며 수도를 포함하고 있고 러시아인의 상대적으로 긴 이민사를 가진 지역인 츄주에 집중되어 살고 있었다. 즉 2000년까지 러시아인이 주 인구 구성의 14% 미만을 차지했던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 츄주에 32% 그리고 수도인 비쉬케크에 1/3이 집중되어 이들 두 거주 중심지역의 인구가 전체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2/3에 육박했다. 이민으로 인해 비록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츄주의 전체 인구(814,870명) 중에서 러시아인(156,85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였고, 수도의 경우 859,795명의 인구 중 러시아인이 21.3%(182,847명)였다. 양자를 합하면 339,701명으로 키르기스탄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86%가 수도 및 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러시아인의 적극적인 진출 지역으로서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 지역 정착자 비율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었다.[25] 이런 면에서 양국은 제정러시아 시기 이래 러시아인 이주의 흐름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한 서방측 연구 조사를 보면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르면 잔류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확실히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들은 59.3%가 스스로를 소수민족으로 본다고 대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한 이의 비율(32.3%)을 크게 상회했고, 키르기스탄의 경우에도 그렇다가 67%였던 반면, 아니다는 답은 28.5%에 불과했던 것이다.[26]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1989년에 소수민족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가져다 준 민족 갈등 및 그 결과로서 1차적인 대규모 이민을 경험한 바 있다.[27] 당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8.3%로 비교적 적으나 절대 수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2위의 규모(165만 3,000명)를 기록했던 러시아인은 메스헤티아 터키인과는 달리 도시에 집중된 생활 배경과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도 우월한 입장에 있었음에도[28] 1990년대 들어오자 매년 5%(약 7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탈출하는 대규모 이민의 흐름이 나타나 러시아인 사회는 절대 수에서 거의 50%가 감소했다.[29]

은 오쉬 시에 거주(5530명)하며 오쉬 시를 제외한 오쉬 주의 러시아인은 모두 1400명에 불과했다. 다른 슬라브인의 경우도 추이는 비슷하며 감소 폭은 러시아인보다 더 컸다. 즉 8200명(1989년)에서 1300명(1999년)으로 크게 줄었던 우크라이나인은 2011년 현재 401명으로 러시아인보다 감소폭(-70%)이 더 컷다. 1989년에 1100명이었던 오쉬 주의 벨로루시인은 1999년에 100명으로, 다시 2011년에는 5가구 남짓에 불과한 24명만 남아 있다.

23)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규모는 우즈벡인의 약 1/2 가량(키르기스탄의 우즈벡인은 78만 5977명이다)이다.

24) 1939년에 푸룬제 주로 출발였다가 1990년에 강 이름을 따라 츄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세기 초까지 정주인구가 거의 없던 곳이었으나 러시아의 팽창과 함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인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개발되어 오늘날에는 키르기스탄에서 산업과 농업이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꼽힌다. 츄주는 키르기스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비쉬케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쉬케크는 츄주와 분리된 특별행정지역이지만 츄주의 행정 중심지이기도 하다. 지역 개발의 역사적 배경으로 1989년까지 츄주의 키르기즈인 인구 비중은 30% 미만이었던 반면 러시아인은 38-42%, 우크라이나인은 5,4%(1989)-20%(1939)로 슬라브인의 중점 거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5)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인 농촌 정착자 비율은 각각 28%와 30%로 타 공화국들(6% 미만 수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Buckley(1998), p. 74.

26) 나머지 약 8.5%(카자흐스탄)-10%(키르기스탄)는 대부분이 판단이 곤란하다고 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Barrington, Herron and Silver(2003), p. 299.

27) 1989년 페르가나주 쿠사바 마을에서 일어난 민족 갈등으로 100여명이 사망하자 연방정부가 이지역의 메스헤티아 터키인 약 5만 명을 러시아로 이주시킨 일을 말한다. 갈등은 배경은 스탈린 시대에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강제이주된 메스헤티아 터키인들이 이슬람 시아파로 수니파 신앙을 가진 우즈벡인과 민족, 문화,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8) 1989년 당시 러시아인의 95%가 도시에 거주했고, 그중 42%는 수도인 타쉬켄트에 살고 있었다.

1989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 주요 거점들에서 러시아인 인구 비중의 변화 역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타쉬켄트에서 러시아인은 14.64%에서 9.29%로, 시르다리아(Сырдарья) 주에서는 9.97%에서 5.81%로, 페르가나(Фергана) 주에서는 5.78%에서 2.63%로, 지작(Джизак) 주에서는 4.38%에서 2.11%로, 안디잔(Андижан) 주에서는 2.59%에서 1.12%로, 카쉬카다리야(Кашкадарья) 주에서는 2.35%에서 1.18 %로 줄어들었다.[30]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인 이민자의 수와 감소의 폭은 줄었으나 2011년 현재 약 50만 명으로 추정(CIA 국가 통계)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전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1]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정확한 인구통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지만, 1989년 당시 전체 인구의 9.5%(33만 4,000명)를 차지하던 러시아인은 현재 15만 명 이하로 전체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2] 1993년에 러시아와 이중국적 보유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90년대 러시아 이민자의 탈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투르크메니스탄이었으나[33] 2000년대 들어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노골적인 반러시아적 발언과 특히 2003년에 나온 이중국적자의 권리 압박 조치가 이중국적 보유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러시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34]

러시아인의 약 85%가 국경을 넘은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인의 이탈로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89년경 약 1만 명이었던 러시아인 이민자는 1990년 2월에 일어난 두샨베의 '뜨거운 2월' 소요사태시 '타직인을 위한 타지키스탄!' 및 '이슬람 공화국 창설'과 같은 구호들이 쏟아진 후 부쩍 늘어났고, 이 소요사태 이후 1992년에 본격화된 내전을 거치면서 러시아인 커뮤니티의 약 50%가 이주하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35] 특히 러시아인이 집중되었던 수도 두샨베에서는 1989년 32%가 넘었던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이 1996년에 17%로, 2000년 말에는 5.1%(3만 4,000명)로 급감했다.[36] 결국 1992년까지 약 39만 8,000명(인구의 7.6%)을 헤아리던 러시아인이 1993년에만 20만 명 이상 떠나게 됨에 따라 포스트소비에트 공화국 중 가장 빠른 시간에 러시아인 커뮤니티가 반쪽으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전체 인구 비중에서도 2000년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은 6만 8,000명으로 1%도 되지 못했다. 잔류 러시아인의 대부분은 연금생활자이거나 러시아에 연고가 없는 이들이다.[37]

---

29) 한 연구에 따르면 1990-97년 사이에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1990년도에 매년 5%의 러시아인(약 7만 5,000명) 가량이 이민을 떠난 셈이다. Максакова(1999), c. 238.

30) Зинин(2003)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2003년 5월 23일에 발표된 이 글에서 지닌은 2000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 수를 111만7,55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78%로 계산하고 있다.

31) 우즈베키스탄은 1989년 이래 공식적인 인구조사 상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 추정치들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2011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2839만 4,000명 가량으로 발표되고 있으며(http://stat.uz/demographic 참조), 그중 러시아인은 대략 1.78%로 알려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러시아인들의 목적지는 러시아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흐름이 두드러지는데, 이 나라로 향한 러시아인 이민자는 2003년에 2만 8,000명, 그 이듬해에는 3만 2,000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는 러시아로 들어갔던 이민자들이 되돌아오는 경우와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로부터의 러시아인 이민자들로 구분되는데 후자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이민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Peyrouse(2008), p. 5 참조)

32) Константин Затулин은 2003년 당시 발표한 연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내 러시아인의 수를 30만 명까지로 보고 있다. Затулин(2003). 이처럼 대단히 권위적인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보의 부재로 추정치들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33) 1995년 무렵 러시아인은 투르크메니스탄 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eyrouse(2008), p. 5.

34) 2003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중국적 소유자는 10만 명 가량이었고, 그중 90%이상이 러시아인이었다고 한다. Затулин(2003).

35) 타지키스탄의 1990년 2월 소요사태는 내전의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장병옥(2008), pp. 147-174 참조.

36) 소련 시절에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 중 약 2/3가 수도에 거주했다.

2. 이주의 동기

8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이주했던 1993-94년 시기는 중앙아시아 이민사에서 인구 유출의 정점이라 할만 했다.[38] 하지만 이후로 러시아인의 유출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고 이후 국가별로 약간씩 다른 추이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1995년부터 러시아인 이민의 추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독립을 전후하여 중앙아시아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들은 대개 1990년대 초에 이민을 결행했다. 당시 이민을 결심하게 된 주요인으로는 3가지가 꼽히고 있다. 즉 현지의 악화되는 경제적 사정과 언어 정책, 그리고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그것이다.[39] 신생국들의 독립 이후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독립 직후에 실시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독립 국가의 미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는 러시아인이 키르기스탄(36%)이나 우즈베키스탄(43%)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타지키스탄에서 6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40]

그런데 사회학적 연구들을 보면 19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타지키스탄 내전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이주를 감행해야 할 예외적 경우[41]를 제외하면 악화되는 경제적인 상황이 러시아인의 이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음이 발견된다.[42] 현지의 경제적 상황으로 당장 재산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신생 독립국들의 까다로워진 이민 관련 법적 요구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 결과 1994-95년 및 1998-99년에 진행된 사회학적 설문 조사를 보면, 설문에 임한 러시아인들 중 이주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는 10% 남짓으로 유사했지만 이주 희망자 비율은 1994-95년에 80% 이상에서 1998-99년에 60% 가량으로 감소하였다.[43]

이주의 목적지인 러시아의 사정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 역시 어려웠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이민 정착지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결국 안정된 삶이 곤란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신생 러시아 역시 국적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이민자들의 러시아 국적 획득이 곤란해진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44]

---

37) 이상의 통계는 Олимова(2005)를 참조. 이 글에서 지적된 대로 2001년 이후 러시아인 이민의 흐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 인구를 5만 명 이하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또한 Мурадов, Полоскова, Затулин и др.(2006), сс. 130-133도 유용하다.

38) 요약하자면, 1993년에 러시아인의 이중국적 보유가 허용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카자흐스탄에서 30만 명(1994년), 키르기스탄으로부터 10만 명(199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20만 명(1993-94년)이 국경을 넘었다. 내전 발발 이듬해였던 1993년에 타지키스탄으로부터도 20만 명 이상(1993년)이 탈출했다.

39) Рыбаковский (1996), с. 79.

40) 윗글.

41) 1994-95년경의 조사를 보면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 중 이주를 희망한 이의 약 80%가 실제 떠날 날자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Олимова(1999), с. 226.

42)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에 잠재적인 이민자의 50% 이상이 현지의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경우 잔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Витковская(1996), с. 89.

43) 이상은 Витковская(1999), с. 191; Садовская(1999), с. 132 등에서 발췌. Витковская의 연구를 보면 1998-99년의 경우 나라별로 이주 희망자나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이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43%의 러시아인이 이주를 희망했으며 그 중 20%가 구체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인은 38%가 이주를 희망했지만 실행자는 8%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34%의 이주희망자중 4%만이 실제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44) 이는 푸틴 정권이 2006년 6월 이래 추진한 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통해 약 3년 동안 30만여 명의 근외지역 러

결국 1990년대 초에 떠나기를 결심했던 러시아인들이 대거 빠져 나간 상황에서 잔류자들은 러시아에 몰아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앞서 떠난 이들의 정착 실패 사례들을 듣게 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 초까지 지속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률 정비와 이민의 과정이 뒤섞여 전반적으로 혼란한 상황 아래에서 이주를 통한 생활 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즉 불안한 현실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역사적 고국의 방관적인 태도[45] 등이 이주의 결행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여기에 신생 독립국들의 언어 및 민족정책에 대한 러시아인 사회의 민감한 반응 문제도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목민족 언어의 국가어 확정을 골자로 하는 신생 독립국들의 언어 정책은 러시아인의 중앙아시아 탈출을 부른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989년 7월 22일(타지키스탄)을 시작으로 1990년 5월 24일(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명목민족의 언어를 국가어로 제정하는 일련의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언어 문제는 독립 이전부터 신생국들의 주요 관심이었다.[46] 언어법안들을 통해 각 민족어의 지위는 물론 고양되었으나 러시아어의 위상과 역할도 일정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1990년대 초는 러시아어의 우월적인 지위가 변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 독립국가들의 언어 정책 발표는 그간 러시아인들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현지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미래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더 이상 자녀들의 장래가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이주를 결정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염려는 언어정책 및 이슬람 문화 부흥 정책의 요구 등 러시아어와 그 문화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인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에게 기회의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내전으로 접어들면서 국가 발전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75%나 되었던 타지키스탄의 경우 러시아인의 80%가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응답자 중 24세 이하의 젊은 세대 중 타지키스탄을 떠나고 싶다는 비율이 88%로 나타나 77%가 떠나고 싶다고 한 연장자들에 비해 높게 나왔다.[47]

러시아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누려 왔던 우월적 지위 역시 당국의 정책적 이민의 영향의 받은 바가 크다. 개인의 행정, 기술적 역할을 기대하며 당국은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을 이주시켰으며, 중앙아시아 러시아인들의 활동은 정책의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도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인 이민자들은 안정과 높은 수준을 삶을 보장하는 성공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에 의존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왔다. 이민자들의 이 같은 특성으로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도시에 거주했고[48], 중앙아시아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는 물론이고 문화적 활동 이외에 자신들만의 조직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현지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지

시아인이 러시아 국적을 받은 사례에서 두드러진다. 즉 그간 국적 획득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대거 러시아 국적이 부여되었던 것이며, 그들 대부분(80% 이상)이 중앙아시아로부터 러시아로 들어온 이들이었다.(우평균(2009), pp. 256-258) 정확한 수치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다룬 통계들에 기초해볼 때 2006년 이후 중앙아시아를 떠나 러시아로 들어온 이들의 대부분은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들로 여겨진다.

45) 2006년 6월에 개시된 푸틴 정부의 러시아인 귀환 프로그램 추진 이전까지는 역사적 고국의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46) 명목민족의 언어를 국가언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언어법 통과 시기는 타지키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이 1989년 9월 22일, 키르기스탄이 그 다음날인 9월 23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1989년 10월 21일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만 1990년이었다. 2000년경까지 중앙아시아 각국의 언어정책에 대해서는 허승철(2002)을 참조.

47) Олимова(1999), c. 225.

48) 1989년 당시 카자흐스탄 거주 러시아인의 77%가 도시에 살고 있었다. 반면 카자흐인은 시골 거주율(62%)이 높아 대조를 이룬다. Oka(2002), p. 13.

식이 낮았고[49], 그와 관련하여 현지 민족의 낮은 경제 수준이나 이들의 신념체계(이슬람 등), 현지민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 등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를 떠난 러시아인 이민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확인된다. 가장 많은 수의 러시아인이 떠난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면,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은 러시아인의 이주자 비율은 1994년에 39%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 44%로 증가하였다.[50] 여기서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이주의 흐름을 한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인 이민자의 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1994년경까지의 이주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지역 국가의 독립이라는 상황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를 고민하던 시점이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이민이 가져다 줄 결실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러시아인 이주의 기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고학력 러시아인의 이민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민자의 64%는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연령(20-55세)이었고 유소년층은 22%였다.[51] 양자를 합해 86%나 되는 러시아인이 이주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현직에 있던 전문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자신과 2세들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인의 이주 동기로 가장 보편적 요인인 러시아인의 지위 및 이에 맞물린 생활수준의 하락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타지키스탄과 같이 내전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52]도 있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에 구소련 지역 전반이 공통적으로 경제 상황 악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주의 동기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염려가 동시에 반영된 복합적인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인 이민자들은 소비에트 강국의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주한 이들이었다. 소비에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1991년 이후의 러시아인 이주에 있어서도 당국의 정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즉 그들은 1991년 이후에 독립 중앙아시아 정부들이 그간 특혜를 누린 대표적인 민족으로 각인된 러시아인을 건듦으로써 자민족 우선 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부각시키는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스스로를 인식하였다. 물론 이는 민족정책, 언어, 교육, 산업과 사회 구조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앙아시아에 미친 소련의 영향력이 그간 얼마나 컸는가를 반증한다.

3. 위축되는 러시아 디아스포라

1990년대 대규모 이민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에 잔류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0년대 이후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현지에 뿌리를 내린 정착자들로 간주할 수 있을까? 러시아인 이주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문제들-민족정책, 언어정책,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기타 각국의 비명목민족 관련 사회·문화 정책은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류한 러시아 디아스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관련된 사안별로 각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49) 러시아인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면 1970년 인구조사에서 카자흐어를 잘 구사하는 러시아인은 3.1%였으나, 1989년 조사에서는 0.8%로 크게 줄어들었다. Oka(2002), p. 3.

50) Климова(2001), c. 209. 다른 국가들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예외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51) Алексеенко(2001), c. 96.

52) 1991년과 내전 발발 후인 1994년을 비교하면 경제성장율은 -49%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병호(2009), p. 188.

가. 명목민족 우대 정책

명목민족 중심 정책은 1990년대 후반기 동안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독립 이후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동등한 시민권과 다수를 차지하는 명목민족이라고 하여 소수 민족보다 우월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써 민족 문제가 신생국의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53] 하지만 헌법이나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들을 보면 이러한 선언에 부분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러시아인이 가장 많은 카자흐스탄은 1990년 9월의 주권선언에서부터 카자흐인을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민족'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표현은 1995년 헌법에서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스탄인들(kazakhstanis)과 민족적 카자흐인의 국가'로 규정하는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투르크멘인이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54]

특히 독립 이후 명목민족들의 독점은 정치계에서 두드러졌다. 1994년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카자흐인의 독점적 지위를 확인했던 카자흐스탄에서 1999년 선거는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던 러시아인에게 더욱 초라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 해 선거에서 러시아인 5인이 29석의 상원의원석을 노렸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하원에서도 카자흐인은 55석(74%)을 획득한 반면 러시아인은 19석(26%)에 그쳤던 것이다.[55] 2005년까지 주변국의 상황도 유사하다.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 의원은 단 5명(총 250석 중)이다. 1995년 2월 선거에서 87%의 의석을 현지 민족이 차지했던 키르기스탄의 경우 2005년 선거에서 총 74석 중 의석을 차지한 러시아인은 4명이었다.[56]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의석을 차지한 러시아인이 한 명도 없다.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주요직을 비롯한 공직 부문에서 러시아인들의 퇴조가 눈에 띠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정부 내 주요 부서장들[57]의 민족 비율에서 러시아인 출신은 10% 미만이었다. 일반 관리 중에서 경찰, 안보, 교육 등에서는 카자흐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지고 있다. 고등교육자가 많은 러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부에서조차 러시아인 관리의 비중은 1989년 43%에서 5년(1992) 만에 14%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8] 중앙아시아 5개국 평균을 살펴볼 때 공무원직의 90% 이상을 명목민족들이 장악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59]

후보자의 민족을 의회 선거 출마의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여 3대까지의 민족 출신을 따지도록 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입법 분야 만이 아니라 행정부 전반의 공직 선출과 임명에서도 러시아인의 진출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 출신을 따지는 문제는 단순히 민족을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후원-수혜 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의 문화적 풍토에서 자원 배분권을 둘러싼 역학 관계의 재편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접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

53) 동등한 시민권은 각국의 시민법에 보다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귀화신청 요건이나 이중국적 인정 문제에 관한 규정은 차이가 있다. 김인성(2007) 참조.

54) Peyrouse(2008), p. 12 참조.

55) Эшмент(1999). c. 176.

56) 2009년 선거에서는 90석중 러시아인이 7명으로 7.7%였고, 우즈벡인이 4명(4.4%)으로 민족별 인구 비중으로 보면 앞선 선거에 비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7) 핵심 부서인 내무, 외무, 국방, 재무, 법무부의 장관들을 의미한다.

58) 2000년경 국가행정부처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였다. 손영훈(2006), p. 133.

59) Peyrouse(2008), p. 14. 소련 시절에 러시아인 및 기타 러시아어 구사 민족들은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들 분야의 자리들까지 상당한 민족화가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언어정책과 교육

언어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명목민족 우대 정책과 러시아인의 공직 진출 제한에서 각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언어법의 규정들이 소수민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명목민족의 언어를 국가언어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언어정책은 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명목민족들과 러시아인을 포함하는 제 민족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강력한 사회, 문화적 파장을 가져왔다. 언어법의 제정은 곧 소비에트와 러시아인의 지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자 새 언어정책을 통해 독립국가의 국민교육을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언어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1989년 10월에 언어법을 제정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법안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항의 등 적지 않은 파동을 경험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언어법을 통해 우즈벡어를 유일한 국가언어로, 러시아어를 민족간 공용어로 규정했다. 공식 국가어로서의 우즈벡어의 지위는 우즈벡어를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하며(6조), 정부 고위직 임명시 우즈벡어 구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5조)는 규정이나 모든 공무의 수행, 회사 및 기관에서 우즈벡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7조)는 조항 등을 통해 확인된다. 동시에 민족간 공용어인 러시아어도 학교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인정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조항(15조)이 포함되어 있었다.[60]

우즈베키스탄의 언어법은 1995년 12월에 개정되었다. 변화의 핵심은 우즈벡어를 행정, 사법, 입법, 대중 매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정하면서 '타 언어들'의 이용도 허용한다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의 우즈벡어 습득 필수조항(28조)과 우즈벡어 필수 교육 조항(6조)이 삭제되고, 경제 및 통계 서류들을 우즈벡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8조)에 대한 8년간의 유예도 규정되었다.

이처럼 89년 언어법에서 후퇴한 듯한 외견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개정 언어법은 러시아어를 다른 비우즈벡 언어들과 동등한 지위로 격하시킴으로써 민족간 소통어의 지위까지 박탈하려는 조치라는 평가도 가능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일반교육에서 교육의 매개어가 우즈벡어로 급속히 전환되는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식언어를 강화하는 언어법과 별개로 러시아어는 수도의 일상생활의 영역을 넘어 행정 절차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에 나온 새로운 언어법이 모든 국가기관에서 우즈벡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2005년까지 실행이 연기됨으로써 사실상 인위적인 국가의 언어 강제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였다.[61]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가는 적어도 일반교육에서 러시아어의 확산을 막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약 12%의 공립학교 학생들(56만 명)이 러시아어로 공부했지만 2004년-05년에 그 비율은 5.6%(27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교육 매개어로 삼는 학교는 93개로 나타났는데, 그중 약 절반이 수도 인근에 위치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다.[62]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러시아어 교육 환경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후반 이래 러시아어는 외국어 학부에 소속된 전공의 하나로 전락하였고, 1996년에서 99년 사이에만

60)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정책은 허승철(2002), pp. 337-339 및 Зинин(2003)을 참조.

61) 2005년에는 우즈벡어의 표기에서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키릴어를 로마자로 표기토록 하는 조처가 발효되어 이미 학교 교육을 마친 이들을 중심으로 우즈벡어의 사용이 더욱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2) 우즈베키스탄 제 3의 도시인 안디잔에는 러시아인 학교가 단 1개였다. Зинин(2003).

전공자가 53%나 감소했다.[63] 정착하기로 한 연로한 세대의 러시아어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환경이지만 젊은 세대의 러시아어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형편이라고 하겠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헌법 및 언어법과 국가 주도의 카자흐어 진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어로서의 카자흐어의 입지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오고 있다.[64] 그럼에도 러시아어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로 남아 있다. 잔류를 결정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카자흐어 습득의 수준도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3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3%의 러시아인만이 카자흐어를 잘 말하며 74%는 전혀 하지 못했다. 1995년에 헌법을 통해 카자흐어 숙달의 의무를 부여받은 공공부문 종사자 러시아인들의 경우에도 55%가 카자흐어 문장의 일부만을 이해하는 수준이며, 22%는 카자흐어의 이해력과 구사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65] 공공 영역에서 여전히 러시아어가 실제로 우세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카자흐인이 다수를 이루는 서부나 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일상어로서의 러시아어의 지위는 여전하다. 교육에서도 국가의 노력과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에 대한 선호는 변함이 없음을 암시하는 지표들도 나타난다. 말할 것도 없이 신생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를 교육 매개어로 하는 학교들에 대해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이미 2000년에 학생의 50.6%(160만 명)이 카자흐어로 수학하여 러시아어로 공부 중인 학생의 수(150만 명-45%)를 추월했다.[66] 하지만 일반교육 분야가 아닌 전문학교들의 경우에는 러시아어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고, 공격적인 자국어 지원 정책 속에서 초중등 과정에서 러시아어 학교의 뚜렷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노어와 카자흐어를 교육어로 병행하는 학교의 수가 여전히 전체 학교(약 8천개)의 1/4을 차지하고 있다.[67]

키르기스탄의 언어정책도 앞의 두 나라와 출발은 같았으나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68] 즉 1992년에 독립 정부는 89년의 언어법을 완화하여 '조직 구성원의 70% 이상이 러시아어 사용자인 경우 러시아어를 행정어로도 쓸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어서 1993년도에 국가어인 키르기즈어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어의 자유로운 사용도 함께 보장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2000년 5월에 나온 새로운 법에는 러시아어에도 공식어의 지위를 부여했고, 이를 계승한 2003년도 헌법에서는 키르기즈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국가언어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 언어로 지위를 격상시켰다.[69]

러시아어에 대한 키르기스탄의 관용적 자세는 러시아인보다 자국민의 요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많은 국민이 러시아에 가서 일하며 또 계속적으로 노동이주 희망자들이 노어 습득

63) Зинин(2003).

64) 1989년의 언어법에서 공식언어로 규정된 카자흐어는 1996년의 언어법 개정안과 1997년 7월 11일의 새로운 언어법에서 공식적인 행정언어로 지위를 확고히 했고, 2001-10년간의 언어 운영과 발전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에서도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65) Алтынбекова(2007), c. 53.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손영훈은 1989년과 1999년의 인구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나 러시아인 사용자 집단에서 카자흐어에 대한 학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1989년 1%에 불과하던 러시아어 사용집단의 카자흐어 구사능력이 1999년에는 러시아인의 15%, 우크라이나인의 13%가 카자흐어 구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손영훈(2006), p. 139.

66) Ертысбаев(2001), cc. 250-251.

67) 2000년도에 간호학교의 경우 전체의 24%가 카자흐어를, 45%가 러시아어를 교육어로 택하고 있었다. 아울러 8천개 학교 중 카자흐어를 교육어로 택한 학교가 3500개(44%)였고 러시아어 학교가 2365개나 감소했으나 2개어 병행 교육학교의 수는 2000개나 되어 러시아어에 대한 선호가 감지되기에 충분했다. Ертысбаев(2001).

68) 키르기스탄의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Орущбаев(2003), cc. 146-160을 참조.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의 개정된 언어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키르기스탄의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키르기즈어 필기(문서작성)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에는 2005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었고, 2005년 튜립 혁명 이후 2006년 헌법에서도 이중언어가 인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유야무야되어 있는 상황이다.

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명목민족 중심의 언어정책이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70] 2006년을 기준으로 키르기스탄에는 러시아어를 교육매개어로 하는 133개의 초-중등학교 외에 러시아-키르기즈의 이중 혹은 우즈벡어까지 포함해 삼중 언어 교육을 시행하는 490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

국가의 언어정책과 러시아어 교육 기회의 확대 노력에 힘입어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인 자제들은 95%이상이 러시아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키르기즈인과 제 1의 소수민족인 우즈벡인들 역시 러시아어 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 지역으로의 노동이주 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의 러시아어 교육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던 러시아인의 이주가 직접적 원인인 인력의 부족과 국가의 재원 문제로 인해 소련 시절과 같은 러시아어 교육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9년 언어법은 우즈베키스탄을 모델로 하였고 1994년 헌법에서 타직어를 국가어, 러시아어를 민족간 소통어로 규정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언어 상황은 대체로 키르기스탄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72] 다만 타지키스탄은 첫 언어법 준비 시기부터 다른 공화국의 경우와 달리 유연한 법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타지키스탄은 언어법의 각 규정이 시행되어야 할 시한을 못박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다. 이는 공화국 내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갑작스런 언어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염두에 두면서도 명목민족의 권위와 감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늦게 언어법을 발의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언어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고한 명목민족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러시아인의 이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었던 국가였으나, 언어정책에서는 1992년 헌법 제정시부터 러시아어의 공식적인 지위를 폐지했고 그 영향력을 현저히 줄여나가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2000년 1월 1일의 대통령 선언처럼, '투르크멘의 갱생은 국가언어의 재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니아조프의 확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대통령의 선언을 기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관리는 더 이상 러시아어로 말해서는 안되었고 러시아어로 공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민족 차별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한 소수 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교육의 자유 문제로서 국가어를 배워야 하는 국민된 의무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러시아어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이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인협회(русская община)의 회장인 아나톨리 포민(Анатолий Фомин)에 따르면 2000년 초에 이르러 '러시아어는 사실상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사라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학에서 러시아어과는 문을 닫았고, 일반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러시아어 교사의 양성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다.' 1991년에 1,500개에 달하던 러시아어 학교는 2002년부터 단 하나, 그것도 현지 러시아 대사관 소속의 학교로만 남은 실정이다.[73]

포민의 언급에 러시아어의 위기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

70) 연구자 자하로바는 '키르기즈어 사용자 국민의 80%는 자국에서 러시아어의 지위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Захарова(2006).

71) 이에 비해 키르기즈어만을 교육매개어로 하는 학교는 1300개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 고등교육기관으로 키르기스탄 최고의 명문 대학의 하나로 인정받는 러시아-키르기즈 대학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교사의 수급에 일조하고 있다. Peyrouse(2008), p. 18.

72)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Наш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를 참조.

73) Гафарлы и Гущин(2003). 포민은 러시아어의 사멸 위기와 대조적으로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30개의 터키 김나지아에서 학생들에게 터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 전체에서 러시아어를 배울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1년 당시 외국어로라도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2천 여개에 달하던 학교의 수가 1990년대에만 2/3이나 줄어들었고, 2000년에 들어 100개 이하로 떨어졌다. 5년 후에는 다시 그 반인 50개 가량의 학교에서만 학교당 1개의 러시아어 교습반이 운영되는 실정인데 그나마 투르크멘어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상황이다.[74]

2006년 니아조프의 사후 일반 학교와 대학들에서 러시아어 교습반의 개설이 허용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당장 준비된 교사 및 교재의 절대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척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5] 새 대통령 베르듸무하메도프가 취임한 2007년에도 전체 일반 교육과정을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여전히 1개로 보고되고 있고, 그해 러시아 측에서 아슈하바트에 러시아-투르크 슬라브대학을 설립하기를 기대한다는 발표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육체제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는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76]

자녀의 교육 여건 문제는 분명 이주의 주요한 요인이다. 교육의 질과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존재 여부는 소수민족 집단에 문화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소비에트 시절에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의 문화적, 언어적 민족화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러시아인들로서는 독립 이후 현지어의 위상 변화를 목도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어들의 장래성에 대해 의심했고, 대체로 현지 민족어 중심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국제적인 러시아식 교육 과정과 러시아어 학교를 더 선호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언어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지 명목민족의 언어를 국가어로 표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명목민족 우대 정책이 정치를 비롯한 공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것과 달리 언어 문제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보인다. 언어정책 역시 대표적인 명목민족 우대 정책의 일부임이 분명하나 우선적으로 독립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을 의식하는 국내정책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만 평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언어 정책의 변화 역시 명목민족이 받을 수혜를 의식한 조치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다. 이중국적 허용 및 러시아인 협회 활동

신생 독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중국적 허용과 소수민족의 자체적인 조직 활동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는 동일한 국내 정책의 일부이다. 하지만 언어나 명목민족 우대 정책에 비해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정책과 보다 긴밀한 연관을 갖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중국적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러시아인 사회에 급격히 부상한 관심주제였다. 이제 외국이 된 근외지역 러시아인들이 이중국적 보유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국내 사정 등을 고려해 러시아는 1993년 헌법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상응하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

74) Кадыров(2003), с. 155. 포민이 단 하나의 러시아 학교라고 언급한 것은 실상 11년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모두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정규학교(푸쉬킨 명칭 학교)를 의미한다. 200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당시 이 학교를 들렀을 때 학교는 300명 정원에 600명 이상이 공부하는 과포화 상태였고, 학생은 대사관 근무자 등 외교관 및 러시아 상사 자제들이었다.

75) Аман(2007). 러시아인의 2/3가 거주하는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들에까지 러시아어 교습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새 대통령 최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 개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76) Гапур(2009).

러시아인이 다수 종사하는 석유 산업이 국가의 근간 기간산업인 투르크메니스탄과 내전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던 타지키스탄은 1993-94년에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역 러시아인의 약 80%가 거주하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수용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초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였다고는 해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은 달랐다. 내전으로 러시아의 지지가 절실했던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4년 헌법(15조)과 1995년 헌법(4조)을 통해 '타지키스탄 시민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으나 정부간 특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함으로써 단일국적 보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러시아인의 이중국적 보유를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로 약 7만 명이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러시아인은 약 1/3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타지키스탄인으로 나타났다.[77]

1993년 12월에 옐친과 니아조프 대통령간의 전향적 합의로 이중국적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확실히 러시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는 결과로 나타났다. 양국 지도자의 합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약 9만 명 중 90%가 러시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러시아인들에게 이중국적 허용은 예외적이고도 긍정적 신호로 수용될 여지가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러시아인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78]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2003년 6월 22일에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측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79] 강고한 단일국적 보유정책을 공표하였다. 즉 모든 이중국적 보유자는 3개월 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80] 법안은 러시아 국적 소지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지 국적을 택하지 않은 러시아 국적 소지자는 자동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직업 배정, 거주지 문제, 국가가 주는 각종 사회적 도움의 제공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의미였으며, 게다가 외국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야 했다.[81] 2003년의 조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5만 명까지 줄어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젊은이와 전문직인 등은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면서도 이민에 올랐고 연금생활자 등 대안이 없는 소수자들만이 현지에 남음으로써 정치적 적극성을 보여주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세 나라는 당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은 공통적이었지만 역시 상황의 전개는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관되게 러시아측의 허용 요구를 거부하며 자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서류 처리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러시

77) Peyrouse(2008), p. 13.

78) 이중국적 허용으로 타지키스탄의 내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례도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의 유출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1990년대에 예외가 아니었다. 이 러시아인 유출은 국적문제보다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한데다 강압적이고 전제적이었던 니아조프 정권의 영향이 더 컸다. 실제 인구 유출이 절정을 이룬 시기도 1996년경까지로 다른 나라들이 1993-94년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Гапур(2009) 참조.

79) 러시아 의회가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인의 권익 침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법안 공표 직전인 2003년 6월 20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니아조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적 정책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니아조프는 전화 통화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에만 새 법이 적용된다'고 대답하고는 법 시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Гапур(2009) 참조.

80) 니아조프의 이러한 결정은 2003년 4월에 러시아(가스프롬사)와 체결된 정부간 협력 협정, 즉 향후 25년간 가스를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양국 국영가스공사 간 약정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모종의 불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1) 2003년 말까지 수도 아쉬하바트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상태였다. 당국이 현지인들에게 러시아인의 재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러시아인의 이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막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아와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필요로 했던 두 나라는 1996년(카자흐스탄)과 1997년(키르기스탄)에 러시아와 체결한 경제 및 관세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국적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자국민의 러시아 노동 이주가 많은 키르기스탄은 2006년 12월 헌법에 이중국적에 호의적인 입법안을 입안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개선과 국내정책으로서 국외 거주 키르기즈인 동포를 고려하는 정부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를 모두 얻고자 했다.[82]

러시아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적 국가주의의 성격을 반영하는 예로 인용되기도 하는 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독립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인들이 바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83]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1995년에 러시아인들은 몽골에 거주하는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에게 부여된 이중국적 보유 권한의 예를 들면서 신생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들에게도 이중 국적을 허용하도록 압박하였으나, 정부는 제 2차 헌법에서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의 이중국적권을 폐지한다고 답하여 일관된 태도를 천명하였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국가 간 협의에 의한 이중국적 허용의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1996년 관세동맹의 체결에서 보듯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도 상대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현지 러시아인의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중국적 보유의 문제는 상대가 전제된 것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은 계속적인 요구를 해 온 러시아를 의식하며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적 문제 역시 러시아 디아스포라 정책이라기보다 국내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져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이중국적을 허용했던 두 나라(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와 이중국적을 거부했던 키르기스탄은 명목민족에 보다 비중을 둔 국내 정책의 하나로 국적 정책을 활용했다. 나머지 두 나라(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더 의식한 정책을 취한 듯 보이지만 국적 정책의 변경에는 명목민족과 인구의 비중 고려 등 민족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시절에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협회와 별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거니와 도움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현지 국가의 독립이라는 상황 변화로 협회나 민족적 성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요청이나 주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현지 국가의 입장에서 소수민족의 조직은 정책의 적극적 저항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인이 가장 많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인접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신생국의 정치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보고자 시도했던 나라였다는 점에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4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드(Лад)'는 지방 선거에서 러시아인이 다수인 지역[84] 의석의 80%까지 획득한 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라드'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관여되었다고 하여 정치, 행

82) 2005년 말 당시 러시아로 나간 키르기즈인 노동이민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Laruelle(2007), pp. 101-119.

83) 1991년 12월 20일에 채택된 카자흐스탄 시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은 법의 발효 시점에 카자흐스탄 영토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며,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자도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 간 조약에 의해 이중국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설정해 두고 있었다.

84) 구체적으로 Темиртау, Аксу, Степной город, Рудны, Уст-Каменногорск 등의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정, 법적 영역에 걸쳐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 의원 수가 감소하더니 결국 2000년대 초에 붕괴되어 정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모임들은 여타 민족 단체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민족들의 집합체인 국가에서 민족간 민족문화친선 협회로서의 활동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85]

'라드'의 쇠퇴에는 지도자들의 러시아 이주, 점점 줄어드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규모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사실상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인의 합법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민족의회의 영향도 컸다. 1995년에 만들어진 민족의회는 국가의 민족 정책에 관한 한 최고의 자문기구로 카자흐스탄 내의 소수민족 문화센터의 대표들과 정교 및 이슬람 대표들의 집합체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의원을 임명하는 만큼 자율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구의 설립 자체가 카자흐스탄이 다민족 국가임을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인과 카자흐인 사이의 대립을 피하는 동시에 '러시아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역할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인식도 있다.[86]

카자흐스탄의 정교회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여지를 가진다. 정교회와 러시아성간의 상징적 관계가 있는데다가 카자흐스탄 정교회가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교회는 러시아인이 이슬람 사회인 카자흐스탄에서 각별한 존중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며, 러시아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중심으로서 주도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교회는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종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모스크바 총대교구청의 지도를 정신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면서 자신들을 러시아의 볼모처럼 보는 시각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여 교회가 갖는 정신적, 문화적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정교회의 모습은 러시아성과 정교회간의 본질적인 결합관계의 담론을 약화시키고 현지에 정착하기로 한 러시아인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생활의 주도적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이슬람 중심의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실현하고 있는 정치권위의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05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명확해 보인다. 즉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다수인 북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90% 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결국 1990년대 초의 급속한 이주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러시아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크게 약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잔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치조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했고, 러시아인의 문화활동조차 카자흐스탄에서보다 더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활동 조직은 1994년에 등록을 마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문화 센터(Рус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이다. 러시아인의 전

85)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지한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연관된 조직은 모두 38개이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 러시아 문화, 슬라브 등과 같이 러시아인 중심의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조직은 22개였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으로 1992년 9월 11일에 알마티에 등록된 카자흐스탄 러시아 협회(Русская община Казахстана)와 같이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름도 있지만 지방에 조직된 협회들은 슬라브 문화협회(общество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와 같은 명칭 아래 문화활동 단체임을 천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 외에 1992년 알마티에 등록된 지역 슬라브 정교 문화센터 '파나기야'(Региональный славянский православны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анагия»)와 같이 러시아 언어, 종교, 문화 활동의 보호와 정교 축일의 기념활동을 위한 조직이나 자선단체, 청년 및 러시아어 교사 조직 등의 직능 단체들도 다수 눈에 띈다. 이에 대해서는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http://kaz.rs.gov.ru/node/16]를 참조.

86) Peyrouse(2008), p. 10.

통과 풍습 홍보와 전수를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이 조직은 각 주마다 지역 분소를 거느리고 있으며, 월간 '러시아문화센터 통보'(Вестник РКЦ: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와 계간 잡지인 '연대기(Хронограф) 등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소식지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가 주도한 각종 러시아 문화 축제 행사와 전통 축일 알리기, 기타 민족문화 행사 소식이 주를 이루지만 실제 러시아인의 문화활동이 벌어지는 곳은 거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상황이 좋다는 언급과 이에 대한 기쁨이 자주 표현되고 있어 당국의 호의를 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조직 활동이 전혀 용납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독립 이후 모든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극심한 압박을 가해 온 이 나라는 행정적 방해를 동원하여 러시아 협회(Русская община)의 등록을 아예 받아주지 않았다.[87] 그뿐 아니라 대통령 니아조프는 2001년에 '러시아인의 대표조직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88] 러시아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탄압, 러시아 문화센터 폐쇄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크라스노봇스크(Красноводск)'[89]에서 플라밍고(Фламинго)라는 이름의 NGO 조직을 이끌다가 2004년에 네덜란드로 망명한 러시아인 사회활동가 마메도프(Вячеслав Мамедов)는 새로운 대통령 베르듸무함메도프의 취임 이후에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조직의 활동이나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90]

이상의 세 나라에 비해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협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키르기스탄에는 25개 이상의 러시아인 조직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도 활발하다. 1989년에 설립된 슬라브 펀드(Славянскийфонд)는 원래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 NGO로 출발했으나 공화국의 독립 이후 빠른 속도로 정치화되어 조직 활동의 목표를 비키르기즈인의 권리옹호라고 천명할 정도로 정치적 주제에도 목소리를 내는 민족문화 센터이자 가장 중요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조직이 되었다. 그 외에 1994년에 설립된 러시아 문화센터 '화합(согласие)', 그리고 1998년에 등록한 키르기스탄 '러시아관(館, Русский дом)' 등 사회 및 경제 주제들에 집중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조직도 있다.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키르기스탄의 코사크인 조직도 회원이 1만 5,000명이라고 하며 그 문화조직 '부흥(Возрождение)'은 1995-99년 사이에 비정기 러시아어 신문 '슬라브 소식(Славянские вести)'을 간행했다.[91] 러시아와 연계한 민족문화 활동 뿐 아니라 의회에까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고, 러시아어로 비정기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을 펴내는 이들의 활동을 보면 앞의 세 나라에 비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조직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 듯 보일 정도이다.

타지키스탄에는 비록 소수의 러시아인이 잔류하고 있으나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협회(Русская община)'가 몇 차례 이름을 바꾸며 대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92] 처음부터 러시아

87) Кадыров(2003), с. 157.

88) 2001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멘인의 정신성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칙령에 의해 러시아와 서구와 관련된 모든 문화적 표현의 공표(오페라, 발레, 고전 및 현대음악 공연 등을 의미한다)가 금지되었다.

89) 1869년 이래 러시아인들이 크라스노봇스크(Красноводск)로 부른 이 도시는 1993년에 '투르크멘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식 지명을 쓴 이유는 마메도프가 1993-95년 사이에 도시의 명칭 변경에 대해 러시아인들과 더불어 항의하는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90) Туркменский правозащитник намерен обжаловать в суде действия ФСБ России [http://i-news.kz/news/2011/05/09/5361982.html] 참조. 마메도프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NGO 조직 투르크메니스탄 시민 민주연합(Граждански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союз Туркменистана)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91) Peyrouse(2008), p. 11.

92) 러시아 협회는 1991년에 건축가인 발레리 유쉰의 주도 아래 타지키스탄에 잔류한 러시아인을 위한 NGO로

인의 이주를 반대하며, 잔류한 이들의 문화·언어적 관심을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정치색을 배제했던 협회는 오늘날 12개의 지부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가진 '러시아 동포 평의회(Совет россий 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аджикистана)로 발전했지만 2005년까지는 러시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직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보충해야 했다. 현재는 지방에 소재한 몇 개의 러시아 문화센터들 뿐 아니라 바쉬키르인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문화 센터 '두슬릭(Дуслык)'과 타타르인 협회인 '우멧(Умет)' 그리고 오세티아인들의 협회인 '이리스톤(Иристон)'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93] 아울러 타지키스탄에 소재한 6개의 정교회와 교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러시아인의 종교활동도 일종의 디아스포라 조직 활동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94]

이처럼 중앙아시아 각국 러시아 디아스포라 협회나 문화조직의 활동은 현지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민족간 문화 교류와 친선의 역할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투르크메니스탄은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이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 상당수 러시아인들은 현지의 러시아인 협회나 조직이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과 연계하려는 노력도 두드러지지 않는 듯 보인다. 문화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소수민족의 조직은 후견-수혜적 관계가 재원이나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아시아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무관심이 협회나 문화조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라. 러시아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접근 가능성

후세를 위한 러시아어 교육 여건과 별도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현지어의 이해 능력이다. 명목민족 중심의 언어 및 문화정책이 그 비중을 더해가는 가운데 현지어 구사력은 소수민족으로서 러시아인의 현지 정착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거주 러시아인의 현지어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표 4〉 참조)

〈표 4〉 중앙아시아 러시아인의 현지국어 이해 정도[9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현지어를 잘 할 수 있다	3%	1.6%	15%
일부 이해하나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	23%	22%	52%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74%	75%	31%

자료 출처: Алтынбекова(2007), с. 53; Арефьев, А., "Сколбко людей говорят 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й? подение стат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Demoscope Weekly*, no. 251-252, VII-VIII 2006, [Online] http://www.demoscope.ru/weekly/2006/0251/tema01.php. 등을 참조.

출발했다. 이후 1997년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모든 슬라브인을 아우르는 슬라브 조직 연합으로 외연을 확대했고, 2004년 3월에는 '타지키스탄 러시아 동포 평의회(Совет россий 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аджикистана)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까지 가장 큰 러시아 디아스포라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93) Россий 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http://www.rusemb.tj/ru/index/index/pageId/276/]

94) 정교회 중 하나는 두샨베에 위치한 201 군사기지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내 3곳의 군사기지와 1곳(Аыни)의 공군 기지(인도와 연계하여 사용)에 근무하는 러시아인들과 현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의 연계는 문화, 종교활동의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95)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련 정보가 없어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지어 구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내전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 러시아인 거주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잔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한 특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경우는 현지에서 러시아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는 현실 사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만큼 불편이 적은 현지의 삶을 구가하는 데 있어 러시아어와 문화에 대한 접근권은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어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 러시아어 표현을 허용하는 조치는 언어 정책이 아닌 해당 국가의 정치적 자유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 된다.

러시아어가 민족간 의사소통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994년 이래 러시아어 방송, 출판물 등에 계속적인 압박과 금지조처가 내려졌다.[96] 즉 1994년에 러시아어 텔레비전 채널의 전파가 중단됨에 따라 러시아 방송을 보려면 도시 중산층 이상이나 설치가 가능한 위성 안테나에 의존해야 했다.[97] 1997년부터 러시아어 신문 발간이[98],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러시아어 잡지나 정간지, 서적의 출판이 금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 '등대(Маяк)'가 엄격한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2007년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러시아어 텔레비전 채널 하나(ОРТ)가 다시 전파를 타고 러시아어 신문의 국내 반입도 허용되는 추세에 있으나 다른 출판 활동은 여전한 위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미디어 역시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다. 러시아 텔레비전 방송을 그대로 전파에 실어 보내는 것이나 러시아어 신문의 발행은 1990년대 이후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위성이나 케이블을 통해 러시아 방송 매체를 접하는 것이 가능하고, 토막으로나마 국영 언론에서 러시아어 방송을 보여주거나 노어로 러시아 지역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러시아어 출판물의 경우도 공식 출판사를 통할 수는 없지만 사설 가판대(키오스크)나 벼룩시장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 팔린다. 다만 한계는 이런 일이 타쉬켄트 등 대도시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압박 정책은 나오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러시아어 매체를 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까지 90%에 달하던 러시아어 방송 프로그램들은 2001년에 외국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방송 관계법이 나온 이후 전체 러시아어 프로그램을 2002년에 50% 미만에서 2003년에 30% 미만으로 더 줄였다.[99]

다른 두 나라(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양국 정부가 러시아어 매체에 대해 특별한 계산 아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 특정 TV 채널(ОРТ)을 종일 볼 수 있고, 다른 러시아 방송 채널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마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러시아어 신문들이 유입되어 수도에서 판매되며 현지 러시아어 신문(Азия плюс 등)도 몇 종류가 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주요 신문들이 모두 들어와 판

96) 이에 대해서는 Кадыров(2003), cc. 155-156를 참조.

97) 1994년에 방송이 금지되지 않았던 유일한 예외는 채널 1에 해당하는 OPT였으나 이 방송도 1998년까지만 전파를 탈 수 있었다.

98) 유일한 예외로 사실상 관영매체로 평가받는 '중립 투르크메니스탄(Ней тпольный Туокменистан)'지 1개만이 러시아어 신문으로 출간되고 있다.

99) Peyrouse(2008), p. 20.

매되고 있고[100], ОРТ, РТР 등의 러시아어 TV 채널도 항상 볼 수 있으며, 현지 방송에서 노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경우도 잦다.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발간물을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로 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사실상 러시아어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는 없다고 여겨진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국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에 속하지만 가장 많은 러시아인이 잔류한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지역의 러시아어 신문 발간이나 인쇄물 출간에서 특별한 제한은 가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어 방송 역시 케이블이나 위성, 온라인 등을 통해 사실상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공식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체감되는 자유의 정도에 차이는 크다고 하겠다. 러시아어 매체 접근성이 좋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는 러시아어를 이해하는 현지 민족들(70-80%)이 일정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카자흐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각국의 문화계에서 러시아어 표현물이 얼마나 자유롭게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되기 어려워 언론에 대한 접근의 문제만 검토해 보았다. 각국의 독립과 더불어 명목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공공 영역에서 우세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문화 분야 역시 대체로 언론의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은 러시아인과 현지인을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식의 민족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어와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던 중앙아시아 지역 거주자들에게 있어 러시아어와 그 문화의 갑작스런 소멸은 민족적 차원을 떠나 그간 축적된 훌륭한 교양과 인간됨의 표현에 대한 접근이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101] 따라서 관련 정책은 지역의 문화적 부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의 권위주의 체제 부상을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4.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현재 상황

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모국 인식

독립 중앙아시아 각국에 잔류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소속감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여러 분야에 걸친 명목민족 중심 정책이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이주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해 온 기존의 연구 시각들을 검토하는데 의미있는 문제이며 동시에 현재 상황을 검토하는데 비교적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소련 붕괴 직전의 조사를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약 반(43-48%)은 현지 출생자였고, 전체 950만 명 중 800만 명 이상이 중앙아시아가 임시거주지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었다.[102] 높은 정착율은 이 지역 러시아인과 역사적 고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의 의식적 차이를 구분하는 정도로까지 표출되기도 했다. 예건데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은 본토의 러시아인에 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함이 돋보이며, 술을 덜 마신다'는 식이다.[103] 1990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러시아인의 경우 약 1/4, 우즈베키스탄 거주 러시아인의 1/3이 '러시아인이란 러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04]

---

100) 몇 경우만 소개하면 다음의 신문들을 들 수 있다. Комсомолская Правда,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Россий ская Газета.

101) Peyrouse(2008), p. 21.

102) Рыбаковский (1997), с. 92.

103) Лебедева(1997), с. 98.

이처럼 높은 현지 정착율과 지역에 대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독립 직후에 중앙아시아 러시아인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소비에트 시민'이라고 답함으로써 소련 붕괴 이후 상황에서는 현지 공화국이나 러시아 모두를 조국으로 느끼지 못하는 속내를 드러내었던 것이다.[105] 또한 '러시아 정부가 중앙아시아 러시아인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가' 묻는 설문 조사에 긍정적인 답을 한 이들도 소수였다.[106] 물론 신흥 독립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이라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지지하는 의사표명이 현지 주민의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질문은 옹색한 입장으로 전락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현실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에 썰물과 같았던 러시아인의 대규모 이민 이후에는 스스로를 중앙아시아에 속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늘어난다. 1997-98년 시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의 약 20%는 자신을 카자흐스탄 시민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으며, 24%는 자신이 소련 시민인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답했다.[107] 키르기스탄의 경우는 35%가, 우즈베키스탄에는 28%의 러시아인이 자신을 현지국의 국민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108] 러시아인이 다수인 독립 카자흐스탄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의 소속감은 연령적으로 40-70세, 그리고 21세 이하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109]

나. 2000년대 후반 각국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경제·사회적 상황

2010년 중반에 러시아 잡지인 『러시아의 전략(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은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어 구사자'이라는 주제 아래 '러시아인의 사회적 초상'을 추적하고 있다.[110]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사회-정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고 구체적으로 2006년 이후 2-3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9년에 중앙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보고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반영할 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회학적 설문에 비해 표본 집단의 수가 많아[111] 신뢰도가 높은

104) Лебедева(1997), cc. 60-61.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1/2은 러시아를 자기 조상들의 땅(отечество)이라고 규정했고, 1/4은 모국(родина)라고 불렀다.

105) 지역에 따라 다르나 52-78%까지의 러시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현지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소비에트 시민'이라고 밝혔다. Вендина(2006).

106)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던 타지키스탄에서는 23%가 러시아로부터의 도움을 원한다고 답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이런 답을 한 이가 4%에 불과했다. Peyrouse(2008), p. 9.

107) Peyrouse(2008), p. 9.

108)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3%가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에트 혹은 무국적이라고 답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상은 Вендина(2006).

109) Howard(2011), p. 204.

110) Доклад(2010)을 참조. 정확하게는 러시아어구사자(Русскоязычные)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러시아인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각각 50% 가량의 민족적으로 비러시아인(우즈벡인, 타직인, 기타 슬라브계 등)이, 키르기스탄에서 20%의 키르기즈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필자가 '러시아인'으로 표기한 이유는 첫째로, 설문에 참여한 비러시아인들도 97% 이상이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인식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둘째로, 비러시아인이라는 민족적 특성이 설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러시아인들이 포함된 설문의 결과가 오히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현재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11) 설문 참여자는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1,000명이었고, 그 외에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세 나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각각 900명씩으로 모두 3700명이었다.

기초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최근 각국의 변화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자기 인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여겨진다. 국가별로 요약적으로 소개하며 비교해봄으로써 최근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112]

1) 카자흐스탄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에 남은 러시아인은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의 고령자에 속하며,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었다.[113] 응답자의 대부분(97%)이 현지에서 태어났고, 카자흐스탄의 국적을 취득했다.[114] 직업적으로 4/5가 정규직을 가진 이들이었던 반면 개인사업자는 2006년(42%)에 비해 08년에 31%로 2년 만에 11%나 줄어드는 안정의 추세가 나타난다.

삶의 안정은 카자흐스탄을 떠나는 러시아인의 수가 감소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2006-09년 사이에 이민자는 매년 1만 명 이내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지의 경제적 상황 안정과 더불어 러시아인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위상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스스로를 빈자라고 여기는 이가 7%에서 3%로 반 이상 줄어들었으며[115], 생활이 될 정도의 평균적인 벌이가 된다는 이의 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추세이다.[116]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인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지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여기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2/3이상이 생활수준 면에서 러시아인이나 카자흐인이 거의 대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소수는 오히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이 러시아 내의 러시아인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117]

민족간 관계와 러시아인으로서 느끼는 차별 문제 역시 긍정적인 측면의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다. 80% 이상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하고 관용적이며, 연금의 수령, 주택 구입, 선거나 사회 및 정치활동 참여에서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차별을 느낀다는 이들의 대부분은 직업의 접근과 관련하여 카자흐어 지식이 요구당할 때라고 대답하고 있어 민족이 원인이 되는 일상에서의 권리침해보다 적은 수입이 불평거리로 보인다.[118]

민족 단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사실상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민족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된 노력이 있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권리를 옹호하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나 지방당국에 호소하는 것이며, 민족간 갈등이 생길 경우 그 개선은 대통령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정부의 민족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답이 많았다. 국가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을 받은 이가 러시아인의 98%에

112) 이하에서 이 보고서를 요약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출처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각주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13) 2006년과 08년을 비교할 때 대학교육 이수자는 40%에서 43%로 늘어났다.

114) 러시아 국적을 가진 이는 3%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지 태생자의 90%이상이 2대 이상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경우라고 하고 있었다.

115) 대개 도시의 연금생활자들이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16) 이보다 좀 나은 상황, 즉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정도라고 답한 이는 응답자의 반(53%)이 넘었다.

117) 2006년의 경우 러시아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에 비해 보다 나은 삶은 누린다고 여긴다는 이의 비율이 25%였으나 2년 후에는 20%로 줄어들었다.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중에서 카자흐어를 잘 말한다는 이는 8%에 불과했고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이가 60% 이상이 되었다.

육박하고, 젊은 러시아인 세대가 카자흐어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80%가 넘은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도 불구하고 이주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민감한 관심 영역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30%라는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금방 이주를 떠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이주를 '연기한 상태'에 있으며,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언제, 어디로 가야할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키르기스탄

2009년을 기준으로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인은 총 419,583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명목민족(70%)과 우즈벡인(15%)에 이어 제 3의 위치이다. 도시 거주자 러시아인이 65.4%(274397명)로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수도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규모가 전체 러시아인의 45.8%(192080명)나 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119]

키르기즈인의 70% 가까이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그 중 80% 이상이 자녀들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삼았으면 한다고 희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러시아 민족의 위상은 그 언어와 더불어 여전히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반영하듯 러시아인의 99% 이상(419,017명)이 러시아어를 제 1의 언어로 생활하고 있으며, 제 2언어 구사자(33,514명) 중 비율 면에서 키르기즈어 구사자는 12,764명으로 영어를 제 2언어로 구사하는 러시아인(13,825명)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난다.[120] 러시아인들의 교육수준은 10세 이상자 37만 5427명 중 중등교육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55,302명(68%)이었고, 그 중 대학 재학 이상자의 비율이 50%로 2006년(34%)보다 16% 높아져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점을 반영하였다.[121]

과연 러시아인에게 안정된 중앙아시아 국가로 평가받는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인의 정착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인의 사회적 초상'을 추적하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92%의 러시아인이 키르기스탄 태생인데다, 그 중 95%가 2세대 이상 현지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22] 민족간 관계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했으며 차별을 느끼지 않으며, 민족간 긴장이 없다는 답이 90% 이상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연금생활자(75000 여명-17%)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50%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도 정규직을 가진 이의 비율이 2006년(20%)에 비해 15%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추이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여건은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2006년에 비해 생활이 나아졌다는 이는 33%에서 2009년에 20%로 크게 줄어들어 현지의 경제 사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 상황은 러시아로 향하는 이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보인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주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나타나는 바, 2009년에 응답자의 95%가 이주를 고민하고 있으며, 그중에 72%는 러시아로 영주이주를, 23%는 직업을 찾기 위한 이주를 희망했다.[123] 아울러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서

119)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09), с. 112, 116.

120) 윗글, 118, 120면. 제 2외국어냐와 별개로 현지어에 대한 이해를 묻는 항목에서 키르기스탄 러시아인의 25%가 키르기즈어를 잘 구사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는 50%였다.

121) 윗글, 209면.

122) 러시아인의 국적 획득율 역시 높게 나타나 95%가 키르기스탄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4%만이 러시아 국적자라고 대답했다.

123) 그 외에도 2% 미만의 러시아인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주로 유럽이나 미국)로의 이주를 희망했고 키르

09년 사이에 러시아인 커뮤니티는 약 6% 이상(44만 7,000명에서 41만 2,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지의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35%), 그리고 '적은 취업 기회'(32%)가 '민족간 긴장 문제'(8%)를 압도한다.

3) 우즈베키스탄

2009년까지 약 100만 명의 러시아인이 떠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0년 초에 이민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2007년에만 5만 2,000명이 이주하는 등 다시 이주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124] 잔류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91%가 현지 출생자로 나타나며 그 중에 94%는 2세대 이상 거주자로 정착의 정도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들은 91%가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학 졸업자는 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독립 20여년을 거치는 동안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가 응답자의 97%였으며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이는 1% 미만이었다.

직업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비해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25] 과연 이들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불만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생활필수품 구입에 그리 지장이 없는 정도)이라는 평가는 32%에 머물러 중간 이하가 2/3를 차지했다.[126]

민족간 관계 문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반응은 앞의 두 나라와 다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를 준다. 즉 러시아인과 우즈벡인의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90%)이 친밀하고 관계가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답한 점은 차이가 없으나, 응답자의 50%가 우즈벡어를 안다는 답을 하고 있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비율(25%)에 2배나 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비해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과 습득의 정도가 높고 그만큼 정착을 위해 노력한 이들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은 이민에 관심과 의향에 투영되고 있다. 응답자의 94%가 이민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 그중 60%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이주를, 35%는 영구 정착을 희망하는 이주를 기대했다. 응답자들이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동포의 모국 정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도 특징적이다.

4) 타지키스탄

현재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함으로써 우즈벡인(17%)과 키르기즈인(1% 이상)을 이어 제 3의 소수민족이 되어 있다. 이민의 흐름은 2000년 초에 누그러들었으나 2007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127] 타지키스탄의 경우 설문 응답자 중에는 러시아인이 54%를 차지하며 다른 민족(기타 러시아어 사용민족)들이 25%, 그리고 타직인도 21%나 포함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기스탄에 남고 싶다는 이는 1%에 불과했다.

124)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이다.

125) 무직자(19%)와 미숙련 노동자(18%)가 전체의 1/3 이상이었던 반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답한 이는 22%에 불과했다.

126) 자신이 '꼭 필요한 음식을 사기도 곤란할 정도'의 빈곤층이라고 답한 이가 13%였고, 53%는 음식과 생필품 정도를 구입하여 근근이 살아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27) 이 해에만 1만 7,000명이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러시아인에 한정하여 현지 정착 정도를 살펴보면, 81%가 현지 출생자이고 그 중에 76%가 2세대 이상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러시아인의 정착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128]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빈국인 타지키스탄이지만 현지 수준에서 볼 때 설문 응답자인 러시아어 사용자 그룹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직업을 가진 이가 24%,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이가 75%였던 것이다.[129]

경제적 사정 역시 나쁘지 않았다. 응답자의 2/3가 현지에서 평균 정도의 경제 수준[130]은 유지한다고 답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에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이도 46%로 절반에 육박했다.[131]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응답자의 반 이상(54%)이 러시아의 러시아인들이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답하기는 했으나, 두 나라의 러시아인 생활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다(20%)거나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의 삶이 러시아보다 더 낫다(10%)고 보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내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현실은 위에서 언급된 네 나라와 상응하는 비교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132]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관련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통제 상황에서 러시아어와 문화에 대한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러시아인 중 가장 봉급이 높은 석유 및 가스 산업 종사자조차 평균 월 80불선의 봉급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크다고 한다.[133] 정무직에서는 물론 일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러시아인은 최근 2년 사이에 2만 명씩 줄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이라는 것이다.[134]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현지 명목민족과 러시아인들의 관계는 좋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러시아인을 그동안 곧 떠나게 될 이웃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상호간에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략하게나마 중앙아시아 잔류를 결정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했듯 1990년대를 지나면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사회는 고령화되었다.[135] 2000년대에

128) 전체 응답자 중 현지 국적 취득율은 낮게 나타났다. 타지키스탄 국적자가 78%인 반면, 러시아 국적자가 9%로 앞의 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129)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35%)과 공공기관(교육, 학문, 문화 분야 및 공공사업체 등) 종사자(20%)의 비중이 개인사업(36%) 및 요식업, 중개업 등 서비스 종사자(20%)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30) 비싼 물건을 사기는 어려우나 생필품 구입을 비롯해 생계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준을 의미.

131) 이는 상황이 나빠졌다는 답(15%)를 압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설문 응답자 중 실업자와 재정 부족으로 빚에 의존하는 상황이 29%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우며, 특히 다수의 노인층이 빈곤 상태에서 홀로 생활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132) 러시아측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현지 러시아인의 처지를 2류 민족(Люди второго сорта [http://repin.info/national/Russian_in_Turkmenistan-people_second-class])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133)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2011), 27.XII.2011 г. [http://voprosik.net/russkie-v-turkmenii]. 이 기사 작성의 기초가 된 러시아인 협회 평의회 대표 А. Фомин의 인터뷰에 의하면 연금생활자는 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 선에 불과한 연금으로 연명하고자 아침 4-5시부터 싼 유제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인은 이미 '3류 민족'이 되었다.

134) 윗 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러시아인이 상당수였던 학술원(Академия наук)까지 폐쇄했다.

135) 통계가 나온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인의 평균 연령(45-47세)은 카자흐인(23-25세)과 큰 격차를 보였다. Золотухин(2009), с. 514. 2009년을 기준으로 키르기스탄 러시아인의 평균연령은 38.9세로 국민 평균인 27.6세와 키르기스인 평균연령인 26.2세를 크게 초월한다.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и жилищнего фонда Кыр*

들어 고령자 러시아인들이 주로 잔류하게 된 요인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모험의 의지가 적다는 점에서 이주를 결단하기 어려웠다는 일반적 설명이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설문 조사가 실시된 네 나라 전체에서 러시아인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태어났고, 2세대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136]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대도시(특히 수도)와 전통적인 러시아인 거주 지역들에 밀집해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타지키스탄을 제외하면 3국의 러시아인 중 현지 국적을 받은 사람이 95%를 넘어섰고, 생활수준이나 재정 상황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인 사회가 가장 가난(1/3이 빈곤층)하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빈곤층(10%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르기스탄은 카자흐스탄 다음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중앙아시아 4개국에서 러시아어 구사자와 명목민족간 관계에 대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대체로 친밀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협회나 문화조직과 취약한 연대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 통해 자신의 권리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단결된 행동으로 권리의 보호 정도가 신장될 것으로 믿는 이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당국에 대한 호소를 꼽은 점[137]은 이를 반증한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래 발전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이주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깊었다. 95%의 응답자가 이주를 희망한 키르기스탄은 러시아인에게 가장 거주하기 적합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었다는 점에서 의외이지만 그 중에 23%가 노동 이주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현지의 경제 상황이 이주에 여전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즉 2009년 당시 실업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던 카자흐스탄(3.8%)에서는 응답자의 1/3이 넘는 러시아인 응답자(38%)가 떠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던 것이다.[138]

IV. 맺음말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 러시아인 인구는 40% 가량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중앙아시아 러시아인의 이주는 이전의 러시아인 이민사가 짜르 당국과 소련 당국의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전개되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현지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현상이었다. 물론 독립 이후의 이주가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미래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단일한 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그 자체가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 된다.

중앙아시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자기 인식과 이주의 문제를 연결해 보면 러시아는 개인의 이민과 무관하게 이미 끊을 수 없는 관계임에는 분명하나 '조국'에 합류하려는 욕구가 곧 이주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는 현실과 자기 정체성, 그리고 개별 러시아인

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г., Бишкек 2011, с. 104.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보아 고령화의 추이는 명확하다.

136) 소련 시절에 이주한 이는 10% 가량에 불과했다.

137) 카자흐스탄에서 21%, 타지키스탄에서 20%의 응답자가 당국에 대한 호소를 꼽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16-17%)가 떠나는 것(이주)을 주요한 권리 옹호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138) Доклад(2010)

에 대한 다중적인 정의의 여러 풍경들이 중첩된 현상이었다.

러시아인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현지 정부의 명목민족 우대 정책을 사회 각 방면으로 확대,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인들이 차지했던 집과 일자리만이 아니라 잠재적 비용인 복지 혜택과 연금 지급 준비금에서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효과가 있고, 그 혜택은 주로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동시에 그것은 같은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각국의 여러 사회 개혁의 동인이 되었다. 신생 정부의 당국자들은 정치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 체제 재편, 연금 개혁, 대도시를 중심의 산업과 경제활동 전반을 검토해야 했던 것이다.

가령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을 염두에 둔 조치로 촉발된 측면이 있음에 분명하다. 러시아인의 이탈로 인구 비중이 이미 상당히 감소하고 있었기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거점 도시들에 대체로 고령의 러시아인이 잔류하게 된 현실은 향후 지역의 러시아인 비중을 더욱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것임이 분명했다. 명목민족에 비해 러시아인은 더 낮은 출산율과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상되는 인구 변화 추세는 국경 인근 지역의 안보와 안전, 장기적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행정 개혁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으며, 이로 인한 혜택 역시 대체로 명목민족에게 돌아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139]

연장자 그룹이 잔류하게 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마이너리티로서 자신들의 지위와 한참 진행 중인 명목민족의 국가만들기라는 상황을 수용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특별히 억압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다면 연일 공격적인 자국어, 자문화 지원 정책이 발표되어 왔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가 공공 영역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지 정부들 역시 자국의 상황과 명목민족의 필요를 감안해 가면서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역사적 조국인 러시아 역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보호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깰 의향이 없는 듯 보인다. 21세기로 접어들 무렵 러시아는 이미 정치·경제적으로 1990년대의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러시아가 지역의 핵심 세력으로 복귀하게 되자 그간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향했던 중앙아시아 각국의 태도도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계산 아래 개선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건데 러시아의 경제 사정은 러시아인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 명목민족들의 노동 이민 흐름을 가속화시켜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독립 초기에 국가를 흔들었던 '러시아인 문제'의 정치화와 분리주의적 주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

139) 구체적인 사례로 카자흐스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7년 아스타나로의 수도 이전을 비롯하여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화했다. 즉 세메이 주를 동 카자흐스탄 주에 통합시키고, 제르카즈간 주를 카라간듸 주에 포함시켰으며, 콕쉐타우 주는 아크몰라와 북 카자흐스탄 주에 분할 편입시켰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인이 대거 거주하는 대도시로 주의 행정 관청을 이전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자카흐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시에 정착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정개혁의 결과는 1999년 인구 조사에 반영되었다.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서 카자흐인 인구가 1989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해당 주에서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아크몰라 주에서는 22.4%(1989년)에서 37.5%(1999년)로, 동카자흐스탄 주에서는 27.2%에서 48.5%로, 카라간듸 주에서는 17.1%에서 27.5%로, 쿠스타나이 주에서는 22.8%에서 30.9%로, 북카자흐스탄 주에서는 18.6%에서 29.6%로 증가했다. 손영훈(2006), p. 14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인성. 2007.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 러시아인 정책」. 『민족연구』 32: 85-127.
손영훈. 2006.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문제'와 카자흐화 정책」. 『중동연구』 25-2: 117-150.
우평균. 2004.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안 디아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회보』 38-3: 387-409
우평균. 2009.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슬라브학보』 24-1: 243-267.
이병호. 2009. 「타지키스탄의 내전 전후의 경제 상황과 분석」. 『중동연구』 28-2: 175-201.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 내전과 평화과정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27-2: 147-174.
허승철. 2002. 「중앙아시아의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21: 330-347
현승수. 2011. 「카자흐스탄 내 비카자흐계 민족엘리트의 통제 및 관리: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민족 잠재우기' 전략과 러시아인 엘리트의 대응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독립 20년, 정치·경제·사회발전(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제 3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143-162.

2. 국외문헌

Barrington, Lowell W. Herron, Erik S. and Silver, Brian D. 2003. "The Motherland Is Calling: Views of Homeland among Russians in the Near Abroad". *World Politics*, Vol. 55. January 2003: 290-313.
Buckley, C. 1998. "Rural/urban differentials in demographic processes: The Central Asian Stat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sh Review*, No. 17: 71-89.
Howard, N.V. 2011. *Kazakh and Russian identities in transition: the case of Kazakhstan,* Ph.D. thesis. University of St Andrews. 2011.
Kaiser, R.J. and Chinn, J. 1995. "Russian-Kazakh Relations in Kazakhstan." *Post-Soviet Geography.* Vol. 6. No. 5: 267-273.
Khazanov, M. Anatoly. 1995. *After the USSR: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King, C. and Melvin N. J. eds. 1998. *Nations Abroad: Diaspora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Boulder: Westview Press.
King, Charles and Melvin, Neil J. 1999/2000. "Diaspora Politics: Ethnic Linkage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24, no. 3 (Winter 1999/2000): 108-138. Harvard University: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Laruelle, M. 2007. "Central Asian Labor Migrants in Russia: The 'Diasporazation' of the Central Asian States?"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5, no. 3: 101-119.
Laruelle, M., and Peyrouse, S. 2006. *Asie centrale, la dérive autoritaire*, Paris, Autrement-CERI.
Laruelle, Marlène, and Peyrouse Sébastien. 2004. *Les Russes du Kazakhstan. Identités nationales et nouveaux Etats dans l'space post-soviétique*. P.: Maisonneuve & Larose-ifeac.
Luong, P. J. 2002. *International Change and Political Continuity in Post Soviet Central Asia: Power, Perceptions and P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lvin, N. J. 1995. *Russians beyond Russia: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London: Pinter.
Nikolaev, Sergei. 1994. "Russians in Uzbekistan". Vladimir Shlapentokh, Munir Sendich and Emil Payin ed.. *The New Russian Diaspora: Russian Minoritie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rmonk, NY: M. E. Sharpe. 107-120.

Oka. 2002: Oka N. Masanov N. Karin E., Chebotarev A. eds.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Post-Soviet Kazakhstan.* Chib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Online] http://www.ide.go.jp/English/Publish/.../51_01.pdf (2012.07.01).
Peyrouse, S. 2008. "The Russian Minority in Central Asia: Migration, Politics, and Language".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Online] 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OP297.pdf. (검색일 2012.06.06)
Smith, Graham. 1999. "Transnation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the Russian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3. May 1999: 500-523
Алексеенко, Н.В. 1981. *Население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но Казахстана: Численность, размешение, состав (1880-1914 гг.).* Ама-Ата. 1981.
Алексеенко, Н.В. 2001. Перв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 оценики, в кн.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сост.). *Миграция в СНГ и Балтии: от различия проблем к общему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М.: Адамант.
Алтынбекова, О. 2007. "Русский язык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захстана". 〈*Диаспоры*〉. no.1-2: 52-82.
Аман, Э. 2007. "Туркменское оброзавание и нацмены". 06.IX.2007. [Online] http://www.chrono-tm.org/?id=888 (검색일: 2012.09.05)
Боробьева, О.Д. 2001.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Выпуск 1.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и*》. М.
Вендина, О.И. 2006. "Русские в странах бышего СССР". 18.IV.2006. [Online] http://geo.1september.ru/2001/11/6.htm (검색일: 2012.09.06)
Витковская, Г.С. 1996.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ведение нетитуль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тран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кн. Витковская Г.С.(сост.). *Миграция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ичины, последствия, перспективы.* М., 1996.
Витковская, Г.С. 1999. Вынужденная 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Итоги десятилетия. в кн.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сос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нах СНГ.* М.: Комплекс прогресс.
Гапур, Т. 2009.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 на положении нон грата". 30.IV.2009. [Online] http://www.easttime.analitic/1/2/633.html (검색일: 2012.09.05)
Гафарлы, М. и Гущин, О. 2003. "Уроки русского по-туркменски: Дискриминация россиян стала офи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ой Ашхабада". *Новое известия.* 18.VIII. 2003. [Online] http://www.newizv.ru/society/2003-08-18/587-uroki-russkogo-po-turkmenski.html (검색일: 2012.09.05)
Доклад 2010. "Доклад: Социальный портре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No. 6. M. [Online] http://sr.fondedin.ru/new/fullnews_arch_to.php?subaction=showfull&id=1277454715&archive=1277455465&start_from=&ucat=14 (검색일: 2012.08.20).
Ертысбаев, Е. 2001. *Казахстан и Назарбаев: логика перемен.* Астана: Елорда.
Затулин, Константин. 2003. Россиян могут евакуировать из Турмении (23 июня. 2003 г.) РИА "Новости" [Online] http://ria.ru/politics/20030623/397729.html?id (검색일: 2012.08.19).
Захарова, Е. 2006.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иргизстане теряет статус официального, соглосны ли с этим жители страны?". 25.X.2006. [Online] http://www.centrasia.ru/newsA.php4?st=1161758820 (검색일: 2012.09.04)
Зинин, С.И. 2003. "Русский язык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атерик.* no. 76. 1.VI.2003. [Online] http://www.materik.ru/index.php?section=analitics&bulid=51&bulsectionid=4144 (검색일: 2012.09.02)
Золотухин, С.А. 2009. Русские в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казахстана: Этнодиаспорная и мотиватионная рефлексия на социал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Методилогія, теорія та практика соціологічного аналізу суспільства*〉 Випуск 15. Харків. [Online] http://www.nbuv.gov.ua/portal/Soc_Gum/Mtpsa/2009_15/Zolot.pdf (검색일: 2012.06.30).

Кадыров, Ш. 2003. *Нация племен. Этнические исток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ереспекти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М.: РАН.
Космарская, Наталья. 2002. "Русские диаспоры: политические мифологии и реалии массового сознания". 〈*Диаспоры*〉. 2002. № 2: 110-156.
Космарская, Наталья. 2003. "Русские диаспоры –научный дискурс и низовые восприятия". 〈*Диаспоры*〉. 2003. № 4: 45-67.
Космарская, Наталья. 2004. "Русскоязычные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диаспорный проект≫ против ≪автохтонного≫". 〈*Диаспоры*〉. 2004. № 1: 148-184.
Лебедева Н.М., 1997. *Новая русская диаспора.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М.: РАН.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м. Н.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Максакова, Л.П. 1999,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кн.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сос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М.: Комплекс прогресс.
Масанов, Н.Э. Абылхожин Ж.Б. Ерофеева И.В. и др.(в соавторстве). 2001.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Народы и культуры*.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Мурадов, Г.Л. Полоскова, Т.В. Затулин, К.Ф. и др. 2006. *Спровоч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М.: Русский мир. [Online] http://www.mosds.ru/Izdan/Sprv2007.pdf (검색일: 2012.08.30).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1.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Годовая публикация 2006-2011 гг.* Бишкек.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и жилищнего фонд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9 г.* Бишкек. 2011.
Наши в Тажикистане: "Наши в Тажикистане. Представляем Русскую общину в Тажикистане". [Online] http://www.russedina.ru/frontend/print.php?id=65 (검색일: 2012.09.05)
Олимова, С. 1999. "Процесс суверенизаций странны и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Тажикистане". в кн.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сос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М.: Комплекс прогресс.
Олимова, С. 2005.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современном Тажикистане, *Демовкоп Weekly.* No. 223-224(21.XI.-4.XII. 2005 г.). [Online] http://demoscope.ru/weekly/2005/0223/analit05.php (검색일: 2012.08.30).
Орущбаев, А. 2003.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езависимой Киргизий". 〈*Диаспоры*〉. no. 1: 146-160.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 2011.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 27.XII.2011. [Online] http://voprosik.net/russkie-v-turkmenii (검색일: 2012.09.05)
Рыбаковский, Л.Л. 1997. Миграционный обмен населением между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и Россией. 〈*Социально-псхологические анализ*〉. М.: РАН.
Рыбаковский, Л.Л. 1996.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а и Росс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играционный обмен, в кн. Виктовская Г.(сост.) *Миграция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Центрального Азии: причины, последствия, перспективы.* М.
Садовская, Е.Ю. 1999.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в Казахстане. в кн.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сост.). *Мигра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М.: Комплекс прогресс.
Сужиков, М. Татимов, М. Ахмеджанов А. и др. 1993.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Гылым. Институт философии, Центр социологии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Тишиков, В.А. 1992. "Русск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рикладной и неотложной этнологии*〉. No. 51. М. РАН.
Эшмент, Б. 1999. "Проблемы русских Казахстана — этничность или политика?". 〈*Диаспоры*〉. No.2-3: 169-187.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 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남혜현(고려대)

목차

1. 서론
2. 해외 러시아어의 위상
 2.1.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
 2.2. 러시아어 대중매체와 정보 공간
3. 러시아 공공외교 정책과 사상적 배경
 3.1. 러시아 공공외교정책의 출발과 흐름
 3.2. 러시아 공공외교정책의 사상적 기반
4. 공공외교의 도구로서 미디어
 4.1. 러시아 TV와 루넷의 현황
 4.2. 미디어를 통한 루스키미르 구축
5.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언어지형도에 대한 전망
6. 참고문헌

요약

오늘날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는 여러 언어 간의 헤게모니 각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토착민족어에 대한 국가어 지위 부여,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와 터키어의 영향력 확대, 소비에트 제국의 절대언어로서 입지를 고수하려는 러시아어 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언어지형도를 분석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를 통한 공공 외교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의 위상 강화에 막중한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 러시아어의 확산은 비단 국가 위상 제고라는 추상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언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 민족적 정체성을 놓고 투쟁하며, 특정한 인종적 특성을 갖는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정세에서 러시아어가 민족간, 인종간 대표적인 소통어로서 지역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공노증 (Russophobi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의 제국주의적인 노선을 피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협력의 방향에 중점을 두는 공공 외교 노선을 취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어의 강화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루소포니아(Руссофония)와 루스

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가 제안되었다. 루소포니아와 루스키 미르 모두 러시아인, 해외 러시아 동포 뿐 아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초국가적, 초민족적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루스키 미르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어 인터넷을 루넷(Runet)이라고 부르는데, 루넷은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러시아어 구사자들이 거주하는 세계 각지, 특히 포스트 소비에트 공화국들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러시아어의 새로운 기능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영토성, 항구성,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가 "긍정적인 러시아의 이미지 구축"과 "러시아어 확산"이라는 러시아 연방의 공공외교 목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I. 서론

오늘날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는 여러 언어 간의 헤게모니 각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토착민족어에 대한 국가어 지위 부여,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와 터키어의 영향력 확대, 소비에트 제국의 절대언어로서 입지를 고수하려는 러시아어 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러시아의 슈퍼파워로서 지정학적 영향력의 상실은 해외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와 사용 영역이 급감하였다. 교육과 기타 사회 영역에서 러시아어 영역의 감소는 특히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Pavlenko(2008, p. 282)에 따르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독립이후에도 식민지 시절 지배국가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과 달리, 많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은 공공영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철폐와 명목 민족어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언어 전환(language shift)을 실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러시아어 사용 영역 감소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로 여긴다. 러시아에서 서구는 전통적으로 위협의 근원으로 인지되었고, 언어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영역이라서 여겼던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날로 높아지는 영어의 위상과 명목 민족어의 위상, 그리고 상응하는 러시아어 위상 하락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컨대, 러시아연방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는 CIS 와 발틱의 몇몇 국가에서의 러시아어의 상황을 러시아어의 추방(вытес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한 압력이라고 주장한다.[1] 러시아의 인기 주간지 아르구멘티 이 팍티(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도 "러시아어에 심각한 위협이 닥쳤다 (Над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ависли угрозы посерьезнее)"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당국에게 엄격한 법규를 통해 러시아어를 수호하라고 호소한다. 라디오 에코 모스크븨 (Эхо Москвуы)는 "왜 우리는 러시아어를 훼손하는가?(Почему мы

1) В ряде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НГ и стран Балтии вытес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ег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изучения ...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отметить .... ограни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вязи с вытеснени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а 2002-2005). (http://iam.duma.gov.ru/node/2/4422/14451) (2012, June 17)

портим русский язык?)"라는 토론에서 현재 러시아어의 상태가 재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Ryazanova-Clarke 2006, p. 34-37).

이밖에도 러시아의 많은 미디어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어 위상의 변화를 역내 국가들의 서구 영향력에 대한 굴복과 러시아에 대한 배반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하락의 증거로 해석한다. 러시아의 유력 주간지 리테라투르나야 가제타(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는 해외에서 러시아어 학부와 러시아어 간행물의 수의 저하를 지적하면서, 러시아어의 국제적 위상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외무부 엘네오노라 미트로파노바(Елеонора Митрофанова) 차관은 러시아 관보인 로시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2] 이러한 경향에 대해, Ryazanova-Clarke(2006, p. 34-37)는 러시아어에 대한 국가차원의 담화와 미디어 및 전문가들에 의한 공공 담화에서 모두 러시아어의 현재 위상을 외부의 공격에 위협받는 희생자, 약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해외 러시아어의 위상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우준모(2011, p. 194)는 소연방을 해체하며 등장한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에서 서구세계가 소련에 덧씌워 놓았던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으로 인해 러시아가 이룬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와 혼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러시아의 저돌적인 국익추구방식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신생국 러시아의 이미지는 더욱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정부는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밖에 러시아 정부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공노증(Russophobi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협력의 방향에 중점을 두는 공공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접근가능한 노동시장, 언어적 근접성, 문화, 종교적 유사성, 거대한 에너지 자원과 같은 영향력있는 소프트 파워 채널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Фролов(2005)는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러시아어와 러시아의 정신문화, 즉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라고 했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 교육기관의 폐쇄를 막아야 하며,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정부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특정한 인종적 특성을 갖는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정세에서 러시아어가 민족간, 인종간 대표적인 소통의 언어로서 지역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Яценко 2007, Ящина 2010).

이러한 공공외교 노선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루소포니아(Руссофония)와 루스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가 제안되었다. 루소포니아와 루스키 미르 모두 러시아인, 해외 러시아 동포 뿐 아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초국가적, 초민족적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루스키 미르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터넷을 루넷(Runet)이라고 부르는데, 루넷은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거주하는 세계 각지, 특히 인종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소위 "문화적 러시아인(cultural russians)"들이 대거 거주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화국들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러시아어의 새로운 기능 영역으로

2)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05.10.19. (http://www.rg.ru/2005/10/19/sootechestvenniki.html) (2012, June 14)

부상하고 있다.[3)]

그리하여 공공 외교 노선의 집행을 위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재단 〈루스키 미르〉와 〈국제인도적 협력청〉, 그리고 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러시아어 2006-2010〉, 〈러시아어 2011-2015〉는 초영토성, 항구성,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를 "친러시아성향의 네트워크 구축", "러시아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러시아어 확산"이라는 전략적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러시아의 공공외교 정책과 이것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 지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해외 러시아어의 위상과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러시아 공공외교 정책의 출발과 흐름을 고찰하고, 새로운 이미지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루소포니아와 이의 구체적인 실현인 글로벌 프로젝트 〈루스키 미르〉를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루스키 미르의 구축 수단으로서 미디어, 특히 루넷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언어지형도의 향후 전망을 분석하겠다.

II. 해외 러시아어의 위상[4)]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슈퍼파워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의 상실은 해외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와 사용 영역이 급감하였다.[5)] 러시아어로부터의 이탈 현상은 특히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1.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

소비에트 해체 이후 대다수 구소련공화국에서는 대표 민족의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고, 러시아어를 점차 배제하는 배타적인 언어법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CIS와 발트 지역 국가에서 러시아어는 국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나 공식어(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의 지위를 갖고 못하고, 러시아어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보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탈소비에트 공간의 많은 국가에서 민족어의 부상은 러시아어 사용자가 이전까지 누리던 사회적 특권의 상실을 가져왔다. 예컨대,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공무원법과 교육법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화국의 공식적인 국어의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해당 민족어의 교육을 의무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법적 차별과 불평등이 언어 권리에 저촉되며, 다양한 인종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어 배제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은 발트 지역과 자카프카지예 지역 국가이다. 반면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가 가장 공고한 곳은 벨라루스, 키르기스, 카자흐스탄이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어는 1995년 벨라루스어와 함께 국어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는 카자흐와 공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공식어의 지위를 갖

3) 문화적 러시아인(cultural russians)이란 Saunders(2004, 2009)가 제안한 개념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러시아 문화적 정향성이 강한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국민들을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도 Saunders가 제안한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4) 해외 러시아어 위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남혜현(2011a)을 참고하라. .

5) Арефьев(2006)에 따르면, 러시아어는 그 사용인구에 따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지만, 현재처럼 사용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2025년에는 10위권 내에도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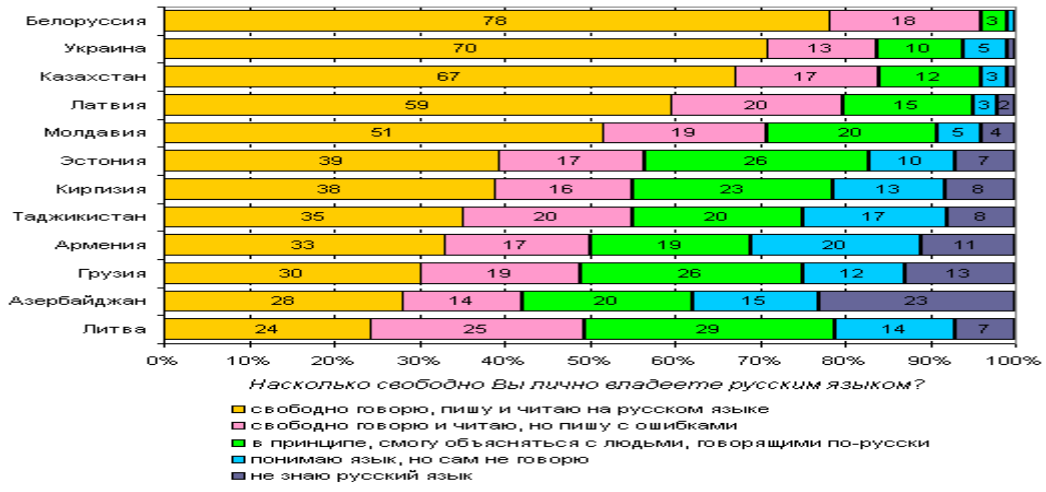
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 언제든지 이 지위가 변할 수 있다.[6] 키르키즈스탄에서도 러시아어는 2000년에 공식어의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

몰다비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어는 국어나 공식어에 비해 좀 더 낮은, 이른바 민족 간 소통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어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외국어(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의 지위를 갖는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수민족언어(язык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шинств)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2012년 8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국가 언어정책의 근간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이라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어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이 전체주민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지역에서 공식어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우크라이나의 2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 달한다.[7]

이와 같은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의 차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어 구사력과도 직결된다. 2007년에 재단 ≪Наследие Евразии≫가 신생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법적 지위가 비교적 공고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어는 대부분의 주민들에 의해 가정, 직장, 교육 영역에서 공식적인 국어만큼 널리 사용되며, 러시아어로 된 대중매체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러시아어가 외국어를 지위를 갖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어의 사용 빈도는 좀더 떨어진다.

표.1. 2007년 기준 탈소비에트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어 구사력[8]



6) 카자흐스탄의 헌법 58조 (1)항과 93조는 카자흐어만을 입법부와 행정부의 필수 사용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어는 7조 3항에서 공식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나머지 조항에서는 여타 소수민족의 언어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경택 (2003, p. 159).

7) Президент Украины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татус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http://fedpress.ru/news/society/news_society/prezident-ukrainy-podpisal-zakon-o-statuse-russkogo-yazyka (2012, August, 10).

8)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 2008

그러나 위의 조사 결과에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를 합치면 아직도 대부분의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의 국민들이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탈소비에트의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어 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그 확산 정도는 공화국별로 차이가 있다.

2.2. 러시아어 대중매체와 정보 공간

어떤 언어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의 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언어 사용자의 수는 그 언어로 이루어진 정보망, 정보 공간(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의 증가에 달려 있다. 정보 공간이란 교육 공간과 미디어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에트 당시, 소비에트 전체 인구 2억 8천 6백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했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를 필수적으로 교육했다. 그러나 2004년 기준 러시아연방을 제외한 14개 구소련공화국의 인구 약 1억 4천만 명 가운데 러시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6천 3백만 명 정도였으며, 4천만 명은 러시아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소통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거의 4천만 명이 러시아어를 더 이상 구사하지 못했다.[9)]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소련공화국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다수 국가의 젊은이들은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를 배우려고 하며,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터키의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오늘날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에서 러시아어 사용 교육기관의 수는 크게 줄었으며, 러시아어 사용 교육과 러시아어 학습은 때로 극렬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어 교육기관과 학습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외에도, 러시아어 구사자들의 러시아어 수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민족어 수업 시간의 증가에 따른, 러시아어문학 수업 시간의 현격한 감소, 필수과목에서 러시아어 과목의 배제로 인해 이들 러시아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구사능력도 대단히 낮다. 이러한 경향은 소위 “형제나라”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또한 수도 키에프에서는 327개의 학교가운데 오직 8개의 학교에서만 러시아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10)]

또한 숙련된 러시아어문학 교사와 교재의 부족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어문학의 수업 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우즈벡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정해져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경택 2006, p. 55). 타지키스탄에서도 독립 이전까지 교육기관에서 교육 언어는 타지크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키르기스어였으나, 독립 이후 타지크어가 국어로 규정됨으로써 러시아어를 제1의 교육 언어로 사용했던 초등학교들부터 타지크어 교육이 강화되었고 타지크어문학 시간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러시아어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정경택 2004, 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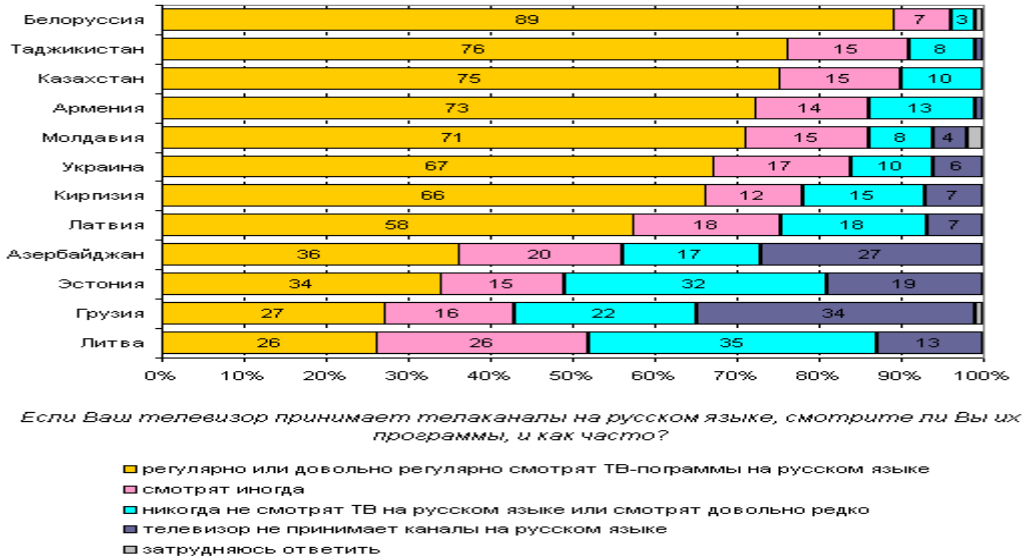
그러나 구소련공화국에서 러시아어 교육의 위축과 비교하여, 러시아 미디어는 아직 건재한 편이다. 특히 러시아어 TV 프로그램은 많은 구소련 공화국 주민이 시청하고 있다.

---

9) Арефьев, Указ. соч.

10) «...сохраним тебя, великое русское слово!»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нерусских народов бывшего СССР (http://redeurasia.narod.ru/zloba_dnya/rusyaz.htm) (2012, August, 10)

표. 2. 2007년 기준 탈소비에트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TV 시청율[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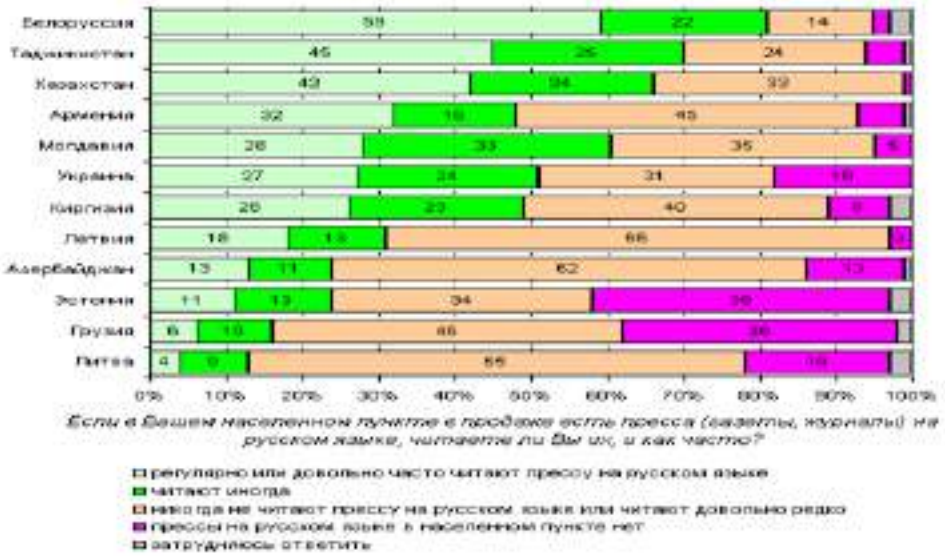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7년 기준 러시아 방송을 정기적으로 혹은 때때로 보는 사람들은 탈소비트 대부분 국가들의 성인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러시아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르메니아, 타직스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국민들의 러시아어 구사력도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의 87%가 러시아어 방송을 시청한다. 대중문화에서 TV의 엄청난 위력을 알 수 있는 부문이다. 방송을 제외한 기타 러시아어 출판매체도 꽤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러시아어 구사력이 가장 높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 신문, 잡지를 구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타직스탄에서는 러시아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에서 1/4가량 되며, 때때로 읽는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인구의 반 혹은 그 이상이 된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13~24% 가량이 러시아어 출판물을 읽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러시아어 신문, 잡지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12)]

전반적으로 오늘날 TV를 비롯한 러시아 대중매체는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으로 다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있다 (Rantanen 2002).

11)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 2008
12)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 (2012, August, 10)

표. 3. 2007년 기준 탈소비에트 국가 국민들의 러시아 인쇄매체 활용율[13]



III. 러시아 공공외교정책과 사상적 배경

3.1. 러시아 공공외교정책의 출발과 흐름

Joseph Nye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나의 생각에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는 상대가 나의 뜻을 따르도록 군사 및 경제적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는 하드파워와 구분된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프트 파워는 영향을 미치려는 능력 또는 상대국가 국민들의 여론을 지배하려는 능력이라기 보다는, 신뢰를 쌓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력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질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경제 제제 등 물리력을 앞세운 하드파워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오늘날은 강제력보다는 그 나라 문화 수준, 대외정책 등을 통해 여러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소프트파워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외교는 대외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애초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파간다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외교관을 통해 외국 공중에게 자국을 홍보하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대중 문화, 패션, 스포츠, 뉴스,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대외정책 및 기타 국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러시아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자신의 이미지 확산과 대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상대 국가 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조치의 총체이다"(Долинский 2011, pp. 8-9). 공공외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중 외교>, <문화 외교>, <국가 브랜딩> 등이 있다.

러시아는 소연방 시기에 냉전적 대결을 펼쳤던 서구가 만들어놓은 적대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에너지 산업과 국가안보, 소수 민족 및 접경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 등에

13)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 2008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의 핵심적인 국익을 지켜내는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우준모 2011). 그리하여 러시아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우호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는 러시아 대외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되기 시작했다.

2001년 2월 인준된 〈러시아와 해외 국가들과의 문화적 협력 발전을 위한 러시아외교부의 주요 업무 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МИД Ро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에 따르면, 문화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전략을 실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권위는 그 정치적 무게와 경제적 힘에 의해서 뿐 아니라, 러시아연방 제 민족들의 문화적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러시아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 유일성을 표현하며, 동시에 모든 세계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의 글로벌한 문화-역사적 유산의 한 부분이 된다.”[14] 2008년 인준된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컨셉(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설정된 목표 가운데에는 국제 사안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러시아 문화, 학술, 지적 창조 분야에서 러시아가 거둔 성과를 홍보하고, 해외에 러시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있다.[15]

2010년 12월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문화-인문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주요 정책 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이라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제 문화-인문 협력 정책은 러시아연방 대외 정책의 필수부가결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 대외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국제 문화-인문 협력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소개,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어 확산, 국제 청소년 교류, 해외동포 지원 등도 포함된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정책이 구소련 공화국들의 색깔혁명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 정치가들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서구의 영향력이 서구의 NGO와 미디어 같은 소프트 파워 채널이 갖는 큰 대중적 접근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크레믈린은 서구 프로파간다에 러시아의 상응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색깔혁명 이후 러시아는 비정부기구, 러시아 정교회, 미디어를 통해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러시아 정부는 2007년 <루스키미르> 재단을 설립했다. <루스키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주된 매력은 문화적, 종교적 유사성이다. 특히 러시아 정교회의 권위는 벨라루스, 몰도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신자들에 의해 폭넓게 인정된다. 친크레믈린 성향의 러시아 정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향한 러시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 거주하는 정교회 신자들의 연합과 서구문명에 대항하는 단일한 러시아 문명의 발전을 촉구한다.

러시아 공공외교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소프트 파워를 프로파간다 확산

14)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МИД Ро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http://www.mid.ru/bdomp/dip_vest.nsf/19c2fdee616f12e54325688e00486a45/62f99e9996d1a322c3256a7e00420e9b!OpenDocument) (2012, august, 24)

1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8). MID RU. M. 2009-2010. (http://www.mid.ru/bdomp/ns-osndoc.nsf/e2f289bea62097f9c325787a0034c255/d48737161a0bc944c32574870048d8f7) (2012, July, 27)

의 플랫폼으로 보고,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같은 가장 충성스러운 구성원들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공공외교 노선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래의 공공외교 정책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즉 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안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미 동의하는 사람들을 결집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은 해외 러시아 동포와 소위 "문화적 러시아인"이라고 부르는 해외 러시아어 구사자들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공공외교를 논하는데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러시아는 역동적인 이민의 흐름이 나타나는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러시아로의 이민, 러시아에서 서구로의 이민 등, 이민은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이민의 물결은 짧게는 소련시기부터, 길게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이민 현상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유진숙 2007, pp. 128-129).

20세기 초 내전의 결과로 약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비에트를 등졌으며, 대 조국전쟁과 뒤이은 정치적 숙청으로도 약 900만 명가량의 러시아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추방되었다. 또한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25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남게 되었다.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많은 비러시아 국가들이 명목 민족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것은 러시아인들의 또 다른 이주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전 세계 각지에 퍼진 거대한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으며, 솔제니친(Солженицын 1994)은 이를 가리켜 갈가리 찢어진 나라라고 탄식했다.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혈통적으로 '러시아 인종의 피'와 언어적으로는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민족적 정체성의 담지로 삼지만, 실제로는 오랜 이주의 역사로 인해 수대에 걸친 혼혼으로 그 혈연과 구성에서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지역별로 다양한 정체성을 띈다. 그러므로 솔제니친(Солженицын 1994)은 러시아 디아스포라에 인종적으로 비러시아인인 러시아어 구사자, 러시아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러시아의 정신세계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 아주 단순화해서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러시아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개념은 뒤에서 살펴볼 루소포니아와 루스키 미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종적 러시아인들 외에도, 소위 '근외지역'에 존재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러시아인(cultural russians)들에게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기억한다. 1990년대 초에 구소련연방 공화국들이 민족어의 위상 강화 및 러시아어 퇴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지역에서 러시아어는 아직도 정치, 경제, 군사, 학술-문화의 언어로 남아있으며, 여러 소수 민족들의 민족간 소통언어로 기능한다(Pabvlenko 2008, p. 301).

최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해외 동포 및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문화적 러시아인들의 통합을 위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러시아어 사용공간의 보존, 근외 지역에서 러시아 문화의 지위 보존,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모국어와 모국 문화의 보존, 조국과의 탄탄한 정신적 문화적 관계 성립, 러시아와 타국가들의 공통의 정보 공간 구축, 동포들의 권리 수호가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서 부각된 것이 루소포니아와 루스키 미르이다.

3.2. 러시아 공공외교정책의 사상적 기반

3.2.1. 루소포니아

많은 러시아 지식인들은 해외 러시아어 확산의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루소포니아의 건설을 제안했다. 루소포니아(русофония, Russophonie)라는 용어는 «la francophonie» (франкофония)의 유사로 만들어졌으며,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러시아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믿는 이들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확산은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제국이 무너지고 난 후, 전 세계 프랑스어 유지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국제 프랑코포니 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정치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랑코포니(Francophonie)가 이 국제기구를 가리킨다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프랑코포니(francophonie)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을 가리킨다. 프랑코포니의 이 제도적 메커니즘은 프랑스어문화 확산, 프랑스와 회원국들 사이의 문화, 학술 교류의 활성화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랑코포니는 러시아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언어적 장벽의 극복을 위한 통합의 언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러시아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21세기에 들어서, <루소포니아>라는 용어는 점점 더 자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Ильяшевич 2001, Сироткин, Семенов 2004, Бороздин 2010). 그들은 프랑코포니처럼, 루소포니아가 근외지역을 포함한 러시아어 사용 국가들의 동맹과 전세계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비정치적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적, 인문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의 제국주의적 함의를 경계한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자신도 수차례 러시아어의 확산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16] 루소포니아의 이념은 <루스키 미르>의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3.2.2. 루스키 미르

Павлов(2004)에 따르면, <루스키 미르>라는 개념은 필로페이 대주교의 제3로마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그 후 이 개념은 알렉세이 호먀코프의 “러시아 정신(русский дух)”,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와 니콜라이 베르댜에프의 “러시아 사상(русская идея)”, 세묜 프랑크의 “러시아 세계관(русское мировозрение)”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갔다 .

현대 정치철학에서 <루스키 미르>는 표트르 세드로비츠키(Петр Щедровицкий), 비탈리 스크린닉(Виталий Скриник), 타티아냐 폴로스코바(Татьяна Полоскова) 등 크레믈과 가까운 러시아

16) 2007년 ‘러시아어의 해’(Год русского языка) 행사의 일환인 러시아어문학교사 국제협의회(МАПРЯЛ) 의회에서 러시아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해외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강화는 러시아 외무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의 이해 실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http://www.izbrannoe.ru/14052.html). (2012, May 22). 푸틴 전 대통령도 러시아어의 보존과 확산이 러시아 사회의 통합과 CIS 국가의 통합,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공간으로 편입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연방대통령령 2005년 1월 4일. №. ПР-22). 또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2010>에서도 러시아어의 보존, 발전, 확산은 CIS 국가들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천명한다 (http://www.programs-gov.ru/11_1.php) (2012, May 22).

정치학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루스키미르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구조이다. Тишков(2007)는 루스키 미르의 소속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그리고 러시아 조국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솔제니친의 디아스포라의 정의에도 부합하며, 동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했던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즉각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해외 동포들의 1차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루스키 미르'를 언급하면서, 이는 러시아의 지리적, 인종적 경계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7년 6월 21일 대령통령에 의해 재단 루스키 미르가 설립되었다.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가 재단 설립에 참여했고, 재단 기금은 연방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긍정적 국가 이미지 창출, 러시아에 대한 지식 전파, 해외 러시아어 교육기관과 단체 지원, 해외 러시아어 대중매체 지원, 러시아에 대한 이민자와 귀향자에 대한 지원, 러시아 센터(Русский центр)의 해외 개설, 러시아 교육사업 수출, 학술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한다(남혜현 2011a, p. 183).[17]

재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루스키 미르는 러시아인이나, 근외, 원외 지역에 사는 러시아 동포, 그들의 이주민, 후손뿐 아니라,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루스키 미르는 러시아 문화, 언어적 환경에 포함되며, 러시아에 정신적으로 속해있다고 여기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의 초민족적, 초인종적 네트워크를 가리키며, 오늘날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주요한 접근 방법이 되었다.

재단 <루스키 미르>외에 러시아 공공외교 정책의 또 다른 실행 기관으로 국제인도적협력청(이하 국제협력청)이 있다. 국제협력청은 CIS 관련 업무, 재외동포 지원, 국제 인도주의 협력을 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러시아의 공공외교를 총괄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청의 활동 영역은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생성, 외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증진이며, 각종 행사를 통해 러시아 문화 자산을 전파하는 등 문화 보급의 진지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청은 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년~2010년>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 참여했으며, 제3차 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11년~2015년>을 기획하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사한 기관인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이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가 장기적인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이곳은 정책홍보 및 경제협력 지원까지 아울러 담당하는 전 방위적 국가 홍보 및 문화・경제・과학 교류 기관이다. 이러한 국제교류, 국가홍보, 러시아어 강화 작업은 궁극적으로 CIS, 동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이다 (남혜현 2011a, pp. 181-18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스키 미르와 국제협력청 모두 친러시아어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 각지에 퍼진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러시아어 구사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잠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대한 노선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미디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터넷은 전 세계 루스키 미르의 일원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오프라인의 제한을 극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첸코(Яценко 2007)는 루넷을 대단히 효과적인, 무생물 러시아어 사용자라고 명명하며, <.ru> 인터넷 존은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국적과 상관없이 러시아어로 정보를

17) 현재 약 60여 개의 센터가 33개 국가에 개설되어 있다. 한국에도 3개 대학에 러시아 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루스키 미르 재단은 러시아 센터 외에 러시아 캐비넷(Русский кабинет)이라는 러시아 문헌 및 시청각 자료가 비치된 소규모 공간도 지원한다.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어의 기능 영역을 확장한다고 주장했다.

IV. 공공외교의 도구로서 미디어

4.1. 러시아 TV와 루넷의 현황

오늘날 러시아 당국의 소프트 파워 증대 및 공공외교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단연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다.

2004년 러시아 당국은 대대적인 국가 홍보를 위해 국영 뉴스 에이전시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를 현대화하여 해외에 직접 해당국 언어로 러시아 관련 뉴스를 서비스하고, 러시아적 시각으로 국제문제를 보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이미지 개선과 국가 홍보를 위해 2005년 영어 TV 채널 Russia Today를 설립했다. Russia today는 현재 RT 채널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역 별로 방송 내용을 특화시켜 100여개국에 송출하고 있다. RT는 뉴스 이외에도 찬란한 러시아의 문화예술 등 러시아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편성한다. RT와 리아노보스티 통신사뿐 아니라, 국영 라디오 방송인 '러시아의 소리' (Voice of Russia)도 전 세계 주요국에 해당국 언어로 러시아 관련 뉴스와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받는 TV 뉴스 프로그램들이 CIS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해당국 주민들의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웹기반 뉴스 에이전시인 레그넘(Regnum)과 노브이 레기온(Новый регион)도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한 크렘린의 시각을 확산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동시에,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아르구멘티 이 팍티(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와 같은 유명 신문들은 스페셜 에디션을 발행해서 포스트 소비에트 역내 국가들에서 배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위성 TV 네트워크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예전 소비에트 제국을 촘촘히 포획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들이 송출하는 러시아 현대음악, 영화 등 러시아 대중문화는 대부분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문영(2011, pp. 278-279)에 따르면, 1990년대 НТВ-плюс, РТР-планета, ТВ-6 등 러시아 위성 TV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은 CNN International, BBC World Service, MTV Europe 등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 상품들로 채워졌으나, 2000년대 초부터는 러시아 자체 제작품이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 네트워크가 커버하는 공간 역시 러시아 연방을 넘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과 동유럽 등으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ТВ-6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발틱 3국,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구소련구성공화국들 내 400여개 도시를 포괄한다. 형성 초기 CNN 뉴스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2000년대 부터는 <Я сама>, <Сделай шаг>, <Катастрофы недели> 등 자체 제작 인기 프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러시아 위성 TV 네트워크인 프로메테이-아스트(ПрометейАСТ)의 경우도 현재 러시아연방 122개 도시, CIS의 33개 도시, 발틱 3국의 5개 도시를 커버하며 잠재적 시청자 수도 4200만명 이상을 헤아린다. 이처럼 이들 러시아 거대 위성 TV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러시아-CIS-발틱 국가간 단일정보공간의 창출'에 있다.

나아가 이문영(2011, pp. 285-286)은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적 특수성과 문화적 개성을 반영한

TV 컨텐츠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TV 상업광고에서도 소비에트에 대한 노스탤지어, 민족주의, great power에 대한 갈망이 잘 드러난다. 러시아의 맥주 광고 "러시아가 있는 그곳에 발티카가 있다" (Балтика, там где Россия), "하나의 조국, 하나의 맥주" (одна страна, одно пиво) 등은 러시아 연방 내부, 구소련 제국의 다양한 민족과 인종간의 화합과 통일, 문화적 동질성을 다루며, 집단주의를 기치로 하는 소련식 가치와 애국주의,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Ćwiek-Karpowicz(2012, pp. 5-6)도 러시아 소프트 파워의 가장 영향력있는 생산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비에트의 제 구성원들이 거둔 공동의 승리와 잃어버린 소비에트 제국에 대한 향수의 레토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제국의 부활"과 러시아어의 확산을 목표로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로는 인터넷이 있다. 러시아는 다를 국가들보다 인터넷 정보 경쟁에 뒤늦게 출발했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에서 유럽국가들을 넘어선다. 2000년 러시아의 인터넷화는 2.1%에 불과했으나, comScore에 따르면 2012년 러시아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5천6백만명이 인터넷에 접속하며, 인터넷 사용자 수로는 중국, 미국, 일본, 인도를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18] 199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러시아 지사장이었던 밥 클로프(Bob Clough)가 "현재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1917년 레닌의 혁명보다 더 중요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러시아의 인터넷은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이후 미디어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루넷이 있다. 루넷이란 인터넷 상에서 러시아 코드이자 도메인 명칭인 <.ru>와 인터넷을 의미하는 <net>의 합성어이다. 루넷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루넷의 언어, 즉 러시아어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루넷은 러시아어로 쓰인, 혹은 반 이상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루넷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ru>외에도 원칙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을 가질 수 있고, 그 서버는 물리적으로 세계 각지에 존재할 수 있다.

러시아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루넷의 발전도 눈부시다. 특히 러시아인들의 SNS 사용 비율이 대단히 높은데, 2010년, 92%의 루넷 사용자들이 하나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흥미 있는 것은 루넷의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이 아닌,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인 <В контакте>와 <Одноклассники>인데, 각각 1억명과 5천만 명의 가입자가 등록되었다.

루넷의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들의 독특한 소통 습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러시아인들은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솔직한 대화를 선호한다. Стернин (2002, pp. 87-94)은 러시아인들의 전형적인 소통 범주로 "마음을 터놓은 대화(разговор по душам)에 대한 욕망"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의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인들의 소통 방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영미문화권의 전형적인 소통방식과 구별된다.

러시아의 유명한 블로거 루키야넨코는 러시아인의 민족성과 인터넷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에서 인터넷은 자유로운, 비공식적인 소통의 장이 된다고 했다.[19] 해외 학자들도 러시아에서 인터넷은 더 이상 서구로부터의 수입품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소통의 비위계성, 비형식성, 자유로움 덕분에 완전히 러시아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Schmidt, Teubener 2006; Gorny 2004).[20]

18) http://net.compulenta.ru/688320/ (2012, July 5)
19) http://www.russkiymir.ru/russkiymir/ru/analytics/tables/news0002.html (2012, June, 0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넷을 사용하는 계층은 인종적 러시아인들 뿐 아니라, 근외, 원외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적 러시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넷의 사용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없다. RUgeomap은 2011년에 전 세계 도메인 <.ru>로 등록되어 있는 약 300만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트의 약 72%가 러시아연방에 호스팅하고 있으며, 13.6%가 독일에, 6.2%는 미국에 호스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흥미있는 것은 독일과 미국이 모두 대규모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반면 구소련 공화국들에 호스팅하는 〈.ru〉의 사이트 양이 미미한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인터넷의 사용이 서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으므로 등록된 도메인의 수도 많지 않고, 또한 등록된 도메인들의 상당수가 자국의 도메인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1]

루넷이 러시아연방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해외 러시아어 구사자들 덕분이다. 특히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루넷의 사용자는 러시아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소수 민족들까지 포함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다수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정부 사이트를 비롯한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이 러시아어와 자국어의 2중 언어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루넷 공간의 참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루넷 공간은 그 언어적 대표성으로 인해 구소련 국가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느슨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이지연 2010).

4.2. 미디어를 통한 루스키 미르 구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과 구사자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의 거대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꽤 많은 명목 민족 및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러시아 방송을 위시한 러시아의 대중문화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러시아어 구사력과 러시아 대중문화에 대한 정향성은 이들을 루넷으로 유도한다. 또한 기술력과 콘텐츠 보유량, 사용자 수에서도 루넷은 우즈넷, 카즈넷과 같은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의 민족 인터넷을 훨씬 압도한다(Uffelmann 2011, p. 176). 아래에서는 루넷을 통한 루스키미르의 초민족적, 초국가적 네트워크 구축을 루넷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기타 문화적 러시아인들의 루넷 사용으로 나누어 보겠다.

4.2.1. 미디어를 통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인터넷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지역적 원거리성을 극복하고, 이들의 소통 제한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러시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개설되는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зарубежья의 “Россия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라는 포탈과 Russian-World-info (http://www.russian-world.info/russkie-obschiny)이다. 이들 사이트는 러시아 포탈들을 배너로 등록했으며, 근외와 원외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다양한 단체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당면한 정보들을 실으면서, 러시아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삶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2000~3000만의 러시아 동포가 거주하는 CIS와 발트 지역에서도 러시아 동포들의 공통의

20) 러시아인의 전통적인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남혜현(2011b:122-125) 참조.
21)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рта Рунета (http://www.rugeomap.ru/) (2012. June 23)

정보공간을 위한 다양한 인터넷 포탈과 블로그가 생겼다. "Русские в Казахстане" 사이트는 이러한 시도의 좋은 예이다. 원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디아스포라도 적극적으로 루넷을 사용한다. 많은 수의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독일(약 400만명), 미국 (350만), 이스라엘 (150만)에서 루넷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이처럼 해외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인터넷을 통해 조국과 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다.

러시아정부는 해외 러시아 동포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고국과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포지원정책[22], 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23], "러시아어 2006-2010"[24]과 재단 〈루스키 미르〉와 〈국제협력청〉 등의 기구를 통해 해외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터넷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뿐 아니라, 신문 방송 등도 디아스포라를 결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오늘날 러시아 연방은 CIS와 발틱 국가들에서 강력한 러시아어 미디어와 네트워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발틱 국가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자면, 이곳에서는 30여개의 러시아어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는 전국 단위 일간지 (День за днем, Молодежь Эстонии, Деловые ведомости, Эстония)이고, 이밖에 6~7개의 지역 단위 러시아어 신문이 있다. 가장 인기있는 지역 단위 러시아어 신문으로는 무가지인 탈린의 Linnaleht, 나르바의 Gorod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화자가 전체 주민의 93%에 달한다. 간행물 외에 에스토니아에는 민영 채널 Первый балтийский канал, RTR Planeta, Orsent TV, 로칼 TV 채널 Tv3+, 음악 채널 Muz-TV 등 여러개의 러시아어 방송 채널이 있다. 2009년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인들은 하루

22) 러시아 동포 지원정책의 시작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94년 11월 "해외 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책의 주요 방향"(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Ф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을 발표했고, 1995년 9월 "CIS국가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전략"(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курс РФ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ранам СНГ)을 공표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은 동포 지원정책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증가에서 잘 나타난다. 2000년 해외 동포 지원 정책에 소요된 예산은 5천만 루블이었고, 2005년에는 3억 420만 루블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3억 567만 루블에 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동포 지원정책 유관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데, 동포의 권익 수호가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 영역 유지, 확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남혜현 2011a, pp. 176-178).

23)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년~2005년>는 2001년 7월에 공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 기관은 러시아연방 교육부, 이민국, 러시아 학술원, 모스크바 국립대학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어의 정신적, 예술적, 학술적, 문화적 지위 보존이며,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러시아연방 국어로서, 러시아 민족의 민족어로서 러시아어의 발전과 확산, 러시아와 CIS 국가, 발트 3국의 국제적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 강화,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어의 영향력 확산, 러시아어 교수법 개발, 대중매체를 통한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확산 등이다 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은 2002년~2005년이고, 총 재정 규모는 1억 6518만 루블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러시아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방송과 라디오 채널 개설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남혜현 2011a, pp. 178-179).

24) 제2차 연방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년~2010년>는 2006년에 공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연방 국어로서,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기능 실현을 위한 제반 조건 마련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연방의 안보 확립, 위상 제고, 통합 구축과 CIS국가들의 통합 과정 촉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공간에서 러시아 연방의 위상 확립을 위한 것이다. 즉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어의 확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 내의 전략적 과제와 해외에서의 전략적 과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전략적 과제로는 CIS 지역 통합 촉진의 기초로서 러시아어의 효과적 기능 지원, 발트 3국에서 러시아어 지원, 러시아연방과 해외에서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확산 및 학습 지원, 해외 거주 러시아 동포의 언어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기반 마련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 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이고, 총 재정 규모는 13억 루블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러시아어 교육 포털사이트 개발,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언어·문화 소개 TV, 라디오 채널 개설, 러시아 동포의 모국어 학습 방안 및 교과과정 표준안 마련, 해외 러시아 학술센터 시설 정비, 대중매체를 위한 러시아 표준어 사용안 마련, 러시아연방의 민족 간 소통어로서 러시아어의 기능 실현에 위협 요소 예측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추진했다. (남혜현 2011a, pp. 179-180).

평균 3시간 46분동안 러시아어 방송을 시청했으며, 이는 인종적 에스토니아인들보다 52분이 더 많다. 러시아 라디오는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방송보다 더 큰 인기를 구가하는데, 4개의 러시아 음악 라디오 채널 외에도,Radio 4와 Русское радио가 교육, 문화, 뉴스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Conley, Gerber 2011, p. 15)

이처럼 러시아어 미디어를 통해 인종적 러시아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목 민족들과는 서로 다른 언어로된 서로 다른 정부공간 속에 거주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해당 지역 명목 민족 간 차이는 더욱 강화된다 (Conley, Gerber 2011, p. 15). 이것은 물론 디아스포라가 거주하는 해당국 정부의 불만을 야기한다. 예컨대, 에스토니아 외교부 정책기획국 제1차관인 Kart Juhasoo-Lawrence는 러시아 미디어는 독립국가로서 에스토니아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넌지시 암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위상을 논하며,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Conley, Gerber 2011, p. 16-17). KAPO(에스토니아 안보경찰국)는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 미디어가 에스토니아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타락한 유럽의 주변국이며, 신나치즘으로 인해 러시아어 화자를 박해하는 듯이 묘사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4.2.2. 러시아어 미디어와 “문화적 러시아인들”

국가별 루넷의 구체적인 사용 정도는 해당국 주민의 러시아어 구사수준 외에 그 나라의 정보화 정도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 난다. 러시아 인터넷 신문 Plus.It의 기사에 따르면, 2011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발트 3국이다. 이곳에서는 60%~75% 가량의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략 35~45% 가량의 국민이 인터넷을 활용한다. 아르메니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전체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다.[25] 그렇다면 개별 국가의 루넷 사용 정도를 살펴보자.

우선 국민의 러시아어 구사력과 전체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경우 러시아어 웹사이트, 러시아어 온라인 미디어는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90% 이상의 웹사이트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26] 우크라이나에서는 2011년도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로 Вконтакте, Google, Mail.ru Яндекс, Одноклассники 가 선정되었다.[27] 또한 이들 국가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되어있으며, 때로 영어의 웹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발트 3국은 국민들의 러시아어 구사 수준도 크게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루넷의 사용 정도도 각기 다르다. 발트 3국 가운데 러시아어 구사력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의 라트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10개 가운데 7개가 러시아어와 라트비아로 제공된다.[28] 그러나 라트비아의 국어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기업들은 라트비아어 홈페이지만 제공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5개 정도의

25) Plus.It (07.01.2011), "Новости ИТ в мире: количество интернет-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СНГ выросло до 10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http://www.plusit.biz/ru/component/content/article/135-internet-polzovateli-2010-sng) (2012. May 23)

26) Риа Новости (05.12.2006),"В Москв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стран СНГ и Балтии". (http://www.moldova.ru/index.php?tabName=articles&owner=44&id=1593) (2012, June 27)

27) Poltava.info (19.08.2011), "Рейтинг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сайтов в Украине" (http://poltava.info/news/hi-tech/market/2011/08/19/14-16-52/Reiting-samyh-populjarnyh-saitov-v-Ukraine.htm) (2012, June 26)

28) Top.lv, (http://www.top.lv/?l=ru) (2012, August 09)

뉴스 사이트가 러시아어로 되어있으며, 특히 러시아어 뉴스 포탈인 Delfi와 Regnum이 주도적이다. 러시아어 구사력이 가장 낮은 리투아니아에서는 루넷의 사용 정도가 더 떨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는 자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로 제공된다. 특히 경제부, 외무부, 법무부, 자유민주당, 상원, 하원, 대법원, 과학기술발전협력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통신감시국 등은 시작페이지가 러시아어 텍스트이다(김혁 2010: 399-401). 게다가 키르기스탄 정부 홈페이지(http://www.gov.kg/)와 국정홍보사이트(http://www.welcome.kg/)는 러시아어 페이지만 제공한다.

타직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인터넷의 확산 정도가 대단히 낮다. 오늘날 타직스탄에는 10여개의 뉴스 에이전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Ховар(http://www.khovar.tj/rus/)와 "Asia Plus"(http://news.tj/ru)의 인터넷 사이트는 뉴스 텍스트를 자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로 제공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사용자는 1.6%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가 기관과 매스미디어 사이트는 러시아어 텍스트만 제공하거나, 자국어 텍스트도 병행해서 제공한다.

루넷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Kaznet, Uznet과 같은 민족어 사이트가 루넷에 비해 기술적 측면과 컨텐츠의 측면에서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루넷의 러시아어 온라인 정보 매체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기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국가들의 저널리스트들에게 국내외 정보의 유일한 소스가 되고 있다(Bogomolov, Lytvynenko 2012, p. 9). 2010년 12월 comScore의 조사에 다르면, 러시아어 온라인 정보매체의 독자는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2천5백만 명이 러시아에, 1천5백만 명이 국외에 거주한다.

이러한 수치들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논쟁적일지라도, 최근 10년간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루넷이 강력한 정보, 소통,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루넷의 영향력에 주목한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을 러시아어와 확산과 러시아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한 예로, 러시아 정부는 키릴 도메인 등록을 적극 장려한다. 2010년 기준 78만개의 사이트가 .рф 도메인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매해 <러시아 인터넷 주간> (неделя русского Интернета)에 국영라디오방송사 <Voice of Russia>의 주관으로 «인터넷은 러시아어의 영토다(Интернет — территор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라는 상징적 슬로건 하에 해외 러시아어 인터넷 사이트를 주제로 하는 학회가 열린다. 2004년에는 러시아어 인터넷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루넷 상(Премия Рунета)이 제정되었는데, 이 상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러시아 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외 루넷상.RU (Рунет за пределами RU)>을 수상한다.

V.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언어지형도에 대한 전망

오늘날 정보 종속적인 현대 사회에서 단일한 문화-역사적 공간의 유지를 위해 미디어의 망과 정보의 홍수가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다. 글로벌 루넷은 루스키 미르의 네트워크를 위한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속에서 루스키 미르의 일원은 러시아어로 소통하고, 러시아어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미디어는 매우 효과적인 러시아어 사용자이며, 미디어의 영역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러시아어로 정보를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어 사용 공간을 확장한다. 특히 러시아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게 러시아어 학습 동기와 러시아어 정보 공간에서 소통할 동기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루넷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지형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가상공간에서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러시아어와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명목 민족들과 기타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루넷은 러시아인, 해외 러시아동포, 그리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모든 외국인을 하나로 묶는 느슨하지만 자발적인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과연 루넷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위를 공고히 지킬 수 있을까?

향후 루넷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2011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어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루넷이 소비에트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했다. 〈로스발트〉의 정치부 부편집장인 이반 프레오브라젠스키는 러시아어는 중앙아시아와 발틱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후퇴하고 있으므로, 루넷의 지리적 소통 공간도 점차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루넷 사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하면서, 러시아어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국제어로 기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루넷은 경쟁자가 없을 것이며, 루넷이 CIS 공간에서 러시아어 화자와 외국어 화자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 공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29)]

그러나 루넷을 통한 러시아어의 향후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언어로 된 인터넷 존을 선택하는 것은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아닌, 그의 특정 언어 구사력,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통 및 상업적 목적에 달려있다. 오늘날 많은 러시아 동포들과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국가의 주민들이 루넷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러시아어를 충분히 구사하고, 또 루넷이 그들의 개인적인 소통,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구세대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루넷 속에서 대화의 장을 찾았고, '상처받은' 민족적 자긍심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특히 러시아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터넷에서 lingua franca로 역할하며, 러시아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명목 민족어나 심지어 영어를 구사하는 것 보다 더욱 선호된다. 또한 루넷은 민족 인터넷 zone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명목 민족어는 소수 민족들 사이에도 더욱 확산될 것이며, 젊은이들의 영어 구사력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현대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루넷의 인기는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어가 러시아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언어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는 아직까지도 구소련지역 국가들에서 소비에트 시절의 절대어로서 제국주의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많은 탈소비에트 국가들이 반러시아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어를 확산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공공외교는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구세대 주민들에게 소비에트 시절 대중매체의 선전, 선동과 유사한 제국주의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따라서 사이버 제국(cyber imperialism)으로서 루넷에 대한 경계는 더욱 커질 것이다(Uffelmann 2011:178). 특히 러시아-그루지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동포 정책은 더욱 민

29) Планета.СМИ (21.01.2011), "Когда развалится Рунет?" (http://planetasmi.ru/blogi/comments/4966.html) (2012, June 28)

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이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자국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30]

결론적으로, 러시아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프트 파워 정책이 보편적인 소프트 파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상대국가와의 진정한 파트너쉽이라 했던 조셉 나이의 정의와 어긋난다. 러시아 정책기획자들이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 개념을 프로파간다 확산의 플랫폼으로 보고, 자국의 외교 정책과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원래의 공공외교의 목표를 수정하여, 러시아 디아스포라 및 문화적 러시아인들과 같은 가장 충성스런 구성원들에게 집중하고, 이들을 결집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나아가 언어의 확산이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적 매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현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CIS 멤버국 가운데 가장 높은 GDP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투명도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언론의 자유에서 세계 142위를 기록했다.[31]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다른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보다도 낮다.[32] 모든 이러한 요소들은 러시아 정치 리더쉽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33]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를 통한 러시아어 확산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공공외교 과제는 앞으로 얼마큼 실현가능할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인터넷에서 러시아어는 앞으로 얼마간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주요 언어로 기능하다가, 이 지역 젊은이들의 민족어와 영어 구사력 향상, 서구 문화 지향성, 루넷의 사이버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루넷의 공간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슬라브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정도가 가장 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안과 밖의 수많은 러시아어 화자들이 루넷 속의 거대 인터넷 미디어, 검색 시스템, 블로그 등을 즐겨 찾는 동안,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강화된 러시아의 위상이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러시아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동안, 단일한 정보, 소통 공간으로서 루넷의 기능은 보장될 것이다.

---

30) 이러한 의구심은 러시아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재차 확인된다. 그들은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에서 러시아 연방의 이해를 실현하는 사회적, 인문적 지지 기반을 제공한다”고 한다. (Centre for East European Policy Studies 2009, p. 63)

31)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1-2012,1043.html) (2012, August 12)

32)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2012, August 13)

33) 세계 정치 리더쉽 조사에서 러시아의 리더쉽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0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104개국에서 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27%만이 크렘린의 리더쉽을 인정한 반면, 31%는 부정적인 답을 했으며, 33%는 대답을 회피했다. 러시아 리더쉽은 구소련공화국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Gallup. Russia's Leadership Not Popular Worldwide. (http://www.gallup.com/poll/148862/russia-leadership-not-popular-worldwide.aspx) (2012, June 25)

<참고문헌>

1. 국문자료

김혁. 2010.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0-06. 논문집 I.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혜현. 2011a.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슬라브연구』, 제27권 2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남혜현. 2011b. 러시아 사이버 공간에서 말과 글의 접근과 문체간 경계 허묾」 『언어와 언어학』, 제35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우평균. 2004.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안 디아스포라」. 『한국정치학회보』. 제 38집. 제 3호.
유진숙. 2007. 「그루지아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민족연구』. vol. 32.
이문영. 2011.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과 경계의 기호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TV」,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38집. 서울: 한국러시아문학회.
이지연. 2011. 「러시아 인터넷 루넷」. 『e-Eurasia』, No.31,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정경택. 2003.「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노어노문학』, 제15권, 제2호. 서울: 한국노어노문학회.
정경택. 2004.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 연구(타지키스탄의 경우)」. 『슬라브어연구』, 제 9권. 서울: 한국슬라브어학회.
정경택. 2006.「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 변화」.『슬라브어연구』, 제11권. 서울: 슬라브어학회
우준모. 2011. 「러시아의 공공외교: 특수성과 보편성」. 『세계지역연구』. 28권3호. 서울: 한국세계지역학회.

2. 영문자료

Alexander Bogomolov, Olexsandr Lytvynenko, 2012. “A Ghost in the mirror: Russia Soft Power in Urkaine” *Chatham House Briefing paper*, London, January. 2012.
Gorny E. 2004: “Russian LiveJournal: National specifics in the development of a virtual community Version 1.0.” *Russian Cyberspace Project* (http://www.ruhr-uni-bochum.de/russ-cyb/library/texts/en/gorny_rlj_2.htm) (2012, June 05)
Conley H.A., Gerber T.P., 2011, “Russian Soft Power in the 21st Century. An Examination of Russian Compatriot Policy in Estonia”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 Report of the CSIS Europe Porgramm*, Washington, DC, August 2011.
Pavlenko A. 2008. “Multilingualism in Post-Soviet Countries: Language Revival, Language Removal, and Sociolinguistic Theory.”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11, Nos.3&4.
Rantanen T. 2002. *The Global and the National: Media and Communications in Post-Communist Russia*. Lanham, MD: Rowman & Little field.
Ryazanova-Clarke L. 2006. “The crystallization of Structures: Linguistic culture in Putin's Russia”.

Landslide of the Norm. Language Culture in Post-Soviet Russia. Ed. by Ingunn Lunde & Tine Roesen. Slavica Dergensia 6.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University of Bergen 2006.
Saunders R. 2004: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киберрусские.”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4. (http://www.globalaffairs.ru/number/n_3549) (2012, June 28)
Saunders R. 2009. “Writing the Second World: The Geopolitic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Post Totalitarian Eurasia.” *Russian Cyberspace1(1)*.(http://www.russian-cyberspace.com/issue1/robert-saunders.php?lng=English) (2012, June 22)
Schmidt H. and Teubener K. 2006. “Our RuNet”? *Cultural Identity and Media Usage. Control+Shift: Public and Private Usages of the Russian Internet*, edited by Henrike Schmidt, Katy Teubener and Natalja Konradova. Norderstedt: Books on Demand.
Uffelmann D. 2011. “Post-Russian Eurasia and the proto-Eurasian usage of the Runet in Kazakhstan: A plea for a cyberlinguistic turn in area studie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2, Issue2. July. Seoul: Hanyang University.
Centre for East European Policy Studies 2009.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Georgia, Moldova, Ukraine and Baltic states. Riga.

3. 러시아어 자료

Арефьев А.Л. 2006. “Сколько людей говорят 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Демоскоп Weekly*. no.251-252, (19.06-20.08.2006) (http://demoscope.ru/weekly/2006/0251/tema05.php) (2012, May 14)
Бороздин М. 2010: “Русофония - один из путей спас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лит.Ру*.(18.08.2010) (http://politclub.info/?p=516) (2012, May 28)
Долинский А., Как усилить "мягкую силу", Русский мир, No. 3(2011). p. 8-9.
Ильяшевич В.Н. 2001. “Русскость и русофония”. *Завтра*. no.5(69) (http://www.zavtra.ru/denlit/069/41.html) (2012, May 27)
Павлов Ш. 2004. “Русский мір: история и История.” *Со-Общение*. N.4. (http://www.archipelag.ru/ru_mir/history/histori2004/shirhan-russmir/) (2012, June 16)
Сидорова М.Ю. 2006. *Интернет-лингвистика: русский язык, межличностное общение.* Москва.
Сироткин В., Семенов С. 2004. “Русофония и франкофония: что французам здорово, то и русским может быть впрок.”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http://www.ruskline.ru/monitoring_smi/2004/02/02/rusofoniya_i_frankofoniya/) (2012, June 04)
Стернин И.А.(2002) “О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м сознан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Вып. 4. Ижевск. с. 87-94.
Тишков В.А. 2007. “Русский мир: смысл и стратеги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no.7.(http://www.fondedin.ru/sr/new/fullnews.php?subaction=showfull&id=1185274651&archive=1185275035&start_from=&ucat=14&) (2012, June 04)
Солженицын А.И. 1994: “Русский вопрос к концу XX-го века.” Новый мир, no.7.(http://magazines.russ.ru/novyi_mi/1994/7/solgen.html) (2012, May 25)

Фролов, В. “Н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нципы мягкой силы. Как России работать в СНГ.” 14.04.2005.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113458160 (2011, June 04)
Яценко Е.Б. 2007.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усского мира. Почему язык снова становится надеждой и опорой?”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www.ng.ru/scenario/2007-05-29/11_hope.html) (2012, June 05)
Яценко Е.Б., Гаврилов К.А., Козиевская Е.В. 2008.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постсоветских просторах.” *Демоскоп Weekly*. no. 329 – 330 (14.04-27.04.2008) (http://www.demoscope.ru/weekly/2008/0329/tema02.php) (2012, June 05)

4. 기타 웹사이트 자료

재단 루스키미르 사이트: http://www.russkiymir.ru (2012, June, 03)
세계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1-2012,1043.html) (2012, August 12)
세계 국가관리지수: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2012, August 13)
갤럽 조사: Gallup. Russia's Leadership Not Popular Worldwide. (http://www.gallup.com/poll/148862/russia-leadership-not-popular-worldwide.aspx) (2012, June 25)
러시아 대외정책 컨셉: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8). MID RU. M. 2009-2010. (http://www.mid.ru/bdomp/ns-osndoc.nsf/e2f289bea62097f9c325787a0034c255/d48737161a0bc944c32574870048d8f7) (2012, July, 27)
러시아 연방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а 2002-2005). (http://iam.duma.gov.ru/node/2/4422/14451) (2012, June 17)
러시아 연방 정부 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2010>: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а 2006-2010) (http://www.programs-gov.ru/11_1.php
러시아연방 외무성 보고 자료 <세계속의 러시아어>: Доклад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 (2012, August, 10)
러시아연방 외무성의 해외 국가들과 문화적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МИД Ро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http://www.mid.ru/bdomp/dip_vest.nsf/19c2fdee616f12e54325688e00486a45/62f99e9996d1a322c3256a7e00420e9b!OpenDocument) (2012, august, 24)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 카프카즈 지역을 중심으로

문준일(중앙대)

목차

I. 서론
II. 러시아와 카프카즈
III. 러시아에서 카프카즈 수용과 인식
1. 카프카즈의 낭만적 수용 단계
2. 부정적 이미지의 발생과 고착
3. 카프카즈 연구의 시작 -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
IV. 러시아 오리엔탈리즘과 카프카즈
V. 결론

I. 서론

러시아는 18세기 표트르 대제의 개혁으로 근대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유럽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인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천착해왔다. 동과 서의 중간에 위치한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은 인문지리의 문제, 즉 민족성과 민족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공간적 특성은 정신적으로도 유럽을 향하나, 아시아적 특징을 내포한 이중성 성격을 잉태하였다. 이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는 21세기 현재의 러시아에서도 적용 가능한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며, 이른바 영원한 “러시아 문제”(Russian Question)가 되었다.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대에 걸쳐있다는 사실, 그것이 프랑스와 영국의 얼굴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얼굴을 또한 지녔다는 사실은,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집약되는 러시아의 고통스러운 자기인식과 발견의 여정을 만들어 냈다.[1)]

이 정체성의 형성에 오리엔탈리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표트르 대제의 북방전쟁 및 에카테리나 여제의 영토 확장에 따른 제국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동에 대한 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러시아에 정착하게 된다.

러시아의 영토가 카프카즈 지역과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러시

1) 김수환이 지적하고 있듯이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18세기 후반 이래로, 사실상 단 한번도 사회, 정치적 담론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점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러시아의 예술, 역사, 종교, 정치, 철학을 아우르는 유일무이한 ‘보편’ 문제였다. 러시아는 무엇인가? 러시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정한 러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 속에 러시아의 위치와 소명은 무엇인가? 이 물음들, 러시아의 정체성과 미래의 노선을 둘러싼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 두고 푸슈킨에서 솔제니친에 이르는 모든 진지한 러시아의 작가, 수많은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와 역사가, 화가와 작곡가, 신학자와 철학자가 씨름해 왔다. 김수환 (2006), p. 75-76.

아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하여 군사적으로는 터키와 페르시아 지역에 대한 서구의 정복 정책을 도입하고 문화적으로는 카프카즈 지역 등을 야만성을 지닌 이국적 공간으로 낭만화하여 그 지역을 타자화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불안과 자신감의 결여가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인 민족이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인들을 완전한 문명인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반(半)문명인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타당한 전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사건을 "아시아인들에 의한 아시아 정복"으로 규정하는 관점도 있었다.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개념에 매우 쓰라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2]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신들을 유럽인으로 정의할 수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아시아적인 사람들이었다. 교육받은 러시아인들은 자기 나라의 아시아적 후진성을 저주하였지만, 러시아가 서구와 동등한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유럽적 삶의 주류에 속해 그 일부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서구에 의해 러시아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가장 서구화된 러시아의 지식인들조차도 분개하며 러시아의 위협적인 아시아적 크기에 대한 국수주의적 자부심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의 예를 푸쉬킨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카프카즈의 포로』에서 동양을 지배하려는 유럽의 시각,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읽을 수 있었다면, 다른 글에서는 서양에서 분리된 러시아의 운명, 아시아적 정체성을 가진 러시아에 대한 시인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이렇듯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은 이중성, 양가성이 존재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러시아는 19세기 초반부터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틀 내에서 "동"과 "서"의 중간자로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 전제 정부와 지식인들은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유럽 중심적 이념 틀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한다.[4] 하지만 러시아는 동과 서 사이의 경계적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복합성과 모호성을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적 선민의식까지 합쳐지면서 러시아의 민족적 정체성은 더욱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은 러시아의 정체성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복합성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의 출발점인 19세기 러시아제국에서부터 그 시작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카프카즈 지역에서 나타난 구체적 역사적 현상을 역사적 문헌 속에서 고찰하고 또한 당시의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밝힘으로서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러시아인 내부에서의 정신적 반영을 동시에 밝히고자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양가적 정신 현상의 하나인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의 생성과 발전, 그 발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라는 복합적인 현상의 이해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러시아와 카프카즈

러시아와 카프카즈의 접촉은 역사상으로 키예프 루시(Kiev Rus)에서부터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의 양자 간의 접촉은 단순한 조우에 불과했고, 이후 몽골의 침입으로 루시

2) 정세진 (2012), p. 53.
3) 김원한 (2009), p. 117.
4) 이경완 (2008), p. 118.

는 독자적 외교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긴 시간 양자 간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었다.

카프카즈와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시기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표트르 대제(1689-1725) 때부터이다. 러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표트르는 러시아에 해양으로 가는 출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아조프해와 흑해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 권력투쟁의 암투 속에 즉위한 표트르는 어릴 적 병정놀이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근위대를 양성하고 함대를 건조하여 흑해 진출을 기도하였다. 1696년 러시아는 아조프 연안의 요새를 장악하고 흑해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이는 곧 크림 한국에 큰 위협이 되었고 투르크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을 의미하였으며, 표트르가 카프카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공세작전에 임하였음을 보여준다.[5)]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진출 시도를 하게 되면서 남쪽 국경에 위치하게 된 카프카즈 산악 민족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자연히 높아져 갔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러시아에서는 카프카즈와 그 곳의 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었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러시아 사회의 각 층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카프카즈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이 후 제정 러시아는 카프카즈에 대한 완전한 통제 없이는 자신의 남쪽 국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1817년에서 1864년까지 거의 반세기를 이끈 카프카즈 전쟁의 발발 이유가 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 사회에는 카프카즈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적 대응들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거대한 열강의 보호 속에서 누리게 될 평화로운 삶이라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광적인 인간들로 카프카즈의 산악 민족들을 받아들였다. 제국의 이념에서 피지배 민족의 거주민들은 '제국에 불성실한 신민'으로 해석되다가 나중에는 무시해도 되는 야만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러시아적 관점이었다.[6)]

또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매료되는 낭만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19세기 푸쉬킨으로 시작되는 "카프카즈 문학"에서 잘 나타난다. 이렇듯 당시 카프카즈 민족들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인식은 객관적인 이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

사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카프카즈 진출이 시작되었던 19세기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의 카프카즈 인식의 대한 문제는 많이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서서 러시아가 치렀던 체첸 전쟁이나 그 이후 러시아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일련의 테러리즘의 결과 현 러시아 사회에서 카프카즈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고조되었고, 카프카즈가 러시아에 가지는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19세기 카프카즈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병합되던 시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망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카프카즈를 병합할 당시 러시아는 카프카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형성된 카프카즈에 대한 인식은 당시 러시아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조망하는 것은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세기 당시 카프카즈에 대한 러시아의 사회인식이 변함에 따라 카프카즈 전쟁의 경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듯이, 현 러시아 언론매체와 사회인식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카프카즈의 이미지와 그 역할은 현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5) 박태성 (2005), p. 119-120.
6) 정세진 (2012), p. 53.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카프카즈 이미지”는 지리적 대상이나 그 곳에 거주하는 산악민족들의 생활이나 전통, 문화를 총합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카프카즈 이미지를 대별해 내려면 이 이미지를 만든 주체인 러시아인의 의식구조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카프카즈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역할을 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은 카프카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카프카즈에 대한 저술을 하면서 카프카즈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프카즈에 대한 작품을 써냈던 문학가들, 여행가들, 그리고 카프카즈에서 복무했던 상위층의 군인이나 카프카즈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 등 다양한 집단이 있다. 또한 러시아 사회에서 카프카즈 이미지의 발전은 이러한 다양한 지식인 그룹에서의 이룬 정보의 축척과 학문적 성과들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끊임없이 전달되고 보존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지기도 갱신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사회에서 카프카즈의 이미지 발전과 변화는 다양한 학문적 연구 결과들이나 문학작품들, 또는 매체들 즉, 신문이나 저널, 서적 등을 통해 반영되는 정보들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프카즈 이미지는 어느 정도 문화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카프카즈 이미지의 변화상을 문화의 영역에서 추적하고 또한 그 이미지들이 실제로 카프카즈를 병합하는 과정에서의 현실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제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유례없이 긴 시간 진행되었던 카프카즈 전쟁의 경과 과정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카프카즈가 러시아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카프가즈 전쟁(1817-1864)을 통해서였다.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었던 카프카즈 전쟁은 북카프카즈와 자카프카지예를 통해 흑해와 카스피해로 세력팽창을 노리는 러시아와 이에 대항한 북카프카즈 산악 민족간의 거대한 충돌이었다.[7]

카프카즈는 군사 전략상 거대한 산악 요새로서 자연적인 방책과 강력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동의 주요시장으로 진출하는 길목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시장을 이어주는 교두보였던 것이다.[8] 따라서 터키와 이란은 틈만 나면 이 지역을 위협하였고, 카프카즈 민족들은 외세에 시달리면서 상대적으로 보호세력이라 생각하는 러시아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남부 국경선의 안정적 고수와 적국과의 완충지대 확보라는 차원에서 홀대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9]

일반적으로 카프카즈 전쟁 시기는 러시아의 에르몰로프 장군이 이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1817년부터 체르케스 민족의 저항이 마지막으로 진압된 1864년까지 이다. 이 기간 동안 카

7) 카프카즈 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이슬람지역연구 전문가인 정세진에 의하면 카프카즈 전쟁의 원인에 대해 19세기 이후로 러시아 사학계와 러시아 지성사 그룹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카프카즈 전쟁은 18세기 이후 제정러시아가 남부인 카프카즈 지역으로 식민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러시아와 북카프카즈 민족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일부 러시아 학자들과 카프카즈 학자들은 러시아의 행위는 제국주의 침략이며, 북카프카즈 민족들은 이 전쟁을 통해 반식민주의, 반봉건주의, 자유 독립운동의 모티브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블리예프(Блиев М. М.)같은 학자들은 체첸 등 산악 민족들이 평지에 살고 있는 다른 카프카즈 산악 민족들, 러시아인들, 그리고 카자크인들에 대한 약탈과 공격을 감행해 러시아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카프카즈 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카프카즈 전쟁의 원인은 제정러시아의 침략정책이 아니라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산악민족’들이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정세진 (2007/2008), p. 267.

8) 파제예프(Fadeev)는 카프카즈에서의 교역에서 러시아 단독의 지배권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에서 페르시아, 아시아로 가는 교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카프카즈 지협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러시아에서 독립적인 카프카즈를 통과하는 교역은 러시아에게는 끝없는 손실과 위험을 줄 수도 있다” 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19세기에 널리 퍼진 견해였다. Газиумаров С. (2009), p. 65.

9) 박태성 (2005), p. 114.

프카즈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현재의 러시아연방의 체첸, 다게스탄으로 북-동 카프카즈 지역이었다.[10]

카프카즈 전쟁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전쟁 종결 이후 카프카즈로 눈을 돌려 전쟁을 시작한 에르몰로프 시기, 이후 북카프카즈가 신정국가인 이마마트를 형성하여 저항의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마미트 시기와 3대 이맘인 샤밀의 저항시기, 그리고 샤밀의 패배와 함께 북서 카프카즈 민족의 항쟁이 끝난 시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쟁이 발발한 초기 시기인 에르몰로프 시기는 1817년에서 18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있다. 19세기 초 그루지야와 북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영토로 복속되었다. 하지만 자카프카지예(Zakavkazye)는 카프카즈 산맥으로 러시아의 영토와 떨어져있었다. 호전적 산악 민족들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습격을 종종 일삼곤 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드르 1세는 군대를 그 지역에 집중시키고 카프카즈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다. 1816년 카프카즈군 총사령관으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에로몰로프장군(A.P. Ermolov)을 임명한다. 그는 군 내부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에르몰로프는 카프카즈 산악지대에 대한 정복계획을 수립하고, 요새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몇 부족들의 마을은 허물어지거나, 불탔고, 주민들은 러시아군의 감시 하에 평원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카프카즈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주된 지역은 두 군데로, 동쪽에서는 체첸과 산악지대 다게스탄이었고, 서쪽에서는 아브하지와 체르케스였다. 카프카즈 산맥의 중앙에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민족인 오세트와 잉구세티가 거주하고 있었다.

1817년 카프카즈 전선의 좌익이 테렉(Terek)강에서 순자(Sunzha)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817년 10월에 순자강의 중간에 프리그라드느이 스탄(Pregradnyj Stan) 요새가 세워졌다. 이것이 카프카즈 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이었다. 1818년 순자강의 하류에 그로즈나야(Groznaja) 요새[11]가 세워졌고, 이 후 순자강을 따라 브네자프나야(Vnezapnaja, 1819), 부르나야(Burnaja, 1821) 요새가 만들어졌다. 1819년 그루지야군의 병력이 5만으로 확충되었고, 카프카즈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4만명의 흑해 카자크 병력도 에르몰로프 장군의 지휘 하에 들어온다.

1819년 체첸과 다게스탄 민족이 순자강 전선에 공격을 해왔고, 1821년까지 싸움을 계속된다. 하지만 산악 민족은 전쟁에서 패했고, 일부는 페르시아나 터키를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결과 러시아는 자카프카지예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고, 1829년대 말까지 에르몰로프는 접근이 아주 힘든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카프카즈를 손에 넣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니콜라이 1세가 황제에 오른 후 군내부에서 명성이 높았던 에르몰로프 장군은 비공식적 감시 하에 들어가고, 1827년 3월 그를 대신하여 파스케비치(I.F. Paskevich)장군이 카프카즈군 사령관으로 임명된다. 1830년에 산악 민족의 습격에서 동북 그루지야를 보호하기위해 레즈긴 전선이 만들어진다.

1820년대 말에 다게스탄과 체첸 민족 사이에서는 무슬림 종파인 뮤리디즘(Mjuridizm)이 널리 퍼진다. 뮤리디즘은 신정국가 '이마마트'의 건설을 호소하였고, 이민족에 대한 성전인 '지하드'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카프카즈 전쟁의 두 번째 시기인 이마마트(Imamat) 시기(1827-1834)가 형성된다.

1828년 12월 가지-마고메드가 이맘[12]으로 선출되고, 신정국가 이마마트의 첫 번째 지도자가

10) 정세진 (2005), p. 165-166.
11) 이 요새는 현 체첸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느이가 된다.
12) 이맘(Imam)은 코란에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그 뒤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슬람교도의 집단 지도자를 뜻하게 되는 단어이다.

된다. 그는 이민족과의 투쟁을 위해 체첸과 다게스탄의 통합을 주창했고, 다게스탄의 영주들 일부는 이맘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를 수장으로 하는 기마부대는 카자크를 위협하였다. 그는 이슬람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였고, 율법에 따른 청빈생활을 실천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이슬람의 율법을 독립을 위한 투쟁도구로 전환시킨 첫 번째 지도자였고, 이슬람인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전파하였다.[13] 그는 1832년 김라흐(Gimrakh)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포위되어 사망한다.

두 번째 이맘인 감자트-벡은 일련의 전공을 세우고 산악 다게스탄의 모든 종족과 아바르인들까지 자신의 깃발아래 모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바리아의 한인 파후-비케는 러시아쪽에 남았다. 1834년 8월 감자트-벡은 아바리아의 수도 훈자흐(Khunzax)를 점령하고, 7명의 아바리아 한들을 참수했다. 하지만 감자트-벡도 1934년 9월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음모에 희생된다.

1834년 세 번째 이맘으로 샤밀(Shamil)이 등장한다. 그는 저항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다소 로맨틱한 영웅주의를 보였던 샤밀은 이슬람 지식과 최고 수준의 정치-군사력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샤밀의 등장으로 카프카즈 전쟁은 세 번째 시기인 샤밀의 투쟁시기(1834-1853)를 맞이한다. 그는 카프카즈인들의 저항운동을 오래 동안 지도하였다. 그러나 샤밀은 성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였다. 자원, 인구, 기술적 측면에서 샤밀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과 러시아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가 속한 사회는 아직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필사적으로 건설하려 했던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14]

1851년 카프카즈 북서쪽에서 일어난 샤밀의 총독, 무하메드-에민이 이끈 체르케스인들의 봉기가 진압되었고, 1853년 봄 샤밀은 체첸을 떠나 산악 다게스탄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그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1853년에 발발한 크림 전쟁은 산악 민족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크림 전쟁(1853-56)동안 샤밀은 술탄과 연합한 항전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전쟁이 끝난 후 내분을 틈타 20만의 러시아군이 산지 다게스탄을 공격하였다. 마침내 1859년 샤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다게스탄의 구닙(Gunib)마을에서 400명의 무슬림과 함께 체포되었다. 러시아의 카프카즈 점령군은 여세를 몰아 북서 카프카즈로 진격하였다. 이렇게 해서 카프카즈의 네 번째 시기는 크림전쟁의 발발과 샤밀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며, 기간은 크림전쟁이 발발한 1853년부터 샤밀이 패배한 1859년까지가 된다.

체첸과 다게스탄이 평정된 이후에도 카프카즈 북서부의 산악 민족들은 러시아군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1859년 무하메드-에민이 지휘하던 체르케스 본대가 항복하였다. 아드게야인들의 땅에는 마이콥 요새가 세워졌으며, 1859년에서 1861년 사이에 산악 민족들의 땅에 정주가 시작되고, 도로가 건설되었다. 1864년 러시아는 아브하지야에 대한 통제를 이루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1864년 4월 21일 예브도키모프 장군의 부대가 체르케스 민족의 마지막 저항 거점을 점령하였다. 비록 그 해 말까지 전투는 계속되긴 했지만, 이날을 카프카즈 전쟁의 마지막 날로 기록한다. 이렇게 아드게야와 아브하지야 민족이 진압되는 시기인 1859년부터 1864년 까지가 카프카즈 전쟁의 마지막 시기가 된다.

13) 박태성, 위의 글, 130.
14) 위의 글, 131.

III. 러시아에서 카프카즈 수용과 인식

1. 카프카즈의 낭만적 수용 단계

19세기 전반 러시아는 1817년에서 1846년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카프카즈 전쟁 끝에 북카프카즈 지역을 제국의 영토로 편입하게 된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쟁의 여파로 당시 러시아에서는 카프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이 시기 러시아의 식자층의 눈에 비친 카프카즈는 낭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카프카즈가 동양의 이국주의(eastern exoticism)와 연결된 것은 러시아가 카프카즈로 영토 확장을 시작한 때인 19세기 초라는 시간대와 관계가 있다. 그 시기는 러시아에 낭만주의가 일어난 때였고, 또한 유럽의 '오리엔탈르네상스(renaissance orientale)'[15]를 받아들이는 문화적 현상이 러시아에 발생한 시기였다.[16]

우선 카프카즈에 대한 정복이 거의 이루어진 알렉산드르 1세와 니콜라이 1세시기[17]에 유럽과 러시아의 문학과 학문적 경향은 낭만주의가 주도적 입장이었고, 그것은 이후 러시아에서의 카프카즈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프카즈의 험준한 산악은 원초적 자유라는 이미지로 러시아 사회를 매혹시켰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가가기 힘든 험준한 산악에 거주하는 산악민족의 야만성과 교활함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낭만주의 문학의 첫 번째 특징인 이국동경과 이국취향이 평원지역인 러시아에서는 찾기 힘든 카프카즈의 험준한 산악 지형들에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 인식은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을 통해 러시아 사회 내에서 전파되었다. 1783년 새로 병합한 크리미아의 타타르 땅을 처음으로 여행하면서 예카테리나 여제는 "『천일야화』에서 나오는 동화의 땅"이라고 외쳤다. 러시아인의 동양정복에서 문학과 제국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에게 낯선 풍경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문화와 예술에서의 이미지를 통해 보게 되는 것과 같은 풍요로운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러시아인들은 민속학상의 사실들로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알기 오래전 문학과 예술을 통해 식민지들에 대해 창작했다. 카프카즈는 러시아인들에게 특별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이었다. 차르의 군대가 카프카즈인의 산악지대를 지배하기 위해 이슬람 부족들과 피의 전쟁을 수행하던 19세기에 러시아 작가들, 예술가들과 작곡가들은 낭만적인 방식으로 카프카즈에 일체감을 가졌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카프카즈는 이국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거칠고 위험한 장소였다.

푸쉬킨은 그 누구보다도 카프카즈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미지를 고착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 『카프카즈의 포로(Kavkazskij plennik, 1821)』에서 카프카즈를 명상과 도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러시아적 알프스'로 재창조했다.[18]

푸쉬킨은 1820년과 1829년 두 차례에 걸쳐 카프카즈 지역을 다녀왔다. 첫 번째 여행은 남방유배를 가는 길에 라예프스키 장군 가족과 함께 했으며, 두 번째 여행은 대 터키 전쟁 중 파스케비치 백작의 동방원정대에 동행하여 아르즈룸을 다녀온 여행이었다. 푸쉬킨이 카프카즈

15) "오리엔탈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1765년에서 1850년 사이 유럽 국가 정부들이 식민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식민지의 언어, 풍속, 생활상, 자연 등을 여행기와 문학텍스트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장려하면서 일어난 동양 연구 열풍을 의미한다. 1800년대 초 러시아 전제 정부도 서구로부터 자극을 받아 오리에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경완 (2008), p. 111.

16) Layton, Susan (1994), p. 1.

17) 알렉산드르 1세는 1801-1825년, 니콜라이 황제는 1825-1855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했다.

18) 파이지스 올랜도 (2005), pp. 555-557.

주제로 쓴 작품들은 이 두 번의 여행을 계기로 쓴 것들인데, 1820년 여행 후에는 서정시 한편과 『카프카즈의 포로』를, 두 번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서정시 몇 편과 여행기 『아르즈룸 여행』을 썼다.

『카프카즈의 포로』는 거친 산악 지형과 호전적인 체르케스인들에 대한 묘사, 러시아 포로와 아름다운 체르케스 처녀간의 사랑을 묘사함으로서 러시아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쓸 당시 실상 카프카즈 지역까지는 가보지 못했던 푸쉬킨은 상상을 섞은 카프카즈의 모습에 "약탈이 횡횡하는 산악지방의 거친 자유의 지역"이라는 바이런적 주제를 발전시켰다. 푸쉬킨은 러시아 문학에서 "카프카즈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카프카즈를 소재로 한 문학, 카프카즈 주제를 창조하였다. 또한 그가 카프카즈 주제를 이렇게 낭만적 색채로 카프카즈의 모습을 창조했다는 것은 문학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에서의 카프카즈 인식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푸쉬킨과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한 김원한은 1820년 카프카즈 여행에서 돌아온 푸쉬킨이 자유를 억압당하던 체르케스 원주민과 카프카즈 산악 주민들의 삶과 세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보다는 유럽 러시아, 러시아 제국주의의 일원으로서 동양을 지배하려는 유럽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글로써 이를 식민지화하려하는 위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카프카즈의 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19]

이 작품에서 시인의 카프카즈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에필로그이다. 이 부분에서 화자의 말은 여과 없이 전해지는 시인의 말이기 때문이다. 포로가 된 주인공이 체르케스 아가씨의 구애을 거부하고, 카프카즈에서 탈출하여 러시아로 돌아간다는 본문의 플롯에서 카프카즈의 웅장한 풍경과 실패한 사랑 이야기, 체르케스인들의 낯선 풍속만을 읽고, 그 후면에 감추어진 러시아 중심주의, 제국주의적 현실 인식, 체르케스인들의 폭력적인 야만성을 찾지 못한다면 에필로그는 본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작가의 역사인식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20] 실상 에필로그에서는 작가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

나 영광에 찬 그 시절을 찬양하노라,
피 어린 전투의 냄새 맡은
우리의 쌍두 독수리
분개한 카프카즈로 날아갔던 그 시절을
(.....)
영웅이여, 나 그대를 찬미하노라
오 꼬뜰랴레프스끼, 카프카즈의 정복자여!
(.....)
카프카즈여, 백설로 뒤덮인 머리 숙이고
항복하라, 예르몰로프가 간다.[21]

이처럼 화자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서 조국 러시아의 영광에 감격한 화자의 목소리와 그를 통해 전달되어 지는 러시아의 민족정서를 드러낸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국주의 옹호이며, 동양을 지배하려는 유럽 러시아의 입장에서 카프카즈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의

19) 김원한 (2009), pp. 111-112.
20) 김원한 (2008), p. 13.
21) 뿌쉬낀 (1999), pp. 575-576.

시각이다.

푸쉬킨 전문가인 모니카 그린리프(Monika Greenleaf)는 푸쉬킨이 바이런에게서 모방한 오리엔탈리즘의 공식들이 지속적으로 에로틱하고 정치적이고 시적인 대상들에 대한 푸쉬킨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 푸쉬킨의 낭만주의적 오리엔탈리즘에 따른 동양묘사는 당시 교양있는 지식인층에서 일반대중들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들에게 동양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토포스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22)]

첫 번째 여행 후 9년이 지난 1829년에야 아르즈룸을 여행하는 길에 푸쉬킨은 잠시나마 카프카즈 산악지방에 머무르게 된다.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체르케스인에 대한 서사시를 계획하게 된다. 피의 복수와 약탈이라는 산악 민족의 전통을 거절한 댓가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을 그리려던 이 계획은 결국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대신 『아르즈룸 여행』을 독자에게 남긴다.

이 후 레르몬토프의 낭만주의풍 시들과 산문들, 특히 그의 대표작 『우리시대의 영웅(Geroj nashego vremeni)』에 나오는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산적 카즈비치(Kazbich) 같은 이미지는 러시아에서 카프카즈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후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는 1832년에 자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말라트-벡(Ammalat-bek)』에서 야만적이지만 고결한 강도 아말라트-벡의 형상을 창조한다. 이 소설은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가담한 이유로 실제 작가 자신이 유배되어 복무한 카프카즈에서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반란에 참가했던 작가는 산악 민족에 대한 자신의 매혹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산악 민족이 이웃 부족에게 약탈을 자행하는 것은 삶의 한 방편이라고 그는 말한다.

푸쉬킨이 러시아 독자들에게 카프카즈를 소개했다면,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는 보다 광범위한 지식으로 이 지역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하고 믿을만한 모습을 독자에게 제공했다.[23)] 하지만 그의 작품도 기본적으로 카프카즈에 대한 낭만적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산악 민족의 약탈에 대한 정당화, 주인공 아말라크-벡을 고결한 강도로 묘사하는 것 등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2. 부정적 이미지의 발생과 고착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낭만적 인식은 점차 카프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산악 민족들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서구적 시각의 입장에서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은 북카프카즈가 러시아에 병합될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의 카프카즈 이미지를 결정짓고 있다. 당시에 카프카즈 전역은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악명이 확정되고, 카프카즈를 다녀온 여행자, 상인들, 선교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일한 목소리로 산악 민족들이 “타고난 도적들이며 강도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유명한 출판인이자 슬라브주의자인 다닐렙스키의 말은 무척 특징적이다.

“카프카즈 산악민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양식이나 관습에 의해,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속성에 의해 이웃 민족들에게 결코 편히 놓아두지 않는 타고난 약탈자이자 도적들이다.”

사실 혁명전까지 많은 역사가들과 민속지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 다. 심지어

22) 이경완 (2008), p. 123.
23) 김성일 (2012), p. 43.

카프카즈의 역사지리에 대한 객관적 성격의 저서를 쓴 브로네프스키(S.M. Bronevskij)[24]같은 역사가도 “산악 민족은 무력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를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데, 이 자유는 이웃 나라들에서 서로 서로를 약탈하고 노략질하는데 자주 남용된다.”라고 쓰고 있다.

카프카즈 전쟁 시기에 형성된 이러한 이미지에 의해 카프카즈 산악 민족을 대표해주는 특징들을 열거할 때에는 침략, 강탈, 살인 등의 단어들이 쓰였고, 19세기에는 “약탈(Khishinichestvo)”[25]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카프카즈 병합시기 전쟁을 이끌었던 러시아의 군인들은 이러한 카프카즈 인식과 개념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카프카즈 전쟁의 시작을 이끌었던 에르몰로프 장군이 카프카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후 점령된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러시아식 개혁을 이끌었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 관리들도 카프카즈에 대한 인식은 위에 설명한 개념과 다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무슬림인 산악 민족을 마치 영원한 약탈자로 보는 이러한 견해에 지역의 무슬림 엘리트들도 동참하고 한 것이다. 주로 러시아 군대나 점령지의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된 이들이 대종을 이루는데, 이맘 샤밀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러시아 쪽으로 전향한 하지-알리(Khazhi-Ali)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카즈카즈에서 샤밀의 전쟁을 기록한 문서에서 그는 “산악 민족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처럼 거칠고, 짐승들처럼 포악스럽다” 라고 쓰고 있다.

샤밀의 사위 아브두라흐만 카지쿠무흐스키(Abdurrakhman Kazikumukhskij)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게스탄의 산악지대의 주민에 대해 오만스럽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범죄적인 민족으로 묘사하고, 이것이 다게스탄에 이맘(Imam)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약탈과 살인과 끊임없는 피흘림의 원인이라고 쓰고 있다.

샤밀 자신도 포로가 된 후에 경찰서장 루놉스키(Runovskij)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 나는 산악 민족들에게 가혹한 방법들을 썼었다. 나의 지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샤토이 주민들(Shatoevtsy)과 안지인들(Andijtsy), 타드부르틴 주민들(Tadburtintsy)을 가혹하게 매질했는데, 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서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그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였다. 단지 그들의 노략질과 강도질에 이끌리는 타고난 추악한 습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다. 당신들 러시아인들도 그들이 그만두기 참 힘든 그런 경향 때문에 그들을 매질하게 될 것이요.

카프카즈의 “약탈행위”에 대한 불평은 20세기 초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는데,

---

24) 브로네프스키(S. M. Bronevskij)는 러시아 제국 외무성 아시아국 국장과 페오도시야 현지사를 역임한 관료 출신의 카프카즈 역사가이다. 카프카즈 총독부에서 관리생활을 한 그는 페오도시야 현지사를 그만 둔 후에 카프카즈 역사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해서 1823년 그의 두 권으로 된 카프카즈 지리 역사서 중 첫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Броневский С.М. Новей ши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вестия о Кавказе. В 2-х частях. Ч. 1. М., 1823.) 19세기 초의 카프카즈에 대한 귀중한 연구서인 이 저서는 북카프카즈 지역의 특징들, 기후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민속지와 지리연구의 성격을 가진 이 책은 정치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시각과 러시아가 새로 병합한 지역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전망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Газиумаров С. (2009), p. 64.

25) 본고에서 ‘약탈’로 번역한 Khishnichestvo(Хищиничество)는 맹수, 포식자를 의미하는 Khishinik(Хищник) 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포식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듯이, 카프카즈 산악 민족도 힘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항상 약탈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북카프카즈는 심지어 혁명전 위대한 학자들의 머리 속에도 먼저 강도질과 연관이 되었다. 저명한 민속지학자 레프 쉬테른베르그(Lev Shternberg)가 브록하우저와 에프론 백과사전에 쓴 체첸 민족에 대한 항목을 보면 이 민족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의심많음, 교활과 잔혹성으로 이끌리기 쉬움”을 들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투에서 보이는 불굴성, 용기, 영리함, 인내, 침착함은 예전부터 모두가 인정한, 심지어 적들도 인정한 체첸인들의 특징들이다. 평상시에 체첸인들의 이상은 노략질이다. 가축을 도적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빼앗아 오는 것은 비록 이것을 위해 몇 베르스타나 되는 거리를 땅을 기어야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체첸인들이 사랑하는 일이다.”

현대 러시아에서도 사실 카프카즈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이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카프카즈 인식을 보면 미개, 야만, 거침, 폭력이라는 단어들은 항상 카프카즈를 수식하는 형용어였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정복되고, 개화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카프카즈 산악 민족은 또한 근대화된 문명사회처럼 생산과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는 도적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강도들이 득실대는 카프카즈’ 라는 이런 부정적 형상의 고착화는 이후 러시아가 이 지역을 병합하는 전 역사를 통해, 특히 카프카즈 전쟁의 시기에 자행되었던 잔혹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에르몰로프의 뒤를 이어 신임 카프카즈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는 파스케비치 장군에게 한 말은 이 대목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귀관의 앞에 놓인 임무는 산악 민족을 영원히 평정하거나 아니면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러시아 군대가 “평화적이지 않은 산악 민족들”에게 행한 대대적인 탄압과 “복종시킨 민족들”에서 볼모를 붙잡는 것[26] 등 잔혹한 행위들은 전쟁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잔혹성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프카즈를 대하는 러시아의 일반적인 자세를 말해준다.

에로몰로프 장군과 그의 후계자들은 산악 민족과는 힘의 언어로만 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도적이고 문명적인 방법들은 유럽에만 적용될 수 있고,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카프카즈와 같은 야만적인 곳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에르몰로프 장군이 그의 카프카즈 전선에 구축한 요새들에 붙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명칭들이 무척 흥미롭다. 그로즈나야(Groznaja, 무서움), 프리그라드나야(Pregradnaja, 장벽), 즐로브느이 오코프(Zlobnyji okop, 원한에 찬 참호), 부르나야(Burnaja, 폭풍), 브네자프나야(Vnezapnaja, 돌발) 등. 이런 명칭들은 러시아가 카프카즈에게 가졌던 오만한 공격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런 명칭들은 불복종에는 강력한 처벌이 내릴 것이라는 카프카즈 민족에게 보내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명칭은 정복과 평정이라는 카프카즈에 대한 러시아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카프카즈를 정복하는 시기에 러시아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던 이러한 산악 민족의 이미지들은 그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들 뿐 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치하는 방법들을 정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카프카즈의 도적들’과 이 지역의 ‘원초적 야만성’에 대한 개념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카프카즈의 통치를 담당했던 많은 러시아 군인들과 관리들의 머리 속을 채웠던 개념이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국방장관이었던 밀류틴(D.A. Miljutin, 재임기간 1861-1881)과 카프카즈 총독이었던 미하일 니콜라예비치(Mikhail Nikolaevich, 재임기간 1862-1881)도 있었다.

---

26) 북카프카즈 정책에서 러시아는 현지 민족들에게서 인질(볼모) 정책이 널리 시행되었었다. 지방의 봉건영주의 자녀들을 명목상 교육의 위해 페테르부르그로 보냈었는데, 사실상 지방민의 평화행위의 담보였고, 그들은 주로 군사학교의 생도가 되었다. 박태성 (2005), p. 134.

특히 미하일 니콜라예비치는 “카프카즈 무슬림의 대부분이 문명의 가장 초기 상태에 있으며”, 그들을 계몽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소위 ‘평화정착 지역’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인두세와 온갖 명목의 조공 징수는 직접적인 군사적 약탈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 지역의 통치는 때로는 짜리정에 충성하는 지방 봉건영주에 의해, 따로는 ‘감독관’으로 파견된 짜리정의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어떤 경우든 통치자 마음대로 산악 농민들에게 세금과 조공을 부과하였고, 피지배민족의 가혹한 식민적 착취를 희생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당시 북오세티야 군사점령지에서 작성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들에게 부과된 부역 및 납세 의무는 들판에서 경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남성들과 가축들을 바쁘게 만들었다.[27] 카프카즈 점령지는 군사적 압력 외에도 차리 관리들의 착취와 중과세, 징발과 약탈에 시달렸다.

3. 카프카즈 연구의 시작 -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

19세기 카프카즈 전쟁 시기에 있었던 러시아의 카프카즈의 정복은 그 지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카프카즈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미지들의 개발은 러시아의 동방학자와 민족지 학자들이 담당했다. 19세기 중반 무렵 관리들이 파견되어 통치할 무렵에도 관리들과 학자들의 관계는 밀접했었다. 그래서 총독부와 학문적 연구기관이 티플리스(Tiflis)[28]에 같이 자리 잡고 있던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1851년에 골로빈(A.V. Golovin)이 티플리스에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KOIRGO, Kavkazskij Otdel Imperatorskogo Russkogo Geograficheskogo Obshchestvo)[29]를 세운다. 이 후 지리학 협회가 여러 분소를 설립하지만, 지역 분소로는 최초의 분소였다. 러시아에게 카프카즈의 지리적, 정치적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매년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에 2천루블 씩 지원했다. 이 분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 했던 기간은 1950년에서 70년대 까지였다. 바로 이 시기에 카프카즈 지역의 지도가 제작되었고, 첫 번째 지역 통계조사나 언어, 민속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는 티플리스에서 많은 지역 연감들을 펴냈다. “카프카즈 산악민족에 대한 정보 모음집” (1868-1881), “카프카즈 지역과 종족 자료 모음집” (1881-1915),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 회보” (1871-1917)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는 설립 될 당시 내무부 산하에 있었다. 따라서 카프카즈 분소는 당연히 카프카즈 총독부와 이러 저러한 법령제정과 개발에 상호 협력하였다. 러시아 지리학 협회에는 몇몇 지역의 무슬림 학자들과 교사들이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다게스탄의 아브두라흐만 카지쿠무흐스키(Abdurrakhman Kazikumukhsky)는 다게스탄 산악지방의 첫 번째 민속지를 작성했다. 그 민속지는 지역의 물질 문화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풍습과 관습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산악 민족의 몽매와 도적 경향에 대한 신랄한 공격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카프카즈를 통치하던 군인 총독들이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의 회원인 경우

27) 박태성 (2005), p. 127-128.

28) 지금의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 1936년까지 티플리스라고 불렸다.

29) 1845년 뤼트케(F. Lutke)와 아르세니예프(K. I. Arseniev)의 발의로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발족되었다.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지리학 협회들 중 하나이다. 1850년에 ‘러시아 지리학 협회’에서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1917년 혁명까지 그 이름으로 활동했다. 김상현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타민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타자”들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은 러시아 지리학 협회에서 시행된 민족지 기행의 행정 민속적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행정 프로그램의 진행이 순전한 학문적 혹은 학자적 호기심에서 발동되었기보다는 ‘지정학적 관심’ 혹은 ‘제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선행 조사적 성격’이라는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현 (2011). p. 63.

가 종종 있었다. 그들에게 카프카즈의 고대나 풍습을 공부하는 것은 일종의 취미였다. 남 다게스탄의 지역 책임자였던 코마로프(A.V. Komarov)장군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이나 지역학, 특히 민족적 풍습 같은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다. 동 카프카즈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면서 그는 지역의 민속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그의 출판물 중 유명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코마로프 장군과 민속지 애호가로 카프카즈 산악 민족의 민속지를 연구했던 다른 많은 고위 군인들 대부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러시아 역사의 낭만주의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카프카즈 산악 민족의 현실에서의 삶을 연구하면서 러시아와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카프카즈 산악 민족의 "야만성"이란 개념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알게 된다.

젊었을 때 카프카즈에서 근무했던 레프 톨스토이도 '카프카즈의 이국성'이란 개념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19세기 초부터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모험과 신비, 영광을 꿈꾸며 카프카즈로 향했다. 톨스토이 또한 아름다운 카프카즈를 상상하였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부락은 보잘 것 없었고 상상과는 다른 자연 환경 앞에서 큰 실망을 하게 된다.[30] 그 비판은 그의 소설 "카자크 사람들"의 주인공인 올레닌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흘러나온다.

> 카프카즈는 그가 전에 상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기에 와서 자기의 몽상을 닮은 것, 전에 듣고 읽고 하였던 카프카즈의 묘사를 닮은 것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구렁말도 급류도 아말라트베크도 영웅도 악한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자연이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있다. - 죽고 태어나고 남녀가 하나로 맺어지고 또다시 태어나고 싸우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또 다시 죽고, 그리고 자연이 태양이며 들판이며 짐승이며 나무에게 정해 준 온갖 불변의 법칙을 빼놓고는 달리 어떠한 조건도 없다. 그 밖의 법칙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31]

"도적질을 위한 습격들(Khishinicheskie nabegi)"이 지역주민들의 생존의 기본 방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몇몇 민속지학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판튜호프(I. Pantjukhov)는 다게스탄 산악지방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쓴다. "레즈긴족((Lezghian)[32]의 내적인 삶을 알지 못하는 탓에, 역사가들은 그들을 단지 용감한 강도로만 인식하면서 레즈긴족을 야만인이라거나 도적들로만 여긴다. 하지만 레즈긴족의 공명한 내부 조직이나 상호관계의 공정성, 정착적인 생활양식은 레즈긴족을 야만족이라 부를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레즈긴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도적질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이다." 그렇지만 이런 몇몇 의견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즈에 대한 이미지와 관념은 "야만", "폭력", "미개"라는 쪽에 집중 되어있었고, 이 개념이 혁명전까지 러시아의 학문과 정치에서 계속되었다. 톨스토이나 판튜호프는 흐름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었다.

30) 김원한 (2003), p. 269-270.
31) 똘스또이 L.N. (1990), p. 188.
32) 레즈긴족은 카프카즈에 거주했던 전통적인 종족 중의 하나로 다게스탄의 남부지역과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에 살고 있다. 레즈긴족의 대부분은 깊고 고립된 협곡과 계곡이 많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IV. 러시아 오리엔탈리즘과 카프카즈

러시아에서 이렇게 카프카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학문과 정치, 사회전방위에 걸친 인식에서 굳건하게 영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리엔탈리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해 성립된 이 개념은 중동지방의 예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이드는 식민지시기 유럽 아카데미 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의 스테레오타입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지방은 처음에는 유럽에 의해, 이후에는 미국에 의해 식민지화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그 땅에 대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지배'와 '이미지'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의 분석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타자'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해서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타자는 지배를 위해 '구성'되고, 그 구성은 불가피하게 모종의 '왜곡'을 수반한다. 타자로서의 동양의 이미지는 날조되었고, 이 날조된 이미지들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식민 지배의 도구가 되었다.[33]

이런 이미지는 실상 인식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실재의 동양을 식민주의자에게 종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이드의 말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취급하기 위한 - 동양에 관하여 무엇을 서술하거나, 동양에 대한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강의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식민지를 세우거나 통치하기 위한 - 동업조합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34]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고,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동양은 유럽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결국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우월'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 및 실천체계로서 창조된 오리엔탈리즘은 그 창조를 위해 수 세대 동안 엄청난 물질적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투자에 의해 동양에 대한 지식체계로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의식 속에 동양을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필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은 하나의 집단적 관념으로 '우리들' 유럽인을 '그들' 비유럽인에 대치되는 것으로 인식시킨다. 유럽이 아닌 모든 민족과 문화를 능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동양인의 후진성에 대한 유럽인의 우월성을 주장한다.[35]

역사에서 지식과 권력은 종종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식민지시기에 동양학자들은 비유럽 지역을 연구하는 자신들의 길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권력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일조 하였다. 동양의 이미지는 유럽이 규정하고 정당화시키고, "다른 지역"에 대한 그들의 우선권을 확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동양학자에 의해 개발된 동양의 형상들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카프카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는 자신의 '동양' 카프카즈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을 서구의 동양 연구와 아시아에서의 유럽의 제국주의적 방법들에서 배워왔다.

카프카즈 전쟁을 수행할 당시 유럽의 동양문화 서적과 아시아에서의 유럽의 제국주의 수법을

33) 김수환 (2006), p. 73.
34) 사이드 에드워드 (1998), p. 16.
35) 위의 글, pp. 13-24.

잘 알고 있던 러시아는 정복지 카프카즈를 자신의 동양이라고 공언하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의 새로운 정복지를 '동양(East)'으로 규정짓고, 침체와 후진성을 동양과 연결시켰다. 그런데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아시아 식민지와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대양이 없었다. 즉 두 지역(러시아와 아시아)은 같은 대륙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자국을 서구 유럽국가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식민지, 동양의 식민지역을 좀 더 문화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었으며, 비기독교의 모든 부족들을 출신과 종교에 상관없이 타타르로 뭉뚱그려 이름 붙였으며, 지리상으로도 러시아의 남부에 있는 카프카즈를 '동양'에 귀속시켰던 것이다. 러시아의 동쪽이 아닌 남쪽의 지형인 카프카즈 지역을 동양이라고 이름붙인 발상 뒤에는 유럽으로서의 러시아 정체성 주장과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 감춰져 있다.[36]

이렇게 러시아에 의해 동양으로 정의된 카프카즈는 서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발전되고,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서구와 반대로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인 동양의 모습과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대비 속에서 러시아는 거칠고 무지한 카프카즈에 비해 문명화되고 발전한 나라, 즉 유럽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스스로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된다.

카프카즈에게 부여된 또 다른 이미지는 수동성이다. 동양과 그곳의 주민들은 동양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으로서 또 식민 정책을 위한 대상으로서 오리엔탈리즘으로 왜곡된 형상으로 종종 제시되었고, 그 개념은 마치 객관적 진리인양 고착화되어 퍼져나갔다. 동양의 사람들은 의지와 역사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개념도 그 중 하나이다. 레르몬토프의 시 『논쟁』의 몇 구절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동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카즈벡이 대답했다, -
그곳 인간종족은 깊이 잠들어 있다
이미 구세기 동안,
(.....)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고요를 원하며 잠자고 있다.
아니다! 늙어빠진 동양은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

Не боюся я Востока! —
Отвечал Казбек, —
Род людской там спит глубоко
Уж девятый век.
(.....)
Все, что здесь доступно оку,
Спит, покой ценя...
Нет! не дряхлому Востоку
Покорить меня![37]

36) 김원한 (2009), p. 116.
37) Лермонтов, М. (1970), p. 390-391.

레르몬토프의 시에 일견 보이는 동양의 이미지는 역동과 변화에서 떨어진 낡고 고루한 전통을 고수한 채 흐름에서 뒤쳐서 있는 고루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의 카프카즈는 러시아의 '문화미션'을 정당화시켜 준다. 러시아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무슬림들과 조우하게 된다. 러시아는 이슬람을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미개한 소수민족들의 역사의 열림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이해했다. 러시아는 비잔틴으로부터 정교를 수용했다. 그 역사적 산물의 혜택을 무슬림 민족도 얻어야 한다는 제국적 관점이 제기되었다. 소수민족들의 역사라는 것은 교육받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제국의 관리들과 선교사들이 변방 민족의 부흥자라고 생각했다.[38]

세 번째 동양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동양은 단지 서구에 반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구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식민지 시기의 동양에 대한 숱한 혐오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동양은 정복되어야 하고, 서구의 지배하에 놓여있어야 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양의 야만이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집어 삼킬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들이 동양에 대해 만든 지식의 객관성을 굳게 믿는 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러시아의 카프카즈 정복 시기에 형성된 카프카즈에 대한 몇 가지 스테레오타이프들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러시아의 카프카즈는 사이드의 동양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허구이다. 그것의 목적은 동양을 인식하는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에게 현실의 동양을 복종시키는데 있다. 사이드가 자신의 책에서 중동의 예를 들 듯이, 카프카즈도 병합의 시기에 야만적인 현지주민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만들어졌으며, 그 이미지들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사회적 여론을 규정하고 있다.

'산악 민족의 야만성'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은 러시아에서 카프카즈 정복과 함께 형성되었다. 거친 산악 지형으로 대변되는 카프카즈의 자연은 그 원초성과 자유로 러시아 사회를 매혹시키기도 했지만, 야만성과 교활함으로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카프카즈에 대한 막연한 낭만주의적 인식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풍속과 습성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으로 넘어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이미지는 무엇보다 러시아 문학작품을 통해 전파된다.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의 작품들에서는 카프카즈 주제들의 하나의 노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러시아 병합기에 만들어진 카프카즈 산악 민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은 그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지하는 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거칠고 야만적인 민족에 대한 통치방법은 그에 상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는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프카즈에 대한 전쟁은 그 지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황립 러시아 지리학 협회 카프카즈 분소는 내무부 소속으로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카프카즈 총독부와 협조관계 속에 무슬림 산악 민족을 위한 여러 법령제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 지리학 협회에는 카프카즈 지역 통치를 담당하던 러시아의 군인계급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전향한 지역의 엘리트들도 참가하게 된다. 지역 엘리트의 통치구조 참가는 식민지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국주의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카프카즈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 열강으로 발돋움한 러시아가 식민 지배와 지식의 축적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카프카즈에서 얻은 식민 지배의 경험은 이후 러시아 제국의

38) 정세진 (2012), p. 56.

팽창과정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병합과정에서 쓰여지게 된다.

러시아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영토의 확장이 활발해지고, 제국주의적 팽창이 본격화되던 에카테리나 여제시기에 생겨났다. 그리고 카프카즈가 러시아 제국으로 병합되던 19세기 전반기에 자신의 특징적인 성격들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식민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은 자신의 생성시기를 지나면 식민지배에 대한 러시아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된다.

V. 결론

러시아의 지리적 중간자적 이중성은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영원할 것 같은 러시아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 지식인들은 표트르의 개혁이후 서구로의 지향성을 보인다. 러시아는 유럽의 일원이라는 그들만의 자의식과는 별개로 그들은 자신들 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아시아성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유럽과는 다른 자신들의 특별함으로 내세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유럽 지향성은 그들에게 동양의 존재를 요구하게 된다. 서는 대립되는 동의 존재로 대별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게 첫 번째 ‘동양’은 카프카즈였다. 러시아는 서구에서 학습한 대로 카프카즈 지역에 대한 무력을 이용한 정복과 함께 문화적으로는 야만성을 가진 이국적 공간으로 낭만화하면서 타자화한다. 카프카즈 수용의 첫 단계는 러시아 문학에 의한 낭만적 인식이었다. 푸쉬킨에서 시작된 “카프카즈 문학”은 카프카즈를 ‘약탈이 횡횡하는 거친 자유의 지역’이라는 바이런적 주제로 창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 인식은 곧 카프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침략, 강탈, 야만 등의 단어로 수식되는 이런 부정적 인식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의 지역으로 카프카즈를 규정짓게 하고, 러시아 사회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다.

카프카즈 정복 시기에 러시아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카프카즈를 정복하는 방법 뿐 아니라 통치하는 방법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야만의 카프카즈를 정복하는 방법은 상응하는 무력 밖에 없다는 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적 카프카지 이미지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 카프카즈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에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러시아가 식민지배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는 계기가 되며, 카프카즈 지역에서 축척한 정복과 지배의 경험은 이후 러시아 제국의 팽창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병합과정에서 쓰이게 된다.

<참고문헌>

김성일. 2012. 「A.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의 “아말라트-벡”에 나타난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제국의 팽창과 근대적 유라시아 문화공간의 형성. APRC Proceedings Series 2012-2』. 서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파이지스 올랜도. 2005.『러시아문화사. 나타샤 댄스. 채계병 역.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똘스또이 L. N. 1990.『까자끄 사람들』. 박형규 역. 서울: 이성과 현실.

레르몬토프 미하일. 1991.『우리시대의 영웅』. 문석우 역. 서울: 한길사.

사이드 에드워드. 1998.『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뿌쉬낀 알렉산드르. 1999.『뿌쉬낀』. 석영중 역. 서울: 열린책들.

김상현. 2011.「19세기 러시아 제국의 형성과 러시아성 담론: Russianness 신화와 민족지 기행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7권, 4호. 서울: 외대 러시아연구소.

김수환. 2006. 「러시아 ‘상상하기’: 러시아 문화 정체성에 있어서 ‘타자’ 구성의 문제」. 『러시아학』, 제2호. 청주: 충북대 러시아연구소.

김원한. 2003. 「똘스또이와 오리엔탈리즘: “하지 무라뜨”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15권, 1호. 서울: 노어노문학회.

김원한. 2008. 「뿌쉬낀과 까프까즈」. 『인문학지』, 제36집. 청주: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김원한. 2009. 「뿌쉬낀과 1829년의 까프까즈」. 『노어노문학』, 제21권, 1호. 서울: 노어노문학회.

김진영. 1998. 「푸슈킨의 동양여행」. 『러시아연구』. 제8권, 2호. 서울: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이경완. 2008. 「근대 자유주의와 푸쉬킨의 오리엔탈리즘의 모호성: 푸쉬킨의 “집시들”에 나타난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 2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정세진. 2005. 「19세기 카프카즈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연구』, 제21권, 1호. 서울: 외대 러시아연구소.

정세진. 2007/2008. 「Кавказкая война (카프카즈 전쟁, росет,1994)」. 『중소연구』, 116호. 서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정세진. 2012.「러시아제국의 확장 - 북카프카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제국과 변경: 제국의 확장과 이미지』 2012년도 한양대 HK 3차 국내학술대회, 서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박태성. 2005. 「러시아의 북카프카즈 병합과정과 의미」. 『슬라브연구』, 제21권, 1호. 서울: 외대 러시아연구소

Armstrong, T. and Vishevsky, A. 2001. 「The Image of the Prisoner of the Caucasus in Nineteenth - and Twentieth - Century Russian Literature: from Pushkin to Makanin」.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9권, 1호. 서울: 한국러시아문학회.

Layton, Susan. 1994. *Russian Literature and Empire: Conquest of the Caucasus from Pushkin to Tolstoy*.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Thompson, Ewa M. 2000. *Imperial Knowledge: Russian Literature and Colonialism.* London: Greenwood Press.

Газиумаров С. 2009. "Вопросы военн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амодержавия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торая четверть XIX в.)." *Власть*. No. 8.

Кантор, Владимир. 2008.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оссйиская империя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го хаоса. К проблеме имперского сознания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ПЭН.

Лермонтов, Михаил. 1970. *Сочинения в 2 т.*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세션Ⅳ(KIEP 세션Ⅱ)
: 중앙아시아 사회·문화 이해

■ 사회 : 이재영(KIEP)

■ 발표 :

김원회 -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Taboo)와 협상 전략
김상철 -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성동기 -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 토론 : 김민수(한국외대), 김일겸(강남대), 제성훈(KIEP)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Taboo)와 협상 전략[1)]

-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적 삶은 사회적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그 무대가 되는 사회의 관행과 도덕,
관습 등에서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 Francis Fukuyama

김원회(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중앙아시아는 그들이 걸어온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 고대 문화를 거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시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8세기 아랍군 진출과 함께 전파된 이슬람과 몽고 지배의 유산, 끈임 없이 서역정벌을 시도했던 중국적 요소가 중앙아시아의 모자이크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후 티무르 제국, 투르크 공동체, 러시아 지배와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중앙아시아라는 문화의 모자이크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문양과 색채를 융합, 혼효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만들어 오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중요성, 풍부한 보존 자원과 향후 사회기반시설 개발 계획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대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 부존자원의 유무,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유무에 따라 현재까지의 경제발전 정도는 다르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항구적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문화, 제도, 관습 및 경제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경제 현황과 무역 관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지역 사회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사적 기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2)]를 추적-조사하여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에 대한 문화사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호프스테드(Hofstede)를 비롯한 문화 유형 연구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1차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각 주체들이 협상에 임할 시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타부와 관련된 효과적인 문화 간 협상 전략 매뉴얼을 완성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2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

1) 본 발표문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공모> 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결과물의 일부이다.

2) 타부라는 단어는 통가 폴리네시엔(Polynesian)의 'ta pu'에서 유래되었으며 금지, 금기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이다.

II. 타부와 문화 간 의사소통 - 선행연구와 이론적 틀

일반적으로 이 문화 관리 측면에서의 행동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규범적인 행동 요령의 숙지보다는 타 문화에서의 금기와 타부에 대한 학습과 행동 요령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 한 사회 내에서 타부와 타부에 의한 제약은 종교적 금지나 도덕적 금지와는 다르다. 타부에 의한 제약들은 신의 계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자기 기준적이다. 또 도덕적 금지들과 달리 일반적 절제를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하면서 그 필수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타부에 의한 금지는 이유 불문의 금지이고,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Freud, 1955:43-46). 이러한 혼재 된 양상이 오히려 문화 양상 속에서 더 많은 타부의 출현을 불러 일으켰으며 역으로 한 사회 문화의 타부를 연구하면 그 사회의 사회 문화 단면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부와 관련된 주-객체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될 수 있다.

- 대상 타부: 타부화 된 대상들, 기관, 사람
- 행위 타부: 타부화 된 행동
- 의사소통 타부: 타부화 된 주제
- 단어 타부: 타부화 된 어휘
- 영상 타부: 타부화 된 영상표현
- 관념 타부: 타부화 된 관념들
- 감정 타부: 타부화 된 감정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문화에 존재하는 타부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은 이러한 타부의 학습과 타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양자 사이의 문화 간 의사소통 혹은 문화 소통코드(Code)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 문화 소통코드는 타부 현상과 절대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다 문화 소통코드 개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작용의 증대, 새로운 기술과 정보 체계의 개발과 보급, 인구의 증가, 한정된 자연자원, 환경, 국제분쟁 등의 해결에 꼭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 체계의 보급은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고, 그동안 일부 국가나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지식 기술의 공유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환경문제나 국경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상은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소통 코드 발굴이 중요해 진 것이다. 20세기 중반 들어, 다국적기업이 경제활동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문화인류학, 사회심리학 등의 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 연구인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동안 언어학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던 문화 간 의사소통의 영역은 인지적 영역 분야로서,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 시작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기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별 문화권들이 갖고 있는 주요 문화 가치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 가치가 국가나 민족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되고 유형화되는가하는 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학술적 작업 중 기연수(2001)와 유혜경(1997)은 러시아의 문화코드와 러시아어 의사소통 시 문제점 등

을 연구하였다. 기연수는 러시아인의 문화코드를 자연환경의 광대성, 역사적 수난, 기독교 등으로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언어적 소통 양식에서는 여유, 배려, 용서, 절대자인 보그(Бог)에 대한 의지, 무주어적 표현, 이심전심 표현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혜경의 경우에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경우, 각 언어의 어휘적 특수성, 일반상식, 대화 에티켓이 중요하며, 특히 러시아어의 경우 어휘의 근원과 종류[3]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어권과 관련된 문화코드와 문화 간 의사소통 분야에서 김기현(2004)과 김우성(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기현은 초기 호프스테드의 연구(1995)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문화코드를 집단주의와 큰 권력거리로 분석하였으며, 남성우월주의, 불확실성, 감성주의가 언어에 팽배한 사회로 분석하였다. 김우성은 보다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문화능력,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고, 스페인어 구사 시 나타나는 언어 문화 인식의 차이를 고정관념과 편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체면, 위계질서, 성의 역할, 문화규칙, 세계관의 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유관 연구는 박상남(2007, 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문화 코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시 주의할 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연구, 기술하고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문화적 기저 코드는 유목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 문화로 3분화하고 이를 현대적 문화 양상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연구는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의 기업문화와 문화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박지원(2011)의 학위 논문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기업문화의 특성을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씨족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프스테드(Hofstede, 1980, 1990, 1995, 2001)와 트롬피나르와 햄튼 터너(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1997)는 국가 문화를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호프스테드와 홀의 연구를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다음의 4가지 차원의 문화 영향을 규정하였다. (1)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2)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3) 감정주의와 중립주의 (4) 한정주의와 분산주의. 다음으로 홀(Hall, 1976)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문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주로 고 맥락 지향성과 저 맥락 지향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세계 문화를 고 맥락 문화(의사소통 방식이 간접적), 저 맥락 문화(의사소통 방식이 직접적)로 분류하고 그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고 맥락 문화(High Context) - 일본 > 중국 > 한국 > 아프리카계 미국인 > 북미 원주민 > 아랍 > 그리스 > 라틴계 > 이탈리아 > 영국 > 프랑스 > 북아메리카 > 스칸디나비아 > 독일 > 독일/스위스 - 저 맥락 문화(Low Context)

개그넌(Gagnon, 2001)은 문화적 기제(Cultural metaphor) 기법을 사용하여 각국의 고유한 상징물 중심으로 국가문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얀트(Jandt 1995)는 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다문화 소통의 장벽을 연구하면서, 스테레오타이프(유형화), 편견, 인종차별, 언어의 네 가지 문화 장벽[4]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구하기

3) 그는 Верещагин과 Костомаров(1990:46-50)의 주장을 수용하여, 러시아어 어휘들을 소비에티즘(совет, 소비에트), 전통 생활-관습어(квас, 음료수의 일종), 이스토리즘(Дума, 제정러시아시대의 의회), 민속어(кощей ,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상징), 정교관련 용어(милость, 자비)로 구분하고 있다.

4) 스테레오타이프란 異 민족, 異 문화를 자신(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정적 유형화와 긍정적 유형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편견이란 특정 종교, 특정 인종집단 등에 대한 의심이나 증오, 비합

위해서는 문화 유형과 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작업이다.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 유형과 가치 구분과 관련하여 최초의 대표적 연구로는 클럭혼과 스트로드벡(Kluckhohn, F. & F. Strodtbeck, 1960)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성” 연구를 들 수 있다.

지향성	가치관 및 행동		
인간의 천성	성악설	선과 악의 혼합	성선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은 자연에 종속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
시간 개념[5]	과거 지향적	현재 지향적	미래 지향적
활동의 특성	존재형	생산과정의 존재형	행동형
인간관계 유형	권위주의적	집단 지향적	개인주의적

<표1: 클럭혼과 스트로드벡의 인간의 다섯 가지 가치지향성>

그는 인간의 천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시간 개념, 활동의 특성, 인간관계의 유형 등 본질적이지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유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가치판단의 준거 항목이 이분법적인(가 혹은 부) 구분으로 연구되는 것에 비해 삼분법적 체계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주목받을 만하다.

다음으로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보완한 호프스테드의 연구(2001)를 들 수 있다. 그는 한 사회에서의 문화 가치관 차원의 연구를 주로 하였다. 호프스테드의 연구는 문화적 가치관들을 조사하는 데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사용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는 50개국과 3개 지역의 다국적 조직체(글로벌 기업인 IBM)에서 일하는 수백수천에 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갖가지 상황에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다섯 가지 가치관 차원, 즉 권력차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장기 지향성-단기 지향성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1위에서 50위에 이르는 순위를 매겼다. 이 순위들은 각 문화에서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며, 나아가 문화를 비교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섯가지 가치 기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비록 어떤 문화도 개인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 두 요소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지는 문화마다 현격한 차이가 난다.

나.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이 개념은 강한 불확실성의 회피와 약한 불확실성의 회피로 나누어진다. 그가 사용한 불확실성의 회피는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일정한 체계가 없어 불명확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감지했을 때 불안해하는 정도를 밝히는 척도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막고자 사람들은 엄격한 행동 규범들과 절대적 진실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업이나 조직이 갖추고 있는 매뉴

리적인 혐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인종 차별은 주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사이의 우성과 열성 관계에 근거한 편견과 그에 의해 유발된 행동을 지칭한다. 언어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명하다.

5)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지향성은 중국과 프랑스가, 현재지향성은 미국계 멕시코인들이 그리고 미래지향성은 미국인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도 여기에 속하는 기제이다.

다. 권력차이(Power distance)

어떤 문화의 특성으로서 권력 차이는 그 사회에서 권력을 덜 지닌 자들이 권력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재는 척도를 의미한다.

라.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남성적 특질 혹은 여성적 특질이 중시되어 각종 현상에서 드러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많은 남성적 행동과 여성적 행동이 문화적으로 학습되며 문화적 규범과 전통에 의해 중재된다.

마.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6](Long-Versus Short-Term Orientation)

호프스테드의 연구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다른 가치와 달리 모두 23개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지향성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덜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밝혀졌다. 이것의 개념은 소속 민족이나 국가의 행동지표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양상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는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문화 유형을 둘러 싼 본질적인 개념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매우 가장 각광을 받고 있지만, 통계자료가 사람들의 설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의성과 이분법적 준거 틀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서로 다른 문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행위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론과 이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과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제적 틀 속에서 어떠한 적절한 자리 매김이 이루어져야 할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를 연구[7]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하우스 등(Robert J. House et al.)은 글로브(GLOBE, 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r Effectiveness) 프로젝트에서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호프스테드 문화유형 구분에서 3가지(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항목으로 문화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박지원의 연구(2011)에 잘 투영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III. 중앙아시아 지역의 타부와 문화 간 의사소통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 현상 연구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호프스테드(2001)는 통계자료를 도입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호프스테드의 연구는 문화적 가치관들을 조사하는 데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사용한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다. 그는 50여개국과 3개 지역의 다국적 조직체에서 일하는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6) 중국적 가치관조사(Chinese Value Survey)라고 명명된 이 지표는 호프스테드 본인의 설명처럼,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조목들에 기초를 둔 것이며, 유교적 사고의 장기적 관점을 단기적 관점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7) 가장 최근에는 '문화상호적 언어학(Intercultural Linguistics)'이라는 명칭까지 대두(Földes, 2003)하고 있다. 푈데스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대조적 접근, 중간 언어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조적 접근 방식은 대조 분석을 통하여 개별 언어들의 언어 특이성과 언어 공통성을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그 결과를 엄밀히 분석한 후 다섯 가지 가치관 차원, 즉, 권력차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그리고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1에서 50에 이르는 순위를 매겼다(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은 총 23개국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짐). 이 순위들은 각 문화에서 어떠한 가치가 존중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며, 나아가 해당 민족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련이 있는 민족들과 지역들의 문화적 특성을 호프스테드의 연구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대륙	문화적 특징	역사적 기원	국가
라틴유럽지역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권력격차가 크다 -불확실성 회피가 상당히 높다 -남성주의가 강하다 -고맥락사회	로마제국 영토였음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게르만유럽지역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권력격차가 매우 작다 -불확실성 회피가 상당히 낮다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혼재 -저맥락 사회 -단기지향적 사회	게르만족 영토였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동북아시아지역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하다 -권력격차는 중간 수준 -불확실성 회피가 크다 -중간 정도의 남성 주의 -매우 높은 장기지향적 사회	한국과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음	일본, 한국, 대만

<표2: 호프스테드(2001)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륙별 문화적 특성>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랍국가들	한국
권력차이[8]	12	18	7	27
불확실성 회피	7	16	27	16
개인주의-집단주의	33	28	26	43
남성성-여성성	48	32	23	41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	폴란드(13)		파키스탄(23)	5

<표3: 호프스테드(2001)에 의한 중앙아시아 인접 지역국가들의 가치지향 순위>

중앙아시아 지역의 1, 2차 유관 국가들의 특성 순위는 위의 표와 같다. 유감스럽게도 호프스테드의 연구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대상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사, 문화

8) 표 안의 지표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1) 권력차이: 숫자가 작을수록 큰 권력차이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문화 집단 내에 권력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 함. (2) 불확실성 회피: 숫자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는 나라임. 변화를 기피하는 지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는 가를 측정 함. (3) 개인주의-집단주의: 숫자가 작을수록 개인주의를 더 조장하는 국가임. 자신을 한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는 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의 개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지에 초점. (4) 남성성: 숫자가 작을수록 남성적 특질을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됨. 남성화 사회에서는 성취와 승진이 중요하고 여성화 사회에서는 관계와 협력이 중요 함. (5) 장기지향성: 숫자가 작을수록 장기 계획을 더 선호하는 국가로 분류됨. 저축, 끈기 같은 장기 지향적 가치를 선호하는 지 아니면 소비, 안정 같은 현재적 가치를 선택하는 지를 측정 함.

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의 순위를 바탕으로 위의 다섯 가지 가치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치를 역 추적해 볼 수 있다.

1) 권력차이 면에서는 라틴 유럽지역의 국가와 게르만 유럽지역의 국가보다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아랍국가들(7위) 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수치가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시기를 공유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12위)와 터키(18위)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上-中上).

2) 불확실성 회피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가 아니면 변화를 기피하는 가에 대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는 변화를 기피하는 가장 상위 국가로 연구되었다. 반대로 미국(43위), 영국(47위) 등 영연방국가들과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 등은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8위)와 터키(16위) 사이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과도 유사함을 예측할 수 있다(上-中上).

3)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미국(1위), 호주(2위), 영국(3위), 뉴질랜드(4위) 등 영연방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이 개인주의 선두에 서 있고, 중앙아시아 연안국들은 터키와 아랍 국가들이 주로 20위 후반에서 30위 초반에 포진한 것을 기반으로 그 주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전통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는 유럽의 전통으로서, 집단주의는 아시아적 전통과 사회주의의 잔재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中).

4) 남성성 측면에서 가장 상위 국가는 일본이다.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따라오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23위, 터키는 32위로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아시아적 전통과 일부 이슬람 전통[9]에 의해서 남성성이 매우 높으리라 예측가능한데 약간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슬람적 전통이 서구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순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의 초점이 주로 경제적 측면과 노동 분할의 측면이기에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4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남성성이 약하고 여성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변동과 슬라브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아랍국가들과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성평등 사상의 영향과 이슬람의 남녀평등 교리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下).

5) 장기지향성에서 같은 슬라브 국가인 폴란드가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5위로서 장기지향성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평가 국가가 23개국으로 다른 가치관 보다 숫자가 낮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가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폴란드의 순위와 독일(14위)의 순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中).

결국, 중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터키(오스만 터키)[10]와 경쟁관계 혹은 영향관계에 있었

9) 이슬람 전통 안에서 여성성의 문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슬람이 남성위주의 교리와 사회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면도 매우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쿠란은 여성이 결혼에 동의하여야 하고, 유산 상속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종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10) 이슬람 이외에 민족주의 운동도 크게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이슬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민족의 개념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독립 후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의 자결을 부르짖는 민족주의 운동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즉, 터키를 중심으로 한 범-투르크 주의(Pan-Turkism)가 그것인데, 터키는 같은 투르크계 민족임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독립국들(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결속을 부르짖고 있다. 터키의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이들 독립국들은 터키를 "兄中兄(A abeylera abeyi)"이라고 칭하며, 터키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으며, 이슬람의 지배, 티무르, 투르크의 지배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의 혼종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의 영향 관계도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 언어 면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 투르크주의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개별 공화국의 사정에 따라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조직 면에서는 왕국,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등을 다양하게 거치면서 개방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유럽의 라틴 문화권과 게르만 문화권의 중도에 서 있으며, 권력차이 측면과 불확실성 회피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나머지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 장기지향성에서는 세계 수준에서 그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알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민족 중심의 다문화 소통코드 개발을 위하여 우선 중앙아시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스테레오타입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문화 일반적 가치 체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문화의 요소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1. 역사, 2. 종교, 3. 가치관, 4. 사회조직, 5. 언어. 이러한 준거틀(Frame)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재해석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	참고사항
역 사	고대 그리스문명, 이슬람 지배 몽고침략, 티무르, 투르크 지배 러시아-소비에트의 역사	다양한 피지배 역사
종 교	토착종교, 이슬람교, 일부 러시아정교	정교회 전통 가미
가치관	*이후 추가 논의	
사회 조직	왕국, 민족국가, 사회주의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이행	사회조직적 개방성 확보
언 어	아리아어, 투르크어, 아랍어, 러시아어	현재적 의미에서 러시아어 영향 존재

<표4: 문화 간 소통코드 측면에서 바라본 중앙아시아>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상 전략 도출을 위한 중앙아시아의 타부와 문화 간 의사소통 코드를 만들어 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문화 간 의사소통(혹은 이문화 관리) 연구는 박상남의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상남(2007:285-286)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카자흐, 우즈벡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30인(카자흐-15인, 우즈벡-15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일시: 2007년 1월 - 2월
설문내용:
질문1,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문화적 장벽은 무엇인가?

교류를 강화시키고 있다(Sabri 1994, 176-178). 이에 맞서서 이란도 중앙아시아 지역이 과거에 문화적으로 이란 문화권에 속해 있었음을 내세우며 범-이란주의(Pan-Iranism)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이슬람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명 수출을 꾀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같은 이란 계 공화국인 타지키스탄이다(Smolansky 1994, 285). 이처럼 중앙아시아와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변국가들로 인해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련을 겪고 있다.

질문2, 이러한 문화적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결과: 이러한 질의 내용에 가장 많은 답은 폐쇄적 경제문화에서 오는 경제 관계 설정의 비공식성(18명), 약속불이행(7명), 종교문화적 이질성(3명), 기타(2명) 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는 로비 및 비공식적 인맥형성을 위한 노력(20명), 법적 제도적 대응(5명), 기타(5명) 등을 들었다.

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의 폐쇄적 경제 문화에서 오는 경제 관계 설정의 비공식성, 약속 불이행 그리고 종교 문화적 이질성이 자신들의 현지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한계와 설문내용의 단편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는 설문 조사였으나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기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화장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비즈니스 문화는 공동체 문화에서 유래하는 인맥과 인간관계, 개인적 친밀도의 여부가 개별 회사의 경쟁력과 능력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에 자리 잡은 관료주의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요소와 정보와 결정과정의 비 공개성, 비 투명성,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 등이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문화를 관통하는 특징이 되었다. 다음은 박상남이 주장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비즈니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소통 영역이자 타부이다.

- 인맥이 결정하는 사회
- 만남의 중요성
- 감성적 성향과 스킨십
- 관계구축 방식
-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이한 관행과 규범
- 노련한 협상능력
- 자의적인 협정서 해석
- 중앙아시아에서 언어사용의 문제
- 음주문화

다음으로 박지원(2011)은 호프스테드와 박상남 등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박지원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기업문화의 특성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1)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러시아/소비에트 문화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서술하면 높은 권력거리 성향, 높은 집단주의 성향, 높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

2) 씨족 문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씨족문화 특성.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유목 전통의 국가들과 같은 경우 각각의 가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하위 그룹을 포함하는 친족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집단을 표현하는 단위로 ‘루(ru)’라는집단이 있었으며, 이것은 매우 작은 그리고 가까운 친족집단 단위였다. 그 상위에는 루 부족들의 통합체로 쥬즈(zhuz) 또는 호드(horde)라는 혈족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보통 7대까지의 조상을 공통의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간주하였다. 카자흐

(kazakh)라는 단어자체가 유목민(nomad)을 의미할 만큼 유목생활과 관계가 깊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인들은 여름 방목지와 겨울 방목지를 구분하여 계절에 따라 유목지를 번갈아 가며 이동하여 생활하였다. 이들은 여름에는 풍부한 초지를 이용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반대로 겨울에는 혹독한 북쪽 지방의 추위와 눈을 피해 남쪽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이동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개별 가족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외부의 위협적 세력에 대해 적절하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려웠으며 한 주기의 계절을 거쳐 이동하고 유목하는 동안 생산을 위한 타 가족과의 협동과 상호부조가 필요하였다(박지원, 2011:43-44).

이러한 씨족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력분배와 균형, 기업운영과 그 문화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도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다. 개인이 직업을 구할때나 대출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혈연관계가 더욱 중시된다. 씨족문화는 조직 내에서 권력거리를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글로브의 문화척도 가운데 단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씨족문화는 집단주의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소비에트 시대의 영향과 더불어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3) 이슬람 문화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기원 후 642년 아랍군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침공하고 사산조 동부 영토인 호란산과 시스탄 방면으로 진출한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의 전래 이전에 이 지역에는 불교, 샤머니즘, 조로아스터교 등이 널리 퍼져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책은 탄압과 유화 정책을 반복하였다. 박지원에 따르면 레닌의 상대적 유화 정책을 거쳐 스탈린 시기에는 절대적 탄압이 도래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반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스크 자산 압수와 용도 전환, 성지순례 금지 등 전면적인 금지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시간이 지나 고르바쵸프 집권기 전반에는 탄압정책이 이루어지다(1985년 - 1988년간), 그 이후 1991년까지는 민족주의 강화에 따라 이슬람 허용정책으로 전환된다(박지원, 2011:54).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교와 중동지역 이슬람교의 특징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교의 개방성(동서 문명의 교차로로서의 성격), 수피즘(sufism)이 압도적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피즘이란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적 요소들과 더불어 신비주의적 경향이 혼합된 민중 이슬람을 의미한다. 박지원은 9개의 변인으로 동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권력거리(Power distance)
- 성 평등성(Gender egalitarian)
- 단정성(Assertiveness)
- 제도적 집단주의(Institutional collectivism)
- 조직 내 집단주의(In group collectivism)
-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 성과지향성(Performance orientation)
- 인간지향성(Humane orientation)

이러한 그의 연구는 지표상에 약간 복잡함을 더한 측면이 있다. 가령 성 평등성과 단정성은 다른 지표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나, 유사 개념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단정성 혹은 남성성이 성 평등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양자 간 반비례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

부분도 통합적 기술이나 단순화 여지가 있어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박지원(2011: 135-149)은 결론적으로 다음의 문화 환경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유목민족 전통, 씨족사회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로부터의 공통되고 일관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슬람 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지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로 단정성, 즉 남성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공격성, 직접성, 대결성 등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가치로서 여성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섯째로 권력거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문화적 양상과 9개의 변인요소들의 연관 관계[1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러시아/소비에트 문화: 권력거리,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 씨족문화: 권력거리, 집단주의, 단정성
- 이슬람문화: 인간지향성

그러나 박지원의 연구에서 9개의 변인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동일한 개념이 분리되어 구분된 경향이 있다. 성 평등성과 단정성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두 기준 모두 다루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중앙아시아 사회에서의 여성 불평등과 남성성 과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성향의 경우도, 중앙아시아의 경우 과거 유목민 전통과 이슬람 문화 전통 그리고 소비에트 문화 전통 모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향으로서 이것을 제도적 혹은 조직 내 집단주의로 나누는 것은 과도한 분류로 간주할 수 있다. 지향성의 경우, 시간적 개념인 미래지향성은 과거 및 현재 지향성과 비교되면서 비교적 명료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지향성과 인간지향성은 각기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지향 주체에 대한 개념으로서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나 간과된 점들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계에 대한 문화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시아파 무슬림들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가 아니라 투르크족이라는 종족에서 찾고 있다(Kaplan, 1997:377). 그리고 투르크족 무슬림들인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메카 그리고 은밀하게는 앙카라를 바라보지 그들의 국가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절대 바라보지 않는다. 메카를 거부한 뒤 브뤼셀로 부터도 거부당한 터키인들은 소련의 몰락으로 생긴 기회를 포착하여 타쉬켄트로 접근하였다. 외잘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 지도자들은 투르크계 민족의 공동체라는 야심만만한 구상을 내놓고 아르디아해에서 중국 국경선까지의 '가까운' 외국에 있는 재외 투르크 민족을 결속하고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터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어를 쓰는 중앙아시아의 4개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 노력은 경제 관계를 순탄하게 만든다. 한 터키 기업인은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다. 터키인에게는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는 같은 문화, 유사한 언어를 가졌으며, 같은 요리를 먹는다"(Huntington, 1997:194)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간과한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 문화의 성격 규정에 관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

11) 성과지향성, 미래지향성, 성 평등성은 구체적인 카테고리로의 포함이 유보된 상태이다.

이 중앙아시아 민족의 개방적 성격과 아랍 이슬람 문화와의 상이성이 위의 문화 성향 기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문화는 다분히 민속학적 이슬람 성격[12]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정통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는 민속학적 요소가 반영된 종교 형태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생의례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인들의 민속학적 타부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점복 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민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인들은 택일(擇日)이 있으며 사주와 같은 것도 있다(이광호, 1999:101). 이들은 결혼식, 이사 날 등 삶 속에서 중요한 날들을 잡을 때 점쟁이를 찾아간다. 아울러 자녀의 입시나 입사 등 많은 일에서 조상의 사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의 도움을 받는다. 심지어는 코란 점도 존재한다. 음식 문화에서도 유목민 사회에서는 양을, 농경사회에서는 돼지를 신성시하는 특색이 있다. 투르크족들은 이슬람 이전시대부터 양을 신성시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을 매우 신성시 한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양을 잡아 신에게 바치고 동시에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세 번째로 중앙아시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으므로 남성들은 밖에서 생활하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 외부와의 전쟁이나 마찰로 남성들의 권위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이슬람 전래 이후에 더욱 고착된다. 이슬람 격언에 “여성은 코르(kor, 집)에 있든지, 고르(gor, 무덤)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에서 여성은 남성들 앞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며,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며 남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생각은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일반적인 숙명론과 결부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중앙아시아인들은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까다르(qadar, 운명)를 신봉하고 있다. 숙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일생의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박상남의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타부와 박지원의 9가지 변수 위에 본 논문에서 저자가 언급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기업 비즈니스 지표와 타부 양상 등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투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IV.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상 전략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상에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문화 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특성과 관련지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12) 이슬람 교리의 원천인 코란은 원칙적으로 민간신앙적인 요소를 금지하고 있다. 우상숭배나 점 등을 사탄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다신사회를 경계하면서도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주술적 행위를 일부 용인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유일신인 알라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령들의 세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일반적 협상 전략

아래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개별 지역의 문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고유의 접근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와 주변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상 특성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다음은 정용균(2007:278)에 의해서 정리된 세계 지역별 협성 특성이다.

	의사소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 파트너	거래선 지속성
북미지역	직접화법	경쟁에서의 승리	개방적	짧다	실무 담당자	매우 일시적
중남미지역	간접화법/ 신체접촉	관계유지, 체면유지	폐쇄적	구애받지 않는다	고위간부/ 집단 수장	지속적 관계
라틴 유럽지역	간접화법	대립회피, 관계유지	폐쇄적	상대적으로 길다	고위간부	지속적 관계
게르만 유럽지역	직접화법	경쟁에서의 승리	개방적	짧다	실무 담당자	일시적 관계
동북아 지역	간접화법	경쟁/체면유지	폐쇄적	길다	실무 담당자/고위 간부	장기적 관계
영연방계 아시아지역	간접화법	인간관계, 체면유지	폐쇄적	길다	집단수장	장기적 관계

<표5: 세계 지역별 협상 특성 요약>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동북아 지역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특성과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미주 및 유럽지역 국가들의 특성과 상호 교차하며, 선별적으로 동일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변형된 표를 얻을 수 있다. 다소 주관적인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지표상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단순화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지역	의사소통	갈등처리	개방성	협상시간	협상파트너	무역 지속성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간접화법	경쟁우위 대립회피	폐쇄적	상대적으로 짧음	고위간부	지속적
중앙 아시아지역	간접화법	대립회피	폐쇄적	상대적으로 짧음	고위간부	지속적
미주	직접화법	경쟁유도	개방적	짧음	실무자	일시적
유럽	직접화법	경쟁우위	개방적	짧음	실무자	일시적

<표6: 중앙아시아의 협상 특성과 타 지역과의 비교>

위의 <표5>와 <표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협상 방법은 매우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소통 방식이 간접화접을 중시하고, 대립을 비교적 회피하며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고, 협상 당사자들의 관계는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높은 권력관계에 따라 협상의 중심사안은 고위간부가 대부분 결정하고 한번 이어진 무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무

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협상 전략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도입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변질되고 변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처리 과정이 경쟁우위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타부를 포함한 문화적 협상 전략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론의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변수와 문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즉, 변수 면에서는 변수 항목을 단순화하고 시간지향성과 대상지향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투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이들 변수와 변인들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무역 교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화 간 차이에 의한 타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변수	정의	문화 변인
불확실성 회피	미래의 불예측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적 표준이나 규정에 의존하는 정도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유목씨족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권력거리	집단의 구성원들이 권력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 혹은 권력의 집중 정도	유목씨족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 구성원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발현하는 정도. 남녀 간 불평등의 정도 및 여성 비하나 불평등한 대우를 행하는 정도	남성성(+); 유목씨족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여성성(+); 소비에트/러시아문화
집단주의	조직과 사회집단이 집단행동과 자원의 집단배분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정도.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발현의 정도	유목씨족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시간 지향성	개인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지향하는 정도	과거지향성(+); 씨족유목민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현재지향성(+); 이슬람문화 미래지향성(+); 소비에트/러시아문화
대상 지향성	집단이 구성원들의 행위결과의 향상과 탁월성을 격려하는 가 혹은 그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을 더 고려하는 가의 정도	결과지향성(+); 소비에트/러시아문화 인간지향성(+); 씨족유목민문화, 투르크문화, 이슬람문화

<표7: 문화적 차원의 변인과 협상 전략과 타부>

불확실성 회피 변수 측면에서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획서 등의 문서화되고 정형화된 매뉴얼을 찾는 정도로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재적 의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양상이 급격하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서화되고 매뉴얼화 된 협상 타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이한 관행과 규범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하고, 구체적 서류문서나 계약서, 매뉴얼을 확인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변인의 표에서도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불확실성 회피현상은 과거 소비에트/러시아의 영향으로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유목씨족문화, 투르크 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전통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의도적 접근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피하기 위한 점보기 등의 민속학적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민속학적 타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로 권력거리 측면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와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 그리고 씨족사회 전통의 잔재로 아직까지 매우 높은 지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타부 시 될 수 있다. 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결국 인맥이 결정하는 사회, 자의적 협정서 해석 등이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타부 시 되어야 한다.

남성성 지표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앙아시아의 남성성 지수는 이슬람에 의한 남녀 평등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실정이다. 이는 유목민 사회 기반의 투르크 문화, 아시아적 가치관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를 표면적으로는 불인정하는 행동을 취하되, 내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협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비즈니스 수행 중 남성 중심의 음주문화를 인지하고 동참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집단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오랜 유목생활 전통과 대 가족관계, 씨족문화, 투르크계 아시아 문화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집산화 정책에 의해 집단주의 전통이 아직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선호되는 타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타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호의나 비즈니스 우대를 위하여 감성적 성향과 스킨십을 통한 일체감 형성이 필요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물이며 타부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지향성과 대상지향성의 면을 살펴보면, 우선 시간 지향성의 경우 과거를 우선시 하는 문화 체계가 존재하고, 현재를 중시하는 이슬람문화 영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소비에트/러시아문화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게의 경우 투르크계 아시아적, 씨족유목민적 성격에서는 과거를 지향하고 다양한 민속학적 타부를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지향성의 부분에서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와 인간을 지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 지향성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간주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전통은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설립 시 부터의 전통인 인간지향성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변수를 기반으로 문화변인을 가미된 대표적인 비즈니스 타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늘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최고 신적인 존재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민속학적 주술의례와 점보기 등의 행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점은 한국의 민간신앙과 유사하다.

2) 시간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인들은 일 년 중 사파(Safar, 이슬람력의 두 번째 달)달 마지막 수요일을 잘 보내면 운수가 좋고 일 년 동안 잘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하면 그 의미가 더 부각되고 향후 업무 협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3) 중앙아시아인들은 대개 운명론(Qadar)에 입각하여 사고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인들과 비즈니스 상에서는 만남이나 거래 시작을 운명론적 입장에서 의미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4)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적 고백의례를 샤하다(Shahada)라고 한다. 이는 신앙고백이라는 의미로서,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자이다”라는 고백을 의미한다. 이 고백은 민족과 국가를 구애받지 않으며, 반드시 아랍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료의식을 발현시키고 집단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의식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 이 말을 익혀둠이 중앙아시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5) 희사(Zakat)에 대한 생활 타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인들은 오랜 유목생활과 투르크계 아시아적 전통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기반하여 ‘나’ 보다는 ‘우리’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함께 잘 살기 위한 희사 문화가 일반적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시 이익의 분배나 성취 측면의 강조 보다는 함께 잘 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중앙아시아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코란 점을 비롯한 점을 친다. 아침에 일어나 코란을 적절하게 피고 그 곳에 나타난 내용이 하루의 일진이 될 것이라는 등의 단순한 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의 정도가 다양하다. 이사를 비롯하여 못 박기, 머리 깎기, 손발톱 깎기 등 다양한 생활 타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점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공감하고 타부 시 하지 않는 행동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7) 중앙아시아 국가의 라마단 기간 중의 비즈니스 시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각종 축제일이 다가오는 기간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게 라마단을 비롯한 금식(Sawm)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타부이자 철칙이며, 반대로 생활 속의 고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라마단 달은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에 위치한다.

단,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 특성은 그 사안의 특성과 현안의 중요도에 따라 그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다. 그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협상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함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사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문화적 측면에서의 중앙아시아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간 의사소통 코드 개발과 타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프스테드와 홀, GLOBE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박상남과 박지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문화변수 6개, 문화변인 4개를 새롭게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적 타부와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문화변수:
불확실성 회피, 권력거리, 남성성과 여성성, 집단주의, 시간지향성, 대상지향성
- 문화변인:
유목씨족 문화, 투르크 문화, 이슬람 문화,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연구결과, 현재 중앙아시아의 문화는 소비에트/러시아 유산과 투르크아시아계 문화, 유목민 문화, 이슬람 문화의 전통이 조화롭고 흥미롭게 결합되어 있다. 즉, 투르크계 아시아문화 전통, 유목민적 전통, 이슬람 문화와 소비에트/러시아 문화 유산이 현재 중앙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근간이다. 남성성이 우대되고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권력관계가 용인되는 보수적인 사회가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사업에서 강한 씨족 및 가족 연대감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높은 사회적 가치 부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 변수를 가지고 행한 문화 간 의사소통과 타부 추출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결론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 회피 변수 측면에서는 협상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획서 등의 문서화되고 정형화된 매뉴얼을 찾는 정도로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재적 의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양상이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문서화되고 매뉴얼화 된 협상 타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권력거리 측면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와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 그리고 씨족사회 전통의 잔재로 아직까지 매우 높은 지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합리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타부 시 될 수 있다. 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성 평등성과 단정성은 남성성 지표로 치환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남성성 지수는 이슬람에 의한 남녀 평등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실정이다. 이는 유목민 사회 기반의 아시아적 가치관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를 표면적으로는 불인정하는 행동을 취하되, 내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협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제도적 집단주의와 조직 내 집단주의도 바로 앞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오랜 유목생활 전통과 대 가족관계, 씨족문화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의 집산화 정책에 의해 집단주의 전통이 아직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선호되는 타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타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성, 성과지향성, 인간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래지향성과 성과지향성이 중앙아시아 시장경제 체제의 이행과정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동 타부가 새로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인간지향성의 문제는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설립 시 부터의 전통으로서 집단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7가지의 대표적인 문화사적 타부를 소개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모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화 간 의사소통 미흡과 타부에 대한 문화정책의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현지화 실패로 많은 실패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과 경제협력관계 역사 20년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문화적 전략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기숙 (2009)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 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 411-456.
기연수 (2001) 러시아인의 문화코드와 의사소통 방식, 슬라브학보, 19-1, 225-253.
김기현 (2004) 멕시코의 문화코드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국제지역연구, 7-4, 235-266.
김미연 (2004) 한독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타부, 독일어문학 25, 253-273.
김우성 (2006) 스페인어 교육과 문화간 의사소통, 서어서문연구, 29, 11-24.
민창기 (2006)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과 구성, 관광학연구, 30권 6호, 51-71.
박상남 (2007) 중앙아시아 경제발전과 문화장벽, 역사문화연구 28, 269-294.
박상남 (2008)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문화와 한국인의 이문화 관리적용, 국제지역연구 12-2, 113-132.
박지원 (2011) 카자흐스탄의 기업문화와 조직성과-카자흐스탄 외국계기업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양섭 (2003)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각 국의 문화정책 연구, 중동연구, 22권 1호, 103-158.
유혜경 (1997)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점, 한국커뮤니케이션학, 4, 69-76.
이광호 (1999)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서울:UUP.
이수범 (2000)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44-2호, 186-214.
정경택(2011)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체성 모색: 역사적 기원과 문자 전환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7-4, 217-244.
정용균 (2007)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11-1, 253-290.
Freud, S. (1955) Totem and Taboo, 김종엽 역, 토템과 타부, 서울 : 문예마당.
질트 호프스테드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Samovar, L. & R. Porter 저, 정현숙 외 역 (2007)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Akiner, Shirin (ed.)(1986). Islamic Peoples of the Soviet Union: An Historical and Statistical Handbook, New York.
Akiner, Shirin (ed.)(1992). Economic and Political Trends in Central Asia, New York.
Allworth, Edward (1989). Central Asia: 120 Years of Russian Rule. Durham.
Allworth, Edward(1994). Muslim Communities Reemerge: Historical Perspectives, Durham.
Allworth, Edward(ed.)(1971). Soviet Nationality Problems, New York and Boston.
Atkin, Muriel(1992). Religious, National, and Other Identities in Central A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Atkin, Muriel(1989). The Subtlest Battle: Islam in Soviet Tajikistan. Philadelphi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Bacon, Elizabeth E.(1980). Central Asians under Russian Rule: A Study in Culture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anuazizi, Ali, and Myron Weiner (ed.)(1994). The New Geopolitics of Central Asia and Its Borderlan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ashiri, Iraj.(1992). "Muslims Riot Against Russians in Kazakhstan", Great Events from History II, vol. 5, Frank N. Magill(ed).
Becker, Seymour(1994). "The Russian Conquest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 Motives, Methods, Consequences", Central Asia: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Future Prospects, Hafeez Malik(ed.), New York, St. Martin's Press.
Bennigsen, Alexandre & Marie Broxup(1983). The Islamic Threat to the Soviet State. New York.
Bennigsen, Alexandre & S. Enders Wimbush (1985). Mystics and Commissars: Sufism in the Soviet Un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nnigsen, Alexandre & S. Enders Wimbush (1986). Muslims of the Soviet Empire: A Guide, Bloomington.
Broxup, Marie(1987). "Islam in Central Asia since Gorbachev," Asian Affairs, London.
Carrere D'Encausse, Helene(1989). Islam and the Russian Empire: Reform and Revolution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erdinand, Peter(1994). The New States of Central Asia and Their Neighbour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Gagnon, Martin (2001)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최윤희 외 (역) (2002) 세계 문화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Gross, Jo-Ann(1992). Muslims in Central Asia: Expressions of Identity and Chan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Guboglo, Mikhail(1991)."Demography and Language in the Capitals of the Union Republics," Journal of Soviet Nationalities, vol. 1, No. 4.
Malik, Hafeez (ed.)(1994). Central Asia: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Future Prospects, St. Martin's Press, New York.
Haghayeghi, Mehrdad(1995).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Hall, Edward (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 최효선(역) (2000)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Hanifi, M. Jamil(1982). "Islam in Contemporary Afghanistan", The Crescent in the East - Islam in Asia Major, Raphael Israeli(ed.), London and Dublin, Curzon Press.
Hetmanek, Allen(summer 1987). "Islamic Revival in the USSR", Religion in Communist Dominated Areas.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 Comparing Values, Behavio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CA : Sage publications.
Huntington, S.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Y.: Simon & Schuster.
Jandt, F. E. (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s.
Kluckhohn, F. & F. Strodtbeck (1960)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Y : Row & Peterson.
Krader, Lawrence (1956). Handbook of Soviet Central Asia, Vol. 3, New Haven.
Krader, Lawrence (1963). Peoples of Central Asia, Bloomington.

Laitin, David D. "The Four Nationality Games and Soviet Politics," Journal of Soviet Nationalities, vol. 2, No. 1.
Massell, Gregory J.(1974). The Surrogate Proletariat: Moslem Women and Revolutionary Strategies in Soviet Central Asia: 1919-192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Olcott, Martha(1990). "Central Asia: The Reformers Challenge a Traditional Society", The Nationalities Factor in Soviet Politics and Society, Boulder.
Olcott, Martha(1992)."Central Asia's Catapult to Independence", Foreign Affairs, Vol. 71, No. 3.
Robert D. Kaplan(1997) The Ends of the Earth, 지구의 변경지대, 황건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Rywkin, Michael(1982). Moscow's Muslim Challenge: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Sayari, Sabri(1994). Turkey, "Caucasus and Central Asia", The New Geopolitics of Central Asia and Its Borderlands, Ali Banuazizi & Myron Weiner(e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Smolansky, Oles M.(1994)."Turkish and Iranian Policies in Central Asia",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Future Prospects, Hafeex Malik(ed.), New York, St. Martin's Press.
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1997) Riding the Waves of the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Nicholas Brealeay Publishing.
Watters, Kathleen(1990). "Central Asia and the Central Asian Press: A Study in News Coverage", Journal of Soviet Nationalities, vol. 1, No. 2.
Wixman, Ronald(1984). Peoples of the USSR: An Ethnographic Handbook. New York, Armonk.
Zenkovsky, Serge A.(1960). Pan-Turkism and Islam in Russia, Cambridge.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김상철(한국외대)

I. 카자흐스탄 재외 귀국동포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유럽과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근대 이후 가장 급격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준 국가이다. 19세기 중반이후부터 본격화된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 과정은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련체제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추진되어온 카자흐 민족 문화 및 언어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카자흐화 정책에 의해 정책적인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21세기 지구촌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이주 문제는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은 후진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더 민주적인 국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특정 집단의 민족 및 문화적인 연계성과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들과 모두 연관되는 이민 또는 이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하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전통적인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이른바 세계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취하는 이민(또는 이주) 정책은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인 정체성의 보존과 과거에 대한 찬사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이른바 유출되고 있는 민족집단들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유입 측면, 기존의 민족집단들과 새로 유입된 집단간의 통합에 집중되어 왔는데, 특히 재외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안정성 확립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명 규모의 유입이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하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가운데 속해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에 대한 연구나 접근은 당사 국가라 할수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는 학문적인 연

구나 분석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의 변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랄만의 귀국을 다루는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카자흐스탄사회내통합과 관련된 상황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관계를 연구하는 카자흐스탄 외부의 연구자들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DP 카자흐스탄 지부는 이미 2006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제적인 이민 문제의 맥락에서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서방측 이민문제, 중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몽골출신 오랄만 또는 몽골내 카자흐인 사회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골 현지체류 또는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구자인 Alexander Diener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변화에 대한 논문을 2007년 발표하여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보여주는 카자흐스탄 귀국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인도 연구자인 Sharad K. Soni도 역시 2007년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2009년 역시 미국 연구자인 Cynthia Werner와 Holly R. Barcus의 연구를 통해 이어졌는데, 이들의 연구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속성보다는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2011년 역시 미국의 인류학자인 Eva-Maria Dubuisson과 Anna Genina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체성과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배경과 그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외 카자흐인의 형성 및 확산의 과정을 20세기 이후의 시기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아울러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정, 그리고 소련 붕괴를 전후로 한 시기에서의 해당국에서의 상황변화, 이로 인한 해당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유목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초청 귀국사업에 대한 해당국 카자흐인 사회의 인식도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성에 대한 고려없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만 추진된 오랄만 정착사업의 한계와 전망, 카자흐스탄 사회의 반응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II. 주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특징

1.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1) 카자흐인의 중국 이주와 공동체의 변화

중국의 카자흐인은 대략 110만명 규모로, 전 세계 카자흐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90% 정도가 중국 신장지역의 일리 자치구역, 모리 자치구역, 부르킨 자치구역 및 우르무치 근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천산산맥 인근 지역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일부는 간수성, 칭하이성에도 거주하고 있는데, 카자흐인이 중국에 거주하게된 계기는 16-19세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카자흐와 직접 관련되는 사건으로는 1760년대에 청나라는 카자흐의 도움으로 중가리아 칸국의 영역을 차지하였는데, 중가리아에 점령당했던 초원지대를 되돌려받으려했던 카자흐의 의도와는 달리 청나라는 17세기-18세기 카자흐와 중가리아 칸국에 속해있던 오이라트와의 관계가 원

만하지 않음을 이유로 카자흐가 회복하려 했던 초원지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영역에서 1767년 일부 카자흐의 저항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일부분을 카자흐에 돌려주었지만, 청나라의 동맹임을 강조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1850년대까지 독립을 유지시키다가 청나라로 편입시켰다.

카자흐 민족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카자흐 소수민족의 발생을 유발하게 된 요인으로는 청나라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조약을 들 수 있다. 1860년의 베이징조약, 1864년의 추구차크 의정서(Chuguchak Protocol), 1869년의 홉딘스키 의정서Hobdinsky Protocol), 1879년의 리바디아 조약(Livadia Treaty), 1881년의 뻬쩨르부르그 조약(St.Petersburg Treaty) 등에 의해 카자흐의 영토와 인구들은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이나 연대의식과는 상관없이 제정러시아와 청나라로 분할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제정러시아령이 된 현재의 카자흐스탄으로는 스톨리핀 개혁에 의해 러시아인 농민이 유입되어 카자흐 유목민의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초지 사용은 제약되었으며, 이로 인해 1902-1913년 사이에 대략 29만여명의 카자흐인이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은 일리강과 신장의 알타이 지역 초원지대로 이주함에 따라 1911년에 이미 중국 카자흐인은 23만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후 중국의 카자흐인은 1916년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포한 군대징집령에 대한 반발로 카자흐인의 탈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소련시기에는 내전기에 카자흐인 상당수가 국외로 탈출하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1930년대에는 소련시기에 이루어진 집산화 및 민족엘리트에 대한 대숙청에 대한 반발로 인해 대략 1백만명 이상의 카자흐인들이 이웃 국가로 탈출하였고, 이 시기에 20만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림 1. 현대 카자흐스탄-중국간 국경선과 국경 검문소



자료:http://arkankergen.wordpress.com/2012/06/14/22-14-06-2012-

이후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중국 카자흐인의 유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1930-40년대에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봉기에 카자흐인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1944-49년 일리강 지역의 봉기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목지대였던 동투르키스탄(신장)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에 카자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카자흐인들은 청나라 시대 이후로 이 지역에서의 유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목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목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과 충

돌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이러한 카자흐인들의 봉기참여는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또한 한족의 이 지역 유입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기들을 주도했던 카자흐인 집단은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1943년 중국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장에는 93만명 정도의 카자흐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내에서의 입지 변화가 반영되어 1953-54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략 51만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또 다른 카자흐인 감소요인으로는 1930-40년대에 우르무치 행정당국은 유목민을 한족 농민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무장 카자흐 군대의 존재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족 세력은 신장지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행정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신장지역에서 당시 소수집단이었던 한족 세력과 다수 세력이었던 무슬림 세력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936년 중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봉기에서 패배한 결과 1만8천여명의 신장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티벳과 인도를 거쳐 터키에 정착하였다.

신장에 남아있었던 카자흐인들은 이후 1943년 6월 알타이 지역에서는 카자흐인을 남부 신장지역으로 이동시킬려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새로운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일부가 1950년대에 역시 신장을 떠나 몽골로 피난하였다. 1944-45년에 발생한 일리 반란에 참여한 카자흐인들은 1950년대에 파키스탄으로 피난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군대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이는 일리-타르바가타이-알타이의 이른바 신장에 위치한 카자흐가 관할하는 세 지역을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도자들이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집행부에 적극 참여하였고, 1946년 7월에는 우르무치의 시장으로 카자흐인 여성이 선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탈출이주는 1950년 중국 공산당 군대가 신장지역에 통치권을 확립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카자흐인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인 유목과 이슬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1949년 8월 27일 비행기 추락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부가 사망했는데, 10월 1일에 이 지역 공산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10월 20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대가 우르무치에 진입하게 되면서 신장지역 공산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산화 이전의 카자흐인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카자흐인들은 신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은 티벳을 지나 파키스탄에 피난민 신분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일부는 파키스탄에 남고 일부는 터키로 재이주하였다.

신장 정착 초기단계에서 지도부의 붕괴를 경험하였던 중국 카자흐인의 역사는 대략 4가지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1949년 이전의 전통적 시기, 소비에트식 생활 방식이 도입된 1949-1966년 사이의 공산혁명기, 과거의 모든 전통적 흔적들을 포기해야 했던 1966-1977 사이의 문화혁명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룬 문화혁명이후시기로 나누어진다. 혁명이전 시기 중국 카자흐인의 삶은 러시아 문화요소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전통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비교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카자흐어의 경우에도 키릴문자로 표기되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와 달리 중국 카자흐인의 카자흐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인 아랍 문자를 이용하여 표기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라틴문자를 사용한 중국식 카자흐어 표기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그 위상이 상이하였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슬람 사원, 종교적인 건축물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최근에 와서 중국 서부 지

역에 새로운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들은 환경 악화로 인한 제약, 경제적인 변동과 정치적인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조상 세대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화 대신 직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을 유목민으로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카자흐인들은 중국 정부가 환경 복원 및 보존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목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정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유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환경적인 압박으로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유목하는 카자흐인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많은 유목민들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유목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목을 중지하고 정착할지,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할지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중국 신장의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이후 삶의 패턴 선택이라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으로 이해 만들어진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중요한 새로운 선택 옵션으로 부상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내걸고 있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은 유목 카자흐인들에게카자흐스탄 이주가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가 카자흐스탄은 일종의 희망의 땅으로 부각되었는데, 특히나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한족 및 한족문화 유입의 확산으로 인해 카자흐의 전통적인 생활패턴 및 문화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2) 중국의 서부개발과 카자흐인의 귀국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급격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빈부 격차의 해소,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중국 중앙정부는 농촌의 사회 및 환경적인 복지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서부 개발은 중앙정부 활동의 주축이 되었고, 이 계획은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 기회의 증대, 사회적인 (지위)이동 방식의 패턴 확대, 환경적인 지속성의 보장을 촉진시키는데 있었다. 신장지역은 바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심지대로 2002년 이후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또한 광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국내외로부터 투자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투자의 증대는 정체상태에 있던 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로 인한 구직의 증대로 농촌 및 도시 모두에서 수입이 증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신장의 카자흐 유목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경제정책에 의한 변화들은 이들이 처해 있던 곤란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중국을 떠날려는 이들의 희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유목민들이 가축 사육에 사용하게 되는 초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변화는 불가피했고, 기존의 유목 초원지대를 가축 사육이 규제되는 초원지대로 변화시키는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초원지대를 환경적인 기능지역, 경제적인 기능지역, 혼합 기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구분되며, 가축사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순환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결국 카자흐인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삶의 패턴을 유목에서 정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유목민들은 1980년대초 유목초지 이용증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유목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의 유목민 정착 및 유목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축소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유목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목을 포기하고 도시에 정착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과 같은 대안은 그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erny 2010, 229) 유목초지 이용증은 1980년대에 발급된 이후로 인구수 변동에 따른 갱신조치가 없었고, 유목민 젊은 세대들의 증가에 따른 목초지 증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당시의 목초지를 현재는 장년층 이상이 된 당시의 젊은 세대들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공유함에 따라 유목민 공동체 내부의 환경도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중앙정부 당국은 상당기간 동안 이미 유목민의 정착을 유도해왔는데, 최근에는 자발적인 정착과 비자발적인 정착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정착을 하는 경우에는 유목 가구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주어지고, 농경으로 정착한 유목민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며,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세대들이 행해왔던 계절적인 이동의 형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는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도시화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목민으로써 유목초지 및 민족적인 유산에 대한 애착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선호했던 카자흐 유목민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게된 배경으로는 첫째는 중국의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인구가 부족하며, 자신들이 유목민의 자격으로 되돌아가면 대규모의 유목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Cerny 2010, 230).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이 카자흐스탄 이주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친척 가운데 일부분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은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사리 추진하여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 유목민들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들은 중국의 신장 대부분 지역에 외부인의 유입이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부상은 신쟝 지역에 상당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녀의 미래와 관련되어서는 나타나는 카자흐스탄 귀국의 부류에는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먼저 가서 카자흐스탄의 도시에 정착해 있거나, 또는 젊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카자흐인으로써 살아가기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 사이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면 자녀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실체에는 상관없이 여하튼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erny 2010, 235) 중국에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년간 변동 격차가 큰 유목민의 수입에서 볼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카자흐인들에게 알려진 카자흐스탄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은 이들이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카자흐인은 현재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사회환경 측면에서 신장지역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이 자민족어 학교가 아니라 중국어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쟝 지역에서는 특히 카자흐인과

위구르인 사회에서 민족언어 및 문화 전통의 상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에서의 가장 손쉬운 대처 방안으로는 바로 사회적인 실체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중심어로 자리매김한 카자흐어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1)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몽골의 카자흐인은 몽골 인구 전체로 보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지만, 몽골계를 제외한 소수민족 집단들 가운데에는 가장 큰 집단으로, 특히 서몽골지역에서 문화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켜오고 있다. 카자흐인이 최초로 몽골로 이주한 기록은 184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 출신이 아닌 중국 서부에서 몽골로 이주하였다. 1905년 1,370가구의 카자흐인 규모는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 형성시점에는 카자흐인 공동체가 1,870가구로 확대되었고,(Diener 2007, 463) 20세기 중반까지 소련 및 중국서부로부터 카자흐인들이 몽골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 소련과 중국서부로부터의 카자흐인의 이주 원인으로는 제정러시아 및 소련, 그리고 중국서부에서 이루어진 유목지대로의 식민화와 이를 위한 유목초지의 농지전환, 볼세비키 혁명으로 인한 중앙아시아 사회변화에 대한 부적응, 1930년대의 집산화와 토착민족 대탄압에 대한 반발, 1930년대 중앙아시아의 대기근 등이 원인이었다.(Cummings 1998, 135-136)

1930년대에는 카자흐인 거주지역이 몽골의 행정구역 단위로 형성이 되었는데, 찬다마니 울 구역(Chandamani Uul aimag)과 홉드 구역(Khovd aimag)으로 구성된 카자흐인 거주 지역은 1940년에 일정부분 자치가 허용되는 바얀 울기 구역(Bayan Ulgi aimag)으로 발전되었으며, 몽골 정부에 의해 1940년대에 반(半)자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카자흐인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 비율은 거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카자흐어 학교나 몽골어 학교 가운데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었다.

그림 2. 몽골의 카자흐인 분포도(2010년)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

몽골 카자흐인들은 바얀 올기 구역, 홉드 구역 홉드 소움(Khovd Aimag Khovd soum)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얀 올기 구역에는 1989년에는 구역 전체 인구의 91%, 2000년에는 88.7%가 카자흐인이었고, 홉드 소움은 96%가 카자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몽골의 다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카자흐인 공동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카자흐인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몽골의 카자흐인들은 공동체 형성 초기부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자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인 카자흐스탄 지역과의 접촉은 소련 당국의 정책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문화적인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몽골 카자흐인들과 이들의 역사적인 모국간의 교류는 소련시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가 양 국가의 카자흐인 공동체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에는 이러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는 없어졌지만, 소련시기 카자흐 문화에 러시아 문화요소가 흡수됨에 따라 이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 문화와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독립이후 카자흐스탄과 접촉이 허용된 몽골 카자흐인들에게는 이러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했던 변화의 과정을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식되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몽골 카자흐인의 역사적인 조국 귀환을 금지했던 지정학적인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2010년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 비율

구성 민족 명칭 및 계통	비율(%)
칼크(Khalkh) (몽골)	82.4
되르벳(Dörbet) (몽골)	2.75
바이드(Bayid) (몽골)	2.15
부리야트(Buryat) (몽골)	1.71
자크친(Zakhchin) (몽골)	1.25
기타 몽골계 (몽골)	1.25
카자흐(비몽골)	3.86
기타 투르크계(비몽골)	0.7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등	0.5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Mongolia
(검색일2012년8월20일) 재구성

2010년에 발표된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을 보면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몽골계 부족으로는 가장 그 비율이 큰 3.86%로 1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1989년에는 12만명 정도로 몽골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였는데, 2000년에는 4.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 추세에서 알고 있듯이 몽골 카자흐인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허용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측면의 특징과 아울러 몽골 카자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국경선이 서로 접해있지 않고, 47-60km에 달하는 중국의 국경이 두 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의 카자흐인 집중 거주 지역인 바얀울기와 홉드 지역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몽골 자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평균 해발 1,300미터 높이의 알타이 산맥은 몽골의 서부 지역을 몽골의 다른 지역들과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고, 1930년대에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몽골 카자흐인들은 알타이 산맥 반대

편의 카자흐인들과 접촉 및 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입지로 인해 오늘날에도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직접 연결하는 운송로는 서몽골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직접 연결하는 육상도로나 철도는 여전히 건설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몽골 국내에서도 카자흐인 집중 지역인 서몽골과 수도인 울란바토로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림 3. 몽골-카자흐스탄간의 국경지대와 주요 도시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 kazakhs.html

2) 몽골 카자흐인의 사회변화와 귀국

몽골 서부지역은 몽골-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보존해온 지역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들은 몽골사회로의 통합과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이주라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1990년대 초반 몽골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보편화,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동포 카자흐인들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한 카자흐스탄 사회내에서의 갈등 유발 등이 이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에서는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들을 카자흐인이 아니라 몽골인으로 인식하는 등 몽골 카자흐인과 카자흐스탄간에는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 열망을 잠재우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Diener 2007, 475) 이러한 몽골 카자흐인들의 대안은 몽골내에서 공식적인 카자흐인 영역의 확대 촉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전의 시기부터 몽골의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기에서는 몽골 국가의 하부문화로 카자흐 공동체와 문화를 인정하고,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카자흐스탄이 겪어온 사회문화적인 경험으로 인해 몽골의

카자흐인들이 누렸던 만큼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1-2002년 사이에 Alexander Dien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들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 동일하다는 비율이 18.7%였다.(2007,475) 몽골의 카자흐인 사회는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기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카자흐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바로 유목생활, 그리고 몽골과의 유목적인 전통의 공유를 꼽고 있었다(Diener 2007, 476).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1990년대초반 당시 12만명 정도였던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대략 6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서몽골의 사회 및 인구 구성에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2010년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몽골 카자흐인의 숫자가 1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던 몽골 카자흐인들의 상당수가 몽골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몽골로 되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몽골 카자흐인들이 기대했던 역사적인 모국사회로의 통합은 수월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iener 2005), 327-348)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수용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몽골 카자흐인 사회 전체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던 점도 밝혀지고 있는데, 몽골출신 카자흐인의 이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몽골 정부의 보고서 및 카자흐 신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한 몽골 카자흐인은 몽골에서 카자흐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른바 전문직 카자흐인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Diener 2007, 468) 또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이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카자흐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바얀 올기의 낙후된 삶의 여건에서의 탈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몽골에서 바얀 올기 이외의 지역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자흐인들은 이주를 카자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중심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몽골 카자흐인의 이주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적인 비자발적 대규모 이주에서 흔히 보이는 이주의 압박 요인들인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박해 등이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련 붕괴 이후의 몽골의 민족주의는 몇 차례 나타난 적은 있지만, 비몽골계 민족을 밀어낼 정도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았다. 오히려 바얀울기 지역에서 카자흐인들은 1990년대에 문화자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카자흐어를 이 지역의 공식어로 확립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에서도 몽골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압박 요인보다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하는 카자흐스탄 재정착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더욱 강한 이민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초 대규모 유출 이민으로 인해 인구적인 공백이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언어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인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몽골카자흐인으로 카자흐스탄의 인구 공백 해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Bacus & Werner 2007, 8)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몽골 카자흐인의 귀국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6만여명의 초기 귀국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1/3 정도는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몽골로 되돌아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이른바 러시아화된 카자흐인에 의한 문화적인 차별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몽골 카자흐인의 러시아어 능력 부족,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 대부분을 개인의 직업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력 부족이 심했던 카자흐스탄의 도시지역으로 임의 배치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200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의 급성장으로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재개되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가 몽골로 귀국한 부류들도 상당수 포

함되었고, 나머지는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직업이나 유목을 통한 생계유지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지 않고 몽골에 살고 있는 카자흐인의 삶에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간이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고립적인 형태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관광 등을 통해 몽골 카자흐인들의 삶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삶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본업인 유목 대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몽골 카자흐 유목민 집단도 증가했다.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공동체의 형성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그 형성과정이 인접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달리 실제 카자흐스탄이 민족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발달되는 과정과 비슷한 정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9세기초반에는 타슈켄트와 히바간에 아랄해 동쪽지역에서 유목을 하고 있는 카자흐 오르타 쥬즈 일부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들 부족은 자신들이 타슈켄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바는 이들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보고 있었다. 20세기 초반에 이들은 부하라주 카니메흐스크 구역의 스텝지역에 정착하였고, 이후 이 지역에는 1925년 카자흐-카라칼팍 자치구역이 형성되어, 대략 2만여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카자흐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별 쥬즈에 따라 우즈베크 민족을 구성하게 되는 3개의 칸국의 통치를 받거나 이들 칸국과 인접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후 소련시기의 중앙아시아 국가간 국경 획정과정에서 소련 연방정부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영역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1920년 투르키스탄 자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10만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26년 이 지역이 현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유사한 체계로 지역이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략 10만명의 카자흐인들이 남게 되었다. 이후 193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이 30만명 규모로 늘어났는데(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111), 이는 이전 인구조사에서는 러시아공화국에 속했던 카라칼팍 자치구역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편입되어 이 지역의 카자흐인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포함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 그리고 강제적인 집산화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결과 1959년 우즈베키스탄 거주 카자흐인은 34만명 규모였고, 1970년에는 48만여명 규모로 늘어났다.(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112)

1959년 인구조사와 1970년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규모는 대략 1.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적인 인구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 조정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침켄트주 일부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198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 공동체의 규모가 거의 8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유목 우즈베크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착패턴을 그대로 흡수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 유목은 축소되고 정착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이 변화됨에 따라 비유목분야에 종사하는 카자흐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지역으로는 스리다리야주, 지작주, 누크스주, 나보이주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카자흐인들 가운데 다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이주하려는 이유는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두자리 수의 성장, 매년 10%내외의 GDP성장을 보여준 반면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침체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카자흐인 거주 구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중부 지작주에 위치한 미르자출 구역은 인구가 대략 42,000명으로 70%가 카자흐인이다. 이들 가운데는 소련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속하게 된 카자흐인들도 있지만, 1960년대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들 우즈베크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인구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1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카자흐인이 사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카자흐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사회에 주어진 이주쿼터의 3배 이상이었다.

2)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과 정착

소련 붕괴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을 추진해 왔음을 앞서 중국 및 몽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시기의 집산화 추진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살게 된 재외 카자흐인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년 귀국민 쿼터를 정하고, 이 쿼터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혜택을 부여했는데, 실제 귀국민의 숫자는 늘 쿼터 이상이었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600가족이 쿼터상으로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10,000가족 이상이 귀국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 배경은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전망이 그 원인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족의 결합이란 측면을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이민 당국은 2003년 8월 기준으로 67,882가족의 오랄만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쿼터제도에 의해 귀국한 경우는 단지 23,000가족에 불과하다.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쿼터는 5,000가족, 2004년은 10,000가족, 2005년은 15,000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카스피해 항구도시인 악타우는 1991년 소련 붕괴이전에는 세브첸코로 불리었다. 악타우의 중심항구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있는 과거의 다차촌은 소련시기 제조업 도시로 유명했던 세브첸코에서 일하던 기술인력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인력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이 사용했던 시설들은 방치되었다가, 근래에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 동포인 오랄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잠재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지난 20여년간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정책에 의해 86만여명의 카자흐인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10만여명 정도가 인구밀도는 낮지만 석유자원이 풍부한 망기스타우 지역에 정착하였다. 카자흐스탄 서부주들의 인구는 1999년 이후로 거의 67%정도 성장

하였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절반 정도는 오랄만의 이주와 정착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망기스타우 지역 오랄만의 거의 85%는 1991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주하였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귀국 사업의 결과는 이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에 부적응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관련되어 상충되는 입장이 갈등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 프로그램에 의해 귀국한 이들은 자신들이 귀국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이었다.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불안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오랄만들이 사회적인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16일 망기스타우의 장아오젠 유전지대에서 발생한 근로자와 경찰간의 무력충돌 및 시위의 원인으로 이들은 오랄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다수의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장아오젠 사태로 인해 오랄만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단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명과 아울러 2012년 2월 1일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2009-2011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귀국한 오랄만들 지원 프로그램인 ‘Nurly Kosh 재정착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오랄만들의 불만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III. 재외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정착

1. 재외카자흐인(오랄만)의 형성과 변천

오랄만(Oralman)은 이른바 '귀국민(returnee)'이란 의미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 민족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랄만은 보통 카자흐스탄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 카자흐 민족은 대략 1450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0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외의 구소련 14개 국가 및 세계 25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450만명 가운데 80만명은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70만명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실향민이라 규정할 수 있는데,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카자흐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대략 150만명, 중국에 150만명, 러시아에 100만명, 투르크메니스탄에 10만명, 몽골에 8만명, 키르기스스탄에 4만5천여명등이 살고 있다.

해외에 형성된 카자흐 민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시기에 소련의 정치적인 탄압, 강제집산화, 대기근 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집단들의 후손들이다. 소련시기에 대략 20만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중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소련의 연방공화국들에서는 1926-1939년 사이에 카자흐인의 인구가 2.5배 증가하여 대략 79만명이 넘고 있었다. 1959년 시점에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인보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9년이 되어서야 카자흐인이 다시 러시아인보다 숫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으로 특히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이민에 따른 대규모 인구학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략 316만여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을 떠났는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전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89년 1650만명 규모에서 1999년에는 1500만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인구학적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한달전인 1991년 11월 18일에 소련의 다른 공화국 및 해외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 이주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 아울(전통마을)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1991-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대략 61,000여명의 카자흐인들이 이주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이민법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 카자흐인들과 관련된 절차와 지원이 확립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었던 오랄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귀국이민 쿼터제가 만들어졌으며,[1] 귀국이민자들을 관할하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2.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정착실태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선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형의 과정이 대규모 유출이민과 수반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그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유입 이민을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사업은 카자흐스탄 국가의 민족정체성보존과 사회내부적인 안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카자흐 전통관습이 사라졌으며 특히 카자흐어의 사용이 공식영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던 상황에서 재외 카자흐인인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귀환은 카자흐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고 있었기 때문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오랄만들은 거주환경과 편의성 측면에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주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반면 중국과 몽골 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랄만들은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특히 남부 지역을 선호한다.

오랄만들은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 귀국이후 러시아어 구사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흡수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온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오랄만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지에서부터 귀국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적어도 7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서 민족언어와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이들이 서로 상이한 조건의 외국에서 살아옴으로 인해 오랄만 이주는 전통적인 카자흐 문화와는 차이를 보이는 다른 문화유산들의 카자흐스탄 유입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은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정

1) 오랄만 쿼터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특별기술 및 자격 보유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러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10점이 부여되며, 2. 교육수준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중등 기술, 중등 직업교육 이상인 경우 2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3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2명 이상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5점이 부여된다. 3. 자녀 항목에서는 자녀 5명 이상인 경우 10점, 3-4명인 경우 5점, 1-2명인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부, 대중매체 및 공공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오랄만들은 지역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지만,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원래 살았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 공동체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이주민 유민 과정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관대했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동포라 할 수 있는 오랄만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랄만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설정한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귀국, 이와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귀국에 대한 지원의 양상이 달랐다는 측면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에게 직업제공, 주택 보조 및 물질적인 보조 등이 포함된 다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사업을 시작하였다. 애초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시된 혜택들은 이행되지 못했고, 노동계약에 의해 이주한 재외카자흐인들이 5년간의 노동계약 종료 이전에 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1-98년 사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쿼터를 초과하는 규모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 없이 정착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7년 재외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하여 시민권 취득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입법함으로써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한 재외카자흐인 귀국사업에서의 쿼터배정,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년 귀국할 수 있는 년간 쿼터는 1993년부터 실시되어 1993년에는 1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1990년대말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500가구 수준으로 하락했다(UNDP Kazakhstan 2006, 9).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쿼터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5천 가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쿼터제도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카자흐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이민의 허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국사업을 통한 카자흐스탄 사회의 카자흐 중심 구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와 기능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쿼터제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주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003년, 2004년의 경우 공식 쿼터는 1만명이었지만, 쿼터와 상관없이 8000여명 이상이 자발적인 귀국을 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아랄해 환경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지역, 나보이 지역 출신 카자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재외카자흐인의 규모가 10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61%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고, 몽골 출신이 15%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법적인 토대는 1997년 시행된 주민 이주법(Law on Population Migr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귀환한 오랄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책정되어 왔는데, 2002년에는 3억7천5백만 텡게에서 2003년에는 20억 텡게, 2004년에는 50억 텡게로 확대되어 왔고, 2006년에는 111억 텡게로 예산이 확대되었다(UNDP Kazakhstan 2006, 11). 귀국 오랄만에 대한 지원은 오랄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지원제도와 쿼터제에 따라 귀국한 쿼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의 표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2. 오랄만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귀국 오랄만에 대한 기본 지원제도	쿼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
연금지급 수당지급(장애, 실직, 퇴직) 특별수당 지급 정치탄압 희생자 복권법에 따른 특별 보상 오랄만 자녀들에 대한 초등 및 중등교육 장학금 지원 비자발급 단계에서의 수수료 면제 군대 징집 유예 무료 의료서비스 보장 특별 사회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취학, 유아교육 및 각종 교육 기관 입학에 대한 지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지원	귀국시 세관신고등의 의무 면제 영구귀국하는 오랄만의 소지물품에 대한 영구정착지까지의 일정량 무료운송 가장 및 개별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거주지원 수당의 일시 지급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를 하여 이주초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반면, 60%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에는 CIS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비자 면제 조항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용하는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카자흐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귀국한 재외카자흐인 집단에서 실제 사회내에서는 오랄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제에 대한 무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언어실정에 맞지 않는 언어 구사능력, 귀국 재외 카자흐인을 위한 특별 교육의 부재, 이주 전 거주국가 연금제도와 연계된 연금체계의 부재, 농촌지역에서 현지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심리적인 괴리 측면 등이 재외 카자흐인 이주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기존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통합에 필요한 각종 수당, 직업교육 및 언어교육과 관련되는 지원뿐만 아니라, 오랄만 적응센터의 설립에 대한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카자흐스탄의 귀국 재외카자흐인(오랄만) 공식 지원체계

대통령(대통령행정청) 대통령령에 의해 연간 오랄만 귀국 쿼터 설정		
↓		
행정부 오랄만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에 대한 총괄 책임		
↓		
세계 카자흐인협회 오랄만 증명서 발급 거주허가 및 국적 취득 동의서 발급	**노동및 사회보호부 산하 이주위원회** 오랄만 통합 전략 실행부서 14개 주 및 알마티시, 아스타나시 지역부서	**지방자치단체** 쿼터에 포함되지 않은 오랄만에 대한 지원책임
↓		

교육과학부 오랄만 고등교육 수혜 대상 쿼터설정 오랄만 자녀 취학절차 진행	**보건부 지방부서** 오랄만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내무부산하 이민경찰국** 오랄만 입국이후의 거주등록, 거주허가 및 시민권 교부	**노동 및 사회보호부 지방부서** 연금 및 각종 사회수당, 지원금 지급
↓			
외무부 영사업무시의 면제		**국방부** 오랄만의 병역의무 유예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12.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오랄만의 귀국 및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해 온 기구는 그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랄만 귀국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노동부 산하의 이민국이었는데, 쿼터제도의 실행과 오랄만 귀환 및 사회통합에 관련된 분야는 대통령 행정청 소속으로 1997년 설립된 특별 정부기구인 이주 및 인구국(The Agency for Migration and Demography: AMD)으로 이관되었다. 2004년 11월 AMD는 노동 및 사회보호부 관할 이주위원회로 승격되면서 관할 역시 대통령 행정청에서 노동부장관으로 감독기관도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오랄만의 귀국 및 재정착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IV. 카자흐스탄 귀국 오랄만의 특징과 변화

1. 기본특성과 이주패턴

재외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 급증현상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급성장기와 거의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991년부터 2005년 사이가 이에 해당된다. 2005년 10월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46,442명의 오랄만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연령층 구성은 16세미만 43%, 경제활동 참여인구대인 16세-60세 사이가 52%, 연금생활자인 61세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에서 남녀 비율인 49%대 51%가 귀국 오랄만에게서는 48%대 52%였고, 기혼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적은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주한 오랄만 가운데 76%가 취득하였고, 나머지 21%는 국적취득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적신청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3%는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카자흐스탄 전체 유입이주자 가운데 오랄만은 33% 수준으로, 2005년에는 오랄만의 비율이 거의 8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오랄만 쿼터가 2004년까지 1만가구에서 2005년부터 1만5천 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오랄만의 출신 국가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특히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러시아가 있었고,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이란, 키르기스스탄,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CIS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있었는데, 비율로는 우즈베키스탄 62%, 몽골 15%, 투르크메니스탄 9%, 중국 5%, 러시아 4%, 타지키스탄 2%, 이란 1%, 키르기스스탄 1%, 터키 1%였다(UNDP Kazakhstan 2006,13). 시기별로는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호황 현상이 두드러졌던 2000년대 초반 5년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2) 카자흐스탄 통계국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의 유입이 급증했는데, 2001년 24,859명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2002년 87,596명, 2004년 46,787명, 2005년 78,12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급성장이 맞물린 결과였다.

오랄만은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정착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이 정착이 이루어진곳은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남카자흐스탄주이다. 이곳에는 122,131명의 오랄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오랄만 인구의 26% 수준이며, 다음은 13%에 해당되는 61,7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망기스타우주, 그 뒤로는 알마티주 60,770명, 잠불주 49,36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패턴은 몇 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쿼터제도에 의해 이주하는 경우 개인의 정착지역 선택은 특정 몇 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1990년대초에는 쿼터가 주로 북카자흐스탄 지역으로 할당되었고, 이는 북부와 중부지방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학적인 손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후 쿼터는 남부지역으로 할당되었고, 2005년의 경우에는 쿼터를 통한 이민자가 포함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73%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남카자흐스탄주에 정착하였다.

쿼터제 이외에도 출신 국가와의 근접도, 언어, 환경, 고용기회 등이 다양한 정착패턴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오랄만 가운데 상당수는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해있는 남카자흐스탄주에 정착했다. 이외에도 남카자흐스탄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출신 오랄만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 과거 살았던 지역과의 인접성이 많이 작용하였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오랄만들은 카자흐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정착을 선호하였으며, 역사적인 연계성, 친척들의 존재 유무도 지역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요인들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바로 인접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카자흐스탄주와 비교되는 지역은 남카자흐스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랄만이 많은 망기스타우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랄만들이 정착을 선호했던 지역인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었다. 망기스타우주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 가운데 거의 95%가 앞서 언급된 두 국가 출신이며, 타지키스탄 출신은 역사적인 연고지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로 선택했다.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망기스타우주와 관련하여 이곳의 임금 수준이 2002년에 이미 카자흐스탄 평균 임금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었던 점도 역시 중요한 정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완료한 오랄만에게서는 이후 2차 이주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략 2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2차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쿼터제에 의해 농촌에 정착해야 했던 오랄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였으며, 1990년대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정착한 오랄만들이 남부지역으로 재이주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인 구직의 어려움,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사회 및 복지 관련 환경의 열악, 인접한 도시지역과의 왕래 불편 또는 비싼 교통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초 정착지에 살고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역보다는 특히 중부와 북부 지역의 오랄만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 경제 및 사회적 통합 양상

1) 구직활동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에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경제체제 참여는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 이주위원회의 통계 자료에서는 경제활동 연령대에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61.5%만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mmittee of Migration of Republic of Kazakhstan, 2005년 1월 1일). 물론 이는 2000년 노동활동 참여 비율이 3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2004년 카자흐스탄의 경제활동 연령대 인구의 노동활동 참여 비율이 91.6%였던 것에 비교하면 비율이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비율에서는 지역적인 고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스타나 지역에서는 대략 91%의 오랄만들이 고용되었으며, 알마티 지역은 83% 수준, 북카자흐스탄주는 7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반면 남카자흐스탄주는 비율이 38%, 서카자흐스탄주 역시 오랄만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41%에 불과했다.

오랄만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인 장애 요인들이 오랄만들의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있는데, 인구 이민법에서 오랄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나 책임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카자흐스탄 노동법에는 현지인과 비현지인으로 근로자의 범주가 설정되어 있으며, 오랄만을 위한 특별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상태에서 오랄만은 비현지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개인들의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적인 장애요인으로는 거주증명이 있다. 오랄만이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적을 가지거나 최소한 거주등록 자체는 완료되어야 하는데, 임시거주지나 영구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거주등록을 받아줄 현지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오랄만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언어적인 장벽과 관련되어 있다. 오랄만 가운데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류들은 특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카자흐어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서 조차도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며, 단지 그 정도가 낮을 뿐이다.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도 특히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아랍어를 사용해서 표기했던 카자흐어 고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터키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라틴어로 표기된 카자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릴문자 표기 카자흐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 출신들의 오랄만들은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읽거나 작성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모두에서 불충분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이들의 구직활동은 그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을 받은 오랄만의 경우에는 학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공에 따른 구직활동이 쉽지 않았고, 공학이나 기술전문인력, 의학, 경제학자 등의 직종에서는 전공을 살린 구직자체가 카자흐스탄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오랄만 가운데 20%는 카자흐스탄 귀국이전에 살았던 국가에서는 정부나 국가 관련 영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7.2%만이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단순노무자의 비율 및 자영업자의 비율은 귀국이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점은 실업자 상태인 오랄만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이전에 실업자였던 오랄만은 8.3%였는데, 귀국후에는 24.4%로 증가했다.(UNDP Kazakhstan 2006,16)

카자흐스탄 이민법 관련조항(29-3)에서는 국가 관련당국은 오랄만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오랄만 관련 프

로그램에서도 오랄만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랄만이 정착한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을 지역 구직활동 센터에 등록하거나 일시적인 공공근로만을 제공할 뿐이었다.[3] 또한 지역 구직활동 센터가 진행한 직업교육은 주로 회계직, 경비직, 운전직 등의 분야였는데 러시아어로만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어 능력이 부족한 오랄만들에게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표 4. 오랄만 가구의 월단위 수입 분포

수입수준	비율	수입수준	비율
월수입 부재	2.1	20,000 - 30,000	12.8
5,000텡게 이하	13.7	30,000 - 40,000	6.5
5,000 - 10,000	23.4	40,000 - 60,000	3.2
10,000 - 15,000	21.4	60,000 텡게 이상	0,7
15,000 - 20,000	16.2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17.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오랄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3년 UNDP가 추정한 카자흐스탄의 1인당 월 최소임금 수준은 5,128텡게였다.(UNDP Kazakhstan Infobase) 이와 관련되어 개별 오랄만들의 월 수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45% 정도가 5,000 -15,000텡게 수준의 수입으로, 결국 이는 오랄만 가구 대부분의 수입이 카자흐스탄의 평균 임금수준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법에서는 오랄만들이 장애인보험, 실업보험, 연금, 특정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혜택의 신청과정에서 지방행정 당국은 거주 등록등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오랄만들이 이러한 수당을 통한 지원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수혜 자체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오랄만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취득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이 귀국 이전에 살았던 국가와 비교하여 미약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귀국이전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주거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정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거문제의 해결이었다. 쿼터제도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오랄만 쿼터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인 이유나 물류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수월하지 않았다. 이주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오랄만 가구의 48.3%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쿼터제에 의하지 않고 입국한 오랄만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주택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3) 공공근로의 경우 월 수입이 카자흐스탄 텡게로 10,000텡게 정도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원화로 대략 8만원 정도에 해당된다.

4) 2005년 1월 기준으로 45,635가구의 오랄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기숙사, 모스크, 적응센터,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거주하였다.

표 5. 오랄만의 지역별 주택 보유현황(2005년 1월 기준)

지역명	비율	지역명	비율
아크몰라주	97.3	크즐오르다주	66.9
악토베주	72.6	코스타나이주	79
알마티주	76.9	파블로다르주	86
아틔라우주	82.0	북카자흐스탄주	96
동카자흐스탄주	90.1	망기스타우주	32
서카자흐스탄주	50.5	남카자흐스탄주	12
잠불주	49.1	아스타나시	66
카라간다주	93.7	알마티시	47
		전체평균	48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18.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랄만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카자흐스탄주는 11.9%, 망기스타우주는 31.9%, 알마티시 47.1%, 잠불주 49.1%인데, 이 가운데 특히 남카자흐스탄주가 유독 낮은 비율은 이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오랄만들이 쿼터제 입국제도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민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여건도 좋은 편이 되지 못했다. 이는 농촌 주택의 경우 오랄만 거주 이전에 살았던 농촌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방치된 주택이 별도의 수리나 보수절차가 없이 오랄만에 배정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주거를 위한 설비가 불충분했고, 심지어 사람의 거주가 부적합한 상태로 오랄만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부분의 오랄만들은 경제적으로 직접 주택의 수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가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2004년 1월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제공 같은 직접적인 주거지원 대신 개인당 지급되는 월 최저생활비의 10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구성원만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지급하여 해당 가족이 직접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충당되었다.

이와 아울러 집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은 오랄만들이 시민권이 없고,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랄만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2004년 1월의 제도 변경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쿼터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에 대한 주거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쿼터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의 주택문제 해결 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그 규모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고,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알마티시, 남카자흐스탄주, 망기스타우즈)는 주택 대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오랄만들은 각자 주택을 짓는 형태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섰다.

3) 보건과 교육

오랄만들의 전반적인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관련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등한 국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카자흐스탄 국민과 이들간에 차별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면적인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 의료 검진은 단순 검진에서 종합검진까지 그 수준이 다양한데, 어떠한 형태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알단 최초 종합검진을 받은 후에 오랄만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국영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들은 거의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이행된다고 해도 지연이 빈번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정차나 권고도 준수되지 않았고, 후속검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특히 안전한 식수와 전기의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명 이 감염되면 가족 전체로 확산이 쉽게 이루어졌다. 반면 비교적 도시적인 생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갖추어져 있는 카라칸다주와 알마티주의 오랄만들에게서는 일반 카자흐인들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이주법 29-2에 의해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는 오랄만들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쿼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교육 수혜연령에 있는 오랄만들의 95.3%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랄만 가족이 귀국후에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등록시키는지의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러시아어학교 보다 카자흐어 학교가 선호 되었는데,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말하기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읽기나 쓰기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는 키릴문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릴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자흐어 학교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빈번히 나타났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초등교육 이수자들의 46%는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이수를 희망하였는데, 오랄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54%가 자녀의 그등교육 이수를 힘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교육기관과 먼 곳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의 대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에 183,000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이 구안데 15,3000명은 자비로 진학했고, 단지 16000명이 국가장학금, 10000명이 국가 교육대출에 의해 진학하였다. 따라서 26,000명의 국가지원 학생 가운데 오랄만은 520명에 불과했다.

3. 2000년대 중반이후 카자흐스탄의 오랄만 정책변화

1990년대초반에 시작된 오랄만(재외 카자흐인 귀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쿼터, 시민권, 귀국에 대한 보상 등 귀국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오랄만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무지, 언어적인 부적응, 오랄만들을 위한 특별 적응교육의 부재, 오랄만의 연금 수혜문제, 농촌지역에서의 지역민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장벽, 오랄만의 배우자인 비카자흐인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5년 7월 23일에 우즈베키스탄, 중국, 터키 및 여타 국가 출신의 귀국 카자흐인 대표자들이 “카자흐스탄 오랄만 연합(Union Oralmanov of Kazakhstan)”을 조직하고 NGO로 등록하였다. 이 협회는 재능있는 오랄만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모국 정착지원, 오랄만 고용에 대한 지원, 주택(영구 및 임시거

주) 구입에 대한 지원, 오랄만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의 확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 확보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었다. 2006년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Union Oralman of Kazakhstan)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오랄만 자녀들의 고등교육, 카자흐스탄 동화 및 조직 결성 등을 위해 1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4일 오랄만의 지위 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5)]

2009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주 프로그램은 대략 13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누를리 코쉬(축복받은 이주)의 착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350만에서 450만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역외 거주 카자흐민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몽골의 카자흐인은 10만명 규모인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자흐스탄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서몽골지역의 많은 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근원지로 보는 동카자흐스탄이 바로 이 특정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 선택은 경제적인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국외 거주 카자흐 민족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 과거 카자흐스탄의 국민이었던 숙련인력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Kaziyeva 2011. 11.02) 몽골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 민족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바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몽골 입장에서 전문인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몽골의 이른바 지식인 카자흐민족이 카자흐스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몽골에 남아있는 카자흐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식인들이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함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치적인 잠재력, 지식인으로써의 잠재력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른바 역사적인 모국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진정한 카자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년간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에 의해 대략 30만 가구, 또는 백만명에 달하는 오랄만들은 재정착을 했는데, 주로 망기스타우주, 남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알마티시, 아스타나시가 주요 대상지역이었다.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오랄만들 가운데 특히 중국 출신 오랄만들은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특별 교육과정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1년 내에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몇 개 특정주들만을 거주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도 철폐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6)]

카자흐스탄이 디아스포라 카자흐 민족인 오랄만 귀국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된 2011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로운 정착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이민당국은 2007년 시점에서 이미 카자흐인들이 50만명 이상 귀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카자흐인 오랄만의 유입은 인구학적인 문제해결, 인력부족 문제 충당, 카자흐 전통 및 언어의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희망 인력이 급증하면서 오랄만 쿼터는 1만5천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분배, 카

5) The program of support of Union Oralman of the Union of Kazakhstan
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
검색일 2012년 4월 9일

6) 이러한 취약요인들은 이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2011년말 망기스타우와 악타우 등에서 석유노동자들의 경찰과의 충돌, 악토베에서의 종교집단과 경찰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귀국민 모두가 주택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고용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된 프로그램에는 오랄만의 지리적인 분포, 고용 및 주거제공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이주민이 교육과 직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센터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시민권 취득도 귀국후 1년 정도 소요되었던 기간이 최근에는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사회내에서의 지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굴샤라 압두칼리코바(Gulshara Abdykalikova)장관은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Employment 2020"의 일환으로 계속될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2009-2011년 오랄만에게 혜택이 부여되었던 누를리-코쉬 프로그램이 계속됨을 의미한다.(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V. 결론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명 규모의 재외 카자흐 민족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46만명이 국가의 공식 쿼터제에 의한 이민자를 의미했던 오랄만이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규모,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는 몽골의 카자흐인, 중국 신장의 카자흐인, 이웃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집단을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랄만 귀국사업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해당국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 카자흐인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의 상이성,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외 카자흐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했다.

또한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세력으로써 오랄만의 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및 초기정착에만 집중하던 양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방편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오랄만에 대한 접근의 전환으로 인해 오랄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한 조직인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거시적인 노동정책 차원에서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영문자료>

Barcus, Holly R & Werner, Cynthia. 2007. "Trans-National Identities: Mongolian Kazakhs in the 21st Century." *Geographische Rundschau International Edition.* Vol.3 No.3. pp.4-10.

Cerny, Astrid. 2010. "Going where the grass is greener: China Kazaks and the Oralman im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Pastorialism* Vol.1 No.2. pp.218-247.

Cummings, S. N. 1998. "The Kazakhs: Demographics, Diasporas, and Return," in C. King and N. Melvin(eds.). *Nations Abroad.* Boulder, CO: Westview Press.

Diener, Alexander. 2007. "Negotiating Territorial Belonging: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Mongolia's Kazakhs." *Geopolitics* Vol. 12, pp.459-487.

Diener, Alexander. 2005. "Kazakhstan's Kin-State Diaspora: Settlement Planning and the Oralman Dilemma," *Europe Asia Studies* 57/2. pp.327-348.

Dubisson, Eva-Marie & Genina, Anna. 2011. "Claiming an ancestral homeland: Kazakh pilgrimage and migration in Inner Asia." *Central Asian Survey*. Vol.30 Nos.3-4. pp.469-485.

Kaziyeva, Gulmira. 2011. "Astana develops new oralman repatriation programme: Oralmans must not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analysts warn."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features/main/2011/11/02/feature-01
(검색일 2012년 8월3일)

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Schenkkan, Nate. "Kazakhstan: Concern Rising Over Ethnic Kazakh Returnees."
http://www.eurasianet.org/nod/65064(검색일 2012년 6월 27일)

"The program of support of Union Oralman of the Union of Kazakhstan."
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검색일 2012년 4월 9일)

"The Mongolian Kazakh Diaspora."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검색일 2012년 8월3일)

UNDP Kazakhstan. 2007.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Uzbekistan: Economic Problems fuel departure of ethnic Kazakhs." http://www.irinnews.org/Report/24422/ (검색일 2012년 4월 9일).

<노문자료>

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2002. *Этнический атлас Узбекистана.* Tashkent: R, Elinina.

Мендикулова Г. М. 2006. *Казахская Диаспора: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Алматы: Всемир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азахов.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성동기(인하대)

I. 서론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그는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사실상 종신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있다.[1] 그의 이러한 장기집권은 자신과 해당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과거 공산당 출신이며, 소비에트 세대라는 시대적 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국의 유권자들 역시 이들과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시대적인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2]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국내 야당, NGO, 국민의 저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권탄압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왜곡된 자본주의 시스템인 이중환율과 실질적인 태환불허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좌가 장기화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비에트라는 세대 간 동질적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4]

지금까지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상황은 잠재적인 불안의 관점에서 주로 분석이 되어왔을 뿐 왜 카리모프 정권이 평화로운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들은 해당국의 민주주의 상황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씨족(clan) 중심의 지역파벌 구도에 집중되고 있다. Akiner(1994)는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파벌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 지방의 씨족(clan)들이 결합된 부족(tribe)이 그 근간을 이루며, 이들의 구성관계와 내부적인 결속은 후원네트워크(patronage network)를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Roy(2000)는 소비에트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씨족이 어떻게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독립 이후 해당국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위기그룹(ICG)은 2001년도 아시아 보고서(Asia Report)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고 있는 후원네트워크들은 'Fan', 'Surkash', 'Samarqand', 'Tashkent', 'Kharasm' 등과 같이 5개라고 명시하면서 이들이 독립이후부터 치열하게 권력게임을 전개해왔다고 분석하였다.[5] Akerman(2002)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역사적으로 경험이 없다

---

1)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는 다음의 문헌 참조. Levitsky and Lucan(2002), pp. 51-65. 이슬람 카리모프의 집권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조. 성동기(2009), pp. 362-363.

2) 성동기 외(2010), pp. 213-237.

3) 2005년 5월에 발생한 안디잔사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반정부적 저항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정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끝난 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저항이 확산되기는커녕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4)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는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해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퍼져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었으며 외형적으로도 반정부 저항의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2011년부터 우즈베크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과 저렴한 3G 이용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5) ICG Asia Report(2001).

는 점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내려온 정치문화인 씨족정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Collins(2006)은 중앙아시아의 지역파벌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되어야만 그것의 형성, 특징,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은 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자의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장기개발독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분석한 Treacher(1996)가 근접해 있는데, 그는 독립 당시 해당국의 환경적 요인들(종족적 문화-사회 양상, 이슬람, 민족주의, 민주주의 불신, 경제개혁 요구, 자국의 러시아인 문제 등)이 권위주의 체제로 접어드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왜 카리모프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동기, 최준영, 조진만(2010)이 Treacher의 분석에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추가하여 왜 해당국에서는 개발독재의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현재 카리모프 정권은 자신에게 도전하였던 지역파벌들과의 권력게임에서 승리하였으며, 국민들의 저항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동시대의 정적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을 뿐이며 그에게 새로운 도전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McGlinchey(2009)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9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현재 카리모프 정권이 자신의 통치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해당국의 독립세대를 위한 의식화 프로그램과 친정부 성향의 차세대 엘리트 양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구소련 붕괴 이후 출생한 독립세대'(이후부터는 '독립세대'라고 칭함)가 해당국 인구의 47%를 차지한다는 위기감을 인식한 카리모프 정권이 이들을 대상으로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주장은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사회적 미래는 세대 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와 독재에 익숙한 소비에트 기성세대 달리 독립세대는 자신들이 해당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유권자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소비에트 기성세대와 성장한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해당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카리모프 정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시(наши)'와 같은 친위단체를 양성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독립세대 엘리트들을 육성하려는 전략들을 통해 오히려 친정부 성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해당국의 미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립세대가 소비에트 기성세대와 어떻게 시대적 인식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의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슬람은 해당국 국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이며, 소비에트 기성세대는 이슬람을 통한 종교 활동이 금기시된 시기에 살았던 반면에 독립세대는 자유롭게 이슬람을 믿을 수 있는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와 비교했을 때 이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치의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면, 미래에 해당국의 정치·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역사와 성향에 관한 분석. 해당국은 중앙아시아 전체 무슬림 인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신도 수가 많았지만 소비에트시기에 종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국의 역사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성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국 독립세대가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의미. 독립세대는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이들은 2015년에는 해당국 인구의 47%를 차지할 만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대가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해당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분석. 여기서는 독립세대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넷째, 독립세대의 종교관에 따른 정치의식 분석. 여기서는 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독립세대가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들의 정치의식이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인지를 조명할 것이다.

II. 본론

1.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의 역사와 성향에 관한 분석

중앙아시아로 이슬람을 전도한 집단은 일반적으로 아랍의 침략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 중앙아시아 집단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의 전도행위는 단순한 무력행사로 끝나고 말았다.[6] 따라서 본격적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전도는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계 사만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전파가 상부계층의 정치적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하부계층으로 내려가는 것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상부와 하부계층이 동시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앙아시아에는 다른 종교가 아닌 이슬람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체제를 겪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랍은 당시에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그드와 1차 남하한 투르크 집단이 세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아랍은 이 지역에 무력으로 침략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슬람 전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원주민이었던 소그드인들은 당시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의 이슬람 전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였다. 그 결과 소그드의 민족과 문화는 아랍에 의해 거의 말살당하고 말았다. 반면에 투르크 집단들은 탈레스전투를 통해 아랍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이슬람화 과정을 밟게 되었지만 상부계층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개종하였다. 사만조가 아랍세력을 몰아내고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의 전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차 투르크집단의 남하와 국가 건설이 전개되면서 사만조는 통치수단으로서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몽골의 침략과 지배, 티무르왕조의 무수한 정복전쟁, 그리고 우즈베크족과 카자흐족의 남하와 분열로 나타난 연속된 불안정한 정세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종교의 본질을 찾게 하는 수피즘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낙쉬반디(Sheikh Bahautdin Nakshbandi, 1318-1389) 등을 통한 수피즘의 확산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수니와 시아와는 다른 특징을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또 다

6) 우즈베키스탄 민중사 I(1997).

른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은 러시아제국주의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대해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던 “자디드운동(Jadid Movement)”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슬람개혁운동으로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비폭력운동이었다. 이후 소비에트체제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종교탄압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들의 의식이 중동의 무슬림들과 다른 진화된 과정을 겪게 되었다.[7]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랍의 중앙아시아 침략이후 이 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게 끊임없는 동시대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과정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배세력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사회적 불안이 지속됨으로 인해 이슬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종교 본질을 찾고자 하는 수피즘 성향이 강하게 확산되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비폭력저항운동인 자디드운동은 정치적인 경향보다는 자강적인 의미를 통해 제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비폭력적인 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중앙아시아에는 유목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다수의 유목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종교 생활에는 여전히 민간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소비에트의 이슬람 탄압과 소비에트 교육의 강화는 8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8]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도층의 대부분이 구공산당 출신이며 이들이 시행하는 자국의 이슬람 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Dobson이 1992년 8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주민들의 이슬람에 대한 의식 구조를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중 카자흐스탄 27%, 키르기스스탄 14%, 우즈베키스탄 43%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30%, 키르기스스탄 24%, 우즈베키스탄 32%가 이슬람이 과거에 했던 것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단지 20%가 한 달에 한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에 간다고 했으며, 46%가 일 년에 한번 또는 그 이하로 간다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와 일 년에 한번 또는 그 이하로 모스크에 간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달에 한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에 간다고 대답한 사람들에 비해 3배나 많았다(Dobson 1994). 결론적으로 현재의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가지는 행태는 위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중동의 이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소비에트 세대들이 권력을 승계하고 같은 소비에트세대의 주민들이 이들을 지지하면서 중동과 같은 이슬람 성향은 이 지역에 발생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초기 통치자들은 자국에 이슬람이 부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고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정책을 통해 통제하였다.[9]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방치되었던 이슬람 유적의 복원과 새로운 신학교 및 사원을 건립하여 이슬람을 자유롭게 믿으려는 무슬림들에게 종교활동의 공간을 제공한 반면에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만들어갔던 중앙아시아의 극단적 이슬람을 표방하는 단체와 추종세력은 실질적으로 9.11테러와 대탈레반 전쟁을 기점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10] 그러나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통치자들은 이슬람 세력의 반정부적 저항 가능

7)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전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 참조. 이희수(2000), pp. 259-279. 우덕찬(2000), pp. 158-173. 이문영(2003), pp. 143-170.

8) 소비에트체제의 이슬람 탄압과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에 관한 각각의 연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우즈베키스탄 민중사 I(1997). Geoffrey(1977), pp. 40-49.

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우덕찬(2001), pp. 287-288.

10) 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는 이슬람재생당, 아돌라트, 헤즈볼라 등

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국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만연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주민들이 이슬람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2005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안디잔사태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개선시켜달라는 안디잔 시민들의 시위를 해당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세력이 이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이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이슬람이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2. 해당국 독립세대가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의미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국의 인구는 2012년 1월 1일에 2,950여 만 명이며, 이 중에서 51%는 도시에, 나머지 49%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11] 이 수치는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현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5세에서 65세까지의 연령대가 전체 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중간연령(median age)이 25.7세라는 것이다.[1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이 되면 구소련 붕괴 이후에 출생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1,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해당국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한다.[13] 이 수치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각국의 인구보다 많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4]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세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우즈베크인 소비에트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데서 찾을 수 있다. 소비에트시기에 출생한 우즈베크인 기성세대들은 '소비에트화(Sovietization)'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단일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구소련이 붕괴하고 체제전환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Ziyaeva(2006)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국의 독립세대를 출신, 성장배경,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는 교육 선진국들이 해당국에 제공하는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해외 학교들과 체결된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당국 대통령이 선발하는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인 우미드 재단(Umid Founda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단기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업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타슈켄트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자는 독립세대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15] 그러나 이들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

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탈레반 전쟁 이후로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11) http://www.stat.uz/press/1/3399/(검색일. 2012.09.12).

12)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z.html(검색일. 2012.09.12).

13) McGlinchey(2009), pp. 1139.

14) 2010년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우즈베크인이 해당국의 전체 인구에 81.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http://www.stat.uz/upload/iblock/f0f/Uzb_ru.pdf(검색일. 2012.09.12)). 따라서 해당국 전체 인구에 20%가 되지 못하는 전체 소수민족들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15)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는 일반중등교육(The General Secondary Education) 기관에서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인 9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직업전문대학(professional colleges)과 아카데미 라이세움

즈베키스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교육 선진국에서 유학을 마친 이들은 가급적 현지에서 남기를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귀국을 해야만 한다.[16] 현지에서 선진 문물을 체험한 이들은 해당국의 실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민족정체성과 전통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서구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하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려고 시도한다.[17] 둘째,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출생하고 우즈베키스탄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최우수 학생들 군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들은 카리모프 정권이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전통 유지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전체 독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두 번째로 많다. 셋째, 농촌 출신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지방의 농촌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보다는 일찍이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과 같은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나서 현지에 불법 체류하는 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18] 전체 독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가장 많다. 넷째, 상류계층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출신이며 자신의 부모들이 해당국의 권력층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와 달리 이들은 자비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장 앞서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들이 어울리는 사교모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층과 밀접한 친분을 쌓을 기회를 가진다. 다섯째, 방치된 독립세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장했으며, 독립세대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범죄자 집단으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분류된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세대가 가지는 특징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해당국의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역파벌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씨족 중심의 지역파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고 그들의 충성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세대는 출신지를 벗어나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기성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의 경우 지역 정치성과 민족정체성은 고사하고 국가정체성마저도 흔들리

(academic lyceums)에 진학하여 3년을 수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졸업하면 취업을 선택해야 하고, 후자를 선택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후자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진학한다. 현재 해당국에서 일반중등교육 과정을 마치는 학생은 평균 5십 2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3십만 명은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아카데미 라이세움을 이수한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5만 1천 명 정도가 해당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천 2백 명 정도만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http://eacea.ec.europa.eu/tempus/participating_countries/higher/uzbeki stan.pdf(검색일. 2012.09.02)).

16) 우미드 재단(Umid Foundation)을 통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이른바 대통령 장학생들은 학업을 마치면 반드시 귀국하여 5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학생의 부모가 유학비용 일체를 이 재단에 갚아야만 한다. 이 외의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은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직업을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대부분 귀국을 한다.

17)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수도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들은 해외로 이주하려고 시도한다.

18)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난 우즈베크인은 2백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해당국 GDP의 8%에 달한다.(http://www.ferganannews.com/article.php?id=5206(검색일. 2012.09.21)). 이들 중에서 독립세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해외 이주노동으로 떠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있으며,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의 경우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농촌 출신 독립세대의 경우 해외 이주노동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의 정도가 갈수록 낮아질 수 있으며, 상류계층의 독립세대는 권력층에 속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파벌들은 그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점진적으로 정치의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권위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저항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해외 유학과 이주노동을 경험한 독립세대들은 의식이 변화되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셋째, 세대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독립세대가 지역파벌 구조와 권위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사회는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한다. 따라서 독립세대가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독립세대가 있는 반면에 불만을 가지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대 내부 간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독립세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치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향한 정책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의 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민은 투표권을 18세부터 가진다. 이것은 2009년부터 해당국의 독립세대들이 투표권을 처음으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2014년은 독립 이후 전개된 우즈베키스탄 선거 역사와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표 1. 1985-1996년도 우즈베키스탄 출생자 수

출생년도 / 2014년도 연령	출생자 수(x1,000)
1985 / 29	679.1
1986 / 28	708.7
1987 / 27	714.5
1988 / 26	697.1
1989 / 25	668.8
1990 / 24	691.6
합계	4,159.8
1991 / 23	723.4
1992 / 22	710.5
1993 / 21	692.3
1994 / 20	657.7
1995 / 19	678.0
1996 / 18	634.8
합계	4,096.7

자료: http://www.demoscope.ru/weekly/ssp/sng_bir.php(검색일. 2012. 09. 02).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권자수는 14,765,444명이었다.[19] 표 1에서 보듯이, 2014년이 되면 18세부터 24세까지의 독립세대 유권자 수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수로 추정을 하면 대략 4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2007년도 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27%에 해당한다. 여기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시기인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출생한 수가 대략 410만 명

19) http://en.wikipedia.org/wiki/Uzbekistani_presidential_election,_2007(검색일. 2012.09.12).

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유권자는 81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는 2007년도 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도전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사회적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세대의 정치성향과 의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 달리 소비에트체제에 대한 무경험, 이슬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본주의체제 하의 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의식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3.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국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 동부지방의 안디잔(Andijan), 중서부지방의 나보이(Navoiy)를 선택하였다. 타슈켄트는 우즈베크인과 기타 소수민족들이 각각 절반씩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당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가지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하였다. 안디잔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 안디잔사태가 발생한 반정부 성향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보이는 이슬람 성향이 위 두 도시의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선택되었다. 둘째, 설문대상자는 위의 세 도시에서 각각 100명씩 다른 성향을 가지는 독립세대로 선발하였다. 타슈켄트에서는 20-23세에 해당하는 우즈베크 대학생을, 안디잔에서는 20-23세에 해당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그리고 나보이에서는 안디잔과 마찬가지로 20-23세에 해당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선택하였다.[20]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Ziyaeva(2006)가 독립세대를 성향별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의 독립세대(안디잔과 나보이)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타슈켄트)가 실제로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또한 도시와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셋째, 설문지 문항. 설문지 문항은 Dobson이 1992년 8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중앙아시아 신생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지금의 독립세대와는 거리가 먼 소비에트세대였다. 따라서 그가 실시한 설문조사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들과 다른 세대인 독립세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이슬람의 태도에 대한 시간과 세대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당신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82%	95%	93%
그렇지 않다	18%	5%	7%

20) 타슈켄트에서의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디잔과 나보이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주)우즈-동양'과 '(주)NK' 우즈베키스탄 공장의 지원을 받아서 2012년 8월 10일부터 31일에 걸쳐 실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81%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며, 해당국 전체의 이슬람 인구는 88%로 추정한다.[21] 이는 우즈베크인과 해당국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포함한 치수이다. 설문 1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문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대학생들 중에서 자신을 무슬림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이렇게 응답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여권에는 민족을 우즈베크라고 표기하지만 실제로 우즈베크인 아버지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부모의 대부분은 소비에트체제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했으며, 종교가 없었다. 둘째, 반면에 안디잔과 나보이는 각각 95%. 93%로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슬림이 아니라고 답한 자들의 성향은 타슈켄트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공존하는 타슈켄트에서 성장하고 소비에트시기에 엘리트였던 부모를 둔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Dobson의 설문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1의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우즈베크인 43%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했다.(Dobson 1994) 당시에는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왔지만, 지금의 독립세대는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유가 있는 시기에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지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소비에트세대가 이슬람을 다시 믿게 되면서 이 영향이 자신들의 자녀들인 독립세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 1에서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인식했을 때, 응답자들은 무슬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설문 1을 읽거나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슬림인지 아닌지 답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예배의례의 수행, 라마단, 하지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우즈베크인 독립세대에게 제시하였다.

2. 당신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립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26%	35%	30%
그렇지 않다	74%	65%	70%

설문 2의 질문은 무슬림이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기둥' 5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규정이다.[22] 설문 1에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달리, 무슬림이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규정인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린다고 답한 비율은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각각 26%, 35%, 30%에 불과하였다.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독립세대의 2/3가 예배의례 수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대학생들이 다른 두 도시의 독립세대 노동자보다 지키지 않는 수치가 더 높았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아랍과는 달리 하루 다섯 번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찾기란 힘들다. 따라서 설문 2에 나타난 예배를 지킨다는 수치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21) http://caf.kiep.go.kr/caf/contents/m122100/view.do(검색일. 2012.09.12)

22)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믿음의 기둥(혹은 신앙의 기둥, 의무규정)은 첫째, 신앙의 증언, 둘째, 예배의례의 수행, 셋째, 종교적 납부금, 넷째, 라마단, 다섯째, 하지(메카 순례)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3. 당신은 금요일 집단예배에 가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37%	45%	42%
그렇지 않다	63%	55%	58%

설문 3은 믿음의 기둥에 포함되는 예배의례의 수행 중에서 금요일 집단예배의 참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 1에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비율과 높은 차이를 보인다. 현실적으로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지키기 힘든 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금요일 12시에 시작하는 집단예배는 참가하는 것이 무슬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도시의 독립세대가 금요일 예배에 참가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비록 설문 1의 질문과 비교할 때 참가하지 않는 수치가 낮게 나타나지만, 여기서도 우즈베크인 독립세대의 예배의례 수행 준수는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태도이다. 설문 3을 분석해보면, 타슈켄트의 우즈베크인 대학생들이 다른 두 도시보다 참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안디잔과 나보이의 독립세대가 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금요일 집단예배에 참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슈켄트 응답자들이 자신을 무슬림으로 규정하는데 의문을 가지게 한다.

4. 한 달에 보통 몇 번 사원에 가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전혀 가지 않는다	45%	25%	33%
1-2회	30%	30%	35%
3-4회	6%	15%	12%
5회-10회	4%	12%	5%
10회 이상	15%	18%	15%

설문 4는 설문 2와 3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시한 질문이다. 만약에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한다면, 최소한 금요일 집단예배에는 참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 달에 최소 4번은 사원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 4의 응답을 살펴보면 예상 밖에 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 3-4에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 도시 각각 6%, 15%, 12%에 거친다. 한 달에 사원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들이 세 도시 각각 45%, 25%, 33%로 나타났다. 반면에 10회 이상 간다는 비율은 각각 15%, 18%, 15%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슈켄트의 우즈베크인 대학생들 전혀 가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두 도시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10회 이상 사원에 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 도시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것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하려는 독실한 신자가 직업의 종류와 세 도시의 특징적 여부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도 Dobson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당시에 질문 4의 응답에 대해서 20%가 한 달에 한번 내지 그 이상 모스크에 간다고 했다. 역으로 설명하면, 80%가 한 달에 전혀 사원을 가지 않았다고 답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설문 1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왔다. 둘째, 예배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소비에트체제에서 이슬람 사원은 거의 대부

분 창고로 사용되거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Dobson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변변한 사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5. 일 년에 보통 몇 번 사원에 가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전혀 가지 않는다	29%	22%	23%
1-2회	16%	18%	16%
3-4회	12%	14%	15%
5회-10회	12%	14%	13%
10회 이상	31%	32%	33%

설문 5는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질문이다. 먼저 일 년에 사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세 도시 각각 29%, 22%, 23%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도 타슈켄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 년에 10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은 세 도시 각각 31%, 32%, 33%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설문 4에서 한 달에 1-2회 사원에 간다는 비율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던 세 도시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도 Dobson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난다. 설문 5에 대한 당시의 응답은 46%가 일 년에 1회 또는 그 이하로 사원에 간다고 했다. 역으로 말하자면, 54%가 일 년에 한 번도 사원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세대는 이 비율의 절반보다 낮게 사원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 역시 설문 4에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6. 라마단을 준수합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그렇다	97%	98%	97%
그렇지 않다	3%	2%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마단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이슬람의 믿음의 기둥에 포함되는 규정이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세 도시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예배의례의 수행이라는 믿음의 기둥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라마단에 대해서는 97%이상이 준수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라마단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설문 6의 비율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소비에트 엘리트 출신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은 세대를 불문하고 라마단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한다.[23] 이것은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 라마단을 지킨다는 결과로 연결된다. 설문 2, 3, 4, 5의 비율을 참고하면, 해당국의 우즈베크인 독립세대가 라마단을 준수한다는 응답도 위와 유사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라마단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배의례의 수행은 실제로 경제 활동에 영

23) 우즈베키스탄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은 하지만 흡연은 하는 독립세대가 많다.

향을 미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독립세대에게 직접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 그리고 금요일 집단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예배의례 수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는 독립세대의 태도. 안디잔과 나보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원을 했던 (주)우즈-동양과 (주)NK의 작업장에는 예배실이 없다고 했다.[24] 그리고 만약에 우즈베크인 직원들 중에서 금요일 집단예배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위 기업들이 허락은 해 준다고 했다. 한국인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즈베크인 직원들이 예배의례 수행을 위해서 예배실을 제공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금요일 집단예배에 가는 이들의 수도 극히 적다고 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즈베크인 독립세대는 예배의례 수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자신들이 라마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하지를 위해서 메카를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	43%	55%	52%
상황이 허락하면 간다	52%	43%	46%
대체로 가고 싶지 않다	1%	1%	1%
필요성을 못 느낀다	4%	1%	1%

모든 무슬림은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허락하면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는 하지 역시 믿음의 기둥에 포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체제하에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아시아의 최고 종교 도시인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가 메카를 대신하는 성지순례지로 인식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후 해당국의 무슬림은 자유롭게 메카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문제를 고려하여서 순례자의 수를 제한하였다. 전 세계 무슬림이 한 자리에 모이는 메카를 자국의 무슬림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테러단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반정부 의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25]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메카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국의 무슬림들에게 방문 쿼터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연령도 4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26]

위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3곳의 도시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전반적으로 하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6의 라마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배의례 수행보다는 하지를 통해서 무슬림의 의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허락되면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응답이 세 도시 각각 52%, 43%, 46%로 나타난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요구된다. 아무래도 타슈켄트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경제상황이 나은 편이기 때문

24) 위 기업의 담당자는 안디잔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계 기업과 공장에는 예배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25) http://www.nbr.org/Downloads/pdfs/PSA/Uzk_Conf06_Ilkhamov.pdf(검색일. 2012.09.12)

2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5,000명 정도로 순례자 쿼터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전세기만을 이용해서 단체로 이동해야 한다. 해당국 정부의 성지순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ncadc.org.uk/coi/2012/04/uzbekistan-continuing-freedom-of-movement-bans/(검색일. 2012.09.12), http://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1064(검색일. 2012.09.12).

에 그리고 응답자들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타슈켄트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8. 이슬람이 과거와 같이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한다	24%	36%	30%
안한다	58%	52%	55%
잘 모르겠다	18%	12%	15%

설문8은 Dobson의 질문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응답자 32%가 이슬람이 과거에 했던 것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당시는 소비에트체제에서 성장한 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슬람을 통제하려는 해당국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2%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세 도시 독립세대의 50% 이상이 이슬람이 과거와 같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Dobson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초기에 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가 당시에 이슬람 지도자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권좌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비록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27]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세력이 확장되고 IMU(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와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가 위협을 가하면서 해당국의 종교자유는 형식적으로는 보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통제를 가하였다.[28] 이러한 분위로 인해 독립세대는 종교자유를 보장받은 세대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9.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로 개종할 수 있습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한다	17%	12%	15%
안한다	80%	87%	84%
잘 모르겠다	3%	1%	1%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다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독립세대와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민족들을 인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문9는 독립세대가 세계화와 이슬람화 사이에서 어떠한 의

27) 우즈베키스탄 헌법 31조에 “종교의 자유보장(Guaranteeing freedom of religion)”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당국 정부가 자국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성은 “해당국의 권리와 이해가 헌법의 모든 내용에 우선한다는” 동 헌법 16조에 나타난다.(http://www.uib.no/jais/v002ht/02-110-150Simpson1. htm(검색일. 2012.09.12)). 헌법 16조는 다음과 같다. “Non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shall be interpreted in a way detrimental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one of the laws or normative legal acts shall run counter to the norms and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http://www.gov.uz/en/constitution/#s266(검색일. 2012.09.12)),

28)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현승수(2012), pp. 155-184.

식을 가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설문9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우즈베크 독립세대의 80% 이상은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서까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비록 타슈켄트의 독립세대가 다른 두 도시보다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17%정도만이 개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래 설문10은 독립세대의 이와 같은 의식을 증명해 주고 있다.

10. 배우자의 종교가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슈켄트	안디잔	나보이
매우 중요하다	30%	46%	42%
대체로 중요하다	22%	33%	37%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13%	15%	10%
전혀 중요하지 않다	13%	4%	5%
모르겠다	22%	2%	6%

설문10은 설문9와 유사한 질문지만, 후자는 자신이 개종을 하는 것이고 전자는 배우자의 종교를 독립세대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배우자의 종교가 결혼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세 도시 각각 52%, 79%, 79%로 나타났다. 여기서 타슈켄트 독립세대는 그 정도를 52%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두 도시와 27%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타슈켄트가 다른 두 도시보다 다민족다문화 성향이 강하고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즈베크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규정한다. 설문1에서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한 독립세대에게 무슬림으로서 종교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하는 믿음의 기둥과 관련된 질문을 설문2-7로 제공하였다. 여기서 예배의례 수행은 대체적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라마단과 하지는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믿음의 기둥 5가지 중에서 우즈베크 독립세대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항목은 예배의례 수행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을 무슬림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 둘째,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진다.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자신을 개종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다수가 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의 선택에도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의식은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이슬람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우즈베크 독립세대는 자신을 무슬림으로 정의는 하지만 이슬람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슬람 세력의 탄압정책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4. 독립세대의 종교관에 따른 정치의식 분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자국의 독립세대가 향후 전개될 정치 환경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이들을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카리모프 정권이 독립세대를 친정부 성향으로 육성시키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선단체의 설립. 대표적인 우즈베키스탄의 자선단체는 이슬람 카리모프의 차녀인 롤라 카리모바(Lola Karimova)가 설립한 ‘너는 혼자가 아니다(You are not alone)’와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센터(The National Centre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NCSAC))'가 있다.[29] 전자는 2002년에 설립되어 주로 고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후자는 2004년에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18세 이하에 속하는 10,690명의 불우아동과 그 가족을 그리고 4,000명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켈만(Akerman, E)은 이슬람 카리모프 패밀리가 설립한 위와 같은 자선단체들의 이면에는 면세 혜택을 받아서 친정부 성향의 기업들을 설립하여 후원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30] 둘째, 독립세대를 위한 콘테스트의 개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미래의 목소리(Voices of the Future)'이다. 이것은 독립세대가 예술, 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방식인데 우승자는 장학금을 받는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 대회에 3,000명이 참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무려 54,000명이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콘테스트를 후원하는 자는 이슬람 카리모프의 장녀인 굴로라 카리모바(Gulnora Karimova)이다. 맥글린치(McGlinchey)는 카리모프 정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독립세대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31] 셋째, 친정부 성향을 가지는 독립세대의 단체 조직. 현재 친정부 성향을 가지는 대표적인 독립세대의 단체는 '카말롯(Kamalot)'이다.[32] 이 단체는 1996년 4월 17일에 카말롯 설립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이 통과된 후, 2001년 1월 25일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카말롯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적 성향을 가지는 사회단체이다. 이 단체는 독립세대를 위해 설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참가할 수 있는 연령대가 14-35세로 그 폭이 넓으며, 해당국의 도시, 주(州)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독립세대의 법적 지식 함양하는 것, 둘째,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한 필수과제들을 독립세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 셋째, 국가 발전을 위해 독립세대의 에너지와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넷째, 국제유년단체들과 상호 유용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다섯째, 독립세대의 건전한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여섯째, 민족들 간에 화합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일곱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33] 실제로 우즈베크 정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McGlinchey는 이 단체가 소비에트시기에 조직된 공산당청년동맹인 콤소몰(Комсомол)과 유사하며, 그 이면에는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도록 이들을 의식화시킨다고 주장한다.[34]

위와 같이 카리모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이슬람 카리모프 패밀리가 프로그램들의 중심에 있다. 1938년에 출생한 카리모프는 올해 74세가 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부터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았다. 대부분 그의 장녀인 굴노라 카리모바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우즈베크 국민들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의 후계자가 누가

29) http://www.lolakarimova.com/en/(검색일. 2012.09.12).
30) Akerman(2002), pp. 137.
31) McGlinchey(2009), pp. 1140.
32) 카말롯은 우즈베크어로 'kamolot'으로 적으며, '완성(perfection)'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amolot.uz/(검색일. 2012.09.12).
33) http://www.uzprogress.narod.ru/Partiyalar.htm(검색일. 2012.09.12).
34) McGlinchey(2009), pp. 1139.

될 것인지 장담하기 힘들어졌다.[35] 그러나 카리모프 정권은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 엘리트들을 육성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목소리와 같은 프로그램은 독립세대가 각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어 우승자를 선발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국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목적도 가진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이들을 선발해서 육성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체들이 후원한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크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엘리트 선발대회는 정치적인 목적이 수반된다고 여겨진다. 셋째, 지역파벌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소비에트세대와 다르게 형성된 독립세대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지역파벌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독립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보다는 국가를 먼저 고취시키는 전략이 이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목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독립세대를 친정부로 유인하는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이들의 종교관과 정치의식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 설문8에서 분석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 50%이상은 이슬람이 정치 세력화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국의 이슬람 탄압정책에도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하는 세뇌에 가까운 교육과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타지키스탄이 자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국가가 피폐해졌고, 그 원인으로 이슬람이 정치세력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홍보한 효과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유권자로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2014년도 해당국의 대선은 독립세대가 유권자로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2009년 12월 27일과 2012년 1월 10일 두 차례 치러진 총선에 나타난다.[36]

표 12. 2009년-2010년 우즈베키스탄 총선 결과

정당	1라운드			2라운드			최종
	득표수	%	의석	득표수	%	의석	의석
자유민주당(LDP)			33			20	53
인민민주당(PDP)			22			10	32
민족부흥민주당(NRDP)			25			6	31
정의사회민주당(JSDP)			16			5	19
총계			96			39	135
총 유효 투표수	15,108,950	87.8%		3,960,876	79.7%		
등록된 유권자 수	17,215,700			4,969,574			

자료: The Central Elec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표 1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9-2010년도 총선에서 카리모프 정권에 우호적인 정당들이 국회를 장악하였다. 현재 해당국에는 다당제가 존재하지만 야당 역할을 하는 정당은 없다. 이 당시 독립세대의 유권자 수는 표 1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되면 대략 488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35) 일부는 경제담당 제1부총리이자 타슈켄트 지역파벌인 아지모프(Azimov Rustam Sodiqovich)를 거론하고 있지만 소문에 그치고 있다.

36) 우즈베키스탄의 총선은 Two-Round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27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135의석 가운데 39석에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해서 2010년 1월 10일에 2차 선거가 치러졌다.(http://uza.uz/en/politics /1170/ (검색일. 2012.09.12)).

등록된 유권자 수에 27%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독립세대의 새로운 투표 성향이 전체 총선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2004-2005년도 총선과 비교했을 때,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과거 41석보다 12석을 더 획득하였고, 대표적인 친여 정당인 인민민주당이 28석보다 4석 많은 32석을 차지한 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세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37] 2009-2010년 총선은 결국 카리모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집중화가 더욱 공공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등록된 유권자 수의 28%를 차지하는 독립세대가 공헌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2009-2010년도 총선이 치러진 시기에 이 당시의 독립세대 유권자들이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014년도 대선에서 해당국 유권자의 47%에 육박하는 독립세대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들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케 한다.

Ⅲ. 결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1년 동안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로 만 74세가 되는 그는 자신의 권력을 물려줄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다. 그의 장기집권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새 인물로 발탁된 그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후광을 받으면서 권력의 토대를 만들어갔다.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이슬람 세력이었다. 그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추방하거나 투옥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직면한 최대의 정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르칸트 파벌이었다. 결국 후원네트워크를 지키지 못한 이슬람 카리모프는 자신의 지역파벌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 타슈켄트 지역파벌과 연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2005년 5월에 발생한 안디잔 사태는 페르가나 지역파벌과 사마르칸트 지역파벌을 약화시키는 호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외형적으로 안전하게 권좌를 지켜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를 부패시키고 만성적인 권력게임을 조장하는 지역파벌 구조에 대한 그리고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국이 경제적으로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역으로 분석하면, 카리모프 정권에 도전하던 여타 지역파벌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는 확실하게 경쟁 없는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중동에서 시작된 자스민혁명이 우즈베키스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도전세력은 독립세대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출생한 독립세대는 2015년에 해당국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르바초프의 집권기에 출생한 세대까지 합치면 소비에트체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리모프 정권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지역파벌들과의 권력게임에서 승자가 되면서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위협세력인 독립세대를 상대로 일찍이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였다. 이슬람 카리모프는 독립세대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의식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는 차세대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카리모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독립세대는 미래의 우즈베키스탄 정치에 다

37)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LDP)이며, 인민민주당(PDP)은 과거 공산당의 후신으로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 당의 지명의 받아서 대통령에 출마하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여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음과 같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치문화를 전개할 것이다. 독립세대는 기존의 소비에트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해당국에 새로운 정치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역시 지역파벌들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지만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파벌 중심의 정치구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리모프 정권에 의해 이미 약화된 자신의 지역파벌이 독립세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인식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소비에트세대는 독립세대가 해당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기간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독립세대가 해당국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문제는 독립세대 내부에서 갈등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집단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이 정치성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계층의 독립세대는 지금의 기득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층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럴 경우에 다른 독립세대 집단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들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리모프 정권의 독립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권좌를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슬람 카리모프가 후계자를 지정하고 물러난다고 하여도 이들이 차세대 최고지도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이슬람의 영향력은 여전히 약해질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독립세대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태도는 여전히 세속적 성향에 가깝다. 이들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정의하지만 이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당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여도 이슬람이 해당국의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동기. 2009.「중앙아시아 국가의 당면과제」. 김대성 외,『중앙아시아학 입문』, pp. 359-392.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성동기 외. 2010.「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을 중심으로」.『중소연구』, Vol. 34, No. 2: 213-237.

우덕찬. 2000.「중앙아시아국가들의 대(對)이슬람 정책에 관한 연구」.『중앙아시아연구』, Vol. 5: 158-173.

우즈베키스탄 민중사 I. 1997. 타슈켄트: 동방.

이문영. 2003.「중앙아시아의 종교 상황과 종교 정책: 러시아 지배 유산의 극복과 이슬람의 발전」. 『국제지역연구』, Vol. 7, No. 1:143-170.

이희수. 2000.「중앙아시아 이슬람화 연구: 투르크족을 중심으로」.『민족학연구』, Vol. 4:259-279.

현승수. 2010.「적대적 공존: 우즈베키스탄의 정교(政敎) 관계와 이슬람해방당」.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Vol. 20. No. 3:155-184.

Akerman, E. 2002. "Democratisation in Central Asia: communism to clanism."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1): 133-144.

Akiner, S. 1994. "Post-Soviet Central Asia: Past is Prologue." P. Ferdinand ed. The New Central Asia and Its Neighbours, pp. 36–54. London: Pinter Publisher.

Collins. K,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offrey. W, 1977. "Islam and the Soviet Union." Middle Eastern Studies, 13(1): 40-49.

ICG Asia Report. 2001. "Central Asia: Uzbekistan at 10: Repression and Instability." 21: 1-39.

Levitsky, S., Lucan, A. W. 2002.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13(2): 51-65.

McGlinchey, M. E. 2009. "Searching for Kamalot: Political Patronage and Youth Politics in Uzbekistan." Europe-Asia Studies. 61(7): 1137-1150.

Dobson, B. R. 1994. "Islam in Central Asia: Findings from National Surveys." Central Asia Monitor, 2: 17-22.

Roy, O. 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Y: NYU Press.

Treacher, A. 1996. "Political Evolut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Democratization, 3(3): 306-327.

Ziyaeva, D. 2006. "Changing Identities Among Uzbek Youth: Transition From Regional to Socio-Economic Identities." NBR Conference on Generation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Uzbekistan. Washington D.C.

http://www.kamolot.uz/(검색일. 2012.09.12)

http://www.lolakarimova.com/en/(검색일. 2012.09.12).

http://www.birlik.net/page-12.uk(검색일. 2012.09.12).

http://www.stat.uz/press/1/3399/(검색일. 2012.09.12).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z.html(검색일. 2012.09.12).

http://www.stat.uz/upload/iblock/f0f/Uzb_ru.pdf(검색일. 2012.09.12)

http://eacea.ec.europa.eu/tempus/participating_countries/higher/uzbekistan.pdf(검색일. 2012.09.02)).
http://www.fergananews.com/article.php?id=5206(검색일. 2012.09.21)
http://caf.kiep.go.kr/caf/contents/m122100/view.do(검색일. 2012.09.12)
http://www.nbr.org/Downloads/pdfs/PSA/Uzk_Conf06_Ilkhamov.pdf(검색일. 2012.09.12)
http://ncadc.org.uk/coi/2012/04/uzbekistan-continuing-freedom-of-movement-bans/(검색일. 2012.09.12)
http://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1064(검색일. 2012.09.12).
http://www.uib.no/jais/v002ht/02-110-150Simpson1. htm(검색일. 2012.09.12)
http://www.gov.uz/en/constitution/#s266(검색일. 2012.09.12)
http://www.uzprogress.narod.ru/Partiyalar.htm(검색일. 2012.09.12).
http://uza.uz/en/politics /1170/(검색일. 2012.09.12)
http://www.demoscope.ru/weekly/ssp/sng_bir.php(검색일. 2012.09.02).
http://en.wikipedia.org/wiki/Uzbekistani_presidential_election,_2007(검색일. 2012.09. 12).

세션 V (중앙아시아경제학회 세션 I)
: 한국과 몽골 : 인식과 협력의 새로운 지평

■ 사회 : 정행득(광운대)

■ 발표 :

김홍진 -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박지원 -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최재희 -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한·몽골 교류 지평 확대

■ 토론 : 박광순(산업연구원), 이상호(세종대), 이평래(한국외대)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김홍진(순천향대)

Ⅰ. 서론

최근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경제성장률이 17.3%에 달하면서 개발도상국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2년도 그와 비슷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도가 계속되면, 2011년 3천 달러를 넘어선 1인당 GDP는 2016년 8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4,000~16,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였던 몽골이, 머지않아 중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몽골이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구리, 금, 석탄을 비롯한 80여 종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몽골은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의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대외교역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몽 양국은 1990년 정식 국교를 수립한 이래 제반 경제협력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교역규모 면에서는 몽골의 제5위 교역국가가 되었고, 직접투자 면에서도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투자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제반 관계로 볼 때 이러한 실적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몽골 국민의 소득 증가는 몽골의 시장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몽골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원개발 및 확보 측면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2의 북방정책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몽골경제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한·몽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을 교역과 직접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새로운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과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한다.

Ⅱ. 몽골경제의 성장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성장 추이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체제전환 불황

(transformational recession)을 거치며 일정기간 경제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유산으로 지목되는 제반 경제적 비효율성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면서 여타 체제전환경제 대비 양호한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1], 21세기 들어와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자원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력 산업이자 수출품인 구리, 금, 석탄의 생산을 바탕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중소득국가(the middle-income country)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몽골의 주력 산업은 광업, 농업과 목축업, 건설업, 관광산업 등이지만 광업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자원기반경제(resource-based economy)의 특성을 갖고 있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광업은 산업 총생산의 ⅔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몽골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광업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몽골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광업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비 광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요약컨대 광업은 몽골경제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광업에서 창출된 초과 잉여를 활용하여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표1> 몽골경제에서 광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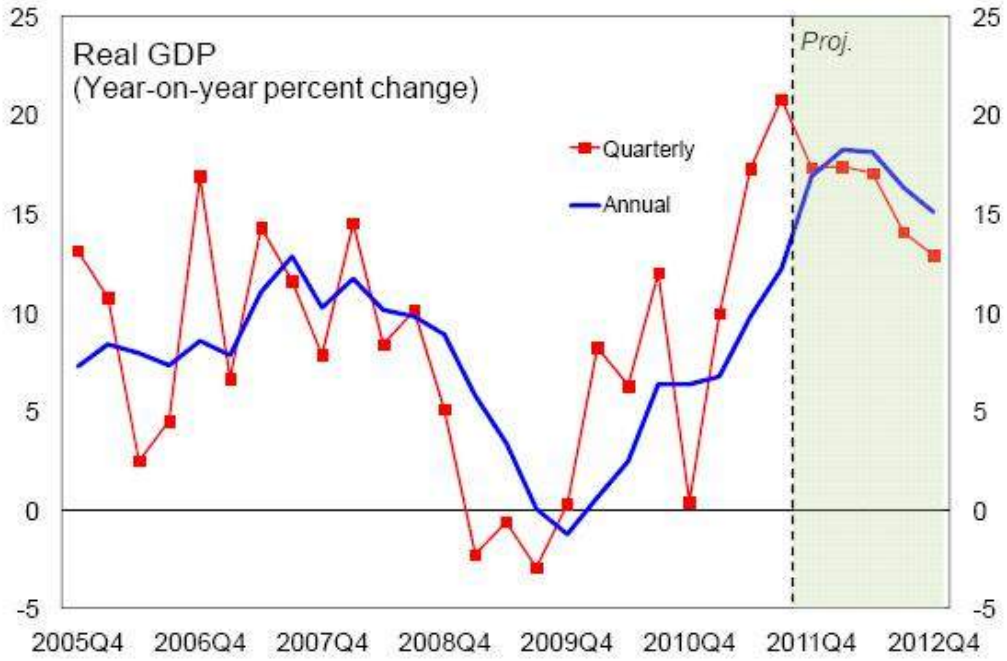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30.0	27.4	20.6	19.8	23.6	21.7
산업 총생산	69.9	63.4	56.4	62.7	62.1	60.7
석탄/갈탄/토탄	4.5	4.8	6.0	14.0	18.6	21.0
원유	0.8	1.0	1.3	4.3	4.1	4.8
광물(구리 등)	62.7	55.9	47.1	41.8	37.7	33.7
기타	1.9	1.6	2.0	2.6	1.7	1.2
총수출*	75.5	80.3	84.0	82.8	87.1	91.5

자료: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각 년도
주) *는 mineral products와 precious metal, jewellery의 합계임.

2000년대 들어와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2003년 이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연평균 8.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GDP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신흥 성장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은 광업부문의 성장에 주로 힘입은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국제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구리와 금, 석탄 등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몽골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성장률 그래프는 <그림1>과 같다.

1) IMF Country Report 02/252, November 2002, p. 9

<그림1> 최근 몽골의 경제성장: 2005년 4분기~2012년 4분기(전망)



자료: IMF Country Report No. 12/52, p. 5, March 2012

몽골도 2008년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세계적 불황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구리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켰다.[2] 이로 인해 몽골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몽골 경제는 2010년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6%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 많은 가축이 동사하였고 그 결과 농·축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인상적이고 극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육류 공급에 대한 충격, 즉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연중 내내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2011년 몽골은 17.3%라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3] 이는 몽골경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출 측면에서 보면 광업개발을 위한 고정자본 투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몽골 GDP에서 총투자는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이 성장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2> 몽골의 GDP 구성과 변화: 지출 측면

	2007	2008	2009	2010	2011
민간소비	46.7 (-)	54.9 (21.3)	58.0 (-2.5)	53.4 (11.0)	50.5 (13.3)

2) 구리 가격은 2008년 중반 톤 당 8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 1월에는 3000달러로 무려 60%나 급락하였다. 그러나 구리 가격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2010년 말에는 다시 종전의 고점 가격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리 가격은 세계적 경기변동에 따라 급등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몽골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June 2012, p.28

총투자	38.5 (−)	43.0 (18.1)	34.5 (−29.8)	40.6 (36.4)	58.1 (62.5)
고정자본형성	35.4 (−)	35.8 (9.9)	29.0 (−29.8)	32.4 (33.0)	48.3 (69.9)
정부지출	13.4 (−)	15.1 (3.7)	14.8 (−5.5)	13.7 (13.4)	13.9 (21.2)
순수출	1.4	−13.0	−7.3	−7.6	−22.5

자료: Statistical Yearbook, 2011 (주)괄호 안은 변화율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비슷한 17.2%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약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GDP는 2016년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우호적으로 형성된다면 2020년 1인당 GDP가 약 2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 몽골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경제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제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몽골경제의 성장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향후 몽골경제에 대한 투자환경 또한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몽골은 자원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오유 톨고이(Oyu Tolgoi) 및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2020년까지 경제규모가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광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의 다양화와 함께 경제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08~2015)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몽골정부는 "전략광산의 광물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금을 축적하며, 이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근대적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5]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정부실행계획(Governm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숙련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세계 중간 수준의 첨단 연구소(바이오, 나노, 및 수의학) 2~3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시적 산업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설립 지원과 각 아이막(Aimag)[6]의 수요에 맞는 산업기술단지(industrial and technology park)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과 제조업 역량을 확충"하며,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반시설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26개의 대규모 실행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몽골정부는 <그림2>와 같이 경제발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를 자원기반경제(resource based economy)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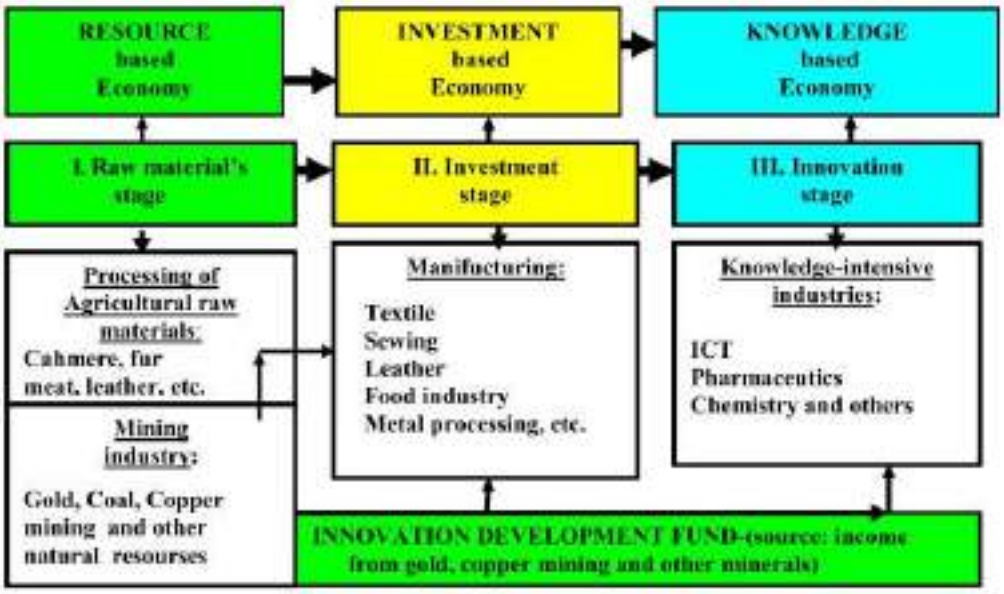
4) ADB and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of Mongolia, Macro-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June 2012, p.55

5)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및 이재영 외,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KIEP, 2010, pp.73~78 참조

6)몽골은 21개 아이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주(州), 한국의 도(道)와 유사한 개념의 행정단위이다.

효율적인 자원개발과 자본축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투자기반경제(investment based economy)로서, 자원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산업을 최종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고 장구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기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2> 몽골의 경제혁신과 발전 단계



자료: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자원산업을 기반으로 한 몽골경제는 자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광업 부문과 비 광업 부문 간 성장 격차가 확인되고 있으며, 자원의 생산과 운송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몽골 자원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말해주는 동시에, 자원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몽골경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표3>은 몽골경제의 중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명목 GDP는 2010년 대비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광업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 때문인데, 오유 톨고이 금동 광산이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 그 효과는 더욱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몽골경제는 이러한 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2011년부터 이미 놀랄만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10%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높은 16.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8] 즉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로 인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리와 석탄 등 주력 수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몽골경제는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연도 광업부문 실질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 이와 관련된 '자원의 저주(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및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대해서는 Ariunaa and Kim(2011), Sachs and Warner(2001) 참조.
8) IMF와 World Bank의 성장률 계산 혹은 전망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World Bank는 2011년 몽골경제 성장률을 17.3%로 발표하였으며, 2012년은 17.2%로 전망하고 있다.

<표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명목GDP(10억 투그릭)	6,591	8,415	11,535	15,274	18,641	22,145	24,129	29,064
1인당GDP(US $)	1,688	2,233	3,288	4,321	5,226	6,156	6,516	7,684
실질GDP 성장률(%) 광업실질성장률(%)	-1.3 0.2	6.4 7.4	16.9 15.3	15.1 22.0	12.2 37.1	12.3 25.7	4.5 0.6	14.1 25.6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4.3	15.1	17.9	9.0	8.5	7.9	7.3
구리가격(톤 당 US $)	5,165	7,538	9,204	8,880	8,800	8,640	8,450	8,210

자료: IMF Country Report 12/52, March 2012

몽골의 1인당 GDP는 2010년 약 2200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 3200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에는 4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약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앞에서 설명한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몽골은 2015년 이후 매년 1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몽골의 1인당 GDP는 몽골정부의 기대처럼 2020년 2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한국-몽골 경제협력의 현주소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통상과 투자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양국은 수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부터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위상을 높여 왔으며,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한·몽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하여 1991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교역규모의 성장,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4>는 한국의 대 몽골 교역과 직접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수교 첫해 270만 달러로 교역을 시작했던 양국은, 2011년 교역규모가 150배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의 교역규모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무역수지 면에서 한국은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몽골에서 그만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이든지 양국 간 교역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한·몽 양국의 교역구조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4> 한국의 대 몽골 교역규모와 직접투자(단위: 천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총 교역	2,706	37,650	56,749	82,516	230,470	410,497
수출	515	27,957	54,672	77,621	191,631	349,874
수입	2,191	9,693	2,077	4,895	38,839	60,623
무역수지	−1,675	18,264	52,596	72,726	152,792	289,251
직접투자*	−	5,134	5,457	14,226	56,894	60,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 *신고 기준

몽골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import)이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몽골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와 개인의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부품, 중간재, 전자제품 등은 몽골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몽골에서의 기업경영을 위해 주로 한국 상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을 무시할 수 없다.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통신기기 등 한류와 관련된 파생수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몽골의 산업과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주로 1차 산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과 슬랙(slag), 구리 등 광산물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캐시미어를 비롯한 의류와 일부 가공식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몽골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교역규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9)]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연도별 부침이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05년 처음으로 단일 연도 기준 1천만 달러를 넘어 섰다. 이후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광업의 비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직접투자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다. 규모 면에서는 초기에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교역을 전반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먼저 수출 면에서 2011년 기준 한국은 몽골 총수입의 5.4%를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이며,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비중이다. 수입 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서, 몽골 전체 수출의 0.8%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갖고 있고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규모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9) 2012년9월 현재 대몽골 수출은 341백만 달러, 수입은 4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참조.

<표5> 몽골의 국가별 교역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100	100	100	100	100	100
중국	68.0	72.5	64.5	74.0	84.8	92.1
캐나다	11.1	9.2	6.9	7.8	4.9	1.9
영국	2.5	1.1	6.5	6.7	2.3	0.4
러시아	2.9	3.0	3.4	3.6	2.8	2.0
대한민국	1.4	2.2	1.2	0.8	1.0	0.8
수입	100	100	100	100	100	100
러시아	38.2	36.1	38.3	36.2	32.7	24.6
중국	25.4	27.6	27.7	25.2	30.3	30.7
대한민국	5.7	5.8	6.0	7.2	5.7	5.4
일본	6.8	6.8	7.3	4.5	6.1	7.4
미국	3.0	2.7	2.6	4.8	5.0	8.1

자료: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각 년도

둘째, 대몽골 수출이 한국의 직접투자 및 유·무상원조(EDCF 및 ODA)에 의해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몽골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는 몽골 국내시장의 수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제공되는 유·무상원조 사업을 대부분 한국 기업이 수주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품 또한 한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이것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무상원조의 과실이 국내에 남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좀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셋째, 양국의 교역에서 몽골 측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내외의 몽골에서는 큰 폭의 적자이다.[10] 나아가 이러한 만성적 무역 불균형은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양국 경제교류에서 몽골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11]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므로,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감안한 경제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넷째,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양국이 상호 교류를 시작한 초기에는 대체로 소규모 서비스 및 도소매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후 최근 광업과 건설업, 방송문화 등 직접투자 분야가 다양화 되는 추세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1년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53억 달러에 달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투자는 겨우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투자에 비해 한국의 직접투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은 몽골의 제반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대규모 광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몽골의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서방국가

10)몽골의 외환보유는 2012년6월 27억 달러로 최근 고점을 기록했으나, 연이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며 환율 안정을 위한 몽골중앙은행의 달러 매각으로 보유액이 더욱 감소했다. 여기에 더하여 몽골개발은행의 예치금 등을 제외하면 순 외환보유는 2012년9월 말 약 14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October 2012, p. 18~19

11)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노동자의 송금과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송금, 양국 경상수지, 한국의 유·무상원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현금흐름이 몽골 측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혹은 중국이 거의 모두 차지하였고,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향후 몽골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Ⅳ. 한국·몽골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1세기 새로운 한·몽 경제협력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경제 및 한·몽 유대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몽골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이다. 구리, 금, 석탄 등을 비롯해 80여종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향후 세계경제는 자원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체자원 개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도 낮다. 많은 국가들이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 자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몽골의 자원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내륙국가로서 자원 운송에 애로가 있고, 당시 자원가격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글로벌 호경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높은 성장을 뒷받침할 자원수요가 급증하면서, 몽골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사이 엄청난 매장규모를 가진 오유 톨고이 금동 광산과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이 발견·개발되면서 광업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몽골의 주요 자원을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 등이 선점하면서 한국은 후발국가로 떨어지게 된 셈이다.

상기 국가들은 광업 부문에서 자본과 기술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에게 선점의 기회가 있었지만, 운송 애로 등 리스크 요인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몽골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운송을 위해 기존 철도의 개선, 철도 신설, 운송을 위한 도로 확충과 신설 등에 대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쏟아 붓고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의 운송 인프라 개선에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인접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몽골은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몽골은 매장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특별히 전략광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15대 전략광산 중에서 일부는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가 아직 개발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 방식을 확정 중인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에도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하겠지만, 남아 있는 다른 전략광산 개발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망된다.[12] 몽골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권자를 선정하는 전략광산 개발은 한국의 개별 기업이 혼자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기업정보 제공, 한·몽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이제 몽골을 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최근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인구가 적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시장의 하나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중소득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몽골시장에 한국

12) 이재영 외(2011), p.172~176 참조

기업이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시장에는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 몽골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현지의 높은 한류 열풍과 연계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몽골을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진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몽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대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의 정치경제적 역학구도에서, 양국은 친근한 정서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몽골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방이면서도 과거 70년 동안의 종속적 관계 때문에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민족감정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몽골 영토 침략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일제의 침략과 전쟁의 경험이 있지만,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국으로 우호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또한 영토적 야욕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의 우방 국가이고 영토적 욕심이 없지만, 강대국으로서 내정간섭을 염려하고 있다. 몽골은 고려를 침공한 전력이 있지만, 근대에 와서 한국과는 상호 전쟁이나 갈등이 없었다. 최근의 한류 열풍과 친근한 정서 및 끈끈한 유대관계는 나름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한·몽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은 제2의 북방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20여 년 전 베를린 장벽과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방, 동유럽의 체제전환 등과 맞물려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을 제1기 북방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 과거 20년 동안 북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몽골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의 관점에서 중시되었다고 본다. 몽골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몽골을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으로 인식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2기 북방정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에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및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밀려 외톨이처럼 취급된 경향이 있었다. 이제 몽골은 막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기 북방프로젝트에서는 몽골이 중심에 위치할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먼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서 몽골의 자원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몽골은 국가적 자원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몽골의 효율적 국토개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이 주목적이 되겠지만, 양국의 공동이익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직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전략광산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토목건설 분야에 세계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적어도 몽골의 자원운송 인프라 구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몽골의 석탄 부존은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13], 이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 신설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야 한다. 광대한 국토에서 인구밀도가 희박한 몽골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몽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13) 일례로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의 매장 규모는 65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매년 3천 만 톤을 생산하더라도 20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먼저 대몽골 수출확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몽골의 입장에서 무역역조인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 얼핏 모순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몽골의 총수입에 비해 한국 수출의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한국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이것을 수입하게 되면 자연히 몽골로부터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몽골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 체결은 몽골의 대외개방정책을 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양국 간 인적교류의 질적 양적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적교류는 교육·노동 분야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경제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먼저 몽골의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한국의 경제부처에서 심도 있는 연수와 경제발전 knowhow를 전수해 주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연수는 단기연수가 많은데, 인원을 우수한 인력 중심의 소수로 줄이는 대신 6개월 혹은 1년짜리 중장기 연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문관 파견도 늘려야 한다. 이들이 몽골의 주요 부처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실무지식을 전달하고 한국의 제도를 이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몽골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몽골의 노동시장에서 저급 노동인력이 중국인에서 북한 사람으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 몽골은 과거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한은 국내 사정으로 몽골에 자국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몽골에 투자하면서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3국 모두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건설 및 도시개발, 농업개발 등에 참여할 때 북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몽골 경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원조규모에서는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규모와 내용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접투자 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낮고, 어떤 면에서는 초기 소규모 서비스업에 치중하는 바람에 현지인과의 갈등만 낳고 말았다. 몽골이 한국을 필요로 할 때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상생의 터를 닦아 놓아야 한다. 미래에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Ⅴ. 결론과 제언

지난 20여 년 동안 한·몽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때 코리안 드림을 심어줄 수 있었고, 현재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역규모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증가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과거 최빈국을 대하던 자세와 각도에서, 향후 중진국 수준의 몽골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각종 정책과 진출 전략을 수정해야

14) 이재영 외(2010)에서도 양국 FTA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p.181 참조

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2의 북방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중소득국가에 대한 수출과 직접투자로 전략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몽골경제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몽골은 많은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 현재 몽골 자원개발에서 후발국가로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국의 교역규모도 증대시켜야 한다. 몽골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국 상품으로 수요이동 및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몽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대 관계와 현지의 한류 열풍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인적교류 또한 좀 더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단기 연수를 지양하고,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knowhow를 전수하여 그것이 몽골경제 내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몽골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홍진 외(공저), 『초원에서 무지개를 보다』, 도서출판 그린, 2012

_____,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Since 1990: An Evaluation and Prospect, 『몽골학』 29권, 한국몽골학회, 2010. 8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몽골과 한국』, 2012

이재영 외,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KIEP, 2010

이재영 외,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KIEP, 2011

ADB and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of Mongolia, *Macro-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June 2012

Ariunaa, K, and Hong-Jin Kim, Dutch Disease and the Mongolian Economy, 『몽골학』 31호, 한국몽골학회, 2011

IMF, *Country Report* 02/252, November 2002

IMF, *Country Report* 12/52, March 2012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Sachs, J.D. and A. M. Warner (2001),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pp. 827–38.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2011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June 2012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October 2012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1)]

박지원(한국외대)

Ⅰ. 서 론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몽골은 구소련 시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한 국가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몽골은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매우 깊숙이 관여되어 구소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몽골은 IMF 식의 급격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제체제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및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의 완수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서구의 신자유주의식 개혁안을 추진했다. 몽골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구한 이후, 체제전환의 초기 단계인 1990년대 초반 다른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인 1994년부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체제전환 초기 10년간 몽골의 실질 GDP 성장률은 CIS국가 12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1.2% 보다 월등히 높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2)] 2000년 이후에도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시장가격 상승에 따라 몽골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 및 진출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경제는 전반적으로 특정 자원의 수출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은 더디고, 대외경쟁력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며 국가경쟁력의 장기적이고 균형적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소국으로[3)] 지리적으로 대륙의 내륙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물류와 운송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이후 매우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소규모 국가인 몽골은 대외경제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의 에너지자원 및 광물개발의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몽골에 대한 투자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누계로 약 1억 7,500만 달러(U$)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전년대비 투자액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한 해에만 약 5,800만 달러(U$) 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4)] 주요 투자분

---

1)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중소연구』, 제 36권 3호(2012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p. 182.

3) 2010년 기준 몽골 인구는 총 278만 800명으로 집계되었다. 몽골 통계청, (http://www.nso.mn/v3index2.php/index2.php?page=free_access, 12-07-31.)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시스템, (http://keri.koreaexim.go.kr/, 12- 06-23.)

야는 광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확대와 함께 몽골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경제의 성장 및 한국기업들의 진출과 더불어 최근 몽골경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재영 등은 몽골의 수출입, 투자 및 주요국과의 협력관계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 방안들을 제시하였다.[5] 또한 추원서와 강명구는 몽골경제의 현황과 한-몽 경제협력의 과제를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연구하였다.[6] 그러나 기존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특정분야에서 일반적인 몽골경제의 상황만을 기술하거나, 한국과의 협력방안에서 원칙적인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러한 원칙 이면의 몽골경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 특정 국가와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전략의 설정은 현재 그 국가가 처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상황적 검토의 바탕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 감춰져 있어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몽골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몽골경제가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위한 올바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이론적 검토위에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몽골경제의 개방성과 대외의존성을 평가하고, 몽골경제의 대외전략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대외협력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몽골 경제의 현재 대외의존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높은 대외 의존적 성향에 따른 어떤 경제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 한국의 몽골과의 경제협력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도출해 내는 것이 동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먼저 몽골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과 취약성, 사례를 통해 몽골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 체제전환이후 몽골의 대외경제를 대외의존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국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Ⅱ.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정의와 한계 : 이론적 소고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논함에 있어, '소규모 경제(small economy size)'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GDP나 GNP의 규모 등이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가장 간단히 소규모 경제의 규모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인구 크기로,[7] 인구 크기는 내수시장의 규모와 노동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적 변수들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8] 암스트롱 등(Harvey W. Armstrong

5) 이재영, "신아시아 시대 한국의 대몽골 진출전략," 제 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pp. 443-469.
6) 추원서, 강명구, "한-몽골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KDB 산업은행, 금융-경제이슈, 2012, pp. 44-80.
7)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 "Trade and Growth in Small States: The Impact of Global Trade Liberalisation," *The World Economy,* Vol. 21, Issue. 4, 1998, pp. 565-566.
8) 본 논문에서는 암스트롱(Harvey W. Armstrong)등의 정의에 따라, 인구가 300만 명 미만인 몽골을 '소규모 국가' 또는 '소규모 경제' 로 정의하고, 소규모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갖는 특성으로서의 대외 개방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일부 국제기관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 정의하는 영국, 호주, 한국과 같이 인구규모가 훨씬 큰 국가들에게 본 정의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동시에 이 특성을 모든 '소규모 국가' 또는 '소규모 경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몽골의 인구규모와 경제의 대외 개방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라는 용어를 몽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t al.)은 소규모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소규모 국가의 인구 규모를 약 300만 명 미만으로 규정하였다.[9] 또한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소규모 국가의 인구규모를 1000만 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가운데 약 134개국에 해당된다.[10]

벌크 등(Daniel Van Den Bulcke et al.)은 한 국가의 기업과 정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정도와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정책에 의존하는 정도를 통해 소규모 국가와 대규모 국가로 구분하였다.[11] [그림 1]은 두 가지 축에 따른 국가규모의 구분을 보여준다.

[그림 1] 소규모 국가와 대규모 국가의 전통적인 구분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위해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정도	
		약함	강함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정책에 의존하는 정도	약함	소규모 국가	
	강함		대규모 국가

* 자료: Daniel Van Den Bulcke et al.(2001) Globalization and the Small Economy.

소규모 국가는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더 의존하게 되며 경제정책 역시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또한 소규모 국가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국가의 기업에 비해 자국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국가들은 경제구조에 있어서 크게 다음의 4가지 형태를 가진다.[12] 첫째, 해외노동자의 송금과 같은 외부임대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다시 생산기반이 부족한 국가와 제한된 생산 활동이 가능한 국가로 나뉜다. 둘째, 농산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비교적 자원수출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연관 서비스 활동이 부족한 국가와 자원수출이 다변화되어 있으며 상호 연계활동과 틈새시장 개척이 가능한 국가로 구분된다. 셋째, 관광이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넷째는 소규모 국가이지만 비교적 제조업이 폭넓게 발달하여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가지며 다른 그룹의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급이 가능한 국가이다. 해외노동자의 송금이나 어업권에 대한 로열티 등의 외부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소규모 국가로는 미크로네시아(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샬제도(Marshall Islands) 등을 들 수 있으며 자연자원 수출은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 통가(Tonga) 등의 국가 등이 해당된다.[13] 몽골의 경우도 석탄과 같은 광물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9) Harvey W. Armstrong, R. J. De Kervenoal, X. Li, and Robert Read, "A Comparison of the Economic Performance of Different Micro-states, and Between Micro-states and Larger State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4, 1998, pp. 639-656.

10)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World Bank, "Small States: Meeting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Report of Joint Task Force on Small States*, April, 2000, p. 2.

11) Daniel Van Den Bulcke, Alain Verbeke, and John H. Dunning, *Globalization and the Small Open Economy,* (UK: Edward Elgar, 2001), p. 2.

12) UNCTAD(1997), "The Vulnerability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Common Issues and Remedies," Geneva,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Small States," *The Round Table: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2, Issue, 368, 2003, p. 112. 에서 재인용.

13) Pierre Encontre, "The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있다. 관광에 의존하는 국가로는 많은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포함되는데, 피지(Fiji), 자메이카(Jamaica) 등이 해당되며 제조업이 발달한 소규모 국가로는 스위스(Switzerland)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국가의 경제구조에 따라 소규모 개방형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국가들은 자원의 제한과 경제구조의 편협성으로 인해 소수의 산업에 전문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스트롱 등이 정의한 300만 명 규모의 작은 인구 규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14] 첫째, 소규모 경제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다. 소규모 경제는 국내 시장의 총수요 규모가 작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국내 시장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 발전 등도 더디게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영토가 협소하고 자연자원 및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중동지역의 일부 원유수출국이나 몽골과 같은 경우 각각 풍부한 원유자원과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기는 하나,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해외로부터의 막대한 자본유입을 필요로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작은 인구규모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이 매우 적어, 대규모 저임금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가들과의 수출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다. 셋째, 생산과 수출상품이 제한적이다. 국내의 경제활동이 다양하지 못하게 나타남에 따라 소규모 국가는 특정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생산과 수출의 소규모 제품에 대한 의존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넷째, 앞에서 언급된 소규모 내수시장, 자원의 제한적 보유, 생산과 수출상품의 한계는 소규모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여 국내생산과 성장의 상당부분을 대외무역에 의존하도록 한다.[15] 즉, 소규모 국가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개방성을 추구하게 되고, 자국 상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들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다.

캐머런(David R. Cameron)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의 총 수요는 부분적으로 해당 국가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16] 주요 수출품의 국내생산에 있어서 생산비와 생산성의 변동은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국제시장의 가격에 의해 대부분 연동되게 되어, 국제시장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이 증가하여 국내경기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반대로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면 투자를 위한 자본의 축적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석유와 같이 소비에 대체로 비탄력적인 에너지 상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동 상품의 가격 상승은 수입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소규모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외부 가격의 변화에 의해 경제 순환구조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17]

소규모 개방국가 가운데에도 바다를 통한 대외출구가 차단된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ies)와

---

of globalization,"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3, 1999, p. 267.

14)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 *op. cit.,* pp. 567-570.

15) Lino Brigugli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ir Economic Vulnerabilities," *World Development,* Vol. 23, No, 9, 1995, p. 1616.

16) David R. Cameron,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4, December, 1978, p. 1250.

17) M. Ayhan Kose, "Explaining business cycle in small open economies 'How much do world prices mat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es,* Vol 56, 2002, pp. 299-327.

소규모 섬 국가들의 경우, 세계시장과 단절된 지리적 단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단점이 발생한다.[18] 첫째, 이들 국가들은 주요 수입 및 수출 시장에 대한 지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물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물류비용으로는 운송독점에 따른 비용 상승, 높은 보험료, 운송체계의 불안정성, 운송과정에서의 물품손상 가능성 증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수출입 대상이 되는 세계시장과의 지리적 격차로 인해 이들 경제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경제통합의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 내륙국가는 해상운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주변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해당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9] 삭스(Jeffrey D. Sachs)와 워너(Andrew M. Warner)의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아프리카 경제의 저성장 원인은 내륙국가로 인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20] 몽골은 아시아 대륙의 내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해상을 통한 운송로가 차단되어있고, 외부와의 물류운송체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단점은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몽골에 있어서 경제발전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Ⅲ. 몽골경제 대외의존성의 평가와 현안

1. 체제전환 초기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

몽골은 사회주의체제 시절부터 매우 풍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자원개발을 위해 구소련으로부터 지원받던 기술과 자본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중단되게 되자 몽골은 이를 대신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서구로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1990년대 초반 당시 몽골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정부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러 정부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몽골에 연간 80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몽골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였다. 1993년 몽골의 전체 수입 3억 7450만 달러(U$)에서 석유류 수입은 9040만 달러(U$)로 전체 수입에서 약 24%를 차지하여 전체수입에서 석유류의 수입비중은 매우 높았다.[21] <표 1>은 1990년 몽골의 석유류 수입금액과 석유에너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석유에너지 부문에 대한 몽골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준다.

---

18)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mall States and Islands: The Importance of Geography,” ISLANDS of the WORLD Ⅷ International Conference, 1-7 November, 2004, Taiwan, pp. 724-727.

19) 내륙국가의 주변국에 대한 의존성은 첫째, 물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의존, 둘째, 정치관계에 대한 의존, 셋째, 물류 통관국의 안정성에 대한 의존, 넷째, 통관의 행정적 처리에 대한 의존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Michael L. Faye, John W. Mcarthur, Jeffrey D. Sachs, and Thomas Snow, “The Challenges Facing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5, No. 1, March, 2004, pp. 40-43.

20) Jeffrey D. Sachs and Andrew M. Warner, “Sources of Slow Growth in African Economies,”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Vol. 6, No. 3, December, 1997, pp. 335-376.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p. 205.

<표 1> 개혁 초기 몽골의 석유수요와 품목별 대외 수입량(1990년 기준)

구분	수요	수입 전체	디젤유	가솔린	중유	윤활유
수량	1,198 (천 toe)	789.8 (천 톤)	364.3	341.2	63.4	20.9

* 주: 수입되는 각 석유류의 toe는 1에 미치지 못하는 0.8-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수입 전체의 toe 는 표기된 789,800 톤보다 약간 작게 나타남.
* 자료: 수요는 Swedish Trade Council Beijing Office, 2008. “Private sector op- portunities in the oil, gas and coal sectors in Mongolia,” 수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몽골편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개혁초기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광물개발을 추진하였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규제를 철폐하고 광업생산 초기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및 이후 5년간 50% 경감 등의 조처를 통해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를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서구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루기 이전인 1990년 이전까지 몽골은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Cooperation)[22] 체제하의 사회주의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0%는 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교역에 의존하였으나,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보다는 서구 및 중국과의 교역량을 크게 늘려 나갔다. <표 2>는 1990년대 초반 몽골의 국가별 교역비중추이를 나타낸다.

<표 2> 개혁 초기 몽골의 국가별 교역비중추이(1990-1993년)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수출	100	100	100	100
코메콘	94.3	73.3	60.7	52.8
EC(서유럽)	2.0	5.4	8.1	5.2
미국	0.1	0.1	1.1	1.1
중국	1.7	15.5	17.8	31.6
일본	-	3.4	4.8	4.5
기타	1.9	2.3	7.5	4.8
수입	100	100	100	100
코메콘	91.1	78.6	55.6	57.8
EC(서유럽)	2.1	4.3	8.4	5.5
미국	-	0.4	0.4	4.6
중국	2.4	5.1	13.8	17.1
일본	1.1	0.9	9.5	7.4
기타	3.3	10.7	12.3	6.6

* 주: 단위는 퍼센트(%)임
* 자료: ADB. 1995. Economic Review and Bank Operations: Mongolia.

몽골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경화부족에 시달리는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신해 대외 교역대상 국가를 다변화 하였다. GDP 성장률에 있어서 1991년 -9.9%로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였으나 1993년 -3.0%를 기록한 이후 1994년부터는 이미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23]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22) 코메콘은 서유럽 경제공동체(OEEC)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창설한 경제협력체로, 1949년 창설되어 19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해체되었다.

도 몽골은 기타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였으나 1994년부터는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몽골은 소비에트 해체이전인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메콘과의 교역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코메콘에 대한 교역 비중은 1991년부터 수출에서 73.3%, 수입에서 78.6%로, 1992년에는 각각 60.7%와 55.6%로 줄어들었다. 1993년에는 수출은 52.8%로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57.8%로 약간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크게 증가했는데, 1990년 1.7%에 불과하던 수출비중이 1993년에는 31.6%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에 있어서도 중국의 비중이 1990년 2.4%에 그쳤으나 1993년에는 17.1%에 달하게 되었다. 체제전환이후, 이전 소비에트에 대한 수출경로를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로 대안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체제전환 전반기인 초기 10년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몽골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3년의 초기 3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개혁초기 10여 년간의 몽골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과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진적 대외개방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몽골의 소득불균형과 빈곤층 증대, 경제의 대외취약성 등이 악화되어 몽골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24] 특히, 이 시기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에 의존하던 몽골의 경제체제가 서구 및 중국과의 교역에 치중하면서 몽골경제의 대외의존 방향이 급속히 전환되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개방적인 경제구조를 취하면서 몽골은 제조업과 같은 산업육성보다는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과 같은 자원채굴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수출 증대에 치중하였다.

2. 2000년대 이후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

한편, 1990년대 이후 각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economic vulnerability)'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별 '취약성 지수(vulnerability index)'라는 측정지표를 통해 각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25] 이와 같은 계량적 지표를 통해 2002년 측정된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 지수(EV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

23) IMF, "Mongolia: Ex Post Assessment of Longer-Term Programme Engagement," *IMF Country Report*, No. 05/407, November, 2005, p. 30.

24) Keith Griffin et al., "A Strategy for Poverty Reduction in Mongolia," UNDP, July, 2001, pp. 17-27.

25) 브리구글리오(Lino Briguglio)의 취약성 지수에 포함되었던 변수로는 첫째, 대외경제에 대한 노출정도로서 여기에는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 해외로부터의 기술과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 국가경제의 대외가격 의존도 등이 포함되며, 둘째,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셋째, 재해가능성 등이 측정되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세계 114개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여기에 몽골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2년 멜빌(Juliet Melvile)과 브레스웨이트(Joy Brathwaite)는 브리구글리오의 취약성 지수를 바탕으로 전 세계 94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계량적 지수로 측정하였다. 이 지수에는 총 5개의 요소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이 측정되었는데, 첫째는 주변성 및 에너지(peripherality & energy) 항목으로 주요 수입품에 대한 운임과 보험료 비중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비중을 나타낸다. 둘째는 수출품 집중도(export concentration)로 주요 수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셋째는 주요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convergence of export destination)로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나타내며, 넷째는 대외자본 의존도(reliance upon external finance/capital)로서 연간 해외원조금액(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과 해외직접투자(FDI) 유입금액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는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 to natural disasters) 이다.

<표 3>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 지수와 순위(2002년)

구분	합계(EVI)	주변성 및 에너지	수출품 집중도	수출국 집중도	대외자본 의존도	자연재해 민감성
지수	0.63	0.35	0.59	0.85	0.79	0.54
순위	22위	64위	38위	11위	10위	16위

* 주: 1. 지수는 1점 만점으로 클수록 취약성이 높음.
2. 순위가 높을수록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으며, 전체 국가는 94개국을 대상으로 함.
* 자료: Juliet Melvile and Joy Brathwaite, Revised Economic Vulnerability Index-2002, Indices and Ranking of two stage normalized parameters

2002년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 지수는 0.63으로 비교대상인 전체 94개 국가가운데 22위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몽골의 취약성 정도는 아프리카의 수단(Sudan)과 말리(Mali)등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몽골보다 취약성이 높거나 비슷한 국가 가운데, 인구 규모에서 수단(약 4000만 명), 캄보디아(약 1500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약 970만 명), 아이티(약 900만 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가 매우 적은 태평양의 작은 도서국가에 해당되어 몽골 경제의 취약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출국 집중도와 대외자본 의존도의 지수는 각각 0.85와 0.79로 측정 되었고 11위와 10위의 순위로 나타나, 두 항목의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주요 수입품에 대한 운임과 보험료, 에너지 자원의 수입비중을 나타내는 '주변성 및 에너지' 항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수출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운임과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소비의 59%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을 자립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있다.[26] 1990년대 초 개혁초기의 에너지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시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대외로부터 의존하던 상황에서 원유생산이 늘어난 것도 비교적 에너지 수급상황을 호전시켰다고 볼 있다. 2002년의 연구 이후, 2009년 블랑샤(Stéphane Blabcard)와 호로(Jean-François Hoarau)는 국가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130개국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외부충격에 대한 규모 및 빈도지표와 충격에 대한 노출도를 기준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평가하였다.[27] 이 지표는 주요 수출품 및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과 수출 집중도,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의 지수를 통해 측정되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2009년의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 지수는 44.188로서 평가대상 130개국 가운데 32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는 알 없으나,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아이티(Haiti), 바하마(Bahamas)나 잠비아(Zambia), 수단(Sudan) 등과 비슷하여 2002년도의 결과와 비교할 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몽골의 경제적 취약성은 2002년의 연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던 수출품목의 집중도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몽골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2002년도 광물자

26) 몽골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석탄이 59%, 원유가 31%, 바이오매스(biomass)와 재생에너지가 9%, 수력자원이 0.02%를 차지하는 구조로 석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 United Nations, "From Vulnerability to Sustainability: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 *Mongoli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2011, p. 37.

27) Stéphane Blabcard and Jean-François Hoarau, "Ar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ore Economically Vulnerable than Others? An empirical approach using composit indicator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2011, pp. 1-13. (http://ecours.univ-reunion.fr/cemoi/images/bla_hoa_evi_28_12_2011__V6.pdf, 12-07-05.)

원과 비광물자원의 수출 비중은 각각 54.4%와 45.6%로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3년 55.6%와 44.4%로 차이가 늘어났고, 2004년 63.7%와 36.3%, 2005년 70.7%, 29.3%로 격차를 벌여나갔다. 그리고 2007년에는 78.7%와 21.3%로 광물자원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28] 2000년대 후반이후 이러한 경향은 자원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2000년대 후반이후 몽골의 주요 수출품에서 광물자원과 광물자원 이외의 부문의 수출금액과 비중을 보여준다.

<표 4> 2000년대 후반 이후 부문별 몽골의 수출금액과 비중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총액		1,876	2,899	4,296	4,922
광물자원	금액	1,560	2,521	3,742	4,392
	비중(%)	83.2	87.0	87.1	89.2
비광물자원	금액	316	378	554	530
	비중(%)	16.8	13.0	12.9	10.8

* 주: 1. 금액의 단위는 백만 달러(U$)임.
2. 비중은 자료로부터 저자 직접 계산함.
3. 2011년과 2012년은 IMF의 예상 수치임.
* 자료: IMF, Country Report No. 12/52, 2012.

몽골의 수출 총액은 2009년 18억 7600만 달러(U$)에서 2012년 49억 2200만 달러(U$)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광물자원의 수출이 2009년 3억 1600백만 달러(U$)에서 2012년 5억 3000만 달러(U$)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비광물자원 분야보다는 광물자원 분야의 수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물자원의 수출은 2009년 15억 6000만 달러(U$)에서 2010년 25억 2100만 달러(U$)로 약 62%가량 크게 성장한데 이어, 2011년 37억 4200만 달러(U$) 및 2012년 43억 9200만 달러(U$)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상대적인 높은 수출성장은 전체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2009년 광물자원과 비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은 각각 83.2%와 16.8%를 차지했으나 2010년 87.0%, 13%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2012년에는 광물자원의 비중이 8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10년 전인 2002년도의 수출비중과 비교할 때 2012년에 예상되는 몽골의 광물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몽골의 대외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광물자원 분야의 수출확대는 주요 수출광물인 석탄의 국제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인 2009년 3분기 국제석탄가격은 톤당 71.50 달러(U$)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분기 95.19 달러(U$), 2분기 99.54 달러(U$)로 상승한 이래, 2011년 1분기에는 129.17 달러(U$)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유럽재정위기확대 등으로 인해 2012년 1분기 톤당 95.67 달러(U$)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 3분기를 바닥으로 2015년 2분기까지 국제석탄가격은 장기적으로 톤당 131.04 달러(U$)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9] 그러나, 원자재 가격은 국제경기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럽재정위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몽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30] 더구나 몽골은 수출의 대부분을

28) IMF, “Mongolia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IMF Country Report,* No. 08/201, July, 2008, p. 83.
29)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석탄가격 전망(http://www.kores. net/v2009/ index.jsp, 12-07-06.)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초기인 1990년대 초반 몽골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1993년 17.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대한 비중은 매우 크게 늘어났다. <표 5>는 2000년대 후반 몽골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여준다.

<표 5> 2000년대 후반 몽골 수출과 중국의 비중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수출	1,947.5	2,534.0	1,885.0	2,908.0
대 중국수출	1,411.4	1,635.9	1,393.9	2,466.3
중국 비중(%)	72.5	64.6	73.9	84.8

* 주: 1. 금액의 단위는 백만 달러(U$)임.
2. 비중은 자료로부터 저자 직접 계산함.
*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Export by Countries 각 연도별 자료.

몽골의 수출은 2007년 19억 4750만 달러(U$)를 기록한 후 2008년 25억 3400만 달러(U$)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2009년 18억 8500만 달러(U$)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29억 800만 달러(U$)의 수출을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7년 14억 114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에서 72.5%를 차지하였고 2008년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 다시 70%대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84.8%를 차지하여 몽골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몽골의 대외수출은 주요 수출품에 있어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과 수출국에 있어 중국이라는 두 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룬 이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인구규모와 소규모 국가라는 한계로 인해 제조업이나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지리적 특성을 장점화한 전략을 추구할 수도 없었다. 몽골 경제에 있어 광물자원과 중국이라는 수출상품과 수출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몽골 경제의 대외변수에 대한 취약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자국의 석탄 생산과 소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31]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몽골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 및 소비국으로 중국의 석탄 수입정책은 국제석탄가격과 국내석탄가격의 차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32] 즉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탄가격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가격보다 높을 때, 중국의 해외석탄 수입은 언제든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자국의 석탄 수입국가 중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2009년 기준

30) 국제원자재 가격은 투기적 선물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세계경기흐름에 따라 조정을 받는다. 몽골과 같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국제경기의 악화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자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가 러시아로, 원유와 가스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동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심각한 국내경기 하락을 경험하였다. 2011년 기준 몽골의 GDP는 85억 달러(U$), 수출입 총액은106억 달러(U$)에 달해, GDP 대비 수출입 총액의 비중이 125%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출입 비중은 몽골경제의 대외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1) Bloomberg, “China To Restrict Coal Demand, Output to 3.9 Billion Tons,” March, 22. 2012. (http://www.bloomberg.com/news/2012-03-22/china-to-restrict-coal-demand-output-to-3-9-billion-tons.html, 12-07-06.)

32) Richard K. Morse and Gang He, “The World’s Greatest Coal Arbitrage: China’s Coal Import Behavior a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Coal Market,”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ESD Working Paper,* No. 94, 2010, pp. 1-21.

중국의 석탄 수입은 약 1억 2600만 톤이며 이 가운데 호주로 부터의 수입이 약 4400만 톤으로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 약 600만 톤으로 전체 수급에서 4.7%에 머무는 수준이다.[33] 현재 중국의 석탄 수급구조는 몽골로 부터의 석탄수입을 줄이더라도 다른 국가를 통해 자국이 필요한 석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이 몽골로부터 석탄 수입을 줄인다면 이는 몽골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몽골에 대한 투자는 2006년 1억 7200만 달러(U$)에서 2007년 3억 3900만 달러(U$), 2009년에는 6억 1300만 달러(U$)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대비 약 71%감소한 약 1억 7600만 달러(U$)에 그쳤다.[34] 몽골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자원 채취와 같은 광물자원 분야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중국의 몽골에 대한 투자 감소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장기적인 중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몽골로서는 수출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 및 석탄의존은 국제경제의 흐름에 따른 몽골의 경제안정성을 저해하고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을 높일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Ⅳ. 한-몽 경제협력과 한국의 전략

몽골은 최근 들어 한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관계는 1990년대 몽골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교역의 성장은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 한국의 몽골에 대한 수출은 약 7600만 달러(U$), 수입은 230만 달러(U$)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처음으로 수출이 1억 달러(U$)를 넘어선 이후,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수출이 2억 달러(U$)를, 수입도 3천만 달러(U$)를 초과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약 83%나 증가한 약 3억 5000만 달러(U$)를, 수입이 56% 증가한 6000만 달러(U$)를 넘어서는 등[35] 해가 갈수록 양국 간의 교역량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주요 수출품으로는 화물자동차, 승용차, 건설 중장비 등의 기계 장비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금속광물과 유연탄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2010년 금속광물 수입이 약 3400만 달러(U$)로 전체 수입액의 86.9%를 차지한 가운데, 비금속광물의 수입 비중은 7.9%에 그쳤으며 그 이외 기타 품목의 수입액은 매우 미미하였다. 2011년 금속광물의 수입은 전년 대비 8.7% 상승한 약 3700만 달러(U$)에 달했고, 비금속광물의 수입은 약 280만 달러(U$)에 그쳤으나 2010년 유연탄수입이 본격화되어 약 1840만 달러(U$)가량의 수입이 이루어졌다.[36]

몽골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국가발전계획에 따르면, 몽골정부는 광산개발, 목축업, 커뮤니케이션과 수력발전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관광산업 등을 향후 몽골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37] 특히 몽골정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1차 산업개발단계에서 각 산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발계획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38] 첫째, 주요 광산의 개발과 원

33) Ibid., p. 7.
34)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 FDI by country (http://www.investmongolia.com/fiftanew/contents.php?id=7&sId=11&lang=Eng, 12-07-06.)
35)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수출입자료(몽골): 2001-2011년. (http://www.kita.net/statist-ic/index. jsp, 12-07-28.)
36) 한국무역협회 국가/품목별 수출입자료(몽골)에서 비중은 저자 직접 계산.
37) Mongolian President's Policy and Action Plan for 2005-2009, pp. 5-14, (http://www.soros.org/pdf/news/PresidentMuriinHutulbur2005en.pdf, 12-07-13.)

자재 가공기술 수준의 향상 및 원유채굴 증대, 둘째,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한 섬유, 건축자재 및 바이오, 유전자,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지향 상품의 생산 확대, 셋째, 중소 생산기업 및 서비스업종(small and midium size production and services) 경쟁력 강화, 넷째, 수자원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농식료품 산업의 발전, 다섯째, 국가주도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계획 가운데 한국정부가 주요 협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몽골의 석탄개발 산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의 홋고르(Khotgor)탄광지분을 인수하면서 몽골의 유연탄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홋고르 탄광은 몽골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개발초기단계의 노천탄광으로 총 광구면적이 1만 2373ha에 달하고, 개발권 구역 내의 매장량이 1억 900만 톤, 평균 탄질이 7000kcal에 이르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탄광으로 알려져 있으며[39] 추가적인 개발이 본격화되면 동 부문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타반 톨고이(Tavan Tolgoi)유연탄 광산은 제철용 결탄을 비롯해 64억 톤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미개척 광산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광물자원공사 등 7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 광산의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몽골정부는 동 광산 개발과 관련한 국제입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혼선 끝에 사업자 선정이 백지화되었고, 향후 재입찰의 과정을 거쳐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1차 입찰이 백지화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한국기업으로서는 1990년대 개발초기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몽골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몽골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부터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다. 1998년과 2002년의 초기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목적을 두고 투자에 대한 감세와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2008년 갱신된 외국인 투자법은 몽골산업에서 발전단계가 낮고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나, 몽골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투자가 몽골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40] 광물과 광산개발 분야는 현재 몽골의 산업부문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분야이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위험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물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수출품과 수출국의 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몽골의 입장에서 몽골경제의 집중화된 대외적 의존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경제협력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강화가 자국경제의 대외 의존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면 이는 몽골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한 투자의 집행이 아니라, 몽골정부의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몽골의 수출국과 수출품목의 편중성과 의존성을 줄이는 대안으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

38) Millenium Development Gola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pp. 33-39,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MONGO-LIA/Resources/NDS_ DRAFT_ENG.pdf, 12-07-13.)

39)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https://www.kocoal.or.kr/board/read.php?table=1002&num-ber= 4051&page=9&sel=&search=, 12-07-02.)

40) Ganzorig, B. and Nachin, D. "몽골내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와 투자 유망분야," 제 1차 한-몽 국제세미나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협력방안', 2012년 5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p. 19.

첫째는 광물의 2차 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수출품의 약 90%를 광물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 정부로서도 이러한 수출품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다른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몽골의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금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타반 톨고이 광산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출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핵심 산업은 광물자원으로서 현재까지 몽골정부의 산업발전 정책도 광물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에 있어서 단순한 자원개발-수출로 이어지는 도식적인 개발의 형태를 벗어나, 자원개발이후 가공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수출품의 단순 수출로 초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석탄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발전 분야이다. 한국은 발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추진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또한 잉여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개발방식은 몽골로서는 단순한 광물 수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한국으로서는 기술의 우위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몽골의 국내전력 수요는 매년 5-7%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력발전의 상당부분은 러시아로부터의 전력공급에 의존하고 있다.[41] 따라서 한국과의 발전분야에서의 협력은 몽골경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분야에서의 몽골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몽골의 광물자원개발과 몽골의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광물수출 방식의 다변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데, 공동 개발된 광물자원 및 2차 가공품의 수출을 몽골정부와 함께 중국이 아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한국 또는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로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대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9년 3월 러시아와 몽골은 협약을 통해 양국 간의 철로의 추가 건설, 철도 시스템의 개선과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기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으며,[42] 새로운 철도 연장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양한 수출루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몽골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이해하고 광물자원 수출루트를 다양화하는데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훗고르 탄광개발을 통해 2011년부터 한국에 대한 유연탄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훗고르 탄광개발과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광물자원 또는 가공된 광물자원을 한국으로 직접 들여오거나, 주변국에 자원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수출정책은 최근 중국정부의 석탄사용 감소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몽골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강화와 수출루트의 공동개발을 부각시키는 것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방안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수출루트의 다변화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공동개발이다.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개발에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연계되는 자원개

41) Douglas Bowman, “Proposed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design for Mongolia's Central Electricity System,” *USAID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Report,* November, 2008, p. 5.
42) Eurasia Capital, “Infrastructure in Mongo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pril, 2009, pp. 18-19. (http://www.associm.com/newsletters/pdf/INFRASTRUC-TURE_final.pdf, 12- 07-13.)

발과 수출 등의 프로젝트에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동부지역의 주요 광산들과 기존의 간선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광물자원 개발과 인프라개발, 나아가서 수출루트 개발까지 아우르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국과 몽골이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몽골의 녹색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투자 강화이다. 몽골의회는 2007년 1월, 국가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25%까지 확대하는 국가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역에 풍력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와 합작으로 '살킷 풍력농장'(Salkhit wind farm)을 건설하고 유럽부흥은행(EBRD)으로부터 총 4700만 달러(U$)의 자금을 공여받기로 하였다.[43] 이 풍력발전소는 몽골에서 건설되는 최초의 풍력발전소로서 몽골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몽골의 풍력발전 여건은 주로 몽골 동남부 지역의 초속 5.6-6.4미터의 풍속이 계측되는 지역에서 가능한데, 이 지역은 몽골 전체 국토의 40%에 달한다. 또한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풍속이 초속 6.4-7.1미터에 달해 풍력발전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44] 몽골의 풍력 자원 잠재력은 크다고 판단된다. 몽골에서 에너지생산의 상당부분이 대기오염과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 되는 석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풍력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단순히 환경 파괴적인 요소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몽골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몽골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동 분야에 진출해 있고, 서구의 기업과 비교할 때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몽골의 석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게 되어 몽골경제 내수의 측면에서 탄소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자립도를 높여 시장개혁초기와 같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몽골 경제의 대외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방편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600만 달러(U$)에 달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무상원조 규모 2위이며 비율도 8%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에 지원된 한국의 무상원조 금액은 약 1억 달러(U$)에 달해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원조하는 국가이다.[45]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에는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유상원조인 양허성차관이 포함된다. 한국의 양허성 차관 공여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위해 설정한 것이다.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성공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될 확률이 적다.[46]

---

43) The Business Council of Mongolia, "EBDR provides financing for salkhit wind farm," 29, March, 2012, (http://www.bcmongolia.org/news/1902-ebrd-provides-financing-for-salkhit- wind-farm, 12-07-14.)

44)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Renewable Energy in Mongolia," (http://toolkits.reeep.org/file_upload/10303046_4.pdf, 12-10-30)

45) KOICA,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2012, pp. 100-109.

46)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2011 연차보고서," 2011, p. 54.

한국의 몽골에 대한 양허성 차관 공여 규모는 2010년 기준 1010만 달러(U$)로 무상원조 금액과는 달리, 2010년 한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수혜 상위 10개 국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이다.[47] 2011년에도 몽골에 공여된 양허성 차관 지원 사업은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의 한 건에 그치고 있는 등 무상원조에 비해 양허성 차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11년 한국의 양허성 차관 지원 금액 가운데 개도국의 경제 인프라에 지원한 비중이 62.1%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몽골에 대한 양허성 차관 지원은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정부는 단순한 광물의 수출에서 벗어나 원자재 가공기술의 발전,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한 각종 산업의 육성 등의 정부주도 개발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효율적 자원개발을 위한 철도 인프라 개발 등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양허성차관이 몽골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경제 인프라 건설에 공여된다면 다년간의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장기간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꾸준한 무상지원을 통한 몽골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인 관계강화를 지속해 나가되, 양허성 차관이라는 유상지원을 통해서는 몽골정부의 정책과 필요성, 한국정부의 추진방향과 산업의 강점을 결부시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몽골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 2006-2007년 두 해 동안 각각 18.8, 10.2% 라는 매우 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12-2013년에도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등의 자원 보유량이 매우 높은데, 몽골의 석탄 수출은 2007년 326만 톤, 2008년 416만 톤, 2009년 711만 톤, 2010년에는 1663만 톤에 달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몽골의 경제성장이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타반 톨고이 광산의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면 몽골의 경제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체로 몽골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몽골에 진출하는 한편,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높은 경제적 성장과 성과에 묻혀있으나 몽골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변수들을 갖고 있다. 소규모 인구 저밀도국은 내수인구의 규모가 작아 산업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성장 전략으로 산업화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한정된 물적, 인적자본으로 인해 소규모 국가들은 대체로 소수의 자연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내 생산과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교역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있지 않으며, 소수의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몽골의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시장규모이다. 또 300만 명 가운데 빈곤층이 다

47) Ibid., p. 49.

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의 총수요가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붕괴이후 몽골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식의 시장경제를 추구해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왔다. 개혁이전의 몽골 경제는 소비에트권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특히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개혁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지리적 인접국인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몽골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커졌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몽골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수출품의 대부분이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몽골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몽골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변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몽골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석탄 사용에 대한 중국내의 수요 역시 감소세에 있다. 몽골은 이러한 외부 변수에 대응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네덜란드나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등은 그들 나름의 조합주의(corporatism)모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들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의 싱가포르는 적은 국토면적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와 규제철폐를 통해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체제전환의 경과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 부재 및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등으로 인해 단일국가와 단일 수출품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공고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몽골의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몽골과의 경제협력에서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접근방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원의 채취-수입으로 이어지는 협력관계가 아니라,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를 활용한 2차 가공 산업의 공동개발, 수출루트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 및 나아가 녹색에너지 산업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몽골의 대 중국 및 광물 위주의 수출의존성을 완화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보다 굳건히 하고, 단기적인 자원획득 목적의 단순한 경제적 대상이 아닌 공동의 산업전략 추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대외의존성을 분산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몽골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011. “EDCF 2011 연차보고서.”
이재영, 2010. “신아시아 시대 한국의 대몽골 진출전략.” 제 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추원서, 강명구, 2012. “한몽골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KDB 산업은행, 금융-경제이슈.
Ganzorig, B. and Nachin, D. “몽골내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와 투자 유망분야.” 제 1차 한-몽 국제세미나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협력방안’, 2012년 5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KOICA. 2012.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Armstrong, H. W. and Read, R. 1998. “Trade and Growth in Small States: The Impact of Global Trade Liberalisation.” *The World Economy*, Vol. 21, Issue. 4.
Armstrong. H. W. and Read, R. 2003.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Small States.” *The Round Table: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2, Issue, 368.
Armstrong, H. W. and Read, R. 2004.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mall States and Islands: The Importance of Geography.” ISLANDS of the WORLD Ⅷ International Conference, 1-7 November, Taiwan.
Armstrong, H. W., De Kervenoal, R. J., Li, X., and Read, R. 1998. “A Comparison of the Economic Performance of Different Micro-states, and Between Micro-states and Larger State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4.
Briguglio, L. 1995.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ir Economic Vulnerabilities.” *World Development*, Vol. 23, No, 9.
Bowman, D. 2008. “Proposed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design for Mongolia's Central Electricity System.” *USAID Economic Policy Refor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Report.*
Bulcke, D. V. D., Verbeke, A., and Dunning, J. H. 2001. *Globalization and the Small Open Economy*, UK: Edward Elgar.
Cameron, D. R. 1978.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4, December.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World Bank. 2000. “Small States: Meeting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Report of Joint Task Force on Small States*, April,
Encontre, P. 1999. “The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3.
Faye, M. L., Mcarthur, J. W., Sachs, J. D., and Snow, T. 2004. “The Challenges Facing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5, No. 1, March.
Griffin, K. et al., 2001. “A Strategy fo Poverty Reduction in Mongolia.” UNDP, July.
IMF. 2005. “Mongolia: Ex Post Assessment of Longer-Term Programme Engagement.” *IMF Country Report No. 05/407*, November.
IMF. 2008. “Mongolia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IMF Country Report No. 08/201,* July.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se, M. A. 2002. “Explaining business cycle in small open economies 'How much do world prices mat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es*, Vol 56.
Morse, R. K. and He, G. 2010. “The World’s Greatest Coal Arbitrage: China’s Coal Import Behavior a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Coal Market.”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ESD Working Paper*, No. 94.
Sachs, J. D. and Warner, A. M. 1997. “Sources of Slow Growth in African Economies.”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Vol. 6, No. 3, December.
United Nations, 2011. “From Vulnerability to Sustainability: Environment and Human Development.” *Mongoli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몽골 통계청.
몽골 외국인 투자 및 무역청.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수출입자료(몽골): 2001-2011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시스템.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석탄가격 전망
Blabcard, S. and Hoarau, J-F. “Ar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ore Economically Vulnerable than Others? An empirical approach using composit indicator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2011.((http:// ecours.univ-reunion.fr/cemoi /images/bla_hoa_ evi_28_12_2011_V6.pdf)
Bloomberg. “China To Restrict Coal Demand, Output to 3.9 Billion Tons.” March, 22. 2012. (http://www.bloomberg.com/news/2012-03-22/china-to-restrict-coal-demand-output-to-3-9-billion-tons.html)
Eurasia Capital. “Infrastructure in Mongo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pril, 2009. (http://www.associm.com/newsletters/pdf/INFRASTRUC- TURE_final.pdf)
Millenium Development Gola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MONGO- LIA/Resources/NDS_DRAFT_ENG.pdf)
Mongolian President’s Policy and Action Plan for 2005-2009.(http://www.soros.org/pdf/news/PresidentMuriinHutulbur2005en.pdf)
Renewable Energy & Energy Eifficiency Partnership. “Renewable Energy in Mongolia.” (http://toolkits.reeep.org/file_upload/10303046_4.pdf)
The Business Council of Mongolia, “EBDR provides financing for salkhit wind farm.” 29, March, 2012. (http://www.bcmongolia.org/news/ 1902-ebrd-provides-financing-for-salkhit-wind-farm)

다문화아카이브 설립을 통한 한-몽골 교류의 지평 확대

최재희(고려대)

《목차》

Ⅰ. 머리말
Ⅱ. 다문화사회와 소수집단의 정체성
  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
  2.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
Ⅲ. 몽골 출신 이주민의 정체성 위기
Ⅳ. 아카이브의 사회통합 역할: 영국사례
Ⅴ.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 방안 모색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날 교통혁명, 통신혁명, 정보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정보혁명의 영향은 놀라울 정도이다. 영국의 경우, 5천만 명이 라디오를 소유하는 데 40년이 걸렸으며 같은 수의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는 데 16년이 걸렸다. 그러나 5천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데에는 단 5년이 소요되었을 뿐이라고 한다.[1]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정보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혼합해 전혀 다른 새로운 정보와 도구, 서비스를 창출하면서(data mashers)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로 변하고 있다.

지구화 흐름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또 다른 계기는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해체였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지구화의 흐름에 장애요소였던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해소되었고, 이제 전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지구화가 대세가 되었다.

이제 21세기의 지구화 추세는 불가피하다. 『제 3의 길』로 널리 알려진 기든스도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구화를 들고 있다. 기든스는 21세기에는 지구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어 나갈 것이고 각 지역이나 민족국가들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탈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

‘분기(divergence)’와 ‘수렴(convergence)’, ‘전염(contagion)’, ‘체제(system)’이론 등 지구화의 흐름을 고찰하는 몇 가지 역사학의 관점이 있다.[3] 어떠한 관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구화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 사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전면적 교류와 다층적 접촉 확

1) E. Mayo and T. Steinberg, UK: The Power of Information: an Independent Review(2007), p, 9.
2)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생각의 나무, 2001), p. 23.
3)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서울: 휴머니스트, 2010)

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와 접촉은 바로 직접적인 해외 이주(emigration)와 국내 이주(immigration)구분 가능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제반 현안들이다.

이미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규정된다. 이를 전제로, 이 글은 '기록' 및 '몽골'에 주목한다.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으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특히 맥락에는 기록의 생산, 접수 또는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한다.[4] 그리고 기록은 출생·결혼·사망 등 개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정체성과 자아 확인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기록은 개인·집단·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속성을 가지므로, 기록 생산과정 자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5]

따라서 기록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를 위한 촉매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풍부한 기록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 문화들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문화 출신의 체재 또는 이주자의 증가는 단순히 교류의 차원을 넘어 공존과 소통, 상생의 문제로 확대된다. 언어문제 지원이나 경제적 처방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문화적 접근, 특히 개인과 (소수집단)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록을 통한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며, 이 글에서 기록과 관련해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소수집단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몽골과 한국은 역사·문화·정서에서 다른 다문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현대에 들어와 한-몽골 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과 몽골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분야의 우호 관계는 이 글이 강조하는 '기록'에 기반 한 다문화 문제 해결과 상호 이해와 공존에 실현가능성을 더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다문화사회와 소수집단의 정체성

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는 굴곡진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방 당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한국인의 수는 4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 총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해방 이후에는 『해외이주법』 등 국가 차원에서 이주가 권장되었다. 한국은 남북한에 칠천이백만 명이 살아가는 단일 종족, 단일문화 국가[6]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칠백만 명의 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기도 하다.

4)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 용어 사전』(서울: 역사비평사, 2008), 45쪽.
5)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2001), pp. 7-8.
6)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으로는 화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882년에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교는 중국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교는 외화사용 규제와 통화개혁,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등의 각종 차별을 겪어야 했고 그 수도 크게 감소했다.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남쪽에는 주한 미군 및 이들과 결합한 한국여성과 그 자녀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한국은 反다문화 국가였다.[7]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본격화되고 그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는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국내 이주는 크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1991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화되었다. 2003년부터 기업이 직접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기간도 삼년으로 연장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어 외국 국적 동포가 삼년 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로 국내로 이주한 동포의 수는 2012년 초 36만 명에 달한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게 된 이민자의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당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으나 2010년에 그 수는 34,235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10.5%를 차지한다.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결혼 10건 당 평균 4건 정도가 국제결혼인 실정이다.[8] 2011년 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에 달한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조선족 출신 43,549명을 포함해 중국 출신이 53,546명이며 베트남(41,693명), 필리핀(11,874명), 일본(9,877), 캄보디아(4,404명), 몽골(2,798명), 태국(2,74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해외이주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외국 출신의 꾸준한 국내 이주로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경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통신혁명이나 정보혁명과 더불어 이러한 직접적인 인적 교류와 문화 접촉을 토대로 한 지구화는 한반도의 현실이 되었다.

2.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

지구화와 더불어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학, 여성학, 철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들 중에서 이주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접촉과 교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19세기 이래 지구화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식민주의와 민족국가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조건 하에서 서유럽-미국적 규범의 확산을 의미했었다. 이 패러다임 내에서 지역과 국가, 민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계서화 되었고 세계사는 획일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동구권의 몰락은 위와 같은 역사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과 흐름은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서구 중심주의적 인식

7)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사회와 철학』, 제18권(2009년), 310쪽.
8) 통계청, e-나라지표, 결혼이민자 현황(2010),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19

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된다. 경제적·문화적 차이는 이제 더 이상 후진성의 지표가 아니라 서구를 모델로 한 획일적 보편성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이해에 기반 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순수한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던 한국도 서구중심주의에 기반 한 근거 없는 배타적 우월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와 경제발전 이후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지표가 타 문화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소득수준과 피부색이 대체로 일치하기에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당연시되었다.

여기에다 한국은 암묵적이건 표면화되었건 전통적으로 출신, 학벌,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엄존했으며 현재도 이러한 차별이 엄연히 남아있는 사회이다. 박병섭은 이를 유교관습-반상(班常) 위계 잔재형 민족국가라고 부른다.[9] 자국민 내에서도 출신, 학벌,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현실인 사회에서 주로 경제적 배경으로 한국을 찾은 피부색이 짙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보는 시각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국내 거주외국출신을 대상으로 국내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10] 이 연구에 따르면, 親한국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백인 서양인들이었다.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인들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부류에 속했다. 반면, 反한국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국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종적 배타성으로 인해 감성적 상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지의 유색인들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인종차별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발전과 피부색에 따른 한국사회의 차별과 계서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동화주의(同化主義)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동화주의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집단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소수집단의 적응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입장과 배치되는 말이다. 소수집단은 다수집단이 주도하는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필요로 한다. 동화의 압력에 직면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대 세계에서 동화주의는 시민권을 함양하고 언어와 역사를 통한 공통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동화의 대상이 되는 소수집단에게 동화주의는 강요를 동반하며 배제와 차별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다양한 내부 차별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문화수준을 결정하는 절대적 지표가 되는 사회에서,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순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동화주의는 소수자에게 사회적 위계질서의 하층으로 편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동화주의는 소수집단과 개인의 정체성 상실로 표면화되기 마련이다. 정체성 상실은 다시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로 이어진다. 2001년 영국정부는 사회적 소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회적 소외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저소득, 가정 내 갈등, 학교문제, 전과 경험, 소수민족 출신, 빈곤지역 거주자, 정신적 문제, 노령, 장애 등이 포함된다."[11] 사회적 소외의 대상이

9)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310쪽.
10) 임도경,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주관성 연구』제20권(2010년), 115-116쪽.
11) MLA, A New Directions in Social Policy: Communities and Inclusion Policy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2004), p. 5.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자 집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소외는 경제적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12] 이것은 다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된다. 이것은 다문화 소수집단의 모국과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지구화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다문화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문화 문제는 이주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Ⅲ. 몽골 출신 이주민의 정체성 위기

한국 내 몽골인의 숫자는 2003년 당시 2만3천명 정도였다. 외국 거주 몽골인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13] 주한 몽골대사관은 한국에 체류중인 몽골인의 숫자를 3만7천 명 정도로 추산한다.[14] 이는 2011년 기준 몽골 전체 인구인 287만 명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인구 비율 대비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몽골인이다.

먼저 이주노동자를 살펴보자. 2004년 5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MOU'가 체결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한국에서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와 합격자 수는 국내 몽골인의 수를 파악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2005년 실시된 제1회 시험부터 5회까지 2만 3천명(23,337명)이 합격했고,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몽골 이주노동자의 수는 21,443명이다. 이는 15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전체 이주노동자 수 24만1천명의 8.7%에 해당한다.[15]

몽골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한 몽골대사관은 이들의 수가 대략 2만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 몽골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50대 이상은 1천명 미만으로 대부분 젊은 층의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16]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몽골 학생의 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국내의 몽골 유학생 수는 중국 유학생 다음인 4,958명에 달하고 있다. 유학생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등 젊은 층의 몽골인이 한국과의 문화접촉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물론 한국-몽골 관계를 오랫동안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1,648건으로, 이는 몽골 여성의 전체 국제결혼 2,106건의 80%를 차지한다.[17] 2011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결혼이민자의 수는 2,798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결혼이주자의 2%에 해당하지만, 몽골의 인구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다.

몽골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였다. 몽골 여성들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의식

12)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Research Quarterly(2000), p. 3.
13) 정병웅, "몽골 한국관광의 활성화와 한·몽 관광협력 방안,"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년), 162쪽.
14) D. 게렐, "우리도 EU처럼 동북아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민족21』 제97호(2009년). 54쪽.
15)『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6월24일.
16) D. 게렐, "우리도 EU처럼 동북아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54쪽.
17)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한국여성학』 제24권1호(2008년), 123쪽.

이 강하고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 등 사회적 참여도 많으며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한국인 남편보다 고학력인 경우도 많다.[18]

그러나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과정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몽골 여성은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들은 신부가 결혼 후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후 2, 3개월 내에 무단가출하거나 신랑의 잘못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몽골 평균 임금의 15-30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러한 중개시스템은 고유한 권리인 결혼 결정권이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몽골 여성의 선택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 등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도 다수였다. 이른바 유도된 결혼 이주(induced marriage migration)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결혼 중개 방식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최대 이윤의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언어문제, 가치관 차이, 문화 갈등과 더불어 결혼 과정에서의 소외는 일차적 생활세계인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당한 갈등과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19] 이들은 주관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아를 상실한 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었다. 가정생활에서의 소외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동화와 적응의 압력, 고립과 좌절감, 다시 소외와 외로움이 반복될 수 있다. 남편의 착취와 심각한 가정폭력, 성적 학대 등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와 여성차별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몽골 여성들은 고향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류층에 속했으며 따라서 그 공동체의 주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몽골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외로움 속에는 좌절감이 담겨있다. 이들은 잘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열등감, 노력해도 결국 안 될 거라는 패배감 등에 자주 시달리고 있었다. 자아 존중의 상실을 신앙공동체에서 회복하려 했으나 결국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20]

한국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자아 위축을 경험한 몽골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아이들의 미래 진로선택과 사회적응력을 위해 독립심을 강조하는 특성도 보였다.[21]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으로 축소된 자기 존엄성 회복을 위해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루가 자녀의 성공이 되는 셈이다. 지극한 자녀에의 헌신은 자기 존재에 대한 결핍 욕구와 정비례한다.[22] 이들의 정체성 상실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사회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위협이 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몽골의 이주노동자들도 몽골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이름뿐인 다(多)문화일 뿐 실상은 ‘단(單)문화’ 정책이며 새로운 사회통합

18) 위의 글, 129쪽.
19)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1호(2007), 쪽.
20) 허미화,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한국영유아보육학』 제59집(2009), 293쪽.
21) 박찬옥, 이은경,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다문화콘텐츠연구』 12권(2012), 85쪽.
22) 허미화,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 297쪽.

정책이 필요하다거나,[23] 우리 사회에 겉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가치관과 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24]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문화 문제는 언어교육이나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자존(self-respect) 회복을 위한 문화적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몽골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에 갈증을 느낀다는 연구결과[25]는 주목할 만하다.

Ⅳ. 아카이브의 사회통합 역할: 영국 사례

영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며 다문화사회이다. 1971년 영국 인구는 5천2백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이민자의 수는 약 2백40만 명으로 전체의 4.55%에 해당했다. 2001년에 이민자의 수는 4백3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영국 전체 인구의 7.53%에 달했다. 이것은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자들의 통계로 이민자의 후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26]

1997년 5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영국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빈민층 증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심각한 후유증은 남겼다. 특히 유색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불만은 우려할 만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견고한 공동체를 목표로 한 사회정책이 실시되었고 사회통합이 가장 긴급한 요구사항이 되었다.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대표적 문화기관들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회통합은 경제 분야의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27]

2001년에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MLA)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카이브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응답자의 82.4%가 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대답을 했다. 65.9%는 아카이브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72.4%는 가족과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에, 그리고 20.3%는 업무와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28]

흥미로운 것은 아카이브가 가족과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역사적 가치나 증거 가치를 가진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열람을 제공하는 아카이브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아카이브가 이민자 등 소수집단의 정체성 강화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까? 영국의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은 대부분 영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달리 아카이브는 소수집단의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던 문화기관이었다.

영국의 기록물관리기관협의회(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2001년에 이미 기록물관리기관

23) 허미화,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 298쪽.
24) 양애경, 이선주, 최훈석, 심선화, 정혁.『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
25) 조현성.『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2008)
26) Moving Here 홈페이지. http://www.movinghere.org.uk/schools/People/migration.htm
27)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구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2호(2008년12월), 64-65쪽.
28) MLA, A New Directions in Social Policy: Communities and Inclusion Policy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2004), p.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아카이브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29] 그 방식은 바로 소수집단의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문 아카이브를 통해서이다.

먼저 영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우리의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를 보자. TNA는 2001년부터 'CASBAH(Caribbean Studies and Black and Asian History)'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것은 영국 내 흑인과 아시아인과 관련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원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2003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The Community Access to Archives Project'는 낙후한 산업지역인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와 런던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자 이민자 출신의 유색인종이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해크니(Hackney)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소수민족의 기록을 수집한 프로젝트였다.

'Moving Here'는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4개 그룹(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카리브, 남부아시아 출신)의 이민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TNA는 소수민족의 이민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 기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이민자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과 이야기를 아카이브에 제공하는 쌍방향 수집 활용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이다. 'Moving Here' 홈페이지에는 이민자들이 제공한 총 1031건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다. TNA가 주도한 이 컨소시엄 프로젝트에는 28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및 런던정경대학(LSE) 등 학계가 콘텐트 파트너로 참여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소수민족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아카이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전국 단위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1981년부터 영국 내 흑인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있는 'Black Cultural Archives'를 필두로 중국 출신 이민자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Chinese Oral History Project',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와 시칠리아 출신의 기억을 구술 채록하는 'Memories from Emilia-Romagna and Sicily', 집시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Romany and Travellers Family History Society', 1960년 이전 영국으로 이주한 키프로스 인의 기록을 보존하는 'Cyproit Diaspora Project' 등이 있다.

각 지역 단위에도 이러한 이민자들의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이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버밍엄 흑인의 역사를 구축하기 위한 버밍엄 시 아카이브와 버밍엄 대학, 워릭 대학의 공동프로젝트의 산물인 'Connecting Histories'는 민관협력 모델의 상징이자 가장 대표적인 지방 소재 이민자 아카이브이다. 그 외에도 'Desh Videsh : Home and Away- A history of the Asian Community', 'Highfields Remembered' 등 소수 민족 출신 이민자의 기록을 보존 활용하는 다수의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아카이브가 이들의 정체성 확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일상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마페졸리는 "우리가 결코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부분인 사회적 삶의 숨겨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자료로도 기록될 수 없다."[30]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는 공공기록을 말한다. 소수이민자들은 스스로의 숨겨진 삶을 기록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일종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부(不)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29) National Council of Archives,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2001). p. 7.

30) 라시드 아미루, "사교성과 사회성,"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 1994), 381쪽.

로서의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아카이브에서 이민자는 개별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동질감을 가진 집단적 존재가 된다. 마페졸리는 비록 존재가 소외되고 또한 다차원적인 형태의 권력의 명령에 굴복될지라도 긍정적인 권력, 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대와 상호 의존의 부단한 게임과 연관되는 긍정적 권력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31] 아카이브는 이러한 유대와 상호 의존의 장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집합적 의미화 과정의 자율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며, 자기 성찰적 정체성이 형성, 유지, 변화되기 위해서는 통제와 억압이 없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 속에서 집합적 행위자가 응집되고, 또 그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며, 바깥 세계와의 협상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집단 아카이브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민자 대상 아카이브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규교육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주로 흑인학생) 자신들의 교육 경험을 회상하면서 "(역사)커리큘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2] 흑인부모들은 자녀들의 자긍심 저하가 상당부분 흑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결여와 이에 따른 학교와 언론에서의 롤 모델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연구도 있다.[33] 이민자 등 소수집단의 역사를 다루는 교재도 충분하지 못하며 제대로 교육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민자들의 역사와 기록을 관리하는 이민자 아카이브는 정규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하지 못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민자와 이들 자녀들의 유대 강화 및 정체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집단 자녀의 문화배경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간도 될 것이다.

이민자 아카이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대변되지 못하는 소수집단은 일종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정 집단의 과거에 대한 생각, 이미지, 느낌과 같은 일련의 감정적 특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단기억은 찬양(celebratory) 일변도와 같은 특정한 편향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도 있다.[34] 진본성과 무결성이 보장되는 기록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Ⅴ.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 방안 모색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이민자 아카이브는 기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례들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현대 기록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아카이브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도 국내 거주 몽골인의 일상생활 및 활동을 기록정보자료로 구축하고 관리 보존해 활용하는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체적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1) 위의 글, 380쪽.

32) M. Sherwood, "In this curriculum, I don't exist",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p. 2.

33) M. Dresser, "Reaching out from the archive: minority history and academic method",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2005, p. 3.

34) Ibid, p. 2.

먼저 다문화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TNA와 같은 공공 아카이브가 주체가 되는 모델,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그리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카이브도 아직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전문기관인 국가기록원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전문직인 행정직 공무원이 국가기록원을 운영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의 용이함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같은 공공기관이 다문화 아카이브의 설립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될 경우, 기금 액수에 따라 운영권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자역사 한내와 성공회대학교 민주화운동자료관 등 민간이 주체가 된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을 분석 검토할 필요는 있다.

현재로선 기록관리 학회와 협회 등 민간과 대학, 중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예산 확보나 교육 활동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외국학생, 특히 몽골유학생 많은 대학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일부를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건립비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

둘째, 기록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거주 몽골인의 일상 활동과 의식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단위로서 개인·가족, 커뮤니티, 국가 등 3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체가 경험하거나 의식하는 구체적 사건과 실행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의식주, 노동, 소비, 놀이·축제, 교육, 협력 사업 등이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몽골인의 기록을 집합적·입체적·중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몽골 출신 여성 결혼이주민이 자녀 문제로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을 일기로 기록했다면, 이것은 행위주체가 개인이 되고 행위범주는 교육으로 분류된다. 몽골인 이주노동자의 가리봉동 쪽방생활 기록은 행위주체가 개인이 되고 행위범주는 의식주가 된다.

매년 7월 11일 몽골인과 시민들이 모여 몽골 전통연주단의 문화공연과 씨름, 활쏘기, 샤가이, 제기차기 등의 운동대회를 진행하는 '나담축제'가 개최된다. 이 축제에 대해 "모든 몽골 사람들이 삼일동안 벌어지는 이 축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로 20-30대인 젊은 몽골 근로자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가 '나담축제'를 통해 해소되고, 서로를 위로하는 해방구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35]는 몽골인 도르시(36세, 여)의 소감을 기록화하면, 행위주체를 공동체로 하고 행위범주는 놀이·축제로 하는 분류가 될 것이다. 남양주 몽골문화촌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는 기록화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몽 문화자원 협력 회의에서 몽골의 암각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록은 행위주체를 국가로 하고 행위범주를 협력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노동 상담과 노동실태 점검은 행위주체가 국가가 되고 행위범주는 노동이 된다.

그리고 몽골인 이주자에 대한 이웃이나 가족, 통역자원봉사자 등 한국인의 평가나 대응, 활동도 기록화 대상이 된다. 코리아몽골포럼이나 한몽교류진흥협회(KOMEX), 한몽문화예술교류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타의 활동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나아가 기록화 대상으로 몽골에 체재하는 한국인의 의식과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몽골 현지인의 반응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 협의회가 몽골 바양주르흐구에서 진행한 고지대 우물파기 사업이 기록화 대상이 된다.

3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6월24일.

기록화 대상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거주 몽골인의 기록, 몽골인에 대한 한국인의 기록, 몽골 현지의 기록이 대분류를 이룬다. 중분류는 앞서 언급한 행위주체가 된다. 소분류는 행위범주가 된다.

셋째, 기록화 방법은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활용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아카이브, 기록 이용자가 상호 협력하고 선별하여 수집하는 기록학의 평가·선별·수집 방법론을 말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피드백 되고 순환되어 기록의 그물망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개방·공유로 대변되는 웹 2.0을 활용해 수집과정에서부터 기록 생산자가 자신의 기록을 아카이브에 손쉽게 제공하고 기술(description)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화의 대상인 몽골 이주민들이 다문화 아카이브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넷째, 수집 대상 기록물 유형은 일기, 편지를 비롯해서 개인 문서, 각종 신문·잡지 자료, 전자기록, 영상·이미지 등 시청각기록, 결락기록을 보완해주는 구술기록, 공공기록, 각종 유형의 박물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는 몽골에서 제공하거나 가져온 기록과 박물도 포함된다.

다섯째,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스와 공간 배치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에서의 업무 프로세스는 수집, 평가, 정리, 기술, 보존·복원, 전자기록 및 시스템 관리, 국내외 교류, 공개, 전시·열람·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 아카이브도 이 프로세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아카이브의 궁극적 목적이 이주민 정체성 지원과 사회통합에 있기에 각 프로세스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집, 평가, 기술은 쌍방향(interactive) 프로세스를 지향한다. 대부분 몽골 관련 기록이 1990년대 이후 생산된 것이기에 보존·복원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존·복원 업무는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최소화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전자기록 및 시스템 관리도 웹 2.0 지원도구를 활용한다. 공개 역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 등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최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국내외 교류, 전시·열람·교육 프로세스의 업무내용이 많이 변화할 것이다. 기존의 공공 아카이브에서도 이러한 업무들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카이브의 주요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다문화 아카이브에서는 국내외 교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현재 학계는 공공 아카이브 중심의 연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사적' 영역 또는 일상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아카이브는 일상 아카이브의 한 형태가 된다. "이제는 시민의 개별 삶과 공동체 민주주의가 재발견되어야 하며 기록관리는 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의 방향성을 정렬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모델로부터 탈각하여 기록관리의 성장 발전을 지향"[36]할 것을 촉구한 김익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아카이브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 아카이브에서의 국내외 교류는 몽골 관련 단체와 학계, 몽골의 기록물관리기관 등은 물론 기록관리 학계와 실무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전시·열람·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전시·열람은 몽골 이주민 기록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물 생산자와 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록화하며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등의 제반 과정에 참여

36) 김익한, "한국에서의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 아카이브 운동."『EASTICA 세미나 발표문』(2012), 2쪽.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정보화 교육이 된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사회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와 정보로부터 격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정보화를 필요로 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이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주민들은 정보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보로부터 소외와 디지털 기회로부터의 소외를 겪고 있다.[37] 이들의 정보화수준은 우리나라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SNS와 웹 2.0 등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화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 통합에 중요한 기회의 보편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아카이브의 교육은 정보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물론 삶의 기록과 기억을 통해 이주민과 그 가족의 정체성 고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물 양에 따라 아카이브의 물리적 규모가 결정된다. 아카이브의 공간 배치는 기본적으로 전시실, 열람실, 종이기록물 서고, 시청각기록물 서고, 박물 서고, 업무시설, 부대시설(중앙통제실, 자원봉사자 공간 등), 교육시설로 구성될 것이다.

Ⅵ. 맺음말

모든 근대문명이 기치로 든 평등권은 이제 차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차이에 대한 존중은 상호 인정에 기초한 연대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규정과 전체 인류는 생태계, 우주와 결속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38] 일방적인 동화로의 강요와 억압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가 필요하다.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는 그 출발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유와 기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정체성에의 자유는 대변될 수 있는 자유를 상정한다. 이것은 시간, 공간, 생과 사, 개인의 생리학적 감정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제반 권리와 생존권을 활성화할 것이다.[39] 이러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에서 출발한 상징적 실천들이 상호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공간은 지식의 전유와 자원의 생산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개방적으로 정보가 순환되고 조정되어 개별적,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유연한 공간이다. 다문화 아카이브는 바로 이러한 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잣대로 한 획일적인 서구 중심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착취와 지배를 인정해 제국주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인종주의적 차별로 확대되었었다. 그러나 이민자 문제, 성(性)적 소수자 등 마이너리티 문제, 기후변화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 등에 직면했던 서구는 상당 부분 서구 중심주의를 탈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수탈의 직접 피해를 입었던 한국은 또 다른 의미의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아카이브는 다양성과 관용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서 다수자인 우리 스스로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

37) 안미리, “이주민 여성의 정보소외,”『학습과학연구』101쪽.
38) 알베르토 멜루치, “일상생활의 민주화,”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일상생활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 1994), 410쪽.
39) 위의 책, p. 405.

〈참고문헌〉

게렐. D. 2009. 「우리도 EU처럼 동북아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민족21』, 97호: 50-55. 민족 21.
권성훈. 2009.「몽골 대학들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문학연구』, Vol. 53: 71-9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김익한. 2012. 「한국에서의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 아카이브 운동」. 『EASTICA 세미나 발표문』: 1-9.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2008.「'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Vol 24(1): 121-155. 한국여성학회.
데사잉빌렉트. 2009.「몽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7-31.
알베르토 멜루치.「일상생활의 민주화」,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저,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1994.『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박병섭. 2009.「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사회와 철학』, Vol 18: 291-365. 사회와철학연구회.
박찬옥, 이은경. 2012.「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Vol. 12: 65-9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라시드 아미루.「사교성과 사회성」,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저,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1994.『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안미리. 2010.「이주민 여성의 정보소외」. 『학습과학연구』, Vol. 7: 100-115. 한양대 교육공학연구소.
양애경, 이선주, 최훈석, 심선화, 정혁.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매뉴얼 월러스틴. 1999.『근대세계체제 I 』. 서울: 까치글방.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 연구』, Vol. 20: 101-120.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정병웅. 2003.「몽골 한국관광의 활성화와 한·몽 관광협력 방안」.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7-165. 한국관광학회.
조현성. 2008.『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주몽골 한국대사관. 2012. 『몽골 문화교류협력 가이드』.
최기호. 2010.「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오늘」. 『나라사랑』, Vol. 119: 27-42. 외솔회.
최찬호. 2007.「몽골출장기: 선진보존기법을 세계에 알린다」. 『기록인』, 창간호: 98-101. 국가기록원.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 2010.『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서울: 휴머니스트.
한국서양사학회. 1996.『근대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 서울: 까치글방.
허미화. 2009.「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59: 273-30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고용노동부. 2011. 『2011년판 고용노동백서』.
Dresser, M. 2005, “Reaching out from the archive: minority history and academic method”,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MLA. 2004. *A New Directions in Social Policy: Communities and Inclusion Policy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2000. *Research Quarterly*.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1. *Taking Part: An Audit of social inclusion work in archives.*
Sherwood, M. 2005, “In this curriculum, I don't exist”, *IHR Conference: History in British Education*.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기록물 보유 현황)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6.24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통계청. 2010. 혼인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4/1/5?t=v&k=36194
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pr/press/news/1273041_1756.html
Moving Here 홈페이지.
http://www.movinghere.org.uk/schools/People/migration.htm

세션 Ⅵ(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세션 Ⅱ)
: 중앙아시아 정치·경제 발전과 전망

■ 사회 : 엄구호(한양대)

■ 발표 :

강봉구 -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 분쟁
김영진 -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현승수 - 엘리트의 이반: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엘리트의 사례

■ 토론 : 김정훈(배재대), 김상원(국민대), 김신규(한국외대)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 분쟁*

강봉구(한양대)

I. 서론
II. 소비에트 시기 경계획정의 배경
III. 페르가나 지역 국경분쟁 현황과 각국의 대응
IV. 결론: 국경분쟁 해결의 방향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오니 인용을 금합니다.

I. 서론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국경 분쟁 혹은 영토 분쟁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성격을 갖고 있다. 대부분 명칭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별 민족공화국들이 소련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한 나라였기에 일국 내에서 연방구성공화국들간의 국경획정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갈등도 불편함도 제기하지 않았던 국경 문제가 개별 공화국들이 독립한 이후 심각한 분쟁과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국경 분쟁 지역들 가운데 국경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명료하게 국경이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측정 시기와 지도의 제작 연도에 따라 국경의 불일치가 심한 지역이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 이하 페르가나) 지역이다. 페르가나의 국경 문제는 통상 그러하듯이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세 나라의 국경이 서로 쐐기처럼 맞물려 있으며, 동시에 '비지(飛地: enclave 혹은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exclave)가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 상황은 지역 전반의 사회·경제 안보의 구조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페르가나 지역의 총체적 안보 취약성에 객관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경 문제라는 점에서 이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많은 이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국경 분쟁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친 것으로 비유한다. 분쟁을 야기한 국경의 불명확성은 1920년 대 중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적·영토적·행정적 경계를 획정한 소비에트 통치의 유산이다. 당시의 소비에트 경계획정 작업은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종족적 구분선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당시 소련 중앙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종족 및 경제사회생활권이란 측면에서 좀 더 동질적인 단위로 국경을 획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운동 가능성을 염려한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20년대 중반의 국경 획정 이후 공화국들의 경계는 여러 차례 다시 그어졌으며, 상호간에 경제·사회적 편의를 목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에 걸쳐 임차하기도 하였다. 페르가나 지역

에서 비지들이 형성된 것도 이러한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 소비에트 시기의 잦았던 경계 재설정과 비지 형성은 오늘날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획정과 영토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 해체와 함께 실질적인 독립을 획득한 이후에는 국가형성과 국민형성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고유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고 함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타적이며 폐쇄적 성격의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됨으로써 페르가나 지역의 불분명한 국경의 재획정 문제는 초미의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문제 해결은 더욱 난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경 분쟁과 국경 통제의 난맥상은 인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상황 그리고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들의 페르가나 지역 침투와 활동 등과 맞물려 향후 이 지역이 총체적 안보 불안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1)]

이 글은 먼저 오늘날의 구조적 문제를 배태한 소비에트 초기 페르가나 지역 영토 획정 당시의 상황과 소비에트 중앙의 전략적 고려와 정책을 살펴보고, 독립 이후 페르가나 지역 3국간의 국경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온 비지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현황과 각국의 대응을 분석한 다음, 결론부분에서 국경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소비에트 시기 경계획정의 배경

제정러시아의 진출 이전 페르가나 계곡 지역은 우즈벡인들의 코칸드칸국(the Khanate of Kokand) 지배하에 있었으며, 칸국의 수도는 지금은 우즈벡 영토인 코칸드였다.[2)] 코칸드칸국은 이 지역을 중심 영토로 삼아 16세기 말부터 제정러시아의 침탈 이전까지 약 250년 동안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지속하였다. 그 결과, 페르가나 지역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합된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단위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었다.[3)] 1876년 제정러시아의 코칸드칸국 복속과 함께 페르가나 전 지역이 제정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볼쉐비키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중앙아시아에 '투르케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TASSR)'을 수립하였으며, 페르가나 지역은 모두 동 공화국에 포함되었다. 페르가나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약 22,000 ㎢ 넓이의 분지로서 중앙아시아 5개국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1천만 명을 상회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4)]

1924년 초 소연방 중앙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민족-영토 단위의 정치체로 구획을 시작할 때, 페르가나 지역은 다종족들이 혼융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질적인 종족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을 획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특히 최대 주민수를 가진 우즈벡인들과 키르기스인들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였다. 양자간의 서로 대립하는 주장과 이로 인한 갈등은 오쉬, 안디잔,

1) Joshua Kucera, "Will the Ferghana Valley Become the New FATA?" *EurasiaNet.org*, November 9, 2012.

2)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 시, 키르기스스탄령 페르가나 지역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소그드(Soghd) 지역 등이 모두 코칸드칸국의 영토였다.

3) Nancy Lubin, *Calming the Ferghana Valley*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1999), p.39,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종족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2011년, 통권 19호), 190-91쪽 재인용.

4) 어떤 자료에서는 페르가나 지역의 면적은 대략 8,500 평방마일로서 1천 3백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우즈벡인이 1천만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Central Asia: Tensions Persist over Ethnic Enclave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May 07, 2010, p.1.

페르가나, 코칸드, 나망간 등 이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를 두고 일어났다.

키르기스인들은 종족적 견지에서 볼 때 이 도시 지역들 가운데 키르기스인들의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시 중심이 없는 독립된 정치체 건설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도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도시가 키르기스 주에 속해야 하느냐로 모아졌다. 키르기스인들은 도시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이란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하나는 도시가 비도시 거주 키르기스 주민들의 시장 역할을 해야 하며, 둘은 도시의 중심이 미래 키르기스주의 행정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우즈벡인들의 입장은 각 도시마다 우즈벡인 주민수가 가장 많으니, 페르가나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우즈벡 공화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키르기스인들은 특히 안디잔이 키르기스 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키르기스인들의 안디잔에 대한 집착은 오쉬시에 대한 것보다 더 강하였다. 이것은 페르가나 지역에서 코칸드에 못지않은 안디잔의 경제적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우즈벡인들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키르기스인들의 안디잔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대부분의 도시들은 우즈벡 공화국에 포함되었으며, 오쉬시만 키르기스의 도시로 남겨졌다.[5)]

이 안디잔을 둘러썬 논쟁의 경우, 키르기스인들도 안디잔의 주민들의 종족성 혹은 민족 정체성이 새로운 정치체 경계 구획의 정당한 기초임을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안디잔 주변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키르기스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런 근본 원칙에 동의하고 유사한 시각에서 경계 구획에 접근하였다. 또 당시 중앙아시아의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구성체, 혹은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민족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국경 획정의 문제 역시 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키르기스인들은 당시 논쟁에서 바로 이런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안디잔 우에즈드(uezd)가 키르기스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안디잔 주민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키르기스 주민들은 대부분 유목민이거나 반유목민이었기 대문에 시장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우즈벡인들은 정주 농업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된 경제적 관심이 농업에 필수적인 부족한 물에다가 초점을 두었다. 우즈벡인들은 관개시스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민족 기준 원칙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관개시스템은 서로 다른 공화국들에 분리되어 속해서는 안된다는 논거를 들었다. 그러나 페르가나 지역의 몇 몇 지역들에서 강의 상류지역 대부분에는 키르기스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즈벡 인들은 그 지역 모두가 우즈벡공화국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즈벡인들은 강의 상류인 오쉬 우에즈드의 카쉬가르-키쉴락(Kashgar-Kishlak)과 잘랄-아바드 볼로스트(volost)의 한-아바드(Khan-Abad) 지역이 하류의 면화생산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쥐고 있기에 모두 우즈벡 공화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6)]

1924년 초부터 민족-영토 경계 구획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아시아국(the Central Asian Bureau)과 영토위원회에는 수많은 청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페르가나 지역의 도시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일례로 마길란 우에즈드의 이츠킬릭 볼로스트(Ichkilik volost) 주민 일동의 명의로 투르케스탄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ASSR) 당국 앞으로 온 청원은 왜 자신들이 우즈벡 공화국에 속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츠킬릭 주민들은 하나같이 농업에만 종사하면서 살아 왔으며, 우즈벡인과 키르기스인 사

5) Arne Haugen, *The Establishment of Natonal Republics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p.188-89.
6) Haugen(2003), pp.190-91.

이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이 한 가족처럼 살아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모든 면에서 우즈벡인들과 관계되어 있으니 경계 구획에서 우즈벡공화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츠킬릭 볼로스트와 나이만 볼로스트의 키르기스인 농부들 조차도 자신들을 마길란 우에즈드에서 떼어내어 키르기스 정치체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투르케스탄 정부에 요청하였다. 종족적 기준으로 키르기스인 농부들도 자신의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에 따라 우즈벡공화국에 속하기를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쉬, 안디잔, 잘랄-아바드 모두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은 모두 농업인들이고 유목민은 없으며, 경제적으로 우즈벡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즈벡공화국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들에서 온 청원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반유목 주민들이 대다수인 정치체에 포함될 경우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 소수자로 취급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7)]

페르가나 지역 민족-영토 경계의 최종 획정을 위해 영토위원회 산하 우즈벡소위원회와 키르기스소위원회가 각자 자신의 안을 제출하였을 때,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갈등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분쟁들은 중앙위원회의 지시보다는 영토위원회 내에서 협상을 통해 주로 해결되었다. 영토위원회는 두 소위원회 사이에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양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특별회의의 결과 양측이 수용한 최종안이 탄생하였다. 이 특별회의는 영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나망간, 마길란 및 코칸드 우에즈드의 경계가 획정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또 회의에서 안디잔과 오쉬 우에즈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문제에 대해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여 마침내 우즈벡공화국과 키르기스주 사이의 경계가 획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8)]

지금까지 본 바대로 당시 페르가나 주민들에게 종족적으로 우즈벡인이나 키르기스인과 같은 정체성과의 동일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주민들간 종족적 구분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 자신이 그러한 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종족적 귀속감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업, 사회경제적 생활양식이 구분의 기준으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페르가나 지역에서 종족 혹은 민족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경계 구획이란 소연방 중앙이 기획한 신생 정치체들 사이의 적절한 경계획정 방식이 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연방중앙이 기획한 종족적 기준의 경계구획은 실제로 수행되기 어려웠으며 수행되지도 못했다. 1924년-36년 사이에 이루어진 민족-영토 경계구획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근대적 국경획정 사업이었다. 그러나 페르가나 지역 자체의 역사적 종족적 경제사회적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연방중앙의 정치적, 통치 전략적 고려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계획정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연방중앙이 자의적이며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페르가나 지역 최초의 국경획정 결과는 약 9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국가간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페르가나 지역을 적실성 없는 종족적 귀속 혹은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정치체로 조직하려는 주민들의 요청이나 시도는 없었을까. 1923년 말 페르가나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투르케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TASSR)에 페르가나 계곡 지역이 TASSR 내의 자치주로 조직되게 해 달라고 당국에 청원하였다.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 소속의 페르가나 자치주 건설 요청은 페르가나 지역의 종족적, 경제사회적 구성의 특성상 가장 자연스러우며 역사성을 반영한 영토-행정 단위가 될 수도 있었다. 다종족들이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구분이나 명료한 인식없이 모자이크처럼 섞여 조화롭게 살아 왔다는 점, 이지역 주민들은 종족

7) Haugen(2003), pp.192-93.
8) Haugen(2003), p.193.

소속보다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정주 생활양식을 가졌는가 아니면, 유목인가 혹은 반유목인가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거부되었다. 페르가나 자치주의 구성 부분들이 너무 이질적이어서라기 보다는 페르가나 자치주가 형성되면, 지나치게 큰 자치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청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페르가나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공산주의자들의 구상 속에는 종족적으로 더 동질적인 정치체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 청원은 페르가나 지역을 이질적이지만 하나의 정치체로 보존하여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투르케스탄 주민들의 최후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9)]

III. 페르가나 지역 국경분쟁 현황과 각국의 대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페르가나 3국의 국경이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페르가나 지역에서 영토에 대한 일국의 소유권 주장과 상대편의 맞주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산업·상업적 연계와 수송로는 약화되고 해체되어 갔다. 국경을 사이에 두게 된 가족과 친지들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내왕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방문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 비자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 공동체들이 속해 있던 경제생활권이 무너지고 인적인 유대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3국의 국경 획정을 위한 협상은 수십 군데의 분쟁 지점을 두고 결렬되기가 일쑤였으며, 그 과정은 언제나 긴장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다. 개별 국가들은 소련 시대에 발행된 서로 다른 지도들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지도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이 획정된 지역에서도 국경경비대원과 세관원이 주민들과 상인, 여행자들을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국들은 국경 통과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모두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마약 밀매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국경 통과와 초국적 활동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는 구실로 설치된 지뢰 지대 그리고 경비대의 과잉 대응 혹은 오인 발포로 인해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0)]

독립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3국간의 국경이 획정되지 못함으로써, 물, 에너지자원, 종족갈등 등 접경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쟁점들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분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경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웃국가간 선린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페르가나 지역 3국간의 국경 분쟁을 국경 운영·관리와 경계획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비지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1.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앞서 언급한 코칸드칸국의 역사적 연고를 들어 많은 우즈벡인들은 지금도 페르가나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오쉬와 잘랄-아바드 등 다른 지역들을 키르기스스탄의 영토로 만든 소련 중앙의 경계획정을 부당하며 인위적이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영토를 강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9) Haugen(2003), p.193.
10)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p.i-ii.

이러한 정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오쉬 지역은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즈벡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오쉬 시의 우즈벡인 인구 비율은 약 41%, 오쉬 주는 28%, 잘랄-아바드주는 24.5%로 도시 거주 우즈벡인들이 많다.[11]

<그림1: 페르가나 지역의 비지들>



<출처: http://cominganarchy.com/2005/12/23/enclaves-iii-the-fergana-valley/>[12]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의 비지 문제는 대부분 키르기스 영내의 우즈벡 비지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키르기스스탄도 우즈벡 영토 내에 하나의 비지를 갖고 있으나, 크기가 2평방 마일에 불과하여 지도에 표시하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바락(Barak) 마을이다. 페르가나 지역 3국의 국경이 마주하는 접경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의 키르기스인 주민들은 153 가구에 가까스

11) Lubin(1999), p.37, Table 3.2.
12) "Enclaves III: The Ferghana Valley," ComingAnarchy.com, http://cominganarchy.com/2005/12/23/enclaves-iii-the-fergana-valley/ (검색일: 2012.11.29).

로 1천명을 넘는다.

크기와 주민 수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바락 비지의 주민들이 2011년 봄 당시 오툰바예바 대통령과 아탐바에프 총리 및 의회에 비지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여 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자신들과 소유자산을 오쉬 지역의 '악-타쉬(Ak-Tash)'마을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키르기스 당국이 키르기스-우즈벡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 비지 마을은 모국 키르기스스탄과 불과 1.5km 떨여ㅓ져 있는데, 물건을 사거나 친척으 ㄹ방문하기 이해 치르기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입국과 키르기스스탄 입국이라는 두 번의 입국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바락 마을에서 한 키르기스 남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키르기스 거주 친척들이 우즈벡 국경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우즈벡 국경검문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친척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국경통과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2010년 6월 오쉬 지역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간에 유혈 종족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락 주민들은 두려움에 질려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다. 당시 오쉬 지역에서 소수민족인 우즈벡인이 희생당한 데 대해, 이번에는 역으로, 바락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우즈벡인들이 소수민족 키르기스인들에게 보복할까 봐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바락 주민들이 비지를 떠나 오쉬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자국이 이 역외 비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13]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올 봄 키르기스스탄 오쉬주의 주지사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시의 시장이 바락 비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내기 위하여 각각 6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4]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비지가 네 개 있다. 소흐(Sokh)와 샤히마르단(Shahimardan), 드잔가일(Dzhangail), 총-카라(Chong-Kara) 등이 이들인데 모두 키르기스스탄 남부 바트켄 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흐와 샤히마르단이 중요하다. 이 비지들은 완전히 경계 획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특히 우즈벡령 소흐 비지는 이미 1920년대부터 논쟁거리였다. 소흐 비지는 19개의 마을에 약 5만 2천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타직인들이다. 이들은 주로 소흐강의 관개용수에 의지하여 쌀농사를 짓고 있다.[15]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경비와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키르기스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즈베키스탄 영토로 100km까지만 여행하거나 통과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장거리 여행은 비자를 소지해야만 한다. 이에 키르기스스탄도 유사한 비자 제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통행의 제약으로 인해 교류와 상거래가 위축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해체되었다. 1999년 2월에 타쉬켄트에서 발생하였던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 이후 우즈벡 정부는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을 봉쇄하였다.[16] 우즈벡 정부가 안보와 치안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여름과 2000년에 걸쳐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 주(the Batken Oblast)를 통하여 페르가나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의도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의[17] 공격이 지속되었다. 이에 우즈벡 정부는 키르기스 정부와 합동작전을 펼

13) "Kyrgyz in Exclave in Uzbekistan Want to Relocate to Kyrgyzstan," *EurasiaNet.org*, May 12, 2012.
14) "Kyrgyzstan and Uzbekistan Are Going to Solve Problems of Barak Enclave Together," *24.kg news agency*, April 4, 2012.
15) "Central Asia: Tensions Persist over Ethnic Enclave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May 07, 2010, p.2.
16)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p.13-14.

쳐 무장 이슬람주의자들을 격퇴하였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의 붕괴, 우즈벡 정부의 공세적 조치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대응이 효력을 나타내어 IMU의 세력이 약화하자 우즈벡 정부는 국경 보안 조치를 완화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의 세관과 국경수비대가 시행하고 있는 복잡한 통과 절차 때문에 본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끊임없이 키르기스스탄 영토내 자신의 비지와 교통할 수 있는 회랑을 내 달라고 요구해 왔다. 2001년에 양국은 이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는 각서를 채택하였으나, 합의는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우즈벡 측은 회랑 면적에 상응하는 영토를 키르기스 측에 양도하려 하였으나,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며 생물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 키르기스 측은 수용을 거부하였다. 국경 획정 작업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흐 비지의 우즈벡 주민들과 인근의 바트켄 주민들은 부족한 관개용수와 식수를 두고 자주 분쟁을 벌여 왔다. 그리고 소흐 비지 차슈마(Chashma) 마을에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샘물이 있는데, 우즈벡인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인 역시 이 샘물을 성스러이 여긴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에는 종교적인 요인도 가미되어 있다.[18]

특히 우즈벡 측의 소흐 비지 국경 관리 정책은 1999년과 2000년의 IMU의 페르가나 지역 침투 시도 이후로 더욱 강화되고 지나칠 정도로 경직성을 띠게 되었다. 우즈벡 군은 비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모든 통과 주민과 차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국경 초소들을 키르기스스탄 측과 상의 없이 설치하였다. 키르기스 정부는 이런 행위를 우즈벡의 일방적인 국경 획정 시도라고 비난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지뢰 매설 지역은 우즈벡 영토이며, 위험 지역 표지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표지판 글자가 너무 작으며, 가축들에게 그 경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2년 이후 IMU 세력의 약화와 함께 우즈벡 군은 매설 지뢰의 제거를 시작하였으나, 바트켄 주와 우즈베키스탄 국경의 많은 지역은 아직도 지뢰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19] 바트켄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비지 소흐로 진군하여 주둔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의 장갑차들은 2010년 6월이 되어서야 본국의 페르가나주로 철군하였다.[20]

비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부딪히는 불편함은 국경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소요나 시위, 유혈충돌 등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때, 비지를 통과할 수 있는 통관소 혹은 검문소의 폐쇄로 인한 것이다. 일례로,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주와 인근 지역에 종족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소흐 우즈벡 비지를 관통할 수 있는 통관소가 폐쇄되었다. 7월에 들어 상황이 안정되자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주민들의 소흐 우즈벡 비지 통과가 허용되었으나, 시간은 낮 동안으로만 제한되었다. 바트켄주 주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통관소를 통과할 수 있다.[21]

소흐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영내 우즈벡 비지는 샤히마르단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주에 위치한 샤히마르단은 우즈벡의 페르가나 시로부터 남쪽으로 55km떨어져 있

17) IMU는 2002년 이후 범투르크적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투르케스탄이슬람운동: the Islamic Movement of Turkestan: IMT)'으로 개명하여 재조직화와 세력강화를 도모해 왔다. IMT는 2003년 비쉬켁과 오쉬 시에서 있었던 일련의 소규모 폭발 사건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Central Asia: Rising Islamism Reshapes State Relation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Aug. 28, 2006, p.1.

18) "Central Asia: Tensions Persist over Ethnic Enclave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May 07, 2010, p.2.

19)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14.

20) "Uzbekistan withdraws armored vehicles from Sokh exclave" Ferghana.news, June 3, 2010.

21) "Mamadzhan Berdishev: Transit through Sokh Uzbek Enclave Open Only in the Daytime," *24.kg news agency*, July 6, 2012.

다. 무슬림 성지가 여러 곳 있으며, 경치가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주민은 약 6천 명 정도이며 97%가 우즈벡인들이다. 우즈벡인들은 대부분의 키르기스인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2002년 초에 키르기스스탄의 부수상 바자르바이 맘베토프(B. Mambetov)는 우즈벡 국경수비대원이 키르기스 주민을 사살한 사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비지 샤히마르단이 법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22] 이런 사실을 우즈벡인들에게 입증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즈벡 측이 영토를 양보할 리 만무하다. 그리고 2004년 가을에 키르기스 의회의 의원들은 정부에 샤히마르단 비지에 대해 우즈벡 정부에 영토 반환 요구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원들은 샤히마르단이 소련 시기에 우즈벡 고위 지도부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우즈벡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23] 2005년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정부 차원에서 샤히마르단에 대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키르기스 정부는 주기적으로 샤히마르단의 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즈벡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즈벡 당국은 그러한 논의 자체가 샤히마르단을 둘러싼 종족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샤히마르단의 위상 변화가 지방의 급진주의를 부추길까봐 우려하고 있다.[24]

199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4월이나 5월부터 우즈벡 비지 샤히마르단과 요르돈(Ёрдон) 지방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샤히마르단에 인접한,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의 하나인, '쿠르반-쿨(Курбан-куль)'호수는 하늘색 물빛으로 유명하며 무슬림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받들었기 때문이다.[25] 키르기스 영내에 섬처럼 둘러싸인 이 두 개의 우즈벡 마을 주민들은 관광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대홍수가 이 지방을 훑고 지나간 후부터 순례객들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의 IMU의 페르가나 지역 침공 시도 이후에는 우즈벡-키르기스 국경 검문소의 검문・검색이 강화됨으로써 페르가나 지역 주민들이 관광과 순례를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던 페르가나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멈추고 말았다.[26] 샤히마르단 비지의 어려웠던 사정은 2007년 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양국 시민들에게 2개월 이내에 비자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27]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00년 2월 국경획정을 위한 공동작업을 시작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 답사를 마쳤으나 합의에 이른 지역은 많지 않다.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 140 곳을 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오쉬와 바트켄 지방의 국경들은 여전히 미획정 상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국경 검문소가 제대로 서 있는 지역에서도 시위 사태나 소요, 정국 불안정 등 특별 상황이 발생하면 국경이 폐쇄된다. 2010년 4월 비쉬켁에서의 반정부 시위로 쿠르만벡 바키에프 대통령이 축출된 뒤에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접경 구역의 모든 검문소는 폐쇄되었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말에야 도

22)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p.16.
23) "Анклав Шахимардан: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ка на юге Ферганской долины," *Ferghana.news*, янбаря 19, 2006 г.
24) "Central Asia: Tensions Persist over Ethnic Enclave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May 07, 2010, pp.2-3.
25) "Отмена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Кыргызстаном оживила будни анклава Шахимардан," *Ferghana.news*, августа 28, 2007 г.
26) "Шахимардан: Райский уголок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отрывается от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Ferghana.news*, апреля 10, 2006 г.
27) "Отмена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Кыргызстаном оживила будни анклава Шахимардан," *Ferghana.news*, августа 28, 2007 г.

수툭 검문소(the Doctuk checkpoint)를 시발로 국경 검문소들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경 지역 주민들은 눈앞의 이웃 마을이나 지방을 방문하기 위해 수 백리, 수 천리를 우회하는 손실과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28]

국경의 미획정 혹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하여 국경수비대 사이의 충돌이나 수비대원이 주민들을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오인 사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만 해도 양국 국경 수비대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당시(2012년 7월 중순) 국경 인근 키르기스 마을 불락-바쉬(Bulak-Bashi)에서 키르기스 주민들이 도로를 수리하던 중 우즈벡 국경수비대원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주민들은 이를 거세게 거부하였다. 격분한 우즈벡 국경수비대원이 총격을 가하자 즉시 키르기스 국경수비대원이 대응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그 결과 1명의 키르기스 병력이 사망하고 두 명의 키르기스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29] 우즈벡 측에서소 국경수비대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30] 또 다른 경우, 젊은 키르기스 여인 한 사람이 정규 검문소를 피해 한적한 곳의 국경을 넘다가 우즈벡 국경수비대원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검문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검문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주민들이 검문소나 세관을 피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총격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불명확한 국경의 미획정과 국경수비대원들의 훈련과 소양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잦은 국경 지역 사고와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을 담당하는 경비대가 국경의 몇 몇 지역에서 공동순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도 2010년부터 공동순찰을 시행하기 위해 오쉬 시에서 양측 국경수비대장의 회동이 있었다(2009년 11월 22일).[31] 그러나 이 예비토론에서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최근의 국경획정 회의는 2012년 7월 오쉬 시에서 열렸다(7월 16-21). 양국을 대표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국경획정정부위원회(Uzbekistan and Kyrgyzstan governmental commission on delimitation and demarcation of the Uzbek-kyrgyz border)'는 우즈벡-키르기스 국경의 몇 몇 지역들에서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국경획정 회담을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32]

2.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키르기스스탄의 서남쪽 지역은 대부분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키르기스 국경획정 당국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나누는 총 접경 971km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km가 공식적으로 국경획정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2012년 8월 현재)고 한다.[33]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서로 물고 맞물리는 서양 장기판 형상을 하고 있다. 우습게도 국경의 경계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국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 인근 소재 땅의 경우, 소유주가 어느 민

28) "Uzbek-Kyrgyz Border Checkpoint Reopens after 18-Month Break," *RFERL,* October 25, 2011.
29) "Kyrgyz Border Guard Killed in Shoot-Out with Uzbek Guards," *RFERL,* July 17, 2012.
30) "Uzbek and Kyrgyz Delegations Met in Osh on the Background of A Border Incident," *Polit.Uz*, July 28, 2012. 이 사고 지점은 우즈벡 영토에서 보면, 나망간 주 추스트 구(Chust district) 가와 검문소(Gawa checkpoint) 근처이다.
31) "Kyrgyzstan, Uzbekistan Discuss Joint Border Patrols," *RFERL,* November 24, 2009.
32) "Uzbek and Kyrgyz Delegations Met in Osh on the Background of A Border Incident," *Polit.Uz*, July 28, 2012.
33) Natalia Yefimova-Trilling and David Trilling, "Kyrgyzstan & Tajikistan: Disputed Border Heightens Risk of Conflict," *EurasiaNet.org*, August 2, 2012.

족이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당 영토의 국가적 귀속이 결정되는 형세이다.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에 두 개의 비지 바루흐(Varukh, 어떤 경우에는 Vorukh)와 서부 칼라차(Western Qalacha)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 주에 위치한 바루흐 비지는 타지키스탄의 소그드(Soghd)주에 속해 있으며, 후자는 너무 작아 거의 의미가 없다. 타지키스탄의 비지 지역을 제외한 양국간의 국경은 수자원, 경작지와 초지 등을 둘러싼 저강도 분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비지 지역의 문제는 심각하다.

양국간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 역시 1999년의 IMU의 침투로부터 격화되었다. 당시 타지키스탄 방면으로부터 IMU 무장 이슬람주의자들이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자, 키르기스스탄은 바트켄 주의 레이락 구(Leilak District)에 약 3천명의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오쉬 주에 4천 명의 병력을 더 보강하였다. 그리고 2001년 7월에는 타지키스탄과의 접경을 따라 9개의 새 경비 초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자국 안보를 위해 소흐 비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가혹한 전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타직인들은 바루흐 비지의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비쉬켁과 타쉬켄트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득세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키르기스 주민들과 타지키스탄 령 바루흐 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은 수자원과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었다.[34]

타지키스탄은 공식적으로 바루흐로 이어지는 육상회랑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를 원하고 있다. 바루흐 비지에 거주하는 타직인들은 사실상 타지키스탄으로부터 단절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루흐 비지 주변에 검문소와 국경 초소가 다수 세워져 타직인들의 인근 키르기스 영내로의 이동도 힘든 형편이고 키르기스인들의 내왕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바루흐 비지의 주민들은 대부분 타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도 타직 기준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키르기스인들과의 소통에 제약이 크다. 여러모로 바루흐 비지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35]

바루흐 비지를 본토와 연결하는 회랑 문제가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바루흐 비지와 주변 키르기스인 마을 주민들간의 종족간 갈등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유혈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바루흐 비지와 연결될 회랑을 내달라는 타직 측의 요구에 대해 키르기스 측은 어떤 토지 교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국경 부서들 간에 국경획정을 위한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로 주민들은 국경 지역이 수도와 멀리 떨어져 고위층이 문제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바루흐 비지의 타직 주민들은 타직 정부의 키르기스 정부에 대한 약한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과의 국경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이 북방으로의 유일한 통과로이기 때문에 두샨베는 비쉬켁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영토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 교통할 수 있으며 상품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 악화는 타지키스탄의 고립을 낳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으로 인해 비쉬켁과 맞서기를 꺼려하는 두샨베의 태도에 대해 바

34) 이 분쟁은 1980년 대 말과 1990년 대 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측의 관계는 너무 악화되어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을 정도였다. 분쟁은 바루흐 비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물의 이용권 때문이었다. 양측 주민들은 각각 강물을 끊어 상대편에게 수자원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이 지역의 국경은 획정되지 않아 목초지와 방목권을 둘러싼 다툼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p.18-19.

35) 현재까지 이 지역의 국경은 획정되지 않아 목초지와 방목권을 둘러싼 다툼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19.

루흐 비지를 포함하여 국경지대 타직 주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간주하는 타직 주민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자력구제는 양측 주민들의 직접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36] 비지나 국경지역 주민들이 자력구제에 나서는 현상은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접경 3국 모두에서 페르가나 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과 긴밀히 연관된다.[37]

양국간에 국경획정이 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국경 인근 마을들에 거주하는 수 천 명 주민들의 생활상을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알 수 있다.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한 키르기스인 주민은 자신이 키르기스스탄의 타쉬-튬슉(Tash-Tumshuk)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고, 바로 옆집의 한 타직인 주민은 자신이 타지키스탄의 호자 알로(Hoja Alo) 마을에 살고 있다고 답한다. 이 시골 마을은 20년 이상 국경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국경지역 마을에서 키르기스인과 타직인의 집들은 여러 구역들에서 서로 엉켜있고, 다른 구역들에서는 단일 종족 공동체들이 서로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도로와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양국간 국경획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 상태는 이제 20년을 넘어섰고, 토지와 물 부족, 경제적 어려움,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배타적 민족주의 등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종족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정부에 호소한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국경 마을들에서 관리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해 주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책임 소재가 자주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인과 공무원은 태만과 권한 남용을 자행한다. 주민들은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정규적으로 분쟁 지역을 순찰하면서 때때로 그들을 괴롭히고 이동을 제한하며 뇌물을 뜯어간다고 주장한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허술한 국경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번성하고 있으며 불법적 국경 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38]

---

36) 2011년 봄 파종시기를 맞아 관개용수와 경작지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알력과 마찰이 심해진 상황에서 바루흐 인근의 키르기스 마을 악사이(Aksai)의 주민들 60여명이 바루흐를 소그드주와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타직인 소유 차량들의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들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 마을의 타직인들은 키르기스인 운전자 몇 명을 인질로 잡았다. 양측의 국경 담당 관리들이 출동하여 간신히 인질들을 풀어주고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2010년에만 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이러한 충돌 사건이 20여 차례 발생하였다고 하며 2011년에 들어 갈등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Kyrgyzstan-Tajikistan: Clashes on Volatile Border Growing Vicious," *EurasiaNet.org*, April 20, 2011.

37)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타쉬켄트와 사마르칸트 지방의 주요 씨족들을 등용하여 엘리트 세력간 균형을 잡는 용인술에 의존해 왔던 터라 그의 측근 그룹에서 페르가나 출신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페르가나 지역의 경제 산업 비중과 인구에 비해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면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독립 이전부터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 시기를 포함하여 북부 씨족들이 중심이 되어 서부 및 남부의 핵심 씨족들과 지배연합을 이루어 온 형태는 쿠르만벡 바키에프 전 대통령을 거쳐 현재의 알마즈벡 아탐바에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쉬와 잘랄-아바드 등 남부 페르가나 지역의 우즈벡인 공동체들은 주요 권력 배분에서 지나치게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타지키스탄 역시 내전이 끝난 1997년 이후 자신의 북부 지방인 페르가나 지역에 대한 정치적 냉대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시기 북부지방의 중심인 후잔트는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을 배출했던 지역이었다. "Central Asia: Rising Islamism Reshapes State Relation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Aug. 28, 2006, p.2.

38) 주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지역 갈등을 세 가지 서로 중첩되는 범주로 나누고 있다: 부족한 토지와 물을 둘러싼 다툼, 젊은이들 사이의 주먹 다짐, 그리고 주민들과 군인/경찰들 사이의 마찰 등. 젊은이들 사이에 상시적인 갈등이 있으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주민들을 이것을 갈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절기에 관개용 물이 충분하지 못할 때, 어른들 역시 다투기 시작한다. 이 국경 지역 마을의 외곽 어디에서도 국경 표지나 검문소가 없다. 언덕과 길들이 지도 속 상상의 선 위로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불법 무역을 둘러

3.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타직 주민들은 우즈벡 영토인 부하라나 사마르칸트가 모두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전 기간 동안에 우즈벡과 타직 거주 우즈벡 소수민족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39] 이에 반해 우즈벡인들은 타직인들이 내전 사태, 허술한 국경관리로 마약과[40] 무기 밀수 허용 등으로 지역의 불안정에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즈벡 영내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타직인들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양 측간 상호 불만의 역사적 연원도 함께 작용하겠지만, 우즈벡 정부는 국경 지역의 타직인들이 이슬람주의 세력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다.

우즈벡 측의 이러한 우려는 1999년 IMU의 페르가나 지역 침공으로 증명된 듯이 보였다. 우즈벡 정부는 이 기회에 이슬람 과격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타직 측의 사전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무장 세력들이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지키스탄 영토에 공습을 감행하였다. 타직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우즈벡 정부는 긍습으로 초래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이후 우즈벡 측은 양국 국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초까지 약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국경 지역의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7월 카리모프 대통령과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국경 획정 회담을 개시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국경획정 작업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41]

독립 이후 약 20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경획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의 국경 경비대는 2009년 가을 일부 국경 지역에서 공동순찰을 시작하였다(9월 4일부터). 양측은 공동순찰을 통해 불법 월경, 국경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42]

타지키스탄은 우즈벡 나망간주의 빠프(пап)구역에 비지 사르반(Sarvan, 러시아어 표기는 사르박[Сарвак])을 갖고 있다.

IV. 결론: 페르가나 지역 국경분쟁의 해결 방향

페르가나 지역 3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국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벡 정부는 현재의 국경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싼 이권 다툼은 종족간 긴장의 수위를 높이기도 한다. 6월에 몇 몇 키르기스 밀수업자들이 체포된 데 대한 보복으로 키르기스인 그룹이 20명 이상의 타직인들을 잠시 동안이지만 인질로 잡은 일까지 있었다. Natalia Yefimova-Trilling and David Trilling, "Kyrgyzstan & Tajikistan: Disputed Border Heightens Risk of Conflict," *EurasiaNet.org*, August 2, 2012.

39) "Central Asia: Tensions Fester in Ferghana Valley,"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Jan. 14, 2005.

40) 실제로 타직 국경 담당 관리들은 그들의 국경의 관리와 치안을 엄격하게 유지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매년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아프간 마약이 타직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직 경제를 살리는 돈줄이며 다른 산업 부문에 못지않은 주요 산업이 되고 있다. 동시에 국경 통제 관리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는 엄청난 소득원인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의 국경담당 부서들이 마약 국경통과의 핵심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간 마약의 타직 국경통과를 보장하는 도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Central Asia: Western Border Aid Has Little Positive Impact — Report," *EurasiaNet.org*, June 7, 2012.

41)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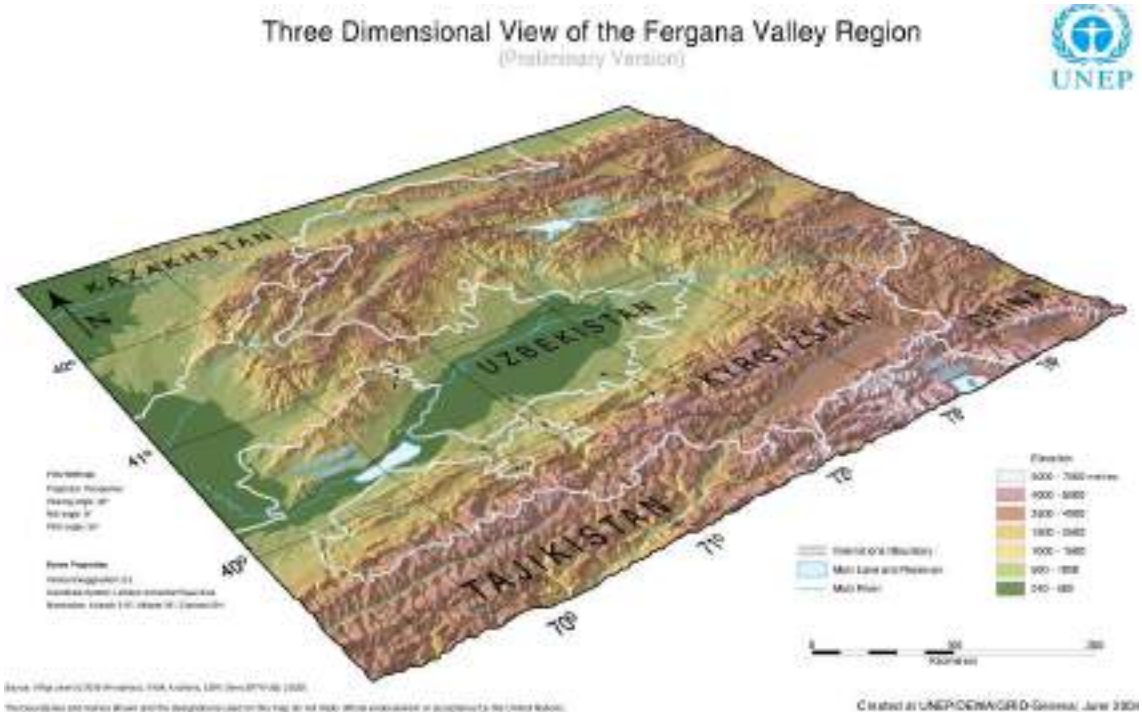
42) "Tajik, Kyrgyz Begin Joint Border Patrols," *RFERL,* September 11, 2009.

현재의 정책을 변경하고 싶은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UN, EU, OSCE 미국 등이 오랫동안 국경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경제원조와 기술적 도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43] 관계국들은 접경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특히 2014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간 철군 이후의 국경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획정 문제는 국경을 재설정하는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지거주 주민들과 국경지역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국경 지역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변경 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홀대받음으로 인하여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대측 주민들과 생존권을 두고 쉽게 대립하고 유혈 충돌로 비화하게 된다. 그리고 국경획정 협상에서 자국 측의 조그마한 양보도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민감하게 작용하여 감정의 폭발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비지를 비롯한 국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고려하면서 국경획정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협상과정의 순조로움과 획정 이후 국경의 안정성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페르가나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곡물창고이며 농산물의 집산지인 풍요의 땅이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종족 공동체로서 화합하며 살아 왔던 주민들이, 자신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국가, 국경, 민족, 권력의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삶이 황폐화하지 않도록, 소연방 해체로부터 발원한 페르가나 지역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지 않도록, 해당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페르가나 지역 국경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2: 페르가나 지역의 3차원 지도>



<출처: http://cominganarchy.com/2005/12/23/enclaves-iii-the-fergana-valley/>

43) George Gavrilis, "Central Asia's Border Woes An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Assistance," Open Society Foundations, *Central Eurasia Project, Occasional Paper Series* No. 6, May 2012.

<참고문헌>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종족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2011년, 통권 19호),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KIEP 전략지역심층탐구 11-12(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Central Asia: Border Disputes and Conflict Potential,” *ICG Asia Report* No. 33, 4 April, 2002,
“Central Asia: Rising Islamism Reshapes State Relation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Aug. 28, 2006.
“Central Asia: Tensions Fester in Ferghana Valley,”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Jan. 14, 2005.
“Central Asia: Tensions Persist over Ethnic Enclaves,”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Service*, May 07, 2010.
“Central Asia: Western Border Aid Has Little Positive Impact — Report,” *EurasiaNet.org*, June 7, 2012.
“Enclaves III: The Ferghana Valley,” ComingAnarchy.com, http://cominganarchy.com/2005/12/23/enclaves-iii-the-fergana-valley/ (검색일: 2012.11.29).
“Kyrgyz Border Guard Killed in Shoot-Out with Uzbek Guards,” *RFERL*, July 17, 2012.
“Kyrgyz in Exclave in Uzbekistan Want to Relocate to Kyrgyzstan,” *EurasiaNet.org*, May 12, 2012.
“Kyrgyzstan and Uzbekistan Are Going to Solve Problems of Barak Enclave Together,” *24.kg news agency*, April 4, 2012.
“Kyrgyzstan-Tajikistan: Clashes on Volatile Border Growing Vicious,” *EurasiaNet.org*, April 20, 2011.
“Kyrgyzstan, Uzbekistan Discuss Joint Border Patrols,” *RFERL*, November 24, 2009.
“Mamadzhan Berdishev: Transit through Sokh Uzbek Enclave Open Only in the Daytime,” *24.kg news agency*, July 6, 2012.
“Tajik, Kyrgyz Begin Joint Border Patrols,” *RFERL*, September 11, 2009.
“Uzbek and Kyrgyz Delegations Met in Osh on the Background of A Border Incident,” *Polit.Uz*, July 28, 2012.
“Uzbekistan withdraws armored vehicles from Sokh exclave” *Ferghana.news*, June 3, 2010.
“Uzbek-Kyrgyz Border Checkpoint Reopens after 18-Month Break,” *RFERL*, October 25, 2011.
Arne Haugen, *The Establishment of Natonal Republics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Gavrilis, George, “Central Asia’s Border Woes An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Assistance,” Open Society Foundations, *Central Eurasia Project, Occasional Paper Series* No. 6, May 2012.
Ingrid Pederson, “Central Asia Could Go to War over Water,” Business INsider, September 15, 2012, http://www.businessinsider.com/central-asia-really-could-go-to-war-over-lack-of-water-2012-9 (검색일: 2012.11.29).
Joshua Kucera, “What's behind the pullout of the Uzbek forces from Sokh?” *EurasiaNet.org*,

June 4, 2010.
Joshua Kucera, “Will the Ferghana Valley Become the New FATA?” *EurasiaNet.org*, November 9, 2012.
Nancy Lubin, *Calming the Ferghana Valley*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1999),
Natalia Yefimova-Trilling and David Trilling, “Kyrgyzstan & Tajikistan: Disputed Border Heightens Risk of Conflict,” *EurasiaNet.org*, August 2, 2012.
“Анклав Шахимардан: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ка на юге Ферганской долины,” *Ferghana.news*, янбаря 19, 2006 г.
“Отмена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Кыргызстаном оживила будни анклава Шахимардан,” *Ferghana.news*, августа 28, 2007 г.
“Шахимардан: Райский уголок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отрывается от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Ferghana.news*, апреля 10, 2006 г.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김영진(한양대)

1. 서론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노동이 남아도는 자원빈국에서 노동공급이 부족한 자원부국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주요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며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유출 노동이주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국제기구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비롯하여 노동이주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인구가 절대 수치에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 수치는 1백만 명에서 3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농촌지역이나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Karakalpakstan autonomous republic)의 계절적 이주자로, 따뜻한 계절에만 외국에 체류한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건설, 판매, 공업부문과 농업, 요식업 및 서비스부문에 종사한다.

우즈베크 정부는 자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이주문제가 국내외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주노동 및 송금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대로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크 정부는 이주문제와 관한 역내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데 계속하여 주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이주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국제적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에 관한 협력은 러시아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가장 큰 유입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는 1990년 중반 이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다수 지방 주민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노동이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UAE와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송출하는 공식적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협정이 노동이주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노동이주는 생산 잠재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노동이주는 이주노동 유입국에 대해서는 현지

1)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20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E. Marat(2009), p. 16 및 D. Abdurazakova(2010), p. 5를 참조.

인구에 실업과 일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관련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이주(대부분이 비공식 이주)는 광범한 실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이주자가 보낸 송금은 그 가족의 소비능력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과정은 이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화폐송금액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은행업 분야의 화폐이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둘째로는 주택,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문헌에서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주와 관련된 중요한 의문은 이주가 특정한 유형의 개발로 이끄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주가 어떤 송출지역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개발성과를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Taylor 1999; Jones 1998, p. 579). 또한 이주, 송금, 그리고 개발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주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사회학적인 결정요소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Castles and Miller 2009; Sadovskaia 2006). 본 연구는 이주 및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전개 및 중심적 이슈에 대한 개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주관련 문헌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일련의 의문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정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개된 노동이주의 규모와 전개 과정 및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송금의 방법과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와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지의 빈곤축소와 발전(현지 발전의 모든 수준을 포함)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연령층의 해외 이주로부터 사회공동체가 얻는 이익과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송금(현지의 인적자원 잠재력의 손실에 의해 얻어진 금융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자원이 단지 일상적인 필수품에 소비되는 것 외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득발생원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이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이주와 송금 및 개발: 이론적 검토

이주와 송금이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지만, 이주와 송금이 이주자 송출 지역 및 국가의 지속적인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40여 년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사고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주의적' 낙관주의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배한 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규모 비관주의가 지배했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대의 더욱 미묘한 견해의 출현, 오늘날의 송금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최근의 이주와 발전에 관한 낙관주의의 동시적인 부활과 함께 변화되었다(<표 1>을 참조).

<표 1> 주요 국면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시기	연구 관점	정책 분야
1973년 이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낙관주의	발전주의적 관점. 이주자에 의한 자본과 지식의 이전은 도약기에 있는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됨. 개발은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1973–1990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비관주의(종속이론, 두뇌유출)	비관주의 증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 이주정책의 반복적인 실험 이후 이주자 유입국에서의 (사회)통합에 초점. 이주는 대체로 개발 영역에서 사라짐.
1990–2001년	실증연구(NELM, 생계 접근, 트랜스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미묘한 견해로 재조정	유입이주 정책. 지속적인 회의론과 이슈에 대한 무시. 이주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
2001년 이후	특히 송금에 대한 연구 붐.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 개발과 귀환을 연결시키지 않음.	송금 붐 하에서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주의의 부활, 그리고 송금, 두뇌 확보, 디아스포라를 중요한 개발도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신속하게 선회. 이주의 개발에 대한 기여는 순환이주와 귀환이주에 두어진 새로운 희망 내에서 틀이 형성됨.

자료: Hein de Haas(2010), p. 4.

1.1 이주 낙관론: 발전주의 관점과 신고전학파 관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발전주의 시기에는 빈곤국이 대규모 자본이전과 산업화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개도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주과정에 나서게 되었다(Papademetriou 1985, p. 212).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주를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발전주의적인 “이주 낙관론자들”은 이주가 북-남(부국과 빈국) 간 투자자본의 이전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사회공동체를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상과 현대적인 지식 및 교육에 가속적으로 노출시킨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은 귀환 이주자들을 변화의 중요한 주체이자 혁신자 및 투자자로 인식한다. 이주자가 외국에서 귀환하기 전에 획득하게 되는 경험, 숙련 및 지식, 그리고 송금은 개도국의 경제적 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Penninx 1982). 이에따라 귀국 이주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송출국(고국)의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또한 이주를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이주이론은 송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Taylor 1999, p. 65). 균형성장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신고전학파 옹호자들은 이주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에 따라 송출국과 유입국 양국에서 임금수준이 균등화되면 이주는 멈추게 될 것이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서 도시 산업부문으로의 노동의 재배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며, 따라서 전체 개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Todaro 1969, p. 139). 강제되지 않은 시장적 환경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주자 송출사회에서 임금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다. 자금흐름은 정확히 노동이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De Haas 2007, 4).

따라서 엄격하게 말해 신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이주의 발전주의적인 역할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주에 관한 신고전학파 견해는 국제금융기관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보고서(World Bank 2002)인 <글로벌화, 성장 및 빈곤>의 "이주를 향한 정책"이라는 절은 유입국에 대한 이주의 편익을 요소가격 균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송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불과 1년 후 세계은행의 <글로벌 개발금융>에서 "노동자 송금: 외부개발금융의 중요하고도 안정적인 원천"(Ratha 2003)이라는 장과 대조적이며, 이 장은 송금에 대한 관심의 갑작스런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2 이주 비관론: 역사적 구조주의 관점과 종속이론 관점

1973년 석유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의 증가를 예고했다. 또한 국제이주의 위대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다소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사회과학에서 (역사적) 구조주의 견해로의 패러다임 이동과 종종 이주와 개발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실증연구의 양적 증가의 결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학술적 연구의 양적 증가는 이주가 저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이주 비관주의자들'은 이주가 인적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동체와 그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주는 결국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발전 그리고 송금 의존적인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뇌유출"과 "육체유출(brawn drain)"—농촌지역으로부터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대규모 이탈—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노동력을 앗아감으로써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란 비난을 받게 된다. 이주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극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와 송금은 또한 송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Lipton 1980).

또한 이주 비관론자들은 송금이 주로 과시적인 소비와 (주택과 같은) '소비적인' 투자에 지출되었을 뿐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Lewis 1986; Lipton 1980.). 이주자 송금의 생산적 투자로의 이용에 관한 회의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쟁에서 공통적인 논점이 되었다(Lewis 1986; Massey et al. 1998; Taylor and Wyatt 1996.). 또한 현지 경제의 약화뿐만 아니라 의존성 증가, 이주자들에 의한 소비 및 토지구입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토지가격 앙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주와 송금은 점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들이 들여온 돈은 도시 수입재화 및 외국산 재화나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의 기호를 변화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Lipton 1980). 이는 증가하는 의존성의 사이클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였다. 이주는 종종 사회공동체의 연대를 무너뜨리고 이주자 송출국의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ayes 1991). 더욱이 이주의 주요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된 이주자 가족의 복지 증가는 송금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수입원이란 점에서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북-남(부국과 빈국) 간 이주는 이주자 송출국의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촉

진하는 대신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Durand et al. 1996). 이러한 견해는 개발(발전)에 관한 역사적 구조주의 패러다임과 일치한다. 특히 종속학파 논자들은 이주를 통한 자본주의 침투와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을 저개발국의 경제에 피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라보았다. '누적적 인과관계'(Myrdal 1957)로 알려진 과정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중심부 지역인 서구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은 주변부 지역으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수탈한 것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이러한 접근은 신고전학파 및 발전주의 접근을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이주는 개인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1.3 다원주의 관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과 생계 접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 주로 미국의 연구배경 내에서 발전주의 및 신고전학파 이론(이주 낙관론)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이주 비관론)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양 접근은 이주와 개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데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NELM은 이주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주와 발전에 관해 훨씬 더 미묘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스타크(Stark 1991)는 개별 이주자의 행태를 더욱 폭넓은 사회적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개인이 아니라 가계를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의 이주에 관한 학술적인 사고를 부활시켰다(Taylor 1999). 이 새로운 접근은 이주를 가계의 위험분산행위로 간주한다. 가계는 소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과 같은 자원의 이용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 개인보다 더욱 나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은 개인소득 극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주자의 송금은 가계에 대해 소득보험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이주는 소득위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왜 사람들이 실제적인 소득격차가 없는 경우에조차 이주를 떠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Haas 2007, p. 6).

NELM 학자들은 이주가 가계의 생계에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기여한다는 점에 덧붙여, 대부분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이 불완전한 개도국의 상황에서 이주가 잠재적인 투자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99; Taylor and Wyatt 1996). 이러한 시장은 종종 거의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비엘리트 집단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는 다양한 시장 제약을 극복하고 가계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여 자신의 생계를 개선하는 생계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방법론적 기반의 취약성, 질적으로 낮은 분석 수준 혹은 많은 선행연구의 경험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접근은 이주 및 송금이 비 이주자 가계를 비롯한 이주자 송출사회 전반에 미치는 복잡하고도 종종 간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Taylor et al. 1996).

이와 같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변화는 사회이론에서의 패러다임 이동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때로 기든스(Giddens 1984)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회과학자들은 행위자 지향 접근과 구조 지향 접근을 조화시키려 했다. 구조와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이주가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쟁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나 '생계 접근'과 같은 다원주의적인 견해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개별적 의사결정의 총합이나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는 견해보다 결과의 다양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문은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어떤 사회공동체에서는 이주가 개발에 기여해 왔고 다른 사회공동체에서는 훨씬 덜 기여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종종 이주과정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영향은 변화한다(Jones 1998).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걸친 이러한 영향의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구분되고 사회적으로 상이한 이주 및 송금이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현황과 정책

3.1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추세와 현황

소비에트 시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전 연방 구성공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유출이주 비율을 가진 공화국 중 하나였다. 동 국가는 어떤 면에서 이주자들의 목적지였는데,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 유입이주는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토착인구의 사회·문화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즈베크 민족과 여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러시아어 사용이 확대되었고 러시아적인 생활양식과 습관이 스며들었다. 이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의사소통과 교육 및 사회생활의 주요 언어로 삼는 우즈베크인이 등장하였다. 이 과정은 식민지 알제리와 인도에서 일어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A. Ilkhamov 2006, pp. 2-3).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비이동성의 경향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내전의 참화로부터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난민들의 목적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하락함에 따라 우즈베크인은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타지크인과 키르기스인의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다. 수세기에 걸쳐 정주민족 혹은 준 정주민족의 생활양식을 영위해왔던 우즈베크인은 이제 외국(주로 러시아)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일종의 '유목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표 2> 목적지 국가별 유출이주의 구조(2004년)

국가	%
러시아	64.0
카자흐스탄	28.1
한국	5.2
터키	1.4
유럽	0.7
OAE	0.4
기타	0.2

주: 데이터는 국내 이주를 제외시키기 위해 재계산한 것이다.
자료: Valentina Chupik, NGO 'Tong Jahoni', Uzbekistan, 2005.

<표 3> 주요 인구, 경제, 사회 주요지표

	우즈베키스탄	노동유입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구 (2009년, 백만 명)	27.6	15.4	140.0
중간연령 (2009년)	24.7	29.6	38.4
인구증가율 (2009년, %)	0.94	0.39	-0.47
도시인구 (2008년)	37	58	73
세계인간개발지수(HDI) 순위 (2009년)	119위/182개국	82위/182개국	71위/182개국
총노동력 (2009년, 백만 명)	15.7	8.7	75.8
농업 노동력 (%)	44%	32%	10%
GDP에서 농업의 비중 (2009년, %)	26.8%	6.4%	5.2%
1인당 GDP (2009년, 달러)	2,800	11,400	15,200
빈곤선 이하의 인구	26%	12%	16%

자료: *CIA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및 한국이다. 약 64%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떠나며, 약 28%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약 5%가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다(<표 2>을 참조). 1999년 이후 카자흐스탄이 목적지 국가로 이주노동자들 간에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 흐름의 전반적인 증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향상과 더욱 나은 소득(돈벌이)에 대한 기대,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인접성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인에게 카자흐스탄으로의 노동이주는 러시아로의 이주보다 더욱 유리하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이 버는 평균소득은 이 두 목적지 국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은 더욱 낮은 비용으로 쉽게 갈 수 있으며 한 국경만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IOM 2006, p. 17).

이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지로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다.

3.2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주요 유입국

3.2.1 러시아로의 이주

소련 시기의 이주는 현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와는 달리 자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노동력 분배와 관리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의 우즈베크인은 지리적으로 아주 이동성이 낮았지만, 다른 공화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은 주로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소비에트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했다. 우즈베크인은 소비에트 군대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민족간 서열에서 낮은 지위에 놓였다.[2] 이와 같은 민족·종족간의 차별대우는 고향으로 돌아간 젊은 우즈베크인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한 우즈베크

청년층은 주류 소비에트 체제에 통합되어 그 가치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소비에트의 중간계층(인텔리겐치아, 전문가, 관리자, 관료)은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보다 종족·민족간 차별을 훨씬 덜 느꼈다. 전반적으로 중간계층은 소비에트체제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

소련의 해체 이후, 우즈베크의 청년층이 이용했던 이 두 가지 이주 채널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우즈베크인은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지 않게 되었으며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크 출신 학생들은 소비에트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3)]

이러한 이주행태의 변동은 우즈베크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특히 지방과 농촌지역에서 러시아어 구사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악화되어 가는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어의 지위는 우즈베크 사회에서 러시아 문화의 잔재를 점차 일소하려는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더욱 나빠졌다. 국가교육제도에서 러시아어는 제2 필수언어로 남아 있지만, 러시아어를 주요 학습언어로 가르치는 학교 수는 소련시기의 1,230개교에서 2000년에는 813개교로 감소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70%가 러시아를 능숙하게 구사한다(А. Л. Федотов и др. 2002).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이주하는 현재의 청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러시아어 사용능력과 러시아 생활에 대한 인지도라는 면에서 더욱 낮은 자질을 갖고 있다.

<표 4> 러시아로 이주한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추이 (1,000명)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카자흐스탄	124.9	65.2	55.7	29.6	40.2	51.9	38.6	40.3	40.0	38.8	27.9	**553.0**
우즈베키스탄	40.8	24.9	25.0	21.5	14.9	30.4	37.1	52.8	43.5	42.5	24.1	**357.6**
키르기스스탄	15.5	10.7	13.1	6.9	9.5	15.6	15.7	24.7	24.0	23.3	20.9	**180.0**
타지키스탄	11.0	6.7	6.0	5.3	3.3	4.7	6.5	17.3	20.7	27.0	18.2	**126.9**
투르크메니스탄	6.7	4.4	4.5	6.3	3.7	4.1	4.1	4.8	4.0	3.3	2.3	**48.3**

주: * 2000-2010년 동안 러시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의 합계로서 출국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 Services.

현재 러시아는 우즈베크 이주자의 주요 목적지로 남아 있지만, 이주자들의 구성과 사회적 구조는 변화했다.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러시아행을 선택하는 데는 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다(A. Ilkhamov 2006, 6.).

1)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 사용능력을 가진 우즈베크인에 대한 낮은 언어장벽
2)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에 직면한 러시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필요
3)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비자장벽의 해소
4)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훨씬 높은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급여수준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 이주자들이 노동허가나 영주권

2) 오늘날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이러한 경험을 겪고 있다.
3) 1992/1993와 2000/2001 입학년도 사이에 러시아 대학의 우즈베크 학생 수는 8,100명에서 3,300명으로 감소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숫자는 서구 대학에서 유학하는 우즈베크 학생 수를 넘어선다. Ф. Э. Шереги, Н. М. Дмитриев, А. Л. Арефьев(2003). 1998-2004년 동안 4,699명의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구의 대학에서 유학했다. 1998-2002년의 더욱 짧은 시기를 보면 8,610명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통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했다. A. Ilkhamov(2006), p. 6.

을 얻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이주국(Russian Federal Migration Servic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1-6월에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가운데 33,900명만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자격을 취득했다. 러시아연방이주국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식 이주통계는 실제 이주자 숫자의 10-15%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즈베크 이주인구에 대해 합법/불법 비율(10-15%)을 적용하면, 2005년 1월-6월 러시아에는 약 334,000명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다른 추정에 따르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01년 사마라 주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우즈베크 이주자의 수는 4,000명(조사결과의 17%)에 불과했다(Н. Митрохин 2003). 또한 문서화가 더욱 잘 되어 있는 러시아 내 타지크스탄 출신 이주자의 흐름을 고려하여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실제 숫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타지크 이주자의 추정치는 42만 명에서 60-8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의 전체 이주자 가운데 등록된 우즈베키스탄 인과 타지키스탄 인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각각 14.3%와 14.8%),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실제 숫자는 대략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즈베크의 NGO ‘Tong Jahoni’는 2005년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총 숫자는 80만 명(전체 우즈베키스탄 노동력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A. Ilkhamov 2006, p. 7).

러시아로 이주한 타지크 노동자의 이주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우즈베크 노동자의 사회적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타지크의 사회과학자 올리모바(Saodat Olimova)에 따르면,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소득은 타지키스탄 GDP의 22%를 차지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자의 52%는 건설노동자, 22%는 상업이주자(보따리무역상), 나머지는 농업노동자였다. 타지크 이주자의 94%는 남성으로 보고되고 있다(E. Tursunov 2004). 또한 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20-45세 사이의 남성이다. 이러한 우즈베크인은 숙련도가 낮은 벽돌공, 미장이, 농업노동자, 유리창닦이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범위는 출신지나 범주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A. Ilkhamov 2006, pp. 7-8).

첫 번째 범주는 주로 지방과 농촌지역 출신의 20-40대로 대부분 미숙련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집단이다. 이들 이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이슬람이나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9-40만 명의 이주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더욱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와 소득원을 찾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이들은 비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우수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범주는 영주 목적으로 러시아로 떠나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민족으로 러시아 문화에 동질성을 갖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동안 약 50-5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우즈베크에서 러시아로 바꾸었다. 또한 여기에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상당히 많은 우즈베크인이 포함된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비즈니스계와 행정부 관료 및 문화계 유명인사로 명성을 얻었다.

네 번째 범주는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정치·종교적 반체제 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우즈베크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피신하는 장소

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는 정치적 이민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 러시아 당국이 우즈베크 출신자들에 대해 이주자나 학생 혹은 시민권 지위를 취소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A. Ilkhamov 2006, p. 8). 러시아에서 위험을 느낀 일부 정치 망명자들은 우즈베크 정권과 유착관계가 덜한 우크라이나로 재이주에 나서기도 했다. 이 범주에 속하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2.2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1)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수준 하락과 비즈니스 활동의 제약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가진 상대적으로 더욱 나은 기회. 2) 이웃국가에 살고 있는 친척 간의 유대관계 때문인데,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안디잔(Andijan), 페르가나(Ferghana), 수르한다랴(Surhandarya), 호레슴(Khoresm), 그리고 타슈켄트 주 등의 국경 주변에 우즈베크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3)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통과시 비자면제제도이다. 역내 이주의 주요 루트는 다음과 같다.

점점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카자흐스탄, 특히 남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이주자들은 네 집단으로 뚜렷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의 이주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영구 이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출신의 카자흐 소수민족으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약 5만 명의 카자흐 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이주자의 75%가 카라칼팍스탄 출신이었다. 비공식 자료원에 따르면, 재정착민의 숫자는 18만 명에 달한다(Д. Кадырова 2002).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 민족의 이탈은 아랄해 유역의 인적 재앙, 카자흐스탄의 더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카자흐 정부가 오랄만인(*ralmans*: 카자흐 소수민족 출신 재정착자)에게 급부금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인해 촉진되었다.[4]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로의 대이동은 카라칼팍스탄의 민족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 범주는 일자리를 찾아 카자흐-우즈베크 국경을 넘는 농촌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로 대부분 러시아로 떠나는 이주자들과 유사한 범주의 노동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피크(V. Chupi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중 31%는 건설부문에, 31.9%는 시장노점(bazaars)에, 8.9%는 농업부문(종종 개인농이 소유한 면화농장)에, 나머지는 서비스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IOM 2006). 2005년 초반에 2천 명의 이주노동자들만이 남부 카자흐스탄의 지방당국에 등록되었을 뿐, 더욱 많은 숫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카자흐 대학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로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부패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네 번째 범주는 정치적 이주자와 난민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집단으로 이들의 숫자는 안디잔 사태 이후에 증가했다.

3.3 노동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즈베크 정부의 정책

4) 이러한 급부금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임에 대한 재정지원, 현금수당, 주택구입에 대한 신용이 포함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우즈베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목적지 국가에서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지의 국민과 각종 제도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아주 복잡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러시아 평균 수준보다는 아주 낮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었을 소득보다는 더욱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급여는 월 평균 52달러로 추정된다. 때때로 이는 CIS 내 다른 지역 출신 이주자가 러시아에서 받는 것보다 적다.[5]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때때로 자국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러시아에 언론자유가 더욱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즈베크인은 타지크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했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움직임이 증가해 왔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일반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주자들은 스킨헤드와 청년층이 저지르는 공격에 시달린다. 러시아의 스킨헤드(주로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젊은 연령대의 폭력집단)나 훌리건들이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을 살해한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즈베크 정부는 우즈베크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간(cross-national)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우즈베크 정부는 해외여행과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및 언론보도의 유입은 제한되었다. 이는 특히 이슬람 자료에 대해 그러하다.[6] 2002년 이후에는 세금 및 관세의 인상과 소규모 거래와 시장 비즈니스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인 장벽으로 인해 상거래를 위한 여행도 축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방의 대학에서 유학하도록 돕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삭감했다.[7] 이제 우즈베크 정부는 젊은 우즈베크 학생들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국제기관에 의혹을 제기한다.[8]

우즈베크 정권은 통제받지 않는 유출이주의 영향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크 정부는 노동이주가 '안전밸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해외취업은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면서 연간 약 13억 7,000만 달러를 송금의 형태로 우즈베키스탄에 들여오기 때문에 사회적 동요를 부채질할 실업문제를 유예시켜주기 때문이다(V. Chupik 2005). 이는 복지관련 경비로 지출할 국가예산의 부담을 덜어주며 정부에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는 과잉 노동력의 압력을 경감시킨다.

소비에트 시기와 그 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2002년 우즈

---

5)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출신 이주자는 133달러를 받고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자들은 130달러를 받는다. 한편, 러시아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평균소득이 이보다 더욱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소재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평균소득은 152달러였다. IOM(2006), p. 24.

6) 204년 6월 우즈베크 정부는 출판에 대한 제한조치를 도입하여 외국 저자의 저술을 재발행하는 출판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 이후 모든 책은 국가출판정보국(State Agency for Press and Information)의 허가를 받아 출판될 수 있게 되었다. A. Ilkhamov (2006), p. 18.

7) 우즈베크 정부는 2003년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돕는 우미드 자선단체의 자금조달 활동을 중단시켰다.

8) 이 정책은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정책과는 뚜렷이 대비되는데, 카자흐스탄의 젊은 학생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사적기금, 그리고 국제기부기관의 지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자금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2005/2006학년도에 인디애나 대학은 29명의 카자흐 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였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A. Ilkhamov(2006), p. 19.

베키스탄 인구는 39만 4,600명 혹은 3.5% 증가했다(Stat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3). 매년 약 300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다. 노동이주는 노동력의 커다란 부분을 흡수하며, 따라서 실업이 야기할 사회적 긴장과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유예시킨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곤란한 선택에 직면한다. 즉, 이주를 더욱 제한하여 미래의 사회적 긴장의 단계적 상승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정보나 지식 및 이념의 불가피한 유입, 그리고 국가 간 연결망에 우즈베크 주민의 참여 등 노동이주와 그것이 들여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 이주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주관련 정책에서 중심적인 과제는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한 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주의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9)]

4. 송금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역할

금융/현금 이전으로서의 송금은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불법적 이주자들에 의해 노동 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보내진다. 송금은 현재 송출국의 국가경제 및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데, 특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주요 이주자 유입국(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금융이전 채널은 크게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채널로는 은행이나 송금대행사(MTOs: Money Transfer Operators)를 이용한다. 비공식적 채널로는 친구, 친척, "하왈라(hawala)"와 같은 방법이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계정을 통한 거래방법을 이용하고 돈을 직접 소지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상당히 많은 불법적 송금은 이주자 자신이나 대리인에 의해 현금의 형태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빠져나온다. 국내의 사회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최근까지도 친척이나 친지, 열차 차장,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각종 연구와 조사는 비공식적 채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 Muradova and J. Kakharov 2009).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송금은 정확한 추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추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공식적 채널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1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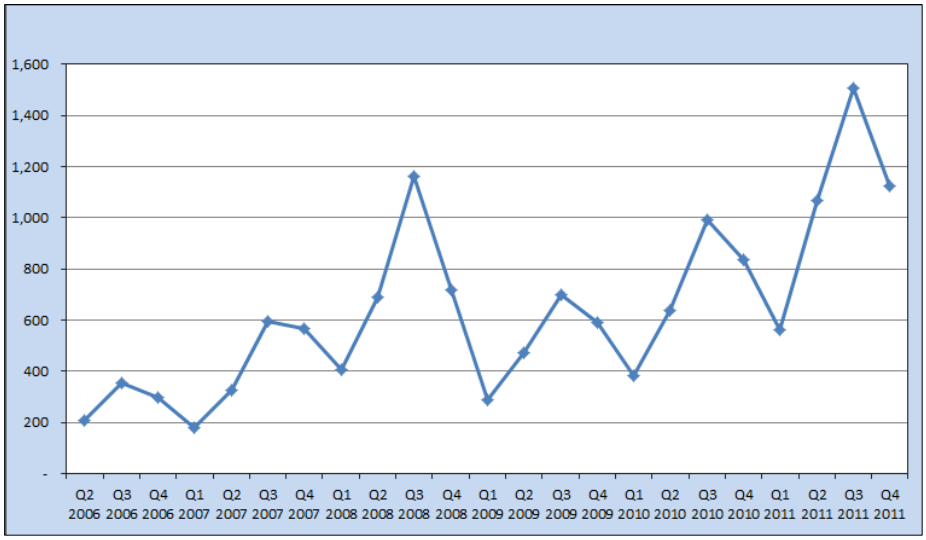
2008년 송금시스템과 우편서비스를 통한 러시아의 송금액은 13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송금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보내졌다. 송금의 주요 수취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크라이나로서, 각각 약 30억 달러, 26억 6,000만 달러, 19억 달러

9)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현재 우즈베크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가 노동이주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이 부처의 산하에 있는 대외노동이주국(External Labor Migration Agency)은 독립채산제에 기초하여 5개의 지역 지부를 가진 독자적이고 영리적인 단위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센터가 상당히 적은 노동이주 인력(연간 약 천 명)에 대해 출국 전 직업훈련과 노동이주자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및 민간기관이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우즈베크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S. Isakulov(2010), p. 112.

를 수취했다.[10] 그렇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인용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33억 달러가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이주목적지 국가에서 전반적인 소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송금액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8년의 이전금액은 2007년에 비해 78% 증가하였지만, 2009년 제1분기에는 2008년 제4분기에 비해 2.5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계절성 요인을 고려하여(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겨울이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봄에 러시아로 일하러 돌아간다), 2008년 제1분기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하락폭은 30%나 된다. 평균이전금액 또한 이 시기 동안 감소하여 2009년 제1분기에 497달러를 기록했다. 아래의 <그림 1>과 <표 5>는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전달된 화폐이전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그림 1]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분기별 송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러시아에 소재한 약 20개의 송금대행사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14개의 송금대행사는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송금대행사 중에서는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 같은 국제시스템이 유명한데, 러시아에는 아넬리크(Anelik)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표 5>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 (2007-2011년)

연도/분기 / 거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송금총액(백만 달러)	1,666	2,978	2,052	2,845	4,262
거래당 평균금액(달러)	643	739	563	572	589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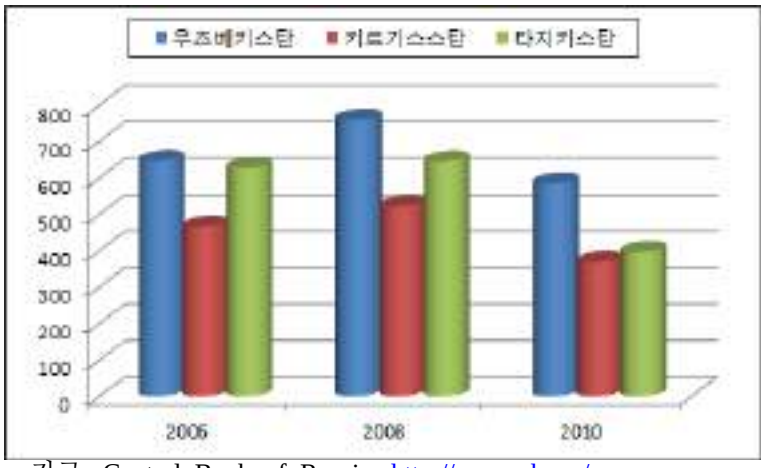
현행 법률은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러시아 국민이 송금대행사를 통하여 보낼 수 있는 최대 송금액으로 1인당 하루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외국인 거주자

10)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의 데이터.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대행사는 자주 자체적인 최대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Blizko>는 1만 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eader>는 약 1만 5,000달러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하는 경우 송금대행사는 송금의 최종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우즈베크 내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당국에 전달하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이 개시되기도 한다.

최근 수년에 걸쳐 러시아에서는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이전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대개 러시아에서 국내 및 해외로의 이전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다.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성과 이름, 금액, 통화, 수취인이 돈을 받기 편리한 국가 및 도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흔히 송금대행사에서 보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주자는 또한 이민카드와 임시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보내는 사람은 화폐이전의 추적번호를 포함하는 송금문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수취인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송금대행사는 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도 이전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전된 송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특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것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된다. 이 기간은 <Anelik>은 30일이고, <Leader>는 6개월이다(S. Murodova 2011, p. 8).

[그림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평균 송금액 (단위: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각종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 송금은 주로 해당 국가의 수도로 보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전의 대다수 수취인은 주요 도시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 여러 지역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능력 수준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자들이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출신이 건설노동자와 요리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이주자들이 대개 남부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평균송금액(760달러)은 키르기스스탄(522달러)과 타지키스탄(645달러)의 평균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이 종종 통합되어 보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축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보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금액을 여러 수혜

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초에는 보낸 사람(송금인) 당 수취인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 수준의 감소를 가리킨다(РусСлавБанк 2009). 다시 말해, 위기와 일자리 감소는 주로 불법 이주자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 중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합법적 이주자의 대부분은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러시아에서 계속 일했던 것이다.

송금대행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정상적인 송금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 가장 보편화된 송금대행사는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11]이다(<표 6>을 참조). 송금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을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러시아를 떠나면서 현금을 소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절도를 당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세관원들이 이주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비공식 지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표 6>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송금대행사 (웨스턴유니온, 유니스트림 등)	82	83.7
은행 송금	0	0
이주자나 친척에 의한 소지	5	5.1
우편 송금	0	0
여행사	0	0
버스기사	0	0
기타 (무응답, 무송금 등)	11	11.2
전체	**98**	**100**

자료: K. Aslan (2011a), p. 184.

4.2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다. 2007년의 시점에 25만 명의 우즈베크인과 22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인, 그리고 5만 명의 타지크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일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월평균 급여는 러시아에 비해 낮지만, 카자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수월한 귀화절차를 제공한다(M. Laruelle 2007; 2008).

카자흐스탄에서는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고 은행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유선전송시스템 수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전송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전문화된 국제유선시스템 간에 요금은 전반적으로 표준화(평균 2-4%이고 송금액에 따라 높아짐)되어 있고 송금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에서 3-24시간의 범위에 있다(E. Sadovskaya 2006, pp. 112-113).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신규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콘니코프(А. Иконников 2008)에 따르면, 1999-2007년의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이 57.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7>의 공식 통계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진 송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이주자

11) 웨스턴유니온은 2010년 시점에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약 43만 5,000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었다.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온은 2008년에 650억 달러를 전달했다.

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고향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 (단위: 백만 달러)

송금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송금액(백만 달러)	1.62	2.78	2.22

자료: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08).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연구소의 쿠르마노바(A. Kurmanova) 소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총액은 2007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융 위기로 인해 송금총액은 22억 달러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송금액은 전체 송금총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에도 하왈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А. Иконников 2008).

<표 8>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스스로 가지고 간다.	105	41.2
친구를 통해 보낸다.	61	23.9
친척을 통해 보낸다.	38	14.9
송금대행사(웨스턴유니온 등)을 이용하여 보낸다.	24	9.4
우편을 통한 송금	21	8.2
전혀 보내지 않는다.	12	4.7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스스로 가지고 간다.	4	1.6
온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보낸 적이 없다.	4	1.6
특별한 전달자를 통해 보낸다.	3	1.2
모름 / 무응답	37	14.5
표본 수	255	100

주: 응답자는 복수의 대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수는 100%를 초과한다.
자료: E. Sadovskaya(2006), p. 116.

그러나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국의 경우, 송금총액에서 비공식적 송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더 높을 수 있다. <표 8>는 카자흐스탄에서 행해지는 송금방법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우즈베크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는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부분(41.2%)이 수입을 스스로 고향으로 가지고 가며, 자신의 친구(23.9%)를 통해 보내거나 친척(14.9%)을 통해 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 중 17.6%만이 자신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보낸다. 사돕스카야(E. Sadovskaya)가 지적하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소수의 이주노동자만이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전반적인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중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이고 이

전에 상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4.3 노동이주와 송금: 개발 및 빈곤축소

송금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송출국의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지출되는 실제 사용처는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다. 흔히 이주 자체의 비용과 관련되는 부채와 기초 필수품이 충족되면 가족이 수취하는 송금의 많은 부분은 내구재와 주택구입에 사용되며,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나 투기, 각종 저축에 지출되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증거는 송금의 압도적인 부분이 주택, 건설 및 전통적인 가족의식(결혼식, 잔치 등)에 지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면에서 볼 때, 송금이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은 연구는 송금이 빈곤의 축소에 기여하고 가계의 생활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11.6% 및 전체 노동자의 1% 이상이 외국에서만 전적으로 일하며,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3명의 성인과 3.6명의 아이들을 부양한다. 이에 따라 성인인구의 약 2.2%와 아동의 4.4%가 외국의 가족이나 친척이 버는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인인구의 18.9%는 소득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일하는 데서 얻는다. 노동이주에 참여한 적이 있는 우즈베크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보낸 송금이 가족의 소득과 후생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주노동자를 두고 있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욱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것을 보여주었다 (IOM 2006, p. 49).

노동이주가 가계의 후생수준에 긍정적으로 개선한 것은 우즈베크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건축학부나 요리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대나 사범대 및 공과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노동시장에 가장 큰 긴장을 야기하는 지역, 예컨대 지자크(Djizzak), 페르가나(Ferghana), 시르다린스키(Syrdarynskii) 등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이주는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이들 지역의 공식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0.2-0.4%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연령인구의 약 52.0%만이 고용 상태에 있다.

노동이주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기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해 벌었으며, 이들의 사업체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7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37개)를 만들어내었고 기존 사업체보다 더욱 장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의 습득 그리고 유용한 인맥의 구축 등이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발달이 지체되어 상당 부분의 송금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의 국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매달 52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Е. Тюрюканова 2004).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노동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내는 총 송금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국(Agency on

External Labour Migration)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매달 최소한 300달러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또한 각종 증거는 송출국이 노동이주에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노동이주 정책을 실시할수록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각종 권리를 더욱 잘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GDP 대비 송금액 비중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	…	…	18.7	11.5
키르기스스탄	13.1	17.0	18.8	24.0	19.3
타지키스탄	20.2	36.2	45.5	49.5	35.1

자료: М. Б. Денисенко (2010).

<표 9>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에 관한 통계수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이주 유입국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08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GDP 대비 송금의 비율이 약 19% 수준에 이르렀으며,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송금액의 규모를 볼 때, 송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자 개발을 위한 잠재적인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13]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GDP 대비 이주자 송금액의 비율이 평균 10% 증가하면 빈곤인구의 비율을 1.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 Adams and J. Page 2005). <표 9>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에 따른 송금이 빈곤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주와 그에 따른 송금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송출국의 빈곤인구를 감소시키고 가계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지만,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결과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테일러 외(Taylor et al. 1996)는 이주의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잠재적 효과는 국내의 시장조건과 자원 부존, 그리고 외환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등을 비롯한 상황적(contextual) 요인에 의존하여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루카스(Lucas 2005)는 이들 요인에다 이주흐름의 범위와 성격, 이주자의 경험, 그리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여건과 같은 요인을 추가한다. 또한 이주의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원의 배치와 자원의 성공적인(혹

12) М. Б. Денисенко(2010)를 참조.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는 대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지는 정확한 송금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약 25,000명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연간 1만 달러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의 규모는 다른 원천의 자금유입액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합칠 경우 총 2억 1,430만 달러 혹은 GDP의 1.5%에 달했는데, 반면 총 송금유입액의 추정치는 10억 달러 혹은 GDP의 7.1%에 이르렀다. K. Aslan(2011b), pp. 98-99.

은 성공적이지 못한) 동원과 재활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른 한편, 이주와 개발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공간적 차원(즉, 지리적 규모)과 이주의 단계적 차원이 그것이다. 존스(Jones 1998)는 왜 어떤 학자들은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고 다른 학자들은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했는지를 설명한다. 이주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일정한 지역에서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정 지역에서 이주경험이 아주 새로운 경우에는, 주로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이 이주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개척자적인 단계(innovator stag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기 적응자 단계'(early adopter stage)는 사회계층의 중하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경험에 합류하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후기 적응자 단계(late adopter stage)'는 모든 계층의 광범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도시와 지방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층간 불평등이 줄어든다(K. Aslan 2008).

이주의 단계와 관련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른 단계일수록 이주자 가족들은 긴급한 필요에 송금 지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모든 이주자 송출지역에서 주택마련은 이주자 송금에 대한 최우선적인 사용처로 꼽힌다. 다시 말해, 지출패턴은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주의 '개척자적인 단계'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이주 목적지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이주의 범위와 영향이 한층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의 '조기 적응자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다음 단계인 '후기 적응자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이주의 양적인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의 이주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와 송금은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주와 송금이 과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불확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는 맥락적인 요인을 검토함으로써만 적절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잠재력은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입안하는 한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5. 결론

이주와 그에 따른 이주자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빈곤축소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중요성은 이주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송금의 커다란 부분이 비즈니스 발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보건에 사용된다면 해당 사회공동체에 대한 혜택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적 자금흐름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이끌지 못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송금의 대부분은 순수 소비나 소비적 투자에 충당된 반면, 생산적 투자에 할당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때 송금은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소비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환경이 지배적인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이주자의 의사결정과 잠재

적인 개발 성과에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은 새로운 국가제도를 설계하면서 사회적·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의 완고한 유산과 그것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내면화시킨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와 송금은 종종 개인, 가구, 사회공동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구조적인 발전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보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이주와 송금은 해당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주와 송금이 사회개발에 미치는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후생 증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그리고 보건·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주와 송금 그리고 개발의 연관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주와 송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새로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익과 과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새로 획득한 자본과 다른 모든 종류의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성과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힘과 역량에 의존할 것인데, 이주에 따른 송금은 중앙정부가 구축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틀 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 중심지에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비롯하여 비슈케크, 두샨베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즉, 이주와 송금에 따른 몇 가지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밖의 다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주와 관련된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은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적 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유입된 송금을 중소기업 발전에 충당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를 도시의 제조업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자 송금을 중요한 재원으로 하여 우즈베크의 농업사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 중심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즈베크 정부는 거시경제 계획, 은행 및 금융시스템 강화, 일자리 창출, 미소(微小)기업과 중소기업 강화,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 향상, 교육환경 개선, 특히 이주자와 비이주자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더욱 광범위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국가정책은 국가·사회의 조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주의 성과 특히 송금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노동이주 과정과 개발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정책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주의 잠재력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개인과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진. 2011.「중앙아시아의 노동이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슬라브연구』. 제28권 1호, pp.

Abdurazakova, D.(2010) “Social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Central Asia,” Paper presented to the ‘Expert Group Meeting on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entral Asia’, Bangkok.

Adams, R. H. and Page, J.(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3, No. 10, pp. 1645-1669.

Aslan, K.(2008) “Labor Migration: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Kyrgyzstan & Uzbekistan,” Report, Social Research Centre(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Bishkek).

Aslan, K.(2011a)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Rural Central Asia: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Kyrgyzstan and Uzbekistan,” Ph. D. Dissertation, Ohio: Kent State University.

Aslan, K.(2011b) “Determinants of Productive Investment through Migrants’ Remittances in Rural Central Asia,”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İİBF Dergisi*, Vol. 6, No. 2, pp. 97-121.

Castles, S. and Miller, M. J.(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Chupik, Valentina(2005) Interview with ‘Arena’, FreeUz.Org. (October 12).

De Haas, H.(2007) “Remittances, Mig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Conceptual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no. 34,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De Haas, H. 2010.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4, No. 1, pp. 227-264.

Durand, J., W. Kandel, E. A. Parrado and D. S. Massey(1996) “Migradollars and development: A reconsideration of the Mex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pp. 423-444.

Tursunov, E.(2004) Asia-Plus News Agency, Dushanbe, April 23, 2004, cited in BBC Monitoring (April 24).

Giddens, Anthony(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Ilkhamov, A.(2006) “Geographic Mobility of Uzbeks: The Emergence of Cross-National Communities vs. Nation-State Control,” Paper Prepared for NBR Conference on Generational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Uzbekistan (March 2).

IOM(2006) *Labour Migrants from Uzbekistan in the Southern Regions of Kazakhstan*, Assessment Report.

Isakulov, S.(2010) “The State Control of Migration in Uzbekistan and the Some Aspects of its Further Improvement,” *Perspectives of Innovations, Economics & Business*, Vol. 6, No. 3, pp. 112-115.

Jones, Richard C.(1998) “Remittances and inequality: A question of migration stage and geographical scale,” *Economic Geography*, Vol. 74, No. 1, pp. 8-25.

Laruelle, M.(2008) “Kazakhstan, the New Country of Immigration for Central Asian Workers,”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April 30).
Laruelle, M.(2007) “Central Asian Labor Migrants in Russia: The ‘Diasporization’ of the Central Asian State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5. No. 3, pp. 101-119.
Lewis, J. R.(1986)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Labour Exporting Countri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77, No. 1, pp. 27-41.
Lipton, Michael.(1980) “Migration from the rural areas of poor countries: The impact on rural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World Development*, Vol. 8, No. 1, pp. 1-24.
Lucas, Robert E. B.(1987) “Emigration to South-Africa’s min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pp. 313-330.
Marat, Erica(2009) *Labor Migration in Central Asia: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Clarendon Press.
Muradova, S. and Kakharov, J.(2009) “Appraisal and Analysis of the Currently Existing Financial Transfer Channels, Savings and Credit Products Available for Migrant Laborers in Uzbekistan,” Tashkent.
Murodova, S.(2011) “Inward Remittance Channels to Uzbekistan and the Impact of Global Economic Crisis on Migrant Laborers and Remittances,” Unpublished Manuscript (February 2011).
Myrdal, Gunnar(1957) *Rich Lands and Poor*, New York: Harper and Row.
National Bank of Kazakhstan(2008) Balance of Payments and Foreign Debt for 2008.
Papademetriou, Demetrios G.(1985) “Illusions and Reality i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Post–World War II Greece,” *International Migration*, Vol. 23, No. 2, pp. 211-223.
Penninx, Rinus(1982)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Practice: The Case of Turke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6, No. 4, pp. 781-818.
Ratha, Dilip(2003) “Workers’ remittances: An important and stable source of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3*, Washington, D.C.: World Bank.
Sadovskaia, E.(2006) “Labor Migrant Remittances and Their Role in the Migrant Household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entral Asia and Caucasus*, no. 30, pp. 109-123.
Stark, Oded(1991)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State Department of Statistics(2003) “Republic of Uzbekistan,” *Zerkalo*. 21, June 3, 2003.
Taylor, J. E.(1999) “The New Economics of Labour Migration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7, No. 1, pp. 63-88.
Taylor, J. E. and Wyatt, T. J.(1996) “The Shadow Value of Migrant Remittances, Income and Inequality in a Household-Farm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2, No. 6, pp. 899-912.
Taylor, J. E., Arango, J., Hugo, G., Kouaouci, A., Massey D. S., and Pellegrino, A.(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opulation Index*, Vol. 62, No. 3, pp. 397-418.

Todaro, Michael P.(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1, pp. 138-148.
World Bank(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Иконников, А.(2008) “Жесткое Эхо Кризиса,” *Журнал Континент*, № 6 (215), (26 Марта - 8 Апреля), http://www.continent.kz/2008/06/5.htm (검색일: 2012.09.15.)
Денисенко, М. Б.(2010) “Миграция и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Россия,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Азербайджан и Армения,” United Nations, ESCAP.
Кадырова, Д.(2002) “Узбеки Казахстана и Казахи Узбекистана,” *Континент*, № 20 (82) (Октябрь 16-29), http://centrasia.org/newsA.php4?st=1034910480 (검색일: 2012.09.15.)
Максакова, Л.(2005)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енден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Центр эффектив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Митрохин, Н.(2003)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Журнал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 3, http://www.strana-oz.ru/?numid=12&article=575 (검색일: 2012.09.15.)
РусСлавБанк(2009)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Как Метод Оценки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Press-release of RusSlavBank (July 14), http://www.russlavbank.com/prcenter/newsdetail/642.html (검색일: 2012.09.15.)
Тюрюканова, Е.(2004)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Стран СНГ и Новые Практики Эксплуатации Труда,” Доклад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грации, Каир +10.
Федотов А. Л. и др.(2002)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http://www.ln.mid.ru/ns-dgpch.nsf/0/8a295699af8a67af43256da4004c1a2c?OpenDocument (검색일: 2012.09.15.)
Шереги, Ф. Э., Дмитриев, Н. М., Арефьев. А. Л.(2003)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 России,” *Демоскоп Weekly*. № 99-100 (3-16 Февраля).

엘리트의 이반: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엘리트의 사례[1)]

현승수(한양대)

1. 서론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 줄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기집권 중인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정치 참여와 정치적 항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도 그렇다. 하지만 가장 독재적이라고 간주되는 국가들에서도 이에 도전하려는 개인의 시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국가에서 목격되는 항의 행동은 대개 대중 저항과 관련되지만, 종종 엘리트의 이반(離叛, defection)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엘리트가 지배 연합에서 이탈해 정치적 반대파가 되는 것이다.

색채혁명이나 선거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서 보고된 엘리트 이반 현상은 적지 않다. 사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엘리트를 관리하고 반대파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엘리트 이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 엘리트들은 정권과의 편한 관계를 단절하고 굳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시밭길을 선택하는가? 바꿔 말해, 성공이 불확실하고 잃어야 할 몫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엘리트는 왜 정권으로부터 이탈하려 할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비즈니스 엘리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정치적, 제도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며, 이러한 상이성을 토대로 세 가지 엘리트 이반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보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정치적 반대파가 획득 가능한 자원의 차이가 엘리트 이반의 유형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경제의 사유화가 많이 진행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비즈니스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정권 이반 정도가 크다. 그들은 반대파에 자금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반 행위가 반드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반면, 경제가 중앙으로 집중되고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반대파의 경제적 기반은 전무에 가깝기 때문에 엘리트의 이반은 기대하기 힘들다.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대단히 완만하기는 하지만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왔고 따라서 사유화와 엘리트 이반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카리모프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부터 소수이기는 하나 우즈베크인 비즈니스 엘리트의 반정권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사유화 정도가 낮을지라도 비즈니스 엘리트로 하여금 반대파 정치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러한 가설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개혁을 정치·경제 권력의 대체적 중심 창출과 연계시켜 설명하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시장 개혁은 사유화를 통해 자원을 개인 행위자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율을 획득하게끔 도와주며 정치, 시민사회 그리고 반대파 조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1) 이 논문은 아직 초고 단계이며 토론과 차후 연구를 통해 보강 및 수정될 예정입니다. 인용을 삼가 해 주십시오.

한편 사유화가 소유의 탈중앙화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엘리트의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 못지않게, 대통령과 가까운 특정 엘리트 집단이 최상급의 자산을 독점하는 경향도 흔히 발견된다. 자원이 분산되거나 혹은 집중되는 상호 모순된 과정은 사유화로 인해 혜택을 받은 야심에 가득 찬 '외부'(outsider) 엘리트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산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부심하는 '내부'(insider) 엘리트들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을 초래한다.

물론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시장경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외부 비즈니스 엘리트가 반드시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해 반대파 집단과 손을 잡는다는 결정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비즈니스 엘리트가 정치적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들이 반대파로 돌아서는 사례는 오히려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반은 엘리트에게 위험부담이 적은 선택지, 즉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체제를 등지고 도피하는 행위가 엘리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마지막 선택지인 듯하다. 그러나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배자를 끌어내릴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2005년과 2010년의 키르기스스탄 사태가 이를 예증해 준다고 하겠다. 엘리트의 이반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엘리트와 대통령, 엘리트와 대통령 핵심 그룹(inner-circle) 간의 갈등이 우선은 확대되어야 하며, 엘리트가 집단행동을 통해 이를 표출해야 한다.[2] 집단행동은 잠재적인 불만을 공개적인 항의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필요로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반하려는 엘리트가 자신의 동기를 뒷받침해 줄 대중적인 지지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엘리트 이반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내부의 갈등에 기초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엘리트와 카리모프 정권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뒤이어 4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엘리트 이반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

2. 연구를 위한 개념과 분석틀

(1) 엘리트의 개념 정의

엘리트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또 정기적이며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역할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엘리트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제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반대파로의 '이반'은 엘리트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밀접하게 유착된 지배 시스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개적으로 이에 도전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엘리트의 공개적인 도전에는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거나, 엘리트 스스로가 정치적 대안임을 자처하며 공직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는 구조 개혁을 지향하는 조직에 참가하든지 자신이 직접 그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3]

---

2) 핵심 그룹은 주로 가족 및 친족, 혈연 집단, 동향 집단, 재정 후원자, 비즈니스 동업자, 정치적 동지 등으로 구성된다.

3) 엘리트와 달리 지식인(intelligentsia. 작가, 예술가, 언론인 등)이나 비정부 조직의 수장은 정부의 고위직을 점하고 있지 않은 인물들로서 시민사회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엘리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엘리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리더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제한돼 있고 풀뿌리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반대파에게는 일반 시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민들로서는 정권을 이반한 엘리트의 민주적 신뢰성에 대해 종종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반대파에

한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엘리트와 비즈니스 엘리트를 구분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선행연구의 관행에 따르고자 한다. 확실한 것은 정치 엘리트에 비해 비즈니스 엘리트가 국가의 제재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경우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엘리트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은 이념이나 파벌에 따른 고려보다는 물질적 이익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안이 대형 사업과 관련될 경우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정치적 원인으로 초래된 경제 분쟁에 휘말려들기도 하며 혹은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결과물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도 한다.[4] 그러나 어느 경우건 비즈니스 엘리트가 치러야할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사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아마도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의 경우일 것이다. 그는 한때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유코스(Yukos)의 경영주로서 반대파 정치에 손을 댔다가 푸틴 대통령의 노여움을 산 인물이다. 2003년에 유코스의 자산은 국유화됐으며 호도르코프스키는 경제 범죄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2) 엘리트 이반 이론

오늘날 엘리트의 이반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개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 결속이나 엘리트 내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른 차이다. 첫 번째 시각은 엘리트가 대통령에게 성공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집단행동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한편 두 번째 시각은 권위주의 통치자의 엘리트 통제 역량에 주목하고 엘리트의 이반을 제도의 취약성 및 통치자의 역량 부족과 연결 짓는다.

집단행동의 논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며 또 그들이 추축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독재는 대중 동원의 결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엘리트의 인식 변화 때문에 붕괴된다. 다시 말해 엘리트가 정권의 유지 역량에 의심을 갖게 될 때 독재가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5] 만일 엘리트가 정권의 취약성을 눈치 채게 되거나 정권이 동요되는 순간, 정권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사건, 지도부 내부의 분열 혹은 유사 정권의 붕괴 등을 포착하게 되면 그 정권의 모든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6] 평상시라면 큰 문제없이 치러질 선거가 독재자의 권력 유지 역량에 대한 엘리트의 의심을 부추겨 줄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반을 생각하고 있던 엘리트는 선거 결과나 정권 자체에 대한 대중 항의를 선동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자신의 선거구에서 지지자를 끌어 모을 수도 있다. 종종 치안유지 기관이 항의 대중을 진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엘리트로 하여금 대세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다.[7]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와 자원 분배 구조, 기타 보상이 관료들과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다면, 엘리트는 개인적인 견해나 충성도와 관계없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또 대통령이 선택적인 인센티브를 무기로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가세한 시민사회 리더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4) Jeffrey A. Winters and Benjamin I. Page, “Oligarchy in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4 (2009), p. 732.

5)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World Politics*, Vol. 44, No. 1 (1991), pp. 7-48.

6)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in soviet-type societies,” Journal of Soviet Nationalities, Vol. 1, No. 2 (1990), p. 17. 유사 정권의 연쇄 붕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Mark R. Beissinger, “Structure and example in modular political phenomena: The diffusion of bulldozer/rose/orange/tulip revolution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2 (2007), p. 263.

7) Beissinger (2007).

주로 자기 몫에 민감한 엘리트가 자신의 후견인, 즉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은 비참한 경제 여건에 직면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내부 분열에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한편 집단행동 이론을 보완해주는 것이 독재자의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엘리트의 이반이 제도와 현 정권의 취약성에 기인하며 독재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엘리트가 이용한다는 것이다.[9] 권위주의 통치자는 강력한 정치 제도에 위협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켜 주고 경제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대중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당과 공식 기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10] 공식 기구들의 자리에는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들어앉는데, 흔히 씨족이나 지역 엘리트 그리고 재정산업 집단 등이 그들이며, 이들은 제한된 경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혹은 대통령과 경쟁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개혁이 취약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재 정권을 방해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개혁은 자원의 균형을 독재자로부터 부유한 자본가 쪽로 바꿀 뿐만 아니라, 정권의 권력 독점을 저해한다.[11]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재자가 경제 자원을 '비가역적으로' 분산시켜 버렸다면 그는 반대파라는 씨를 거두게 될 것이며, 권위주의 통치를 파괴할 '도깨비'를 풀어놓는 셈이 될 것이다.[12] 뿌린 씨와 도깨비의 비유는 적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이 시장 개혁을 추진한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단행동 이론과 독재자의 취약성에 주목한 이론은 엘리트 이반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집단행동에 대한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독재자가 강제 수단과 행정 수단 그리고 개인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사적인 경제 자원에 대한 접근(사유화의 결과)이 비즈니스 엘리트의 반대파 정치로의 선회를 설명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 중앙아시아의 맥락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개인에 주목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엘리트가 독재자에게 반기를 들도록 유도한 조건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13] 의회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독재자와 그에 저항하는 도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즉 선거라는 개별적인 이벤트로 시야를 한정하기보다는 반대파 엘리트의 경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시장 개혁과 엘리트 이반 현상의

8)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No. 2 (1999), p. 122.

9)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002), pp. 51-65.

10) Jason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1) Scott Radnitz, "The color of money: Privatization, economic dispersion, and the post-Soviet "revol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No. 2 (2010), pp. 127-146.

12) Radnitz (2010), p. 136, 143.

13) John A. Gould and Yaroslav Hetman, "Market democracy unleashed? Business elites and the crisis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in Ukraine," *Business and Politics*, Vol. 10, No. 2 (2008), pp. 1-33; Philipp Kuntz and Mark R. Thompson, "More than just the final straw: Stolen elections as revolutionary triggers," *Comparative Politics*, Vol. 41, No. 3 (2009), pp. 253-272.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중앙아시아의 맥락에서 도출해 보려고 한다.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여 년간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은 예외 없이 신가산제, 초대통령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강화해 왔다.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대통령은 확대된 권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통치 기구는 취약하고 허용되지 않는 정치 행위의 리스크는 높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율은 제한을 받으며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적 반대파는 주변화 되고 정당은 중심적인 정치 행위자로 나서지 못한다.[14]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기제를 직접 만들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 지배 정당은 엘리트의 결속을 도모하거나 엘리트의 이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가 힘들어진다. 중앙아시아 각국에는 카자흐스탄의 '누르오탄'(Nur Otan), 키르기스스탄의 '알가, 키르기스스탄!'(Alga, Kyrgyzstan!),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우즈베키스탄의 '인민민주당' 등 권력 정당이 존재하지만, 이들 정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권력 기반보다는 독재자의 권위와 지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배 정당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은 후견주의(clientelism)에서부터 콤프로마트(komproma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엘리트 통제 메커니즘을 보유한다.[15] 대통령에 대한 엘리트의 충성은 전술적 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공식화된 관행에 의해서 고무된다. 단적인 예가 중앙집중화된 엘리트 승진 시스템인바, 이를 통해 많은 정부 직책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지명 시스템은 주로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충성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흔히 대통령의 수직적 통치 구조로 불리며, 행정부 각 부처에서부터 지방 단위에까지 뻗쳐 있다. 지명 받는 자는 자신의 직책이 대통령의 결정에 크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유사한 정치 체제를 공유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이성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의 수출에 힘입어 다른 4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위치에 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에 의존하는 후진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면화와 천연가스의 수출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 나라가 경제 자유도에서도 상이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표1>은 2011년도에 발표된 중앙아시아 5개국의 평균 시장 개혁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경제발전과 재건을 위한 유럽은행>(EBRD)은 수 개 지역에서 개혁의 진척도를 측정해 왔는바,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EBRD가 설정한 범주 가운데 3개 범주(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만 제시했다. 점수 1.00은 엄격히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로부터 전혀 혹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점수 4.00 이상은 그 나라가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스펙트럼의 양 끝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위치해 있다. 전자는 독립 직후부터 적극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했으며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WTO에 가입한 최초의 나라다. 반면 후자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을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가격 통제도 심하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의 밑에 위치해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지역의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타지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

14) Henry Hale, "Regime cycles: Democracy, autocracy, and revolu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Vol. 58, No. 1 (2005), pp. 133-165.

15) 콤프로마트는 러시아어로서 개인독재형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엘리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치스러운 혐의를 뒤집어씌울 때 사용된다.

<표1> 중앙아시아 각국의 시장개혁 진척도

국명	기업		시장 및 무역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
카자흐스탄	3	4	4- ↓
키르기스스탄	4-	4	4+
타지키스탄	2+	4	4
투르크메니스탄	1	2+	3-
우즈베키스탄	3-	3+	3-

출처: EBRD, *Transition Report 2011*, p. 13.

이러한 경제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스탄 5개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정치적 공개도를 측정한 세계은행과 <voice and accountability index>의 통계에 따르면 스탄 5개국은 공히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서 평균 혹은 그보다 다소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16]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통치자가 번번이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철저한 독재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목격된다.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폭압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직까지 엘리트가 정권을 이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이것은 엘리트의 이반을 위해서는 사유화와 경제적 경쟁이 정치적 다원주의보다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다원주의가 활성화될수록 이반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보장되기 때문이다.[17] 하지만 같은 독재 정권일지라도 보다 경쟁적인 체제에서만 의회 내에 비즈니스 엘리트가 존재하며 이는 그들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4)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경험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동 현상이 시장 개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사유화와 권위주의적 통치 사이의 긴장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화는 경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엘리트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확대시키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핵심 자원은 대통령과 그 핵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 엘리트를 살 지우기 위해 고안된 가산제 시스템의 맥락에서 볼 때, 사유화의 결과물로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자산의 분산은 일부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정치적 반대파로 이반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사유화는 부유한 비즈니스 엘리트를 출현시키고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세력을 만들어낸다. 또 사유화는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엘리트 내부에 분쟁을 야기하며 이를 악화시킨다. 비록 공

16)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mc_countries.asp
17) Joshua A. Tucker, "Enough! Electoral fraud,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post-communist colored revolution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3 (2007), pp. 535-551.

식, 비공식 메커니즘이 엘리트를 권위주의 대통령에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은 자기 핵심 그룹(inner-circle)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대규모 사업을 맡길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각 집단은 국가 기구나 회사, 기업 혹은 경제 전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한다.[18] 누구에게 경제 부문 또는 개인 기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핵심 그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경우 핵심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엘리트는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게 된다.

권위주의 독재자가 이상적인 수준의 자유 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해도, 부패나 후견주의, 경쟁에 대한 장벽 등 주요한 왜곡은 남게 된다. 많은 경우, 시장의 결함은 엘리트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바, 이것이 엘리트가 지배 연합으로부터 이반하기가 힘든 이유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 왜곡은 배제된 엘리트의 야심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들 엘리트가 대통령 측근에게 배분된 정치, 경제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왜곡 중 하나는 사적 재산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권리 없는 재산'으로 알려진 재산 집행 유예 상태 하에서 개인의 소유는 존재하지만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핵심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줄 공정한 법적 메커니즘에 접근하기도 힘든, 핵심 그룹에 속하지 못한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진다.

이 문제는 '습격'(reiderstvo)이라고 부르는 널리 퍼진 관행으로 더욱 악화된다. '습격'이란 사유재산을 갈취한다는 의미인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엘리트가 다른 엘리트로 하여금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거나 가격을 낮춰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국가 기구와 법 강제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 피해를 입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공식적인 방도가 없는 일부 비즈니스 엘리트는 마지막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파로의 이반을 선택한다. '습격'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배제된 엘리트가 대통령과 핵심 그룹에 대해 갖는 불만이 습격이라는 사건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선거가 엘리트와 시민의 반체제 동원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규명했다.[20] 2001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엘리트 이반 현상과 키르기스스탄의 두 차례에 걸친 정변이 시사하는 바는, 집단적인 부정으로 점철된 선거와 임기 제한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습격으로 인해 점화된 대통령과 그 핵심 그룹에 대한 불만이 강력한 동원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습격당할 위협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된 엘리트가 습격으로 자기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충성을 견지하느냐 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이다. 반대파로의 전향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와 비교할 때, 앞의 두 가지 선택지는 비용과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독재자와는 다르게, 시장 개혁을 거부하는 독재자는 사적인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대규모 사유화에도 소극적이다. 사유화가 대규모 비즈니스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비교적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는 비즈니스 엘리트 계급의 출현은 불가능하다.[21] 국영기업을 책임지는 엘리트는 소유자라기보다는 매니저의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리

18) Dosym Satpaev, "An 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Kazakhstan's political elite and an assessment of political risk levels," In Tomohiko Uyama (ed.), *Empire,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Eurasia* (Sapporo, Japan: Slavic Research Center, 2007), pp. 295-296.

19) Andrew Meier, "Who Fears a Free Mikhail Khodorkovsky?"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22, 2009).

20) Tucker (2007).

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독재자의 의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대통령과 가산제 시스템에 도전할 만한 독립된 자원도 확보하기 힘들다. 게다가 재산의 대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제분쟁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만일 소규모 사유화가 허용된다면 소규모 비즈니스의 소유주 계층과 지방 기업인들이 육성될 것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매일처럼 직면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대통령과 억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 역시 습격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매니저가 그렇듯, 지방 기업인들이 정치적 반대파로 전향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22] 이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조직적, 재정적 자원과 언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뒤따를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3] 따라서 시장 개혁을 거부하는 독재 정권 하에서 국영 기업의 책임자나 소형 비즈니스의 소유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충성을 관철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망명하는 방법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엘리트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계급적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1990년대 초, 급속한 소규모 사유화가 진행되어 과거의 지하 경제 활동과 시장이 부분적으로나마 합법화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비즈니스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유착되어 있다. 더욱이 1996년 우즈베키스탄은 개인의 해외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가혹한 환율 통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24] 정부는 거의 모든 중기업과 대기업의 돈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쥐고 있는바, 그것은 이들 기업이 공공지주회사라는 틀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법적으로나 혹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결국 국가와 비즈니스는 거의 모든 레벨에서 연동되어 돌아가고, 다른 나라의 이행기 경제와는 반대로 기업이 국가를 포획하는 정도는 대단히 낮다.[25] 또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사유화의 진척도가 대단히 낮으며 재산권의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다.[26]

사실상 2007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엘리트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수의 부유한 기업가들은 대통령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은 대통령의 딸인 굴나라 카리모바(Gulnara Karimova)로서 그녀는 통신업, 금광업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요식업, 건설 자재와 언론, 관광업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

21) Radnitz (2010).

22) Gül Berna Özgan, *Building States and Markets: Enterprise Development in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cMillan, 2010).

23) Lucan A. Way, "Pluralism by default in Moldova,"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4 (2002), p. 132.

24) Richard Pomfret, *The Central Asian Economies since Independen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25) J. Hellman and M. Schankerman, "Intervention, Corruption and Capture," *Economics of Transitio*n, Vol. 8, No. 3 (2000).

26) 특히 대기업의 재산권 문제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R. Kapelyushnikov, "Sobstvennost' bez Legitimnosti," HSE Working Paper, WP3/2008/03 (2008).

중요한 비즈니스 그룹에는, 소비에트 시기 무역부 장관을 역임하고 카리모프 정권 하에서 부총리로 있으면서 식품 무역과 소매업, 금융업, 요식업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미라브로르 우스마노프(Mirabror Usmanov)와 교통, 자동차, 섬유업 등에 진출해 있는 가푸르 라히모프(Gafur Rakhimov), 금속 기업을 갖고 있는 살림 압두발리예프(Salim Abduvaliev)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라히모프와 압두발리예프 그룹의 경우는 국가 소유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재정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행기 초기 당시 러시아의 과두재벌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27]

결국 우즈베키스탄은 지대 추구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면서 경제보다는 정치와 행정 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나라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경제적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가 있는 우즈베크 회사는 정부의 지원에 덜 종속적이다. 또 다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담배 산업을 장악하면서 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해외 투자자 중 하나인 브리티시어메리컨타바코(British American Tabacco, BAT)를 사례로 들어, 이 회사가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소비세를 감소시키고 자사 브랜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창출했으며 경쟁사를 불리하게 하는 경영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화된 구조 하에서도 사적인 지대 추구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비중요 산업에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28]

<표 2>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비즈니스 엘리트[29]

그룹	미라브로라 우스마노프
주요 진출 분야	▸식료품 수입 ▸도매업 및 소매업 ▸은행업 ▸요식업
주요 계열사	▸АК «Узбексавдо» ▸АО «Узбекбирляшув» ▸ассоциация «Масложиртабакпром» ▸ХК «Узплодоовощвинпром» ▸ассоциация «Узмясомолпром» ▸ОАО «Узозиковкаттаъминот» ▸СП «Ардус»
금융 계열사	▸Савдогар−банк
언론 계열사	
정치 자원	미라브로르 우스마노프가 직접 관리
핵심 인물	▸Файзиев Зафар («Узбексавдо» 회장) ▸Худоеров Махамаджон («Масложиртабакпром» 이사장) ▸Аюпов Азимжон («Узплодоовощвинпром» 이사장) ▸Нурмухамедов Бахтиер («Узмясомолпром» 회장)

27) Alexander Libm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post-Soviet space: The case of Central Asia,” MPRA Paper, No. 11874 (2008).
28) Libman (2008).
29) 다음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필자가 가공 및 편집하였다.
http://www.eurasianhome.org/xml/t/databases.xml?lang=ru&nic=databases&country=191&pid=984&s=h53xql 455wvuwxnruig3h4mg

그룹	굴나라 카리모바
주요 진출 분야	▸전자통신 ▸건축자재 ▸금융업 ▸탄화수소 시장 ▸무알콜음료 생산업
주요 계열사	▸페르가나 정유공장 ▸АК «Узбектелеком» ▸СП «ЗероМакс» ▸СП «Узгазойл» ▸유리제조 공장 «Кварц» ▸«Кока-Кола» 공장 및 우즈베키스탄 지사
금융 계열사	▸Банк «Кредит Стандарт»
언론 계열사	▸미디어 그룹 «Терра групп» 산하 라디오방송 «Терра Радио» 및 잡지사 «Бела Терра» ▸СП КАМАЛАК-ТВ
정치 자원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인척이 계열사 대표 역임
핵심 인물	▸굴나라 카리모바

그룹	가푸르 라히모프
주요 진출 분야	▸운송업 ▸자동자 제조 ▸경공업
주요 계열사[30]	▸НАК «Узбекистон хаво йуллари» ▸ГАЖК «Узбек темир йуллари» ▸Central Asia Transport Co ▸ГАК «Узавтойул» ▸자동차 공장 «Уз-Дэу моторс»
금융 계열사	
언론 계열사	
정치 자원	국가안전국 수뇌부와 연계
핵심 인물	▸Рахимов Гафур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Раматов Ачилбай (ГАЖК «Узбекистон темир йуллари» 이사장) ▸Тян Валерий (НАК «Узбекистон хаво йуллари» 총지배인)

그룹	살림 압두발리예프
주요 진출 분야	▸흑색·유색 금속 시장
주요 계열사	▸알말르이크 산악제철 종합공장[31]
금융 계열사	
언론 계열사	
정치 자원	국가안전국 수뇌부 및 굴나라 카리모바와 연계
핵심 인물	▸Абдувалиев Салим (우즈베키스탄 격투기협회 회장)

30) 라히모프 그룹의 회사는 계열사는 아니나, 그룹의 대표들이 각 사의 재정과 운영을 통제한다.
31) 개인과 국가의 공동 소유이나 모든 재정 관리와 운영은 압두발리예프 그룹이 담당한다.

4. 제한된 사유화 하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규모 상인에서부터 전통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정부의 통제와 괴롭힘이 빈번하며 가혹하다. 직접적인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2005년에 발생한 안디잔 사건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23명의 안디잔 출신 청년 사업가들이 이슬람 과격파라는 죄목으로 체포, 구금된 것이 유혈 폭동의 발단이었다. 여전히 사건의 전모는 안개 속에 있지만, 많은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업가는 권위주의 통치의 희생자였다. 이들은 카리모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권력에서 밀려난 현지 주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안디잔에서도 주지사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들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경제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지사가 경질됨으로써 자기네 후견인이 권력에서 밀려나면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이권이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신임 주지사의 부임과 동시에 시행된 정풍 운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23명의 청년 실업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원인에는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잠재적 라이벌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3명의 청년 실업가들은 국가가 무시하고 방치해 온 안디잔 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초에 발생한 또 다른 체포 사건도 사례로 제시할 만하다.[32] 당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 명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안에는 공화국 최대 은행들과 합작투자 회사, 공장, 전통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의 소유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죄목은 탈세, 사기, 자금 유용에서부터 위생시설 기준 미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최고 갑부로 불리던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정리하고자 한 정권의 의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카리모프 대통령이 행한 다음 연설에서 드러났었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올리가르히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만일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적어도 두 명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국외로 탈출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제 활동은 대통령 핵심 세력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딸인 굴노라 카리모바와 롤라 카리모바(Lola Karamova)는 대통령 친인척이 경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를 통해 막대한 부를 독차지하는 ‘포식자’로 자주 언급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기업들 역시 만만한 수탈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인터스팬(Interspan)은 동 기업이 차(tea) 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해 굴노라가 자기 회사의 피고용인들을 납치, 고문,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결국, 인터스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여 왔던 다양한 사업에서 강압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차, 트럭, 컴퓨터, 현금 및 물리적 재산뿐만 아니라 (중략) 가치 있는 지적 재산, 호의(good will),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유통망 등이 포함된다. 인터스팬은 카리모바가 소유주로 있는 회사가 이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인터스팬과 우즈베크 과두재벌, 지방 경제인들이 당한 부당한 조치들을 감안한다면, 다른 엘리트들이나 일반 시민이 공공연하게 카리모프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화국 독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들

32) http://inozpress.kg/news/view/id/16128; http://newsland.com/news/detail/id/470469/

가운데 반카리모프 파로 전향한 이가 적어도 두 명은 있다. 바호디르 초리예프(Bakhodir Choriev)가 그 중 한 명인바, 그는 민영화된 농장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04년 '비르담리크'(Birdamlik, 연대)라는 이름의 반대파 운동을 조직했다. 또 한 명은 2005년 '세르퀘쉬 우즈베키스토님'(Serkuesh Uzbekistonim, 햇볕 연합)을 결성한 비즈니스 엘리트 산자르 우마로프(Sanjar Umarov)이다.

초리예프의 사례는 명백히 습격(reiderstvo)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그의 가족은 민영화가 예정된 집단농장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 그 과정이 너무 신속했고 기업 운영을 다양화하려는 치로예프의 계획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관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가 자산의 매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농장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구입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없이 치로예프의 소유권은 취소됐고 자산은 2001년에 다시 국유화됐다. 치로예프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소송을 벌였으나 실패했으며 오히려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 조기 석방된 치로예프는 공공연하게 카리모프를 비판했고 즉각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그는 2009년 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귀국하여 반정부 조직인 비르담리크의 설립 대회를 개최하려다 실패했으며 해외에서 반카리모프 세력을 동원하려던 시도도 아직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최대 부호 중 하나로 손꼽히던 산자르 우마로프는 면화와 석유, 가스 등 그 나라의 핵심 자원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2005년 봄 그가 반카리모프 파로 전향한 이후 그에게는 범죄망과의 연계,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죄목이 씌워졌으며 경제 범죄를 주도했다는 혐의도 추가되었다. 우마로프의 이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반정부 운동이 석유와 면화 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은 대통령 측근인 주요 비즈니스 엘리트가 카리모프 체제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취한 첫 사례로 기억된다. 처음에 우마로프는 각료회의의 사임을 요구하다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통령 권한의 제한과 국회 선거의 조기 실시 및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확산되고 있는 습격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개혁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법체계와 조세 시스템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료들에게 타인의 재산(그것이 농장이건 사업이건 간에)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한다 (중략) 따라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이야 말로 관료들이 자기 지위(권력)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우마로프의 지지자들은 물론 그의 비판자들까지도 우마로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그의 가족이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정보원과의 연계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그러던 그가 느닷없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사실에 놀란 일부 관측자들은 우마로프의 이반이 카리모프 측근의 핵집 그룹으로부터 자신의 사업 자산을 지키려는 시도일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훨씬 더 복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초, 우마로프 일가는 습격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현명한 전략을 고안해 냈다. 자신이 거둔 이익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우마로프 일가는 기존 사업이 몰수당할 위기를 회피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해오는 습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현 제체 속에서 사업을 확대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제 영역에서 카리모프 최측근 세력이 조여 오는 고삐는 산자르 우마로프를 반

대파로 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개혁 요구는 자기 사업을 지키고 현 상태를 들러 엎으려는 것이었다. 우마로프는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아프가니스탄과의 공식적인 경제적 연계도 수립하려 애썼다. 그는 두 개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모으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액화 천연가스를 국내와 수출 시장용으로 비축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액은 10억 달러에 달했다. 또 하나는 천연가스와 프로판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하는 1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카리모프에 근접해 있는 엘리트들은 100만 달러가 넘는 해외 투자를 통제하며 해운업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의 합법 및 불법 무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무역을 개방하고 경제를 자유화하자는 우마로프의 제안에 맞서 싸웠다. 번번이 장애에 부딪히고 대통령에 대한 탄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야심이 있던 우마로프는 사업을 하면서 쌓았던 네트워크를 이용해 햇볕 연대 개혁 운동을 조직했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던 우마로프는 자신의 부와 서방과의 연계를 이용하면 정부에 반감을 품고 있던 사업가들을 연대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이들을 동원해 카리모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 개혁을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가들 특유의 리스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반정부 운동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탐탁지 않았던 카리모프와 그의 핵심 그룹은 때마침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튤립혁명이 미국 정부의 음모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던 탓에 우마로프에 대한 감정도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우마로프의 이반으로 가능성이 점쳐지던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은 더욱 요원해졌으며, 2005~2006년을 기점으로 카리모프 정권과 서방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서방 혹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기구와 조직들이 폐쇄 또는 축출 당했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다.

5. 결론

많은 선행연구는 여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카리모프 정권이 존속하는 한 그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분석한 우즈베크 비즈니스 엘리트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과두재벌(올리가르히)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경제와 비즈니스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정치,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 핵심 그룹에 종속되어 있으며, 정치와 경제의 경계가 대단히 희미하다. 또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우즈베크 판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정권 이반 현상도 거의 목격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시장 개혁과 사유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에 단초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본론에서 고찰한 것처럼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엘리트 간 분쟁은 향후 정치적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엘리트의 갈등과 이반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집단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20여 년간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처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경제에서보다는 정치에서 먼저 목격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세션Ⅷ(중앙아시아 경제학회 세션Ⅱ)
: 중앙아시아 지정학의 구조와 전략

■ 사회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 발표 :

이영형 - 중앙아시아 공간의 성격 연구: 인문지리학 변수를 중심으로
이지은 - 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이채문 -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

■ 토론 : 한종만(배재대), 백준기(한신대), 김선래(한국외대)

중앙아시아 공간의 성격 연구: 인문지리학 변수를 중심으로

이영형(한림대)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지역연구 경향과 인문지리 환경
1. 국제지역연구 경향
2. 국제지역연구와 인문지리 환경
Ⅲ.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과 내재적 응집성
1. 개별국가의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
2. 중앙아시아 공간의 응집성 지대
Ⅳ. 외부환경의 유입과 블록 공간과 조각성
1. 개별 국가의 안보 및 문화지리 구조
2. 중앙아시아 블록공간의 조각성 현상
Ⅴ. 끝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지역연구란 특정한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1] 따라서 지역연구는 대상 지역의 특정 주제만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 학문이어야 한다. 지역연구의 대상 범위는 인문 및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지역연구는 기본적으로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면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것이어야 하고,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병행과 학제간 공동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2]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시스템에 기초된 분절된 행위 분석이 아니라, 이들 요소 상호관계를 묶을 수 있는 단일의 변수 영역에 기초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양한 행위를 묶어낼 수 있는 변수로 지리환경을 설정하고, 이에 인간의 행위 변수를 가미시키는 방법이 적절함을 지적하려 한다. 본 연구는 특정이슈 영역의 분석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리환경과 인간행위의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지리환경에 구속되어 가치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 지역인 중앙아시아 CIS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공간의 성격을 진단한다. 본 연구는 자연지리 환경이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인문지리 환경이 인간의 행위를 유인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식에 기초되어 추진된다.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정치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서 한 곳이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이다. 연구 형태는 중앙아시아 CIS 5개국 지역 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 공간 내부의 행위변수 분석, 공간을 둘러싼 개별주체의 행위변수 등 다양한 지리환경 변수를 도입시켜 각각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지리환경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도

1) Bruce M. Kopple, *Refugees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 the Future of Asian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 1, 1995), p. 4
2) 야노 토루 엮음, 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서울: 전예원, 1999), p. 8.

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아시아 연구와 다소 차별성을 지닐 것이다. 기존 연구가 중앙아시아 CIS 5개국들 중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정치 및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CIS 5개국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인문지리 환경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전체 공간에 대한 인문 지리학적 현상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행정구역과 지리환경을 개별국가 단위로 조사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특정 분야[국토개발 및 경제정책, 안보정책, 사회문화 정책]의 정치 행위가 갖는 공간적 의미를 해석한다. 그리고 상기 영역별 정책이 결정 및 추진되는 과정을 종합 분석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 공간이 갖는 의미를 진단한다. 개별 국가의 국내외 정치행위가 중앙아시아 공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인문지리 환경에 기초해서 해석 및 평가하면서 연구를 마감한다. Ⅰ

Ⅱ. 국제지역연구 경향과 인문지리 환경

1. 국제지역연구 경향

국제지역 공간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려는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행위가 지리라는 환경적 요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음이 강조되었다. 헤로도토스(Herodotos)[3],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4], 장 보댕(J.Bodin), 몽테스키외(Montesquieu), 루소(J.J.Rousseau)[5],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비스마르크(Bismarck) 등이 지리환경과 인간의 행위변화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연구는 공간의 성격 파악에 기초된 국익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시대적·정치적·학문적 조류 속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지역연구(area studies)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6] 1943년 12월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지역연구(area studies)라는 용어를 사용했고,[7] 동년에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회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세계지역>(E.J. 해밀턴 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8] 미국 학계에 정착된 지역연구는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 이후의 시기에 신생 독립된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연구

3) 고대 그리스 제국의 최대 국난이었던 페르시아 전쟁을 연구한 헤로도토스(Herodotos)의 사상적 논거에서 지리적 상황을 정치 또는 전쟁에 응용하려 한 내용이 발견된다. 金鍾斗, 『韓半島 海洋地政學』(서울: 文永社, 2000), pp. 20-21 참조.

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국토의 이질성은 국민의 이질성을 형성하며, 이는 국가통일성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생활양식의 사람들은 특정한 자연환경에만 적합하다. 따라서 정부의 형태도 각기 달라야 한다." 등과 같은 그의 주장은 지리적 공간과 인간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5) 플라톤(Platon)은 『국가론』(The Republic)에서, 신대륙 -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라도 격퇴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이상 국가를 상상했다. J.Oliver Thomson, *History of Ancient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p. 91.

6) Lucian W.Pye, "The Confrontation between Discipline and Area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75), pp. 4-5.

7) Columbia University, *Area Studies, Preliminary Report of a Committee on Area Studies* (typescript), December 1943.

8) Earl J.Hamilton, *World Regions in the Social Sciences*(mimeographed), June 1943.

는 지배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되었다.[9] 2차 대전 후의 국제정치 환경에 대응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관리 차원에서 그 지역의 통역전문가·정세분석가·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행정가의 필요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한 비(非)서구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접근의 필요성이 지역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10]

탈냉전을 전후하면서 시작된 지역연구는 냉전시기까지 전개된 지역연구와는 그 대상 및 성격이 달랐다. 냉전기의 국가 및 다국적기업 등과 같은 행위자 변수를 중심으로 하던 연구에서, 탈냉전과 함께 일반 기업체와 NGO 등을 비롯한 각종단체 및 개인단위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지역연구의 분석 단위체가 공간적 측면, 이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하게 상정되어졌다. 국제지역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보통 세계지역·개별국가·경제지역·문화지역 등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은 국가일 수도 있고, 문화지역일 수도, 생산단위일 수도, 혹은 이러한 것들의 부분적 구획일 수도 있다.[11]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생활 현상이 지역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간 집단의 전통적인 문화를 연구하는 차원의 문화지역(culture area)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국제지역연구는 공동체연구(community studies)[12], 구역연구(regional studies)[13], 국가연구(national studies)[14], 문제중심 연구(the problem approach)[15]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지역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보통 2개 이상의 국가를 포함하는 국가간(inter-national) 또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지역[16], 국경선 구획으로 설정된 국민국가 범위, 국가 내(sub-national)의 특정한 촌락이나 도시의 Community 또는 지방권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연구에 있어 특정 공간이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유사한 생산구조·문화구조·사회구조를 갖는 공동체의 집합체이거나, 역내(域內)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가 유사성을 지니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변화되는 지역현상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환경변수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2. 국제지역연구와 인문지리 환경

국제지역연구는 연구를 희망하는 지역의 내부지리 환경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연구를 위한 작업은 자연지리 현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지리환경에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는

---

9) Edward W. Said, *Orientalism: Western Concepts of the Orient* (1978), pp. 275-276.

10)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서울: 전예원, 2003), 제1장;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지음,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서울: 책갈피, 2000), 제 I 부 참조.

11) Charles Wagley,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1948, p. 49.

12) 공동체연구는 인류학·지리학·사회학에서 특정한 촌락 또는 사회를 연구의 중심영역으로 선정하여 민속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을 상호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13) 구역연구 차원의 지역연구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형태(예컨대 강·산맥·도서·평야)를 중심으로 하거나, 지역사회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단위(예, 공단이나 농촌 혹은 도시)를 중심으로 그 내부의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14) 국가연구는 법이 통용되며 강제력이 적용되는 범위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성체로서의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이들 상호간 비교(comparison)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5) 문제중심연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다. 예컨대 민족주의나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와 제도화의 문제, 인구 및 도시화 문제 등이 연구주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설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국가 단위나 더 넓은 의미의 지역을 단독으로 혹은 상호간 비교 분석 및 종합하는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다.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지음(2000), pp. 21-22.

16) 초국가적(trans-national) 지역은 각종 국제협력체를 비롯하여, 동일한 종교(유교권, 기독교권, 이슬람권, 불교권 등)나 문화 등에 기초해서 공간적 범위가 결정된다.

제반의 현상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자연지리 환경이 인간의 행위를 자극하는 토대 변수가 되며, 인간의 행위가 투영되면서 자연지리 환경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지리 환경이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단위체가 된다. 이러한 인문지리 현상은 아래와 같은 연구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첫째, 인구지리 현상 분석이다. 이는 인구의 지역적 분포 및 인구이동 상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현상 분석의 인식적 토대는 인구 구조 및 이동 상황이 지리환경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 기인한다. 물론, 인구지리 현상 분석에 민족 구성의 지역적 배분 및 행태를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구지리 현상 분석은 지역 공간의 응집성과 분산성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둘째, 종교지리 현상 분석이다. 이는 종교 교리상의 지리학 또는 전도활동의 자료인 종교분포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종교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환경, 종교체계 간의 공간적 상호관계 등을 조사하여 이론 구성을 꾀하는 작업이다. 종교지리에 따르는 행위 변화는 공간 내부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종교 문화가 혼합되고 있는 지역 공간일 경우에는 공간의 다층화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연구에서 종교지리 현상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종교지리 현상 분석은 동일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신문화의 동태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셋째, 경제지리 현상 분석이다. 이는 경제현상의 지역적 변화 및 지역의 경제구조를 규명하는 분야이다. 필요시 경제지리 영역을 농업지리・상업지리・공업지리・자원지리 등으로 세분화 하게 된다. 경제지리 영역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는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되는 생산 요소들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산업 활동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입지(立地) 분석, 그리고 국제적 교역, 세계경제의 지역적 변화, 지역간 성장 차이 등이다.[17] 즉 경제현상의 지역적 분포, 물자의 지역간 이동, 산업의 지역적 분화(分化) 등의 문제를 다룬다.

넷째, 정치지리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치·영역·경계 등을 정치지리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정치지리 현상 분석에서 주된 관심대상은 국토의 개발, 영토와 영해, 국경문제, 민족·자원·무역·교통정책의 지리학적 해석 등이다. 특히 타자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및 인구지리 현상이 지역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이루는 타지역과의 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국가의 위치·형태·국경·국제관계·민족문제 등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은 공간의 역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공간의 역동성 파악이야말로 지역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인식된다.

결국, 지역연구의 핵심은 세분화된 특정 지역의 공간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여 지역성을 결정하는 데 있다. 인문지리(인구지리·사회문화지리·정치지리·경제지리) 환경이 행위자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인문지리 환경을 분석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비롯한 역동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지역성(地域性)은 자연지리 환경을 기본 자료로 해서 동일의 지리적 공간에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결정된다. 지리환경이 행위자(개인·집단·기업체·국가)의 행동 방향 및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지리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국제지역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도록 하며, 이러한 요소의 상호 결합에 기초해서 개별 지역의 역동성이 도출된다.

17) 김주환외 편저, 『지표공간의 이해. 지리학적 접근』 (서울: 푸른 세상, 2001), p. 31.

Ⅲ.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과 내재적 응집성

1. 개별 국가의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

중앙아시아의 5개 CIS회원국은 개별 국가가 놓여있는 지리적 위치와 자신의 인문지리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국가의 활동성 자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리환경이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역동성 여하를 정치지리 및 경지지리(개발) 현상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1) 정치지리 현상과 지리환경

카자흐스탄의 국내정치 행위와 지리환경의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12월 10일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이전 문제가 지리환경에 기초된 하나의 정책 사례가 된다. 1997년 10월 20일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 아크모라 선언에 관하여"라는 대통령의 칙령이 발표되었고, 동년 12월 수도가 알마티(Almaty)[18]에서 아크모라(Arc Mora)로 이전되었다.[19] 그리고 1998년에는 아크모라가 아스타나(Astana)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수도인 아스타나와 舊수도인 알마티 사이의 거리는 1,318㎞이다. 현재 아스타나의 교통수단은 주로 남부와 중앙 카자흐스탄, 서부 시베리아와 우랄지역, 볼가지역과 중앙 러시아로 연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운송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계획화된 종합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http://www.kazembassy.org/)은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이유와 목적을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다.[20]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밝힌 자료에 더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알마티는 남부지역에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및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다. 그러나 아스타나(Astana)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의 문제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이전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 이전 문제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발정책 차원에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정치 상황과 지리환경의 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에서 보다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국가의 동부지역이다. 동부지역이 반정부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해 가는 중심 지대이다. 카리모프(И.А.Каримов) 대통령이 2006년 5월 13일 안디잔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발포 명령을 내리는 등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책의 중심부는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이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 정책(인구 성장, 투자

18) 알마티(Almaty)는 1921~1993년까지 <알마-아타>로 명명되었고, 1929~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다.
19) 당시 아스타나(Астана)는 아크몰라州(Акмоли́нская о́бласть)에 둘러싸여 있었다.
20)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시의 지형학적 이점; 아스타나의 산업적 잠재력; 건설 산업의 연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원의 존재; 운송 정점에 위치함과 핵심적 운송과 통신기반시설의 이용성; 높은 기술을 가진 도시 인력의 가용성; 상호 협력기업 모델의 잠재성;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추가적인 도시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가용성 등이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모습과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미래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에 있다.

증대, 수출 산업 육성)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십년간 추진된 개발정책의 원인이기도 하며,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나나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국내정치상황과 지리환경의 관계이다. 2005년 레몬혁명으로 불린 시민혁명이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반정부 시위는 남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4년 동안 장기집권 해 온 아카예프(A.A.Akayev)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하면서 레몬혁명은 막을 내렸다. 수도로부터 남서부에 있는 잘랄-아바트州 출신으로 반정부 시위를 이끈 바키예프(K.S.Bakiyev)가 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국가의 남서부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가 있는 북부로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2010년 4월 6일과 7일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바키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제2의 도시인 오시市에서 2010년 6월 10일 발생한 민족분규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사태로 번졌다. 남부 오시市 주변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소요 사태가 확산된 서부 지역인 잘랄-아바트에 대해서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21] 탈라스市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발한 도시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서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인문지리 구조가 보다 역동성을 지니는 지역은 북부 중앙의 비슈켁市와 동일지역으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오시市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경제지리 구조 역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왕성하게 형성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나라 중 하나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과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여전히 고문, 종교 및 언론에 대해 극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해 오고 있다. 니야조프(S.A.Niyazov) 대통령 사망 이후[22],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23]된 베르디무함메도프(G.Berdymukhamedov)가 장기 집권하고 있다. 2012년 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97%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24] 등록 후보가 총8명이었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조차 선거참관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참관단 파견을 거부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2월 17일 취임과 함께,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독재 성향의 국가에서 각종 정책이 입안 및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리환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무의미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정치 및 경제 상황과 지역적 특징이다.[25] 나비예프(R.Nabiev)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아[26] 집권하고 있는 라흐몬(E.Rahmon, 1994.11.16 ~)[27]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

21) 오툰바예바(R.I.Otunbayeva) 과도정부 대통령은 축출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오시市에서 이번 소요를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13일.

22) 니야조프((S.A.Niyazov)는 1990년 의회의 결의안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소련 해체와 함께 1992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그 뒤 1999년 종신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지만, 2006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3) 2007년 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89%를 득표했다.

24) 금번 선거에는 총인구 약550만 명 중 유권자가 290만 명이었고, 그 중 96.7%의 국민이 참여했다.

25)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11* (Душанбе, 2011);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на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Душанбе, 2011);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Регио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2010);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2010).

26) 나비예프(R.Nabiev)는 타지키스탄의 대통령이었다. 1992년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이슬람 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건강악화로 인해 자신의 후계자였던 에모말리 라흐몬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었다.

27) 2007년 4월 14일 러시아식 이름인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momali Rahmonov)에서 타지크식 이름인 에모말

지역간 갈등과 분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시작된 6년간의 내전이 1997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라흐몬 대통령과 타지키스탄반대연합(UTO, United Tajik Opposition) 지도자가 회동을 갖고, <모스크바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내전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28] 라흐몬 대통령 등 남부지역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2006년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6월의 국민투표를 통해 사실상 202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라흐몬 대통령이 후잔드(Khujand) 출신뿐만 아니라, 지난 내전시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남부 출신 <National Front> 핵심 인사들을 무력화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타지키스탄의 불안정은 여전히 지역간 갈등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그드州의 후잔드(Khujand)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하토론州의 쿨랍(Kulyab)[29]을 중심으로 한 남부 출신 인사들 간의 반목이 중심이다. 2012년은 내전 종식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내전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있다. 2012년 6월 라흐몬 대통령이 내전 종식 기념일을 앞두고 북부지역을 시찰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지만,[30]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일회성 행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2) 경지지리(개발) 현상과 지리 환경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은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그 수준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5개 국가들 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개발 정책이 가장 활발하며, 우즈베키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국가의 개별 정책은 보다 미미하다. 5개 국가의 개발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카자흐스탄의 개발 문제를 다룬다. 카스피 해 개발문제와 2012년의 주요 개발 정책을 개괄한다. 2006년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된 광구 수는 총214개이며, 이중 90%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몰려있다.[31]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7대 유전[32]은 쿰콜(Kumkol) 유전을 제외하고

리 라흐몬(E.Rahmon)으로 개명했다.

28) 타지키스탄 내전은 1992년 5월 당시 후잔드와 쿨랍 지역 인사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던 지배 집단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가름과 고르노-바닥숀 지역의 종족 집단이 정부에 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내전이 종식되면서 <민족화합의 날>을 정해 해마다 지역을 달리하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동부 바다흐샨 자치주의 중심도시인 호루그市에서 행사가 열렸다. 라흐몬 대통령은 6월 23일 현지에 도착해 지역 담당자와 주민들을 만나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타지키스탄의 미래에 대해서 연설하는 등 지역 통합화 움직임을 보였다.

29) 쿨랍(Kulyab)市는 하트론州에 포함되며, 수도 두샨베에서 남동쪽으로 약202km 지점에 있다.

30) 북부지역은 구소련 당시 집권세력이었고 내전 때에는 정부군과 협력하여 이슬람 측과 싸웠지만 내전이후 모든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지역을 감싸 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 원유 매장량으로는 카자흐스탄내 상위 10개 유전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텡기즈(Tengiz), 카라샤가낙(Karachaganak), 카샤간(Kashagan) 및 우젠(Uzen) 등 상위 4개 유전이 77%를 점하고 있다. 가스 매장량 역시 카라샤가낙(Karachaganak), 텡기즈(Tengiz) 및 카샤간(Kashagan) 유전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장량이 카스피해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카샤간(Kasahgan), 텡기즈(Tengiz) 및 카라샤가낙(Karachaganak) 유전 등이 분포하는 Pre-Caspian 분지의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И.С.Зонн и С.С.Ни льцов, *Новый каспий . география,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Восток-Запад, 2008); М.Т.Лаум улин,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зарубежной политалогии и мировой геополитике. Том. II* (Алматы: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а РК, 2006); Тимур Токаев, *Казахстан и Запад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Москва: Восток-Запад, 2009); 이영형,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평가: 지리환경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1호(2010); *http://kaz.mofat.go.kr/*(검색일, 2009년 10월 9일) 참조.

32) 카자흐스탄의 7대 유전은 텐기즈(Tengiz), 카라챠가낙(Karachaganak), 우젠(Uzen), 악토베(Aktobe), 만기스타우(Mangistau), 남쿰콜(South Kumkol), 북쿰콜(North Kumkol)유전 등이다.

모두 서부 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7대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전체 생산 규모의 약80%를 차지한다. 다량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천연가스 매립지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카스피 해 연안에 있는 아티라우(Atyrau)州[33]와 만기스타우(Mangistau)州[34]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의 카스피 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이외에, 수도인 아스타나(Astana)와 舊수도인 알마티(Almaty)를 중심으로 개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자금이 전체 투자 금액의 약55~60%가 2개 특별시에 집중되었다. 알마티와 아스타나는 보이지 않는 개발 경쟁의 중심에 있다. 수도인 아스타나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구수도인 알마티 지역을 국제도시로 개발하려는 움직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해발1,700m에 위치한 독특한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를 갖춘 고지대 메데오(Medeo) 스포츠 종합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제행사 <2011 동계 아시안 게임>을 메데오(Medeo)에서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35]

지역별 불균형 개발 사업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12월에 서남부 지역의 망기스타우(Mangghystau)州에 있는 자나오젠(Zhanaozen) 지역에서 발생된 소요 사태가 중소 도시 발전 등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나자르바예프(N.A.Nazarbayev) 대통령이 2012년 1월 27일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카자흐스탄 발전의 중요한 방향(Vector)>을 주제로 한 연두교서에서 지역발전 문제를 언급했다. 연두교서에서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전망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도시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알마티 스키휴양지 개발사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아스타나 근교 바라보예(Baraboe)[36] 휴양지 등 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37] 나자르바예프의 연두교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카스피해 연안의 에너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면, 발하쉬(Balkhash)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광물비료 사업 등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카자흐스탄의 동남부지역에 치중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개발정책에 따르는 인문지리 구조를 정리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페르가나州, 사마르칸트州, 타슈켄트市, 타쉬켄트州, 안디잔州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타슈켄트市와 타쉬켄트州에서 높게 나타났다.[38] 우즈베키스탄 전체 투자를 100으로 했을 때, 전체 투자의 50% 정도가 타슈켄트市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나망간州와 타쉬켄트州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외의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39]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수출 구조를 보면, 안디잔州, 나보이州, 타쉬켄트州, 페르가나州, 타슈켄트市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디잔

33) 아티라우(Atyrau)州의 주도인 아티라우市는 알마티에서 서쪽으로 2,700km 지점의 카스피 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34) 주도인 악타우(Актау)市는 카자흐스탄의 카스피 해 연안 지역의 중심지로, 이 지방의 석유자원 개발 열풍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35) 201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2월 1일~6일 메데오(Medeo)에서 개최되었다.

36) 아스타나에서 북쪽으로 약250㎞ 지점에 있다.

37) *http://kaz.mofat.go.kr/*(검색일: 2012년 7월 2일)

38) 2008년의 지역별 주요 경제관련 수치(경제활동인구 및 국내총생산)는 다음을 참조, Госком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с. 10.

39) 지역별 «무역 및 공공 급식» 분야의 고정자본 투자(실제 가격) 상황은 다음을 참조 바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Торговля в Узбекистане 2009* (Ташкент: 2009), сс. 16-17.

州와 타슈켄트市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나보이州의 수출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국가 영토의 중부에 있는 나보이州를 제외하면, 모두가 동부변방 지역에 위치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구조와 개발정책에 따르는 인문지리 구조를 정리한다.[40]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전체노동자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은 이식쿨(Issyk-Kul)州, 나린(Naryn)州, 탈라스(Talas)州 등이다. 그러나 비슈켁(Bishkek)市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단1천 명 정도 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동 현장을 찾아 국내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내 이주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이 가능한 추이州와 비슈켁(Bishkek)市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41] 그리고 외국의 직접투자는 절대다수가 비슈켁(Bishkek)市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미하지만 추이(Chui)州와 탈라스(Talas)州가 그 뒤를 잇고 있다.[42] 이러한 현실에 기초되어, 비슈켁市가 수출입구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이州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43] 상기 지역들은 공히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북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2011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키르기스스탄 이식쿨(Issyk-Kul)州 개발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해 식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자체의 개발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개발 지역이 남서부의 오시市를 제외하면, 모두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북부지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업은 에너지 자원 개발과 함께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 매장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산업은 서부지역에서 왕성하다. 석유채취 공업의 중심지는 네비트-닥(Nebit-dag)市, 석유가공공장은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내륙 및 카스피 해 연안에서의 지질조사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총161개의 석유가스전이 발견되었다. 가스 생산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부 경계지역에 60개 이상의 가스 및 가스 컨덴세이드전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것은 1982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도블레타바드(Dauletabad) 가스전이다. 그리고 샤틀리크(Shatlyk) 가스전 등을 비롯한 대형 가스전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구노르타욜로탄(Gunorta Eloten) 가스전 역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구노르타욜로탄 가스전 역시

40) 키르기스스탄의 지역별 경제활동 상황은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2008), cc. 381-382.

41) 국외 이주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지로 노동 이주를 떠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CIS 국가를 비롯하여, 독일-미국-캐나다-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로 노동이주를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См.: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3-2007 гг* (Бишкек: 2008). cc. 353-392;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2009), c. 5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ишкек: 2009), c. 123.

42) 지난 수년간 지역별 외국의 직접투자 정도는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2008), c. 416;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2009), c. 328 참조.

43) 지난 수년간의 지역별 수출입 상황은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2008), c. 41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2009), c. 334.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 사업은 카스피 해 주변에서 시작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칸(Balkan)州[44]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지역 가스전 개발 역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다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국가 영토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2. 중앙아시아 공간의 응집성 지대

중앙아시아 CIS 5개 회원국의 인문지리(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분석했다. 개별 국가의 정치지리, 경제지리, 그리고 인구지리 구조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중앙아시아라는 광역권 공간에 적용해서 분석하게 되면, 넓은 중앙아시아 공간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중앙아시아 공간에서 응집력(凝集力, cohesiveness) 변수가 다층적으로 연결되는 지대가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응집이란 한 지역에 모여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별 국가의 주민들을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는 현상은 응집력이 존재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응집력은 구성원들이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 계속 소속해 있도록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응집력이 높다는 것은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고,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이 보다 용이하며, 지역의 목표가 명백히 구체화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기존의 규범, 가치, 신념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CIS 5개국이 위치해 있는 중앙아시아 공간에서의 응집성 지역은 여러 가지 응집력 변수가 종합되어 형성되어 진다. 자연지리(지형, 기후, 도로 등) 환경에 기초되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상호연계 가능성 변수가 더해지면서 결정되어진다. 중앙아시아의 응집성 지역은 인구 분포 및 종교 현황 등 사회문화 변수, 국내산업(경제 자원 및 무역 등)의 지역적 배치 상황, 그리고 안보환경 변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간 내 응집성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함과 동시에, 산업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카스피 해에 연해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수도권 개발 포함)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면, 5개국의 개별정책 및 역동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 5개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과 역동성 현상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이들 5개국의 국경이 한 지역으로 근접되는 국경 근처이다. 카자흐스탄은 동남부 지역에서, 우즈

중앙아시아의 응집성 지대



44) 주도는 발카나바트(Balkanabat)市이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투르크멘바시(Türkmenbaşy)市는 발칸州의 카스피 해에 접해 있는 항구도시다. 풍부한 석유자원이 개발되면서 이곳은 그 수출항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항만시설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

베키스탄은 동부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서부지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서부 국경지역 근처에서 왕성한 역동성을 보인다. 5개국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현상이 왕성한 응집성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도를 놓고 바라보면, 이들 국가의 국경이 근접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CIS 5개국 공간에서 나타나는 응집성 현상은 이들 국가들이 걸어 온 지난날의 역사적 유산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소비에트시기에 형성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개별 국가의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인문지리학적 응집성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소비에트시기에 이들 국가의 수도가 결정된 사실은 소비에트 형성 이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생활에 유용한 공간, 그리고 상호 협력하기에 용이한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역사적 사실에 기초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응집성 지역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Ⅳ. 외부환경의 유입과 블록 공간과 조각성

중앙아시아 공간의 인문지리학 구조는 2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안보정책에 따르는 결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 영역에 기초된 지리환경 변화에 기초된다. 외부세력의 개입이 개별 국가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아시아 블록 공간이 조각성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개별 국가의 안보 및 문화지리 구조

1) 안보환경과 내부자의 선택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핵비확산 문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라크에 평화 유지군 파병,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기에 영공 통과권 부여, 아프간 재건 사업에의 참여 등을 계기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는 변함이 없다. 2009년 중순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이 카자흐스탄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 왔다.[45]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 실시된 카자흐스탄의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절차와 법규가 충족되었으며 민주화 과정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안보정책은 러시아와 함께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결성된 다양한 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46] 카자흐스탄이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의장국으로 수임된 것도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45) 2008년 10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Rice 미 국무장관은 카자흐스탄의 대선 및 총선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개혁,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kaz.mofat.go.kr/*(검색일: 2010년 11월 20일)

4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В.П.Воробье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НГ* (Москва: Восток-Запад, 2009); Сост.А.Ф.Клименко, *Шанха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 новым рубежам развития* (Москва: Ин-т Дальн. Вост. РАН, 2008); Отв.ред. и сост., Н.Ю.Лапина, *Дв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срока В.В.Путина: Динамика перемен* (Москва: ИНИОН РАН, 2008); Комиш рыспаев, *Истор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08); М.Т.Лаумулин,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зарубежной политологии и мировой геополитике. Том. II* (Алматы: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а РК, 2006); 김연규 엮음,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서울: 경문사, 2009).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을 위해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등 유럽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2005년을 전후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을 요구해 왔고,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8월에 미국이 자신의 야당 세력을 지원하는 데 반발하여 자국 주둔 미군의 아프간戰 역할 종료 등에 따른 철군(6개월 이내)을 요구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19-24일 타쉬켄트 남부 250Km 산악 지대에서 우즈베키스탄-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2005년 11월 21일 하나바드(Hanavard) 기지 내 미군 잔류 병력(90명)의 최종 철수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완전 철수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 탈러 독자외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06년의 안디잔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정치개혁 및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반발로 親러 성향의 외교노선으로 수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3월 脫러·親서방 정책을 지향하는 GUUAM[47]으로부터 탈퇴하고, 동년 6월에 집단안보조약기구(CSTO)[48]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재가입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 기구 재가입으로 미국, EU 등 서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심의 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정책은 자신의 국익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 3월 우즈베키스탄은 NATO와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독일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테르메즈(Termez) 공군기지 사용(아프간으로의 군수물자 이동권한)을 NATO 내 여타 동맹군 특히 미군에게 허용하고, 2008년 4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NATO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2012년 6월 CSTO를 탈퇴하는 발표와 함께,[49] 중앙아시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협력체에의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안보 갈등은 주로 북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에 관련된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을 위해 2001년 12월에 수도 비슈켁(Bishkek) 인근 마나스(Manas) 국제공항에 마나스 공군기지(Manas Air Base)를 설치했다. 역시 북부지역인 카라발타(Kara-Balta)와 비쉬켁에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있다. 북동부의 카라콜(Karakol) 지역에도 러시아 공군기지가 있다. 2012년 현재, 러시아는 비슈켁 인근 칸트 공군기지(Kant Air Base)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동부 이식쿨 호수 인근 도시인 카라콜에 지하무기실험 기지, 중북부 카라발타에 군사 통신센터, 마일리수우(Maily-Suu)에 지진관측기지 등 모두 4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칸트기지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50]

푸틴 대통령이 2012년 9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20일 아탐바예프(A.Atambayev)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51] 의향각서(MOI; memorandums of intent) 형태인 합의문을 작성했다. 상기 MOI에는

47) 1997년 10월 10일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4개국이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설된 구암(GUAM)은 4개 회원국의 영문 국명 머리글자를 취합한 것이다. 그리고 1999년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으로 GUUAM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우크라이나의 탈퇴로 다시 GUAM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동 기구는 2006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GUAM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로 개칭하였다.

48)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는 2002년 10월 7일 창설된 군사방위조직체이다. 구소련 6개국(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의 키시너우(Kishinev)에서 CSTO 창설 조약에 서명했고, 2003년 9월 18일 효력이 발생했다. 2009년 2월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CSTO 정상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사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다.

49) 2012년 6월 28일 우즈베키스탄이 집단안보조약기구에서 탈퇴를 통보하면서, CSTO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다.

50) 『연합뉴스』, 2012년 7월 11일.

51) 2010년 4월의 시위로 바키예프(K.Bakiyev) 당시 대통령이 축출되고, 오툰바예바(R.Otunbayeva)가 2010년 6월 27일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오툰바예바의 임기는 2011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과도기 대통령은 2011년 10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차기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약63%의 지지를 획득한 아탐바예프

2032년까지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미군기지 모두를 유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수송하고, 전투기를 보급하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할 목적으로 마나스 공군기지(Manas Air Base)를 201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52] 미국은 2014년 이후에도 동일 기지의 지속적인 사용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친 러시아 성향의 아탐바예프(A.Atambaev) 대통령이 임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관계 변수를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내부 지리 환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수도와 서부지역에서 주요 갈등이 형성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구수도인 알마티 지역 및 중국의 북서부와 국경을 접하는 자신의 북동부와 동부 지역은 지정학적 국제관계로부터 자유롭다. 국제관계 구조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식쿨州가 있는 북동부 지역은 보다 안정적이다. 안보관련 대외관계는 북부의 중앙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아탐바예프(A.Atambaev)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안보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의 남부지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 정책 등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12월 UN총회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승인받았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역 내 어떠한 국가와도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지역안보협력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1000㎞ 이상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지만, 안보영역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친화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학적 구조

카자흐스탄 사회문화 현상의 지리적 구조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의 전체인구는 2011년 12월 현재 1천6백40만 명이며, 이들 인구의 절대다수가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가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구수도인 알마티市를 비롯하여, 동일의 市와 인접되어 있는 5개 주[카라간디(Karagandy), 동카자흐스탄(East-Kazakhstan), 알마티(Almaty), 잠빌(Zhambyl), 남카자흐스탄(South-Kazakhstan)]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거의 ⅔에 달하는 9,567,600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개발 및 산업구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수도인 아스타나(Astana)市 인접지역을 개발하려 하지만, 인구 이동 상황은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을 뿐이다.

카자흐스탄의 2개 특별시(Astana, Almaty)와 14개의 州를 대상으로 주요 민족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53]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 민족들이 카자흐 민족보다 다수를 점한다. 수도인 아스타나(Astana)를 감싸고 있는 지역 전체가 러시아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스타나(Astana)를 중심으로 남쪽의 카라간디州[54]와 서쪽의 코스타나이州, 그리고 북쪽의 북카자흐스탄州에서 러시아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된 州인 파블로다르州는 아스타나의 동쪽에 있으며, 舊수도인 알마티市 역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 역시 슬라브 문화를 수용하는

(A.Atambaev)가 2011년 12월 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참고로, 키르기스스탄은 의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보다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의원내각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52)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2년 9월 27일).

53) 이영형(2010) 참조.

54) 카자흐스탄 영토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교(수니파)를 신봉하는 신자 수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정교를 믿는 정도 역시 44%에 이른다.[55] 따라서 믿음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한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정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연결시키는 정신적 토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적 구조 문제이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2천7백53만3천4백 명이다.[56] 국가 내부의 행정구조에 따르는 인구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전체 영토를 중심으로 북서부 지역과 서부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남동부지역, 그리고 동부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서부지역에 있는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共和國과 나보이(Navoi)州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밀도는 희박하다. 반면에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市와 안디잔(Andijan)州, 그리고 페르가나(Fergana)州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동부지역, 특히 페르가나 분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마르칸트(Samarkant)州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페르가나州이다. 그러나 인구밀도 면에서는 수도인 타슈켄트를 제외하면, 안디잔州와 페르가나州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다. 필자가 2010년 2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자신의 동부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페르가나 계곡의 안디잔(Andijan), 나망간(Namangan), 마르길란(Margilan)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페르가나(Fergana) 계곡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은 와하비즘(Wahhabism)[57]의 추종세력들이다. 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와 이를 계승한 정통 칼리파(Al-Khalifah Ar-Rashid)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로 간주하고 그 시대로의 회귀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58]

키르기스스탄의 사회문화 현상이다.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12만7천3백 명이 출생했고, 3만7천7백 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되면 인구의 자연 증가는 8만9천6백 명에 달한다.[59] 그리고 2009년 12월 현재 5백36만7천7백 명으로 증가되었다.[60]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UN이 내놓은 키르기스스탄의 인구성장 전망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한다.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 중 약 20%가 오시(Oshi)州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잘랄-아바트(Jalal-Abad)州에 19% 거주하고 있다. 비슈켁(Bishkek)市에 16%, 추이(Chui)州에 15%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공히 키르기스스탄 영토의 중앙부에 연결되어 남부-서부-북부로 펼쳐져 있다. 2009년의 지역별 인구 증가는 잘랄-아바트(Jalal-Abad)州와 오시(Oshi)州, 그리고 비슈켁(Bishkek)市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인구 수 변화전망(명, UN 자료)	
2025년	6,096,000
2050년	7,375,000

자료: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55) *http://portal.nis.go.kr/*(검색일: 2009.9.8)

56) 타슈켄트(Tashkent)市를 비롯하여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共和國, 그리고 12개 州 단위의 인구 상황은 다음을 참조 바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cc. 10, 13~15;

57) 와하비즘(Wahhabism)은 엄격한 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이슬람 청교도주의를 말한다. 와하비즘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58) 우덕찬,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2001), p. 279.

59)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지역별 인구 현황은 다음을 참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циальные тенденц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ышуск 4* (Бишкек: 2008), c. 20.

60) 2009년의 개별 지역별 인구 변화 상황은 다음을 참조 바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ишкек: 2009), c. 120.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은 비슈켁市로 9.8% 증가되었다. 탈라스(Talas)州가 9.6%, 잘랄-아바트(Jalal-Abad)州가 7.9%, 오시(Oshi)州가 6.3% 증가되었다. 이들 지역들은 공히 국가 영토의 서부 지역에 있다. 그리고 낮은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지역은 2.3% 증가된 이식쿨(Issyk-Kul)州이고, 나린(Naryn)州의 실제 인구수는 1999년과 비교해서 1.4% 감소되었다.[61] 이들 지역은 공히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문화 현상이다. 2009년 7월의 추정치로 보면, 전체 인구는 49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 민족은 투르크멘인(85%)이며, 이슬람교(수니파 89%)를 주로 믿는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종교 단체 만이 활동 가능하다. 한때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니야조프(S.A.Niyazov)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유도했으며,[62] 루흐나마(Ruhnama)라는 경전을 발간하여 학교에서 교육 시켰다.[63] 니야조프 사망 이후, 베르디무함메도프(G.Berdymukhamedov)가 2006년 12월 21일부터 제2대 대통령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는 니야조프 정권 당시 부총리였다. 역시 비민주적인 정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고엘리트 집단의 정치적 결정이 강압적으로 추진될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문화 현상들 중에서 이슬람 문화가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기타 어떠한 변수도 최고 정치 엘리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 작업은 무의미해 보인다.

타지키스탄의 사회문화 현상과 지리적 구조 문제이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761만 6천 명을 조금 넘는다.[64] 행정 구역별 인구 상황을 보면, 국가 영토의 서부지역에 있는 수그드州(중심지: 후잔드), 공화국 직할구(중심지: 두샨베), 하트론州(중심지: 쿠르간-튜베)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은 공히 서부지역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영토 규모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 영토의 동부지역에 있는 고르노-바다흐샨自治州(중심지: 호루그)는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내부의 문화적 갈등은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다. 쿨랍(Kulyab)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중부지역은 타지키스탄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이고, 후잔드(Khujand)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러시아인과 우즈벡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타지키스탄 문화와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문화 및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동부의 자치주(파미르) 지역은 인종과 문화, 언어, 종교가 다른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간직하고 있다.

2. 중앙아시아 블록공간의 조각성 현상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안보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공간이 갖는 의미를 지리환경에 기초해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중앙아시아의 북부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안보 우산아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안보 노선에

61)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селения и количество жилищных единиц* (Бишкек: 2009), с. 63.

62) 21년 철권통치한 니야조프(S.A.Niyazov) 대통령이 2006년 12월21일 갑자기 사망했다. 1985년 시작된 그의 철권통치는 야당과 언론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99년에는 종신 대통령이 되었다.

63) 루흐나마(Ruhnama)는 니야조프가 쓴 책으로 2001년에 출간되었다. <루흐나마>는 '영혼의 책'을 뜻한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2006년 3월의 TV 방송에서 이 책을 하루에 세 번 읽으면 천국에 간다고 선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 책이 쿠란, 성경과 같은 책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2년 9월 26일)

64) 지역별 인구 상황은 다음을 참조,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на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Душанбе, 2011);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11* (Душанбе, 2011), с. 9.

뜻을 같이하면서 자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러시아와의 안보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의 힘겨루기에 자신의 안보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동의 안보정세에 친화적이지만,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을 지향하면서 지역 내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며,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안보관계를 선호한다.

사회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공간의 지리적 구조와 성격을 파악한다.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는 외부문화(특히, 종교)가 동일 공간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이식되기는 했지만, 소련시절의 중앙아시아는 슬라브 문화와 함께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슬라브 문화가 유지 또는 복원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필자가 현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공간을 연구범위로 했을 때, 이슬람 문화는 남부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는 듯하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시작된 강력한 이슬람 문화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의 북부지역은 슬라브 문화의 잔재가 보다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남진하고 있다.

지역연구의 핵심은 세분화된 특정 지역의 공간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여 지역성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분야별 공간적 가치를 취합하는 의미를 지니며, 수구(水口)성, 조각성 또는 가변성, 내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구성(durability) 지역은 특정의 조건하에서 기존의 지역성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성질을 보인다. 내향(introversion)성 지역을 의미하며 동일지역 내에서 다양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향을 갖는다. 조각성 또는 가변성 지역은 개발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으며, 외부세력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지역이다. 외부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내재적 속성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수구(水口)성 지역은 국제화 추세 또는 외부와의 관계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외부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외부 관계적 행위에 있어서도 다분히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65]

<표: 2> 지역성 분류 및 특징

지역성	변수 및 정도				특성	국가
	역동성	유인성	내재적 파편성	대외적 자율성		
수구(水口)성	+	+	-	+	· 외부 문화가 다양하게 유입되는 지역 · 슬라브 문화가 중심	카자흐스탄
조각성 또는 가변성	△	+	△	+	· 2개 이상의 문화[슬라브, 이슬람, 유럽, 중국문화 등]가 결합되는 지역 · 지역성이 변할 수 있는 지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	+	△		
내구성	-	-	-	-	· 특정 조건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영향력이 유입되어도 기존의 지역성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지역 · 이슬람 문화가 중심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보기) + 강함, △ 중간, - 약함

65) 이영형, "국제지역연구 방법론 «지리환경 가치론»을 위한 제언: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탐색,"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4권 1호(2010), pp. 109-142 참조.

결국, 중앙아시아의 안보지리는 북부의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남부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외부에서 그려지는 안보질서로부터 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중부지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와 러시아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그러하다. 사회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공간을 구획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북부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슬라브 문화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에 더해 유럽문화와 중국 문화까지 침투되어 기존의 문화가 해체될 수 있는 조각성 또는 가변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카자흐스탄)은 슬라브 문화, 중부지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슬라브・이슬람・유럽문화・중국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Ⅴ. 끝맺는 말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공간의 자연지리 현상과 인문지리 환경이 상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CIS 5개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지리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공간 내에서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겪어 왔고, 중앙아시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외부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내재적 행위와 외부 관계적 행위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상호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리공간의 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내재적 응집성 지대, 그리고 외부환경의 유입에 따르는 블록 공간과 조각성 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내재적 응집성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 및 경제지리, 그리고 사회문화 지리에 기초해서 동일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역동적인 인문지리 구조는 5개 국가의 국경이 근접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개국가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5개국의 연합국경지대에서 역동성이 가장 왕성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국가들이 지닌 역사적 유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소비에트 시절에 형성된 5개국의 수도와 5개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5개 국가의 수도가 연결되는 5개 수도권 지대를 중심으로 내재적 응집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부환경의 유입에 따르는 블록 공간과 조각성 지대이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전략에 따르는 중앙아시아 지리공간의 안보질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의 CIS 5개국은 상층부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 하단부의 좌측에 우즈베키스탄이, 우측에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이들 국가의 하단부 좌측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우측에 타지키스탄이 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 구조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중앙아시아 공간을 바라면서, 과거 소비에트 시기의 문화적 전통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러시아의 안보협력 질서가 카자흐스탄을 발판으로 남진하고, 중동지역의 이슬람 문화가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거치면서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가 빠르게 진출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안보질서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카자흐스탄)은 슬라브 문화 중심의 수구성, 중부지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슬라브・이슬람・유럽문

화・중국문화가 혼재되는 조각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는 이슬람 문화 중심의 내구성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정치 및 경제지리 현상과 함께 그려지는 내재적 응집성 지대, 그리고 외부환경의 유입에 따르는 블록 공간과 조각성 지대 구분에서 보다 자유로운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협력 질서가 다소 불분명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정책은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다수(88%)가 이슬람敎(대부분 수니파)를 믿고 있지만 국가정책이 중동 권에 편입되지 않는다. 러시아 문화권에의 흡수에도 부정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슬라브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중동의 그것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중앙아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동일 공간에 정착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 문헌>

김연규 엮음,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서울: 경문사, 2009).
金鍾斗,『韓半島 海洋地政學』(서울: 文永社, 2000).
김주환외 편저,『지표공간의 이해. 지리학적 접근』(서울: 푸른 세상, 2001).
우덕찬,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2001).
이영형,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평가: 지리환경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1호(2010).
이영형, "국제지역연구 방법론 «지리환경 가치론»을 위한 제언: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탐색,"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4권 1호(2010).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지음,『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서울: 책갈피, 2000).
야노 토루 엮음, 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회 옮김,『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서울: 전예원, 1999).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연구회 옮김,『지역연구의 방법』(서울: 전예원, 2003).

Columbia University, *Area Studies, Preliminary Report of a Committee on Area Studies* (typescript), December 1943.
E.J.Hamilton, *World Regions in the Social Sciences*(mimeographed), June 1943.
B.M.Kopple, *Refugees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 the Future of Asian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 1, 1995).
J.O.Thomson, *History of Ancient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L.W.Pye, "The Confrontation between Discipline and Area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75).
E.W.Said, *Orientalism: Western Concepts of the Orient* (1978).
C.Wagley,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1948.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на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Душанбе, 2011).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11* (Душанбе, 2011).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Регио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2010).
Агентсто по статистике при Президете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0* (Душанбе, 20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ком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на 2009* (Ташкент: 200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Торговля в Узбекистане 2009* (Ташкент: 2009).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 (Бишкек: 200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3-2007 гг (Бишкек: 200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циальные тенденц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ыпуск 4* (Бишкек: 2008).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Бишкек: 2009).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ишкек: 2009).
Национальныйстатистический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селения и количество жилищных единиц* (Бишкек: 2009).
В.П.Воробье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НГ* (М.: Восток-Запад, 2009).
И.С.Зонн и С.С.Нильцов, *Новыйкаспий. география,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Восток-Запад, 2008).
Сост.А.Ф.Клименко, *Шанха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 новым рубежам развития* (Москва: Ин－т Дальн. Вост. РАН, 2008).
Отв.ред. и сост., Н.Ю.Лапина, *Два предидентских срока В.В.Путина: Динамика перемен* (Москва: ИНИОН РАН, 2008).
М.Т.Лаумулин,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зарубежнойполиталогии и мировойгеополитике. Том. II* (Алматы: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а РК, 2006).
К.Рыспаев, *Истор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08).
Т.Токаев, *Казахстан и Запад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М.: Восток-Запад, 2009).

http://www.kazembassy.org/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2년 9월 26일).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2년 9월 27일).
http://portal.nis.go.kr/(검색일: 2009.9.8)
http://kaz.mofat.go.kr/(검색일: 2012년 7월 2일).
http://www.regions.gov.kg/(검색일: 2010년 2월 8일)
『연합뉴스』, 2012년 7월 11일.
『연합뉴스』, 2010년 6월 13일.

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Connect Central Asia Policy)”[1)]

이지은(한국외대)

<목차>

I. 서론
II. 탈(脫)냉전기 인도의 대외정책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 탈(脫)냉전기 인도의 대외정책: 전개과정과 특징
2. 인도의 입장에서 본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III.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1. 성립 배경
2. 주요 내용
IV. 결론

국문초록

탈냉전 직후 인도는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냉전 시기 안락함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상황에 따라 극도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8년 핵실험 성공은 인도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실리 추구와 함께, 동진정책, 서진정책, 북진정책 등 지역별 맞춤 지역화(regionalization) 전략으로 구체화 된다. 특히 북진정책을 구체화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은 미, 중, 러 등 주요 강국의 이해와 경쟁이 심화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신흥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게 중앙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200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며, 두 번째는 전통,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역내 안보문제 해결이다. 특히 인도는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과해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인도와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분리주의 집단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다. “연결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안보, 경제, 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채택,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들 국가들에게 러시아, 미국, 중국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결 정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1)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2년도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Track 1.5, 2 수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SCO, SAARC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를 활용하여 역내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정립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아래 단기적, 구체적 방안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다자적 틀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해결을 위한 인도,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주제어: 인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대외정책.

1. 서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오랫동안 문화, 역사,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쟁 상대이자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2억이라는 막대한 인구, 연 7%대의 빠른 경제 성장률, 핵보유국가로서 인도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흥 강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인접 국가/지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탈(脫)냉전 후 인도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을 소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 주변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을 통한 역내 안보 안정이다. 인도는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자급률이 부족하여 원유의 경우 70% 이상을 수입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공급처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왔다. 한편, 인도의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요소는 역내 이슬람 급진 세력에 의한 테러리즘이다. 최근 인도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배후에는 파키스탄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계곡을 주요기반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은 인도에게 에너지와 안보라는 두 영역에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한 최우선 관심 지역 중 하나이다. 나아가 인도가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한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21세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중요하다.

[그림 1].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도



출처: 미국무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국, http://www.state.gov/p/sca/ci/index.htm (검색일 2012-06-28).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범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협의의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 신생독립국[2]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3] 광의의 차원에서는 위의 지역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파키스탄 북부, 이란 코라산(Khorasan) 지역, 코카서스 3국, 러시아 타타르스탄 및 인도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Starr는 ‘대 중앙아시아(Greater Central Asia, GCA)’ 개념을 통해 "GCA의 번영은 교역에 달려있으며, 교역은 필연적으로 교통망의 발전에 의존했다. 역사, 지리적으로 양 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통로 역할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번영과 쇠퇴가 말해주듯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서로 분절, 고립된 상태에서는 결코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4]. 최근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이하 “연결 정책”)을 발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과거 활발했던 교류가 복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결 정책”의 핵심 개념은 향후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양자관계, 다자관계 차원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 이후 단절되었던 양 지역을 재연결(re-connect)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5]

그동안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대 중앙아시아 진

2)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 본 연구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규정한다.
4) Frederick Starr, "A Greater Cent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2005).
5) India's 'Connect Central Asia Policy,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June 12, 2012, http://meaindia.nic.in/mystart.php?id=530119616 (검색일 2012-08-16).

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이를 주제로 한 인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간히 인도의 대외정책 혹은 인도-중앙아시아 관련 해외 연구물들이 등장하는데,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을 다룬 연구에서 인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장, 목적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Mohan(2004)은 냉전 종식 후 인도의 외교는 인근 국가/지역에 대해 보다 확장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진취적 성격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인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 수립이 2000년대 초중반에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는 주로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패턴에 변화를 가해 인도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를 공략한다는 것이다.[6)]

한편, Moore(2007)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안보,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설정에서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에너지 안보,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거대 세력 경쟁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Moore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와 교류하는 것은 파키스탄에 대항해 역내 "전략적 깊이(strategic depth)"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외교는 필연적으로 파키스탄, 미국, 기타 아시아 강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계는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Moore의 결론이다.[7)]

두 연구에서처럼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분명한 목적, 즉 에너지 안정적 수급과 역내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의 요충지인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은 21세기 신흥강국을 꿈꾸는 인도에게 있어 자국의 능력을 검증해볼 실험적 무대가 될 수 있다. 인도는 최근 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존재감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인도는 중앙아시아에서 경합을 벌이는 주요 강국들과 전면적인 경쟁은 당분간 피하면서도 인도-중앙아시아 간 유구한 교류 역사의 복원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이미 구축된 환경에서 인도가 활용할 수 있는 틈새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인도의 중앙아시아 접근법이며 “연결 정책”이 표방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인도의 “연결 정책”은 탈냉전 인도가 전개한 대외정책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인도가 바라보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란 무엇인가? “연결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우선 탈냉전 인도의 대외정책 전개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인도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가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결 정책”의 수립 과정과 핵심 내용을 인도 정부의 공식 문서, 자료, 현지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

6) Raja Mohan, *Crossing the Rubicon: The Shaping of India's New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 80.

7) Scott Moore, "Peril and promise: a survey of India'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6-2, (2007), pp. 279-291.

II. 탈(脫)냉전기 인도의 대외정책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탈(脫)냉전기 인도의 대외정책: 전개과정과 특징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가 시작되면서 국제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냉전 시기 비동맹정책을 토대로 서방과 소련 양쪽 모두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립을 유지해 온 인도에게도 이러한 변화는 대외정책 상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남아시아에 한정한 채 제 3세계 리더 역할에 머물렀던 인도는 바뀐 환경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탈냉전 직후 인도의 대외정책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일각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수정, 조작이 이루어지는 "극심한 가변성(infinitely malleability)"이 인도외교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8] 인도에게 냉전 시기는 안락한 확실성이 보장된 시대였던 반면 탈냉전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늪이었다. 당시 급변화된 국제질서에 대해 인도가 느꼈던 불안감을 전 주미 인도 대사였던 Abid Husain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9]

"한 경제학자가 인도를 우리 안에 든 호랑이로 묘사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문이 열리면 호랑이는 자신의 숨은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은 열렸으나 정작 호랑이는 우리에서 나오기를 거부한다."

탈냉전 직후 혼란스런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인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명백한 인식을 갖게 된다. 우선 인도는 소련이라는 전략적 동맹국을 상실했기 때문에 군축, 비확산, 잠무-카슈미르 쟁점과 같은 인도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냉전 시기 인도의 대외안보정책의 핵심이었던 비동맹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아가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별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따라 인도의 대외경제정책도 과거 내부 지향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경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10]

이는 점차적으로 인도의 탈냉전기 대외정책 구상에 반영되었고 1998년 핵실험 성공을 기점으로 인도는 국제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리(實利)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11]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 인도의 대외정책이 명백한 목적 없이 유동적이고 불확실

8) A. Lathan, Constructing national securit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19-1, (1998), pp. 134-154.
9) Abid Husain, Opinion, *India Today*, 15 March 1993.
10) Saint-Me'zard, Isabelle, "The Look East Policy: An Economic Perspective," in Fre'de'ric Grare, Amitabh Mattoo(eds.), Beyond the Rhetoric: The Economics of India's Look East Policy, (New Delhi: Manohar Publishers & Distributors, 2003), pp. 21-22; 진재형, 이수형, 공석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29에서 재인용.
11) 인도의 핵실험 성공이 갖는 의미는 가) 인도가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두고 겪었던 국제사회에서 갈등 종결, 나) 핵무기를 인도의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도구로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 Kapur, *India-From Regional to World Power*, (London: Routledge, 2006), p. 180 참조.

했다면, 핵실험 성공 후 인도의 대외정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인도 위상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12] 국제사회에서 자신감과 정체성을 회복한 인도는 더 이상 '우리 안을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호랑이'가 아닌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신흥강국이자 21세기 국제정치의 주요 카드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미, 중, 러 주요 강대국들은 인도를 미래의 세계 지정학 지도에서 중요한 '경합국(swing state)'로 인식, 인도를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13] 인도 역시 인도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 미, 중, 러 3국 사이에서 양면(兩面)외교를 통해 실리 추구에 적극적이다. 중국과는 이미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고 국경문제 해결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델리조약"이 선언됐다.[14] 미국으로부터는 핵에너지, 우주항공 기술 제공 약속을 얻어냈으며,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는 인도의 인도양 안보 강화와 군사력 증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인도 Manmohan Singh 총리가 2004년 총리 취임식 자리에서 "21세기는 인도의 세기가 될 것"이라 선언한 후, 10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인도는 세계 주요 강국들의 구애를 받으며 이러한 선언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1998년 핵실험 성공 후 인도 대외정책이 적극성과 의 두드러진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대외정책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즉 "각기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대외정책의 전개"이다.[15] 가장 나중에 추진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도 인도의 지역화된 대외 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탈냉전 후 시간 순서에 따라 인도의 지역별 대외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인도는 1990년대 초 당시 P.V. Narasimha Rao 총리 주도의 "동진정책(Look East Policy)" 추진을 기점으로, 냉전시대의 비동맹정책과 내부지향적,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실용적, 다자주의적 외교노선과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동진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도의 경제체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였고 냉전체제 동안 제한적이었던 외교노선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장하여 이들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후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동안 남아시아 지역 내 머물렀던 소극적, 제한적 역할에서 벗어나 21세기 신흥강대국으로 영향력 확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16] 2000년대에 들어선 후부터 인도는 이른바 "서진정책(Look West Policy)"을 추진, 냉전시기부터 오랜 우방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동방정책 개시로 구축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견고히 하면서, 동시에 인도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걸프권 국가) 및 미국 등 서구권과의 협력으로 인도 외교 범주의 확장 모색하는 균형, 실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동방정책이 동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면, 2000년대 후반에 주목받고 있는 서방정책의 핵심은 인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에너지 자원 확보와 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

12) Emilian Kavalski, "Partnership or Rivalry between the EU, China, and India in Central Asia: the Normative Power of Regional Actors with Global Aspirations", *European Law Journal,* vol. 13, no. 6(2007), p. 240.
13) 정우량, "21세기 세계 강국 꿈꾸는 인도의 그네 타기 외교", 『인물과 사상』, 2005. (9). p. 103.
14) Ibid., 97.
15) Kavalski, op. cit., 2010, p. 239.
16) 전재성, 이수형, 공석기, op. cit., pp. 28-30.

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 및 강화를 통한 신흥강국으로서의 국력 향상에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가치와 막대한 에너지 자원으로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도의 대외정책은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 비로소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인도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자는 “북진정책(Look North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7] 본 연구에서는 “북진정책”보다는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으로 통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인도의 입장에서 본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의 탄생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남을 의미했고, 세계열강들과 지역 강국들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거대한 체스판의 '요충지(pivot)'으로 종종 묘사되어 온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방대한 에너지-광물 자원이 존재하고, 둘째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유럽, 코카서스 지역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위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송관과 물류, 수송, 통신망 연결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지닌다. 세 번째는 안보적 요소로 중앙아시아에는 주요 극단주의,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9/11 사태 이후 테러리즘 척결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세력경쟁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강국들에 비해 후발 주자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강국들은 1990년대 초 중앙아시아가 독립하면서 세력 경쟁에 참가하기 시작한 반면, 인도는 당시 당면한 경제 위기와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소요사태,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정책은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국가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의 국가 규모, 전략적 위상, 교역상의 이해, 안보 환경에 상응하도록 과거 '대응적' 수준에 머물렀던 외교정책을 '주도적, 사전대비적'로 전환하고,[18] 외교 대상 범주는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만, 동쪽으로는 말라카 해협, 북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으로는 적도까지 확장하였다.[19]

특히 인도의 경제가 급성장한 2000년대 후반에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정치,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Manmohan Singh 총리는 합동참모회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인도의 역할은 '평화적 변방(peaceful periphery)'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20] 특히 인도는 주변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한 동시에 시장 경제 체제를 빠르고 성공적으로 구축한 국가임을

17) Shinha, Y, "India and Central Asia in the emerging security environment", K Santhanam and R Dwivedi(eds.), *India and Central Asia: Advancing the Common Interest,* (New Delhi: Anamaya Publishers, 2004), p. 6; Kavalski, op. cit., pp. 239-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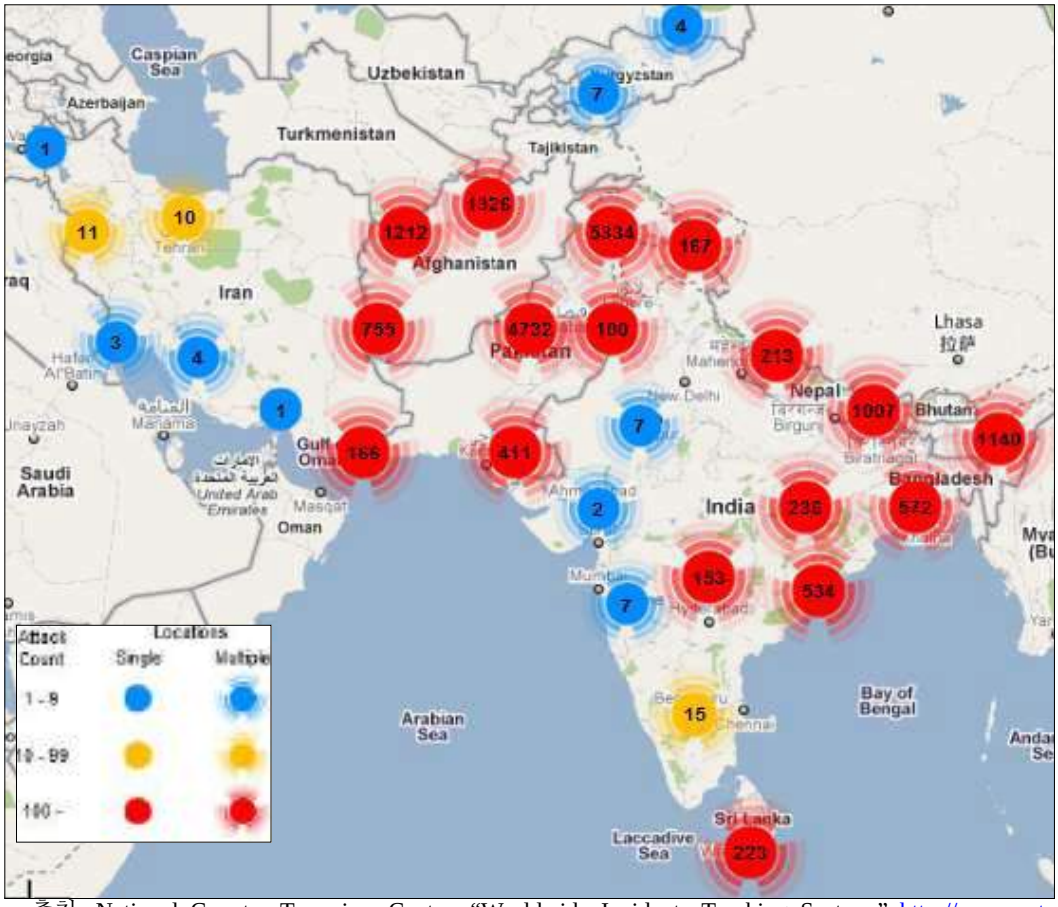
18) Gulshan Sachdeva, "Responses to Non-traditional Threats and Challenges",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2010), pp. 101-102.

19) Annual Report 2002-2003, Ministry of Defense, Government of India, (2003), p. 2-6.

20) Extracts of PM's address at the Combined Commander's Conference, October 18, 2006, New Delhi, (http://pmindia.gov.in/speech-details.php?nodeid=417) (검색일 2012-08-22).

내세우며, 서아시아, 페르시아 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정치, 경제, 안보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국익 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규정, 양 지역 간 역사, 문화적 연계성을 복원하고,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공통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관계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21]

[그림 2]. 2007-2010년 사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출처: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Worldwide Incidents Tracking System,” http://www.nctc.gov.

주. 각 원 안의 숫자는 테러공격 발생 횟수이며, 진동표시가 있는 원은 다발적으로 공격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어 인도 북부 지역은 빈번하게 테러 공격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안보 불안은 2008년 뭄바이 테러 사태로 극에 달하였다. [그림 2]는 2007-2010년 사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들을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접경지역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는 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경이 교차하는 페르가나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깊숙한 산악 지대에 은신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역내 안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최대 현안인 만큼 에너지 보고인 중앙아시아의 안정은 인도의 국익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

21) ibid.

여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기존의 제한적, 소극적 관계 유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분리주의, 마약/무기 밀거래 차단이라는 분명하고 공통된 안보 의제를 공유하면서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인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주지하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인도가 중앙아시아로 가는 통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동 안보(common security) 차원에서 '대(大) 중앙아시아(GCA)' 안보 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9/11 테러 사태 이후 이슬람 무장 세력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로 역내 국가들의 안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안보 불안정과 테러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이 곧 인도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해 재건과 안보에 투자,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목 안정화에 주력해왔던 것이다.[22] 이는 향후 인도-중앙아시아 간 에너지,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무장세력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역내 안보 강화에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23]

막대한 에너지 자원 역시 인도가 중앙아시아를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보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이다. 인도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난 10년간 에너지 수입원 확대, 다각화에 주력해 왔다.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 에너지 확보가 인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했다.[24]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이란 등에서 전체 수입량의 2/3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을 줄이는 것을 중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인접한 중앙아시아를 대체 에너지 수급원으로 바라보며, 이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 부국인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기존 강대국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프트 파워를 내세우며 비제국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인도를 일종의 균형자로 보면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협력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강대국들의 세력 각축장이 된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외부 세력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바로 경제, 안보적 이유 때문인데, 인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호 보완적이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맥락에서 최근 들어 활기를 띄는 인도-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아프가니스탄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25] 가입은 양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문제

22) 2014년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역시 인도 정부로 하여금 이후의 역내 안보 유지, 강화에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 탈레반 정권 시절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인도 위협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이 타지키스탄과 강력한 연계성을 가진 북부 동맹에 기반 한 정권에 의해 대체되자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의 영향력에 대해 파키스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급히 모색하여 공조, 무역, 외교 관계 등에 상당히 투자하였다.

24) 김찬완, "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새로운 트렌드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 16권 2호(2011), p. 23.

25) 1985년 11월 7일 다카(Dhaka)에서 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 등 7개국 정상들이 모여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을 발족했다. 본 연

점을 해결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분리된 지역이 아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의 SAARC 가입은 앞으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를테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입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경제력이 향상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가 FTA를 추진하여 양 지역의 무역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GCA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긴밀성이 한층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인도의 경제력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IS, 러시아,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통과 지역이다. 과거 인도와 중앙아시아가 번영을 누렸을 시기 무역 활동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인도 북서부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육로의 연결은 인도의 미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표 1]. 인도-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 (2007-2011) (2012.3.10 기준, US $ Million)

GCA 국가/연도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아프가니스탄	359.18	520.47	588.74	568.44
카자흐스탄	188.77	290.70	291.44	310.59
키르기스스탄	32.43	23.95	27.48	26.98
타지키스탄	22.21	34.17	32.57	41.33
투르크메니스탄	44.65	53.50	46.15	35.89
우즈베키스탄	56.52	116.27	84.00	81.05
합계	703.76	1,039.06	1,070.38	1,064.28
인도 총 무역량	414,786.19	488,991.67	467,124.31	620,905.32

출처: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commerce.nic.in/eidb/iecntq.asp (검색일 2012-08-11).

인도는 2015년까지 유럽, CIS,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무역이 연간 5000-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26] 이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인도의 총 무역량이 약 8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이다.[27] 그런데 이 중 20%만이라도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여 중앙아시아로 진입하는 육로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발생 가능한 이익은 1000-1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28] 물론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까지 인도-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체 무역규모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도 무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EU, CIS 권을 대상으로 한 대륙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를 통한 대륙 교역 활성화와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합의 목적은 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며 경제·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며, 개발도상국간 협력 강화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제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농업, 통신, 교육·문화·스포츠, 환경·기상, 건강·인구·아동복지, 마약 불법거래와 남용 방지, 지역 발전, 과학과 기술, 관광, 교통 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밖에 1995년 12월에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ARC 무역특혜협정)를 채택하여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삭감했다. 옵저버 국가는 호주, 중국, EU, 이란, 일본, 한국, 모리셔스, 미얀마, 미국이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南—地域協力聯合,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2-07-15).

26) Gulshan Sachdeva, "Regional Economic Linkages",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2010),* pp. 136, 139.

27)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commerce.nic.in/eidb/iecntq.asp (검색일 2012-08-11).

28) Gulshan Sachdeva, op. cit.

위해서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육로의 부활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는 우선적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권 형성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1. 성립 배경

최근 인도 대외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실리 추구와 대외정책의 지역화로 오늘날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연결 정책”은 과거 인도-중앙아시아 간 활발했던 교류를 현대적 의미로 회복하여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동시에 유라시아 요충지에 인도의 존재를 강화하여 21세기 신흥강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다자적 접근을 통해 역내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고대부터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친밀감을 축적해 왔다. 양 지역은 오랫동안 교통, 무역, 종교, 문화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왔으며, 교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우선 남아시아 반도는 남쪽의 바닷길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북쪽 루트를 중심으로 육로 무역을 실시해왔다. 남아시아의 북쪽에는 바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중동,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한편,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흡수했고, 동시에 중동, 유럽으로의 길목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의 통치가 시작된 19세기 말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활발한 교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역할 해왔다.[29]

그러나 수세기 동안 지속된 활발한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인적 교류는 영국의 인도 통치와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인정, 아프가니스탄과 대영제국 간 두란드 라인(Durand Line)의 성립[30],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병합으로 양 지역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냉랭하게 변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로의 합병 이후 북쪽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대영제국이 진출한 인도는 인도 남부 도시들이 바닷길을 개척을 위해 개방되면서 남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그러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간 교류의 상징이었던 비단길은 쇠퇴하였고, 양 지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양 지역에서 소통되었던 페르시아어는 더 이상 주류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인도에는 영어, 중앙아시아에는 러시아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양 지역 간 교류가 19세기

29) 중앙아시아 학자인 Babajan Gafurov는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롭고 보다 정교한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단순히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전달하는 기계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Babajan Gafurov, "Kushan Civilization and World and Culture", *Central Asia in the Kushan Period, (*Nauka, Moscow, 1974), p. 74; Joshi 2010, op. cit., p. 21에서 재인용.

30) 19세기 말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은 파슈툰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간과 인도 사이의 파슈툰 거주 지역에 두란드 라인(Durand Line)을 설정했고, 이 경계선이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국경선이 됐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말에 이르러 현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31]

공식적으로 인도-중앙아시아 외교 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재개되었지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2003년 인도 총리의 타지키스탄 방문과 2005년 인도 국영석유회사의 카자흐스탄 유전사업 투자가 진행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수차례 양 지역 정상들이 오고가면서 구체적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5-6년 사이 양 지역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빈번해진 각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관료들의 만남,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에너지 협력 사례 등이 이를 대변한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인도 대통령이 차례로 양국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Manmohan Singh 인도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했다. Islo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11년 5월 인도 방문에 이어 S.M. Krishna 인도 외무부 장관이 2012년 7월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타지키스탄을 방문했다. 9월에는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기존의 양자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쉽 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했다.[32] 이 밖에도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자 정책을 완화하였고 항공기 및 육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해 인도-중앙아시아 간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영역에서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자협력기구들 중에서 SCO(옵저버 지위 확보),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정회원)에 가입한 상태다.

2. 주요 내용

인도의 “연결 정책”은 정치, 안보, 경제, 문화적 연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협력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첫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에는 대응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트랙 1.5, 2 수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SCO와 같이 기존의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나 인도가 주도하는 SAARC를 활용하여 역내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올해 6월 12일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대화(India-Central Asia Dialogue)(이하, 인-중 대화)”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중 대화에는 각 국가별 학자, 교육자, 사업가들이 초청된 트랙 2 수준의 비공식적 만남의 장으로 향후 연례행사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양 지역 간 문화, 교육 등으로도 확대되어 교류의 저변을 넓히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대화에서 인도 외무부 장관 Shri E. Ahamed는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33]

---

31) 소비에트 시기 인도는 문학이나 예술 등 한정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최소한의 교류를 유지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했다.

32) Meena Singh Roy, India and Tajikistan: Building a long-term Strategic Partnership, IDSA, (18 September 2012), http://idsa.in/idsacomments/IndiaandTajikistanBuildingalongtermStrategicPartnership_MeenaSRoy_180912 (검색일 2012-11-01).

33) Keynote address by MOS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이제 인도는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을 통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려 한다. 이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적, 집단적인 테두리에서 주도적인(pro-active) 정치, 경제, 인적 교류에 기반 하여 진행될 것이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전, 인도-파키스탄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교류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과거에 비해 안정을 찾아가고, 지난 해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35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경제 부문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34] 인도는 중앙아시아가 역사, 문화적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친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에서의 민간 교류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는 달리 역사상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경제 발전, 시민 사회 건설, 민족-종교의 화합을 위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 1차 인-중 대화에서 인도 외무부 장관이 발표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가) 인도는 중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견고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해 간다. 각국 양 지역 지도자들은 양자간, 다자간 상호 긴밀하게 교류한다;

나)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안보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미 인도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었고, 군사 훈련, 합동 조사, 반(反)테러리즘 공조,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대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기존의 다자기구(SCO, Eurasian Economic Community, Custom Union)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이미 유라시아 공간의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한 '포괄적 경제 협력 조약(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제안한 바 있다;

라) 인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에너지, 광물 자원에서 장기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넓은 경작지를 보유하는 중앙아시아와 협력하여 부가가치가 있으며 수익성 높은 작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마) 의료는 인도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분야 중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보고 있어 민간 병원, 클리닉 등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 인도는 IT, 경영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중앙아시아에 인도-중앙아시아 대학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SCO나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과 같은 기존 다자기구로의 참여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인도는 유라시아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 조약(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제안, 남아시아 경제권을 아우르는 SAARC의 범주를 중앙아시아로의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듯 인도는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안보 문제나 경제 통합과 같은 역내 공동 이슈에 대해서는 다자적 틀 내에서 접근, 협력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류, 협력으로 과거 '친선(goodwill)'

34) 파키스탄, 인도 관계 해빙무드: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량 급증 전망, Kotra Global Window, (검색일 2012-09-29).
35) Ibid.

수준에서 벗어나 '가시적(tangible)', '전략적(advantage)'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36] 향후 인도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서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에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TAPI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인도의 "연결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그림 3). 천연가스가 시작해서 통과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의 앞머리를 딴 TAPI 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육로를 통해 인도로 공급될 첫 사례라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37] 또한 본 사업은 향후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및 사용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38]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수송로와 이란-파키스탄-인도(IPI) 수송로



출처: TAPI Pipeline Offers Win-Win Benefits to All, http://newsblaze.com/pix/2011/0202/pix/TAPI_and_IPI_Pipelines.gif (검색일 2012-09-10).

36)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 Round Table, (July 10, 2012),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37) 본 사업은 다자적 접근으로 성과를 거둔 주요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최근 경제 부문에서의 인도-파키스탄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무려 20년간 끌어온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국 간의 극적인 합의로 가능했다. 이로써 인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도 델리(Delhi)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송유관 완공 시점은 2016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국은 바로 인도(인도가스공사, GAIL)와 파키스탄(인터스테이트가스시스템, PVT)로, 사실상 파키스탄의 합의가 없었다면 본 송유관 사업은 무산될 위기였다. 한편으로 TAPI 사업의 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스관 통과로 고정적인 주요 수입을 발생시켜 향후 국가 재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들의 존립 기반을 약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8)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s, (July 10, 2012), Event Report, (http://www.idsa.in/event/IndiasEngagementwithCentralAsia100712?q=print/9906) (검색일 2012-08-18).

V. 결론

최근 들어 인도와 중앙아시아 관계는 21세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양 지역의 위상 변화로 인해 재개(再開)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20세기 한 때 단절되었던 인도-중앙아시아 교류는 서로가 가진 장점을 결합, 역내 공통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안보, 경제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양 지역의 전략적 연대, 협력은 향후 서로에게 유의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탈냉전 직후 인도는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냉전 시기 안락함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상황에 따라 극도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8년 핵실험 성공은 인도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실리 추구와 함께, 동진정책, 서진정책, 북진정책 등 지역별 맞춤 지역화(regionalization) 전략으로 구체화 된다. 특히 북진정책을 구체화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은 미, 중, 러 등 주요 강국의 이해와 경쟁이 심화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신흥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게 중앙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200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며, 두 번째는 전통,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역내 안보문제 해결이다. 특히 인도는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과해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인도와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분리주의 집단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세력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의 “연결 정책”에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라는 두 가지 단기적 국가 이익이 반영된 동시에 인도의 외교정책이 핵실험 성공과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보다 적극성을 띤 이후 유라시아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연결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안보, 경제, 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인도가 러시아, 미국, 중국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추구한다. “연결 정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Track 1.5, 2 수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SCO, SAARC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를 활용하여 역내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도는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후발주자이나 비교적 성공적인 진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는 무굴 제국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하나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현재 인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종의 '균형자(balancer)'로서 역할과 입지를 다져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별 특성에 맞게 석유, 천연가스 및 전력 분야에 투자를 진행 중이며, 특히 TAPI 수송로 건설이 실현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인도 내륙까지 수송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안보 분야에서 인도는 독자적 또는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절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독특한 입지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전통적 강국들 사이에서 정치, 경제, 안보적 옵션을 다원화하

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인도-중앙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추동하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지역 교류는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주된 원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는 파키스탄의 존재와 여전히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시장 환경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수준 역시 양 지역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경제교류 활성화 조치로 해빙무드에 들어섰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양 국이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으로 인도-중앙아시아 간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세도 2011년도 빈 라덴 사망 이후 탈레반 세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인도 등의 재건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리스크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와 중앙아시아 양 지역이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반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면 인도-중앙아시아 간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정립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아래 단기적, 구체적 방안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다자적 틀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해결을 위한 인도,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성 외,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김찬완, "세계 5위 에너지 소비국, 인도의 행보", 『친디아저널(Chindia Journal)』, 제 2호(2008), pp. 24-26.

_____, "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새로운 트렌드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 16권 2호(2011), pp. 1-37

박상남, 『현대 중앙아시아』,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이재강, "인도,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친디아저널(Chindia Journal)』, 제 44호 (2010).

전재성, 이수형, 공석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정병조, 『인도사』, (미래엔책출판사, 2005).

A. Lathan, Constructing national securit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19-1, (1998), pp. 129-158.

Byrd, William and Raiser, Martin et 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Wider Central Asian Region", *World bank Working Paper* No. 7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6).

Feigenbaum, Evan A. "Can India and United State cooperate in Central Asi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central-asia/can-india-united-states-cooperate-central-asia/p25140 (접속일 2012-09-30).

Gafurov, Babajan. "Kushan Civilization and World and Culture", *Central Asia in the Kushan Period, (*Nauka, Moscow, 1974).

Haidar, Mansura. "Exchanges and Interactions in the Field of Fine Arts, Handicrafts and Technology", N.N.Vohra(ed.),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and India,* (Delhi, 1999).

Husain, Abid. Opinion, *India Today*, 15 March 1993.

Joshi, Nirmala. "India and Central Asia: Bilateral Dimensions", in V. Nagendra Rao and Mohammad Monir Alam, *Central Asia: Pres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New Delhi: Knowledge World, 2005).

_____. "Responses to Non-traditional Threats and Challenges",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2010), pp. 81-114.

Kapur, A. *India-From Regional to World Power*, (London: Routledge, 2006)

Kavalski, Emilian. "Partnership or Rivalry between the EU, China, and India in Central Asia: the Normative Power of Regional Actors with Global Aspirations", *European Law Journal*, vol. 13, no. 6(2007), pp. 839-856.

_____. *The New Central Asia: the Regional Impact of International Actor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10).

Mann, Poonam. "Fighting Terrorism: India and Central Asia", *Strategic Analysis*, vol.

XIV, No. 2, (2001), http://www.idsa-india.org/an-feb-6-01.html (검색일 2012-10-11).

Mohammad, S. Hussain. "Security Challenges in Central Asia and India's Role", http://www.usak.org.tr/EN/makale.asp?id=2405 (검색일 2012-07-15).

Mohan, Raja. *Crossing the Rubicon: The Shaping of India's New Foreign Policy*, (New ork: Palgrave Macmillan, 2004).

Moore, Scott. "Peril and promise: a survey of India'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6-2, (2007), pp. 279-291.

Muhammad, Hanif. "China and SAARC: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e Frontier Post*, (May 19, 2012).

Mukul, G. Asher. "India's Rising Role in Asia", Discussion Paper No. 121, (New Delhi: RIS, 2007).

Sachdeva, Gulshan. "India's Attitude towards China's Grow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3(2006), pp. 23-34.

_____. "Regional Economic Linkages",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2010)*, pp. 115-180.

Sahgal, Arun and Anand, Vinod Anand. "Strategic Environment in Central Asia and India", *Reconnecting Indi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2010).

Saint-Me'zard, Isabelle. "The Look East Policy: An Economic Perspective," in Fre'de'ric Grare, Amitabh Mattoo(eds.), *Beyond the Rhetoric: The Economics of India's Look East Policy*, (New Delhi: Manohar Publishers & Distributors, 2003).

Schaffer, Teresita C. and Hate, Vibhuti. "India 'Look West' Policy: Why Central Asia Matters", No. 11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Scott C. Levi (ed.). *India and Central Asia: Commerce and Culture: 1500-18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ingh, R. Meenah. "India's Interest in Central Asia", *Strategic Analysis*, vol. XXIV, n. 4. http://www.idsa-india.org/an-mar-9.01.html (검색일 2012-09-27).

Sharan, Shalini. "Central Asia: India's real strategic depth?", CSIS, (2012) http://csis.org/print35450 (검색일 2012-10-11).

Shinha, Y. "India and Central Asia in the emerging security environment", K Santhanam and R Dwivedi(eds.), *India and Central Asia: Advancing the Common Interest*, (New Delhi: Anamaya Publishers, 2004).

Starr, Frederick. "A Partnership for Central Asia", *Foreign Affairs(2005* July-August).

_____. "A Greater Cent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2005).

_____(ed.). *The New Silk Roads: Transport and Trade in Greater Central Asia*,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2007).

Stobdan, P. "India and Kazakhstan Should Share Complementary Objectives", *Strategic Analysis*, Vol. 33, No. 1, (2009).

인터넷 기사, 보고서

Rodrigo, Nihal. "South-South Cooperation: The Progress of SAARC in the Current Global Context," Inter Press Service, Apr 11, 2012.
Roy, Meena. India and Tajikistan: Building a long-term Strategic Partnership, IDSA, (18 September 2012), http://idsa.in/idsacomments/IndiaandTajikistanBuildingalongtermStrategicPartnership_MeenaSRoy_180912 (검색일 2012-11-01).
India's "Connect Central Asia Policy",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June 12, 2012, http://meaindia.nic.in/mystart.php?id=530119616 (검색일 2012-08-16).
Annual Report 2002-2003, Ministry of Defense, Government of India.
Extracts of PM's address at the Combined Commander's Conference, (18 October 2006), (http://pmindia.gov.in/speech-details.php?nodeid=417) (검색일 2012-08-22).
“중·러 새 밀월관계 구축 반미(反美) 앞세우며 새판 짜기 시동”, 『주간동아』, 842호, 40~43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06/18/201206180500007/201206180500007_1.html) (검색일 2012-08-22).
“美-아프간 전략적동맹협약 "미군 철수 이후에도 군사· 경제 지원 약속”, 2012-05-02일 자, 『뉴스1』, http://news1.kr/articles/653543 (검색일 2012-08-15).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s”, (July 10, 2012), Event Report, (http://www.idsa.in/event/IndiasEngagementwithCentralAsia100712?q=print/9906) (검색일 2012-08-18).
Keynote address by MOS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파키스탄, 인도 관계 해빙무드: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량 급증 전망", Kotra Global Window,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8DEF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kBsaGhpR7ggAUFttjw!!/delta/base64xml/L0lDU0lKQ1RPN29na21BISEvb0VvUUFBSVFnakZJQUFRaENFSVFqR0VBLzRKRmlDbzBlaDFpY29uUVZHaGQtc0lRIS83X0VfREM5LzQ3NzQ0MTI!?id=2155613&workdist=read (검색일 2012-09-29).
“India's Engagement with Central Asia: Exploring Future Direction”, Round Table, (July 10, 2012),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http://idsa.in/event/IndiasEngagementwithCentralAsia100712 (검색일 2012-08-30).
“ONGC Mittal Signs Deal to Take 25 Stake in Kazakh Oilfield,” Times of India, 24 January 2009,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_Business/ONGC-Mittal_signs_deal_to_take_25_stake_in_Kazakh_oilfield/articleshow/4027031.cms) (검색일 2012-08-27).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1)]

이채문(경북대)

I. 연구목적

바야흐르 세계는 환경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쯔나미와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사고는 전세계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어떠한 국가도 환경문제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타국의 환경재앙이 진원지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반대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황사가 한국 및 일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까지 미친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또 하나의 엄청난 환경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한때는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북미의 슈피리어호,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에 이어 전세계 4대 호수로 위용을 자랑하던 중앙아시아의 아랄해가 원래 호수면적의 90%가 고갈되면서 드러난 강바닥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염분이 가미된 먼지는 인근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라버린 광대한 지역의 아랄해에서 불어온 오염물질은 중앙아시아 인근국인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인도 및 파키스탄의 국경선 지역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아랄해 유역권에 포함되는 인구가 약 3,200만명이며,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가 아랄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랄해의 고갈은 환경재앙의 전형적인 사례로,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으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으로 일부 언론에서 아랄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서구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20세기 전세계 환경재앙의 대표적인 사례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본 연구는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한 전략지역심층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보고서의 일부임.

2) 실제로 아랄해의 고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쵸프가 전 세계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이전까지는 서방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I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아랄해의 고갈과 그 영향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상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사례인 아랄해의 고갈이라는 엄청난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부각시킴으로서 특히 한국에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불과 50여년전만해도 아랄해는 세계의 4번째로 큰 호수였다. 그러나 구소련 시대를 통해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면화산업 및 벼농사를 위해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죽음의 호수로 변한 상태이다. 호수의 고갈로 인한 염도의 상승으로 아랄해에 살던 생물들의 멸종을 가져왔다. 또한 아랄해로 유입되었던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의 고갈로 호수의 대부분 하상(河床)이 드러나면서, 이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염분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대기를 통해 유입시켜 인근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5개국, 인도, 중국,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경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 아랄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생태학적 악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 유엔개발계획 및 아시아 개발은행 등 수많은 국제단체 및 국제연구기관의 연구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현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결과와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심각성과 연계되어 사회구조상의 문제, 특히 주민들의 집단이주, 공동체의 일탈현상, 실업으로 빚어지는 가족의 해체문제 등 기존 연구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셋째,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문헌연구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가 갖는 현실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현지조사를 위주로 한다. 수많은 연구가 현장답사보다 기존자료, 특히 서구에서 발표된 자료에만 주로 의존함으로서 아랄해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랄해와 인접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누쿠스, 쿤그라드 및 무이나크 등 3개의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이한 지역의 실증조사를 통해 한 지역만을 연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연구의 특수성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함과 아울러 지역연구의 보편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보다는 현지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교육수준의 편차가 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보다 라포(rapport)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층면접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지주민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내면적인, 그리고 솔직한 경제적 실상과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심층면접의 요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실상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아랄해 문제 관련 기존문헌 검토

아랄해와 관련된 기존문헌은 크게 다음의 영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아랄해 고갈의 원인, 아랄해 고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랄해 고갈로 나타나는 자연생태학적인 피해, 아랄해와 관련된 수자원 거버넌스. 다음에서는 이들 영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문헌들 중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연구는 주로 아랄해 고갈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이다.[3] 대부분의 문헌은 아랄해 고갈의 원인을 1950년대와 1960년대 구소련 시기에 진행되었던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의 물을 농업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새로이 수로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는데 동의한다. 즉 새로운 수로를 만드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면화생산을 늘리고,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높이며,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1960년까지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는 면적이 450백만 헥타르였지만, 2000년대에는 약 800만 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수자원의 소비가 급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4]

특히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건설된 운하는 아랄해 고갈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라쿰 운하이다. 카라쿰 운하는 아무다리아강을 카라쿰 사막까지 연결하는 1,300km길이로, 소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길이가 긴 운하였다. 기존에 아랄해로 흘러가던 물이 이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약 225㎥라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아랄해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아랄해 고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5]

둘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은 문헌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핵, 간염, 호흡기 질환 및 설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이다.[6]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랄해 주변에서 이러한 질병의 발병율은 구소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7]

세째, 그 외 일부 문헌들은 아랄해 고갈로 빚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로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다루고 있다.[8] 구체적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빚어진 경작지의 염화(鹽化)는 심각

---

3) В. Н. Михайлов, "ПОЧЕМУ ОБМЕЛЕЛО АРАЛЬСКОЕ МОРЕ." *Соросов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журнал*, No. 2, pp. 85-90(1999) (http://www.pereplet.ru/nauka/Soros/pdf/9902_085.pdf, 2012-03-29 검색)

4) Tracy H. Allen (1997), "The Aral Sea Crisis: Desiccation and Perspectives on Recovery" (http://www.oneonta.edu/faculty/allenth/Class-Readings-Password/aral%20sea%20crisis.pdf, 2012-09-06검색); Gulnara Roll, Natalia Alexeeva, Nikolay Aladin, Igor Plotnikov, Vadim Sokolov, Tulegan Sarsembekov and Philip Micklin (2006), "Aral Se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Brief" (http://www.ilec.or.jp/eg/lbmi/pdf/01_Aral_Sea_27February2006.pdf, 2012-09-06 검색일);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и причины его гибели" (14 декабря 2009) (http://lifeglobe.net/blogs/details?id=484, 2012-08-20 검색);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проблемы легенды, решения" (http://ecodelo.org/3676-aralskoe_more_problemy_legendy_resheniya-basseinovyi_podkhod, 2012-08-19 검색)

5) Philip Mickin, "Desiccation of the Aral Sea: A Water Management Disaster in the Soviet Union" Science, Vol. 241 (1988), pp. 1170-1176.

6) Phillip Whish-Wilson,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Crisis," Journal of Rural and Remote Environmental Health, Vol. 1, No. 2 (2002), pp. 29-34; L.I. Elpiner, "Public health in the Aral coastal region and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ecological situation. In M.H. Glantz (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pp. 128-15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7) Ian Small, J. van der Meer, and R..E.G. Upshur, "Acting on an Environmental Health Diaster: The Case of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109, No. 6 (2001), pp. 547-549.

8) Юсуп, Камалов. 2004. "ЭКОСИСТЕМЫ РЕК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СУЩЕСТВУЮЩИЕ И ОЖИДАЕМЫЕ УГРОЗЫ" SEMINAR ON THE ROLE OF ECOSYSTEMS AS WATER SUPPLIERS

하다. 구체적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현재 아랄해는 1960년대 면적의 1/3이하로 줄어들면서, 말라버린 호수지역의 염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고갈된 아랄해 지역의 염분이 거의 해수의 염분수준으로 증가하였고,[9] 바람으로 이동하게 되는 공기중의 염분이 특히 주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염분 뿐만 아니다. 아무다리아강 상류지역에서 면화재배시 사용한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성분, 비료에 포함된 화학물질, 고엽제 성분 등이 아랄해로 유입되었다가, 아랄해가 고갈되자 수분이 증발되면서 아랄해 인근지역의 대기, 토지, 식수 및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10] O'Hara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랄해 인근지역의 유기인산염(organophosphate)의 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11]

마지막으로 일부 문헌들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자원의 특징 및 각국의 수자원 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수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구소련의 해체이후 각국의 독립과 함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국가간의 수자원의 분배 및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과의 연계등이 특히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였다. 수자원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이러한 문헌에서 어떻게 각국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분석되었다.[12]

따라서 상기의 문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제는 아랄해 고갈의 원인,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주민건강 영향, 아랄해 고갈이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랄해와 관련된 중앙아시아 각

(Geneva, 13-14 December 2004) (http://www.unece.org/fileadmin/DAM/env/water/meetings/ecosystem/Discpapers/Kamalov_aral%20sea_ru.pdf, 2012-03-24 검색); Алиханов Б.Б., Франк Л.Г., Аксенова Л.А., Горелкин Н.Н. Aral Genofond (http://aralgenofond.org/rus/aral-region/articles/details/?pid=131, 2012-08-20 검색) ; "ЭКОЛОГ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Год Молодёжи (http://www.godmol.ru/ekologija/127-aralskoe-more.html, 2012-09-02 검색); Май кл Г. Гланц и Игорь С. Зонн (2005),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водные проблемы, климат и изме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семирная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МО 982) http://www.wmo.int/pages/prog/drr/publications/drrPublications/0982_The_Aral_Sea/WMO982r.pdf, 2012-03-31 검색)

9) Philip Micklin, "The Aral Sea Disaster," The Annual Review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 Vol. 35 (2007), pp. 47-72.

10) A.N. Krutov,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Uzbek part of the Aral Sea basin." In M.H. Glantz (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 (pp. 245-2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 S.L. O'Hara, G.F.S. Wiggs, G. Davidson and R.B. Hubbard, "Exposure to airborne dust contaminated with pesticides in the Aral Sea region" *Lancet Research Letters,* Vol. 355 (2000), pp. 627-628.

12) Jeremy Allouche, "The Governance of Central Asian Waters: Natinal Interests versus Regional Cooperation," Disarmament Forum, No. 4 (2007) (http://www.unidir.org/pdf/articles/pdf-art2687.pdf, 2012-09-10 검색); Juha I. Uitto and Alfred M. Duda, "Management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flict Preven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68, No. 4 (2002), pp. 365-378; Anar Khamzayeva,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security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CIDOB Asia Documents 25 (2009), pp. 9-32 (http://www.einiras.org/pub/details.cfm?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U. Islamov, F. Maksudov, D. Maksudova,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ssues in Uzbekistan" CIDOB Asia Documents 25 (2009), pp. 57-76 (http://www.einiras.org/pub/details.cfm?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М.Т. Рузиев, В.Г. Приходько, "ПРИМЕНЕНИЕ МОДЕЛИ УПРАВЛЕНИЯ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ASB-MM)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НА ОСНОВ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УПРАВЛЕНИИ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КООПЕРАЦ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http://dialogue.icwc-aral.uz/first/third/ruziev/01_chapt1.pdf, 2012-09-24 검색)

국의 수자원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랄해의 환경재앙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아랄해 고갈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거대한 자연재해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V. 조사지역과 연구방법

1. 조사지역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아랄해가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이다. 구체적으로 카라칼팍스탄의 무이나크, 쿤그라드 및 누쿠스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랄해 권역속에서도 지역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간 차이를 모두 탐색할 수 있는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선정은 아랄해와의 거리, 과거 아랄해 인접지역,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의 기반 배경, 그리고 민족의 구성, 도시 또는 농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아랄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입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그림 1> 본 연구의 현지조사 지역 (누쿠스, 쿤그라드, 무이나크)

다음에서는 현지조사 지역인 누쿠스, 쿠그라드, 무이나크 등에 지역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이나크는 아랄해의 고갈이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 아랄해 인근에 위치한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지역산업 및 경제가 아랄해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므로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랄해 고갈이 진행되기 전에 무이나크는 아랄해에서 어류와 수산물 채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항구도시로서의 역할 등으로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아랄해의 고갈이 심각해져 이제는 항구의 역할은 커녕 존립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아랄해의 항구도시였던 무이나크는 현재 아랄해의 고갈로 아랄해와의 거리가 약 200km까지로 늘어남으로써 아랄해 고갈을 가장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곳이다. 현재 이 지역 도시인구가 약 13,000여명, 그리고 농촌인구가 15.000여명으로 모두 약 3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둘째, 카라칼팍스탄 자치주의 최대 도시이자, 26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누쿠스는 아랄해에서 날아온 염분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심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세계은행과 수많은 전 세계의 환경단체 소속의 회원들이 누쿠스에 체류하면서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누쿠스에서의 현지조사는 이러한 환경단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랄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인 누쿠스는 쿤그라드나 무이나크와는 달리 아랄해 고갈로 인한 영향에 대한 도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셋째, 쿤그라드는 무이나크와 누쿠스사이에 위치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무다리아강은 쿤그라드에서 아무다리아 델타를 형성하고, 이곳을 거쳐 무이나크로 흐르면서 아랄해로 합류하게 된다. 따라서 무이나크와는 달리 아랄해에 의존하여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며, 따라서 어느 정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기에 적절한 도시로 판단된다. 쿤그라드는 카자흐민족, 우즈벡민족, 키르기즈민족 및 기타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아랄해에 관한 다양한 민족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쿤그라드는 농업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외국인 회사가 산재한 곳으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농업이외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적지로 꼽히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기존 국내 문헌이 아랄해 문제에 대해 대부분 해외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현지조사는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아랄해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는 현장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아랄해 문제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현재 아랄해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위험성을 고발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반면, 우즈벡 정부에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아랄해 유역에서 석유와 가스 채굴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우즈벡 정부에서는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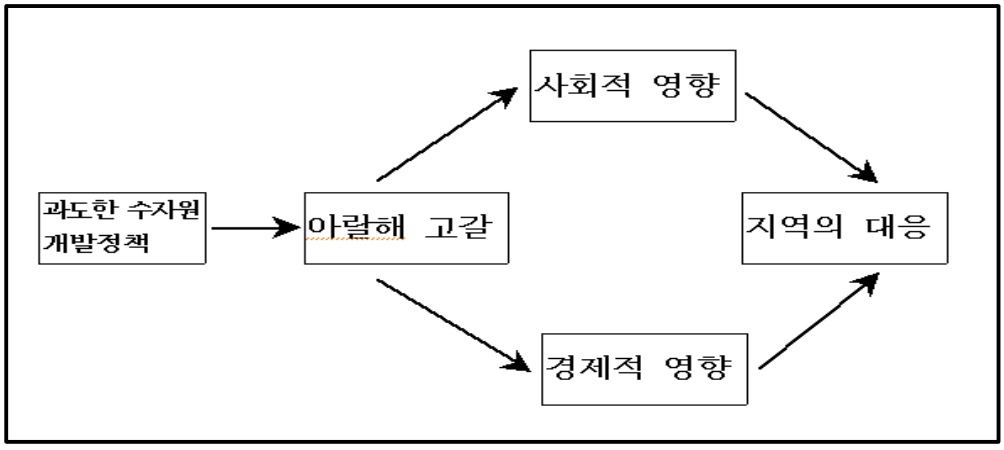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우즈벡 정부에서는 아랄해의 복원보다는 면화 재배지에 물을 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현지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이 가장 효과적이다. 과연 아랄해의 고갈로 무이나크, 쿤그라드 및 누쿠스 주민들이 어느 정도 타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과연 아랄해 고갈로 나타나는 환경재앙이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문헌조사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심층면접에 있다고 생각된다.

심층면접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량을 보여주는 아랄해 고갈의 역사를 가장 잘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사방법이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아랄해 주변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통해 당시 고갈되기 이전 아랄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거의 50여년간 아랄해의 고갈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정부에서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는 아랄해의 복원과 관련된 노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현지 거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의 또 다른 잇점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랄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지위와도 관련성이 있다. 즉 충분한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랄해의 고갈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 약 50여년간 상당수가 타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고, 교육수준도 높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틀에 박힌 설문지 작성과 같은 공식적 절차보다는 현지 가이드를 통해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들의 진솔한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술을 포함한 심층면접은 매우 적절하다. 더우기 이들은 기존 정부의 대책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적인 접근이 공식적 접근보다는 훨씬 유효한 조사방법이 될 것이다.

V. 아랄해 고갈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및 지역주민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대응방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본 연구의 모형

1. 아랄해 고갈의 경제적 영향

아랄해 유역에는 3,20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약 150만평방킬로미터로 광대하다. 따라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나타나는 영역은 아랄해가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어업분야이다.

1) 어업의 쇠퇴

무이낙은 항구도시로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어업의 몰락과 이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무이낙은 아무다리아강 삼각주의 섬에 위치한 인구 60,000여명이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번성하는 항구도시였다.[13] 당시 무이낙은 어업과 통조림 공장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어업도시였으며, 1960년대 말기까지는 약 3,000명의 어부들이 무이낙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당시에는 어업과 수산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속된 12개의 국영농장이 있었고, 가장 번성기였던 1957년의 경우 어업집단농장에서는 26,000톤, 그리고 1960년에는 40,000톤의 기록적인 어획고를 올리기도 했다.[14]



<그림 3> 항구도시 무이낙의 현재와 과거

1960년대 아랄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선의 녹슬어가는 현재 모습(상)과 무이낙 박물관에 전시된 안내책자(Муйнакский рыбоконсервный комбинат)속의 항구도시로서의 무이낙의 과거모습 (2012 현지조사시 촬영)

13) “In Pictures: Aral Sea tragedy” BBC News (May 16, 2001) (http://news.bbc.co.uk/2/hi/world/monitoring/media_reports/1311114.stm, 2012-09-21 검색)

14) Don Hinrichsen, “Requiem for a dying sea” People & Planet (15 September 2000) (http://www.peopleandplanet.net/?lid=26149&topic=27&section=37, 2012-09-21 검색); “Ecosystem Services Case Study: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Unsustainable Cotton Production in the Aral Sea” 2011 Landen Consulting (http://gallery.mailchimp.com/31982f6e4937945bfaddf6712/files/Aral_Sea_cotton_impacts.pdf, 2012-09-22 검색)

그러나 항구로서의 무이낙의 쇠퇴는 1958년 구소련시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의 목화밭과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운하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고, 새로 건설된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아랄해의 환경재앙은 가속화되었다. 구체적으로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중앙아시아의 관개농지는 450만헥타르에서 700만 헥타르까지 증가하였고 이렇게 확장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면서 아랄해로 흘러 들어오는 강물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물의 감소에 따라 항구로서의 무이낙의 쇠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15] 1950년대 무이낙은 주위가 물길로 가득한 아무다리아강의 삼각주 입구에 위치한 섬이었지만, 1962년 무이낙은 물길이 줄어들면서 섬에서 반도로 바뀌었다. 이어 1970년에는 무이낙과 이를 둘러싼 바다의 간격은 10km로 늘어났고, 1980년대에는 40km로, 그리고 1995년에는 70km로 더욱 멀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무이낙에서 아랄해를 보기 위해서는 200km를 더 가야만 한다.[16]

1950년만 해도 아무다리아강은 매년 50㎦의 물을 공급하였지만, 1995년에는 아무다리아강 및 시르다리아강 모두 합쳐도 2~3㎦의 수량만을 공급할 뿐이다. 이와함께 습지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여 1960년대 55만 헥타르의 습지가 1995년에는 2만 헥타르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하였다.[17]



<그림 4>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누쿠스 지역의 아무다리아강

현지조사에서 만난 주민 빅토르(61세)는 어린시절 이곳 누쿠스에서 무이낙까지 선박이 운행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짐을 선적하였다고 할 정도로 아무다리아강의 수량이 풍부하였음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현재 누쿠스의 아무다리아강은 사람의 무릎정도까지밖에 물이 차 있지 않다 (2012년 6월 현지조사).

1989년 유입되는 수량의 감소로 아랄해는 남북에 걸쳐 두 개의 큰 호수로 나뉘어지면서 아랄해의 표면적은 원래보다 1/4, 그리고 아랄해의 수량은 원래 크기의 10%로 줄어들었다. 고기를 잡는 것도 남아랄해에서만 국한되었고, 북아랄해는 100 g/L을 초과하는 높은염도 때문에[18] 어류

15) 아랄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는 다음을 참조:Б.Т. Кошматов,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http://www.water.kg/actuality/aral.htm, 2012-08-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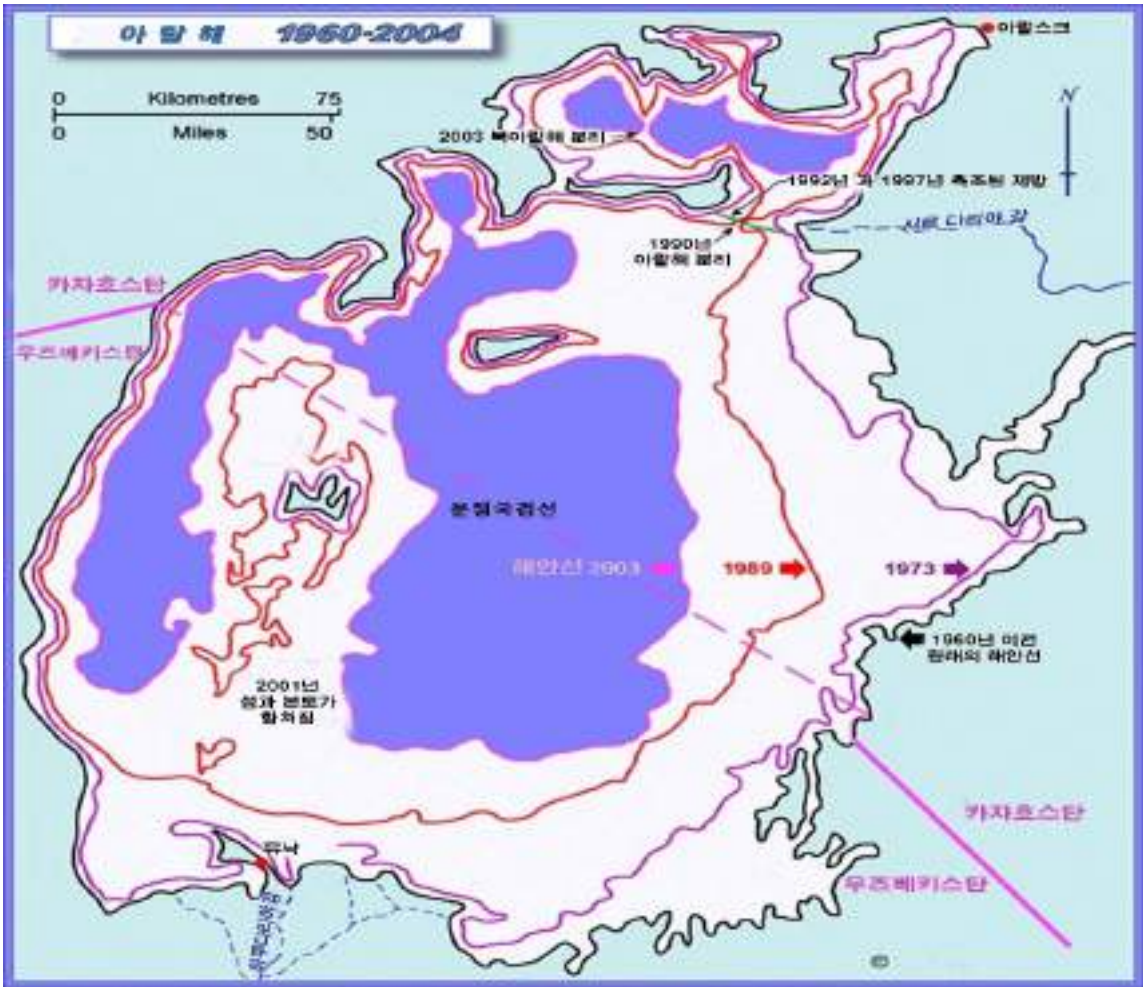
16) “Muynak: life in the disaster zone” Down To Earth 20 (http://www.downtoearth.org.in/node/28913, 2012-09-28 검색)

17) Don Hinrichsen, op. cit.

18)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소금농도는 35g/L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랄해의 염도는 엄청나게 높은 편이다.

가 폐사하면서 모든 어업활동은 정지되었다. 2001년 남아랄해는 또 다시 동과 서로 나뉘어졌고, 2009년 남아랄해의 동부호수는 완전히 고갈되었다.

아랄해의 고갈로 1994년 현재 무이낙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성기 시대의 인구 60,000명의 2.5%인 1,500명에 불과하며, 어획고도 전성기의 11.5%에 불과한 3,000톤에 불과하다. 한때 잉어, 도미, 농어 및 철갑상어 등 32종 이상의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6개의 어종만이 서식하고 있다.[19]



<그림 5> 아랄해의 변천 과정 (1960-2004)[20]

마침내 1982년부터 모든 아랄해 인근 어업활동은 거의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약 60,000개의 어업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21]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많은 노동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

19) "The History of the Aral Sea" Mysterious All (Sep. 10, 2012) (http://mysteriousall.com/2012/09/the-history-of-the-aral-sea.html, 2012-09-21 검색)

20) www.unimaps.com (http://unimaps.com/aral-sea/aralmap.gif, 2009. 5. 16 검색). 이채문,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경북대 출판부, 2012), p. 215 재인용.

21) ibid.

2) 실업의 증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어업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실업의 증가와 연계된다. 카자흐스탄의 남서부 크질오르다 지역에 위치한 아랄해의 항구도시 아랄스크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항구도시 무이낙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에 시작된 아랄해의 고갈이후 현재 아랄스크로부터 아랄해와의 거리는 12km로 늘어났다. 1960년대 항구도시로서 인근지역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아랄스크는 전성기때에는 40,000명을 고용하던 수산업의 중심도시였으나 현재 이 지역의 수산업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졌다.[22] 어업에 관련되었던 건물은 대부분 버려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50%에 이르는 여성들의 실업율이며, 또한 젊은층들의 실업율 또한 높다.[23]

특히 주산업이었던 어업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연금, 사회보조금 및 지역의 교사, 의사 및 공무원들의 월급이 전부다. 특히 대부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염분과 잔류 화학물질로 오염된 관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랄스크 주민들은 식량과 필요한 농산물을 모두 구매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젊은층의 사람들은 결국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림 6> 무이낙 바자르의 부녀자들과 노인들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나고 여성과 노약자만이 남아 있는 무이낙 시장의 현재 모습 (2012년 6월 현지조사시 촬영)

3) 농업 수확량의 감소

아랄해 유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아랄해의 고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북아랄지역에서는 목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카자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과거 이 지역에서는 목축업 이외, 어업이 주요한 산업이었지만 그러나 농업의 중요성 또한 여전하다.

22)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23) “Aral Sea Region: Kyzylorda Oblast, Kazakhstan” (http://nailaokda.8m.com/aral.html, 2012-09-21 검색)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남아랄지역에서는 농업이 주요한 수입원이다. 특히 무이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농업은 어업과 함께 오랜 기간 주요한 생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농업수확량의 감소는 바로 실업율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의 쇠퇴는 이들 주민들에게 타지역 이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24]

아랄해의 고갈현상과 함께 남아랄지역에서 농업수확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농업용수의 부족, 토양침식, 기후변화, 농지의 염화현상 및 바람의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토지의 염화는 심각한 상태로서 농업생산물의 수확감소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1994년 아랄해 주변 농지의 94%에 염분이 스며드는 염화현상(salinization)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부족과 염화현상은 토양의 생물 산출력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아랄해의 고갈현상이 있기 전에는 무이낙에서는 곡물, 야채나 과일을 심어두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아무리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도 잘 자라지 않는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곡물생산량의 감소는 2000년 한해 카라칼팍스탄에서 54%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곡물생산감소가 단지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기타 작물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사료와 유지작물(oilseed)의 생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면화와 야채의 생산은 30~40% 감소하였다. 또한 다년생 과일묘목과 포도나무에는 고사(枯死)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5]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랄해의 고갈은 농업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실업율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궁극적으로 거주민의 타지로의 이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 아랄해 고갈의 사회적 영향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결과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경제적 수준의 하락은 지역주민들의 거주상황이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지주민들의 생활상황과 거주상황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일탈현상의 증가

먼저 아랄해의 환경재앙으로 인해 주민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탈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일탈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위, 그리고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일탈이라면 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랄해의 환경변화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이는 범죄로 연결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랄해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항구도시 아랄스크에서는 만나는 이들마다 실업으로 인한 도시범죄의 증가를 손꼽고 있다.[26]

---

24)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op. cit.

25)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и Без Границы) p. 7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26) Natalie Arsenault, Christopher Rose, Allegra Azulay and Jordan Phillips, "People and Place: Curriculum Resources on Human-Environmental Interactions" Hemispheres (The International Outreach Consortium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7), p. 34.

또한 아랄해가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의 실업율은 70%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실업율의 2배를 넘는다.[27] 높은 실업은 또한 알콜중독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라칼팍스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실업율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생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 아이들은 바자르에서 일하거나, 짐수레를 끄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둑질도 서슴치 않는다.[28]

아랄해에 인접한 항구도시 무이낙에서의 현지조사는 도시의 경제적 황폐화가 주민들의 일탈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이낙에는 아랄해의 고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의해 사막화된 아랄해 인근에 세워져 있고, 세계의 환경학자들이 환경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이곳에 오면 반드시 거치는 코스로 되어 있다. 현지조사기간 중 이곳에서 만난 한 카라칼팍인 노숙자의 구걸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아랄해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탑의 그늘에서 누워있다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오면 벌떡 일어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랄해 환경재앙과 주민생활의 주변화의 연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 사진 참조).



<그림 7>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비와 노숙자

아랄해 환경재앙 기념비 아래서 구걸을 하는 노숙자 (2012년 6월 현지조사). 아랄해를 중심으로 주산업이었던 어업활동의 중단으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게 되면서 사회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랄해 주변의 높은 실업율은 카자흐스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비록 우즈베키스탄 보다 상황는 조금 낫긴 하지만, 아랄해 인근 카자흐스탄 지역의 실업율도 거의 17.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여성들의 약 50%정도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7)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и Без Границы) p. 8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28) 현지조사지역 무이낙에서 만난 고려인 루이자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6월)

있다.[29] 이러한 높은 실업율은 아랄해 주변아랄스크 지역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다.

2) 역외이주

아랄해의 재앙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들 수 있다. 흔히 환경문제로 발생되는 이주민을 환경난민(environmental migrant)으로 부르는 데, 높은 실업율,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문제, 어획량의 감소, 농업생산의 감소가 바로 아랄해 인근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을 환경난민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 환경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림 8> 공동화(空洞化)된 무이낙의 주택가

번성하였던 어업도시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주로 인해 텅빈 채 내버려진 무이낙 시내 주택가 모습 (2012년 6월 현지조사시 촬영)

199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독립국가연합 난민 학술대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랄해 환경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은 약 100,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은 1990년대 약 50,000명 정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3,000명~4,000명 정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랄해 인근 항구도시 무이낙의 몰락이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그 외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이후 러시아계와 동구유럽인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자민족중심주의를 피해 모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0]

데이비드 리차드슨 또한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89년~2005년사이 약 95,000명이 카라칼팍스탄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들 중 대략 55,000명이 카자흐인들이며 20,000여명은 카라칼팍인, 그리고 러시아인 및 고려인 등 소수민족들은 약 40,000명

29) "Aral Sea Region: Kyzylorda Oblast, Kazakhstan," (http://nailaokda.8m.com/aral.html, 2012-09-18 검색)

30)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и Без Границы) p. 24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우즈벡인들은 카라칼팍스탄 남부 농업지역으로 20,000명 정도 유입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표 1> 카라칼팍스탄의 인구변동(1989~2005)(단위, 1000명)[31]

카라칼팍스탄	1989년 인구조사	자연증가	이주	2005년(추정치)	인구구성비율(2005년)(%)
우즈벡인	398	545	+20	565	36.2
카라칼팍인	390	530	-20	510	32.7
카자흐인	328	447	-55	392	25.1
기타 민족	98	134	-40	94	6.0
합계	1,214	1,656	-95	1,561	100.0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우즈벡인, 카라칼팍인 및 카자흐인이다. 1989년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대략 50만명~70만명이 카라칼팍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족은 카라칼팍 민족으로 이들은 우즈벡인들보다 빈곤율이나 실업율이 더 높다. 카라칼팍인들은 우즈베인들보다 카자흐인에 더 가깝고, 수 백년간 아무다리아강과 아랄해 주변에 거주하여 왔다. 이들은 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농사일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재앙,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의 상당수는 카라칼팍스탄의 수도인 누쿠스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누쿠스에서도 전체 노동력의 9%도 채 안되는 사람들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일자리가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일부는 사정이 좀 더 낳은 인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고 있다. 현재 5만명~20만명 정도의 카라칼팍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32]

또 다른 소수민족 이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카라칼팍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다. 1937년 11월 15일 쿤그라드 자치공화국에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은 약 2300가구 10,620명이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우즈벡 공화국에 이주된 전체 고려인 16,307가구 74,500명 가운데 중치르치크 이주 고려인 2,488가구 11,948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고려인이다.[33]

이들은 1953년 스탈린 사후 거주이전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일부는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는 이곳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거주 고려인수는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총 171,300명 중 5,609명에 불과하다.[34] 따라서 단순 수치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수는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카라칼팍스탄 거주 고려인수는 오히려 엄청난 규모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

31) David Richardson and Sue Richardson, "Population of Karakalpakstan" (http://www.karakalpak.com/stanpop.html, 2012-09-22 검색)

32) Matthew Naumann, “The Battle for Water - Retreating Aral Sea displaces ethnic Karakalpaks” AlertNet (July 23, 2012) (http://www.trust.org/alertnet/blogs/the-battle-for-water/retreating-aral-sea-displaces-ethnic-karakalpaks/, 2012-09-18 검색)

33)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От Туманган до Сырдарьи* (Издательство журнала Санъат, 2007), с. 16.

34)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그림 9> 쿤그라드의 고려인 콜호즈 라우샨 마을
고려인 콜호즈로 잘 알려졌던 라우샨 마을 입구(상)와 고려인 가옥들과 울타리 (하). 그러나 이제는 단 1명의 고려인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우즈벡인들의 염소와 양떼만이 이곳이 이제는 더 이상 고려인 콜호즈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2012. 6. 27 현지조사 촬영).

카라칼팍스탄 고려인들의 상당수는 아랄해의 고갈 및 기타 우즈베키흐탄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을 벗어난 독립국가연합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였는데,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볼고그라드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부류를 보면 1990년대에는 타지키스탄의 내란으로 타지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하였지만, 2000년에 접어 들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특히 늘어났다.[35]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카라칼팍스탄 출신 고려인들의 이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고려인들은 대부분 아랄해 인근지역에 농사에 종사하였지만 아랄해의 고갈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집단적으로 볼고그라드를 비롯한 남부러시아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다.[36]

아랄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타지역 이주는 북부 아랄해가 위치하는 크질오르다 주의 인구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구추세를 보면 매년 3,000~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이채문,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6권 제1호 (2012), pp. 147-183.
36) 2011년 11월 볼고그라드 현지조사

<표 2> 환경재앙에 영향을 받는 크질 오르다주의 인구변화(2000년~2007년)[3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입	4700	4319	6690	6310	4828	6919	6925	7646
유출	11775	10898	11420	10586	9882	9954	10503	12134
인구변화	-7042	-6579	-4730	-4276	-5054	-3035	-3578	-4488

3) 이주의 결과 - 사회적 안전망 해체 및 환경난민의 사회심리적 박탈감과 부적응

아랄해의 고갈로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의 이주는 위에서 언급한 육체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잔류해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Crighton et al. 등이 1999년 카라칼팍스탄 3개의 공동체 거주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8%가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38]

가장 심각한 현상은 아랄해 고갈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이었다. 특히 아랄해 고갈로 인한 카라칼팍 주민들의 박탈감은 대단하다. 현지조사 기간중 직접 고용한 카라칼팍인 운전사 바티르(38세)는 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랄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는 어떠한 보상이나 정부정책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나 주민들의 박탈감을 대신할 수는 없으리라고 단언하였다. 아랄해를 잃고는 무엇을 얻더라도,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하더라도 아랄해 인근 카라칼팍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39]

또한 인구유출은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사막화된 아랄해서서 보듯이 60~70년대 이곳을 드나들던 선박들이 녹슬은 채 남아 있고, 활발했던 아랄해의 어류통조림 공장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무이낙은 거의 유령도시로 변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공동화 현상속에서 무이낙의 많은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났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이들은 떠나려고 해도 이주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거의 없어 이제는 쥐꼬리만한 연금에 의존하며 목숨을 연명한다.

37)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ited in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p. 11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38) Eric J. Crighton, Susan J. Elliot, Joost van der Meer, Ian Small and Ross Upshur, "Impacts of an environmental diaster on pshchosocial health and well-being in Karakalpaksta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6(2003), pp. 551-567.

39) 2012년 6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현지조사



<그림 10> 무이낙 최대 기업 어류통조림 콤비나트의 현재와 과거

과거 무이낙 시내 최대 기업이었던 어류통조림 공장이 현재 거의 문을 닫은 모습(상)과 과거 아랄해 항구도시 속에서 활발했던 어류통조림공장의 과거 모습(하, 사진은 무이낙 박물관에 전시된 무이낙 어류통조림 콤비나트(Муйнакский рыбоконсервный комбинат)의 안내책자속에서 촬영) (2012 현지조사중 촬영)

인구유출의 또 다른 사회적 여파는 가족 해체이며 이는 곧 바로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연결된다. 즉 가족공동체는 불황기에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있는 가족구성원이 타국 또는 국내의 타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텃밭을 가꾸거나 가재도구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또한 잔류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개인적인 여건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자괴감과 허탈감으로 종종 술이나 마약에 빠져들기도 한다.[40] 이는 인구의 역외유출이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교사와 같은 전문직들의 이주는 해당지역의 잔류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학, 언어 및 문학 전공 교사들의 부족은 학생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공백 또한 잔류 거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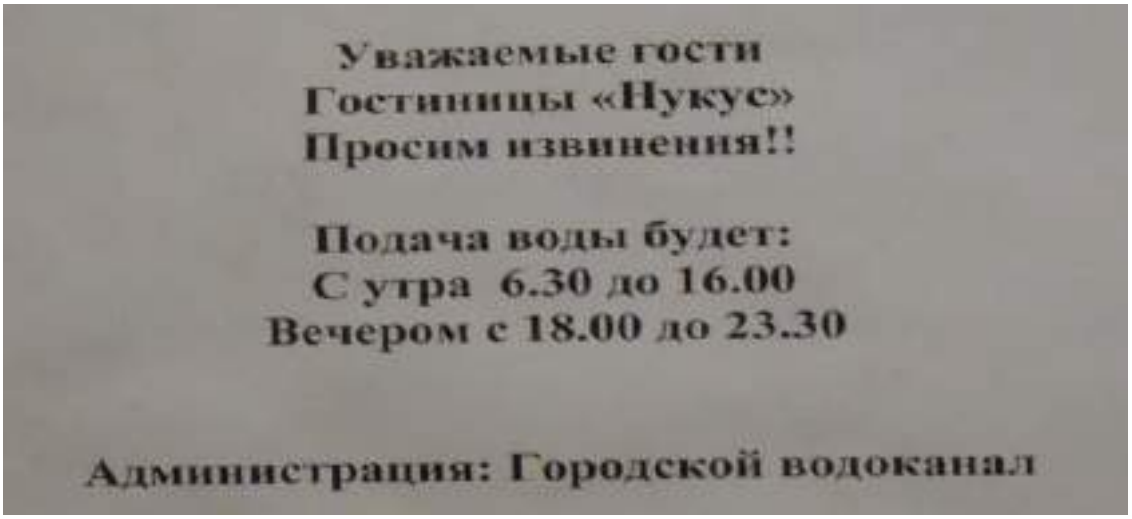
40)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의료진은 떠나고, 남은 의료진은 구소련 시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장진료에서 최신의 의료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될 수 밖에 없다.[41]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관련하여 아랄해 지역 거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일부 조사에서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된 아랄해 고갈이라는 환경파괴와 주민생활에 대한 용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붕괴는 거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랄해 인근지역의 용수부족은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주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누쿠스 시내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는 이유도 물공급의 부족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42]

이웃주민들의 빈번한 이주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아랄해 주변의 거주민들에게 역외로의 도피증상은 아주 흔한 증상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조사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으로서 주거지 도피증후군과 관련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로 경험한 충격으로 인해 거주지 뿐만 아니라 아랄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43]



<그림 11> 누쿠스 호텔의 제한급수 공고문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다리아강 인근 도시 누쿠스에서는 제한급수로 인해 항상 옆에 물을 담은 용기가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받아 둔 물을 사용하고 있고, 세면시 또한 이러한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곳을 생활용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2012. 6월 현지조사시 촬영).

3. 아랄해 문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대응노력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아랄해의 고갈이라는 엄청난 환경적인 재앙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현지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41) Dina Bulesheva and Arustan Joldasov, ibid.

42) 2012년 6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에서

43) Ian Small, J. van der Meer and R.E.G. Upshur, "Acting on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The Case of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09, Issue 6 (2001), p. 548

현재까지 대부분 언론보도나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현지 정부의 대책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현지 정부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사 대책이 있다하더라도 현지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성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지 주민들의 대응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 구소련 시기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었다. 모든 책임 또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주민들 또한 국가의 역할에만 주목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거니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랄해의 고갈과 같은 초유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아시아 정부의 역할에만 목을 매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지주민들의 대응과 자조노력이다.

아랄해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대응노력을 몇 개의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랄해의 환경재앙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로는 '페르젠트 센터'(Center-Perzent)가 잘 알려져 있다. 페르젠트 센터는 아랄해 고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카라칼팍스탄의 누쿠스에서 설립되었다. 주로 이 센터는 아랄해와 관련된 위기에서 여성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아랄해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건강교육과 유기농법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페르젠트 센터는 아랄해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건강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질검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지방정부 및 의사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악화되어가는 수질과 건강상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페르젠트 센터는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식사 및 피임, 신생아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소책자를 통해 배부하기도 한다.[44]

또 다른 비정부 기구인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 (Sustainable Chimbay Project)는 아랄해 고갈로 인한 농약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구는 유기농업이 현재 살충제를 투여하는 농업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침바이시에서 제공하는 20헥타르의 농지에서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침바이 지역의 주민들이 섭취하는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부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에서는 유치원 농장을 시범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카라칼팍스탄의 농부들과 콜호즈의 책임자들에게 유기농법을 사용한 새로운 작물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유기농업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장의 역할을 한다.[45]

그 외 아랄해에서 지역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조(自助)적인 성격의 비정부기관도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카자흐스탄 아랄해 인근 아랄스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 '아랄 테니지'(Aral Tenizi)이다. 아랄 테니지의 기원은 1991년 덴마

44) "Women Respond to a Shrinking Aral Sea" Lindane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http://www.lindane.org/_world/countries/women_respond_aral.htm, 2012-09-24 검색)
45) ibid.

크의 환경단체가 아랄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랄해 복원에 일조하기 위해 아랄스크를 방문한 것이 그 실마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어업대표단이 덴마크를 답방하여 선진적인 어업경험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랄해 인근 주민들이 어업협동조합을 시험적으로 결성하면서 1998년 덴마크 어업 대표단의 도움으로 카자흐스탄에 비정부기구 아랄 테니지가 설립되었다.[46]

아랄 테니지의 목적은 아랄해 어민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및 생태학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아랄해 주변의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기부자를 유도하여 아랄해 복원과 주변 생태학적 환경개선에 노력하려는 비정부 기관이다.

그러나 아랄해의 환경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주민들의 노력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당히 소극적이며, 취약한 편이다.[47] 위에서 살펴본 페르젠트 센터나 '지속가능한 침바이 프로젝트' 등도 우즈베키스탄내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의 미래를 위한 유럽 여성”(Women in Europe for a Common Future)나 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또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들과 연계하거나, 국제 전문가집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상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랄해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대변하는 이러한 비정부기구의 특징은 아랄해의 환경재앙과 관련된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혁신과 같은 영역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고, 주로 교육이나 경제발전 또는 건강문제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48]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정부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민주주의 성장이나 시민사회의 등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비정부 기구 아랄 테니지 또한 이러한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카라칼팍스탄에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환경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하며, 필요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습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부의 정책 테두리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기구들이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랄해의 환경재앙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내지 소극적 대응은 1991년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이전 거의 50여년간 개인의 영역은 극히 축소되었고, 또한 개인적이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소비에트 체제의 속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역주민들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아직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49]

---

46) Aral Tenizi Society 홈페이지 (http://www.aralsea.net/en/index.htm, 2012-09-25 검색)

47) 환경재앙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에서 NGO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소극적 대응은 카라칼팍스탄에서 보여지는 소수민족 차별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인 위주의 행정이 실시되었고, 따라서 소수민족 카라칼팍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밖에 있다는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카라칼팍스탄 현지조사에서 현지 소수민족과의 인터뷰(2012년 6월).

48) Gulnara Roll, Natalia Alexeeva, Nikolay Aladin, Igor Plotnikov, Vadim Sokolov, Tulegan Sarsembekov and Philip Micklin (2006), "Aral Se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Brief" p. 8 (http://www.ilec.or.jp/eg/lbmi/pdf/01_Aral_Sea_27February2006.pdf, 2012-09-06 검색일)

49) 이러한 사실은 현지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자치주라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지역이었다. 카라칼팍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의 인터

VI. 결어 및 기대효과

아랄해 고갈로 야기되는 경제적 영향으로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랄해 인근지역의 어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적 침체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항구였던 무이낙의 도시 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아랄해의 고갈은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면서 농업생산성의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쇠퇴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범죄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거주지 이탈은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잔류주민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심리적 부적응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랄해 고갈과 환경재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조노력은 주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정책개발이나 정치적 혁신같은 근본적 대응보다는 주로 자연재앙에 대한 수동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교육하는 노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소극성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랄해의 환경재앙을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본 연구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지역연구로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상류국과 하류국의 수자원과 관련된 상호갈등 및 협력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랄해 고갈로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의 5개국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그 영역에서도 단지 수자원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자원 및 환경 등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다차원적이고, 중앙아시아의 전지역적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랄해 문제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만 가능할 정도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랄해 유역권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아랄해와 관련된 유역권의 관점에서 아랄해는 키르기즈스탄의 나린강과 카라다리야강에서 발원하여 카자흐스탄을 가로지르는 시르다리아강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무다리야강 등 2개의 주요 강에서 흘러나오는 수자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호수이다. 따라서 아랄해의 수자원 고갈문제는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소련의 해체이후 중앙아시아 수자원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에너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상류의 수자원의 통제내

뷰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동부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직접 교회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카라칼팍스탄에서는 교회 및 포교활동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 3~4명이 모여도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모여 자구노력을 응집하려는 비정부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힘들겠다는 느낌이었다(2012. 6월 현지조사에서).

지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류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반발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백색황금으로 불리는 자국의 면화산업의 발전이 바로 이 수자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국의 산업,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아랄해 고갈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아랄해 유역권[50]

둘째, 아랄해 문제에 대한 본 연구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환경파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랄해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로서 구소련시대 면화산업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수로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아랄해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없이 목전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본다면, 20세기 최대의 환경참사로 일컬어지는 아랄해 문제는 피해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현재, 그리고 장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도 자연에 대한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랄해 문제는 국내에서의 환경문제 논의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0) Philip Micklin, "The Aral Sea Disaster" *Annual Review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Vol. 35 (2007), pp. 47-72

셋째, 아랄해 문제는 상류국과 하류국간의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북간의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랄해 문제는 국제하천인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수원이 상류국가인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류국인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수자원을 이용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류국 타지키스탄은 로군스키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제방을 건설하면서 저수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국 타지키스탄에서 새로이 건설하는 대규모 제방에 저수량을 늘이면서 하류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무다리야강의 수량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들 하류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 부족까지 우려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의 수자원이 북한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상류국과 하류국간의 국제 수자원 이용에 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남북간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상류국과 하류국간의 윈윈 전략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랄해 문제와 관련된 상류국과 하류국의 수자원 상호이용에 관한 국제적 갈등사례는 한국과 북한의 수자원 문제 해결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이채문. 2012.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경북대 출판부.

_____. 2012.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6권 제1호, pp. 147-183.

Allen, Tracy H. 1997. "The Aral Sea Crisis: Desiccation and Perspectives on Recovery" (http://www.oneonta.edu/faculty/allenth/Class-Readings-Password/aral%20sea%20crisis.pdf, 2012-09-06검색)

Allouche, Jeremy. 2007. "The Governance of Central Asian Waters: Natinal Interests versus Regional Cooperation," Disarmament Forum, No. 4 (http://www.unidir.org/pdf/articles/pdf-art2687.pdf, 2012-09-10 검색)

Arsenault, Natalie, Christopher Rose, Allegra Azulay and Jordan Phillips. 2007. "People and Place: Curriculum Resources on Human-Environmental Interactions" Hemispheres (The International Outreach Consortium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Bulesheva, Dina and Arustan Joldasov. 2009. "EACH-FOR Environmental Change and Forced Migration Scenarios" European Commission, SERI (Austria) and ATLAS Innoglobe (Hungary) (March 30, 2009) (http://www.each-for.eu/documents/CSR_Kazakhstan_090330.pdf, 2012-09-21 검색)

Crighton, Eric J. Susan J. Elliot, Joost van der Meer, Ian Small and Ross Upshur. 2003. "Impacts of an environmental diaster on pshchosocial health and well-being in Karakalpaksta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6, pp. 551-567.

Elpiner, L.I. 1999. "Public health in the Aral coastal region and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ecological situation. In M.H. Glantz (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pp. 128-15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nrichsen, Don.2000. “Requiem for a dying sea” People & Planet (15 September) (http://www.peopleandplanet.net/?lid=26149&topic=27&section=37, 2012-09-21 검색)

Islamov, U., F. Maksudov, D. Maksudova. 2009.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ssues in Uzbekistan” CIDOB Asia Documents 25, pp. 57-76 (http://www.einiras.org/pub/details.cfm?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KARAKALPAKSTAN: A POPULATION IN DANGER” Medicins Sans Frontieres (Врачи Без Границы) (http://www.aerzte-ohne-grenzen.de/_media/pdf/karakalpakstan/2003/2003-04-karakalpakstan-report-population-in-danger.pdf, 2012-09-18 검색)

Khamzayeva, Anar. 2009.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security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CIDOB Asia Documents 25, pp. 9-32(http://www.einiras.org/pub/details.cfm?lng=en&id=111783, 2012-09-10 검색)

Krutov, A.N. 1999.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Uzbek part of the Aral Sea basin." In M.H. Glantz (ed.), Creep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l Sea basin (pp. 245-2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cklin, Philip. 2007. “The Aral Sea Disaster” Annual Review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Vol. 35, pp. 47-72

_____. 1988. "Desiccation of the Aral Sea: A Water Management Disaster in the Soviet Union" Science, Vol. 241, pp. 1170-1176.

Naumann, Matthew. 2012. “The Battle for Water - Retreating Aral Sea displaces ethnic Karakalpaks” AlertNet (July 23)(http://www.trust.org/alertnet/blogs/the-battle-for-water/retreating-aral-sea-displaces-ethnic-karakalpaks/, 2012-09-18 검색)

O'Hara, S.L., G.F.S. Wiggs, G. Davidson and R.B. Hubbard. 2000. "Exposure to airborne dust contaminated with pesticides in the Aral Sea region" Lancet Research Letters, Vol. 355, pp. 627-628.

Richardson, David and Sue Richardson. "Population of Karakalpakstan" (http://www.karakalpak.com/stanpop.html, 2012-09-22 검색)

Roll, Gulnara, Natalia Alexeeva, Nikolay Aladin, Igor Plotnikov, Vadim Sokolov, Tulegan Sarsembekov and Philip Micklin. 2006. "Aral Sea: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Brief" (http://www.ilec.or.jp/eg/lbmi/pdf/01_Aral_Sea_27February2006.pdf, 2012-09-06, 검색일)

Small, Ian, J. van der Meer and R.E.G. Upshur. 2001. "Acting on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The Case of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109, Issue 6.

Uitto, Juha I. and Alfred M. Duda. 2002. "Management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flict Preven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68, No. 4, pp. 365-378;

Whish-Wilson, Phillip. 2002. "The Aral Sea Environmental Health Crisis," Journal of Rural and Remote Environmental Health, Vol. 1, No. 2, pp. 29-34

“Aral Sea Region: Kyzylorda Oblast, Kazakhstan” (http://nailaokda.8m.com/aral.html, 2012-09-21 검색)

“Ecosystem Services Case Study: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Unsustainable Cotton Production in the Aral Sea” 2011 Landen Consulting (http://gallery.mailchimp.com/31982f6e4937945bfaddf6712/files/Aral_Sea_cotton_impacts.pdf, 2012-09-22 검색)

ECOSYSTEMS AS WATER SUPPLIERS (Geneva, 13-14 December) (http://www.unece.org/fileadmin/DAM/env/water/meetings/ecosystem/Discpapers/Kamalov_aral%20sea_ru.pdf, 2012-03-24 검색)

“In Pictures: Aral Sea tragedy” BBC News (May 16, 2001) (http://news.bbc.co.uk/2/hi/world/monitoring/media_reports/1311114.stm,

2012-09-21 검색)
“Muynak: life in the disaster zone” Down To Earth 20 (http://www.downtoearth.org.in/node/28913, 2012-09-28 검색)
“The History of the Aral Sea” Mysterious All (Sep. 10, 2012) (http://mysteriousall.com/2012/09/the-history-of-the-aral-sea.html, 2012-09-21 검색)
“Women Respond to a Shrinking Aral Sea” Lindane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http://www.lindane.org/_world/countries/women_respond_aral.htm, 2012-09-24 검색)
Алиханов, Б. Б., Франк Л.Г., Аксенова Л.А., Горелкин Н.Н. *Aral Genofond* (http://aralgenofond.org/rus/aral-region/articles/details/?pid=131, 2012-08-20 검색)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2007. От Тумангана до Сырдарьи. Издательство журнала Санъат.
Гланц, Майкл Г. и Игорь С. Зонн. 2005.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водные проблемы, климат и изме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семирная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МО 982) (http://www.wmo.int/pages/prog/drr/publications/drrPublications/0982_The_Aral_Sea/WMO982r.pdf, 2012-03-31 검색)
Кошматов, Б.Т.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http://www.water.kg/actuality/aral.htm, 2012-08-14 참조)
Михайлов, В. Н. 1999. “ПОЧЕМУ ОБМЕЛЕЛО АРАЛЬСКОЕ МОРЕ.” Соросов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журнал, No. 2, pp. 85-90. (http://www.pereplet.ru/nauka/Soros/pdf/9902_085.pdf, 2012-03-29 검색)
Рузиев, М.Т., В.Г. Приходько. “ПРИМЕНЕНИЕ МОДЕЛИ УПРАВЛЕНИЯ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ASB-MM)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НА ОСНОВ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УПРАВЛЕНИИ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КООПЕРАЦ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http://dialogue.icwc-aral.uz/first/third/ruziev/01_chapt1.pdf, 2012-09-24검색)
Юсуп, Камалов. 2004. "ЭКОСИСТЕМЫ РЕК БАССЕЙН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СУЩЕСТВУЮЩИЕ И ОЖИДАЕМЫЕ УГРОЗЫ" SEMINAR ON THE ROLE OF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и причины его гибели” (14 декабря 2009) (http://lifeglobe.net/blogs/details?id=484, 2012-08-20 검색)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проблемы легенды, решения” (http://ecodelo.org/3676-aralskoe_more_problemy_legendy_resheniya-basseinovyi_podkhod, 2012-08-19 검색)
“ЭКОЛОГ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Год Молодёжи (http://www.godmol.ru/ekologija/127-aralskoe-more.html, 2012-09-02 검색)

세션Ⅷ(슬라브학회 세션Ⅱ)
: 유라시아 경제와 정치 전망

■ 사회 : 석영중(고려대)

■ 발표 :

이상준 - 중앙아시아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과 CAREC
송병구 -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 토론 : 김영식(강릉원주대), 김선호(부산외대)

중앙아시아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과 CAREC

이상준(국민대)

Ⅰ. 서론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내륙국가라는 지리적인 불리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과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주변국으로 이루어진 CAREC은 무역의 증가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 이후 지역 내 협력은 이 지역의 교통, 에너지, 자원개발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내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체제전환을 완결짓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송과 무역 촉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림 1> CAREC의 회원국



자료: CAREC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과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중앙아시아 지역 인근 지역 국가와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CAREC는 교통과 무역의 연계를 통하여 과거의 영광을 천천히 복원하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육상 수송로와 무역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공동의 노력이 만들어낸 경제협력기구이다. 그래서 역내 무역 협력의 강화는 단순히 중앙아시아 각국 간의 무역을 늘리

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해상의 운송로에 버금가는 동서를 이어지는 운송의 중심지가 되고자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로 공사를 위하여 7억불을 쏟아 붙어 중국에 맞닿은 카자흐스탄의 코로고스(Khorgos)에서 알마티와 슘켄트를 지나 러시아 서부로 이어지는 2,715km의 “Central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Transport Corridor I”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실크로드를 따라 북경에서 브뤼셀까지 연결되는 무역이 촉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제 프로젝트는 도로가 관통하는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그 주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유발하고자 한다.[1)]

이러한 교통과 물류의 흐름이 더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려면 운송로가 지나가는 지역 국가들의 제도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제도적인 개혁과 협력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로의 경제적 기능은 뚜렷한 한계를 가질 것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CAREC은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정책과 무역촉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Ⅱ. 중앙아시아 무역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REC을 통하여 역내협력을 강화하고 체제전환을 완결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무역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역내외 국가와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주변국으로 이루어진 CAREC 회원국들이 무역의 증가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었는데 관세 등을 감소시키는 제도적인 협력 뿐 아니라 무역기반 조성에 필요한 무역 인프라 등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앞서 살펴본바 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송과 무역 촉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과 물류의 흐름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교통 운송로가 지나가는 역내 국가들의 제도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CAREC 회원국들의 제도적인 개혁과 협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애써 많은 돈을 들여 건설한 국제운송도로의 경제적 기능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처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의 불리함은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CAREC 회원국들은 제도적인 차이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정책과 무역촉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무역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경제협력체와 비교하여 아직은 실질적인 협력을 준비하는 단계 혹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나름 지난 10년간 활발하게 무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통 운송로를 건설하면서 CAREC 회원국들의 물리적 접근 가능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도로의 확충은 국경을 통과하는데 들어가는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리적인 도로에 못지않게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애요인도 통관시간의 개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 시간을 10% 줄인다면 무역 당사국 간 무역규모는 적어도 5%에서 8%까지 증

1) 2020년까지 이 도로의 건설로 카자흐스탄의 GDP는 68%,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의 GDP는 43%, 중국의 GDP는 6%, 러시아와 EU의 GDP는 4%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ADB 'New Silk Road' to Link Europe, Asia

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 물론 이러한 추정치는 운송비용이 무역규모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3] 운송비용과 통관시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은 도로 건설을 통한 물적 토대의 개선과 상호 상승작용하여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역의 증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논의들에서는 지정학적 위치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관련이 크다는 것이다.[4] 실증적 연구들은 해안 지역 국가에 비하여 내륙국가의 무역이 평균적으로 약 30%가 적으며,[5] 이로 인하여 내륙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해안지역의 국가보다 평균 1.5%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이렇게 내륙 국가의 무역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주변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물류 운송 경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륙 국가들은 최소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야만 국제무역이 가능한데 경유하는 국가 간 제도차이, 통관절차 등 인위적인 무역장벽으로 인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 첫 번째 제약요소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대규모 물류 운송이 철도와 도로의 인프라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와 도로가 소련 지배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건설되기 시작한 국가 간 교통 운송로와 이들 운송로를 이어주는 다양한 경로의 지선 도로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면서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무역이 제한되는 것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통관의 장애요인으로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인위적인 무역장벽들이 가지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주변국들이 내륙 국가로서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물류운송비가 높아 무역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내륙 국가는 수입가격 상승과 수출 소득의 감소의 이중적인 불이익을 겪게 되며 해안 국가들이 흔히 하는 중계 혹은 중개무역이 내륙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7] 내륙국가 가지는 불리함은 해안국가가 부담하는 군사적 경제적 비용이 내륙 국가에 부과되고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인프라 투자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도 있다.[8]

---

2) Hausman, W. H., L. L. Lee, and U. Subramanian, (2005), "Global Logistics Services, Supply Chain Metrics and Bilateral Trade Patterns," Mimeo, World Bank, October.

3) 운송비용이 10% 증가하면 무역규모는 20%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Limao, L. and A. J. Venables, (2001), "Infrastructure, Geographical Disadvantage, Transport Costs and Trad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 pp. 451-479.

4) Irwin, D. A. and M. Tervio, (2002), "Does Trade Raise Income ? Evidence from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8, pp. 1-18.

5) Limao N. and A. J. Venables, (2001), "Infrastructure, Geographical Disadvantage and Transport Costs,"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 No. 3, pp. 451-479.

6) Bloom, D. E. and J. G.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2 No. 3, pp. 419-455; Mackellar L., A. Wogoter, and J. Woz, (2002), "Economic Growth of Landlocked Countries," in Chaloupek, G., A. Guger, E. Nowotny, and G. Schwoiauer, *Okonomie in Theorie und Praxis,* Springer, Berlin, pp. 213-226.

7) Radelet, Steven, and Jeffrey D. Sachs, (1998), "Shipping Costs, Manufactured Exports, and Economic Growth,"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January).

8) Gallup, J. L., Jeffrey D. Sachs, and A. Mellinger, (1999), "Geography and Economic Development,"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at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1.

<표 1> 수출입 통관기간 국제비교

	수출기간 (days)	수입시간 (days)
지역 평균		
동아시아 및 태평양	25.8	28.6
유럽 및 중앙아시아	31.6	43.0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30.3	37.0
중동 및 북아프리카	33.6	41.9
OECD: 고소득 국가	12.6	14.0
남부 아시아	33.7	46.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8.6	60.5
상위 5개 국가		
덴마크	5	5
독일	6	6
리투아니아	6	17
싱가포르	6	8
스웨덴	6	6
하위 5개 국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16	122
이라크	105	135
카자흐스탄	93	87
차드	87	111
수단	82	111

자료: Word Bank

위의 <표 1>에서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관시간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고 카자흐스탄은 통관시간이 가장 긴 국가가 가운데로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 2>, <표 3>, <표 4>의 운송 시간과 비용의 자료에서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물류비용과 통관시간을 부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통관시간이 긴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운송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 있다. 실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대신 비싼 도로와 도로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느리지만 비용이 60% 가량 싼 철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관시간은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인은 통관에 필요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한 손실이다.

<표 2> 주요 CAREC회원국의 국경통관 국제비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순위		176	171	177	183	170	156
수출	서류 수	9	8	11	10	8	8
	시간(일)	76	63	82	71	38	46
	비용 (USD)	3,130	3,210	3,850	3,150	2,905	2,265
수입	서류 수	12	9	9	11	10	8
	시간(일)	62	72	83	92	42	47
	비용 (USD)	3,290	3,450	4,550	4,650	3,405	2,40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2.

<표 3>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의 운송비용 및 시간[9)]

	운송비용(USD)		도로대비 철도운송비용(USD)	트랜짓 시간(days)		가치 (time)
	도로	철도와 바다	%	도로	철도	USD/day
듀산베 (타지키스탄)	9,200	3,400	63%	15	28	446
후잔드 (타지키스탄)	9,000	3,000	67%	14	26	500
타쉬켄트 (우즈베키스탄)	7,000	2,800	60%	12	23	382
알마티 (카자흐스탄)	8,000	3,000	63%	13	21	625
아쉬가바드 (투르크메니스탄)	8,000	3,300	59%	14	28	336
바쿠 (아제르바이잔)	7,000	2,700	61%	13	24	391
트빌리시 (조지아)	6,000	2,500	58%	12	24	292
예레반 (아르메니아)	7,000	2,800	60%	14	30	263
취시나우 (몽골)	4,000	2,000	50%	7	14	286

자료: Ojala 2005

농산물 혹은 계절적인 수요에 민감한 상품들은 운송 인프라 뿐 아니라 세관 통관, 검역 등 무역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높은 운송비용 뿐 아니라 각국이 가진 무역 제도, 통관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국제 무역운송에 필요한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길다는 데 있다.[10)] 심지어 현재 트랜짓 인프라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물류비용과 지체의 원인이 단순히 운송 인프라에만 있지 않다는 점은 일반적인 무역정책 뿐 아니라 검역체계 및 관세시스템과 같은 무역촉진 정책수단에 대한 보다 큰 협력의 틀이 지역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CAREC 회원국들은 알마티 행동 계획[11)]에서 트랜짓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합의, 운송 인프라 구축, 국경 통관 협력 등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상호의존성과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CAREC 역내 국가의 무역에 있어 트랜짓 비용이 높아[12)] 물류운송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역 간 무역 인프라와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된 실천은 협력에 의한 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CAREC 2006년 포괄적인 행동

9) 중앙아시아 국가는 발트해의 항구까지 철도로, 그 다음은 안트워프까지는 배로 운송되는 경우, 남카프카스 지역의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까지는 배로, 그 다음부터 최종 목적지까지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계산하였음.

10) ADB, (2006), Central Asia: Increasing Gains from Trade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in Trade Policy, Transport, and Customs Transit.

11) 알마티 회의에서는 내륙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였다. 다섯 가지 분야는 1) 트랜짓 정책과 규제 틀; 2) 인프라 개발; 3) 무역 및 운송 촉진; 4) 기술지원, 외국인 투자, ODA를 통한 개발 원조; 5) 실행과 평가 등이다. Almaty Programme of Action: Addressing the Special Needs of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within a New Global Framework for Transit Transport Cooperation for Landlocked and Transit Developing Countries (2003) 참조.

12) UNCTAD (2002)는 항만 이용료, 도로이용료, 전달 수수료, 세관 비용 및 도로이용 쿼터 등으로 트랜짓 비용이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무역정책 전략 행동계획은 무엇보다도 회원국의 WTO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체제를 보다 단순화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 시스템 개선 계획은 관세를 낮추고 각국의 상이한 관세율을 세 개 정도의 관세대역(tariff band)으로 수렴시키는 소위 관세조화방식을 도입하고 나가서 쿼터 등 수량적인 제한을 철폐하고 트랜짓과 국경 무역의 장애요인들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역 및 무역정책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CAREC 회원국들이 이러한 역내 무역을 포함한 무역의 자유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무역촉진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이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하지만 CAREC 회원국 사이에 높은 교역장벽이 여전히 무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정책 조정위원회(Trade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TPCC)와 고위 공직자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는 무역 세금(관세 및 개별국가의 세금)과 수량제한, WTO가입의 영향과 지역무역협정과의 관계, 국경과 트랜짓 무역의 장애요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3] 이는 CAREC 회원국들이 대외 무역 개방에 의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의 WTO 가입을 조속히 진행하되 WTO 가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무역개방 조치들을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01부터 2011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운송, 무역정책, 무역촉진, 에너지의 네 분야에 총 55억불의 신용과 원조를 CAREC회원국에 제공하였다.[14]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내륙국가라는 지리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 정책과 무역촉진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무역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지원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최근에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정책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6건에 318만 달러를 지출되었다.[15] 무역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정보공유와 지식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는 CAREC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WTO 가입을 위한 역내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DDA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 CAREC 회원국에 주는 시사점 등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의 WTO 가입을 위하여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프로젝트 작업의 결과로 최근에는 무역촉진을 위한 구체화된 사업에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WTO가입 뿐 아니라 대외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관세 및 관세행정은 핵심적인 지원 사업이다. 적절한 범주화를 통하여 제품을 일련의 범주로 나누었고 동일 범주에 속하는 해당 제품들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단일하게 적용하여 통일하였다. 또한 관세부과 방식을 단순화하는 작업과 수입품에 부과되었던 불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균 관세율을 10%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품목에서 낮은 관세를 한꺼번에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조치를 두었는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관세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고 일련의 단계(주로 세 단계)를 거쳐서 관세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덕분에

13) CAREC, (2008), Trade Policy Strategic Action Plan: Trade Expans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14) CAREC 홈페이지 참조.
15) 자세한 프로젝트는 부록의 무역정책 관련 프로젝트를 참조.

CAREC 회원국의 평균관세율은 이미 10%이하로서 내려갔다. 이러한 수치는 2005년 개발도상국의 평균 관세율 11%보다 낮은 수치이다.

<표 4>에서처럼 CAREC 국가의 관세율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중 평균 관세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무역정책과 무역촉진 정책 및 산업정책이 조화롭게 대외무역의 확대를 촉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4> CAREC 국가의 무역 증가율 및 관세율

	무역증가율 (2006-2009)	단순평균관세율	가중평균관세율	국경무역 순위
몽골	n.a.	4.97	5.16	155
아제르바이잔	1.4	9.01	5.06	177
아프가니스탄	n.a.	5.57	6.09	183
우즈베키스탄	-2.3	15.43	11.12	174
중국	-6.1	9.78	4.56	44
카자흐스탄	-6.4	6.16	5.06	182
키르기스공화국	-4	4.66	3.89	154
타지키스탄	2.7	7.89	6.9	179
투르크메니스탄	n.a.	5.06	2.88	n.a.
파키스탄	-8	13.46	14.66	78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2004년간 자료임
자료: World Bank Data Set(http://databank.worldbank.org, 2012년 10월 15일 검색)

<표 5>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역 집중도

	상품 집중도				지역 집중도			
	3대 품목 비중		HHI		3대 시장 비중		HHI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수출								
아프가니스탄	-	88.8	-	-	56.0	66.6	-	-
카자흐스탄	62.0	68.6	0.49	0.61	45.4	41.9	0.25	0.22
키르기스스탄	60.9	60.0	0.41	0.45	59.3	63.7	0.30	0.32
타지키스탄	77.7	79.3	0.54	0.62	77.2	77.5	0.39	0.42
투르크메니스탄	80.0	84.2	0.53	-	66.8	68.4	0.38	0.34
우즈베키스탄		60.4		0.30	29.8	47.5	0.21	0.34
수입								
아프가니스탄	-	-	-	-	44.3	54.8	-	-
카자흐스탄	11.9	13.3	0.08	0.08	59.9	57.9	0.45	0.38
키르기스스탄	24.8	29.4	0.14	0.22	47.7	66.3	0.25	0.36
타지키스탄	62.2	32.6	0.34	0.20	43.5	52.3	0.28	0.30
투르크메니스탄	7.2	-	0.08	-	40.4	50.9	0.19	0.26
우즈베키스탄	-	-	-	-	43.6	52.0	0.20	0.23

자료: COMTRADE,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of CA countries, Roman Mogilevskii(2012).

이러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은 <표 5>의 상품의 집중도와 지역의 집중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 무역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역시 관세만을 낮춘다고 원자재를 제외한 무역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6>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원자재 및 제조업 무역비중

	원자재		제조업	
	1995	2010	1995	2010
수출				
카자흐스탄	62	88	38	12
키르기스스탄	63	57	36	41
타지키스탄	84	85	16	9
투르크메니스탄	93	85	7	14
우즈베키스탄	93	61	7	36
수입				
카자흐스탄	40	18	60	82
키르기스스탄	59	45	41	54
타지키스탄	53	44	46	54
투르크메니스탄	33	11	65	86
우즈베키스탄	25	29	73	73

자료: UNCTAD 통계 2012

또한 <표 5>에서 지역의 집중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역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이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 경제협력체와 비교해서도 역내 무역비중이 낮음을 다음의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중앙아시아와 주요 경제협력의 역내 무역 비중 비교(%)

	전체 무역 대비 역내 무역	제조업 무역 대비 역내무역
중앙아시아	4.8	1.6
ASEAN	27.4	25.3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5.3	4.1
EU-27	63.7	68.3
남미	19.4	14.7

자료: Felipe, Jesus, Utsav Kumar, (2010), “The Role of Trade Facilitation in Central Asia: A Gravity Model”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628, p. 33.

<표 8> 중앙아시아 국가의 역내 무역

단위: 백만불

수출국 \ 수입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총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수출												
카자흐스탄			58.2	380.4	52.6	266.1	7.1	57	133.5	448.4	251.5 (2.5)	1151.9 (2.4)
키르기스스탄	33.4	204.5			7.4	14	2.4	4.8	89.4	257.9	132.9 (26.5)	481.2 (43.7)
타지키스탄	5.7	19.9	2.7	6.9			97.8	8.6	4.7	1.2	110.9 (14.4)	36.6 (3.1)
투르크메니스탄	5.3	150.2	23.2	2.3	29.1	75.9			6	31.5	63.6 (2.5)	259.8 (7.7)
우즈베키스탄	64.1	460	68.4	161.7	168.7	65.3	32.1	121.8			333.3 (15.3)	808.7 (14.5)
총계											892.1 (5.6)	2738.2 (4.7)
수입												
카자흐스탄			30.1	224.8	4.7	21.9	43.3	165.2	70.5	506	148.7 (2.9)	918.0 (3.1)
키르기스스탄	57.5	418.4			0	7.5	18.8	2.5	75.2	177.9	151.5 (27.4)	606.3 (8.4)
타지키스탄	82.4	292.7	7.5	15.4			29.3	83.5	185.6	71.8	304.8 (45.5)	463.4 (17.5)
투르크메니스탄	19.7	62.7	4.6	5.2	6.7	1.4			35.3	134	66.3 (3.7)	203.3 (3.6)
우즈베키스탄	146.9	493.2	98.3	283.7	107.6	9.5	6.6	34.6			359.4 (17.3)	821.0 (9.6)
총계											1030.7 (10.2)	3012.1 (5.6)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괄호안의 숫자는 수출입 대비 비중임.

이렇게 평균관세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CAREC 회원국들의 무역, 특히 역내 무역은 기대한 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이유[16]는 관세만으로 무역의 자유화가 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륙국가라는 지리적인 불리함에 못지않게 무역을 제한하는 원인을 CAREC 회원국의 무역체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9>와 같이 주요 CAREC 회원국들은 아주 자유로운 체제에서[17] 아주 폐쇄적인 국가까지 다양한 무역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편차도 크다. 일부 국가의 무역체제가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무역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무역규제로 역내 무역이 방해받아 일종의 보호주의 무역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별 부가가치세, 수입수수료 및 요금 등 부과되는 세금과 간접비용은 개별 국가의 국내산 제품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수량제한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무역을 왜곡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다.[18] 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개별 국가의 내수용 재화 생산자는 수출입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된다.

16) 물론 바자르가 활성화되면서 역내무역은 증가하였지만 관세인하 효과에 상응하는 역내 무역 증가는이루어지지 않았다.
17) CAREC 회원국 가운데 키르기스 공화국, 중국, 몽골은 이미 WTO 회원국이다.
18)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Trade," paper prepared by Richard Pomfret, Consultant, for Seventh TPCC Meeting, September 6, 2007, Manila.

<표 9> 주요 CAREC 회원국의 거버넌스 및 경제정책 체제

	정치안정지수	법의 지배지수	부패 통제	무역제한지수	비관세장벽지수
카자흐스탄	45.6	17.4	9.9	4	2
키르기스스탄	19.9	15	15.3	1	1
타지키스탄	13.1	9.2	8.9	1	1
투르크메니스탄	18.9	5.8	3.4	7	3
우즈베키스탄	9.7	7.7	5.9	9	3

자료: Kaufman, Daniel, Art Kraay, and Massimo Mastruzzi, (2005), “Governance Matters IV: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Draft.

그래서 최근에는 관세이외의 분야에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 중심으로 협력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은 주로 교통 및 물류체계의 개편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역촉진 프로그램은 통관 및 검역체계 등을 포함하는 IT기반 관세행정 현대화와 국경무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자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개인이 교역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여 구축한 바자르(Bazaar), 트랜짓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료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는 무역관련 기반 시설, 관세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 인한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성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물류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를 살펴보면 중국과 파키스탄 해안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CAREC 회원국들의 LPI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LPI의 지수가 상승하면 무역이 증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면 대다수 CAREC 회원국의 무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무역이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다. 또한 LPI 지수가 개선된다면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PI의 개선이 개별국가의 무역 증가에 끼치는 영향과 역내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표 9>,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2012년 CAREC 회원국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비교

국가	LPI 순위	LPI 점수	관세	인프라	국제 선적	물류경쟁력	적시성
중국	26	3.52	3.25	3.61	3.46	3.47	3.8
파키스탄	71	2.83	2.85	2.69	2.86	2.77	3.14
카자흐스탄	86	2.69	2.58	2.6	2.67	2.75	2.73
아제르바이잔	116	2.48	1.92	2.42	2.43	2.14	3.23
우즈베키스탄	117	2.46	2.25	2.25	2.38	2.39	2.96
키르기스공화국	130	2.35	2.45	2.49	2	2.25	2.69
아프가니스탄	135	2.3	2.33	2	2.33	2.16	2.8
타지키스탄	136	2.28	2.43	2.03	2.33	2.22	2.51
몽골	140	2.25	1.98	2.22	2.13	1.88	2.99
투르크메니스탄	114	2.49	2.14	2.23	2.31	2.34	3.51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년 자료임
자료: 세계은행

<표 11> 2007, 2010, 2012년 CAREC 회원국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및 순위

		2007	2010	2012
중국	점수	3.32	3.49	3.52
	순위	30	27	26
파키스탄	점수	2.62	2.53	2.83
	순위	68	110	71
카자흐스탄	점수	2.35	2.83	2.69
	순위	133	62	86
아제르바이잔	점수	2.29	2.64	2.48
	순위	111	89	116
우즈베키스탄	점수	2.16	2.79	2.46
	순위	129	68	117
키르기스공화국	점수	2.12	2.62	2.35
	순위	103	91	130
아프가니스탄	점수	2.08	2.24	2.3
	순위	150	143	135
타지키스탄	점수	1.93	2.35	2.28
	순위	146	131	136
몽골	점수	1.21	2.25	2.25
	순위	136	141	140

자료: 세계은행

<표 11>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등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표는 퇴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LPI 개선과 무역 증가 추정치

	전체 무역 변화	수출 증가	수입 증가
카자흐스탄	46.8	16.6	30.2
키르기스스탄	34.1	12.3	21.8
타지키스탄	62.5	11.2	51.3
우즈베키스탄	46.6	20.3	26.3
아제르바이잔	28.4	3.2	25.2
몽골	50.8	18.6	32.2

자료: Felipe, Jesus, Utsav Kumar, (2010), “The Role of Trade Facilitation in Central Asia: A Gravity Model”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628, p. 38.

<표 13> LPI 개선과 역내 무역 증가 추정치

	전체 무역 변화	수출 증가	수입 증가
카자흐스탄	100.8	49.0	51.8
키르기스스탄	88.0	51.7	36.3
타지키스탄	115.8	3.7	112.1
우즈베키스탄	103.5	70.2	33.3
아제르바이잔	95.3	26.7	68.6
몽골	115.2	4.0	111.2

자료: Felipe, Jesus, Utsav Kumar, (2010), “The Role of Trade Facilitation in Central Asia: A Gravity Model”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628, p. 39.

<표 10>과 <표 11>의 자료를 보면 LPI가 개선된다면 국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무역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PI의 개선이 CAREC 회원국 간 역내 무역은 훨씬 크게 증가시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관련 CAREC의 주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지원이 LPI의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CAREC의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주변국가의 무역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고 나가서 역내 무역의 증진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역내 공동 번영과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인프라 구축 협력에서 CAREC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도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역정책, 국경 및 통관 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세 조화이다. 앞의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국가들의 관세는 낮아졌지만 국가별 관세율이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WTO 가입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정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표 9>와 같이 상표 부착,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경 및 통관 관리 역시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경 통관 검문소의 세관 관리 절차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많은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통과화물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지체현상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물류시설, TIR[19] 봉인을 부착한 차량의 식별 불가와 그에 따른 높은 통과비용, 세관원들의 부패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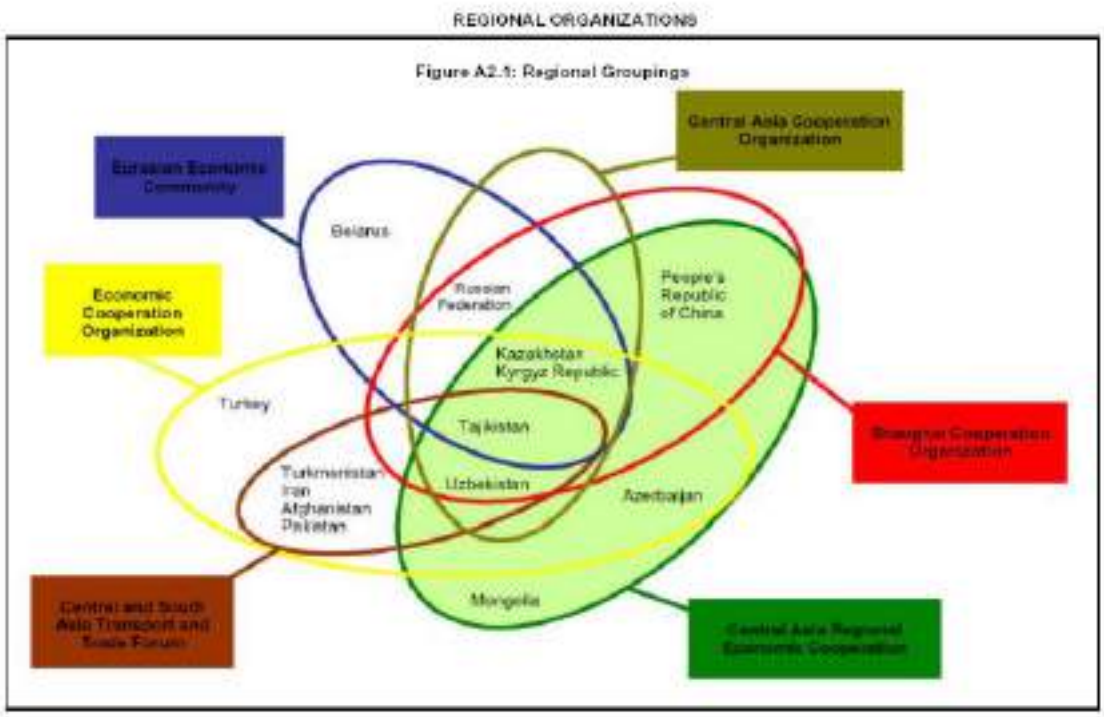
19)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CT)가 1959년에 제네바에서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과 동시에 제정한 조약. '국제 도로 운송규정에 의한 담보의 기초로써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통관조약'라고 하는 것이 정식명칭. 그 조약에 의거 발급되는 수첩을 TIR Carnet라 한다.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운송중인 트럭이 도중에 화물을 옮겨 싣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입세 과징 또는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맹국은 40개국을 넘고있다.

Ⅲ. 무역 인프라 강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CAREC의 발전 방향은 지난 10년간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지역과 이웃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가운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처럼 한층 깊이가 심화되는 협정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다소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협력체들이 있다. 향후 CAREC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수준과 층위의 협력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협력이 구체화되도록 하는데 있어 무역 인프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그림 2> 참조)

무역촉진을 위한 정책 가운데 운송 및 물류를 제외하면 관세행정 현대화 혹은 국경무역의 촉진하여 역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바자르(Bazaars)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먼저 관세행정 시스템의 현대화 관련 프로젝트들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관세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 대다수 CAREC 회원국의 관세행정은 웹기반이 아니었기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통관 및 검역 등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였다. 또한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중앙 정부의 관세청으로 보내어져 다시 정보를 지방 세관으로 내려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검역과 관련하여 값비싼 검역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무역업자와 생산자의 위험도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하거나 혹은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했고 더불어 세관원의 부패 가능성도 컸다.

<그림 2> 역내 무역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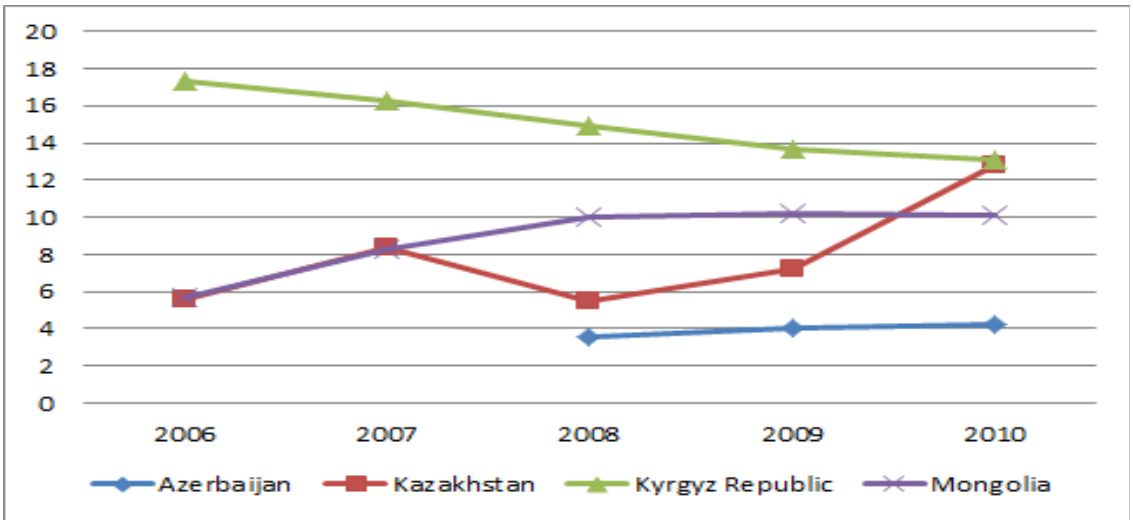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Central Asian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 Update

아제르바이잔[20], 타지키스탄[21], 키르기스스탄[22], 몽골[23] 등에서 진행된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들은 웹기반으로 이전까지 분산되었던 관세행정 업무를 중앙 집중형으로 개편하였고 무역업자의 위험정도를 두 단계 혹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신속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중국-몽골,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지역에는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들도 진행하였다.[2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 시스템, 관세 납부를 위한 관세납부 시스템, 은행 시스템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아 관세행정 현대화로 인한 이점을 최대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도미니카 공화국은 IT 기반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 관세 수입이 3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에는 관세 수입 증가는 수출 증가분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림 3> 전체 세수 가운데 관세 및 수입세 비중



자료: World Bank Data Set (검색일 2012년 10월 10일)

이러한 경향은 CAREC의 다른 회원국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는 관세행정의 효율화는 이룩할 수 있었지만 관세 행정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약도 있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REC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구축이 진행되어야 관세 행정의 현대화와 이에 따른 무역의 증가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에서 IT 기반

20) Modernization of Customs Services of Republic of Azerbaijan, (http://www.az.undp.org,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21) Customs Code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http://www.carecprogram.org,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22) Kyrgyz Republic and Republic of Tajikistan: Regional Customs Modern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http://www2.adb.org,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23) Mongolian Customs, Achievements made during 2001-2010 under the CAREC Program (http://www.carecprogram.org,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24) Mongolian Customs New Approach to Joint Customs Control (www.carecinstitute.orgm, 검색일 2012년 11월 25일)

관세행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과 이를 둘러싼 업무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통하여 제공하는 Single Window 체제를 구축하려는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표 14> CAREC 회원국의 UN 전자정부 지수(2012년)

	전자정부 지수	순위
몽골	0.5443	76
아제르바이잔	0.4984	96
아프가니스탄	0.1701	184
우즈베키스탄	0.5099	91
중국	0.536	78
카자흐스탄	0.6844	38
키르기스스탄	0.4879	99
타지키스탄	0.4069	121
투르크메니스탄	0.3813	125
파키스탄	0.2823	156
세계평균	0.497	

자료: UN E-Government 2012.

무역촉진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 통관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은 자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관세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통관 관련 서류의 조화, 검역결과의 상호인증, 공동 관세 통제 운영을 위한 협력을 2007년 Kalzhat(카자흐스탄)-Dulata(중국), 2008넌 Maykachigay(카자흐스탄)-Jeminay(중국)에서 시험적으로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29개 품목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화물의 적하목록 사본을 통합하여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기입하게 하였다.[25] 현재 이렇게 공동 관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양자 간 협의는 카자흐스탄-중국, 카자흐스탄-러시아, 키르기스스탄-중국, 몽골-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세관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관세 행정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운송 시스템과 연계시켜 교통 운송로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Corrid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CPMM)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무역촉진과 관련한 CAREC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25) Ronyan, Sun. 2009 China-Kazakhstan Joint Customs Control Work Review. Sep 12.

<표 15> CPMM 지표

TF1	국경 통관에 필요한 시간			
	평균	7.3	중간	3.6
TF2	국경 통관에 발생하는 비용(US Dollar)			
	평균	140.0	중간	85.0
TF3	Corridor 지나는 비용 (US Dollar)			
	평균	964.2	중간	647.3
TF4	CAREC Corridor의 속도(시간당 Km)			
	지체가 없는 경우	40.3	지체가 있는 경우	30.9

자료: CAREC Trade Facilitation Program Progress Report / Work Plan (2011–2012)
※ 2011년 제 1사분기 기준임.

역내 무역의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국경무역으로서 바자르이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거대한 길이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무역은 국경에서 반경 30km이내의 지역에서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재화와 용역을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CAREC 국가의 국경길이와 국경지역의 면적

	아프가니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신장)	76					
카자흐스탄		1,533				
키르기스스탄		858	1,051			
타지키스탄	1,206	414		870		
우즈베키스탄	137		2,203	1,099	1,161	
총 국경선	5,529	22,117	12,012	3,878	3,651	6,221
국경지역의 면적 비중	26	13	40	100	100	72

자료: Kaminski, B. S. Mirta, (2012), Borderless Bazaar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World Bank: Washington D.C., p. 20.

일반적으로 국경 무역은 변경지역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단순한 상업적인 목적만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문화적 이해, 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특징을 가진다. 바자르는 국경 무역의 접점으로 사용되는 통로로서 CAREC은 바자르를 역내 무역 촉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7> CAREC 회원국 간 국경 접점 지역(2007년 6월 현재)

	중국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	0	7	2	1	
아프가니스탄	0	-			8	2
카자흐스탄	7		-	11		24
키르기스스탄	2		11	-	5	11
타지키스탄	1	8		5	-	16
우즈베키스탄		2	24	11	16	-
CAREC 회원국과의 총 바자르	10	10	42	29	30	53

자료: World Bank, (2007), “Cross-Border Trade within the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ugust 20, 2007, p. 33.

바자르를 통하여 거래되는 품목은 소량의 단위로 거래될 수 있거나 무게가 크게 무겁지 않고 불과 몇 백불의 가치를 가진 품목인 경우가 많으며 농산물과 소비재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바자르에서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일부는 다시 수출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바자르를 이용하여 역내 무역 활성화를 선두주자인 키르기스스탄은 바자르를 통한 재수출이 표준화된 채널을 통한 수출보다 많은데, 2005년에는 재수출의 60%, 2008-2009년에는 80%를 바자르를 통했다.[26)]

<표 18> 키르기스스탄의 경로별 무역 흐름 (단위: 백만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표준적인 수입 총액	731	1,765	3,042	8,309	4,465	3,518
통관 화물	0	0	0	4,579	759	0
바자르를 통한 수입 총액	731	1,765	3,042	3,730	3,706	3,518
재수출 금액	449	1,445	2,575	2,970	2,970	2,591
키르기스스탄 생산 의류	282	290	398	569	649	837
키르기스스탄 과일채소	0	30	69	191	87	90
표준 경로를 통한 수출	672	794	904	1,618	1,178	1,298
표준/비표준 경로 수출	1,403	2,559	3,946	9,927	5,648	4,816
전체 무역에서 바자르 비중(%)	52	69	77	38	66	73

자료: Kaminski, B. S. Mirta, (2012), Borderless Bazaar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World Bank: Washington D.C., p. 4.

바자르를 통한 역내 무역은 표준화된 채널을 통한 무역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앙아시아 역내 국경 무역 접점으로서 바자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바자르는 들어가는 데 비자가 필요 없고 나올 때도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바자르 역시 당일 일처리가 가능하면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으며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들어가는 운송화물도 50kg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27)] 물론 바자르는 국경 보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관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는 양귀비가 타지키스탄을 경유하여 전 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행정의 현대화 시스템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세관

26) Kaminski & Mitra, 2010. Borderless Bazaar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Washington D.C.: World Bank.

27) Cannata, Christine, Central Asia: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tegration

직원의 뇌물 수수와 밀수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경 무역의 한 방편으로서 바자르의 경제적 기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큰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다음의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자르는 지방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9> 대표적인 국경 무역 바자르

	점포 수	월간 매출 (백만불) 손익분기점	월간매출 (백만불) 추정치	전체매출대비 도매비중	고용 (천명)	지역 고용 대비 비중
바라홀카 (알마티)	15,450	176	211	60	39.9	5.1
도르도이 (비쉬켁)	40,300	301	331	80	54.6	7.8
카라수 (오쉬)	10,200	58	94	80	16.3	3
코르본 (듀산베)	5,430	5	19	30	14.1	7.1

자료: World Bank, (2012), Skeins of Silk: Cross-Border Trade and Borderless Bazaars in Central Asia

일반적으로 바자르를 통한 국경무역은 비자발급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차량 통행에 제약이 있거나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운행에 큰 부과금이 발생하는 것,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이 폐쇄되었다는 점(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 국경), 마지막으로 바자르가 국경에 위치하지 않고 교역 대상국의 국경 안으로 멀리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교역에 참여하는 상대 국가의 무역업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커지는 것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역내 무역의 증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경제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국가 혹은 역내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마련은 개별국가의 경제 뿐 아니라 역내 무역을 증진시키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자르에 참여하는 무역업자들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역내 무역 촉진에 한걸음 더 나가서 개별 지역의 빈곤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바자를 통한 무역 규모는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처럼 바자르는 대단위 쇼핑 몰보다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으면서도 쇼핑 몰에 못지않은 서비스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자르가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생산과 유통을 연결고리로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도 커다란 이점이다. 또한 CAREC 회원국이 신실크로드로서 기능하게 하는 작용도 한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수입한 품목은 이곳 바자르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러시아 등 유럽지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바자르 통하여 중국제품이 중앙아시아로 수출된 규모는 2010년 105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총수입액의 1/5에 달하는 규모이다. 바자르를 통하여 거래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생산품도 연간 2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8)]

28) World Bank. 2009. Deepening Integration in Border Regions within CAREC:

<그림 3> 키르기스스탄의 드로도이 바자르 (2008년 8월 촬영)



자료: World Bank, (2009), “Bazaars and Trade Integration in CAREC Countries,” World Bank, May 13, p. 1.

<표 20> 주요 바자르 매출액

	연간 매출 (백만불)	수입 비중 (%)	외국매출비중 (%)	외국 매출액 (백만불)
바라콜카 (알마티)	1,742	80	4	70
알툰오르다 (알마티)	99	80	0	0
샹하이 (아스타나)	146	80	3	4
아르촘 (아스타나)	123	95	6	7
도르도이 (비쉬켁)	2,842	85	75	2,131

자료: World Bank, (2012), Skeins of Silk: Cross-Border Trade and Borderless Bazaars in Central Asia

2002년 이후 CAREC 회원국 역내 무역이 연평균 40%정도 성장한 것은 바자르를 통한 역내 무역이 활성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역내 무역에 가장 소극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2002년에 비하여 2006년의 역내 교역은 50% 이상 성장하였다. 2006년 CAREC 역내 무역은 2002년의 5배에 달하는 280억불이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는 수많은 무역상들이 보다 좋은 가격으로 보다 좋은 상품을 구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왕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자르는 현대화된 시장 공간으로서의 기능, 즉 거래 당사자 간 높은 신뢰도, 사적 재산권의 안전도, 정보의 흐름 정도, 경쟁의 정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경로에 못지 않게 바자르를 통한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자르를 제도화하고 역내 무역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역내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림 4> 중국에서 바자르를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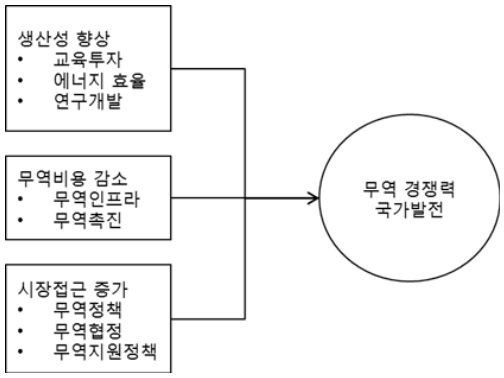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09), “Bazaars and Trade Integration in CAREC Countries,” World Bank, May 13, p. 17.

Ⅳ.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CAREC 회원국의 협력은 생산성 향상과 무역 비용 절감, 시장 접근 가능성 제고를 통한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림 5> CAREC 무역 협력의 개념



무역 인프라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는 CAREC이 건설한 주요 교통운송로에 트랜짓의 비용과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교통운송로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운송과 트랜짓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의 대다수 CAREC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향후 무역정책과 관련 행정 시스템의 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젝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역외 무역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무역 성장세가 큰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등의 천연자원의 수출성장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다각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무역의 다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CAREC의 주요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EU-15개국 간 비자원 분야에 대한 무역보완성 지수[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이외의 분야에 대한 무역다각화 가능성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지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무역 보완성 지수가 0이면 국가 간 무역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100이면 수입과 수출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의 자원이외의 수출과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의한 수입의 상호보완성은 2002-2008년 사이에 평균 7%로 안정적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EU-15와 터키의 무역 상호보완성은 2005-2008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수출과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의 수입에 의한 무역 상호보완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10%내외이다. 다만 키르기스스탄과 인도의 무역 상호보완성은 2002-2004년 16.8%에서 2005-2008년 8.6%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금, 전기 부품 등 주요 제품의 수출입의 변동 폭이 컸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과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EU-15과의 무역 상호보완성 지수는 5%내외의 수치를 보여주었다.[30] 이러한 수치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이의 수출이 기존의 주요 교역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EU-15 시장과의 무역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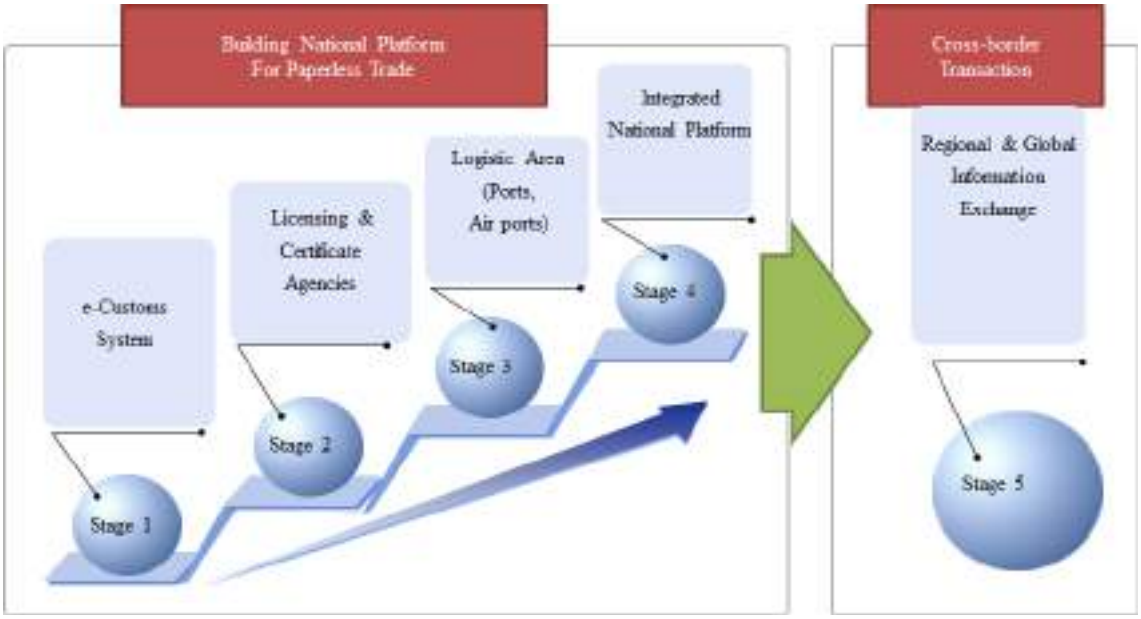
그래서 CAREC 회원국은 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여 무역의 잠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CAREC 회원국들은 국경 무역과 역내 무역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과 물류의 개선에 필요한 물적 토대와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운송과 물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 비용도 줄였다. 또한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의 진전을 통하여 세관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은 “내륙국가가 지리적으로 불리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서부대개발이라는 기치아래 신장위구로 자치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략과 조우하면서 CAREC 회원국들은 중국의 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이어주는 무역의 중계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획득하였다.

29) K국과 J국 간 무역 상호보완성은 $TC_{ik} = 100 - \sum_j abs\ (M_{ik} - X_{ij}) / 2TC$이다. 여기서 X_{ij}는 j국에서 총수출에서 i제품의 점유율이고 M_{ik}는 k국의 모든 수입에서 j재화의 점유율이다.

30) World Bank, (2010), Central Asia Expanding Trade by Connecting with Markets: Kazakhstan, Kyrgyz Republic, Tajikistan, World Bank: Wshaington D.C., pp. 14-15.

31) World Bank, (2010), Central Asia Expanding Trade by Connecting with Markets: Kazakhstan, Kyrgyz Republic, Tajikistan, World Bank: Wshaington D.C., pp. 12-13.

<그림 6> UN의 서류 없는 무역 5단계



자료: UN, 2006, Roadmap Towards Paperless Trade, ECE/TRADE/371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단계 심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역내 물류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시스템을 트랜짓을 포함하는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 관세행정 체계는 국제적인 조화를 통한 관세정보 교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한층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 행정 시스템의 주요 요소 사이의 Interoperability, Ubiquitous, Anytime Access 등을 강화하고 나가서 각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 간의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 구축은 궁극적으로 <그림 6>의 UN이 정한 서류 없는 무역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CAREC은 또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최근 수립된 <CAREC 2020>에서 CAREC의 교통운송로가 경유하는 국경 통과 검문소를 보다 쉽고 빠르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32] 이 계획에 따르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1-2015년에는 ADB가 지원하는 국경통과 검문소에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Single Window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ICT 기반의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가서 공동 관세 행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의 관세향정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Single-Window Platform으로 통합한 다음에 2016-2020년 후반기에는 국가별 Single Window를 지역차원에서 interoperability를 향상하고 국경 너머의 무역 인프라 구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33]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ICT 관련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2) CAREC, (2012), CAREC 2020: A Strategic Framework for CAREC Program 2011-2020, ADB: Manila, p. 14.
33) CAREC, (2012), CAREC 2020: A Strategic Framework for CAREC Program 2011-2020, ADB: Manila, p. 26.

<표 21> 주요 CAREC 회원국의 정보통신 사용자 비교

	이동전화 사용자 (100명당)	전화선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100명당)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자 (100명당)
아제르바이잔	108.7	18.1	50.8	10.73
카자흐스탄	142.5	26.1	44.0	7.50
키르기스스탄	104.8	8.9	19.6	0.30
타지키스탄	90.6	5.4	13.0	0.07
투르크메니스탄	68.8	10.7	5.0	0.02
우즈베키스탄	91.6	6.9	28.6	0.53
몽골	105.1	6.7	20.0	2.83

자료: World Bank Data Set(검색일 2012년 11월 26일)

무역 인프라 개선에 있어 바자르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다. 장대한 산악 등으로 구분되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에 바자르는 좋은 수단이다. 바자르의 활성화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자르를 사용하는 중개인들에게 비자 발급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허가증을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보다 용이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처럼 한쪽이 자유롭게 하여도 다른 한쪽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편으로는 비자발급 혹은 비자면제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무역에 필요한 대규모의 창고 등을 건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바자르는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바자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농산물 등은 식품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바자르가 위생적이면 안전한 거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창고를 포함한 부대시설의 구비는 매우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전체 창고 규모 5백만 m^2의 30%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조용 창고, 냉동용 창고 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두 도시를 제외한 주요 도시에는 이러한 현대화된 창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34]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데 잦은 정전 등을 이유로 자주 운영이 멈추고 있으며 낡은 시설로 인하여 현지의 무역 중개상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운송의 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내 무역에 종사하는 차량에 역내 국가 간 통용되는 국제 표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영하게 방법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내 국가 간 공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일시적으로 두 개의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동차와 트럭의 운행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와 트럭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교통 운송수단의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 역시 ICT 기

34) World Bank, (2010), Central Asia Expanding Trade by Connecting with Markets: Kazakhstan, Kyrgyz Republic, Tajikistan, World Bank: Wshaington D.C., pp. 26-28.

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각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혹은 안보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같이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 관세동맹도 존재한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 국경에 대한 통관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역시 역내 국가들과 역외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CAREC을 통한 무역 촉진 및 무역 인프라 협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하나의 네트워크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CAREC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35)]

단 한 번의 정책수단으로 CAREC의 국경 및 역내 무역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그로 인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CAREC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진행될 CAREC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역내 무역 뿐 아니라 역외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승인된 CAREC 프로젝트(백만불, 2012년 1월 기준)

분야	ADB	EBRD	IsDB	WB	Govts	Others	Total
운송	5,059	642	1,041	4,065	2,933	435	14,175
무역촉진	48	–	14	133	50	1	246
에너지	1,108	348	247	373	831	368	3,275
합계	6,215	990	1,302	4,571	3,814	804	17,696

자료: CAREC 2020: Focus, Action, Results.

35) CAREC 회원국들은 러시아도 CAREC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CAREC에 잠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는 인도, 이란, 터키가 있다.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송병구(단국대) *

Ⅰ. 들어가며

현대의 몽골지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이후 현재까지 몽골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몽골은 알려진 바와 같이 13세기 몽골대제국의 시기 이후 분열과 쇠락을 이어오다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300여 년 간 청(靑)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의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지만 1990년 민주화까지 몽골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몽골 정치의 변화 중 현대 몽골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의 몽골 정치의 변화를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큰 틀에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치체제는 두 번의 헌법 개정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몽골은 민주화 이후 다당제가 되면서 많은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게 되고, 이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 졌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몽골의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선 분석들을 통해 앞으로의 몽골의 정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정치, 외교, 경제 및 다양한 측면에서 몽골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몽골의 정치에 대한 분석은 몽골지역을 연구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이 몽골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몽골의 민주화 이후 선거분석을 통한 정치변화 분석

1. 1990년 총선

1990년 3월 인민혁명당과 민주화세력의 지도자들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인민혁명당의 일당독재를 포기와 다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다. 그해 5월 이에 관한 법률을 헌법에 추가하여 민주선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7월 29일 역사상 첫 번째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1)]

몽골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인 이 선거의 결과는 몽골인민혁명당이 61.7%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이 몽골민주당(24.3%), 몽골민족진보당(5.9%), 몽골사회민주당(5.5%),

*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교수

1) 첫 총선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졌다.

몽골자유노동당(1.2%), 몽골통일당(1.2%)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인민혁명당은 오치르바트(Ochirbat)를 몽골의 초대 대통령으로, 인민혁명당의 뱜바수렝(Byambasuren)을 총리로 각각 선출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총선 후 곧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 1992년 2월 신헌법이 발효되었다.[2] 이 헌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1992년 총선, 1993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3]

정당명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360	61.7
몽골민주당	20	24.3
몽골민족진보당	5	5.9
몽골사회민주당	5	5.5
몽골통일당	0	1.2
몽골자유노동당	1	1.2
무소속	39	0.2
총계	430	100

<표32> 1990년 총선결과
자료: www.babar.mn

당시 민주화에 대한 도시민들과 지식인, 특히 젊은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민혁명당이 압승한 것은 1988년 말부터 몽골에 일어난 민주화의 바람을 인민혁명당이 평화적으로 수용하고 자연스러운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인민혁명당 또한 야당과 같이 개혁과 개방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급속한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야당의 모습은 지방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법상의 유리함 또한 압승에 큰 요인이 되었는데 몽골인민혁명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방의 경우 인구 2.000명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반면 야당인 민주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수도 울란바타르의 경우 인구 10.000명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당시 몽골전체 인구의 25%가 수도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민혁명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 선거는 지방거주민을 포함 전 국민적인 민주화의 열의가 아직은 미성숙했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거 후 1991년 2월 인민혁명당 내부에서 보수와 개혁간의 갈등이 일어나 보수파가 대거 물러나고 개혁파가 당권을 잡는다. 하지만 곧 다시 보수와 개혁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몽골인민혁명당의 개혁파들이 몽골쇄신당을 창당해 분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도파 역할을 자처한 몽골쇄신당은 1992년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하며 양극화된 정치구도에서 소외된다.

2) 이 신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명을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변경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제를 단원제로 변경하여 기존 430석의 의석을 76석으로 축소하였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였고, 대통령은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8쪽

2. 1992년 6월 28일 총선

두 번째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도 몽골인민혁명당이 56.9%의 득표율을 얻고 총 76석의 의석 중 인민혁명당이 71석을 차지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선거에 승리한 몽골인민혁명당의 자스라이(Zasrai)가 총리로 선출된다.

정당명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71	56.9
민주연합	4	17.5
몽골사회민주당	1	10.1
기타, 무소속	0	15.5
총계	76	100

<표33> 1992년 총선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 역시 1990년 선거의 양상과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1990년 선거의 쟁점이 민주화에 있었다면 92년의 선거의 쟁점은 경제문제였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당시의 경제문제와 경제위기의 문제를 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에 있다고 했지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여당은 매스컴을 이용해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스캔들의 중심에 야당의 주무장관과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음을 집중 공략한 것이 큰 효과로 나타났고, 이 선거에서 야당이 완벽히 패배하게 된다. 반면 여러 당으로 분열된 야당은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신들의 패배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3. 1993년 6월 6일 대통령선거

몽골에서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였던 이 선거에서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 대신 투데브(Tudev)를 후보로 선출한다. 이에 몽골인민혁명당의 후보에서 탈락한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는 몽골인민혁명당을 탈당하여 재야세력인 몽골민족민주당에 입당하여 대선출마를 준비하게 되고,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로 야당세력은 대통령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몽골민족민주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녹색당 등이 민주연맹을 결성 오치르바트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투데브	몽골인민혁명당	397,057	38.7
오치르바트	민주연맹	592,836	57.8
무효표		36,077	3.5
합계		989,893	100

<표34> 1993년 대통령선거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민주연맹의 오치르바트가 57.8%의 지지로 38.7%의 지지를 얻은 몽골인민혁명당의 투데브를 누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연임에 성공하고, 야당은 대통령선거를 승리하게 되어 정권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첫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에 있다. 또 총선과는 다르게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였기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지지가 강한 도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의 승리로 국민들에게 여당 견제 심리가 적극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선거는 야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여당이 의회를 차지하여 균형 있는 정치세력 형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세력이 강해진 결과 시민사회의 활동도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 갔다. 1994년 4월 약 20명의 사람들이 정부와 의회의 부패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는데 이 시위를 계기로 정부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결국 인민혁명당 정부는 선거법개정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야당과 시민사회에 약속한다. 또 이 시기 위와 같은 시위 외에도 선거 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각 직종의 노조와 비정부기구 등 이익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야당이 승리한 대통령선거는 몽골시민사회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결과는 다음 총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1996년 6월 30일 총선

야당들은 이전 대통령선거에서의 경험을 통해 야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결과 총선을 앞두고 1996년 1월 몽골민족민주당과 몽골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연합을 선언하고 3월 몽골녹색당과 몽골종교민주당이 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정식으로 '몽골민주연맹'이라는 연합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로서 1996년 총선은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민주연합의 양당구도로 형성되었다.

정당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25	32.9
몽골민주연맹[4]	50	65.8
몽골전통통일당	1	1.3
총계	76	100

<표35> 1996년 총선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연맹의 압도적 선거승리로 공산혁명 이후 75년 만에 몽골인민혁명당의 집권을 끝내고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민주연맹은 총 76석 중 50석을 차지하여 과

4) 1996년의 몽골민주연맹은 몽골사회민주당, 몽골민족민주당, 몽골종교민주당, 몽골녹색당이 연대한 야당연합이었다.

반을 훨씬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만들어 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연맹은 몽골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예를 들어 국영언론의 민영화, 연금개혁, 교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몽골사법제도 개혁 등등에 대한 정책제시가 주요했다. 이에 반해 몽골인민혁명당은 집권기 동안 5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15%가 넘는 실업률로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에 패인이 있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몽골민주연맹은 선거 후 언론과 주택, 공기업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급진적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개혁정책들의 시행은 몽골의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몽골인민혁명당 출신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 일부 국민들과 몽골인민혁명당은 이러한 급진적 개방정책이 오히려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할 것을 우려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5)]

위와 같은 개혁의 속도조절에 대한 양당 간의 견해차는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 1997년 5월 18일 대통령선거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바가반디(Bagabandi) 국가대회의 대변인을, 민주연맹에서는 현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고,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치르바트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바가반디	몽골인민혁명당	597,573	60.8
오치르바트	민주연맹	292,896	29.8
곰보자브	몽골통일전통당	65,201	6.6
합계		955670	97.2

<표36> 1997년 대통령선거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어 민주연맹의 오치르바트는 재선에 실패하고 권력의 한 축을 야당인 인민혁명당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예상과는 판이한 결과는 낳은 이 선거는 민주연맹이 1996년 총선승리 후 추진한 급진적 개혁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그러한 개혁정책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인민혁명당 측에서 잘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한 것이 주요했다. 특히 수입관세 철폐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했는데 이와 같은 여론은 민주연맹 측의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등한시 한 결과이며, 그 결과가 선거에 나타난 것이다.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의회는 민주연맹이 장악하고 있어 권력이 양분되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었고, 또한 안정된 양당제가 더욱 더 굳건해 지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연맹과 시장 개입적 정책을 추진하는 몽골인민혁명당이 정치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게 됨으로써 한층 발전된 정치체제가 형성된다.

5) 금희연, 「몽고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2008.

하지만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민주연맹은 각기 다른 정당과 정파 간에 권력투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상황은 빈번한 내각교체와 정국불안을 유발시키는 결과는 초래한다. 민주연맹의 이러한 정국불안 초래는 곧 국민경제의 불황과 경제위기 극복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다음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6. 2000년 7월 2일 총선

민주연맹은 정당과 정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급기야는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해체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된다. 몽골사회민주당은 연맹을 이탈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로 하고, 몽골민족민주당은 몽골민주당으로 재 창당하였다.

정당별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72	50.2
몽골민족민주당	1	13
몽골신사회민주당	1	10.7
몽골시민의지당, 몽골녹색당	1	3.6
몽골사회민주당	0	8.9
몽골공화당	0	4.07
몽골민주당	0	1.7
무소속	1	2.7
합계	76	100

<표37> 2000년 총선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의 결과는 집권 민주연맹 측에 상상도 못할 참패를 안겼고, 몽골인민혁명당은 총 76석 중 72석을 석권하는 완벽한 승리로 1996년 총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성공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연맹은 잦은 권력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로 결국 선거에 참패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인민혁명당의 완승은 민주연맹의 집권기 동안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국민들의 반감이 무척 컸음을 잘 나타낸다. 특히 개혁정책 중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완벽하게 이반하게 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실업률이 50%가지 치솟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4번의 내각교체가 있었을 정도의 민주연맹의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인해 정국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도 큰 요인의 작용했다. 이러한 정국불안은 결국 총선 전 여권의 분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총선에 승리한 인민혁명당은 엥흐바야르를 총리로 임명하고, 몽골인민혁명당의 신정부는 시장경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등 정부의 개입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1999년 12월 24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6] 2000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집권 인민혁명당은 법률의 위헌만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정행

6)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

위에 관여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엥흐바야르 총리 주도하에 12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단독처리 발효시킨다. 하지만 총리 주도하에 발효시킨 헌법개정안은 같은 당의 대통령인 바가반디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인민혁명당 내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개정안을 관철시킴으로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엥흐바야르 총리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향후 2009년 대선에 실패할 때까지 약 10년간 몽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사법부, 대통령 간의 서로 다른 견해는 많은 국민들이 초거대 정당인 인민혁명당 정권의 국회에 대한 견제 심리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그것은 다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2001년 5월 20일 대통령선거

인민혁명당은 현재의 대통령인 바가반디를 대통령후보로 재 선출하고, 몽골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곤직도르지(Gonzigdorj)를 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바가반디	몽골인민혁명당	581,381	58.13
곤지그도르지	몽골민주당	365,363	36.53
다슈냠	시민의지당	63,735	3.37
합계		1,010,479	98.03

<표38> 2001년 대통령선거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 현 대통령이 57.9%의 득표율로 4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에 처음으로 성공하고, 몽골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출신인 곤지그도르지는 36.38%의 득표율로 선거에 패배하였다.

1년 전 인민혁명당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총선에서의 분위기가 대통령선거에도 계속 이어졌다. 즉 지난 민주연맹 정부의 과오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연이은 총선과 대선 승리로 인민혁명당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고, 향후 인민혁명당은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8. 2004년 6월 27일 총선

선거 전 민주세력들은 분열로 인한 패배의 교훈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몽골민주당, 몽골시사회민주당, 시민의지당 등의 야당세력들을 통합하여 '조국민주연합'이라는 야당연합단체를 탄생시킨다.

정당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36	517,443	47.3
조국민주연합	35	474,977	44.7
몽골공화당	1	14,819	1.47
무소속	3	36,543	3.9
기타	0	28,814	2.63
합계	76	1072596	100

<표39> 2004년 총선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집권여당과 야당연합인 조국민주연합의 치열한 정권 재탈환의 승부는 선거결과 양 진영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무소속 포함 모두 합쳐도 4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35석으로 증가한 반면,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72석에서 36석으로 반 정도가 줄어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인 인민혁명당은 단독 정부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서 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번 선거는 우선 국민들이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몽골인민혁명당인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통합된 민주세력이 야당세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였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 개정과 관련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엥흐바야르 총리의 내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몽골인민혁명당은 의회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여 단독으로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민주연합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여야만 했다. 2004년 9월 22일 국가대회의에서 내각의 조각을 승인하고 양당은 교대로 총리를 맡기로 합의를 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총리는 민주연합의 엘벡도르지(Elbegdorj)가 국회의장은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가 맡기로 결정한다. 연립내각인 만큼 총리의 임기는 2년으로 여야가 교대로 하고, 장관급 18명을 여야 동수로 9명씩 임명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2004년 6월 총선에서 선전하고 인민혁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민주연합은 다음 해인 2005년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내분 끝에 해체하게 되고 이후 연합을 이탈한 의원들의 인민혁명당 합류로 정권은 다시 인민혁명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야당의 분열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교묘히 조장하고 유도한 인민혁명당의 전략이 성공한 측면도 있다.

9. 2005년 5월 22일 대통령선거

몽골인민혁명당은 대선후보로 전임총리이자 현 국회의장인 엥흐바야르를 후보로 내세우고 야당인 민주연합은 후보문제로 분열을 일으켜 결국 몽골민주당과 몽골공화당 몽골조국민주당에서 각기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후보자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엥흐바야르	몽골인민혁명당	485,730	54.2
엥흐사이항	몽골민주당	184,743	20.2
자르갈사이항	몽골공화당	129,147	14.1
에르덴바트	몽골조국민주당	105,171	11.5
합계		914,791	100

<표40> 2005년 대통령선거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야당이 뿔뿔이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결과는 당연히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 후보가 과반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 권력을 나눠 먹기 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측면이 있었고, 이에 여야에 모두 실망한 국민들은 분열된 야당보다는 차라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동안 총리직과 국회의장직을 역임하면 몽골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던 엥흐바야르가 그 권력을 이용 결국 대통령의 직위까지 오르면서 몽골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 후 2006년 1월 11일 민주당 출신 엘벡도르지 총리와 10명의 내각각료가 연합정부의 비효율적 운영과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2004년 총선 후 유지되어 왔던 연립내각이 붕괴된다. 민주연합이 해체되자 인민혁명당은 연립내각의 상대방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내각을 해산하고, 2006년 2월 엥흐볼드(Enkhbold)총리를 수반으로 인민혁명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을 내각에 참여시켜 명분을 쌓는다.

2007년 11월 엥흐바야르 대통령과 엥흐볼드 총리간의 권력 갈등 구도에서 엥흐바야르가 지지하는 바야르(Bayar)총리가 인민혁명당당수 및 총리로 선출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엥흐볼드 총리 세력의 성장을 두려워한 엥흐바야르 대통령 쪽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

10. 2008년 6월 29일 총선

엥흐바야르 대통령을 위시한 오랜 기간의 인민혁명당 정권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2007년 선임된 바야르 총리의 청렴한 이미지가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인민혁명당의 2000년 이후의 계속된 집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크게 조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7]

7)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정당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46	60.52
몽골민주당	27	32.52
시민의지당	1	2.32
민주연합	1	2.32
무소속	1	2.32
합계	76	100

<표41> 2008년 총선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에서는 선거결과가 당초 예상을 뒤집고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몽골민주당의 엘벡도르지 대표는 7월 1일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몽골의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어 갔다.

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약 6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부정선거규탄 시위를 일으키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자들의 시위는 점점 폭력시위로 변해가 급기야는 여당인 인민혁명당의 당사에 침입해 방화를 일으키는 격렬한 시위로 번져갔다. 이에 경찰은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급기야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7월 1일 몽골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비상사태 선포 후 조기에 질서가 확보됨에 따라 7월 5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이후 2008년 7월 23일 제 5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신정부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내걸고 의원선서를 거부하여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 결국 인민혁명당 측에서 수석부총리 1명과 장관 5명을 민주당 쪽에 할애하기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2008년 9월 19일 여야 합의 하에 신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11. 2009년 5월 24일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 전 몽골의 정국은 2008년 총선의 부정의혹과 비상사태, 시위자체포, 사망자발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은 여당인 인민혁명당에 좋지 않은 선거 분위기를 갖게 하였다. 이 선거에서 여당은 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연임에 도전하였고, 야당은 민주당의 엘벡도르지로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선거승리의 발판을 이루어 냈다.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엘벡도르지	몽골민주당	562,459	51.24
엥흐바야르	몽골인민혁명당	520,805	47.44
합계		1,083,264	98.68

<표42> 2009년 대통령선거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야권통합을 이루어 낸 야당인 민주당의 엘벡도르지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현 대통령

과 집권 인민혁명당의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만들어낸 승리인 만큼 그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선거로 인해 약 10년간의 엥흐바야르의 권력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의 인민혁명당의 패배는 2008년 총선 후 부정선거 의혹과 그로 인해 촉발된 시위의 강경진압으로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고, 당시 몽골광산개발과 관련 극소수의 개발인들에게 광산의 이익이 집중되는 것과 같은 부의 독점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지난 10여 년간 총리와 국회의장, 대통령을 역임하며 엥흐바야르 대통령의 권력이 극에 달했던 것에 비추어 그의 책임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평생 민주세력으로만 한길을 간 엘벡도르지의 정치역정도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였고, 지난 총선에 용기있게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비상사태 때 여당에 강경 대응한 투사로서의 이미지도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점, 모든 야당들의 지지를 받는 단일후보였다는 점이 엘벡도르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선거 역시 도시와 지방에서의 야당과 여당의 뚜렷한 지지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은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두 후보 간의 특별한 정책적 차이가 없어 큰 정책의 변화는 없었으며,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서 당선되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있는 정치구조상 향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강하고, 소득불균형 문제, 사법제도의 개혁 등의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인민당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12. 2012년 6월 28일 총선

총선 전 여당이었던 인민당은[8]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최근 몽골의 경기가 좋고, 주요 경제수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실제 몽골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일반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외국의 원조와 자국의 자원을 해외에 수출해 들어오는 돈들이 상위 1%의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지도층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즉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10여 년 동안의 인민당 정권의 실정에 국민들이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지난 실정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어느 정도 여당에 넘기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였고, 여기에 현 대통령인 엘벡도르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의 비교적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정치적 역할은 이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주도하는 신당이 창당되어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으로 분열된 것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 전 모든 여론은 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세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었다. 그것은 우선, 세대별, 지역별 투표성향이다. 전통적으로 인민당은 노장층과 지방의 지지세가 높고, 민주당은 젊은층과 도시의 지지세가 높았다. 이 때문에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의석수가 14석이고, 지방의 의석수가 34석인 지역구 분포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민당 정권의 집권으로 부를 쌓아올린 몽골의 현 기득권층의 대부분이 인

8) 2010년 11월 인민혁명당은 당명을 '인민당'으로 개칭하였다.

민당을 지지하고 있고, 2000년대 인민당 집권 이후 급격히 늘어난 언론(방송, 신문, 인터넷매체)의 뒤에는 대부분 인민당을 지지하는 기득권층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었다.[9] 몽골 정치권은 총선 전 선거법 개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선거구제 변경서부터 지역구 조정 등 선거에서 각 당은 서로 자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 개정 선거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인민당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이 선거법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선거의 결과는 예상대로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인민당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투표율은 65.24%로 과거의 선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10]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선전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집권 인민당에 대한 오랜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과 2008년 선거에서의 공약 불이행은 물론이고 여당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

또한 이번 선거 역시 지역별 지지가 뚜렷했음을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민당은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14개 지역구 의석 중 단 1석만을 차지한 반면 지방에서는 34개 지역구 의석 중 반 이상인 18석을 차지해 지방에서의 강세를 유지하였고, 민주당은 울란바타르에서의 압승이 전체 선거의 승리에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당	울란바타르	지방	합계
몽골인민당	1	18	19
몽골민주당	11	11	22
정의연합 (인민혁명당, 전통민주당)	2	2	4
민의녹색당	0	0	0
무소속	0	3	3
합계	14	34	48

<표43> 2012년 총선 지역구 선거 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크게 주목해야할 사항은 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주축이 되어 창당된 인민혁명당의 약진이다. 인민혁명당은 전통민주당과 연합하여 정의연합으로 선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지역구 4석과 정당별 득표율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득표율 22.3%를 얻어 7석을 차지하여 총 11석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지역구 22석 비례대표 10석 총 32석으로 총 76석 중 과반수인 38석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향후 몽골 정치에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

9) 개정 선거법은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에 따라 총 의석수 76석 중 지역구를 48석(26개 선거구), 비례대표의석을 28석으로 하였다. 또 최초로 재외 몽골국민 투표를 도입하였다.

10) 몽골의 총선 선거율은 1992년 총선- 95.60%, 1996년 총선- 92.15%, 2000년 총선- 82.43%, 2004년 총선- 82.20%, 2008년 총선- 74.31% 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11) 실제로 몽골 신정부의 내각구성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인민혁명당 및 녹색당과 연정에 합의하고 부총리와 16

정당	득표율	의석수
몽골인민당	31.3	9
몽골민주당	35.3	10
정의연합 (인민혁명당, 전통민주당)	22.3	7
민의녹색당	5.5	2
기타	5.6	0
합계	100	28

<표44> 2012년 총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 결과
자료: 몽골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는 향후 몽골 정치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몽골국민 2020'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는 고용창출, 국방강화, 국민건강, 교육확대,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5개의 항목 267개 세부공약이 있다. 이 중에서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통해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강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분간은 몽골의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년 2013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엘벡도르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정부는 앞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이다.

Ⅲ. 향후 몽골 정치의 전망

1. 민주당 중심의 연립내각 구성

올 해의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과반확보에는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해야만 했고, 그 대상은 정의연합(인민혁명당과 전통민주당의 연합)과 민의녹색당이 되었다.

몽골 국회는 먼저 알탄호약(Altankhuyag) 민주당 총재를 제 27대 몽골총리에 임명하고고, 알탄호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몽골 내각구성을 확정하였다.

개 부처 중 재무부, 보건부, 자원에너지부를 인민혁명당에 할애하였다.

	장관명	부처	소속정당
1	N.Altankhuyag	국무총리	민주당
2	Ch.Saihanbileg	내각총무처장 (장관 급)	민주당
3	D.Terbishdavga	부총리	정의연합
4	L.Bold	외교부	민주당
5	Kh.Temuujin	법무부	민주당
6	N.Batbayar	건설 도시계획부	민주당
7	A.Gansukh	도로 교통부	민주당
8	D.Gankhuyag	광업부	민주당
9	Ya.Sanjmyatav	노동부	민주당
10	S.Erdene	인적개발 사회복지부	민주당
11	S.Bayartsogt	경제개발부	민주당
12	L.Gantomor	교육 과학부	민주당
13	Ts.Oyundari	문화 체육 관광부	민주당
14	Kh.Battulga	산업 농축산부	민주당
15	D.Bat-Erdene	국방부	민주당
16	S.Oyun	환경 녹색성장부	민의녹색당
17	M.Enkhsaikhan	재무부	정의연합
18	N.Udval	보건부	정의연합
19	M.Sonompil	에너지부	정의연합

<표45> 2012-2016년도 몽골 내각 구성 및 장관
자료: 몽골정부기관

민주당의 이번 연립내각 구성은 앞으로 몽골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야당인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인민혁명당과의 연합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인민혁명당은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현 인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시점에서 이에 반발해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는 전혀 그 노선이 다르며, 오히려 야당인 인민당보다도 더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며, 민주당은 인민혁명당과의 연립내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이 된다.

우선 두 당은 경제정책 특히 자원개발에 있어 매우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했던 인민당의 자원개발 정책을 비판하며 외국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공약하였고 앞으로의 자원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인민혁명당은 인민당과 같이 최대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장 당면한 양당의 문제는 역시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대통령 엥흐바야르이다. 연립내각 구성 이후 엥흐바야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인민혁명당과 전통민주당은 법원 판결의 불공정성에 대한 성명을 연일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부패의 대표격인 엥흐바야르의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민주당이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앞으로 몽골 정치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민주당과 인민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군소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76석의 의석 중 28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인민당과 함께 몽골 정치를 양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인 인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총선 후 개원국회가 인민당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일이 단적인 예다.[12)]

두 당은 국내 정치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 중 몽골의 주변국 및 강대국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인민당은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국가성장과 국민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몽골 스스로의 힘으로 자원 개발을 주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자원 관련 법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주당은 광산의 신규탐사허가의 발급 금지를 5년간 다시 연장하고 자원과 금융 등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부투자 한도를 최대 49%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한 자국 보호주의적인 경제정책은 여론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당장 현재 몽골주도의 경제개발과 자원개발은 매우 요원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국민여론을 의식한 보호주의적 경제개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구 인민당 정권의 실리 위주의 중립외교 노선이라는 기본 입장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민당 정권이 중국과의 외교와 경제개발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민주당 정권은 인민당 정권보다는 조금 더 대미 외교와 제 3의 이웃국가인 일본, 한국, 유럽 등 서방국들과의 외교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13)]

Ⅳ. 나오며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 낸 몽골의 현대 정치는 현재의 몽골을 이루는 근간이다. 몽골이란 곳이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이기에 몽골에 대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에 대한 자료도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1990년 이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에 이은 동구권의 붕괴에 맞물려 몽골의 민주화도 다수의 서방 학자들에게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수의 몽골 정치·외교에 관한 논문들도 이들 서방학자들이 몽골의 민주화 이후에 연구한 것들을 참조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후의 몽골 정치와 외교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이와 같거나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몽골의 정치에 대해 몽골 측의 자료를 통한 연구가 무척 아쉽다.

몽골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민족이자 국가이다. 또한 현대의 몽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 하나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해 급변하는

12) 인민당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사무총장의 선출에 따른 계파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져 개원국회에 불참하였고, 인민당으로 인해 국회의 개원이 늦어져 국정에 막대한 차질 초래했다. 또한 인민혁명당의 국회의장 선출에도 오랜 기간 국회에 등원하지 않았고, 인민혁명당의 일부 의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국회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기도 하였다.

13) 제 3의 이웃국가란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제 3의 이웃'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제 1, 제 2의 외교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이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을 지칭한다.

동북아의 정세를 감안하면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으며,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몽골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몽골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09.
금희연, 『통일전략』, 「몽고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2009.
양길현, 『國際政治論叢』,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1998.
외교통상부 동북아3과, 『몽골개황』, 2011.
이재형, 이시영, 두게르 간바타르,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이정진, 『新亞細亞』, 「몽골의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정책 방향」, 2009.
J. Amarsanaa, Sodnom Doljin, 『몽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영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11.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Ⅴ』, 2003.

몽골정부기관 홈페이지 : http://www.pmis.gov.mn/
몽골 대법원 : http://www.supremecourt.mn/
몽골 대통령 : http://www.president.mn/mongolian/
몽골 국회 : http://www.parliament.mn/
몽골 중앙선거위원회 : http://www.gec.gov.mn/
몽골 헌법재판소 : http://www.conscourt.gov.mn/
인민당 : http://www.buleg.com/
민주당 : http://www.democrats.mn/
바바르닷컴 : http://www.babar.mn/
GoGo Medee : http://news.gogo.mn/